

한국직업전망

2021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발간사



올해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자연의 역습에 안타까운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학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의 눈망울로부터, 삼복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엄동설한 속에서도 차가운 알코올을 손에 비비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직업의 세계에서든 근본적인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먼 훗날의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빨리 일과 직업의 세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던 항공산업의 종사자들은 땅에 발이 묶여 비행기가 발명된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체감을 전제로 하는 공연산업이나 여행산업의 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과 데이터, 통신과 유통이 융합된 플랫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일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의 기회를 붙잡고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함정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본서를 참고해서 직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끊임없이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처럼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업 및 진로 개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1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직업전망은 199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되었고 이번 판부터는 주요 직종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매년 발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에 대한 직업정보(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길, 적성과 흥미 등)와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전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2021 한국직업전망』은 앞으로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 관련된 진로와 전공 선택으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향후 유망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청년, 구직자, 평생 취업 능력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노동자와 직업훈련교(강)사, 진로지도와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진로상담교사나 직업상담원에게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기에 직업과 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일구려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끝으로 『2021 한국직업전망』의 발간 과정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분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신 현장 종사자들과 자문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이들의 의견을 충실히 조사해준 조사업체 관계자, 편집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본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디자이너들, 그리고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코로나바이러스-19의 엄혹한 환경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 영 돈

Contents

●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06

01

경영·회계·사무

01 기업고위임원(CEO)	20	16 법원공무원	86
02 정부·공공행정전문가	24	17 행정공무원	89
03 인사·노무 전문가	28	18 경영지원사무원	93
04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34	19 무역사무원	99
05 회계사	39	20 운송사무원	103
06 세무사	44	21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08
07 관세사	49	22 생산 및 품질 사무원	113
08 감정전문가	54	23 고객 상담원	118
09 광고 및 홍보전문가	59	24 병원코디네이터	121
10 상품기획자	64	25 회계 및 경리사무원	125
11 조사전문가	68	26 안내 및 접수사무원	129
12 행사기획자	72	27 비서	133
13 조세행정사무원	77	28 속기사	137
14 관세행정사무원	80	29 행정사	140
15 병무행정사무원	83	30 취업알선원	144

02

금융·보험

01 투자 및 신용분석가	150	06 은행사무원	175
02 자산운용가	155	07 증권사무원	179
03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160	08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182
04 증권 및 외환딜러	165	09 출납창구사무원	186
05 손해사정사	170	10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190

03

교육 및 연구

01 대학교수	196	05 유치원교사	217
02 중등학교교사	201	06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222
03 초등학교교사	207	07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28
04 특수학교교사	212		

04

법률·경찰·소방

01 판사 및 검사	234	06 경찰관 및 수사관	255
02 변호사	238	07 소방관	260
03 법무사	242	08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	265
04 변리사	246	09 위관급장교 및 부사관	270
05 법률 관련 사무원	251		

05

보건의료

01 내과 의사	276	18 약사	344
02 외과 의사	280	19 한약사	348
03 성형외과 의사	284	20 간호사	351
04 산부인과 의사	288	21 보건교사	356
05 이비인후과 의사	292	22 영양사	359
06 안과 의사	296	23 임상병리사	363
07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00	24 방사선사	367
08 소아청소년과 의사	304	25 치과기공사	371
09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308	26 치과위생사	375
10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312	27 물리 및 작업치료사	379
11 비뇨기과 의사	316	28 임상심리사	383
12 피부과 의사	320	29 재활공학기사 및 치료·재활사	387
13 가정의학과 의사	324	30 응급구조사	392
14 일반 의사	328	31 안경사	396
15 한의사	332	3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00
16 치과 의사	336	33 간호조무사	404
17 수의사	340		

Contents

06

사회복지

01 사회복지사	410
02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415
0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420

04 시민단체활동가	424
05 보육교사	428

07

문화예술

01 소설가	434
02 영화시나리오작가	438
03 방송작가	442
04 번역가	447
05 통역사	451
06 출판물기획자	455
07 신문기자	460
08 방송기자	466
09 잡지기자	471
10 학예사	475
11 문화재보존원	481

12 사서	485
13 기록물관리사	489
14 화가	492
15 조각가	497
16 사진작가 및 사진사	502
17 만화가	506
18 만화영화작가(애니메이터)	511
19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515
20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519
21 가수 및 성악가	523
22 무용가 및 안무가	528

08

디자인 및 방송

01 제품디자이너	534
02 패션디자이너	539
03 실내장식디자이너	543
04 시각디자이너	548
05 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	552
06 캐드원(제도사)	556
07 감독 및 기술감독	560

08 배우 및 모델	567
09 아나운서 및 리포터	574
10 영화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	578
11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584
12 경기감독 및 코치	588
13 직업운동선수	592
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596

09

아·미용 및
개인서비스 경비

01	이용사	604	15	음료조리사 및 바텐더	663
02	미용사	608	16	식당서비스원(패스트푸드준비원, 홀서빙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음식배달원)	668
03	피부 및 체형관리사(피부미용사, 체형관리사, 네일아티스트)	612	17	경호원	671
0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617	18	청원경찰	675
05	반려동물미용사	621	19	시설 특수 경비원	678
06	수의사 보조원	625	20	경비원(건물관리원)	682
07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결혼상담원, 웨딩 플래너, 혼례종사원)	629	21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685
08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634	22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688
09	여행서비스 종사자(여행상품 개발자, 여행 사무원, 여행안내원, 자연 및 문화해설사)	638	23	청소원	691
10	항공기객실승무원	644	24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694
11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648	25	방역원	697
12	숙박시설서비스원	652	26	세탁원	700
13	오락시설서비스원	656	27	가사도우미	704
14	주방장 및 조리사(주방장, 한식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659	28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707
			29	주차관리 안내원	710
			30	검표원	713

●	일러두기	716
---	------	-----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1. 직업 대분류별 고용전망
2. 일자리 전망 결과 요약((세)세분류 수준)
3. 일자리 변동 요인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1. 직업 대분류별 일자리 전망¹⁾

■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9-2029」(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향후 10년간(2019~2029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연평균 1.0%), '서비스 종사자'(연평균 1.0%), '단순노무 종사자'(연평균 0.4%), '사무 종사자'(연평균 0.3%)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취업자 비중 2019년 20.5% → 2029년 21.9%) 직군은 취업자 증가율(1.0%)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량(567천 명)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 취업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 종사자' 직군은 2014~2019년 동안 가장 높은 취업자 증가율(연평균 2.3%)을 보였는데, 2019~2029년(연평균 1.0%)에는 이러한 추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생산직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직군의 향후 10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각각 -0.3%, -0.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설비의 자동화와 기계화로 향후 취업자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2019년 동안 가장 높은 취업자 감소율(연평균 -0.8%)을 보인 '판매 종사자' 직군은 향후 10년 동안에 감소 폭이 미미하게 둔화(연평균 -0.6%)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종사자' 직군은 2014~2019년에 2.3%의 가장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향후 10년 동안에도 연평균 1.0%의 비교적 높은 일자리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직군은 2014~2019년 동안 매년 -0.4%씩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향후 10년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지난 수십 년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9년에 4.5%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9-2029」(한국고용정보원, 2020)의 내부 자료를 정리함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표 1]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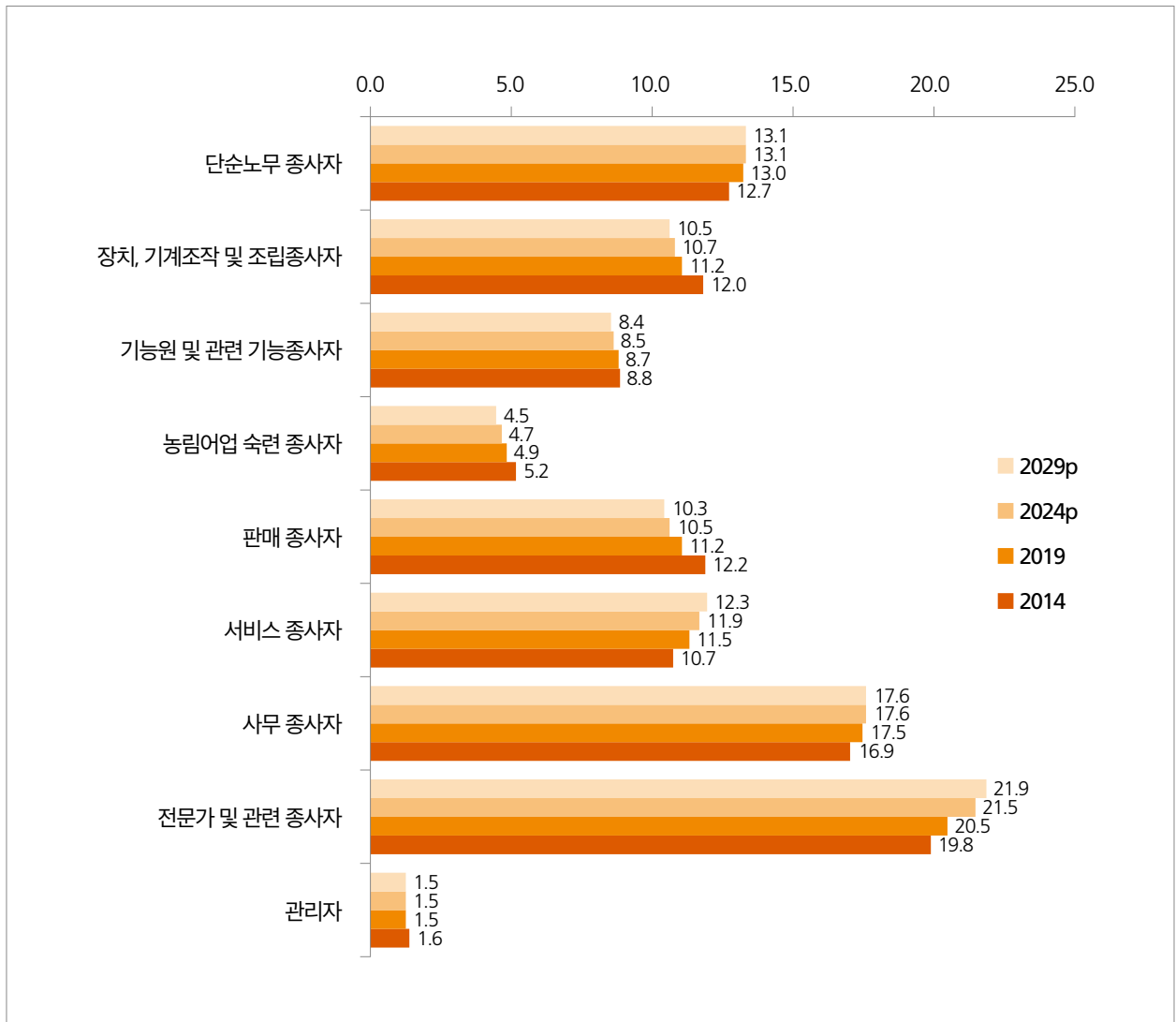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기간 증감				증감률			
	2014	2019	2024	2029	14-19	19-24	24-29	19-29	14-19	19-24	24-29	19-29
계	25,897	27,123	27,708	27,946	1,225	585	238	823	0.9	0.4	0.2	0.3
관리자	404	408	409	409	4	0	1	1	0.2	0.0	0.0	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29	5,556	5,953	6,124	427	397	171	567	1.6	1.4	0.6	1.0
사무 종사자	4,374	4,749	4,865	4,909	375	116	44	160	1.7	0.5	0.2	0.3
서비스 종사자	2,779	3,116	3,304	3,443	337	189	139	328	2.3	1.2	0.8	1.0
판매 종사자	3,154	3,030	2,917	2,866	-123	-113	-52	-165	-0.8	-0.8	-0.4	-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57	1,332	1,306	1,258	-25	-26	-47	-74	-0.4	-0.4	-0.7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90	2,372	2,368	2,345	82	-4	-23	-27	0.7	-0.0	-0.2	-0.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111	3,026	2,966	2,929	-85	-59	-38	-97	-0.6	-0.4	-0.3	-0.3
단순노무 종사자	3,299	3,533	3,619	3,663	234	85	44	130	1.4	0.5	0.2	0.4

출처 :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9-2029」(한국고용정보원, 2020)

[그림 1] 직업 대분류별로 취업자 비중 변화(2014~2029년)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9-2029」(한국고용정보원, 2020)

직업 대분류별로 취업자 비중 변화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직군은 지난 2014~2029년 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어업 숙련 종사자' 등의 직군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직군별로 취업자 비중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디지털 자동화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2. 직종별 일자리 전망 결과 종합

[표 2] 「2021 한국직업전망」의 직종별 일자리 전망 결과

구분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경영 회계 사무	사무보조원		기업고위임원(CEO)	경영·진단 전문가	
			정부공공행정전문가	노무사	
			관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조사전문가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행사기획자	상품기획자	
			조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법원공무원		
			일반행정공무원		
			경영기획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인사·교육·훈련사무원		
			총무사무원		
			감사사무원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무역사무원		
			도로운송사무원		
			항공운송사무원		
			철도운송사무원		
			수상운송사무원		
			자재·구매사무원		
			물류사무원		

구분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경영 회계 사무			생산관리사무원		
			품질관리사무원		
			안내 및 접수사무원		
			고객상담원		
			의료코디네이터		
			비서		
			속기사		
			행정사·문서대행자		
			취업알선원		
금융 보험		증권중개인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손해사정사	신용분석가		
		은행사무원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증권사무원	보험계리사		
		출납창구사무원	금융상품개발원		
			보험사무원		
			보험인수심사원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교육 연구		대학교수	중·고등학교교사	특수교육교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문리학원강사		
			외국어강사		
			컴퓨터강사		
			기술·기능계 강사		
			예능강사		
			교재교구 및 이러닝교육전문가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구분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법률 경찰 소방			법무사 및 집행관	판사	변호사
			법률관련사무원 (법무 및 특허사무원)	검사	변리사
			교도관	경찰관	
			위관급장교	소방관	
			부서관		
사회 복지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사회단체활동가	심리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보건 의료		일반의사	방사선과의사	산부인과의사	내과의사
			보건교사	소아과의사	외과의사
				마취병리과의사	성형외과의사
				약사	이비인후과의사
				한약사	안과의사
				영양사	정신과의사
				임상병리사	비뇨기과의사
				방사선사	피부과의사
				치과기공사	가정의학과 의사
				치과위생사	한 의사
				임상심리사	치과의사
				재활공학기사 (의지보조기기사)	수의사
				청능사(청능치료사)	간호사
				예술치료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놀이치료사
					간호조무사
문화 예술		방송작가	소설가	신문기자	
			영화시나리오작가	방송기자	
			번역가	잡지기자	

구분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문화 예술			통역사	학예사(큐레이터)	
			출판물기획자	화가	
			문화재보존원	조각가	
			사서	사진작가 및 사진사	
			기록물관리사	만화가	
			국악인	만화영화작가(애니메이터)	
			지휘자	작곡가	
			가수	연주가	
			성악가		
			무용가		
			안무가		
			대중무용수(백댄서)		
디자인 방송		개그맨 및 코미디언	제품디자이너	웹디자이너	
			패션소품 디자이너(의상 제외)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영상그래픽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UX/UI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방송연출가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연극 및 뮤지컬 배우	광고영상감독	
			아나운서	연극·영화·방송 기술감독	
			리포터	영화배우 및 탤런트	
			스포츠감독 및 코치	모델	
			직업운동선수	성우	
				촬영기사	
				음향·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조명기사	
				연예인매니저	
				스포츠강사	
				레크레이션전문가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구분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분장사	이용사	미용사	반려동물미용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뷰티매니저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피부 및 체형관리사	수의사 보조원 (수의간호, 수의테크니션)
		웨딩플래너	여행상품개발자	네일아티스트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혼례종사원	여행사무원	음식배달원	
		바텐더(조주사)	여행안내원	경호원	
		세탁원	자연 및 문화해설사	방역원(해충퇴치원 포함)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항공기객실승무원		
		검표원	선박객실승무원		
			열차객실승무원		
			숙박시설서비스원		
			오락시설서비스원		
			주방장		
			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음료조리사(바리스타 포함)		
			패스트푸드 준비원		
			홀서빙원		
			주방보조원(일반음식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경비원(건물 관리원)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주차관리원·안내원		

주 : 상기 일자리전망 결과는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9-2029」(한국고용정보원, 2020)와 일부 상이할 수 있는데, 이는 「2021 한국직업전망」의 일자리 전망 결과를 우선하였기 때문임

3. 일자리 변동 요인

■ 일자리 변동 요인의 8가지 범주

[표 3] 일자리 변동 요인의 8가지 범주

고용변동 영향 요인		내용
확실성 요인 (certain drivers)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거시적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국내 노동인구 변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공유경제, 핀테크 활성화 등)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예를 들면, 로봇화와 자동화, IoT,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IT 발전, 기술의 융복합화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요인(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과 에너지자원 요인(자원고갈, 국가 간 자원경쟁 등)으로 인한 (국제)규제 강화, 산업육성, 전문가 양성 등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의 복잡화, 개인화, 생활 수준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건강, 미용,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 온라인상의 소통 증대 등
불확실성 요인 (uncertain drivers)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및 국내 경기 전망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또는 국내로의 유턴 특정 분야 또는 직무의 아웃소싱, 기업 인수/합병 등
	정부정책 및 법·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규제 완화(튜닝 등), 신직업 육성 및 자격제도 신설, 대학구조 조정, 복지서비스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영향 법·제도(로스쿨 등)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한국직업전망』은 직업정보의 표준화와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변동 요인을 8개 범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 전망을 기술하였다.

일자리 변동 요인의 8가지 범주는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정부정책 및 법·제도 변화 등이 있다. 8가지 일자리 변동 요인 범주는 일자리 변동에 대한 방향의 확정성에 따라 확실성 요인(certain drivers)과 불확실성 요인(uncertain drive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나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 등의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로봇화 등 그 방향성에 이견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나 정부정책 및 법·제도 변화 등은 향후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uncertain drivers)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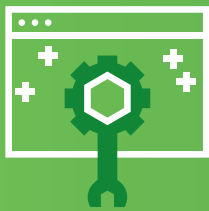
그리고 직업에 따라 일자리 변동 요인이 다르고 그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직종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디자인 직종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 변동 요인은 그 자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직업에 따라 일자리 변동 요인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변동 요인의 8개 범주는 일자리 전망과 그 요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조화된 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1



경영·회계·사무관련직

- | | | |
|---------------------------|---|-----------------|
| 01 기업고위임원(CEO) | 11 조사전문가 | 19 무역사무원 |
| 02 정부·공공행정전문가 | 12 행사기획자 | 20 운송사무원 |
| 03 인사·노무 전문가 | 13 조세행정사무원 | 21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
| 04 경영 및 진단전문가
(경영컨설턴트) | 14 관세행정사무원 | 22 생산 및 품질 사무원 |
| 05 회계사 | 15 병무행정사무원 | 23 고객 상담원 |
| 06 세무사 | 16 법원공무원 | 24 병원코디네이터 |
| 07 관세사 | 17 행정공무원 | 25 회계 및 경리사무원 |
| 08 감정전문가 | 18 경영지원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인사·교육·훈련사무원,
총무사무원, 감사사무원) | 26 안내 및 접수사무원 |
| 09 광고 및 홍보전문가 | | 27 비서 |
| 10 상품기획자 | | 28 속기사 |
| | | 29 행정사 |
| | | 30 취업알선원 |

01

기업고위임원(CEO)

기업고위임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이끄는 사람으로 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방침과 사업목표를 계획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일

기업고위임원은 기업경영의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만약 기업고위임원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경우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어 기업 운영의 성패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다.

기업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과거실적, 운영현황, 미래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방법, 재정, 인사, 훈련, 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자산관리, 마케팅, 판촉, 협력업체 및 고객 관리, 행정절차, 기타 운영관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기업 내 일반 관리자 또는 부서장들과 협의한다. 물론 기업의 일반적인 목표와 정책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업을 대표하여 정부 및 관련 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부서관리자와 사원의 임면을 결정·승인하고, 기타 기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업무에 관한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등 기업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기업소유자가 직접 최고경영자가 되어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대규모 기업은 소유자와 최고경영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다른 고위임원과의 상호협력 하에 사업체를 경영한다. 또한 기업 외부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초빙하여 경영에 참가시키는 사외이사제도도 활성화되어 있다.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기업경영을 기업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업무 환경| 기업고위임원은 잦은 회의와 모임 등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편이고 이른 아침에 출근해 일과를 체크하고 국내외 언론 및 각종 자료를 살피는 등 업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큰 공간의 개인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비서와 실무진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 내부업무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련 업체의 모임 등에 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하며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출장도 잦은 편이다.



되는 길

기업고위임원이 되기 위한 정해진 학력, 자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대부분이다. 기업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기타 경력사항이 요구되기도 한다. 보통 기업고위임원은 기업의 소유자(대주주)이거나 기업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승진을 통해 진급할 수도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아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에 채용될 수도 있다.

기업경영을 책임지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비즈니스 능력, 의사결정 능력, 정보수집 능력, 리더십, 협상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유리하다.

관련 교육으로는 기업 내에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고경영층과 부서관리자의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교나 관련 협회 등과 같은 외부기관에서도 ‘최고경영자과정(AMP : Advanced Management Program)’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기업고위임원의 입직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의 소유자(대주주) 또는 그 일가로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혹은 사원으로 입사하여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 승진하는 경우이다. 또는 정부 및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후 전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업에 스카우트되기도 한다.

중견업체에서는 직접 회사를 창업하여 최고경영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전문경영인제도, 사외이사제도 등과 같은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외부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상경계열,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 이공계열 등

■ **관련 자격** 경영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기업고위임원은 기업의 이익과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며 기업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기획하는 한편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을 대표해 대내외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능력도 요구된다.

|경력 개발| 기업고위임원은 경력개발을 위해 ‘최고경영자과정’과 같은 기업고위임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MBA 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능력을 인정받아 규모가 큰 기업체의 전문경영인으로 스카우트되기도 하고, 국내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 밖에 대학에 출강해 자신들의 전문경험과 지식을 강의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기업고위임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경영지원관리자는 2019년 약 68천 명에서 2029년 약 7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천 명(연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를 갖춘 300인 이상 종사자의 사업체는 매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을 총괄하여 이끈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의 직업인만큼 기업고위임원의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소수의 인력이 진입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 개소)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9인 이하	3,558,982	3,632,057	3,766,939	3,834,495	3,900,705	3,970,807	4,052,967
50~99명	27,164	27,976	28,773	31,126	30,808	30,284	31,235
100~299명	12,987	13,395	13,652	14,656	14,710	14,758	14,907
300인 이상	3,343	3,448	3,557	3,798	3,946	4,023	4,063
계	3,602,476	3,676,876	3,812,921	3,884,075	3,950,169	4,019,872	4,103,172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또한 해당 산업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금융업 등 각 분야에 따라 다소 고용전망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은 기업고위임원의 고용이 크게 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원과 직원 간의 정보공유방식이 수직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평적이고 디지털화된 정보공유방식을 취함으로써 중간 관리층 이상의 고위임원의 역할이 예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가 관리했던 기업 내 분야들이 소수의 관리자나 임원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함으로써 기업고위임원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입사 후 연공서열로 승진하고 결재나 업무지시 등이 주된 임무였다면 최근에는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 모바일메신저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의 업무 지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무적 전문성, 리더십, 전산 활용 능력이 기업고위임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되고 있다. 즉 기존의 업무지시, 막강한 권한을 갖는 패러다임을 넘어 향후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수평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점차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더욱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사업에 접목하면서 기업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고디지털 책임자(CD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영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글로벌 사업 확장 및 신사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 역량을 갖춘 임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고용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기업고위임원들 스스로도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국내외 경기		•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전문성 확대 • 글로벌 사업 확장 및 신사업 분야 경쟁력 확보 •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이고 디지털화된 정보공유 방식으로 인한 중간관리층 역할 감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 매년 다소 증가 	

종합하면,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수평적이고 디지털화된 정보공유방식으로 인한 중간관리층 역할 감소 등은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전문성 확대, 글로벌 사업 확장 및 신사업 분야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중요성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10년간 기업고위임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기업 대표이사, 기업체 고위임원, 정부투자기관 고위임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1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1120
- **관련 정보처** 전국경제인연합회 (02)3771-0114 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00 www.kefplaza.com
한국거래소 (051)662-2000 www.krx.co.kr

02

정부·공공행정전문가

정부·공공행정전문가는 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의 부서, 또는 정부산하단체에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일을 한다.



하는 일

정부·공공행정전문가는 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의 부서 또는 정부산하단체에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예하 직원의 협조를 받아 고위공무원 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총무, 인사, 구매 및 회계 관련 업무를 기획하거나 재정, 세무, 통상, 보건, 교육, 고용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또한 정부, 공공기업체에서 일반 행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경우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등이 이 직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급 사무관을 임용하는 행정고시의 경우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직군은 다시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정, 국제통상, 교육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전 부처에서 근무가능하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혁신처, 법무행정직류는 법제처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 직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제통상직류는 산업통상 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행정직류인 경우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주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각 부처의 정책과 실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유관부처나 기관과 협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되는 길

|업무 환경| 정부·공공행정전문가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 내에서 보내며 회의를 할 때도 많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행사나 모임, 회의 등에 참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비서를 두는 경우도 있다.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정부·공공행정전문가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공무원 임용이 되거나 민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거쳐 종사할 수 있다. 5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문형 필기시험을 거치게 되며 1차 시험에서는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를 치르게 되며, 2차 시험에서는 직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류'의 경우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을 필수과목으로, 민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치른다. '재정직류'의 경우 필수과목은 동일하며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치른다.

그 외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내부 승진을 거치거나 관련 분야에서 행정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 채용을 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유통학과, 세무·회계학과 등 상경계열,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 **관련 자격** 해당없음

|적성 및 흥미| 정부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행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 실행으로 연결되도록 추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정책담당자, 실무진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정부·공공행정전문가 중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승진기준에 따라 내부 승진을 하게 되며, 고위공직자로 퇴직 후에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관리직으로 이직하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행정전문가는 2019년 약 38천 명에서 2029년 약 4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0.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전문화, 기술화되어 가는 정부정책에서 공공행정전문가의 역할을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 공공행정을 펼칠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공공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발전, 코로나19 등 공공의료보건서비스의 수요증가 등도 행정전문가의 수요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첨단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기존의 법·제도를 시장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하는 요구가 많은 것도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역할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민간영역과 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해야 하는 만큼 정부·공공행정전문가에게도 조율과 의견수렴 역량이 더 요구될 수 있다.

최근까지 5년간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선발예정인원은 연간 250명 내외로 큰 변화없이 일정한 수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선발인원은 각 부처의 결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결정되는 만큼 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행정직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되는 추세이다. 국가직 공무원 전체의 선발규모 역시 최근 6천여 명 정도 수준으로 해마다 비슷한 규모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5급으로만 선발하던 재경직렬의 경우 7급 국가공무원으로의 선발이 2020년 부터 시작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젊은층이 많아 공무원 시험을 통한 입직경쟁은 향후에도 치열할 전망이다. 또한 일부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민간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공개채용되기도 하므로 입직에는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기술, 과학, 보건의료 등 각 전문분야별 현장전문가를 유연하게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수요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연도별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선발예정인원]

(단위: 명)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행정	143	144	150	150	148
인사조직	5	5	3	2	2
법무행정	5	7	7	4	3
재경	78	75	76	75	72
국제통상	11	11	11	10	8
교육행정	12	13	12	12	7
계	254	255	259	253	240

출처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종합하면, 공공행정의 질을 제고하고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인력의 증감보다는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의 취업자 수가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해당 분야 지식을 갖춘 행정전문가 필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 간 경쟁심화로 인한 컨설팅 수요 증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신산업 및 다양한 신생기업 등장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시장상황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 필요 증가	• 공무원의 증원보다 외부전문가와와의 협업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조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법원공무원, 국가·지방행정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1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620
- **관련 정보처** 행정안전부 (02)2100-3399 www.mois.go.kr
인사혁신처 110 www.mpm.go.kr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044)201-8264~7(원서접수기간) www.gosi.kr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local.gosi.go.kr

03

인사·노무 전문가

노무사는 노동법을 및 노동관계 전문가로서 인사 및 노무관리, 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조직의 변화 및 근로자와 관리자의 업무성과 향상에 대해 컨설팅한다



하는 일

노무사는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를 비롯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을 대리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주나 노동조합(근로자)을 대상으로 각종 노사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며 노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담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그 외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인사고과, 승진, 퇴직 등 인사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료수집, 문제점 분석 및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건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 상담 및 산재 보상 신청을 대리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리한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신청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그 외에 인력채용, 보상제도 등 기업이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업 특성을 고려한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급여 및 4대보험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노무사 중 일부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사 및 고용 관련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인사노무관리 실무 및 노동법 등 인사 및 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청 컨설팅(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각종 장려금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사 가운데 ‘국선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사업장의 각종 인사노무 관련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컨설팅의뢰자(기업)와 상담하여 요구사항을 접수한 후 컨설팅 대상 기업의 문화, 조직, 대내외 경영여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직무분석도 실시한다. 회사 및 조직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근로자나 사업담당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직자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노무사와 인적자원전문가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상담이나 컨설팅을 위해 의뢰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특히 노무사의 경우 각종 노동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고용된 노무사는 별도의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지만 노무법인이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의뢰자나 계약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편이다. 또한 참예한 노사갈등을 겪는 사업장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노사관계 등을 전공하면 유리한 편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이나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등 총 6과목에 대한 객관식,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소송법, 그리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포함하여 총 4과목에 대한 논문서술식, 그리고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할 수 있다.

3차 시험까지 합격한 후에는 실무수습을 거쳐 정식으로 공인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인적자원전문가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경영, 경제, 노사관계, 법학 등 사회계열 전공자가 많이 활동하며 기업 자체 경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거나 인적자원컨설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한다. 기업의 경우 자체 공채를 통해 채용하기도 하며 계약직 형태로 위촉하여 프로젝트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직업학과 등

■ **관련 자격** 공인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인사·노무 전문가는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노무사는 기업체(경영진)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협상능력 및 설득능력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제반에 대해 업무대리를 의뢰할 수 있는 신뢰성,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갈등 상태인 당사자들을 상대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련한 대인관계 역량과 상담능력도 필요하다. 그 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영, 경제, 행정, 법률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전문가 역시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제해결능력과 분석적 사고역량도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노무사는 개인노무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종사하기도 하며, 기업체의 경영 및 기업전략 수립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는 로펌(법률사무소),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경영컨설팅 업체, 사회적 기업,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업한 노무사는 퇴직연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종사한다. 노무사로 종사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과 연륜이 있는 노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격 취득 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꾸준한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전문가는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고용서비스전문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혹은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기업 자체 프로젝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계약, 채용하기도 한다. 또한 본인이 주로 근무했던 분야(금융, IT 등)의 전문성을 살려 이·전직 전문가로 특화하여 종사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인사·노무 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등 여러 노동 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향후 인사·노무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노무사의 경우 그동안 매년 250명 선이었던 공인노무사 선발인원을 2018년부터 300명으로 증원하기도 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고 인구 구조 내에서 10대, 중장년, 외국인 등 노동인구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기업체나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법률 문제를 자문하고 상담 및 컨설팅하는 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늘어나면서 기업 차원에서 노무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것도 노무사의 업무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전에는 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관련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융합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노무 자문을 위한 수요 및 인적자원 컨설팅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개인들이 권익보호에 적극적이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느는 것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인구의 재취업문제, 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 등 개인의 평생경력개발, 기업환경의 변화도 인사·노무 전문가의 서비스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가 좋을 경우 고용 및 노동시간 증가로 산재사고,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조정업무가 발생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직 증가, 노사분쟁 및 근로자 권리규제에 대한 업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경기에 무관하게 인사·노무 전문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기업체 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노무사를 고용하여 노사 간 중재를 맡기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 내 인력운용에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증가하고 기존 인력의 고용형태가 변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면서 인사·노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노무사의 경우 2020년 7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무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4대 보험 업무 확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행 및 대리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노무사가 대행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무관리진단’ 규정 신설로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및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고용부가 개업등록 및 등록취소업무를 하였으나 공인노무사회가 등록 및 취소업무를 하며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처럼 공인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으로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노무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징계유형에 ‘영구등록취소’가 추가되어서 노무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수준도 강화되었다.

전문직업으로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2차 응시자 대비 경쟁률도 10대 1을 상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인노무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차 응시자	2,364	2,237	3,022	3,131	3,376	3,231
최종 합격자	247	254	249	254	300	303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인적자원전문가 역시 일정 규모(1천 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제도변화에 따라, 그리고 평생경력개발의 일환으로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인생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그리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전직이 빈번해지면서 직무교육 및 전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용 및 재배치를 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점차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인적자원을 배치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전문가에게도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외국인, 중고령자 등 노동인구의 다양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이슈에 관심고조 • 평생경력개발에 대한 필요성 증가	
국내외 경기	• 경기에 무관하게 인사노무관리 이슈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근로자 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컨설팅 의뢰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산업고도화로 노무자문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노무사의 업무범위 확대 •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종합하면, 각종 노동 관련 이슈의 대두, 경기불황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 노무사의 공공부문에서의 채용확대 등으로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인적자원전문가, 헤드헌터, 경영컨설턴트, 직무분석가, 전직지원전문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2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1
- **관련 정보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01 www.kcpla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04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경영 및 진단전문가는 기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에 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경영전략, 인사 및 조직 관리, 재무 및 회계, 마케팅, 고객관리, 제품개발, 생산 및 품질 관리, 정보 및 전산시스템, 물류, 설비, 환경 등 기업경영에 관한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분야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다.



하는 일

경영 및 진단전문가는 담당하는 전문영역에 따라 전략컨설턴트, 조직컨설턴트, 재무컨설턴트, 마케팅컨설턴트, 생산품질컨설턴트, IT컨설턴트, 환경컨설턴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경영컨설팅의 업무는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문제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 자문, 지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업무의 범위는 경영진단이나 사업체분석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성과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 수행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영 및 진단전문가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컨설팅 비용, 조사 내용과 방법, 컨설팅 인원 및 소요기간, 컨설팅 수행실적 등을 담은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적합한 사람들로 팀을 꾸려 팀장의 총괄 하에 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주요 이슈를 파악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과 대안을 설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성과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제안서를 가지고 고객사의 경영진, 실무자와 함께 세부적인 토론과 대안평가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고객사가 실행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컨설팅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고객사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선 활동 시 실행력 강화와 개선 이후 성과유지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기업 자료의 분석,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는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의뢰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므로 의뢰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출장이 잦은 편이다. 대체로 정규 근무시간 동안 일하지만, 프로젝트 마감일에 임박하거나 기존 고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위해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을 때도 있다. 단기간 수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컨설턴트는 수행할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자신이 정할 수 있고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이들과의 관계유지 능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



되는 길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등 상경계열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통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학사학위로도 채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고 특히 경영학석사(MBA) 출신자들이 많다. 입사 초기에는 연구보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내부의 자체 교육을 통해 차츰 전문가로 성장해 나간다. 이들은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활용능력과 외국어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며, 세미나, 학회, 학술서적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전문 분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유통학과, 세무·회계학과 등 상경계열, 광고마케팅학과, 미디어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제학과 등 사회과학계열, 산업경영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이공계열
- **관련 자격**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경영 및 진단전문가는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므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독창성 등이 요구된다.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판단력도 필요하며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원만하게 팀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컨설팅을 의뢰한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교성과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해관계나 갈등상황을 잘 조율하는 문제해결능력도 요구된다.

|경력 개발| 경영 및 진단전문가는 경영컨설팅 업체 및 민간·공공 분야 연구소의 연구원, 기업 인수합병 관련 컨설팅회사, 품질인증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며, 독립적으로 컨설팅업체를 창업하기도 한다. 대규모 경영컨설팅 업체 중에는 외국계 회사가 많기 때문에 어학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업체에서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이며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회사에 따라 승진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이 되면 선임

컨설턴트가 될 수 있고 추가로 3~5년 이상의 경력이 쌓이면 책임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경력자들은 컨설팅업체를 직접 창업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경영 및 진단전문가는 2019년 약 41천 명에서 2029년 약 4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천 명(연평균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서도 매년 경영컨설팅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컨설팅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5,582	7,118	7,937	8,086	8,283	9,428
종사자 수	35,636	42,383	46,484	47,452	47,764	52,37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고 첨단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헬스 등)의 등장, 정보통신과 콘텐츠의 결합과 같은 융합산업의 등장으로 기업입장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업 비중이 해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이지만, 점차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컨설팅 인력 수요의 증가 가능성도 크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신규로 사업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기업인수합병, 창업 등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컨설팅을 거쳐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업운동을 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 이후 기업 간 인수합병, 매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서도 이 과정에서 회계, 사무 조직문제에 대한 처리 과정에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받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경영진 대부분은 경영쪽 전문가가 아니라 공학계열 출신이 많아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수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외 대기업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고용 지원확대, 주52시간, 유연근무확대, 최저임금제 등 고용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고용변화를 조정하고 진단할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하는 경영지도사와 기술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술지도사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신사업 개척 및 투자, 제조 공정개선, 스마트 작업장 도입, 마케팅 및 영업관리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도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합격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영지도사	180	267	235	451	197	179
기술지도사	14	12	16	11	16	10

자료: 산업인력공단, Q-net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고급정보를 확보하기 용이해지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전략을 도출하는 등 컨설팅 기업과 일반 기업 간의 정보격차가 감소하는 것은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이다. 이외에도 경기가 어려우면 신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컨설팅 수요에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실상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수준이지 경영회계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전문가에 대한 중요도와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컨설팅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수준도 높아져가는 한편, 컨설턴트 개인 역량에 따라 진단결과나 문제해결이 좌우되는 만큼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수이다. 그리고 외국계 경영컨설팅 업체의 경우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학석사(MBA)를 선호하는 등 차별화된 인력을 희망하고 있어서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경영 관련 전공 이외에 정보통신, 환경, 통계 등 다양한 전공자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직, 또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의 발전은 자료수집 수준에서 지원할 뿐 전문가의 수요는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영 전략 도출 기업 경영 정보 격차 감소
국내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 가속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간 경쟁심화로 인한 컨설팅 수요 증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융합산업 등장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 지원정책 고용 관련 제도 다변화 	

종합하면, 기업환경 및 고용 관련 법안의 다변화 등으로 기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지향적 전략수립을 위해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10년간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M&A전문가, 인적자원전문가, 마케팅전문가, 품질인증심사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2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5
- **관련 정보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1 www.kmtca.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www.sbc.or.kr
중소벤처기업부 1357, (042)481-4114 www.smba.go.kr
한국능률협회 (02)3274-9200 www.kma.or.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한국표준협회 1670-6009 www.ksa.or.kr

05

회계사

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용역 업무를 계획·관리하고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회계서류의 작성, 기업의 법인세보고서 작성, 회계감사 또는 증명을 하며 재무서류의 조정, 재무조사 및 기타 회계사무에 관한 상담을 수행한다. 이들의 업무는 크게 회계감사 업무, 세무서비스 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등이다.



하는 일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대표적 업무 중 하나로 일반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가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정보가 거짓이나 오류 없이 작성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일이다. 이때 회계사는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나타내는 정보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독립된 의견으로 제시한다. 회계감사는 기업의 요청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수합병이나 주식상장 등 특별목적에 의해 이뤄지는 감사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그 외 회계사는 회계자문을 수행하기도 하고, 상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이해나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비재무적 성과의 분석이나 보고, 준법감시나 규제 관련 서비스, 내부감사, 내부통제 및 절차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산감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문도 수행한다. 세무서비스 업무는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신고를 대신하거나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과 심사, 심판청구를 대행 및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이 세무조사나 기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을 받게 될 때 도움을 주기도 하며, 세무진단 및 관련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기도 한다. 기업의 해외투자 시 투자대상 국가의 조세감면제도 등 조세환경을 분석하여 자문을 수행하며 외국투자자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자문도 실시한다. 그 외 기업의 급여,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경영컨설팅 업무도 회계사의 수행업무 중 하나인데 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이나 경영혁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컨설팅, 재무 및 자금처리 프로세스의 최적화 지원 컨설팅, 회계 및 자금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 시장 분석과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컨설팅 등 경영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리스크관리, ERP시스템 구축, 기업가치 평가와 재산가치에 대한 감정서비스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밖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최적 절감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 탄소 경영체계의 구축, 환경 및 탄소 회계관리체계의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도 한다.

|업무환경| 회계사 중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회계사는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나 개업회계사무소 혹은 회계법인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의뢰업체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의 특성상 의뢰업체의 회계연도 정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에 업무가 과도하여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회계사는 상당수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경영컨설팅이나 회계업무 수행을 위해 의뢰받은 업체에 직접 상주하면서 일정기간 일하기도 하며 관계기관으로의 출장도 잦은 편이다.



되는 길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회계학, 세무 관련 과목, 경영학, 경제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주어진다. 공인회계사자격 원서 접수 전 대학에서의 취득 24학점인정신청과 영어성적인정신청을 거쳐야 한다.

단, 학력, 연령에는 응시제한이 없으나 시험응시 자격요건인 24학점을 이수하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 취득가능하므로 고등학생 등의 청소년은 사실상 응시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무개론, 회계학 등의 과목을 치르며,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경력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등의 과목에 대해 치른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해야만 정식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금융·보험학과 등

■ **관련 자격**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적성 및 흥미| 회계사는 회계학, 회계감사, 재무관리 등의 원리와 회계 관련 정책이나 제도, 기업환경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계나 수치를 다루게 되므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산상의 오류를 찾을 수 있는 수리능력과 분석력, 꼼꼼함이 있다면 유리한 직업이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의뢰기업(고객)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요구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와 업무 처리를 위해 직업윤리와 책임감,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력 개발 | 회계사는 주로 회계법인, 개인사무소, 학교,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 종사하며, 일반기업의 재무부서나 기업인수·합병(M&A)관련 부서, 전략기획부서 등에서 일한다. 규모가 큰 대형 회계법인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후 직접 (공동)개업하기도 한다. 보통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은 '주니어 → 시니어 → 슈퍼바이저 → 매니저'의 승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매니저는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력을 기반으로 다른 법인의 파트너로 스카우트되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에서 파트너로 승진하여 주로 회계감사업무 등을 주관하며 파트너까지 승진하는 데 보통 1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개업회계사는 업무량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별도의 은퇴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회계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회계사는 2019년 약 20천 명에서 2029년 약 2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5천 명(연평균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매년 다소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인회계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235	1,240	1,250	1,286	1,312	1,337	1,330	1,378
종사자 수	21,502	22,641	22,801	23,723	25,307	26,340	26,722	28,65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공인회계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매년 선발되므로 선발인원에 따라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00년까지 매년 500명 내외를 선발하였으나 2009년 이후 900명대를 유지하다 2019년부터 1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2021년에도 1,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외부감사법으로 표준감사시간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진행되면서 관련된 회계사 수요를 반영하여 최소선발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신외부감사법은 감사업무의 질적 제고를 기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을 증가해야 함에 따라 회계사의 수요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업무가 늘어난 주요 회계법인의 매출이 상승하고 소속된 회계사들의 처우도 좋아져 그동안 공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종사하던 회계사들도 최근 회계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많은 직업들이 국내외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존재하는 한 경기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기업들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변화에 덜 민감하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회계사 의뢰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어 향후 회계사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또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구조를 요청하는 시민의식으로 감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점도 회계사의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파트나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등 과거에는 회계감사가 선택적이던 공익부문도 시민들의 투명성 요구가 커지면서 회계감사 영역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회계, 감사 또는 회계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수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으로 그동안 업무강도가 높았던 회계법인에서 1인당 근무 시간을 감축하게 되면서 회계사 인원을 늘이는 요인일 수 있다.

[공인회계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차 응시자	3,451	2,398	2,273	2,837	2,779	2,898	2,750	3,006	3,453
최종 합격자	998	904	886	917	909	915	904	1,009	1,110

자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사이트

하지만 1천 명이 넘는 회계사를 선발하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할 때 회계사 선발인원을 늘이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그동안 대형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난 회계사의 채용을 주도해왔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채용규모를 늘이는 것도 부담이고, 더욱이 시험응시 주요 연령대인 젊은층의 인구감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휴업회계사의 적극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료에 따르면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회계업체가 아닌 민간기업체 등의 타 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휴업회계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공인회계사 등록회원 수]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회원 수	15,571	16,605	17,409	18,216	18,943	19,758	20,814	21,468	21,781
회계법인	8,690	9,193	9,414	9,652	9,999	10,501	11,332	11,966	12,184
감사반	1,229	1,268	1,296	1,343	1,382	1,414	1,428	1,437	1,449
개업	566	705	723	826	773	771	609	584	580
휴업	5,086	5,439	5,976	6,395	6,789	7,072	7,445	7,481	7,568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자료(등록회원 수 기준) ※ 매년 12월 기준이며, 2020년은 5월 기준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회계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회계, 감사와 같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직무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국내외 경기변화		• 국내외 경기침체로 회계 관련 업무 의뢰 감소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에 대한 수요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바이오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회계 관련 컨설팅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신외부감사법 등으로 회계사 수요 증가	•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정부 차원에서의 선발인원 조정

종합하면, 신외부감사법 개정 등 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감사환경의 변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감사의 수요증가 등으로 향후 10년간 회계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의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M&A전문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3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2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02)3145-5114 cpa.fss.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100 www.kicpa.or.kr

06

세무사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대해 상담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 장부를 비롯해 각종 납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



하는 일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또한 세금의 환급 신청과 과세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도 한다.

의뢰인에게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결정세액 등을 계산하여 알려주며,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고 자문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합법적 납세절차를 조언하고 대리한다.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증명이나 세금환납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결산 신고내역,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 각종 조세신고 서류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세무신고에 대한 고객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세법에 어긋난 세무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업무를 대행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나 상속문제로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아주고 납세자의 의견진술도 대신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 외 기업이나 사업장의 재무진단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무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며,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한 사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심신미약 등인 사람을 대신하여 성년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업무 환경| 세무사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세무컨설팅 등을 위해 의뢰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기도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세무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기관에 자주 출장을 가기도 한다.

세무사는 업무특성상 세금정산 시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기도 한다. 연중 상반기에 신고 기간이 몰려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로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업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나,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 혹은 계약 사업장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납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기업 등의 복잡한 세무문제를 다룰 때는 중압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되는 길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차 시험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관련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변호사(2003년 이전 자격 취득자에 한함)

|적성 및 흥미| 세무사는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비교, 분석, 숫자의 해석이 빠른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에도 능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다양한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세무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법 기본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습득과 적용역량이 점차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방 상황을 고려한 세법 적용처리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력 개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상당수는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자격 취득자 중 일부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도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안정성을 고려하여 세무직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개업 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은퇴연령 없이 종사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세무사는 2019년 약 17천 명에서 2029년 약 2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도 세무사업 사업체 수는 2011년 8,362개에서 2018년에는 1만 1,445개로 증가하였고 해당 업종의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4만 4,142명에서 6만 1,8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업의 꾸준한 증가 속에 세무사로 활동하는 인력도 증가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세무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8,362	8,927	9,293	9,889	10,460	10,804	10,966	11,445
종사자 수	44,142	46,721	48,723	51,785	56,953	58,755	60,276	61,82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업들의 리스크 방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향후 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등록회원은 1만 3,582명으로 이중 세무법인이나 개업한 세무사는 1만 2,960명이며 휴업 중인 회원은 622명이다.

과거보다 기업에서 세무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리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곳이 많아지면서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람들의 감시와 압력이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신산업, 유튜브, SNS, 공유숙박 등 사회의 복잡화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분야가 생겨나면서 과세와 세무신고에 대한 대행 및 상담 전문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해 4대보험, 급여관리 등을 비롯해 세무 및 기장업무를 의뢰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업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도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부동산을 비롯한 세법의 변화가 많아지면서 세무 전문가의 역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등과 관련한 상담과 컨설팅이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적용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세무사의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국민의 세법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세무상담 시 수수료를 내더라도 불필요한 과세에 대한 금액보상을 고려하면서 세무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탈루방지 및 투명한 과세행정을 위해 가산세를 증가시키고 국세청의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등 과세의 투명성에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세무사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차 응시자	6,691	7,218	7,240	8,435	9,327	8,937	9,327	8,713
2차 응시자	3,593	4,230	4,787	4,512	5,020	5,305	5,331	5,245
최종 합격자	654	631	631	630	634	630	643	725

자료 : Q-net

향후 기존의 기장대리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전문 세무사보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수요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의 첨단화는 장기적으로 세무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세무전문지식에 바탕하여 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등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업 내에서는 기장업무 중심으로 해당 업무를 내부 부서로 구성하지 않고 아웃소싱으로 운영하여 인건비 감소 및 전문화를 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 세무법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최근 해마다 9천여 명이 응시하고 있어 합격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하며 매년 일정 규모의 최소인원이 배출되고 있고 규모가 큰 세무법인에서는 신입 세무사보다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의 세무사무소는 수익창출이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세무사 개업 및 취업, 세무사 비교 플랫폼 등장으로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경력이 없는 1인 세무사 중심의 개업 세무사무소 간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고용안정성, 개업에 유리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점 등으로 국세청 등 공직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사람이 있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나 모두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사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무사 선발인원을 축소하여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매년 630여 명을 뽑던 세무사 선발인원은 2019년과 2020년에 700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수기장부 위주의 전산프로그램에서 자동입력구조로 전산자료도 고도화되고 있고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도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최근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업무확대를 놓고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두 전문직업에서의 직무범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운용 및 납세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대리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대체 •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 • 세무사 비교사이트 통해 수수료 경쟁 가속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 관련 리스크방지에 대한 인식 확대 • 투명한 납세로 지속가능경영 제고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의 복잡화로 세무 관련 컨설팅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 선발인원 조정

종합하면, 기업들의 리스크방지에 대한 인식확산과 컨설팅수요 증가를 비롯해 사회전반적으로 공정한 세금과 투명한 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사이트를 통한 신고 및 납부증가,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 등으로 인한 공급조정이 있을 경우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경영컨설턴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3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3
- **관련 정보처** 국세청 126 www.nts.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한국세무사회 (02)521-9451 www.kacpta.or.kr

07

관세사

관세사는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행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하는 일

각국의 수출입 및 무역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분류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 수출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관세사는 원재료나 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허가·승인·확인 등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세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고, 시시각각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이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물의 주인(화주)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화주를 대리하여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관세사는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취합하는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싣기 전 과정에서 수출할 품목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출이 가능한 물품 인지를 확인하고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서류작성은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자료 전송 후 해당 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에게 발급한다. 또한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신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스케줄 변경 신고 등의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위법하고 부당한 관세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업무를 대리하며,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관세심사의 중요 결정사항인 과세가격 결정과 세율 책정,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통관한 물건의 심사를 돕는다. 그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원산지관리, 협정관세 적용요건심사, 검증을 비롯해 FTA활용과정의 제반 사항들을 컨설팅한다. 이 밖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관세사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세관 및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리하거나 검역검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의뢰업체, 검역기관, 선·하적 장소, 관세청, 세관 등 관계기관에 외부출장을 가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업하거나 법인 등에 종사하면 일상적인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도 하고 유동적인 편이다.



되는 길

관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공에 제한은 없으나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회계원론과 회계이론에 한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내국 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 등의 과목을 치르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해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관세사(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관세사는 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 관련 법률 뿐 아니라 상품에 관한 지식,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 무역, 유통, 경제, 회계, 법률 및 외국어(영어) 등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수리력, 범주화 능력, 기억력, 정밀성과 정확함 등이 요구되며, 제시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이므로 원활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관리 능력도 중요하다.

| 경력 개발 | 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나 통관취급법인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무역 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의 관세통상팀에서 종사하는 관세사도 있다. 개업한 관세사의 경우 근무량이나 은퇴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관세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세사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1,985명의 관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같은 기간 2018년 1,951명, 2019년 1,987명인 것과 비교할 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관세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관세사 수]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월 기준)
인원	1,464	1,510	1,752	1,842	1,867	1,887	1,951	1,987	1,985

자료: 한국관세사회

또한 현재 최소선발인원인 90명 내외의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급격한 인원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관세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차 응시자	343	419	678	867	972	1,316	1,459	1,374	1,343
최종 합격자	75	75	77	90	91	90	90	91	95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글로벌 경기에 따른 물동량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면 교역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무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사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무역장벽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수출입이 활발해짐을 의미)이 확산되면서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관세사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수출인증, 원산지 검증 등이 보다 간편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의 컨설팅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547,870	559,632	572,665	526,757	495,466	573,697	604,860	542,233
수입	519,584	515,586	525,515	436,499	406,193	478,478	535,202	503,3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

통관업무의 전산화로 수입신고에서부터 송장전송, 통관신고시스템 수기입력 신고, 전산시스템 등록 등의 과정이 자동입력으로 대체되면서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며 향후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HS코드 인식과 인공지능(AI) 통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준수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대하면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에서 전달한 인보이스를 관세사가 처리할 때 전산화나 기계화로 업무효율화가 이뤄져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 수 있다.

관세에 있어 중요한 것이 리스크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 품목분류인 HS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HS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화되면서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도 관세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생산을 위한 자재, 제품 이동, 수출 통관 등이 감소하면서 업무량도 감소하고 있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관세사의 업무감소 및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관세법인의 경우 수출 감소에 따른 업무량 감소는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졸업 후 진출하는 변호사가 관세업무를 맡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회사심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변호사는 소송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관세사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젊은층의 일·가정 양립 등 복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사 복지혜택보다 더 나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관세사 유치를 위해 직원에 대한 복지를 늘이는 업체도 있다.

기업에서는 통관에 대한 리스크(잘못된 통관신고로 인한 과실 및 책임)를 줄이기 위해 관세사에 대한 업무관리를 아웃소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관세 법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실무경력이 부족한 신입 관세사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대행뿐만 아니라 FTA 및 보호무역 주의 관련 컨설팅, 수출입 관련 리스크 관리, 행정심판 관련 컨설팅(불복청구 대행 등) 등 다양한 업무에 능통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통관업무 전산화
국내외 경기	• 국가 간의 교역량 지속	• 장기 저성장, 경기침체로 소비위축, 제품이동 감소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수출인증, 원산지증명 업무 필요 • 기업 대상 컨설팅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컨설팅 수요 지속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관세사 자격취득 후 근무환경이 양호한 대기업 취업

종합하면, 국가 간 무역의 지속적 확대,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으로 관세사의 업무수요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배출되는 관세사가 100여 명 미만인 점, 업무의 전산화, 장기 경기침체일 경우 업무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관세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세무사, 회계사, 물류관리전문가, 무역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3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4
- **관련 정보처** 관세청 125 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02)547-9714 www.kcba.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08

감정전문가

감정전문가는 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처분을 목적으로 토지, 기업, 재산 및 기타 부동산, 보석, 미술품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 대상에 따라 감정평가사와 감정사로 구분된다.



하는 일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아파트, 임야 등의 부동산과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광산 등의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한다.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나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보상평가를 위해 자산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경매나 소송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한다. 기업체의 설립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자산의 감정평가를 하기도 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가 의뢰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평가업무도 수행한다. 그 외 각종 부동산의 적정가격 및 임대료 산정, 입지선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업무를 담당한다.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기본사항 검토 및 감정계획의 수립 → 사전조사 → 현장조사 → 평가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감정평가 의뢰서를 토대로 대상물의 감정목적에 고려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의 기본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감정계획을 세우며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 대상물의 내용, 성능, 구조, 현상 등 가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대상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물건의 용도, 입지조건, 주변 시설 등 지역특성을 살핀다. 또한 관련 지자체나

법원을 방문하여 법적 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대상 물건과 지역특성 확인 및 가격 조사활동을 마치면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감정방법을 선정할 다음 적절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서가 작성된 후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사후 검토를 거친다. 최근에는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관리 및 축적되고 있어서 전산을 통해 기초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감정사는 보석, 미술작품의 품질 및 가치, 진품 여부를 평가하고 주류, 향수, 음식 등을 감정하기도 하는데 감정대상에 따라 보석감정사, 미술품감정사, 음식료품감정사, 조향사 등으로 불린다. 보석감정사는 다이아몬드, 비취, 사파이어, 루비 등 각종 보석의 진위 감별, 품질과 가치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판별하며 미술품감정사는 회화, 조각, 도자기 등 미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서를 발행하고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의뢰받아 감정하기도 한다. 음식료품감정사는 주로 대형 제과업체나 음식가공업체의 개발부서, 유통업체 등에 종사하며 조향사는 화장품회사, 식품 회사, 향수회사 등의 향료 관련 부서에서 향수, 방향제, 탈취제, 화장품, 샴푸, 치약, 음료, 과자 등에 첨가된 독특한 향을 만들고 평가하며 개인 공방을 운영하며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향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감정평가사는 감정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며 현장조사를 위해 외부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 외 감정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감정을 의뢰한 물품이 있는 외부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현장방문은 대부분 자신보다는 고객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되는 길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 교육을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민법,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경제학원론, 부동산 학원론 등의 1차 시험과목과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의 2차 시험 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학력 및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 법, 경제, 회계, 부동산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지리, 부동산, 건설 및 건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보조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보석감정사는 대학에서 보석가공, 보석감정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보석감정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경험, 보석감정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하는 데 유리하며 미술품감정사는 서양화, 동양화 등의 미술실기, 혹은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조향사는 기존 향료, 천연향료를 분석하고 훈련해야 하므로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 **관련 학과** 감정평가사 :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 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등

감정사 : 보석공학과, 보석감정과, 보석귀금속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미술(사)학과, 예술학과, 식품공학과, 향수화장품학과, 피부미용과 등

■ **관련 자격** 감정평가사, 보석감정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등

| 적성 및 흥미 | 감정전문가는 감정 대상물을 감정해야 하므로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며 수치와 통계를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리능력, 꼼꼼함과 세밀함도 필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을 만나 의견을 조율해야 하므로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 경력 개발 | 감정전문가 중 감정평가사는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실무교육을 거친 후 진출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무원으로 활동경력을 쌓고 2차 시험에 합격한 후(이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자격취득 후에는 주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합동사무소, 공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은행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한다. 단, 개인사무실을 개업할 경우 영업력과 실무경험이 필요 하므로 일정기간 취업 후 업무경험을 쌓은 후에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한 자기개발이 요구되며 이 밖에 감정평가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기도 한다. 개업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 외 보석감정사는 보석 관련 도소매업체, 수입수출 및 유통업체, 보석감정업체 등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감정소 및 세공소를 창업하기도 한다. 미술품감정사는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미술감정원 등의 전문위원으로 소속되어 감정을 수행하며 경매회사의 자체 감정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연구자, 교수, 미술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감정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음식료품감정사와 조향사는 식품회사, 제과회사, 향수회사나 화장품회사 등으로 취업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감정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현재 정회원으로서 활동 중인 감정평가사는 4,211명으로 3,480명이 평가법인에, 731명이 개인사무소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감정평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보상, 공시지가 수요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의 토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재평가, 국가공공자산 실태파악 등을 위해 감정평가의 수요가 꾸준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는 불황일 경우에도 경매, 담보 관련한 부동산 매물 감정을 위해 수요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에 덜 민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점차 감정평가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 개발공급,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련 종합 서비스와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량제고도 필요하다. 또한 해외시장 관련 컨설팅을 위해 외국어능력을 갖추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기술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공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계역량 등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은 감정평가업무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등이 데이터화되어 수집가능하며 향후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어 감정평가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공개된 자료가 많더라도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감정평가의 정확성이 달라지므로 기술발전이 감정평가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점차 감정평가업무에도 첨단기술 도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렵거나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현장조사하여 감정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높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향후 감정평가사의 취업자 수는 급격한 등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욱이 매년 200명 미만의 감정평가사 자격 합격인원이 신규배출되고 있으므로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백 명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 대형평가법인 위주로 감정평가업무가 이뤄지고 있어서 중소규모법인이나 개인사무실은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가능성도 있고 감정평가사 간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348	385	451	556	596	708	750	745	786	841
종사자 수	6,551	6,633	6,746	6,681	6,896	7,358	8,286	8,291	8,225	8,42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연도별 감정평가사 및 보석감정사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감정평가사	162	153	152	170	181
보석감정사	176	139	119	136	106

자료 : Q-Net

그 외 감정전문가 중 보석감정사의 경우 최근 합성보석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가를 통한 보석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보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꾸준한 점은 전문가의 감정업무 수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석시장의 상당수가 결혼예물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혼인인구가 감소추세이고 합리적인 소비로 비용절감을 원하는 젊은층도 상당수여서 급격한 감정수요를 불러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품의 경우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아트페어나 경매, 갤러리 등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여 소장하거나 미술품에 투자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미술품 감정이나 문화재 감정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나 전업으로 종사하는 인력이 소수이고 아직까지 직업으로의 진입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종사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편으로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음식료품감정사의 경우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음식료품이 다양해지는 등 관련 인력수요가 예상되지만 진출분야가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혼인감소 및 예물수요 감소로 보석감정수요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보석 및 예술품에 대한 투자 증가로 감정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 합성보석 증가에 따른 감정수요 증가	• 부동산 관련 플랫폼 등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한 자료 수집
국내외 경기	• 불경기일 경우 경매, 담보 평가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정부정책 • 미술품감정인력 제도화	

종합하면, 공시지가 현실화,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요 증가, 연간 200명 미만의 신규 배출인원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보석, 미술품, 음식료품 관련한 감정사 역시 큰 등락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정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감정평가사, 감정사(보석감정사, 문화재감정평가사, 미술품감정사, 음식료품감정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3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41
- **관련 정보처** 한국부동산원 1644-2828 www.kab.co.kr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521-0900 www.kapanet.co.kr
한국미술감정원 (02)736-7894 www.koreanart.org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02)514-9237 www.artprice.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09

광고 및 홍보전문가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광고회사에 소속되어 직접 광고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홍보부서에서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하는 일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홍보대행사에서 특정 조직이나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광고기획단계에 참여하는 광고기획자(AE : Account Executive), 매체담당자(MP: Media Planner), 광고마케터 등을 비롯해 광고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카피라이터(Copywriter), 아트디렉터(Art Director) 등도 광고전문가에 속한다.

이 중 광고기획자는 광고계약의 체결에서부터 광고전략 수립, 광고의 제작완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전반적인 광고전략을 짜는 플래너(Planner)의 역할, 광고전략과 제작물에 대해 광고주를 설득하는 프리젠티어(Presenter)의 역할, 마케팅·제작·매체에 이르기까지 사내 스태프를 리드하며 광고업무를 추진하는 프로듀서(Producer)의 역할, 광고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권을 얻어내는 영업맨(Business Man)의 역할을 맡는다.

매체담당자는 제작된 광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매체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다. 미디어 플래너(Media Planner)라고도 불리며 세부적으로는 방송, 인쇄, 인터넷, 모바일, 기타(옥외광고) 분야로 나누어진다. 매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광고의 시청률이나 청취율, 신문, 잡지 등의 발행부수나 구독률, 인터넷이나 모바일 방문 및 다운로드 순위 등을 조사하고 광고를 보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을 수행한다.

광고마케터는 광고시장을 분석하고 광고효과를 조사하며 소비자 설문조사나 좌담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략과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카피라이터는 광고물의 의도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 광고 문안을 작성하며, 아트디렉터는 영상표현이나 시각적 효과, 특수효과, 광고제작물 편집 등을 책임진다.

기업체의 마케팅·홍보부서에서 일하는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자사의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수준과 소비자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세운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매체나 인쇄 등에 적절한 광고캠페인 계획을 세우고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광고제작 방향과 광고전략 전반을 관리한다.

홍보대행사나 광고사의 홍보(PR : Public Relations)부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주로 홍보전문가, 홍보 AE, PRAE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명성이나 이미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자산을 그 조직의 특성과 성격에 맞추어 전문적인 홍보를 담당해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기업의 언론홍보 대행이나 홍보행사의 기획 및 집행, 사보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환경| 광고계약 체결에서부터 광고가 제작되어 완료되기까지는 며칠에서 수개월까지 시간적인 제약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며,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밤샘작업이 많은 편이다.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회와 책임이 많이 부여되는 편이다. 광고나 홍보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나오는 편이어서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시간적인 제약, 새로운 발상에 대한 부담감,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되는 길

광고 및 홍보 분야에는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광고(홍보)학, 매스컴학을 비롯하여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계열의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관련 학과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 등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 광고, 마케팅, 설득, 광고, 홍보캠페인 분야의 실제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주로 광고사나 홍보대행사, 기업 및 공공기관의 홍보나 마케팅 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광고회사에서는 수시채용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졸자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전공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지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단계별 면접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다. 대학 시절 광고동아리, 온라인 홍보단 등의 활동을 하거나 사설 광고학원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고 광고회사에서 실시하는 인턴사원 제도에 참여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개인 블로그 운영이나 SNS 포스팅 역량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주요 광고사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응모하여 입상하면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관련 업체에서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광고 및 홍보 업무의 경력을 인정받아 광고사나 홍보대행사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 **관련 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정보미디어학과, 광고마케팅학과, 광고(홍보)학과, 매스컴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영상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등

[적성 및 흥미]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새로운 광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타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설득력 등이 요구되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트렌드에 민감해야 한다. 다양한 광고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팀 단위로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고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특히 광고기획자는 팀원을 비롯해 광고주, 제작자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상능력과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

[경력 개발]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광고사나 홍보대행사, 기업 및 공공기관의 홍보나 마케팅 부서 등에서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독립하여 관련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광고 및 홍보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광고 및 홍보전문가는 2019년 약 25천 명에서 2029년 약 2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1인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이미지와 생존전략 수립에 광고, 홍보는 필수적인 요소여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광고 및 홍보전문가의 고용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산업의 사업체 수는 2012년 5,804개 업체에서 2018년 7,256개 업체로 1,452개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와 매출액도 매년 증가추세이다.

[연도별 광고시장 규모]

(단위 : 개소, 억 원,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광고사업체 수	5,804	6,309	5,688	5,841	7,231	7,234	7,256
종사자 수	36,424	49,114	46,918	52,971	65,072	65,159	70,827
매출액	12,483,803	13,356,360	13,737,020	14,439,925	15,795,229	16,413,340	17,211,863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플랫폼, 유튜브 등에 기반한 디지털 광고분야의 급성장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광고 및 홍보전문가의 수요 역시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도 플랫폼이나 쇼핑몰을 통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어 이들 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며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거나 협업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브랜드나 광고모델의 인지도보다는 제품 세부 정보를 통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플루언서를 통한 바이럴 광고가 늘어날 전망이다. 판매자와 광고구매자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광고를 노출해 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매매하는 ‘프로그래머틱 광고’가 늘어나고 빅데이터 처리기술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 IT 기반의 광고인 ‘애드테크(AD-Tech)’ 등 소비자의 행동 및 특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솔루션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나 홍보가 아닌 정교한 타겟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이고 있는 한편, 마케팅 분석주기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짐으로 그 흐름을 빠르게 분석하고 광고 및 홍보에 적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광고주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던 것에서 제한된 비용으로 맞춤 광고노출을 통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AI,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마케터 인력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로 기존의 전문가의 중요한 활동분야였던 지상파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고용이 축소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전반적 소비시장 둔화는 광고 및 홍보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내 광고비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

매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	2020년 (추정)	2017대비 2018증감	2018대비 2019증감	2019대비 2020증감
지상파TV	17,453	15,517	14,219	12,352	9,510	-8.4	-13.1	-23.0
지상파DMB	72	53	44	36	35	-16.7	-19.1	-1.7
케이블 PP	18,951	18,537	17,130	16,646	16,631	-7.6	-2.8	-0.1
케이블 SO	1,346	1,391	1,408	1,275	1,369	1.2	-9.5	7.4
위성방송	283	480	511	504	503	6.6	-1.5	-0.1
IPTV	846	993	1,161	1,166	1,277	16.9	0.4	9.5
라디오	2,399	2,530	2,073	1,943	1,716	-18.1	-6.3	-11.7
신문	18,670	18,585	19,031	17,606	17,680	2.4	-7.5	0.4
잡지	4,524	4,517	4,448	4,542	4,586	-1.5	2.1	1.0
인터넷	21,731	19,092	20,554	19,614	19,109	7.7	-4.6	-2.6
모바일	19,816	28,659	36,618	45,678	54,781	27.8	24.7	19.9
옥외	10,885	10,631	13,299	13,461	13,473	25.0	2.0	-0.1
생활정보	1,579	1,702	1,713	1,623	1,737	0.7	-5.2	7.0
취업정보	344	285	570	646	654	99.9	13.4	1.2
DM	867	739	918	896	879	24.2	-2.4	-1.9
방송제작사	1,860	1,395	1,089	1,168	1,136	-21.9	7.2	-2.7
총계	11,793	12,548	134,787	139,154	145,076	5.7	3.2	4.3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9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또한 대형 광고대행사에도 빅데이터 전담부서를 두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도 함께 필요해지고 있다. 광고분야에서의 온라인 시장의 확대는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광고, 혹은 해외업체의 국내광고 등 글로벌한 광고홍보 이슈가 계속 등장함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고령인구의 증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공유경제 및 플랫폼 기반 산업증가 등 국내외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빠르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증가	• 저출산 고령화로 전반적 소비시장 둔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소비자의 가치관 및 니즈의 다양화	
과학기술의 발전	• AI,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마케터 인력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글로벌 경쟁 시대 광고 및 홍보의 중요성 증대 • 인터넷, 모바일 등의 광고 분야 확대 •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솔루션 활용	• 전통적인 광고매체 하락세(신문, TV, 라디오 등)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디지털 광고 전문회사 증가 • 공유경제, 디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구조 등장	

종합하면, 전통적인 매체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 소비자들의 가치관 및 니즈의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기반 광고시장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10년간 광고 및 홍보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광고기획자, 마케팅전문가, 시장 및 여론 조사전문가, 스포츠마케터, 카피라이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4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33
- **관련 정보처** 한국광고산업협회 (02)733-3500 www.kaaa.co.kr
한국광고총연합회 (02)2144-0750 www.kfaa.org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2)731-7114 www.kobaco.co.kr
한국PR기업협회 (02)6925-1511 www.kprca.or.kr

10

상품기획자

상품기획전문가는 소비의 구매 패턴과 소비 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매매 조건,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일

상품기획자의 업무는 신상품의 기획 발굴 및 아이디어 개발, 콘셉트의 개발, 신제품 개발 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 외 소비자의 욕구를 평가 분석하고, 소비유형과 구매패턴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신상품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생산, 개발, 구매 및 판매, 재고조정 등 상품흐름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리고 광고 및 홍보전문가와 광고 전략에 대해 협의하며, 업체의 마케팅부서 담당자와 협의해 마케팅을 위한 전략 및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이들은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취향 등을 조사 분석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자문하는 일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상품기획자는 업무특성에 따라 상품기획자, 상품개발자, 마케팅전문가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머천다이저(MD)도 상품기획자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은 활동하는 산업분야와 주된 품목에 따라 업무에 차이가 있고 일부는 상품기획보다 상품의 전시나 구매 대리나 같은 업무가 중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시장조사나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신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수행한다. 즉 수요가 있을 만한 상품을 선택하여 예산한도 내에서 생산·구매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등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상품기획자를 활동분야에 따라 구분하면, 우선 방송이나 인터넷, 백화점, 할인점, 제조업체 유통업 및 소매점에서 활동하는 경우 흔히 리테일MD라 불린다. 이들은 상품기획에서부터 주문, 전시, 판매, 배송, 사후관리, 재고관리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직접 상품을 계획·생산하는 데도 관여한다. 이 중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쇼핑몰MD(웹MD)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로 상품아이템을 구성하고 상품 구입과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MD는 신상품 발굴과 거래처 관리, 입점 브랜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홈쇼핑MD는 방송 판매상품을 기획하고 상품 소개전략을 세우며 생방송 중 상품의 판매상황을 점검하고 배송관리를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활동하는 상품기획자는 통상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의류업체에서 활동하는 패션MD는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유행을 분석하여 디자이너와의 협의를 통해 신상품을 기획하며, 원가분석과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량과 판매량 조절, 상품판매를 위한 마케팅 및 재고관리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백화점 및 할인점 등에서 활동하는 비주얼MD는 상품기획 및 관리업무와 더불어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상품을 배치하고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일을 함께 수행한다. 쇼윈도 설치와 매장구성,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의 비주얼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며, 판매나 직원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바이오피스MD는 외국의 바이어가 국내 물품의 수입을 요청하면 해당 물품의 생산기업을 선정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물품을 납품하며 물품검수부터 선적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MD, 가전MD, 주얼리MD, 가전제품MD, 가구MD, 도서MD, 코스메틱MD 등으로 불리며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각의 해당 분야에서 상품기획 및 유통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제조MD, 영업 분야를 담당하는 영업MD, 상품기획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기획MD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해 개별판매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패션, 전기전자, 유아용품 등 각 카테고리별 판매업자를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품을 알리기 위한 기획을 하는 카테고리매니저도 별도로 활동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상품개발자, 여행상품개발자는 상품기획자와는 별도의 직업으로 구분된다.

|업무환경| 상품기획자는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회의, 좋은 상품의 선점, 전시나 진열상태 변경, 담당 상품의 판매량 점검 등을 위해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다. 또한 경영기획, 광고홍보, 생산, 유통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나 담당직원들과의 회의도 잦은 편이다.



되는 길

상품기획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정해진 교육이나 훈련과정은 없으나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 무역, 유통을 전공하거나 의상, 섬유, 식품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채용 시 아르바이트나 인턴, 창업 등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높이 사는 업체도 많으므로 유통 분야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이외에도 사설교육기관에 개설된 MD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상품기획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과 유행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상품기획자는 홈쇼핑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업체 등의 유통관련업체, 의류회사, 바잉 오피스, 식품업체, 가전업체, 가구업체, 귀금속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머천다이저로 활동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공개채용의 형태로 채용하며, 경력자에 한해 특별채용을 하기도 한다. 해당 업체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상품판매 경력이 있다면 입직 후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보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국제통상학과, 광고마케팅학과, 무역학과, 유통학과, 물류유통학과, 의상학과, 섬유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식품관련 학과 등
- **관련 자격**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이상 대한상공회의소), 물류관리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 기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상품기획자는 소비자의 구매심리와 소비트렌드를 파악하고 욕구를 평가·분석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적인 자세와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조사 및 분석 능력과 아이디어 창출력도 있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설득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유통의 전반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문의 전문가 및 사무직원들과 원만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화력, 대인관계 능력, 협상능력 등도 뛰어나면 유리하다. 그리고 해외트렌드를 파악하고 바이어 상대를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 경력 개발 | 상품기획자는 처음에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경력을 쌓으면 전문가로서 인정받게 된다. 상품기획에서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의 전반적인 분야를 익히는 직업인만큼 경력을 쌓은 후 오퍼상이나 제조업체, 제품소싱업체 등을 창업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상품기획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상품기획자는 2019년 약 24천 명에서 2029년 약 2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상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기획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품판매에서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을 기획하고, 기존에 출시된 제품 중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찾아 소개하는 역할이 무척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고객층의 니즈분석과 시장 분석 등이 요구되어 상품기획자의 고용증가에 긍정적이다. 중장년층을 위한 화장품처럼 세분화된

소비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기획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1인 가구는 2019년 614만 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서 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기획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우선 고려하여 소비하기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탐색하여 구매하거나 백화점, 홈쇼핑, 로드숍 등이 아니라 SNS 등의 틈새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구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시장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상품기획자의 직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져서 소비자의 구매패턴과 소비트렌드, SNS정보 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수요를 예측한 후 신상품의 기획 및 마케팅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업체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신의 트렌드를 상품기획에 반영하고, 빅데이터의 함의를 파악하여 구매력이 높은 제품을 기획하는 등 상품기획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또한 ICT환경과 관련한 제품, 농업에 기반한 제품 등 점차 시장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공계 출신이 상품기획자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문성을 갖춘 상품기획자는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기호를 상품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면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상품기획자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상품기획자의 수요가 커질 것이다. 유통 대기업의 이커머스(e-commerce) 참여와 대형 포털사이트 및 SNS의 이커머스 역량 강화로 플랫폼이 점점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차별화를 위한 상품기획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다양한 상품수요 증가	•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소비 위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소비자 니즈 다양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 경쟁에 따른 상품 차별화 • 상품전문기획자 역할 전문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쇼핑 증가 • 다양한 신산업 및 스타트업 증가	

종합하면, 고객층과 소비자의 니즈 다양화,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한 틈새시장을 통한 구매 증가,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상품 차별화 필요성 증가 등의 영향요인에 따라 향후 10년간 상품기획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마케팅전문가, 머천다이저(MD), 카테고리매니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4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31
- **관련 정보처**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114 www.korcham.net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11

조사전문가

조사전문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각종 조사설계를 하고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잠재수요를 추정하거나 결과 예측, 장래 추세 등에 대한 조언을 수행한다.



하는 일

조사전문가는 조사 분야에 따라 마케팅조사(또는 시장조사)전문가와 사회조사(또는 여론조사)전문가 등으로 구분되며 업체마다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업체 내에서 부서를 나눠 종사한다.

조사전문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각종 조사 등을 수행하고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잠재수요를 추정하거나 결과 예측, 장래 추세 등에 대한 조언을 수행한다. 이들은 조사 분야에 따라 마케팅조사(또는 시장조사)전문가와 사회조사(또는 여론조사)전문가 등으로 구분된다.

마케팅조사 혹은 시장조사는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한 정보획득의 수단이다. 이를 위해 마케팅조사전문가는 조사를 의뢰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마케팅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과 조직, 조직원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어서 제품, 가격, 유통, 광고적 측면에서 전략이 구성된다. 따라서 마케팅조사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 외에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이용, 사후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고객의 반응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조사 및 여론조사 전문가는 각종 정책 현안, 선거, 공공정책 개발 및 평가, 가치관, 태도 또는 의견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의견을 취합하는 여론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선거조사에서는 각 후보자나 정당,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선호도, 지지도 등을 조사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조사의 주요 고객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 학술연구기관 등이 있다. 마케팅조사나 사회조사는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게 되는데, 먼저 조사를 의뢰한 고객과의 미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조사배경, 조사목적, 조사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예산과 일정에 맞게 조사를 설계한다. 조사설계는 전체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조사할 대상을 적합하게 선정하는 표본 설계와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질문지를 설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조사는 양적 조사방법을 중시하는 정량적 조사와 질적 조사방법을 중시하는 정성적 조사로 구분된다. 정량적 조사는 선택형과 개방형 설문을 혼합한 설문지를 주로 이용하며 정성적 조사는 표적 집단면접이나 개별 심층면접 또는 일상적 관찰법과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조사전문가는 조사 설계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며, 조사 진행이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원래 조사의 목적과 조사 설계에 따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제출한 결과에 대해 고객에게 구두로 보고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각종 조사는 대부분 매우 시급하게 계획되고 진행되므로 마감기간이 다가오면 업무량이 많아진다. 또한 의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등 정해진 일과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계 패키지 등을 활용한다. 해당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실사 진행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뢰기관 방문을 위해 출장을 갈 때도 있다.



되는 길

최소한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면 입직에 유리하다. 전공 학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통계학, 경영학, 소비자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전공자가 많고, 정치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자도 있다. 사무용 프로그램과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하면 유리하다.

마케팅조사, 사회조사 회사에서 주로 일하는데 업체에서는 정기 및 수시 채용을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 사회 조사의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조사 설계와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여 선발하기도 한다. 조사전문가 중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 부서를 비롯하여 연구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의 조사업무 전담 직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소비자학과, 광고·홍보학과, 통계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심리학, 사회학과, 정치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등
- **관련 자격**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조사전문가는 각계 각층 조사대상자의 생각과 행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도 중요하다. 조사결과를 고객에게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집중력, 인내심, 성실함도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조사 프로젝트를 의뢰한 고객을 상대하고 대내적으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조사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연구원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 이사'의 승진체계를 밟는다. 대리로 승진하기까지 입사 후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팀장의 역할을 하는 차장 또는 부장으로 승진하려면 7~1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 조사프로젝트를 통한 개인의 업무능력을 중시하는 분야이므로 근속 연수보다는 성과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조사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추세였다가 2016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사업체 수가 454개에서 440개로, 종사자 수는 6,628명에서 6,552명으로 감소하였다.

설문조사원, 조사자료처리원 등의 경우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업무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에 비해 조사전문가의 경우 조사설계에서부터 분석, 결과에 바탕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상대적으로 고용변화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380	411	464	497	454	434	440
종사자 수	7,733	8,184	7,381	8,109	6,628	6,535	6,55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특히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소비자의 기호,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구매패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변화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화트렌드를 적시에 감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화를 조사하고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조사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할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공공영역에서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 정책수립이나 현안사항 결정 시 객관적인 의견수렴과정 중의 하나인 여론조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및 모바일조사 등 데이터 수집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규모 시장조사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조사 전문가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정성조사 이외의 정량조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큰 인력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수집부터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까지 기존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소규모 회사나 개인, 프리랜서 등의 조사인력이 생겨나고 있다. 한편,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결합한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여론조사에 의존하던 것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 연관어 분석을 통해 여론과악을 하는 등 디지털상의 여론 분석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조사업체가 아닌 빅데이터업체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조사전문업체에서는 자체조사 패널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질 전망이다.

물론 빅데이터가 기존의 시장조사나 여론조사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므로 다양한 연령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집 경로 다양화 (빅데이터 축적, 온라인 조사 등) • 조사 과정 전반의 시스템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통계 기반 의사결정 • 공공영역 통계 기반 정책수립 	

종합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해 의견수렴을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조사 전문가의 급격한 수요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조사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마케팅전문가, 사회조사전문가, 홍보전문가, 경영컨설턴트, 통계사무원, 통계 및 설문 조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4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34
- **관련 정보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한국조사연구학회 (02)723-0677 www.kasr.org
한국조사협회 (02)546-2360 www.ikora.or.kr

12

행사기획자

행사기획자는 전시회, 박람회, 시사회, 엑스포,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정기총회, 국제회의, 축제, 판촉행사, 시상식, 개막식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조직하며 진행한다



하는 일

전시회나 박람회를 기획하는 경우 전시기획자로,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를 기획하는 경우 회의기획자로, 문화행사나 개막식 혹은 이벤트 등을 기획하는 경우 이벤트기획자로 불린다. 행사기획자는 기업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행사를 맡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직접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도 있다. 행사기획자는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사기획 → 사전준비 → 마케팅 → 행사 진행 및 운영 → 사후관리’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행사의 콘셉트 및 주제를 선정하고 참가 가능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조사, 국내외 시장 조사, 규모 및 장소의 선정, 예산안 등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획안이 마련되면 의뢰자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의뢰자는 공개경쟁을 시켜 여러 행사기획업체 중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의뢰자로부터 선정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와 마케팅을 수행한다. 안내 자료나 홈페이지 제작 등 사전 홍보자료를 만들고 행사의 무대, 조명, 음향을 설치한 다음, 행사 콘셉트에 가장 잘 맞는 진행자나 출연자 혹은 관련 업체를 선정해 섭외하고 관련 단체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때 행사가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행사 며칠 전에는 동선에 따라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한다. 행사진행요원들을 교육하며 사전연습을 통해 행사의 미비한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행사 당일에는 수많은 진행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행사과정을 총감독하고 지휘한다. 행사를 완료한 후에는 잘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 문제점을 짚어보고, 꼼꼼히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기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 과정을 마무리한다.

오프라인 행사나 전시와 별개로, 전용사이버전시관을 두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행사기획자가 사이버상의 전시기획을 하고 웹디자이너가 이를 반영하여 구현하는 작업을 한다.

| 업무 환경 | 행사기획자의 근무시간은 행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불규칙한 편이다. 특히 행사준비 기간이나 행사 중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편이고 주말에 근무하기도 한다. 하나의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하려면 짧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기획 단계에서는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본격적인 행사준비가 시작되거나 행사기간 중에는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행사 당일에는 행사장을 떠날 수가 없어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간단히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되는 길

일반적으로 행사기획자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 편이며, 관련 학과로 이벤트학과, 이벤트기획학과, 이벤트연출학과 등이 있다. 그러나 행사기획 업무는 실무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진행요원으로 활동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업무수행에 더 도움이 되는 편이다. 행사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뽑는 진행요원에 참가하여 소품담당, 섭외, 현장 진행 등의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행사기획자는 광고대행사의 이벤트 부서에 취업하거나 이벤트 전문회사 혹은 행사기획사, 전시 및 행사 전문기획업체 및 컨설팅업체, 호텔 등의 숙박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채용 시 학력이나 자격요건보다 창의성, 독창성, 임기응변능력, 기획력 등 행사기획자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측정하는 면접이 중요하다.

■ **관련 학과** 광고이벤트학과, 컨벤션이벤트학과, 이벤트연출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연극영화학과, 호텔경영학과 등

■ **관련 자격** 컨벤션기획사 1급/2급(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행사를 참관하는 사람이나 행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의뢰자와의 의견충돌이나 일의 추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순발력, 실행력, 추진력, 지도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성공적인 기획을 하기 위한 창의력, 독창성 등이 필요하며, 에너지 소모도 많은 직업이므로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경력 개발 | 행사기획 관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1~2년간 스태프의 구성원으로 소품담당, 섭외, 하청업체 관리, 현장 진행 등의 일을 하게 되며, 이후 일정 기간 행사기획 보조나 조연출 등의 경험을 쌓은 후 차츰 행사기획 업무를 맡게 된다.

경력을 쌓은 후 고객과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영업력이 있다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1인 기업을 창업하기도 한다. 이때 기획은 행사기획자가 담당하고 시공은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에 의뢰하여 작업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행사기획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행사기획자는 2019년 약 13천 명에서 2029년 약 1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기획의 한 영역인 국제회의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9년 개최건수는 1,113건으로 세계 2위¹⁾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마이스(MICE :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특히 마이스산업이 기존의 전통적 산업의 영역을 넘어 전시, 행사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문화 관련 산업까지도 연계되어 고부가가치를 양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나 회의를 유치하거나 관광과 연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존 대도시 중심의 행사에서 다양한 체험관광과 연계된 마이스 행사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생활의 확대 등으로 개인들의 이벤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소규모 파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파티플래너, 파티컨설턴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 행사 외에 향후 사이버공간상에서 가상현실 등을 반영한 행사나 전시 공간을 만드는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행사기획자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전시관은 최근 언제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오프라인 전시장의 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행사를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1인 기업,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 및 디지털환경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늘어나면서 BTL(Below The Line)개념의 소비자 및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전시, 이벤트 등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며 더욱이 5G 등의 환경에서 AI, AR, VR, 홀로그램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기존 행사기획자의 역할은 축소되고 첨단기술 관련 인력들이 활동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유튜브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행사 주관업체에서도 전통적 이벤트성 대형 행사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타깃화한 전문행사기획을 선호하면서 예전보다 적은 수의 기획자만으로 행사를 준비할 가능성도 크다.

1) 출처: 국제협회연합,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그 외 각종 박람회나 판매를 위한 행사 등은 경기의 영향을 받아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고용에 부정적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 감소하였다. 이는 전시 및 행사 분야가 국내경기에 민감하여 의뢰 기업이나 기관의 예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2,422	2,752	2,993	3,379	3,528	3,378	3,331	3,489
종사자 수	17,423	19,714	18,177	18,118	20,041	17,954	17,645	17,96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행사기획자는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업무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행사나 전시기획과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행사 이전부터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는 감각도 필요하며 행사기획뿐 아니라 마케팅, 홍보로까지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사기획자는 행사를 의뢰한 고객뿐만 아니라 영상, 그래픽, 디자인, 시공 및 철거 등 다양한 업체나 담당자와 협업해야 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홍보 마케터, 첨단기술 전문가 등과의 협업증가에 따라 온라인 기반의 홍보, 행사 등에 대한 이해역량을 갖추 필요도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비대면 및 디지털 행사 선호
과학기술 발전	• 온라인(가상현실 등) 행사 증가	•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전문인력 활용
국내외 경기 변화		• 국내 경기 상황에 따른 행사 수 변동폭 민감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비대면 및 디지털 행사 선호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국제회의 개최 증가 및 지역자원과 활용한 행사 증가	

종합하면, 국제행사 등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사에 대한 관심증가 등은 행사기획자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디지털환경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에 대한 선호로 고용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향후 10년간 행사기획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회의기획자, 공연기획자, 파티플래너, 마케팅전문가, 홍보전문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4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35
- **관련 정보처** 한국관광공사 (033)738-3000 kto.visitkorea.or.kr
한국MICE협회 (02)3476-8325 www.micekorea.or.kr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02)761-2776 www.kbatv.org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교육원 (02)2144-0149 edu.kobaco.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한국전시주최자협회 (02)567-5311 www.keoa.org

13

조세행정사무원

조세행정사무원은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세금, 부담금 및 기타 형태의 과징금 등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금신고서, 판매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한다.



하는 일

조세행정사무원은 각종 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서, 판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종 세금을 부과, 승인 결정하는 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세금의 결정과 납부에 관한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단체, 기업, 시민에게 조언한다.

모든 업무는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세행정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시행하고 기타 조세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근무하며 세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 업무 환경 | 조세행정사무원은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 내에서 보내며 방문 및 유선 상 세금 관련 민원인의 상담과 질의에 응하기도 한다. 업무 특성상 세금부과 및 정산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편이다.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조세행정사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 후 국세청 본부나 지방의 세무서 등에 근무한다. 국가직의 경우 7급이며, 지방직은 9급을 중심으로 선발한다(서울시는 7급 선발 포함).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이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만 32세 이하(서울은 만 30세 이하)이어야 한다. 학력·경력·성별 등에 제한은 없으나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등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거쳐야 한다. 해마다 채용 예정된 인원을 목표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이 변경되는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등의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던 것에서 세법, 회계학 2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 **관련 학과** 법학과, 비서학과, 세무·회계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3급(대한상공회의소),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3급, 기업회계 1급/2급/3급(이상 한국세무사회)

[적성 및 흥미] 조세행정사무원은 세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각종 세무와 관련한 이해와 분석역량이 필요하며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면 유리하다. 다양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력 개발] 조세행정사무원은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 국가직은 국세청 혹은 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며 지방직은 각 지자체(구청, 주민자치센터 지방세과 등)에서 근무한다. 승진체계는 통상적인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전직 없이 정년시까지 종사하는 편이다. 조세행정사무원은 이·전직이나 은퇴 후 조세소송 관련 컨설팅을 위해 로펌이나 경영컨설팅업체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조세행정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조세행정사무원은 2019년 약 23천 명에서 2029년 약 2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을 증가해왔다. 하지만 선발인원은 결원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무직 9급 공무원의 경우 2019년 855명에서 2020년에 652명을 선발하여 선발인원이 감소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세금 추정업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수입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증대할 계획인 점은 조세행정공무원의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증원보다는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조세행정 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직무에서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시험과목에서도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을 비롯해 세무직 공무원에게도 세무 관련 각종 사례 및 법원판례, 세무조사 기법 등에 대한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미리 기업, 개인 등 납세자에게 각종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참고로, 2020년 세무직 공무원(국가직)의 경쟁률은 24.68 대 1로 2019년 22.06 대 1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운용 및 납세에 대한 관심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확충으로 고용증가	• 증원보다 인력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질적 제고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세무사, 회계 및 경리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행정공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5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11
- **관련 정보처** 국세청 126 www.nts.go.kr

14

관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은 수출 및 수입통관, 환급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다.



하는 일

관세행정사무원은 수출입 대상 품목을 분류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수출 및 수입통관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신고하며, 환급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일을 한다. 또한 통관검사에 입회하여 대상 품목을 확인하며 수출입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입신고 필증을 통보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유입된 물건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를 한다. 그 외 불법총기류, 마약류 등의 위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관세물품 검사 업무의 경우 적외선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검사하지만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 업무 환경 | 관세행정사무원은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수출입, 통관업무를 위해 공항, 세관 등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엑스레이 등 장비를 장시간 보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근무할 경우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한다.



되는 길

현재 관세 관련 행정업무는 국가가 담당하므로 관세행정사무원이 되려면 관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헌법, 행정법, 무역학 등의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시험과목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회계원리, 관세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변화가 있다.

관세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면 관세청 본청 및 세관, 연수원 등에 발령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3년간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비서학과, 세무·회계학과, 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관세사

| 적성 및 흥미 | 관세행정사무원은 수출입, 통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꼼꼼하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체 담당자나 해외 입국자를 대할 수 있고 업무상 관세사를 상대할 경우도 많으므로 원만하게 응대하고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과 도덕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간 수출입 관련 품목이나 제재요인 등 법규가 새롭게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관세행정사무원은 대부분 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 관세청이나 세관(전국 34개) 등에 종사하게 되며 승진체계는 통상적인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전직없이 정년까지 종사하는 편이다. 통상 3년마다 주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직이나 은퇴 후 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 관세 관련 법인이나 기업체의 수출입 관련 부서로 취업하기도 한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 시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관세행정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관세직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2016년 190명, 2017년 165명, 2018년 155명, 2019년 194명으로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6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547,870	559,632	572,665	526,757	495,466	573,697	604,860	542,233
수입	519,584	515,586	525,515	436,499	406,193	478,478	535,202	503,3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

관세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수출입 규모 역시 최근 주춤한 상태이고 저성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위축, 생산을 위한 자재이동이 감소됨에 따라 통관업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통관 관련 전산화시스템이 점차 고도화되는 것은 향후 관세행정사무원의 지속적인 고용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급격한 고용변화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0년 관세직 공무원(국가직)의 경쟁률은 45.41 대 1로 2019년 24.85 대 1보다 상승하였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통관업무 전산화
국내외 경기	• 국가간의 교역량 지속	• 장기 저성장, 경기침체로 소비위축, 제품이동감소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관세사, 회계 및 경리사무원, 조세행정사무원, 행정공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5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12
- **관련 정보처** 관세청 125 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02)547-9714 www.kcba.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15

병무행정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은 병역자원 관리, 의무자 징집 및 소집 등 병무행정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법령과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병무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병무행정사무원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징·소집 대상, 병역대체복무자, 병력동원 대상 등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징병검사 및 각종 병역 관련 업무를 처분하며 향토예비군을 편성하고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동원지정 예비군을 관리하고 대상 예비군에 대하여 전시병력 동원 및 훈련소집을 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채용 업체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병역 대체복무자를 편성·관리한다.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 및 국외체제 시의 허가 및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훈련 불참 등 병역법 위반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병무행정사무원은 대부분 병무청 본부나 지방청 내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일정한 편이다. 신체검사나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병무행정은 국가가 담당하므로 병무행정사무원이 되려면 국가직 공무원(9급)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병무행정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일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엄정하게 요구된다. 병무행정을 관할하는 국방 기구는 병무청인데, 병무청은 국방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집·소집 및 전시 병력 동원 등 의무부과와 향토예비군의 편성·관리, 산업기능인력의 지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병무청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기관별 결원,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며 병무청 본부 및 지방청에서 근무한다.

■ **관련 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 **관련 자격** 해당없음

| 적성 및 흥미 | 병무행정사무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병역대상자를 관리하고 상대하는 직업인 만큼 애국심, 이타심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업이며, 꼼꼼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역량도 필요하다.

도덕성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감내력도 필요한 직업이다.

| 경력 개발 | 병무행정사무원은 전국단위의 일반행정 행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후 병무청에 지원하여 근무할 수 있다. 현재는 모두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대부분 근무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병무행정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병무행정사무원은 2019년 약 14천 명에서 2029년 약 1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가직 공무원 9급 선발인원 중 병무청 선발인원은 2016년 57명, 2017년 83명, 2018년 100명으로 매년 소폭의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3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채용인원이 없었다. 이는 점차 출산을 감소로 인한 군입대자 감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군복무기간 단축예정 발표 등에 따라 해마다 입대지원 경쟁률에 편차를 보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인원이 해마다 100명 안쪽의 소수인원이어서 큰 폭의 취업자 수 변동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출산율 감소로 군입대자 감소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연간 100내외의 신규채용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조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법원공무원, 행정공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5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13
- **관련 정보처** 병무청 1588-9090 mma.go.kr
행정안전부 (02)2100-3399 www.mois.go.kr
인사혁신처 110 www.mpm.go.kr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044)201-8264~7 www.gosi.kr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local.gosi.go.kr

16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은 법원에서 각종 소송, 재판참여, 공탁 등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관련 공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법원공무원은 사법행정, 기술, 기술심리, 관리운영 등의 직군으로 분류되고 사법행정 내에서 다시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통계, 조사, 사서, 통역, 보안관리, 법원경위 등의 직렬로 나뉜다. 이중 법원사무직렬은 각종 소송 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한 과에 1년 이상 (최대 2년) 근무 시 타 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 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렬이다.

등기사무직렬은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 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 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등기관에게 달려있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이다.



되는 길

|업무 환경| 법원공무원은 해당 직렬, 담당직무에 따라 업무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사무직의 경우 법원 재판 관련 조서작성, 기록보관, 각종 증명서 발급, 송달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 및 각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며 등기사무직의 경우 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 공탁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로 일정한 편이다. 그 외 법원경위 등 직렬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기도 한다.

법원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으로 법원, 등기소 등에서 근무하며 법원행정직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가능한데 법원행정직은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직렬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민법, 민법소송법, 형법, 부동산기법 등의 과목을 치른다. 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으로 학력이나 경력제한은 없으며 1, 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차는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 **관련 자격** 법무사

|적성 및 흥미| 법원공무원은 각종 소송, 재판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므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윤리성, 도덕성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구조상담 업무의 경우 민원인을 대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경력 개발| 법원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으로 법원, 등기소 등에서 근무하며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 후 행정사로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법원공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사무직 9급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2015년 311명, 2016년 276명, 2017년 217명, 2018년 308명, 2019년 322명, 그리고 2020년 183명으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200명 미만의 선발인원은 10년 이내 처음이다.

물론 최종선발인원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20% 수준을 상회하지만 매년 200명 내외의 신규인력이 임용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법원공무원의 선발인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법원 및 직렬에서의 충원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만큼 급격한 변동없이 일정 수준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직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법원사무직(일반)	311	276	217	308	322	183
등기사무직렬(일반)	20	18	13	22	27	22

자료 : 대한민국 법원시험정보, exam.scourt.go.kr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법률 관련 대국민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충원	• 대규모 채용이 아닌 소규모 충원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조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행정공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5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14
- **관련 정보처** 대한민국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행정안전부 (02)2100-3399 www.mois.go.kr
인사혁신처 110 www.mpm.go.kr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044)201-8264~7 www.gosi.kr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local.gosi.go.kr

17

행정공무원

행정공무원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각종 행정 실무 및 민원업무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계획하고 진행하며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 검사, 인허가 등 정부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행정공무원은 법령과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보고하고 시행하며 기타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 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 사회, 노동, 문화, 홍보 등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시군구 지자체 등에서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호적 등과 관련된 서류접수 및 발급 등 고유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환경| 행정공무원은 해당 직렬, 담당직무에 따라 업무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정부부처, 지자체 등의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며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로 일정한 편이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특성상 매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문서 작성, 자료 입력 등을 담당하며 업무에 따라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선발인원은 직렬과 지방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다.

응시연령은 7급의 경우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며 학력제한은 없다. 7급 일반행정직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이며 9급 일반행정직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세과목은 필수과목이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가운데 두 과목을 선택하여 치르게 된다.

하지만 직무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9급 시험에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을 필수과목으로 응시해야 하며 기존에 고교 선택과목이었던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시험과목은 없어지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공무원 시험 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을 준다.

지방직 공무원은 개별 지자체가 채용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자신이 응시하는 지자체에 주소를 뒤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주소지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필기시험을 같은 날 치루고 있어 다른 시도의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 **관련 자격**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 적성 및 흥미 | 행정공무원은 각종 행정업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 직무에 대한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성과 윤리성 또한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원인을 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은 다양한 사람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행정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서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9급에서 8급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며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는 각기 2년 이상 소요된다. 지방직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직무구조가 상이하면서 평균소요기간에 차이가 나는데 9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에 일반적으로 20년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행정공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은 2019년 약 397천 명에서 2029년 약 42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3천 명(연평균 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직 및 일반직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부처, 지자체의 직무에 따른 결원, 국가 주요 정책의 원활한 이행, 대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인력의 공무원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육아휴직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충원 발생 등은 행정공무원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일반행정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난, 보건복지 등 사람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 직렬을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행정서비스에서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전산직렬에 데이터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공무원 5급으로만 채용하던 '재경직'에 대해 7급 공채가 신설되었다.

참고로, 국가직 공무원은 300명대의 5급을 포함하여 연간 6천여 명이 꾸준히 임용되고 있고 지방직 공무원 선발인원은 2015년 1만 7,561명, 2016년의 2만 186명, 2017년 2만 3명에서 2018년 2만 5,692명, 2019년 3만 3,0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선발인원은 3만 2,042명으로 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으며 인구감소 및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행정공무원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정적 일자리로서 행정공무원을 선호하는 젊은층이 많았으나 민간영역에서도 직원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유연근무 등을 도입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선호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저출산으로 민원서비스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비대면 행정서비스 선호
과학기술 발전		• 단순 민원서비스 업무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

종합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행정 공무원의 수요는 지속적일 수 있으나 인구감소 및 비대면서비스 선호로 인한 행정서비스 감소, 인공지능 및 로봇으로의 단순업무 대체 등으로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행정공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조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법원공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5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14
- **관련 정보처** 행정안전부 (02)2100-3399 www.mois.go.kr
인사혁신처 110 www.mpm.go.kr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044)201-8264~7 www.gosi.kr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local.gosi.go.kr

18

경영지원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총무사무원, 감사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관공서 또는 기업체에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하고 지침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경영기획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인사·교육·훈련사무원, 총무사무원, 감사사무원 등으로 구분된다.



하는 일

경영기획사무원은 조직의 비전과 경영방침에 따라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경영전략을 기획한다. 경영실적을 분석하며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사적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수립하기도 하며 기관 경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은 소비자의 수요 예측과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전략과 광고매체 활용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상품, 가격, 매출, 고객정보 등을 분석한다.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 소비동향, 소비자특성, 관련 산업의 발전방향, 경쟁사 정보 등 시장 환경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마케팅 매체, 지역 및 대상 등을 결정하며 지역별, 지점별 판매력을 높이기 위한 촉진활동을 진행한다. 특정기업 또는 사업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개선하려는 PR프로그램을 연구, 조언하기도 한다.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은 기업의 영업생산을 증대할 목적으로 현장 영업원의 영업 활동에 관련된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영업전략을 수립하거나 영업전략에 따른 영업지침을 현장영업원에게 전달하고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서류작성, 통계작성, 영업문서 작성, 영업결산, 실적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따른 유통지원, 전산처리, 매출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인사·교육·훈련사무원은 종업원의 채용, 배치, 승진, 급여, 인사사고와 등의 업무를 기획, 집행하는 인사노무 사무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무 업무를 한다.

이들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인건비 예산의 수립지침서를 입안하고 인건비 예산을 총괄하며 취합된 인건비 예산안을 경영목표·과거실적·예정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분석, 보고한다. 또한 사원들의 직무능력이나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이나 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내부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교육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계획, 연간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강사 발굴,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총무사무원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구성원이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서 수발·관리, 4대 사회보험 관리, 급여 관리, 비품 및 차량 관리, 각종 사내 행사 계획 및 준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한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총무사무원이 인사·교육·회계 등 경영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사무원은 관공서 또는 기업체에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획 및 지침수립 등 감사 실시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부문 등의 기능에 대한 일상, 종합, 특별감사가 원만히 실시되도록 준비하고 해당 부서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무보조원은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사무직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수반되는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과 같은 사무 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한다.

|업무 환경| 경영지원사무원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홍보, 마케팅, 교육 등의 사무는 홍보 촉진 활동, 외부 교육 진행 등을 위해 외근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규근무를 하지만 급여를 담당하는 사무원의 경우 매월 마감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사무원의 특성상 매일 장시간 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어깨 결림, 목디스크, 눈의 피로, 두통 등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되는 길

경영지원사무원의 담당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수준과 지식이 다소 상이하나, 경영, 경제, 법, 회계, 행정, 교육, 광고, 홍보, 무역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최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만, 대기업은 관련 분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없으나, 인터넷 활용능력과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능력이 필수적이다.

경영지원사무원은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 걸쳐 종사하고 있다. 채용방법은 기관이나 기업체에 따라 신입 혹은 경력직을 공개 채용하며,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회계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적성 및 흥미]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의 분석이나 문서작성의 업무를 많이 하므로 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석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또 상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 정연한 문장작성능력, 의사소통기술, 설득력, 추진력 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타 부서와의 협업능력, 정보습득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강한 책임감 등도 중요하다.

[경력 개발] 경영지원사무원은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원에서부터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순으로 승진하며, 타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대기업에서는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입사, 승진 또는 타 부서로 이동 시 업무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경영지원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기획 및 마케팅사무원의 경우 2019년 약 668천 명에서 2029년 약 72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59천 명(연평균 0.8%), 인사 및 교육훈련사무원은 2019년 약 218천 명에서 2029년 약 22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9천 명(연평균 0.4%), 총무사무원은 2019년 약 587천 명에서 2029년 약 58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0.1%), 감사사무원의 경우 2019년 약 17천 명에서 2029년 약 1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내 기획, 마케팅, 영업, 인사, 총무, 감사 등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사무원은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규모의 업체에 고루 종사하므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해당 산업과 기업의 성장여부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고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산업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전체 GDP 내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향후 경영지원사무원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된다면 불가피하게 고용감소를 가져올 소지도 크지만 경영지원사무원은 조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므로 급격한 고용 등락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실질)]

(단위: 십억 원,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어업	31,697	2.2	33,307	2.2	33,225	2.2	31,353	2.0	32,060	2.0	32,109	1.9	32,859	1.9
광업	2,356	0.2	2,363	0.2	2,145	0.1	2,296	0.1	2,205	0.1	2,042	0.1	1,868	0.1
제조업	420,493	29.3	433,854	29.3	441,134	29.0	451,294	28.9	468,070	29.0	483,530	29.1	489,613	28.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9,510	2.8	40,511	2.7	41,760	2.7	41,263	2.6	43,814	2.7	43,083	2.6	44,922	2.6
건설업	75,294	5.2	76,415	5.2	81,174	5.3	89,140	5.7	94,369	5.8	91,741	5.5	89,484	5.3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53,620	10.7	155,151	10.5	160,346	10.5	164,705	10.5	167,747	10.4	172,543	10.4	174,420	10.3
운수업	56,446	3.9	57,135	3.9	58,500	3.8	58,714	3.8	60,289	3.7	62,522	3.8	62,747	3.7
금융 및 보험업	77,293	5.4	82,077	5.5	88,258	5.8	89,948	5.8	93,709	5.8	99,000	6.0	103,386	6.1
부동산업	115,168	8.0	120,196	8.1	122,198	8.0	126,461	8.1	129,307	8.0	133,423	8.0	136,594	8.0
정보통신업	67,895	4.7	69,064	4.7	69,789	4.6	73,517	4.7	75,814	4.7	79,246	4.8	82,473	4.9
사업서비스업	128,150	8.9	135,199	9.1	141,919	9.3	145,077	9.3	147,950	9.2	153,605	9.2	157,791	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90,221	6.3	92,972	6.3	95,491	6.3	98,023	6.3	100,723	6.2	104,101	6.3	108,220	6.4
교육서비스업	80,729	5.6	81,146	5.5	82,134	5.4	83,161	5.3	84,806	5.3	86,223	5.2	87,494	5.2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6,505	3.9	60,491	4.1	63,337	4.2	67,975	4.3	72,330	4.5	78,268	4.7	85,047	5.0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41,320	2.9	40,890	2.8	39,499	2.6	40,839	2.6	40,496	2.5	41,604	2.5	41,709	2.5
국내총생산 (GDP)	1,562,674		1,612,718		1,658,020		1,706,880		1,760,812		1,812,005		1,848,95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영기획사무원의 경우 조직의 경영전략을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이므로 매출에 의해 크게 고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산업의 경기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 IT 기술의 도입과 전산화로 인해 단순업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의 경우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고용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읽고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으며 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 관련 인력수요도 예상된다.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의 경우 기업들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함에 따라 영업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의 업무는 기존의 대면영업에서 비대면영업으로 점차 비중이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한 영업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및 교육훈련사무원의 경우 예전과 달리 채용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지고,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관련 사무원의 고용도 꾸준할 전망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별도의 인사채용담당자를 두지 않고 각 담당 부서에서 인력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기존의 인사채용 위주의 업무에서 조직원의 근로 복지향상을 위한 노무 관련 업무, 커리어개발지원, 평가승진 시스템을 담당하는 등 업체에 따라 직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한 대규모 교육훈련이 아닌 개별맞춤식 교육수요가 커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조직원 스스로 교육을 신청하거나 참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무원의 고용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사무원의 경우 자산관리, 문서관리, 업무지원 등 기업에서 꼭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지만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의 상당수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어서 고용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의 복리후생지원, 기업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 상태의 고용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사무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므로 고용둔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고, 최근 친환경제품과 서비스생산을 비롯해 윤리경영, 지속가능환경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의 역할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감사사무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IT감사기법의 발전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줄어들고, 문제해결형 감사 및 예방감사 기능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다른 사무원에 비해 제한된 업무를 다루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무보조원은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로 반복적인 일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사무 전산화 및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급격한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기술 발달로 인해 사무보조원의 업무가 일정 부분 대체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무보조원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업무 전반의 전산시스템 보급이 확산되면서 정형화된 업무 담당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환경에 따라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인건비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경영지원사무원은 해당 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직을 희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입직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기업이나 안정된 공공기관의 경영지원사무원의 입직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국내외 경기	• 사업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GDP 비중 증가	•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GDP 비중 감소
과학기술 발전		• IT 기술의 도입과 전산화로 인한 단순반복업무 감소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다양한 제품의 경쟁적 출시 •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강조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문제해결형 감사 및 예방감사 기능 강조	

종합하면, 사업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GDP 비중 증가, 다양한 제품의 경쟁적 출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강조, 문제해결형 감사 및 예방감사 기능 강조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GDP 비중 감소, IT 기술의 도입과 전산화로 인한 단순반복 업무 감소 등의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경영지원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경영기획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인사 및 교육 훈련사무원, 총무사무원, 감사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61 0262 0263 026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21 3122 3127 3302
- **관련 정보처** 한국능률협회 (02)3274-9200 www.kma.or.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한국표준협회 1670-6009 www.ksa.or.kr

19

무역사무원

무역사무원은 해외 수출입 계약거래 등 무역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주로 무역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상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며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정리한다.



하는 일

무역사무원은 수출 시 수출 대상기업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내용(거래금액, 수출 수량, 단가, 수송수단, 납기, 보험, 결제방법 등)을 계약서의 형식이나 법규에 따라 문서로 작성한다. 수입을 할 때에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대금의 결제, 화물의 통관 등 모든 절차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즉 수출입허가서, 신용장 등 통관서류를 인수하여 세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밟는다. 또한 수출입에 관련된 금융 관련 업무, 선적서류의 작성 및 정리, 통관 진행, 필요자금의 신청, 수출입 물품의 입출항·입출고 현황 확인, 통관 및 무역에 관련된 통계현황의 작성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체결 국가마다 협약내용과 범위가 달라 협정품목, 협정관세율, 통관 절차 확인, 원산지증명서 확인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도 무역사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다. 또한 HS코드(국제상품분류체계)에 따른 상품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 업무 환경 | 무역사무원은 상당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면서 매일 컴퓨터로 수출입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등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원의 특성상 어깨 결림, 목디스크, 눈의 피로,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입출항 확인 등 일부 업무는 출장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되는 길

무역사무원에 요구되는 학력은 사업체 규모나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업체나 중소기업체에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하지만, 대기업에서는 관련 분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도 교육수준과 필요한 지식이 다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역, 어문 경영, 경제, 행정 등의 전공을 이수하면 유리하다. 사무업무의 특성상 인터넷 활용능력과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 능력이 필요하며 무역 업무이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이 필수적이다. 또한 취업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과 현장 견습을 해야 한다.

무역사무원은 대부분 무역 관련 업체에 종사한다. 채용방법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공개채용으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하며, 결원발생 시 수시채용을 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무역학과, 어문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학과, 국제경영학과, 유통학과, 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물류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유통관리사(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 적성 및 흥미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석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거래처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설득 능력이 중요하다. 타 부서의 직원들과 협력해야 하는 일들도 많으므로 협업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강한 책임감 등도 매우 중요하다. 업무 중 서류작성 업무는 꼼꼼함이 요구되며, 관련 정보들을 습득하기 위한 정보력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무역사무원은 일반적으로 '사원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의 단계를 밟아 승진하는데, 대기업에서는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입사, 승진 또는 타 부서로 이동 시 그에 맞는 실무교육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무역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무역사무원은 2019년 약 86천 명에서 2029년 약 9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사무원의 업무는 수출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경기의 영향을 받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WTO 다자간 협정, FTA 체결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대내외 환경에 따라라도 무역사무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무역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관세청의 「수출입총괄」 통계를 살펴보면 연도별 수출입 규모는 최근 5년간 다소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사무원의 일자리 전망도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수출입 실적의 하락을 가져온다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547,869	559,632	572,665	526,757	495,425	573,694	604,859	542,233
수입	519,584	515,586	525,515	436,499	406,192	478,478	535,202	503,343

자료 : 관세청, 수출입총괄

그러나 향후 한중일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메가FTA가 발효된다면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의 무역정책은 무역사무원의 고용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다른 해외국가들에는 없는 국내 자체적인 기업규제들이 국가 간 무역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관련 분야 활성화와 인력채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수출(역직구) 및 수입(직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와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반입동향」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연도별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규모]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1,701,384	1,907,882	2,243,583	2,971,702	3,636,049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연도별 전자상거래물품 반입동향]

(단위 : 천 건, 천 달러)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15,842	17,395	23,592	32,255	42,988
금액	1,521,226	1,634,540	2,110,240	2,754,944	3,143,211

자료 :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반입동향

이와 같이 온라인 거래의 발달로 인한 개인의 해외직구 증가는 중간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업체와 무역사무원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요즘은 기업과 소비자 간(B2C)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간(B2B)의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중간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업체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바이어와 업체를 찾는 것이 쉬워지면서 기업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무역회사의 규모는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온라인 거래의 발달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간(B2C) 및 기업 간(B2B) 직구 활성화
국내외 경기		• 글로벌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종합하면,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무역량이 감소하고,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 무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무역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관세행정사무원, 관세사, 물류관리전문가, 운송사무원, 포워더(복합운송주선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8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25
- **관련 정보처** 한국능률협회 (02)3274-9200 www.kma.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www.kotr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20

운송사무원

운송사무원은 차량, 항공기, 선박, 열차의 운행에 관련된 배차 간격과 운행시간을 조정하며, 항공기, 선박, 열차에 실리는 화물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하는 일

운송사무원은 주로 도로, 항공, 선박, 철도 운수업체에서 일하며, 근무하는 업체의 주요 운송수단에 따라 도로운송사무원, 항공운송사무원, 수상운송사무원, 철도운송사무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역 분야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포워더 혹은 운송주선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포워딩 혹은 화물주선의 업무는 해운에서는 선사업무라고도 불린다.

도로운송사무원은 도로운송사업체에서 버스, 택시 등 여객차량이나 트럭, 트레일러 등 화물 차량의 노선계획과 운행시간을 설정하고, 차량의 배차, 운전사의 배치, 화물의 적재, 하역작업 등 운영상의 서비스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수행한다. 업무에 따라 차량운행관리원, 배차사무원, 배차원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항공운송사무원은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항공승무원의 비행계획을 관리하고 항공기 운항에 따른 비행노선, 기종, 출발시각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한다. 또한 정규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운항계획을 마련하기도 하고, 화물의 탑재와 운송 등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에 따라 운항관리사, 항공운항관리원, 포워더, 운항통제사무원, 계류장관리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해상운송사무원은 선박사업체에서 선박의 운항계획, 배선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박의 동정, 하역상황, 운항비용, 하역비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을 수행한다. 또한 운항일정, 운항노선 등의 확장 또는 단축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만의 여객선 입출항을 통제하고 선원에 대한 운항관리규정 교육을 담당한다. 업무에 따라 입출항수속사무원, 항로기획원, 선박운항관리원, 선박관리사무원, 해운포워더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철도운송사무원은 역무원, 철도배치사무원, 승무지도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철도운송 사업체에서 열차의 운행시간, 노선, 승무원 배정 및 지도와 화물의 크기, 중량을 파악하여 적재량을 계산하고, 작업원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일을 수행한다.

| 업무환경 | 운송사무원은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화물의 적재나 탑재, 선적, 하역, 하적 등의 확인이나 승무지도 등을 위해 운송 현장에도 자주 나가야 하며 일부 업무는 현장에서의 활동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때때로 소형화물을 들고 운반하는 등 다른 사무직에 비해 육체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자동화장치로 육체적 활동은 예전에 비해 줄어든 편이다. 또한 무거운 물품의 운반은 물품이동장치조직원들이 담당하지만 소규모 작업은 여전히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되는 길

운송사무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은 근무하는 사업체와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체나 중소기업체에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대기업의 경우 관련 분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편이다. 물론 일부 업무는 고졸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교육 수준과 필요한 지식 등이 다르지만, 유통, 경영, 경제, 법, 회계, 행정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운송사무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증은 없지만, 인터넷활용능력과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능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취업한 후에도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과 현장 견습이 필요하다.

운송사무원은 주로 도로, 항공, 선박, 철도 등의 운송사업체에 종사한다. 채용방법은 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사원이나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편이며, 결원이 생기면 수시채용을 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유통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선박해양공학과, 무역물류 IT학과 등

■ **관련 자격** 물류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유통관리사(대한상공회의소) 등

| 적성 및 흥미 | 운송사무원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데 익숙해야 한다. 또한 타 부서의 직원들과 협력해야 하는 일들도 많으므로 협조능력, 강한 책임감 등도 중요하다. 또한 운송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업무는 현장에서 고객과 대면하는 경우도 있어 원만한 대인관계, 설득력,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 등도 요구된다. 국제운송의 경우 외국어 능력도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운송사무원은 일반적으로 사원에서 시작하여 ‘대리→과장→차장→부장’ 순으로 승진하게 되며, 타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대기업에서는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입사, 승진 또는 타 부서로 이동 시 그에 맞는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운송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운송사무원은 2019년 약 72천 명에서 2029년 약 7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송사무원의 대부분은 운송업종에서 종사하는 만큼 운송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육상운송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철도운송업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8년 기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감소하였다. 수상운송업의 사업체 수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종사자 수는 반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수업 부문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산업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육상 운송업 (철도 제외)	육상여객 운송업	사업체 수 166,402	167,180	168,463	167,659	166,900	168,438	167,316	166,407
		종사자 수 435,302	433,763	430,218	429,756	442,480	442,302	435,282	428,373
	도로화물 운송업	사업체 수 156,369	163,659	168,120	173,730	177,423	181,911	183,251	195,958
		종사자 수 232,909	255,329	256,820	269,633	286,377	291,834	293,855	305,919
소화물 전문 운송업	사업체 수	5,472	5,981	6,655	7,202	6,551	7,137	7,678	7,838
	종사자 수	43,431	42,425	44,153	50,455	51,857	55,932	60,280	72,035
철도운송업	사업체 수	290	281	273	165	285	269	266	266
	종사자 수	7,566	6,514	6,487	6,668	7,153	6,696	6,695	7,174
수상운송업	사업체 수	1,190	1,313	1,375	1,308	1,334	1,245	1,249	1,262
	종사자 수	22,557	20,840	19,288	18,648	26,003	20,059	19,678	20,263
항공운송업	사업체 수	153	146	153	160	194	188	201	210
	종사자 수	27,791	26,828	27,395	28,361	33,774	31,240	34,094	31,979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	19,413	20,695	21,355	22,973	21,553	21,253	21,235	22,111
	종사자 수	177,858	174,274	176,776	190,120	193,892	199,753	201,648	206,200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육상운송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제3자물류(3PL: 물류전문업체에게 물류 전반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텔레매틱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단말기를 통한 운전자와 서비스센터의 상호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차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로 최적화를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유가 영향 및 환승할인 확대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도로운송사무원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 관련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시스템화되면 예전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도로운송사무원의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다.

철도운송의 경우 KTX, 고속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기존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화물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발전, 3PL 서비스 등의 요인들이 해상물류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선박량 공급과잉에 따른 해운운임 하락 등으로 인한 화물부분 실적 부진은 해상운송사무원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항만물류시스템의 고도화와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 및 지능화는 인력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항공분야의 경우 해외로 관광을 가는 여행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해외 직구, 역직구 등이 활성화되면서 여객과 화물운송을 통한 물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분야의 운송사무원의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의약품, IT제품 등 대부분 항공으로 운송되는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의 노선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업체에서의 신규고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여객·화물수송량]

(단위 : 여객(천 인), 화물(천 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여객	철도	수송량	1,149,340	1,224,820	1,263,472	1,269,417	1,449,534	1,490,257
	지하철	수송량	2,410,931	2,476,394	2,526,167	2,522,900	3,572,127	3,604,710
	공로	수송량	25,982,998	26,327,678	26,678,513	27,193,794	28,090,713	-
	해운	수송량	14,538	16,063	14,271	15,381	15,422	-
	항공	수송량	21,602	22,353	24,648	27,980	30,913	32,406
화물	철도	수송량	40,309	39,822	37,379	37,094	32,555	31,670
	공로	수송량	1,568,354	1,546,407	1,512,701	1,716,291	1,799,565	-
	해운	수송량	119,057	117,860	117,920	128,611	143,227	142,587
	항공	수송량	265	253	283	288	293	290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 공로 : 버스(고속, 시내, 시외, 전세)와 택시의 합계임

[국내 여객·화물수송량]

(단위 : 여객(천 인), 화물(천 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여객	해운	수송량	2,881	2,737	2,646	2,617	2,777	2,728
	항공	수송량	47,703	50,987	56,779	61,434	73,001	76,956
화물	해운	수송량	1,108,538	1,123,205	1,184,641	1,216,782	1,242,597	1,312,489
	항공	수송량	3,209	3,246	3,411	3,519	3,781	4,032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거래방식과 물품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의 개인화된 물류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은 운송사무원의 수요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운송분야가 경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 만큼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가 가속되거나, 수출입 감소, 해외 물류업체의 국내진출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업무의 전산화와 자동화 등은 운송사무원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기기, 인공지능시스템의 도입 등이 운송사무원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운송, 보관, 정보처리 등 체계화된 물류 정보 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고용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진출 가속, 화주와 포워더를 연결하는 국제물류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의 급변도 향후 운송사무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글로벌 물류경쟁력 10위 달성을 목표로 산업 간 융복합물류체계(물류+IT+유통+금융 등) 구축, 스마트물류기술 기반의 성장 지원 등이 담겨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과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서도 고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시장 성장	• 운송시스템 자동화·지능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제3자물류 서비스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반도체, 의약품, IT 제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융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종합하면,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시장 성장, 제3자물류 서비스 확대,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증가, 융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등은 운송사무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물류 정보 관리시스템이 자동화 및 지능화되면서 운송사무원의 수요가 예전보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운송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운송사무원(항공운송사무원, 철도운송사무원, 도로운송사무원, 수상운송사무원), 포워더(복합운송주선인), 탑승수속사무원, 물류관리전문가, 무역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8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26
- **관련 정보처** 국토교통부 1599-0001 www.molit.go.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한국표준협회 1670-6009 www.ksa.or.kr

21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자재·구매·물류 사무원은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장치,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업무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자재관리 업무,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자재·구매사무원은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장치,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 업무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신제품에 활용될 자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규 거래처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재, 공구, 생산제품 및 기타 물품의 입고, 보관, 불출, 기록 등과 같은 창고 업무를 관리하기도 한다. 구매한 자재나 생산제품을 창고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물류의 상태와 수량을 검수한다. 또한 창고원장이나 기록일지에 입고된 물품의 명세를 기록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창고 내의 적재위치를 선정하고, 각 부서로부터 물품청구서를 접수하여 물품을 내주며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고 창고원장과 대조한다.

물류사무원은 물류의 이동, 보관, 선적 등에 드는 시간 및 노동력을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동계획을 수립한다. 하역, 포장, 보관, 수송, 정보, 유통가공 등 물류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화물유통, 물류체계,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 물류시설을 관리하고 상담,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체의 물류비 등을 계산하고, 연구보고서 등 기타서류를 작성한다.



되는 길

|업무 환경| 자재·구매·물류 사무원은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자재관리사무원의 경우 창고에 쌓여있는 품목들을 확인하고 보관, 불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물류사무원의 경우 물류계획 수립부터 직접 배송, 입고 및 출하관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 주문, 원자재 수급, 생산 의뢰, 재고관리, 출고 등의 과정에서 외부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재·구매사무원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학력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업체나 중소기업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대기업의 경우 법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등 관련 분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자재·구매사무원이 갖춰야 할 특별한 자격증은 없으나 인터넷 활용능력과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 능력은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취업한 뒤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과 현장견습이 필요하다.

물류 사무원에게는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물류학, 산업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컨설팅업체, 정부기관에 물류 관련 연구원으로 입직하고자 할 때는 석사학위 이상이 요구된다. 또한, 물류관리, 물류시스템, 물류 관련 법규, 화물운송, 해운운송, 항공운송, 보관하역 등 물류 전반에 대한 이론적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며 물류현장과 시장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물류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나 물류창고, 화물터미널 등 물류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류 사무원의 업무는 물류운영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기업에서는 관련 인력을 채용한 후 일정 기간 현장 근무를 시키기도 한다. 이 밖에 한국물류협회나 기업부설물류연구소 등에서 물류관리 인력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물류 관련 분야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훨씬 발달되어 있어 외국 자료를 접할 일이 많으므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실력을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유통학과, 산업공학과, 지상교통공학과 등
- **관련 자격** 유통관리사(대한상공회의소), 물류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자재·구매·물류 사무원은 계약서 작성, 수출입 문서 확인 등 숫자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유관부서와의 협업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 업무 중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유연한 사고능력 등이 필요하다. 해외 공장과 이메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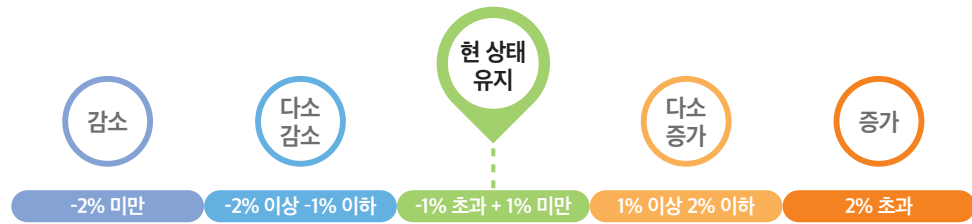
|경력 개발| 자재·구매·물류 사무원은 일반적으로 사원에서 시작하여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순으로 승진하게 되며, 타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대기업에서는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입사, 승진 또는 타 부서로 이동 시 그에 맞는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자재·구매·물류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자재관리 사무원은 2019년 약 335천 명에서 2029년 약 34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5천 명(연평균 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재·구매사무원은 회사의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 이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재관리사무원의 인력수요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LCD,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T) 산업 분야에서는 자재관리사무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신발 등의 경공업 분야 등 구조조정 및 조직 축소가 예상되는 산업에서는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제조업 국내총생산(GDP, 실질)]

(단위: 십억 원, %)

산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음식료품 제조업	19,421	6.5	19,543	0.6	20,344	4.1	20,281	-0.3	21,067	3.9	21,679	2.9	22,265	2.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8,522	2.5	18,612	0.5	17,292	-7.1	15,004	-13.2	15,288	1.9	14,503	-5.1	14,021	-3.3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12,594	-0.2	13,039	3.5	13,171	1.0	14,290	8.5	13,677	-4.3	13,891	1.6	13,509	-2.7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389	-0.1	14,079	5.2	14,312	1.7	15,575	8.8	15,544	-0.2	14,667	-5.6	14,033	-4.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6,962	3.8	68,112	1.7	70,966	4.2	71,317	0.5	73,717	3.4	75,565	2.5	75,407	-0.2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11,800	5.7	11,787	-0.1	12,377	5.0	12,909	4.3	14,248	10.4	14,190	-0.4	13,820	-2.6
1차금속 제조업	25,260	1.6	26,578	5.2	26,839	1.0	27,152	1.2	27,932	2.9	26,880	-3.8	26,646	-0.9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	31,638	-0.9	33,623	6.3	36,336	8.1	36,303	-0.1	36,178	-0.3	35,698	-1.3	34,788	-2.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95,029	5.6	100,226	5.5	101,873	1.6	112,337	10.3	117,707	4.8	131,090	11.4	139,247	6.2
전기장비 제조업	27,052	5.6	27,885	3.1	26,522	-4.9	25,621	-3.4	28,043	9.5	29,794	6.2	29,442	-1.2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803	2.0	37,439	1.7	37,042	-1.1	35,412	-4.4	43,395	22.5	43,706	0.7	42,062	-3.8
운송장비 제조업	54,537	0.2	54,223	-0.6	54,291	0.1	55,167	1.6	50,676	-8.1	49,528	-2.3	51,598	4.2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8,200	5.9	8,886	8.4	9,769	9.9	9,928	1.6	10,469	5.4	10,970	4.8	10,724	-2.2
제조업 전체 GDP	420,493	3.1	433,854	3.2	441,134	1.7	451,294	2.3	468,070	3.7	483,530	3.3	489,613	1.3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업무의 전산화 등 사무자동화시스템의 활성화로 자재관리사무원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무관련 인력은 무엇보다 기업의 조직 축소와 구조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사무관련 인력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사전 경험이 많이 필요치 않은 운영·유지 등의 자재관리사무원은 일자리 수에 비해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인력이 매우 많아 입직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산업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최첨단 부품, 신규부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외자구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원가협상능력이 회사의 이익과 생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재관리보다 구매조달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구매조달 및 자재관리 업무를 위해 RFID, 재고관리시스템이 점차 고도화되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부품이나 원자재의 입고, 출하, 재고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보다 편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자동화 및 전산화는 자재관리사무원의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류사무원의 경우 전자상거래 증가, 소비자물류 확대 등으로 인해 물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물류사무원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일반 기업에서도 기업경영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물류합리화를 통해 생산성 높은 물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기용하는 기업도 있다. 또한 물류전담 부서 또는 물류연구소를 운영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발달로 인해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류사무원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관리시스템 고도화 •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조달 및 관리의 중요성 증가 •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물류 산업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성장률 둔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 육성 정책 방안 	

종합하면, 자재·구매·물류 사무원은 전자상거래 증가, 구매조달 및 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제조업 성장률 둔화, 재고관리시스템 고도화,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가 예상되어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현 상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CFS(컨테이너화물집합소)검수원, 검량원, 검수원, 구매사무원(구매관리), 물류관리사무원, 수입창고관리원, 수출창고관리원, 자재관리사무원, 창고관리원, 컨테이너 검수관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8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23
- **관련 정보처** 한국표준협회 1670-6009 www.ksa.or.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22

생산 및 품질 사무원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생산 관련 작업계획 수립, 일정관리, 원재료의 이상 유무, 품질 등을 점검하고 최적의 생산라인 시스템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교체를 하도록 한다.



하는 일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업장 근로자의 배치를 고안하고 생산된 제품의 질을 평가하여 혹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추후 제품생산에 반영한다. 기업 운영이나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 활동, 생산된 제품의 품질 등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들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생산관리사무원, 품질관리사무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관리사무원은 제조업체의 생산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생산인력 배치, 기계사용 등 전반적인 생산 활동을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기능, 안전성 등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재소요 계획을 비롯하여 일일 또는 월간 생산을 계획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제품을 시험·측정하고 공정을 개선·관리한다. 제품의 판매동향, 고객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일시에 생산하면 재고에 따른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요보다 제품의 생산이 적으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생산계획은 회사의 수익에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생산계획을 바탕으로 재료의 종류, 품질을 결정하고 수량을 계산하며, 준비한 재료가 생산라인에 정확한 시간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한다. 또한 제품생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생산 공정, 시설, 설비, 원재료, 생산방법, 인원 등을 관리한다. 생산작업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작업교육을 의뢰하거나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품질관리사무원은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 전후 및 공정 중에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의 품질을 점검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평가한다. 제품이 완성되고 출하된 이후에도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다음 생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 업무 환경 |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생산라인이 있는 공장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한다. 생산 활동과 관련한 기술적, 사무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생산현장에서 보내며, 다소 소음이 있는 현장에서 생산라인을 관찰하거나 작업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되는 길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다루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공학과도 다양하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경영기법, 공학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산업경영학, 경영학과 출신들에게 적합하지만, 관리기법보다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특성이나 지식이 더욱 중요하므로 생산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활동하는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화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화학과, 화학공학과 출신들이 많으며, 식품회사에는 식품공학, 화학공학과 출신들이 주로 활동한다. 제조업체의 생산관리부서, 품질관리부서나 구매자재부서에서 활동하며, 채용은 일반적으로 공개채용이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유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과, 식품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 자격** 품질관리기술사, 공장관리기술사, 기술지도사, 품질경영기사/산업기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문제 상황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 납기일 조정,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영업, 자재, 인사부서와 함께 협업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 생산인력과도 대면하기 때문에 협조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설득력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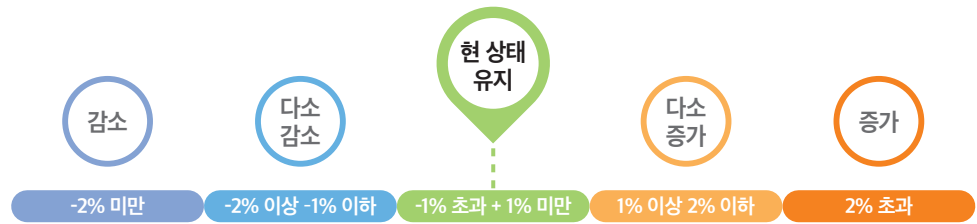
| 경력 개발 |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 등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품개발부서나 연구소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 사업체에서 습득한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법 등을 이용하여 컨설팅 업체 등으로 이·전직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2019년 약 366천 명에서 2029년 약 37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1천 명(연평균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므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관련업체의 증가 여부가 고용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9)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0.5%에 그치고 취업자 수는 217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 성장세가 감소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국내총생산(GDP, 실질)]

(단위 : 십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음식료품 제조업	19,421	6.5	19,543	0.6	20,344	4.1	20,281	-0.3	21,067	3.9	21,679	2.9	22,265	2.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8,522	2.5	18,612	0.5	17,292	-7.1	15,004	-13.2	15,288	1.9	14,503	-5.1	14,021	-3.3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12,594	-0.2	13,039	3.5	13,171	1.0	14,290	8.5	13,677	-4.3	13,891	1.6	13,509	-2.7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389	-0.1	14,079	5.2	14,312	1.7	15,575	8.8	15,544	-0.2	14,667	-5.6	14,033	-4.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6,962	3.8	68,112	1.7	70,966	4.2	71,317	0.5	73,717	3.4	75,565	2.5	75,407	-0.2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11,800	5.7	11,787	-0.1	12,377	5.0	12,909	4.3	14,248	10.4	14,190	-0.4	13,820	-2.6
1차금속 제조업	25,260	1.6	26,578	5.2	26,839	1.0	27,152	1.2	27,932	2.9	26,880	-3.8	26,646	-0.9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	31,638	-0.9	33,623	6.3	36,336	8.1	36,303	-0.1	36,178	-0.3	35,698	-1.3	34,788	-2.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95,029	5.6	100,226	5.5	101,873	1.6	112,337	10.3	117,707	4.8	131,090	11.4	139,247	6.2
전기장비 제 조업	27,052	5.6	27,885	3.1	26,522	-4.9	25,621	-3.4	28,043	9.5	29,794	6.2	29,442	-1.2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803	2.0	37,439	1.7	37,042	-1.1	35,412	-4.4	43,395	22.5	43,706	0.7	42,062	-3.8
운송장비 제 조업	54,537	0.2	54,223	-0.6	54,291	0.1	55,167	1.6	50,676	-8.1	49,528	-2.3	51,598	4.2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 비 수리업	8,200	5.9	8,886	8.4	9,769	9.9	9,928	1.6	10,469	5.4	10,970	4.8	10,724	-2.2
제조업 전체 GDP	420,493	3.1	433,854	3.2	441,134	1.7	451,294	2.3	468,070	3.7	483,530	3.3	489,613	1.3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ICT가 접목된 생산관리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가 간소화되고 있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품질향상기법과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업무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소수정예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ICT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여, 최소의 비용 및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도입이 가속화된다면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어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이를 분석해 목적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의 업무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외 치열해지는 기업 간 경쟁과 까다로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는 제품의 생산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의 역할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품질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기업이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품질관리사무원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생산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 간, 혹은 협력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앞으로도 필요하므로 급격한 고용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생산·품질관리시스템 자동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고품질 제품생산의 중요성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제조업 성장률 둔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국내외 품질기준 강화	

종합하면,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은 제조업의 성장이 더딘 가운데 생산·품질관리시스템의 자동화가 예상되어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현 상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공정관리기술자, 생산계획원(기계·자동차·금속), 생산관리사무원(기계·자동차·금속),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공정관리사무원, 생산관리기술자, 품질계획사무원, 품질관리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8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24
- **관련 정보처** 한국능률협회 (02)3274-9200 www.kma.or.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한국표준협회 1670-6009 www.ks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23

고객 상담원

방문고객 및 상담전화로 걸려오는 각종 민원사항에 응대하고 창구의 자료 및 이용안내문 배치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고객 상담원은 각종 상품의 신규신청, 전·출입, 명의변경, 해지, 요금조정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청구서를 접수한다. 계약서식의 여백을 채우고 요구된 서비스의 비용을 알려 준다. 컴퓨터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기록내용을 변경하고 증명서를 발행한다. 상품 카탈로그, 안내장 및 내역서 등을 발송한다. 신종 서비스의 사용 방법 및 절차를 고객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다.

|업무환경| 주로 고객센터에서 앉아서 근무하며, 주어진 상담시간 내에서 근무를 한다. 전화로 걸려오는 고객의 문의 또는 요청에 응대하고, 직접 고객에게 전화해서 상품설명, 가입권유 등을 하기도 한다. 전화상담 외에도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한 상담도 수행한다. 장시간 상담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결림, 청력 이상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되는 길

고객 상담원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주로 기업체,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한다. 입사 후에 전화응대기법, 불편사항 접수 요령, 화술 등을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주로 응대하는 상담의 서비스내용 및 상품정보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 관련 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2급)

| 적성 및 흥미 | 전화 및 방문고객 상담원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기업의 상품설명 혹은 기존의 제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에 응대해야 하므로 설득능력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목적과 성향을 가진 고객을 응대해야 하므로 인내심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고객 상담원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고용되어 있지만, 주로 병원, 백화점, 운송기관, 공공기관, 컨설팅 회사, 쇼핑몰 등과 같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고객 상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고객 상담원은 2019년 약 197천 명에서 2029년 약 19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 상담원은 주로 병원, 백화점, 운송기관, 공공기관, 컨설팅 회사, 쇼핑몰 등과 같은 곳에서 활동한다. 특히 인터넷,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하면서 해당 인력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챗봇 등 기계의 사용이 고객 상담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실제로 고객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화하고 통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자동화시스템의 일부 변환이 가능한 고객상담 업무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고객 상담원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들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자동화응답시스템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인터넷,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증가	

종합하면, 기업의 고객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강화와 인터넷,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챗봇 등 자동화응답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고객 상담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고객 상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AS상담원, 고객센터만족도조사원, 모니터요원, 미스터리쇼퍼, 소비자상담원, 인터넷통신상담원, 전화고객상담원, 콜센터상담원, 행정민원상담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9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991
- **관련 정보처** 한국능률협회 (02)3274-9200 www.kma.or.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24

병원코디네이터

의료현장에서 근무 분위기 조성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원내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을 기획한다.



하는 일

내국인 환자를 응대하는 경우 병원코디네이터로, 외국인 환자를 응대하는 경우에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구분된다.

병원코디네이터(의료코디네이터)는 전화, 메일 등으로 상담을 하고, 환자의 예약관리 및 사후 관리를 한다. 내방객의 방문목적を確認하고 진료를 접수한다. 초진의 경우 문진항목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과 주의점, 처방전 등을 안내한다. 환자의 추후 내방에 관한 예약관리를 하며, 수납을 담당한다. 병원 분위기 연출을 위해 실내외 환경을 조성한다. 기본적인 상담을 위해 의사, 간호사로부터 의학지식을 교육받는다. 병원 이미지 개선 및 경영 개선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기획한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지원, 관광 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술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술 분야에 맞는 적절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환자들의 접수부터 진료 시 통역, 진료 후 처방에 따른 약 처방전 설명이나 치료과정을 설명한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 입원수속부터 수술 시 진행사항 설명, 퇴원수속, 퇴원 후 상태 관리 등 모든 것을 도와준다. 또한 외국인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개발한다.



되는 길

| 업무 환경 | 병원코디네이터는 실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편이다. 다만 병원 일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환자를 응대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경우 의료관광을 온 고객에게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해 출장을 갈 수도 있다.

병원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병원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며,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이나 국가자격인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편이다.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를 전공하고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면 병원코디네이터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 **관련 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보건행정학과, 비서행정학과, 치위생학과 등
- **관련 자격** 병원코디네이터, 국제의료코디네이터(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병원코디네이터의 경우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이해와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병원 이미지 개선 및 경영 개선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고객에게 대응하는 자세와 현장에서의 순발력, 상황대처능력이 요구된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경우 외국인 환자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는 자세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병원코디네이터는 일정 기간의 병원 경력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상담과 병원코디네이터 관리, 병원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상담실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 상담실장을 거쳐 각 부서의 직원 관리, 병원의 마케팅 및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실장으로도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병원코디네이터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병원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은 2019년 약 197천 명에서 2029년 약 19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의료시장의 개방과 국내 병원의 대형화, 병원의 체인화로 인해 국내의 병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마케팅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병원코디네이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수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병·의원 수	60,899	63,675	63,419	64,999	66,631	67,847
치과 병·의원 수	15,799	16,135	16,797	16,996	17,383	17,664
한의원 수	12,816	13,135	13,605	13,860	14,155	14,329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사람들의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코디네이터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통해 질병치료 및 예방,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도 환자 상담과 홍보를 담당하는 병원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국내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가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유형별 외국인 실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입원	3,915	7,987	11,945	14,809	20,137	23,855	24,489	26,276	27,678	27,879	24.4
외래	56,286	73,802	110,352	144,655	191,081	242,646	272,400	337,913	293,896	351,088	22.6
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22.7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한편 병원의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병원코디네이터 업무 중 예약, 수납 등의 단순업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환자를 응대하거나 상담하는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단순 업무 대체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고객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국내 병·의원 수 증가	

종합하면, 국내 병·의원 수 증가와 고객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확대, 사람들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 등의 요인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병원코디네이터의 일부 업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병원코디네이터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AS상담원, 고객서비스만족도조사원, 모니터요원, 미스터리쇼퍼, 소비자상담원, 인터넷통신상담원, 전화고객상담원, 콜센터상담원, 행정민원상담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9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991
- **관련 정보처**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02)452-0002 www.khca.or.kr
(사)병원코디네이터협회 (02)3445-6493 www.hcakorea.org

※ 병원코디네이터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자격증을 발행하는 협회만 존재

25

회계 및 경리사무원

회계 및 경리사무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현금, 상품, 채권, 채무 등의 증감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담당업무에 따라 회계사무원과 경리사무원으로 분류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가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는 편이다. 회계 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진행되어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표를 입력하고 결재한다. 기초적인 재무제표는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회계 및 경리사무원은 주로 자료입력 후 최종 검토하는 일을 하며, 회계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회계사무원은 기업의 모든 거래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한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기타 소득신고서 및 각종 회계 관련 통계, 재무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경리사무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뉴얼이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서, 송장, 계산서 및 기타 경리서류를 작성하여 발행한다. 재무기록 및 수취계정, 지불계정과 같은 거래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처리하고 대조하며 원장이나 전산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다. 또한 직원의 임금이나 수당 계산지급, 퇴직금 계산, 연말정산, 기타 일반 경비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통장과 현금의 관리,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 환경 | 회계 및 경리사무원의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며 매우 규칙적이다. 매월 급여 제공기간이나 회계연도 말에 업무가 집중되는 편이다. 이들은 매일 컴퓨터로 작업하며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어깨 결림, 목 디스크, 눈의 피로,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다.



되는 길

일반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나, 대기업의 경우 관련 전공의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편이다. 회계 및 세무 관련 학과에서는 회계와 세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를 배운다.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세무, 회계 실무교육이 중요해졌으므로 세무 및 회계 관련 전산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회계 및 경리사무원은 일반기업, 관공서, 금융기관 등의 회계부서나 회계·세무법인이나 사무소 등에 취업한다. 공개채용, 수시채용, 학교장 추천 등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입사 후 회계부서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 뒤 일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세무회계학과, 경영회계학과, 경영학과, 전산세무회계과, 경제학과, 비서학과, 행정학과
- **관련 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3급(대한상공회의소),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3급, 기업회계 1급/2급/3급(이상 한국세무사회)

| 적성 및 흥미 | 회계 및 경리사무원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능력이 필요하고 수치에 대한 정확성과 꼼꼼함이 요구된다. 거액의 현금, 어음, 당좌수표 등을 취급하므로 평소 신중해야 하고 정직성과 책임감도 요구된다. 임금이나 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대인관계, 협조능력도 중요하다.

| 경력 개발 | 회계 및 경리사무원은 회계부서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도 하고, 타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회계 및 경리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9)에 따르면, 회계사무원은 2019년 약 272천 명에서 2029년 약 29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리사무원은 2019년 약 556천 명에서 2029년 약 57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9천 명(연평균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모든 업종에서 회계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무 및 재무, 회계 관련 기준들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국제적인 표준도입도 잇따르면서 회계를 전문으로 담당할 사무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부문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비롯해 차후 새롭게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회계전산시스템을 비롯해 선제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강화로 회계사무원이 다뤄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이는 고용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도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2011년 6만 5,833명에서 2018년 9만 772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계및세무 관련서비스업사업체및종사자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9,622	10,192	10,570	11,206	11,806	12,169	12,336	12,874
종사자 수	65,833	69,552	71,719	75,685	82,441	85,293	87,223	90,77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다만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회계사무원의 업무가 일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리사무원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집행을 관리하는 등의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최근 전산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금전출납기록 및 관리를 비롯해 인터넷 बैं킹의 활성화로 금융기관 관련 업무 등이 축소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감소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단순반복적인 경리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리사무원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경리사무원의 고용은 신규 일자리보다 기존 일자리를 떠나는 이·전직으로 인한 대체수요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 및 경리사무원에서 단순경리업무는 전산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리사무원보다 회계사무원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히 회계와 경리분야에 인공지능이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자금과 관련한 위험관리, 회계감사 관련 업무 등 업무경력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에는 인공지능 도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회계 관련 시스템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업환경도 급변하고 있어서 회계 및 경리사무원 스스로 전문성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프로그램 사용 증가 • 인공지능 기술발전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반복적인 업무 아웃소싱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 증대 • 국제회계기준 다양화 	

종합하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전산프로그램의 사용 증가로 인한 회계처리의 간편화,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아웃소싱 등의 요인은 경리사무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 증대, 국제회계기준의 다양화 등은 회계사무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10년간 회계 및 경리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총무사무원, 회계사, 세무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71 027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31 3132
- **관련 정보처**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114 www.korcham.net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100 www.kicpa.or.kr
한국세무사회 (02)521-9451 www.kacpta.or.kr

26

안내 및 접수사무원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고객이나 방문객을 안내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요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종 민원사항과 창구의 자료 및 이용안내문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업무도 수행한다.



하는 일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기업체 로비데스크, 호텔, 백화점, 음식점, 병원, 관공서, 공항, 행사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수행 업무나 근무 장소 등에 따라 예약 및 접수사무원, 데스크안내원, 화랑 및 박물관 안내원, 시설 및 건축 안내원, 방송안내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예약 및 접수사무원은 예약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예약을 접수하고 문의에 응대한다. 예약시스템 또는 예약 장부를 확인하여 제공할 상품이나 서비스, 일정, 비용 등의 예약정보를 미리 확인하며 예약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데스크안내원은 보통 건물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나 승강기 등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안내한다. 호텔, 백화점, 상점, 전시장, 기업체 등의 데스크에서 특정 위치의 안내나 고객의 질문에 응대하는 일을 한다. 관공서에서는 출입하는 손님의 신분과 선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돕기도 한다.

화랑 및 박물관 안내원은 화랑이나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작품이나 전시물을 안내하고 설명한다.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며, 홍보물을 나누어주기도 한다. 단체 관람을 담당할 때는 방문 후에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감사인사를 보내는 등 사후 고객관리를 하기도 한다.

시설 및 견학 안내원은 기관 및 산업체의 견학단이나 개인 방문객을 맞이하고 주요 시설물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며 방문객의 질문에 답변한다. 또한 산업체의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방문 후에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감사인사를 보내는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방송안내원은 주로 공항, 병원, 백화점 등에서 일한다.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항공기의 발착시간, 편의시설과 분실물 안내, 미아 찾기 등에 대해 방송하며, 병원에서는 원내 의료진들의 연락방송을 수행한다.

| 업무 환경 | 일반적으로 건물 내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근무하는 장소와 역할에 따라 근무환경이 다양하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현관 로비의 접수데스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교대근무 체제로 야간근무, 주말 및 휴일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시설 및 견학 안내원은 건물 로비의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방송안내원은 방송기계가 갖추어진 방송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되는 길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다. 훈련은 대부분 상급자의 지도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호텔이나 항공사와 같이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다. 회사 홈페이지나 신문광고, 취업소개 사이트 등을 통해 정기 채용이나 수시모집으로 채용된다. 대개 일정한 시험전형을 거쳐 선발되는데 면접 및 외국어 구사능력, 전산능력, 실기테스트 등을 거친다.

■ **관련 자격** 호텔서비스사(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고객이나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정신과 정보 습득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 능력도 필요하다. 업무상 컴퓨터 활용능력과 외국어 구사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 전산과 회화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 경력 개발 |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고용되어 있지만, 특히 의료보건, 금융, 호텔, 운송, 통신 및 공익설비, 경영서비스, 유통,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안내 및 접수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2019년 약 96천 명에서 2029년 약 8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천 명(연평균 -0.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한 기관, 혹은 조직의 첫 이미지를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고객서비스의 접점에서 종사하는 직업이다. 기업차원에서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도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서비스별로 고객 상담원을 두고 응대하기도 한다. 친절한 안내와 응대서비스가 기업이나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에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및 접수사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 만큼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고용전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매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들 문화시설에 종사하는 안내 및 접수사무원의 일자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국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2011	1,559	759	511	229	19	655	319	251	85	145	35	105	5
2012	1,634	786	534	232	20	694	342	262	90	154	39	110	5
2013	1,739	828	576	232	20	740	358	287	95	171	40	124	7
2014	1,809	865	614	232	19	754	365	299	90	190	48	131	11
2015	1,941	930	679	232	19	809	371	336	102	202	51	140	11
2016	2,023	978	725	232	21	826	379	351	96	219	55	150	14
2017	2,092	1,010	758	231	21	853	388	361	104	229	57	157	15
2018	2,166	1,042	791	231	20	873	398	371	104	251	68	168	15
2019	2,235	1,096	840	233	23	881	416	363	102	258	72	172	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1~2019)

그러나 관광산업의 경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호텔, 여가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문화시설 종사자도 상용직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늘어나는 시설에 비해 인력 채용 규모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비스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항, 호텔, 박물관, 병원 등에서 안내 로봇을 도입하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접수하는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내 및 접수사무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안내 및 접수사무원은 상대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한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고, 감정노동을 하는 업무 특성의 어려움도 있는 편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한 서비스 로봇 도입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고객 응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 기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아웃소싱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관광 및 문화산업의 확대	

종합하면, 기업의 고객 응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강화와 국내 관광 및 문화산업의 확대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한 서비스 로봇 도입의 확산과 기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아웃소싱 증가는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안내 및 접수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화교환 및 번호 안내원, 시설 및 견학 안내원, 화랑 및 박물관 안내원, 고객상담원, 호텔 및 콘도 접객원, 호텔컨시어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9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922
- **관련 정보처** 한국관광공사 (033)738-3000 kto.visitkorea.or.kr
한국MICE협회 (02)3476-8325 www.micekorea.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27

비서

비서는 경영자나 관리자가 그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를 위해 일정을 관리하고 업무를 조율하며 외부와의 연락, 방문객 안내 등의 보좌업무를 전담하며, 또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대내외 행사를 준비하거나 외부 행사에 동행하기도 한다.



하는 일

비서의 업무는 조직 규모, 보좌하는 상사 직급, 근무 장소,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에 따라 크게 전문비서와 일반비서로 구분된다.

전문비서는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법률,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행정 및 관리에 대한 실무자로서 상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하고 내외부 여러 사람들과 일을 조율함으로써 상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종 자료를 분류 정리하고 문서작성 등의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상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요약한다. 또한 상사의 지시 연락사항을 전달하고, 내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와 메일, 전화 등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회의소집 연락을 하며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한다. 전문비서는 소속 기관에 따라 기업비서, 공공기관비서, 교육연구비서, 의료비서, 법률비서, 회계비서, 의원비서, 대사관비서, 경호비서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기업비서는 경제, 경영, 인사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자를 보좌한다. 공공기관비서는 행정업무에 관한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연구비서는 학교 행정업무책임자를 보좌하거나 학교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한다. 의료비서는 의학이나 보험과 관련된 용어나 규정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종합병원의 전문경영인이 병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법률비서는 법률사무소나 합동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에 관련된 문서를

처리하고 소송문의, 의뢰인 응대를 한다. 회계비서는 회계학 지식과 컴퓨터와 영어에 대한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회계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상사를 보좌한다. 국회의원비서는 국회 등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외국대사관비서는 주한 외국대사를 보좌하며 귀빈 방문 시 영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경호비서는 상사의 안전을 관리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한다. 일반비서는 전문비서처럼 특정 전문분야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사의 일정을 계획, 관리, 조정하고 상사가 최적의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들은 우편물이나 서류 보관, 각종 자료의 정리 및 문서작성, 전화응대, 회의소집, 방문객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환경| 비서는 대부분 비서실이나 사무실 내에서 정규시간 동안 업무를 본다. 회의 및 일정 계획, 방문객 맞이, 전화 응대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사무장비나 접대물품들이 구비된 공간인 경우가 많다.



되는 길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관련 정규교육 과정으로 비서 일반, 비서 실무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비서학과, 비서행정과, 국제비서과 등이 있다.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정보 및 사무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의 컴퓨터교육과 외국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컴퓨터 활용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학 실력을 갖추면 취업에 더욱 유리하며,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언어로 문서 작성과 회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 채용 및 추천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나 사설 교육기관으로 추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국내외 일반기업이나 정부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비서학과, 비서행정학과, 국제비서과, 경영학과, 국제사무학과, 비서정보과, 경호비서학과, 호텔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 어문계열학과 등

■ **관련 자격** 비서 1급/2급/3급(대한상공회의소)

|적성및 흥미| 상사의 신상이나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좌하는 상사가 비서를 믿고 주요 일정이나 비밀서류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문서관리나 보안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보좌하는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 상사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중요하다. 비정형화된 업무가 많으므로 순발력과 상황대처능력 등도 필요하다. 사무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습능력, 풍부한 지식, 뛰어난 기억력, 정확한 의사전달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요구된다. 전문비서의 경우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회화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경력 개발| 일부 기업에서는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비서직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비서로 채용했다가 총무과, 인사과 등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빈도가 높아져 일정 기간 근무 후 이직하기도 하는데, 2~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구직자를 시장에서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비서→비서과장→비서실장’ 등으로 승진하기도 하며, 승진체계 없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비서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비서는 2019년 약 18천 명에서 2029년 약 1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0천 명(연평균 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서는 기업체 임원이나 경영진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비서는 경영전략에 따른 임원감축 여부에 따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파견직(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불황 시 신규고용 감소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원 중에서도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서들이 수행하던 일정관리 등을 스마트폰의 일정관리,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임원진 스스로 하는 등, 일정관리나 예약 등의 단순업무는 시스템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비서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달은 비서의 업무를 상당수 줄여주기 때문에 기존보다 적은 인력으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비서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 혹은 조직원의 업무를 보좌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직업이고,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업무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첨단기술발전이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일정부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1:1 비서가 아닌 팀 단위의 업무를 지원하는 팀비서, 1인 CEO비서 등 일반비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들은 기존의 비서업무 이외에 경영지원, 사무행정, 회계 등을 함께 수행하기도 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융복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서인력을 채용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팀원들과 협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팀비서 형태가 증가 추세인 것은 기업체에서의 비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임원에 대한 비서는 감소할 것이나, 팀비서는 늘어날 수도 있다.

산업이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비서도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서를 중심으로 고용할 것으로 보여 전문비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병원, 회계 및 법무법인 등에서 의료비서, 법률비서, 회계비서 등을 비롯해 특정 산업이나 외국계 업체 등 특정 전문분야에 역량을 가진 전문비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안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경호비서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많은 직업 특성상 전문성을 쌓지 않으면 경력개발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체 조직을 이해하는 장점을 가진 비서로서의 경력을 살려 홍보, 인사 등 여타의 경영지원부서에서 일하기도 하므로 경력개발이 필요하며 전문비서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보 관련 테크놀로지 수용 및 사용능력, 외국어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관리 및 예약 등 단순업무의 시스템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효율화를 위한 파견직 및 비정규직 채용 • 임원진의 비서 감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비서 증가 (의료, 법률, 회계비서 등) 	

종합하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고용유연화나 인공지능 비서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비서의 단순업무가 일정 부분 대체되는 등 비서 인력이 감소할 수 있지만, 기술발달로 업무가 고도화되고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비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10년간 비서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일반비서, 관리비서, 전문비서, 사무보조원, 조사자료처리원, 병원행정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9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41
- **관련 정보처**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114 www.korcham.net
(사)한국비서협회 (02)702-4048 www.kaap.org

28

속기사

회의, 강연, 강의, 좌담회, 공판정 등에서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듣고 속기부호를 이용하여 받아쓰거나 타이핑하고 다시 평상문자로 번역하여 기록, 문서로 작성한다.



하는 일

속기사는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듣고 속기부호로 받아쓰거나 컴퓨터 속기기계로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받아쓰기가 끝나면 속기부호를 일상문자로 옮겨 적거나 속기기계로 기록한 내용을 수정, 편집한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발언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틀어놓고 확인하기도 하며, 녹음된 구술사항을 듣고 속기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속기사는 주로 앉아서 컴퓨터로 속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적고 한 자리에서 일하는 편이다. 속기록 작성 시 여러 차례에 걸쳐 오탈자가 없는지 등을 반복해서 검토한다. 장시간 앉아 집중해서 듣고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나 목,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가기도 한다.



되는 길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속기사 전용 속기키보드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디지털영상속기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원격지 영상을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수정해가면서 속기록 작성을 하는 디지털영상속기 능력이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속기사 양성학원에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업무능력을 익히는 편이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회, 법원, 검찰과 경찰 등 기록을 중요시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속기사를 채용할 때 합격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다.

■ 관련 자격 한글속기 1,2,3급(대한상공회의소)

[적성 및 흥미] 맞춤법과 문법, 어휘력 등 전반적인 국어능력이 요구된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뉴스 등을 자주 보아 시사 상식과 어휘를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속기록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속기록 작성 시 여러 차례에 걸쳐 오타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교정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함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기록하기 때문에 빠르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 및 임기응변 능력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회나 의회, 법원 등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등의 정부 기관과 정부 부처에서 일할 수 있다. 속기 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속기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기록물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업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는 영상녹화제를 실시하면서 속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자막을 넣어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속기사의 고용은 향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속기의 등장으로 인해 반복되는 입력 작업은 자동 처리되고, 수정·검수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속기사가 담당함으로써 속기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AI) 속기 등장으로 인한 단순업무 대체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영상녹화제 실시	

종합하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업무 증가, 영상녹화제 실시 등으로 인해 속기사 인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속기 등장으로 인해 단순업무는 대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10년간 속기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교열원, 도서출납원, 자료편집사무원, 점자교정원, 직업알선원, 취업알선원, 행정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9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999
- **관련 정보처** (사)대한속기협회 k-steno.com
한국AI속기사협회 (02)876-0161 kcost.org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02)839-5933 smartsteno.org

29

행정사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나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심판(이의신청 포함)이나 소청, 사회보장법(국민건강, 연금공단 요양비 신청 등)과 관련 심사청구 등 행정업무에 사실조사 및 대리를 의뢰받아 착수금, 신의성실원칙 등이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의뢰받은 업무(서류작성, 서류번역, 서류제출대행, 신고, 신청, 청구대리)의 특성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한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리적인 대안을 연구한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실제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한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 등에 관련된 업무는 기존 판례,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법적 논거나 근거를 찾아서 행정심판청구서, 소청심사청구서 등을 작성한다. 작성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대신 제출한다. 행정법령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전화나 면담을 통해 소비자와 민원상담을 한다.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되는 길

| 업무 환경 |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사시험(행정안전부)에 합격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협회에서 일정기간 소양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다음,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경우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번역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일반행정사(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어번역행정사(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기본적으로 행정법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영업 노하우도 필요하다. 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두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행정사가 상호간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행정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행정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행정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 행정사법령의 개정을 거쳐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시험에는 약 1만 1,712명이 행정사 시험에 지원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부여받는 전부면제자가 매년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원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연도별 행정사 합격인원]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행정사	지원자 수	11,221	3,282	2,599	2,350	2,283	2,575	2,962
	합격자 (일반응시자)	269	287	287	287	266	210	233
	최종합격자 (면제포함)	66,418	87,737	50,166	65,065	46,068	25,336	22,946
기술행정사	지원자 수	148	86	76	86	49	92	106
	합격자 (일반응시자)	3	3	3	3	5	3	3
	최종합격자 (면제포함)	24	218	429	602	844	1,079	1,508
외국어번역 행정사	지원자 수	343	192	212	268	242	274	284
	합격자 (일반응시자)	24	40	40	40	40	40	40
	최종합격자 (면제포함)	43	74	66	77	77	83	93
전체	지원자 수	11,712	3,560	2,887	2,704	2,574	2,941	3,352
	합격자 (일반응시자)	296	330	330	330	311	253	276
	최종합격자 (면제포함)	66,485	88,029	50,661	65,744	46,989	26,498	24,547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금까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약 38만 명에 이른다. 이 중에 실무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개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9년 기준 약 9,300명(전체 자격자의 2.5%) 정도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사업 신고 및 영업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중	8,067	7,648	7,874	8,214	8,898
휴업	465	482	430	575	423
합계	8,532	8,130	8,304	8,789	9,321

자료 : 행정안전부

사회가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얽힌 행정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대행 업무는 줄어드는 대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분야로 행정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5월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단일행정사회 설립(가칭 대한행정사회) 및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사회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행정법률 무료상담을 해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행정사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도 행정사 수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일자리의 변동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단순 행정업무의 전산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행정업무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지자체별 법제도 및 행정적 지원의 변화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9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999
- **관련 정보처** 공인행정사협회 (02)866-8383 www.aapak.org
대한행정사협회 (02)2635-5470 www.kapal.or.kr
한국일반행정사협회 1577-5230 www.kaoga.or.kr

30

취업알선원

취업알선원은 구인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 및 구직 신청을 접수하고 취업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하는 일

취업알선원은 직업소개소 및 헤드헌팅업체 등에서 일하며 구직자와 구인자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일을 한다. 경비, 건설노동자, 경리, 운전기사, 식당종사자 등 단순 인력부터 중견간부급 이사,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을 알선하고 관리한다. 이 중 고급인력을 주로 관리하면서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선정·평가·알선하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한다. 이들은 보통 컨설턴트와 리서처로 구분된다. 컨설턴트는 구인처 발굴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추천자의 최종 평가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리서처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대상자를 조사하여 컨설턴트에게 추천하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한 명이 구인처를 발굴하고 적합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1997년 헤드헌팅이 합법화된 이후 관련 시장이 계속 커졌지만, 헤드헌터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수수료 관련 기준 마련, 윤리경영 등과 관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할 협회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 서치펌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수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 법조, IT, 코스메틱 등 분야에 따라 알선업체가 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업무환경]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내근무가 많으며, 직업지도, 취업특강, 취업처 발굴 등을 위하여 출장을 가기도 한다. 내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하면서 컴퓨터 입력을 동시에 해야 할 때가 많아 눈이나 목, 손, 어깨 등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되는 길

취업알선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상담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각종 직업소개소의 경우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다. 외국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급인력 알선업체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근무자도 많으며, 외국어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헤드헌터 중 컨설턴트는 대개 해당 분야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 **관련 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직업학과, 교육학과,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등
- **관련 자격** 직업상담사 1/2급(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직업을 알선하여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 업무로 내담자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잘 파악하여 맞는 직업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력 개발 | 취업알선원은 주로 유료직업소개소, 고급인력 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서 활동한다. 헤드헌팅업체에 입사한 경우 리서처로 입사하여 5~8년 정도가 지나면 컨설턴트로 승진할 수 있고 일정 경력을 쌓은 후 헤드헌팅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취업알선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채용문화가 열린채용, 직무중심채용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구인자·구직자 모두로부터 채용방식 변경에 따른 취업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민여성 등 외국인력 유입, 청년 실업자 증가,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알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계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13	13,775	435,796	7,347	33,005	6,428	402,791
2014	14,581	447,601	7,680	29,274	6,901	418,327
2015	14,125	484,504	7,296	35,609	6,829	448,895
2016	14,153	500,609	8,126	30,333	6,027	470,276
2017	14,383	514,373	8,302	25,912	6,081	488,461
2018	15,060	522,354	8,900	27,866	6,160	494,48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8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업체 수는 2013년 1만 3,775 개소에서 2018년 1만 5,060개소로 지난 5년간 9.32% 증가하였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도 2013년 43만 5,796명에서 2018년 52만 2,354명으로 19.8%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은퇴자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임원 등 고급은퇴인력, 기술전문인력 등 분야 및 인력 특성에 따라 사업을 세분하여 전문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은퇴인력 외에도 이·전직을 원하는 중간관리자, 기술전문인력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구인·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자리센터에서의 인력 충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취업알선원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취업알선 시스템 발전으로 인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맞춤 매칭을 담당하면서 단순 취업알선 업무는 일부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알선 요구 증가	
국내외 경기	• 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이·전직 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기반 취업알선 시스템 개발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채용문화 변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종합하면, 취업알선 요구 증가,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인공지능 기반 취업알선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취업알선원의 일부 업무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취업알선원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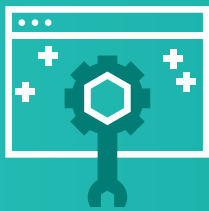
- **관련 직업** 취업알선원, 직업상담사, 커리어코치, 취업지원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9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999
- **관련 정보처** 고용노동부 1350 www.moel.go.kr
 고용복지센터 www.work.go.kr/jobcen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2



금융·보험관련직

- 01 투자 및 신용분석가
- 02 자산운용가
- 03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 04 증권 및 외환딜러
- 05 손해사정사
- 06 은행사무원
- 07 증권사무원
- 08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 09 출납창구사무원
- 10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01

투자 및 신용분석가

투자 및 신용분석가는 투자분석 또는 신용분석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기업가치평가, 개인신용분석, 기업신용분석, 리스크관리 등을 담당한다. 투자분석가는 자신의 회사나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적절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수행한다. 신용분석가는 주로 신용을 연장하거나 대출과 관련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의 신용자료 및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하는 일

투자분석가는 증권회사 리서치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흔히 애널리스트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개인고객이나 기업,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분석, 산업분석, 개별 종목분석 등을 통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등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를 리포트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등에서 종사한다. 투자분석가는 거시경제 흐름이나 산업별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경영, 재무정보, 성장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투자분석가마다 자신의 담당 산업분야가 상이할 수 있는데 주로 반도체 분야, 전기·전자 분야, 통신서비스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운송 분야, 조선 분야, 건설건자재 분야, 화학정유 분야, 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해당 기업 및 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기업별 재무 분석, 유망업종 및 유망기업 선정, 주가전망,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분석 등을 수행한다. 또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주식매매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주가를 산출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예측한다.

신용분석가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여신부서나 카드사, 신용평가전문업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기업, 소상공인, 혹은 개인의 신용을 분석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돈을

값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다. 이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현금 흐름, 활동성, 산업 위험도, 경영 위험도, 영업 위험도, 기술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단계별로 등급화한다. 국내 은행은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외부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외감기업과 외부인에 의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외감기업 등으로 분류하며 실적에 따라 10~20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용분석가는 돈을 빌리려는 시점에 대출대상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그 후 정기적으로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영해 재평가한 후,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의 신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제출서류, 신용평가데이터에 의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을 판단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재무에 기반한 신용분석이 아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신용평가방식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업무 환경| 투자 및 신용분석가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보내지만, 투자분석 보고서나 신용분석보고서 작성, 기업탐방, 시장조사, 투자자 방문을 위해 자주 외부출장을 가기도 한다. 투자분석가의 경우 증권 정규 장이 마감된 후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리포트 제출일이 임박하거나 금융시장의 분석, 자문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야근도 상대적으로 빈번한 편이다.



되는 길

투자 및 신용분석가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정규교육과정은 없으나 대학에서 경영이나 경제, 회계, 통계, 금융 등의 관련학을 전공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투자분석가는 일반적으로 신입으로 입사 후 RA(Research Assistant)로서 2~3년의 조사분석업무 등의 경험을 하고 자체시험에 통과한 후 본격적인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로 근무하기도 한다. 재무관리, 투자, 파생상품, 재무제표 분석, 회계, 통계, 국제경제 관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취업 시 경영, 경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및 기업분석을 위해 이공계열 전문지식이 필요 할 때도 많아 이공계열 전공자가 경영, 경제 등에 대한 추가지식을 쌓은 후 입직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후 투자분석가로 입문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신문, 증권사 기업분석리포트 등을 꾸준히 숙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보다 세계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경제, 무역, 정치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의투자게임을 해보거나 적은 금액으로 실제로 주식에 투자를 해보는 소액실전투자 등 증권 관련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용분석가는 입사 후 실무경험을 거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육성되거나 관련 금융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후 경력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재무, 현금 흐름, 시장 환경, 법규 등과 관련된 자료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SNS 등을 분석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이공계열(정보통신, 통계 등) 전공자들이 신용분석 및 평가를 위해 입직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용평가전문업체 및 기관, 국가 등의 신용등급을 분석, 조정하는 국제 신용평가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금융·보험학과,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제학과, 산업경제학과 등
- **관련 자격** 증권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이상 금융투자협회), 여신심사역(한국금융연수원), CFA(국제재무분석사), CIAA(국제공인증권분석사), CRA(신용분석위험분석사), 신용분석사(한국금융연수원) 등

| 적성 및 흥미 | 투자 및 신용분석가는 금융, 경제, 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에 대한 논리적 분석력, 상황에 대한 판단력, 업무에 대한 집중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데이터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능력과 통계 분석력도 요구된다. 성격이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에게 적합하며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도 갖추어야 한다. 팀 단위로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각종 해외경제동향 파악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유리하다.

| 경력 개발 | 투자 및 신용분석가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금융회사, 은행, 경제연구소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외국계 신용평가회사에 진출할 수도 있다. 주로 공채를 통해 입사하거나 경력자 위주의 소규모 수시 채용을 통해 입사할 수 있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분석가는 보통 3년 정도 보조 애널리스트(RA)로 일하며 업무를 배우면서 일정 이상의 업무 경험과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뒤에야 자신의 이름으로 리포트를 쓸 수 있다. 신용분석가는 일반적으로 소속된 금융기관의 직급체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투자 및 신용분석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투자 및 신용분석가는 2019년 약 11천 명에서 2029년 약 1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연평균 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변동성이 심해지는 국내외 경제환경은 투자처에 대한 선별과 보다 면밀하면서도 선제적인 분석 및 정보제공이 필요해질 수 있어 향후 전문성을 갖춘 투자분석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주식 같은 전통적 투자상품 이외에 헤지펀드, PEF, 부동산리치상품을 비롯해 금, 원유 등 다양한 대체투자상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대상 국가도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적절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투자분석가의 역할은 계속 중요해질 수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분석가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보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분석적이고 꼼꼼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수 있어 투자분석가의 고용에 별다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확정 금리보다 투자상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분석가의 일자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불황,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투자분석가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증권중개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1년 1,784개소 4만 2,930명에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8년 1,035개소 3만 4,97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권중개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784	1,591	1,433	1,221	1,182	1,112	1,062	1,035
종사자 수	42,930	39,058	37,308	34,184	34,561	33,677	33,573	34,976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서도 현재 증권회사에서 ‘금융투자분석사’¹⁾로 등록된 사람은 2018년 1,021명으로 2010년 1,548명, 2014년 1,147명에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역시 국내외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투자분석가의 상당수가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만큼 이들의 고용위축을 가져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애널리스트가 업무과다, 인사적체, 경기불황으로 인한 증권사 수익감소로 인한 투자분석가의 구조조정 등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산운용사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신용분석가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신용상태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나 은행 등이 리스크 관리, 신용위험 분석 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분석가의 역할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일자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 금융산업 전반에서 활용됨에 따라 신용분석가의 수요가 꾸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용평가는 개개인의 판단기준과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전달이 중요하므로 기계가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신용평가를 했을 경우 기술적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할 수 있어 단기간에 인공지능을 통한 신용평가가 공시되기는 어렵고 참조자료 정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정형화된 단순 등급제의 신용평가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쇼핑패턴, 자동차 사고이력 등 다양한 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를 세분화하고 재평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직무에 기반한 신용분석가가 계속 필요해지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기존의 신용등급 대신 0점~1천 점까지의 구간을 나누는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1)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 및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 증권회사(리서치센터)에서 조사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신용평가 시 금융정보 이외에 다양한 비금융정보까지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간(P2P) 대출 전문업체처럼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분야가 늘어나는 것도 신용분석가의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보다 정교한 신용분석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신용분석가의 고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핀테크 활성화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 핀테크, AI 기반 기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업무수행 보완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리스크 관리 중요성 인식	• 금융권의 효율화로 인한 구조조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산업이 고도화 복합화되고 신산업의 등장으로 평가 대상 증가 • 핀테크의 발전으로 신산업 및 비즈니스 활성화	• 언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신용평가방식 다양화	

종합하면, 정보의 비대칭화로 투자분석가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언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늘어나고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본연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분석능력 측면에서 직업 내 양극화가 발생할 수는 있다. 경기변동, 다양한 투자상품의 등장, 핀테크의 활성화는 투자 및 신용분석가의 고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수 역시 전반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신용분석가, 금융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증권중개인, 선물거래중개인,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외환딜러,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리스크매니저, 보험인수심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21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www.kofia.or.kr
금융투자교육원 1588-2133 www.kifin.or.kr

02

자산운용가

자산운용가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전문 투자자로 흔히 '펀드매니저'라고도 불린다.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상의 위험을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모인 자금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는 일

기업이나 일반 개인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나 제반 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상의 위험을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고객의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일을 자산운용가가 담당한다. 대부분의 자산운용가들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하여 투자고객에게 판매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투자고객에게 되돌려 준다. 펀드는 보통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현금 등으로 나누어 운용되는데 파생상품은 가격변동이 워낙 심해 고난도의 투자기술이 요구된다.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운용자산의 특성에 맞추어 투자자들이 의뢰한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 최적의 이익을 실현하며 그 이익금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증권사의 자산운용가는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펀드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일이다. 자금사정의 변화 및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Portfolio : 분산투자를 위해 여러 종류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된 증권들의 집합으로 여러 분야에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를 조정하여 목표수익을 얻도록 투자계획을 세운다. 증권시장이 개장되면 주가의 변화 및 금리 상황을 지켜보며 매매거래를 시작하고,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뉴스를 참고하며 수시로 팀원들 간 회의를 하면서 증권을 매매한다. 자산운용가는 보통 매일

오전에 애널리스트(투자분석가)의 기업분석보고와 팀 내 펀드매니저들이 사고판 주식에 대한 분석 등을 검토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펀드 운용전략을 구상한다.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은 물론 산업 및 개별 종목별 증시자료를 분석한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보험회사의 애널리스트 등 다수의 협력자들이 제공하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고, 투자설명회 참석, 기업탐방 등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세운다.

| 업무 환경 | 국내외 주가변화 및 금리상황 등을 지켜보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의 수익률과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수시로 애널리스트 등 관련자들과 회의를 개최하며 장 종료 후에는 국내외 경제동향, 외환동향, 산업 및 개별 종목별 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객을 직접 만나 상품설명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되는 길

자산운용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금융투자 관련 법규, 각종 투자기법, 리스크 관리, 주식·파생상품·부동산 등 투자대상에 대한 분석방법 등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학에서 경제학과, 금융 및 보험 관련 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에서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 경제동향은 물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금융 관련 뉴스, 시황, 전문가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경제일간지를 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외 각종 모의투자게임에 참여하여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아보는 것도 좋다.

- **관련 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공학, 재무금융학과, 경제금융학과, 금융마케팅과, 금융세무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
- **관련 자격**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협회), 국제금융역(CIFS), 자산관리사(이상 한국금융연수원), 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 한국FP협회),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미국 CFP Board) 등

| 적성 및 흥미 | 환율, 물가 등 경제 내외적 변수를 읽는 탁월한 수리력과 분석력, 국제경기 및 향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야 하므로 강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고 실적과 수익률의 등락에 따른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잘 감내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

| 경력 개발 | 자산운용가는 자산운용회사, 증권사, 보험사, 투자자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주로 활동하는데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 입직이 쉽지 않으나 최근에는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신입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바로 자산운용가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주식·채권 운용 관련 부서에서 실무와 분석기법을 익힌 후 능력을 인정받아야 해당 업무를 하게 된다. 보통 입사 후 대리급 정도가 되면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을 통해 주식운용부, 채권운용부, 투자자문운용부 등으로 발령받게 된다. 대개 펀드운용업무를 담당하면 보직을 이동하지 않고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경력이 쌓이거나 금융기관 은퇴 후 본인이 직접 자산운용회사를 창업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자산운용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자산운용가는 2019년 약 14천 명에서 2029년 약 1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자산운용사 설립요건이 기존의 자본금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춰지고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등록요건이 변경되면서 자산운용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3개였던 자산운용사가 2018년 228개로 145.2% 증가율을 보였다.

[자산운용회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회사 수	84	86	93	165	215	228
임직원 수	4,682	4,852	5,259	6,430	7,329	7,773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19)
※ 매년 12월 기준

경제규모 증가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보유자산이 늘어나고 2000년대 이후 은행권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는 것도 자산운용가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운용가 입장에서 기존 주식에 넘어 점차 다양해지는 투자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 고객이 만족할만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향후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운용을 위해 금융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가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점차 고도화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운용전략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비롯해 다변화되는 해외시장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경기변화,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본인이 운용하는 자산에 미칠 영향을 빠르게 감지하여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본인의 판단과 역량에 따라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만큼 냉철한 판단력과 책임의식을 갖출 필요도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산운용을 통한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산운용가의 수요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고령층이 자산운용의 주 고객으로 떠오르고 운용사 입장에서 회사를 믿고 보수적으로 장기운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고령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가의 확보가 중요해진다.

한편 정책적으로도 내부자의 거래나 위험관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산이 운용되도록 관련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2018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부적합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부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 한다. 하지만 핀테크로 대변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장기적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 운용가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금융지식을 갖춘 IT 전문인력이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정확도와 수익률이 제고된다면 자산운용가의 인력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나 점차 다양해지는 고객맞춤형 투자상품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라 고객을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도 필요하므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 컨설팅 역량을 갖춘 자산운용가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될 수도 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의 자료(dis.kofia.or.kr)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공모펀드¹⁾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사모펀드만 운용하는 매니저 및 비운용매니저 제외)는 751명으로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최근 자산운용사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형회사에 있던 자산운용가들이 경력직으로 신생자산운용사로 이직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신생업체 가운데는 적자누적 등 경영악화를 겪는 곳도 있어 늘어나는 수와 비례하여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운용실적이 공개됨으로써 수익률 경쟁이 치열하며 고객의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 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²⁾)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용사 펀드매니저	612	595	607	582	576	639	666	699	751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매년 12월 기준, 2020년은 8월 기준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변화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관리 요구 증대함	
과학기술 발전		• 로보어드바이저 등장
국내외 경기		• 해외상품 증가 및 직접 투자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자산운용상품 다양화	• 높은 금리 내세운 온라인금융사 (카카오뱅크 등)의 등장과 P2P 대출서비스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자산운용회사 증가	• 경영난 겪는 자산운용회사 도태
법·제도 및 정부정책		• 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1) 공모펀드는 통상 광고를 통해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나 이익에 상관없이 보수가 일정하며, 사모펀드는 일부 소수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성과보수는 있으나 손해가 나면 보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음

2) 공모펀드(자본시장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받는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사모펀드만 운용하는 매니저 및 비운용매니저 제외)

종합하면, 다양한 투자상품의 등장, 새로운 자산가로서의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자신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업체와 전문가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향후 자산운용가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수익률 하락, 운용이 어려운 자산운용사의 도태도 예상되므로 전체적으로 자산운용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신용분석가, 금융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증권중개인, 선물거래중개인,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외환딜러,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리스크매니저, 보험인수심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22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금융투자교육원 1588-2133 www.kifin.or.kr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www.kofia.or.kr

03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는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파악하고, 사회트렌드, 고객니즈, 금리변동이나 영업비용 같은 제반 운영비용과 회사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수행한다.



하는 일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는 개발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보험상품개발자(또는 보험계리사)와 금융상품개발자로 크게 구분되나,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연금상품, 은행금융상품, 증권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 인터넷금융상품 등 상품별로 세분될 수 있다.

보험상품개발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리사가 담당하기도 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의 배당금 배분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계산 등의 일을 수행한다. 업무는 크게 보험상품 개발, 책임준비금 산정, 보험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등이다. 보험상품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보험상품이 필요하고, 어느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며, 금리변동률과 영업비용, 회사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보험설계사를 위해 판매지원 자료를 작성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 개발까지 대략 1~2년 정도 소요된다. 또한, 보험사업자(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하여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산정한다.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위험률을 분석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며 보험율의 산정, 조정,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계산, 손익의 원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잉여금의 합리적인 배분, 기타 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수리 및 통계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한다. 보험계리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고용 보험계리사와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보험계리사로 나눌 수 있다.

금융상품개발자는 각종 예금, 투자신탁, 주식 및 채권 등 금융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분석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금융 시장 및 금리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상품 내용과 금리,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며, 금융 신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금융 상품개발에 반영한다.

|업무 환경|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며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활용해 자료를 검토할 때가 많다. 하지만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고객 니즈 파악, 컨설팅, 회의 참석, 개발상품의 점검 등을 위해 외부출장을 갈 때도 있다. 상품개발과정 및 출시된 상품의 고객반응, 판매실적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는 확률이론이나 수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예측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므로 대학에서 금융, 수학, 통계학, 경제학 등의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은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 입사해 상품개발실 등에 배치되어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전문자격인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주로 보험)의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등의 과목에 대해 1차 객관식 시험,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의 2차 논문형 시험을 거친다. 최근 보험계리사 자격취득자를 업계에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이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보험계리사 자격준비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제학과 등
- **관련 자격** 보험계리사(금융감독원), 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 한국FP협회),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미국 CFP Board)

|적성 및 흥미|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제 흐름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역동적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균형감각,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제감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과 의사소통능력도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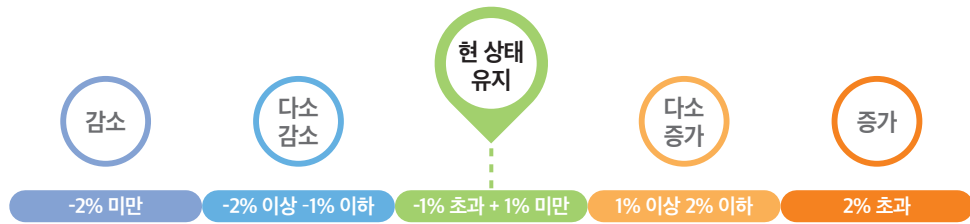
|경력 개발|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유관기관의 상품개발팀, 은행, 회계법인, 증권사, 투신사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하며 보험계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개업하여 독립적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보험회사,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일반사원으로 입사하여 상품개발실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일반적인 승진경로(대리→과장→차장→부장)를 따르게 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가 포함되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는 2019년 약 49천 명에서 2029년 약 4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연평균 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금융 및 보험상품의 개발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금융상품 역시 점차 고도화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는 저축성 보험 감소, 공적보장의 확대에 의한 보장성 보험의 성장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빅데이터, 핀테크, 드론 등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에 없던 리스크가 생기면서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반려동물의 대중화로 반려동물 관련 보험 및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향후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의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점차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산출이 필요하며, 미래 손익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경제환경 영향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우 새로운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야 하므로 보험계리사의 영입에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편이다.

보험계리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인원은 1,56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생명보험사에 598명, 손해·재보험사에 513명으로 보험회사에 1,111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2014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합격 인원이 크게 줄어든 보험계리사는 2018년부터 수요를 반영하여 합격인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보험계리사 정회원 활동 분야]

(단위 : 명)

회원 구분	회원 수
생명보험사	598
손해·재보험사	513
계리컨설팅법인	89
은행·증권사	38
공제기관	34
유관기관	82
학계 및 기타	208
총인원	1,562

자료 : 한국보험계리사회(20.12.31 기준)

하지만 향후 보험과 기술이 결합된 인슈테크(Insurance+Technology)를 통한 상품개발을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다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역량이 보험상품개발자에게 필요해질 전망이다.

금융상품개발 역시 점차 다양한 대상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파악하고 세분하여 맞춤형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업계의 경쟁력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핀테크에 기반하여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어 기존 금융권의 위기의식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어린이에서부터 고령층의 니즈와 금융서비스 활용패턴을 분석하여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추천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계리사 합격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차 응시자	937	877	929	294	943				
최종 합격자	120	140	141	-	25	48	62	124	167

주 :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 시험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2014년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었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융업	21,579	22,103	21,927	22,051	21,610	21,646	21,636	21,986
보험 및 연금업	8,360	8,548	8,518	8,314	9,051	8,669	8,415	8,00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관리 요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등 다양한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리스크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술이 적용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처 선택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보험시장 성장둔화로 보험사의 해외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업계 전반의 불확실성 대두, 금융공학에 근거한 고도화된 상품개발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기반 스타트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시장 성장 둔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계기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제혜택 감소 등으로 저축성 보험 수요 감소

종합하면, 사회의 복잡성 확산, 반려동물 등 다양한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의 긍정적 요인과 AI 기술이 적용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처 선택 증가의 부정적 요인 등이 작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보험계리사,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자산운용가,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신용분석가, 금융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증권중개인, 선물거래중개인,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외환딜러, 리스크매니저, 보험인수심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23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금융투자교육원 1588-2133 www.kifin.or.kr
보험개발원 (02)368-4000 www.kidi.or.kr
보험연수원 1588-3055 www.in.or.kr
한국보험계리사회 (02)782-7440 www.actuary.or.kr

04

증권 및 외환딜러

증권중개인은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채권 등 현물유가증권에 관한 영업 및 상담, 상품중개를 실시하거나 국내에 나와 있는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일을 하며 외환딜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바트화 등 각국의 화폐와 파생상품을 가장 싼 시점에 사서 가장 비쌀 때 팔아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남기는 금융전문가이다.



하는 일

증권중개인은 증권회사에서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을 사거나 팔려는 법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거래주문을 받아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을 하며 증권영업업무를 담당한다. 개인투자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투자방법을 적절히 조언하며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거래소의 시장상황을 모니터하며 투자정보를 검토하고 거래전략을 수립한다. 이외에 고객에게 금융정기간행물, 주식 및 채권보고서, 기업체 출판물과 같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한다. 증권회사의 증권 중개담당자들은 증권 전문인력과 선물 전문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증권중개인은 매매상품에 따라 주식, 채권 등의 전문 분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들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가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을 추천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채권을 매매하는 사람은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채권거래를 중개한다. 이들은 채권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하여 매매를 성사시킨다. 선물을 담당하는 인력은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파생상품(환율, 금리 등 관련 상품)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거래소를 통해 연결하여 매매권유나 자문을 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증권중개인을 등록·관리하고 있다.

외환딜러는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 및 파악하여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한다. 금융기관 외환딜러들은 외화자금의 운용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업무도 병행한다. 외환딜러는 해당 통화별 예금금리 등 세계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외환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환율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손실발생을 막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매매시점을 포착한 후 외환과 외환선물상품을 매매한다. 외환시장이 열리면 모니터로 띄워지는 주요 통화의 시세를 보면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며, 이 때 은행이나 기업이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차액을 남겨야 한다. 그 외에 외환시장 조건과 전망에 대해 고객이나 상급 관리자에게 알리고 거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 환경 | 증권 및 외환딜러는 수시로 변하는 증권 및 외환시장의 가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장 시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수익을 내기 위한 긴장감 속에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장 개장 동안에는 시황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장 이후에도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상품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로 초과근무를 하기도 한다.



되는 길

증권 및 외환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경영, 경제, 회계, 무역, 통계학, 금융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경영(MBA), 경제, 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증권중개인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기를 예측하거나 주식, 채권, 금융상품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재직자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외환딜러는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 선물회사, 대기업 등의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금융실무능력을 쌓은 후 테스트를 거치거나 추천을 받아 외환 업무를 담당한다. 외환딜러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에 대한 지식,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 회사에 따라서는 직원 채용 후 외환딜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싱가포르, 홍콩 등에 연수를 보내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제학과, 마케팅학과, 정보경영학과, 금융학과, 재무금융학과, 수학과, 통계학, 금융공학과 등
- **관련 자격** 외환전문역(CFES) I 중/II 중(한국금융연수원),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상 금융투자협회), 외환관리사(한국무역협회)

| 적성 및 흥미 | 증권중개인은 국내외 변하는 경제 흐름과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력과 분석력, 마케팅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수시로 변동되는 증권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며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필요하다. 외환딜러 역시 경제상황 및 시장변화에 대한 감각, 분석력, 판단력과 결단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뉴스나 경제 흐름, 금융지표를 발빠르게 체크하고 매매 거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 항상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노력하는 근면성도 요구되며 스트레스 감내력도 요구된다. 이밖에 해외 외환시장 파악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능력도 필수이다.

[경력개발] 증권중개인은 보통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하여 일반적으로 증권사무원과 유사하게 ‘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의 승진체계를 밟게 된다. 대부분 입사 후 일반 관리직이 아닌 영업직으로 발령받아 회사의 현장교육을 받으면서 관련 업무를 배우게 된다.

외환딜러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입사하여 자체선발과정이나 내부공모 등을 거쳐 외환딜러 업무를 하게 되는데 실제 업무 전 회사 내에서 상당기간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기른다. 실무를 수행하기 전, 혹은 재직 중에도 한국금융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며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근무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니어딜러→선임딜러→치프딜러’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 및 외환딜러로 금융회사에서 경력과 네트워크를 쌓은 후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회사를 창업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증권 및 외환딜러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적으로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증권 및 외환딜러가 포함되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는 2019년 약 49천 명에서 2029년 약 4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연평균 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증권 및 외환딜러의 취업자 수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향후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투자층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최근 점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즉 비대면계좌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평생 수수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향후 증권중개인의 취업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증권중개업 사업체 수는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증권회사의 점포 수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권중개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784	1,591	1,433	1,221	1,182	1,112	1,062	1,040
종사자 수	42,930	39,058	37,308	34,184	34,561	33,677	33,573	34,97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 점포 수]

(단위 :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 수	1,939	1,750	1,600	1,324	1,269	1,208	1,172	1,143	1,080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20)

※ 매년 12월 기준

비대면 거래증가로 인한 수수료 감소는 증권사들이 영업점포를 줄이고 인력감소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는데 개인고객들의 전문지식 수준이 상승하는 것도 증권중개인의 고용을 다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보다 정교해지고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증권중개인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증권회사에서도 순수 리테일 영업보다는 채권, 펀드, 랩, 해외선물, 장외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증권중개인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인력채용은 금융시장 개방,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투자상담능력을 갖춘 고도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증권회사들(희망)퇴직한 이들의 상당수는 늘고 있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증권자문회사, 또는 핀테크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업체로 이직하기도 하는데 이들 업체의 경우 고객대상 맞춤 컨설팅이 업체의 경쟁력일 수 있다.

외환딜러의 경우 금융권 각 업체의 딜링룸에 실제로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인력은 십여명 내외이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제한적이어서 향후 외환딜러의 취업자 수는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외환딜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의 경력과 전문교육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신규 입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 외환딜러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200~300명 수준으로 소수여서 취업자 수 변동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변화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관리 요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매매 프로그램 정교화
국내외 경기	• 저금리 기조 지속되면 주식투자자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수익창출	• 비대면거래증가, 영업점 축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증권자문회사 등 증가	

종합하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매매 프로그램 정교화와 같은 비대면거래 증가 및 수수료 감소로 인한 오프라인 영업점 감소로 증권 및 외환딜러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자산운용가, 투자분석가,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리스크매니저, 금융관련 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1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24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금융투자교육원 1588-2133 www.kifin.or.kr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www.kofia.or.kr

05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액의 평가가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때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적정가액을 사정한다. 업무수행이 종료되면 그 결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한다. 좀 더 상세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여 보험사고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사고가 보험에 담보된 것인지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손해 사실을 확인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현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피해자의 몸 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평가한다. 보험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도 각종 약관과 관련 법률에서 면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의 내용 및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하는 일까지 마무리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다.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분류된다. 또한 업무내용에 따라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재물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며(자동차사고 제외)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마지막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한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종합손해사정사라고 한다.

|업무환경| 손해사정사는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 등 외부출장도 잦은 편이다.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아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고객이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되는 길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종사하는데, 시험은 재물, 차량, 신체 등 종별로 치러진다. 1차, 2차 시험에 합격 한 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후 종사할 수 있다. 시험 응시에 자격제한은 없으며, 1차 시험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의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각 종별로 상이한 과목에 대해 논문형으로 치뤄진다.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은 없으나, 주요 시험과목이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이므로 대학에서 금융보험학이나 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세계화에 따라 중국 등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은 물론 국내 회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어 기본적인 외국어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과전 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한 편이다. 종합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손해사정사 가운데는 법인 등에서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시험을 거쳐 진출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 1명당 최대 5명의 손해사정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법학과, 자동차공학과, 금융경제학과, 금융소비자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등

■ **관련 자격** 손해사정사(금융감독원)

|적성및흥미|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보험사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다. 회사와 상품마다 상이한 보험약관을 살펴 처리하는 꼼꼼함도 요구된다. 그리고 사고 피해로 예민해져 있는 고객을 상대로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고 이들과 원만히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요구된다. 또한 재물, 차량 등의 사고 조사 및 파악을 위해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력 개발]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민영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체에 취업하거나 고용손해사정사로서 경력을 쌓은 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도 일반 법인체나 개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사정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사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한편 개업을 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법인을 만들려면 2인 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손해사정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적으로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포함되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는 2019년 약 49천 명에서 2029년 약 4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연평균 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사정사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손해액 평가와 보험금 산정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늘고 있고 특히 그 중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사정과 관련한 업무와 인력수요도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이색스포츠 사고, 드론사고 등 틈새 보험상품시장이 향후 활성화될 경우 이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핀테크 등의 기술발전은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던 리스크를 등장시켜 예전과 다른 양상의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을 등장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IFRS 도입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보다 공정하고 꼼꼼한 사정업무를 위해 전문손해사정사를 통한 업무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약관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는 추세이고, 고객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과 청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할 전망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5,417명의 손해사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가 3,191명이며, 자회사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843명,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443명,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940명으로 파악되어 종사자의 약 60%가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종사한다.

[손해사정업무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고용손해사정 (보험회사)	자회사	위탁	독립	합계
손해사정사	3,191	843	443	940	5,417
사무원(보조인)	2,881	3,968	2,779	727	10,375
계	6,072	4,811	3,242	1,667	15,792

자료 :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20.12.31. 열람)
※ 2017년 12월 말 기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도 손해사정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는 손해사정사 이외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인으로 추정된다.

[손해사정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720	761	819	866	932	992	993	1,122
종사자 수	10,601	10,666	11,054	10,823	12,688	13,013	13,515	15,38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손해사정사는 2014년부터 기존의 1종~4종을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합격자는 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9년 손해사정사로 합격한 470명 중 재물은 42명이며, 차량은 100명, 신체는 328명이다. 즉 신체 관련 손해사정사가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손해사정사의 선발 인원은 손해사정사의 원활한 수급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47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연도별 손해사정사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물	51	50	57	49	42
차량	102	105	103	101	100
신체	501	470	381	409	328
합계	654	625	541	559	470

자료 :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한편으로는 고객들의 눈높이도 보다 높아지고 각종 정보수집에 정통한 경우가 많아 손해사정사에게도 더욱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이 요구되며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담역량도 더 필요해질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업무 절차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어서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더 요구될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로 요양병원 입원 등의 평가 업무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스트레스로 자동차 운전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대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주요 업무 자체 축소 가능성
과학기술 발전	• 새로운 기술 분야 등장으로 기존에 없던 리스크 등장	•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생활 도입에 따른 사고평가 수요 감소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새로운 보험상품 등장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와 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사고평가 필요성 높아짐 •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사고평가 수요 증가	•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승격 • 보험사 내부의 손해사정사 외부 배치 권장	

종합하면,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생활 도입에 따라 사고평가의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사고평가 필요성 증가,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로 기존과 다른 손해보험 상품의 출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사고평가 수요 증가 등으로 손해사정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보험사무원, 보험심사원, 보험계리사, 보험설계사,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신용 분석가, 금융자산운용가, 선물거래중개인, 외환딜러,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리스크매니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1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25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보험개발원 (02)368-4000 www.kidi.or.kr
보험연수원 1588-3055 www.in.or.kr
(사)한국손해사정사회 (02)712-9112 www.kicaa.or.kr

06

은행사무원

각종 은행 상품의 판매 등 은행거래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거나, 신용 및 대출 신청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처리한다.



하는 일

신용 및 대출서류를 작성하며, 신용 및 대출신청서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거나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신청서에 대한 승인 및 거부 행사를 한다.

매월 말 또는 분기 말에 여신업무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정별로 잔액을 조사하여 대차대조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한다.

정확한 송금과 즉시 수금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우송하는 수송종목을 분류, 기록 및 검사한다. 대부 신청자를 면접하여 신청자의 배경 및 신용증명서를 조회하고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며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서류를 평가하거나 감정부서에 발송한다.

고객 계좌에 대한 신용청구(거래)를 허가한다. 신용대부를 신청한 개인이나 기업체의 연혁 및 신용지위를 조사하고 신청자의 신용 상태 정보를 수집한다.

|업무 환경| 은행사무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업점, 점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보낸다. 업무수행을 위해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며,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어깨 결림, 목 디스크나 눈의 피로,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금융권 점포의 영업시간은 일정한 편이나 정산시기인 월말이나 연말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영업실적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은행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상경계열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상업부기, 은행부기, 상업연습, 상업법규, 경영학 등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는 상경계열 학과나 법학 전공을 하면 채용과 업무수행에 유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6개월~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 **관련 학과** 상업계 고등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보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
- **관련 자격** 은행텔러, 자산관리사(이상 한국금융연수원), 종합자산관리사(생명보험협회)

[적성 및 흥미] 은행사무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의바른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현금의 수납 및 지급과 관련하여 산출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수리능력, 정확성, 성실성이 필요하며 금전 및 관련 서류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함과 책임감도 요구된다.

[경력 개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등으로 진출하며 예전에는 주로 대규모 공개채용 형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하기도 한다. 대졸사원 공채는 서류, 인성적성검사(또는 필기),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원서를 접수해 놓고 결원이 생기면 인력을 채용하는 상시 채용제도(또는 인력풀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공채를 통해 입사하면 보통 '사원→계장→대리→과장→차장→부장(지점장)'의 순으로 진급한다. 과거에는 순환보직을 맡아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신입사원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영역으로 배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춘 기관이 늘고 있다. 다만, 인원과 보직이 한정되어 일반기업에 비해 승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승진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회사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은행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은행사무원은 2019년 약 106천 명에서 2029년 약 9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8천 명(연평균 -0.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금융업 및 보험업 전체 종사자는 약 7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40,681	41,627	41,508	41,909	42,131	42,809	43,514	43,568
종사자 수	718,459	715,707	700,421	698,516	742,974	730,963	726,907	711,494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금융권마다 다소 고용 전망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의 표 <금융회사 현황I>에서처럼 일반은행은 최근 점포 수, 또는 임직원 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 등은 금융권의 영업점포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창구상담직원을 비롯해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전체의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도 최근 기존의 영업점을 통한 대면채널이 아닌 핀테크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가입, 대출, 송금, 환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영업점에 기반한 사무원의 일자리에는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존 영업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영업점 통합, 지역 내 영업점 간의 유기적 협업,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를 한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점포 운영 등의 전략을 펴는 곳도 있으며 관공서, 외국인근로자 특화지역, 환전 등 특성 고객이나 서비스에 집중하고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늘리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권이 아닌 업체에서의 모바일플랫폼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도 증가할 수 있어 향후에는 금융권 이외에서 종사하는 금융사무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자산운용사, 신기술금융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점포 수와 관련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신생업체 가운데는 기존 금융권 종사자들이 이·전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현황 I]

(단위: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점포수	5,487	5,380	5,221	4,926	4,883
	임직원 수	86,881	84,450	82,332	78,372	82,645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19)

※ 매년 12월 기준

[금융회사 현황 II]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산운용사	회사 수	86	93	165	215	243	86
	임직원 수	4,852	5,259	6,430	7,338	8,225	9,469
저축은행	점포수	329	328	322	321	316	305
	임직원 수	7,349	8,362	8,838	9,051	9,123	9,210
할부금융사	점포 수	257	271	275	276	281	281
	임직원 수	7,538	7,737	7,175	6,878	5,882	5,861
리스사	점포 수	167	161	163	177	182	172
	임직원 수	3,903	4,182	4,139	4,301	4,366	4,375
신기술금융사	점포 수	32	35	44	55	65	77
	임직원 수	567	575	680	1,349	977	1,142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19)

※ 매년 12월 기준, 저축은행은 매년 6월 기준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를 위한 대면서비스 수요	• 저출산에 따른 전반적인 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비대면거래 선호고객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업무자동화 및 전산화,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 이용자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 내부관리, 비용 절감 위한 영업점 축소 및 인력 감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금융시장에 AI, 비대면 융합 서비스,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이 접목되면서 고객 대상 신규 서비스 업무 발생	

종합하면,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고객의 다양한 요구 충족 등은 향후 은행의 영업점포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을 가져와 은행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증권사무원, 캐피털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금융상품개발자, 리스크매니저, 기타 금융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2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203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한국금융연수원 (02)3700-1500 www.kbi.or.kr
한국금융연구원 (02)3705-6300 www.kif.re.kr

07

증권사무원

증권 및 선물 상품을 고객에게 중개 또는 판매하는 등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증권사무원은 증권 및 선물의 중개나 판매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주식 구매 및 판매 주문서를 작성하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거래를 확인하고 증권의 인수와 전달, 주식 가격의 변동을 고객에게 알린다. 주식액면가를 계산하고 배당금을 나눠주며, 매일의 거래와 보유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 업무 환경 | 증권사무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업점, 점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보낸다. 업무수행을 위해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며,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어깨 결림, 목 디스크나 눈의 피로,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금융권 점포의 영업시간은 일정한 편이나 정산시기인 월말이나 연말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영업실적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증권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상경계열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에서는 상경계열 학과나 법학 전공을 하면 채용과 업무수행에 유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6개월~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보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
- **관련 자격** 자산관리사(이상 한국금융연수원), 종합자산관리사(생명보험협회)

| 적성 및 흥미 | 증권사무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의바른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현금의 수납 및 지급과 관련하여 산출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수리능력, 정확성, 성실성이 필요하며 금전 및 관련 서류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함과 책임감도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예전에는 주로 대규모 공개채용 형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하기도 한다. 대졸사원 공채는 서류, 인성적성검사(또는 필기),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원서를 접수해 놓고 결원이 생기면 인력을 채용하는 상시 채용제도(또는 인력풀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공채를 통해 입사하면 보통 '사원→계장→대리→과장→차장→부장(지점장)'의 순으로 진급한다. 과거에는 순환보직을 맡아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신입사원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영역에 배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춘 기관이 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증권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증권사무원은 2019년 약 18천 명에서 2029년 약 1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하면 금융업, 보험업 전체 종사자는 71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40,681	41,627	41,508	41,909	42,131	42,809	43,514	43,568
종사자 수	718,459	715,707	700,421	698,516	742,974	730,963	726,907	711,49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금융권마다 다소 고용전망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음의 <금융회사 현황> 표에서처럼 증권회사는 최근 점포 수는 감소하나 임직원 수는 현상 유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고객의 다양한 니즈충족 등은 금융권의 영업점포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창구상담직원을 비롯해 증권사무원 전체의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점포 및 직원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다수의 인력을 통한 영업과 수익창출보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상품설계 및 분석, 상품권유 및 판매 등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권회사	점포수	1,324	1,269	1,208	1,172	1,143	1,080
	임직원 수	35,782	35,377	34,990	35,179	35,678	36,145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19)

※ 매년 12월 기준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를 위한 대면서비스 수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비대면 서비스 및 온라인을 통한 금융 거래 활성화
과학기술 발전		• AI 접목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핀테크, 모바일 앱 이용자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영업점 축소 및 인력감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자산운용사 등 신산업체 증가	

종합하면,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고객의 다양한 니즈충족 등은 향후 금융권의 영업점포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반적으로 증권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은행사무원, 캐피털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금융상품개발자, 리스크매니저, 기타 금융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2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204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한국금융연수원 (02)3700-1500 www.kbi.or.kr
한국금융연구원 (02)3705-6300 www.kif.re.kr

08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와 관련하여 요청된 보험신청 내용을 심사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책임, 재산, 선박, 항공 및 기타 각종 보험 거래에 수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은 대형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보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책임, 재산 등과 관련된 각종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거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특히 보험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진료와 관련하여 요청된 보험신청 내용을 심사하거나, 대형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보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일을 한다. 즉 이들은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재산 및 기타 각종 보험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은 입원, 퇴원, 사망, 출생, 치료 내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이들은 의료보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거나, 배상 요구자, 사고 목격자, 의사 및 기타 관련자의 진술을 받고 조언을 구하며 기록이나 보고서를 작성한다.

|업무 환경|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이나 영업점에서 보낸다. 업무수행을 위해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며,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어깨 결림, 목 디스크나 눈의 피로,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금융권 점포의 영업시간은 일정한 편이나 정산시기인 월말이나 연말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영업실적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상경계열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에서는 상경계열 학과나 법학 전공을 하면 채용과 업무수행에 유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6개월~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보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
- **관련 자격** 자산관리사(한국금융연수원), 종합자산관리사(생명보험협회)

[적성 및 흥미]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의바른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보험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수리능력, 정확성, 성실성이 필요하며 금전 및 관련 서류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함과 책임감도 요구된다.

[경력 개발] 예전에는 주로 대규모 공개채용 형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하기도 한다. 대졸사원 공채는 서류, 인성적성검사(또는 필기),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원서를 접수해 놓고 결원이 생기면 인력을 채용하는 상시 채용제도(또는 인력풀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공채를 통해 입사하면 보통 ‘사원→계장→대리→과장→차장→부장(지점장)’의 순으로 진급한다. 과거에는 순환보직을 맡아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신입사원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영역으로 배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춘 기관이 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은 2019년 약 64천 명에서 2029년 약 6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0.3%) 정도 미미하게 감소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하면 금융업, 보험업 전체 종사자는 71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40,681	41,627	41,508	41,909	42,131	42,809	43,514	43,568
종사자 수	718,459	715,707	700,421	698,516	742,974	730,963	726,907	711,49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금융권마다 다소 고용전망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음의 <보험회사 현황> 표에서처럼 증권회사는 최근 점포 수는 감소하나 임직원 수는 현상 유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고객의 다양한 니즈충족 등은 금융권의 영업점포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창구상담직원을 비롯해 증권사무원 전체의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점포 및 직원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다수의 인력을 통한 영업과 수익창출보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상품설계 및 분석, 상품권유 및 판매 등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보험회사	점포수	4,002	3,855	3,812	3,488	3,318	3,017
	임직원 수	28,111	27,309	26,890	25,391	25,440	25,362
손해보험회사	점포수	3,178	3,104	3,038	2,993	2,920	2,891
	임직원 수	33,047	32,373	31,943	32,446	34,015	34,314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19)

※ 매년 12월 기준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 인구를 위한 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 고령 유병자 고객이 증가하면서 대면 서비스 수요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보건, 위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가입 유인 감소	• 비대면거래 선호고객 증가
과학기술 발전		• 통계산출, 작성, 서류 작업은 다수 전산화 및 자동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1차 언더라이팅 자동화, 디지털 채널조직 통합으로 인해 인력수요 감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자산운용사 등 신생업체 증가	

종합하면,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고객의 다양한 니즈충족 등은 향후 보험회사의 영업점포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고령 인구를 위한 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보건, 위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가입 유인 감소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다양한 손해보험 서비스 상품의 개발로 보험심사원 및 보험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증권사무원, 은행사무원, 캐피털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금융상품개발자, 리스크 매니저, 기타 금융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2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202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보험개발원 (02)368-4000 www.kidi.or.kr
보험연수원 1588-3055 www.in.or.kr
한국금융연수원 (02)3700-1500 www.kbi.or.kr
한국금융연구원 (02)3705-6300 www.kif.re.kr

09

출납창구사무원

금전의 수납, 환전, 지불 또는 우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 우체국,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기타 유사 금융기관 등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하는 일

출납창구사무원은 일반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및 출금 업무, 예금의 신규 및 해약, 공과금 수납 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들은 고객의 현금·예금과 인출, 수표, 명의변경, 어음, 신용카드 지급, 우편환, 보증 수표 및 기타 은행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계획, 채권 구매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행자수표, 외화 및 우편환을 매도한다. 컴퓨터프로그램, 계산기를 사용하여 매일의 거래를 계정잔액이 맞는지 결산한다. 예금전표 및 수표를 분류하고 철회 둔다. 고객의 거래에 관한 문의에 답하고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해결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화폐를 환전해 준다. 기타 청구서 대금지불, 송금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환경| 출납창구사무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업점, 점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보낸다. 업무수행을 위해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며,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어깨 결림, 목 디스크나 눈의 피로,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금융권 점포의 영업시간은 일정한 편이나 정산시기인 월말이나 연말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영업실적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출납창구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상경계열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상업부기, 은행부기, 상업연습, 상업법규, 경영학 등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는 상경계열 학과나 법학 전공을 하면 채용과 업무수행에 유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6개월~1년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된다. 금융기관에 따라 별도의 직군으로 채용 및 배치하는 곳도 있다.

- **관련 학과** 상업계 고등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보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
- **관련 자격** 은행텔러, 자산관리사(이상 한국금융연수원), 종합자산관리사(생명보험협회)

| 적성 및 흥미 | 출납창구사무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의바른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현금의 수납 및 지급과 관련하여 산출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수리능력, 정확성, 성실성이 필요하며 금전 및 관련 서류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함과 책임감도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등으로 진출하며 예전에는 주로 대규모 공개채용 형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하기도 한다. 은행텔러 혹은 창구텔러 등으로 고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대졸사원 공채는 서류, 인성적성검사(또는 필기),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원서를 접수해 놓고 결원이 생기면 인력을 채용하는 상시 채용제도(또는 인력풀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공채를 통해 입사하면 보통 '사원→계장→대리→과장→차장→부장(지점장)'의 순으로 진급한다. 과거에는 순환보직을 맡아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신입사원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영역으로 배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춘 기관이 늘고 있다. 다만, 인원과 보직이 한정되어 일반기업에 비해 승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승진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회사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출납창구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출납창구사무원은 2019년 약 63천 명에서 2029년 약 5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1.0%) 정도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하면 금융업, 보험업 전체 종사자는 71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40,681	41,627	41,508	41,909	42,131	42,809	43,514	43,568
종사자 수	718,459	715,707	700,421	698,516	742,974	730,963	726,907	711,49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하지만 금융권마다 다소 고용전망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음의 <금융회사 현황> 표에서처럼 일반은행은 최근 점포 수, 또는 임직원 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고객의 다양한 니즈충족 등은 금융권의 영업점포 축소와 인력 감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 출납창구사무원의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도 최근 기존의 영업점을 통한 대면채널이 아닌 핀테크에 기반한 모바일앱을 통해 상품가입, 대출, 송금, 환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영업점에 기반한 사무원의 일자리에는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존 영업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영업점 통합, 지역 내 영업점 간의 유기적 협업,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를 한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점포 운영 등의 전략을 펴는 곳도 있으며 관공서, 외국인근로자 특화지역, 환전 등 특성 고객이나 서비스에 집중하고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늘리고 있어 향후에는 금융권 이외에서 종사하는 금융사무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점포수	5,487	5,380	5,221	4,926	4,883	4,838
	임직원 수	86,881	84,450	82,332	78,372	82,738	82,645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19)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를 위한 대면서비스 수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개인정보,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대면거래 선호고객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은행 앱의 개발로 출납창구 업무 대폭 감소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영업점 축소 및 인력감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자산운용사 등 신생업체 증가	

종합하면, 고령인구를 위한 대면서비스 수요는 유지되겠지만 고객들의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인공지능 시스템 적극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은 향후 금융권의 영업점포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출납창구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증권사무원, 은행사무원, 캐피털사무원, 금융상품개발자, 리스크매니저, 기타 금융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2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201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한국금융연수원 (02)3700-1500 www.kbi.or.kr
한국금융연구원 (02)3705-6300 www.kif.re.kr

10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보험모집인은 생명, 재해, 자동차, 화재, 해상, 그 외 형태의 보험에 관해 보상 종류와 지급조건, 계약 관련 사항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보험회사를 중개하거나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집합투자 증권 또는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다.



하는 일

보험모집인은 보험과 관련하여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계해 주는 사람으로 대개 보험회사에 위촉되어 일을 한다. 고객에게 보험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개개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는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보험가입 대상자를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생기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등록시킨다. 또한 노후설계의 중요성,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등 고객이 상황에 맞는 보험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으나 이제는 재무상담이나 은퇴설계, 생활설계, 대출상담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별로 TRM(Total Risk Manager), RC(Risk Consultant), FC(Financial Consultant), FP(Financial Plann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증권사나 보험사와 계약하여 그들을 대행 또는 대리하여 집합투자증권(펀드) 또는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 등 체결을 권유한다.

|업무 환경|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은 영업점에서 사무를 보는 시간보다는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정산 시기인 월말이나 연말에 업무가 집중되며 상품 판매에 따른 수당 등으로 소득이 결정되므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되는 길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이 되기 위한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제한은 없다. 다만 최근 직종이 전문화되면서 외국계 보험회사는 나이 및 학력 조건을 제한하기도 한다.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펀드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

보험모집인이 되려면 먼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수 중에는 판매화법, 상품지식,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배우며 연수 후에는 현장 실습을 거쳐 협회에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관련 학과** 상업계 고등학교 금융정보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보험학과, 금융학과, 보험금융학과 등
- **관련 자격**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이상 금융감독원), 변액보험판매관리사(금융연수원), 종합자산관리사(IFP), 보험설계사(이상 생명보험협회),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상 금융투자협회), 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 한국FP협회),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미국 CFP Board)

|적성 및 흥미|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은 다양한 성향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므로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고객에게 각종 금융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므로 폭넓은 재무, 회계 등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고객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철저한 고객관리능력이 요구되며, 상품을 소개하고 권유하기 위한 설득력, 협상능력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시모집에 응시하여 입사하며, 입사 후에는 보험설계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는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자질에 따라 팀장이나 영업소장, 지점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다.

목표 달성 시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연말에는 보험대상 등을 수상할 수 있다. 경력이 쌓이면 전문 금융컨설턴트나 교육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다. 별도로 정해진 정년이 없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가사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은 2019년 약 252천 명에서 2029년 약 23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5천 명(연평균 -0.6%) 정도 미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2014년 12만 4,595명에서 2019년 9만 1,927명으로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2014년 8만 4,639명에서 2019년 9만 3,659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보험설계사의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등 온라인보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설계사의 고령화로 인한 이탈,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으로 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이 꾸준한 편이고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상품가입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금융권의 ‘복합점포’가 늘어나는 것은 향후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의 실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설계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보험	설계사 수	131,825	128,729	126,161	122,190	112,595	109,322
	전속설계사 수	124,595	118,986	113,559	106,989	96,617	91,927
손해보험	설계사 수	163,348	163,800	165,809	168,327	171,641	173,015
	전속설계사 수	84,639	84,005	83,237	81,968	81,741	93,659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2018)

※ 매년 12월 기준, '설계사 수'는 교차모집설계사가 포함된 수치임

반면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판매하는 독립보험 대리점(GA)에서 활동하는 보험관련영업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보험 대리점의 경우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점에서 영업원 입장에서는 실적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존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점 역시 수익창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상품 판매 특성상 대면영업조직을 급격히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소비자가 '적극' 구매하는 것이 아닌 보험관련영업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판매'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급격한 인력감소를 가져오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변화, 기술발전으로 점차 보험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비대면채널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는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특약 및 약관을 지녔거나 온라인자동차보험처럼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며 저축성 보험이나 고가의 보험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영업원의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따라서 점차 단순 보험상품 판매가 아닌 맞춤형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질 것이므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문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턴트로서의 인력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금융서비스 환경에 맞춰 그 동안 영업원에 의존하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상품과 고객을 아우르는 새로운 영업전략 모색도 절실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고자 통화내용녹음, 텔레마케터 설계사를 위한 특별교육을 비롯해 고령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일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등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도 계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설계사의 상당수가 고령의 여성 설계사여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상품판매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할 만한 지원도 필요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험가입 주 연령대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보험가입 규모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상품 등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을 원하는 고객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질 향상으로 보건, 위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 가입 유인 감소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국내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시장의 성장세 둔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금융서비스 제공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복합점포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종합하면,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상품가입의 확대, 금융권의 복합점포의 증가 등은 보험관련 영업원의 취업자 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독립보험대리점의 지속적 증가, 대면채널 선호 고객층 존재 등으로 향후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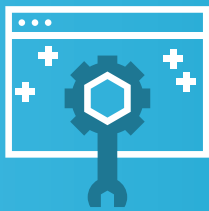
- **관련 직업**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보험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금융관련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33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5103
- **관련 정보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www.fss.or.kr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www.knia.or.kr
보험개발원 (02)368-4000 www.kidi.or.kr
보험연수원 1588-3055 www.in.or.kr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02)3276-7610 www.fpsbkorea.org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02-3425-0304 www.ipu.or.kr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3



교육 및 연구 관련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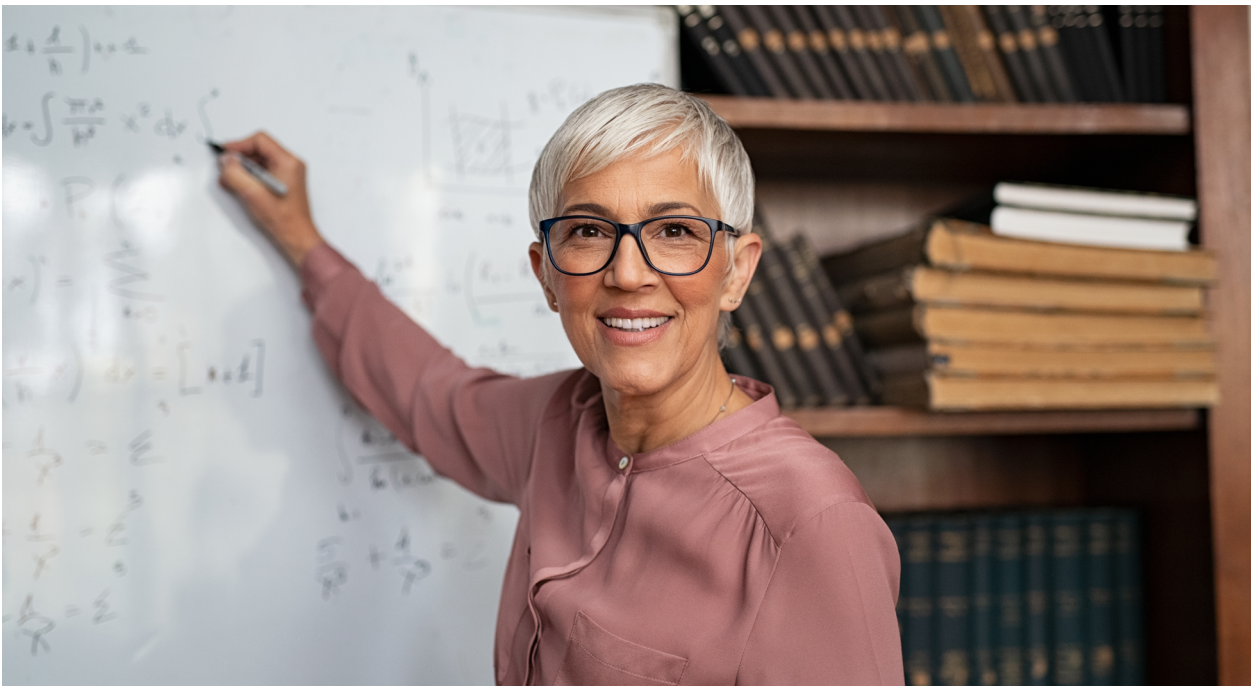
- 01 대학교수
- 02 중등학교교사
- 03 초등학교교사
- 04 특수학교교사
- 05 유치원교사
- 06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 07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1

대학교수

대학교수는 대학에서 근무하며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한다. 대학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를 통해 만든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학생들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일

대학교수는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전공 학문과 관련하여 강의하고 연구한다. 또한 시험, 발표, 보고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논문이나 연구계획을 지도하며 교내동아리 활동 등을 지도한다.

이들은 전공 분야에 따라 국어국문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으로 불린다. 전공이나 담당 교과목에 따라 강의, 실험,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인문·사회계열 교수는 강의를 통한 수업이 많으며, 이공계열 교수는 실험/실습의 비중이 높다. 예체능계열 교수는 강의와 실습 지도를 병행한다.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여 각종 학회, 세미나 등에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하거나 다른 교수 및 연구자의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교수의 연구 실적이 재임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강의와 학생지도뿐 아니라 연구 활동도 활발히 해야 한다. 교수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체의 정책 수립이나 사업 방향에 대해 조언하기도 하며, 평가를 위해 외부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이 밖에 전공 분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도 한다. 최근 연구 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대학 구조를 개편하려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의 대학교수는 학부생 외에도 대학원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병행한다.

대학교수 중에는 학교 보직으로 학과장, 단과대학장, 학생처장 등을 맡기도 하는데 이때는 학교나 학과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신입생을 유치하거나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활동도 수행한다.

| 업무 환경 | 대학교수는 주로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하므로 출퇴근 시간이 다소 자유로운 편이다. 근무하는 학교(전문대학,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당 6시간~12시간 정도 강의하며, 직책이나 보직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강의시간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대학교수에게는 개인 연구실이 주어지서 강의가 없을 때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또는 강의 준비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학의 보직을 맡을 경우에는 공적인 요구에 따라 출장을 가게 되나, 그 횟수는 일반 회사원에서 비하여 적은 편이다. 보직을 맡지 않는 교수의 경우에는 출장이 거의 없는 편이다.

대학에 따라 7년마다 1년 정도의 연구년, 또는 안식년이 있어 이 기간에는 강의 없이 연구활동이나 대외활동에 전념하기도 한다. 대학교수는 방학 동안 계절학기 강의나 학회 활동, 연구 및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한다.



되는 길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의 박사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일부 전문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특별한 업적이나 해당 분야의 오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 분야에 수준 높은 연구 실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를 통해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교수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역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먼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량이 필요하다.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하기 위하여 내용이 충실하고 교수방법도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교수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 연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대학교수는 또한 강의와 연구 외에도 학생을 지도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학문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관련 학과 대학교의 모든 학과

| 적성 및 흥미 | 대학교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로 탐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 적합한 탐구력과 교육능력을 필요로 한다. 기존 이론이나 이미 발견된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알려진 것과 앞으로 새롭게 연구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논리적이면서도 흥미롭게 글을 쓰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전문가들과 교류하거나 협동할 수 있는 의사전달능력과 발표능력 및 사회성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대학교수는 국공립 및 민간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종사한다. 학과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공고를 통해 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2~3년간 전임강사로 채용한 후 연구성과, 강의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년보장 트랙교수로 정식 임용한다.

채용 시 박사학위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야 한다. 또한 시범 강의(시강)를 통해 학생, 교수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가 없어도 특별한 업적이나 해당 분야의 오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등 해당 영역에서 인정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

대학교수는 정년보장 트랙의 경우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정년트랙의 경우 시간강사,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직책으로 강의, 연구, 학생지도 중 일부만을 수행한다.

대학교수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통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대학교수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연구소 등 유사 전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대학교수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2019년 약 71천 명에서 2029년 약 6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7천 명(연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각 연도)를 살펴보면 대학교수는 2010년 7만 7,69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8만 9,345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은 정체상태이나, 대학교수는 5만 5,972명에서 6만 5,909명으로 증가하여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부설대학원의 교수도 2010년 5,124명에서 2019년 6,32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에 대학원대학 교수도 619명에서 1,530명으로 증가하였다. 고급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이 증가하면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세부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77,697	82,190	84,910	86,656	88,163	90,215	90,371	90,902	90,288	89,345
전문대학	12,530	12,891	13,078	13,012	12,920	12,991	12,845	12,804	13,798	12,327
대학	55,972	58,104	61,993	63,042	64,378	65,423	65,330	66,795	66,863	65,909
교육대학	813	820	842	835	834	849	844	841	835	834
산업대학	1,942	1,869	286	316	335	357	371	375	354	337
방송통신대학	139	148	149	145	150	154	153	152	152	152
대학부설대학원	5,124	5,880	6,049	6,771	7,032	7,229	7,516	6,547	6,234	6,322
대학원대학	619	636	650	665	645	1,332	1,448	1,480	1,341	1,530
기타	558	1,842	1,863	1,867	1,869	1,890	1,885	1,908	1,304	1,396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향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평생직업교육이 강조되면서 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경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 학과가 생겨나 대학교수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야,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은 대학교수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동시에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 지방대학의 유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일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에서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학교수의 일자리 증가는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대학입학 자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19/20학년도부터 고교졸업생 수는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 희망 학생 인구가 2020년에는 47만 명, 2021년 43만 명, 2022년 41만 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져 2023년에는 4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입학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학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교수의 고용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학 취업률이 저하되면서 대학교육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어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2010년 79.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68.9%로 줄어들었다. 이는 학생 자원 감소와 더불어 대학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역시 대학교수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국가 차원에서 부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대학 역량 평가가 실시되면서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향후 대학교수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전문대학은 138개교, 대학은 189개교로 최근 5년간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수는 큰 증감 없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교수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어서 향후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정규직 교수보다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트랙교수나 강의전담교수, 취업전담교수 등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 신규 채용 교수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수로 임용된 후에도 연구 실적 기준이 상향되는 추세고, 성과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어 교수들 간의 연구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대상자가 축소되어 정규 교원은 다소 줄 수 있음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평생학습 수요 증가	
법 제도 및 정부정책	• 교원 확보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	• 대학구조개혁

종합하면,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전망요인의 영향에 따라 대학입학 대상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요인의 영향에 따라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평생학습 수요(4차 산업혁명시대 재직자 기술재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법 제도 및 정부정책 요인의 영향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10년간 대학교수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연구원, 공학계열교수, 사회계열교수, 의학계열교수, 대학시간강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1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511
- **관련 정보처** 교육부 (02)6222-6060 www.moe.g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919-3800 www.kcue.or.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02)3145-1200 www.kcce.or.kr

02

중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는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말한다. 교과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한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일

중등학교교사는 중고등학교에서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한다. 담당하는 교과목에 따라 국어교사, 영어교사, 수학교사, 과학교사, 사회교사, 음악교사 등으로 불린다.

주된 업무는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이지만, 답임을 맡으면 학급 경영을 비롯해 전학, 입학, 출석사항 등의 학사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관리한다. 학교의 교육계획과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담하는 과목의 학습안을 설계하고 교과서 외에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교구 및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한다. 교과내용에 대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수업 중 질문에 답변하고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 또한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

교과목 지도 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 상담을 하며 동아리 및 특별활동 지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내활동 지도를 겸하기도 한다. 특히 학생들은 대체로 중등학교 시기에 진로설계를 하게 되는데 진로지도 및 조언 역시 중등학교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방학기간 중에는 주로 새로운 수업방법과 변화하는 지식 등을 익히기 위해 교사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과학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험, 실습을 지도하기도 하며 음악교사, 미술교사, 체육교사와 같은 예체능교사 역시 실습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전문계 고등학교 내

실습실에서 농업, 공업, 상업, 해운, 예능, 가정, 체육 및 기타 전문교과의 각 학과별 실기를 지도하는 실기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 분류, 시청각 기구 관리 및 조작 등의 업무를 하는 사서교사,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지도하는 진로상담교사 등이 있다.

| 업무 환경 | 중등학교교사는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다. 주로 학교 내에서 실내 근무를 한다. 교무실에서 연구를 하고, 수업 시간에 교실로 이동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

중등학교교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까지이지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감독 및 행정업무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때가 많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3~4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며 수업시간 외에는 학생 평가와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수업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교과목에 따라 실험실, 실습실, 음악실,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근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학년제)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체험활동을 하기도 한다. 방학 중에는 연수를 받으며 수업 역량과 학생 지도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한다. 학교 업무에 주로 집중하고 출장을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급 담임을 맡는 경우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편이다. 주로 서서 수업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므로 관절이나 목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사춘기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것이 힘들어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되는 길

중등학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사범계열 학과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비사범계열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범계열학과에 진학하면 각 교과목의 내용과 전달방법, 각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육학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 밖에 교육학과 전공자가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학과) 등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보통 4학년 1학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배운 지식과 이론을 기초로 교육실습(교생실습)을 한다.

한편, 비사범계열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 교육과, 체육교육과 등 사범계열학과

■ **관련 자격** 중등학교 1급/2급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교원자격 발급권한 위탁기관)

| 적성 및 흥미 | 중등학교교사의 역할을 잘 담당하려면 청소년기 학생들의 욕구나 느낌에 민감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는 등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은 성격과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일깨워 주는 지도력도 필요하다. 중등학교 교사 역시 기본적으로 흥미유형에서는 사회형으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며,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들을 선호한다. 아울러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탐구형의 흥미유형을 지닌 자에게 적합하다.

| 경력 개발 |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려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국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교원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임용시험은 매년 11월~12월에 시행되며, 시험은 필기, 논술,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결원이 있을 때마다 대학의 추천, 채용사이트, 신문공고 등을 거쳐 시험을 치른 후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한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과 같이 일정 기간 휴직을 하는 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도 중등학교 2급 이상 정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채용한다.

학교 내에 특별한 승진체계는 없지만 ‘평교사 → 부장교사 → 교감 → 교장’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또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중등학교교사는 전문직이고,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업안정성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높은 편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이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입직하면 대체적으로 정년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다만 최근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중등학교교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는 2019년 약 226천 명에서 2029년 약 21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8천 명(연평균 -0.3%) 정도 미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통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 중등학교 교원 수는 24만 3,683명으로 2012년 대비 지난 5년간 약 3.7%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을 정점으로 중등학교 교원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중등학교 교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중학교 교원 수	고등학교 교원 수		합계
		일반계고	비일반계고	
2012	111,004	89,538	43,415	243,957
2013	112,690	89,469	43,945	246,104
2014	113,349	90,714	44,314	247,837
2015	111,247	90,878	44,121	246,256
2016	109,525	91,474	43,953	244,952
2017	109,130	91,064	43,690	243,884
2018	109,906	90,855	43,372	244,133
2019	110,556	89,975	43,152	243,683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 재구성

또한 중등교사의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등학교 학생 수는 과거 200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08년도 중등학생 수는 약 395만 명이었으나 2019년 약 271만 명으로 동 기간 약 124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볼 때 향후 중고등학생의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중학생 수	고등학생 수	합계
2008	2,038,611	1,906,978	3,945,589
2009	2,006,972	1,965,792	3,972,764
2010	1,974,798	1,962,356	3,937,154
2011	1,910,572	1,943,798	3,854,370
2012	1,849,694	1,920,087	3,769,781
2013	1,804,189	1,893,303	3,697,492
2014	1,717,911	1,839,372	3,557,283
2015	1,585,951	1,788,266	3,374,217
2016	1,457,490	1,752,457	3,209,947
2017	1,381,334	1,669,699	3,051,033
2018	1,334,288	1,538,576	2,872,864
2019	1,294,559	1,411,027	2,705,586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 재구성

교육공무원인 중등학교교사는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며 연금수령이 가능하여 노후걱정이 적은 직종으로 취업난이 심한 현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다.

중등학교교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생 수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중학교 교사는 1인당 14.3명의 학생을, 고등학교 교사는 1인당 13.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전기중등학교(중학교)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3명, 후기중등학교(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은 상태가 되었다. 이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고, 육아휴직을 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가 교육 직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감소 추세가 교육 직종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인 자동화가 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등학교교사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는 향후 중등학교교사 수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휴직 교원이나 결원 교원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임용보다는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범계열 대학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통해 매년 배출되는 인력들은 증가하는 데 비해 신규채용 예정 교원 수는 제한되어 있다. 교육부는 매년 교과목별 교원 수요변동, 교원 증원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중등교사의 수를 정하고 있다.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향후 중등교사로 취업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증가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		• 지식 전달 시가 대체 • 원격교육(교사당 담당 학생 수 증가 가능) 증가 예상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베이비부머 퇴직, 명예퇴직 증가	
법 제도 및 정부정책	• 교원당 학생 수 감소 정책	

종합하면,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문화 확산에 따라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동시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교원당 학생 수 감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중등학교교사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국어교사, 수학교사, 사회교사, 과학교사, 학원강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12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521
- **관련 정보처** 교육부 (02)6222-6060 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043)530-9114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43)931-0114 www.kice.re.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02)570-5500 www.kfta.or.kr

03

초등학교교사

초등학교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말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일

초등학교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고 바른 인성과 품행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가 자신의 학급학생들에게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및 실과, 영어 등 초등학교 전 교과목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교사의 핵심 업무는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계획과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각 교과목의 학습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맞게 교재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대부분의 수업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과학, 체육, 음악 교과는 과학실, 운동장, 체육관, 음악실 등에서 수업하기도 하며 교과목에 따라 실험·실습을 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야외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방과 후에는 학습부진아를 지도하기도 하며 학습 과제를 검사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학습평가를 준비한다.

초등학생은 아직 사회성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연령이므로 학생들이 원만한 친구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법과 안전사고 및 폭력 예방, 성교육, 기본 생활 습관, 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등의 생활지도가 학습지도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을 한다. 이외에 학생들의 전학, 입학, 출석사항 관리, 생활기록부 관리,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 준비 등의 담임업무를 하며, 교무기획부, 교육과정부, 방과후 교육부, 과학정보부, 교육연수부, 생활체육부 등으로 나뉘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교직원회의에 참석한다.

| 업무 환경 | 초등학교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 주로 학급 담임을 맡나 교실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 초등학교교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정도까지이다.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업시간은 하루 4~6시간 정도이며, 40분 수업 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수업은 대체로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교과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나 야외수업을 나가기도 한다.

방학기간에는 자기계발, 연수, 교육과정연구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통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사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을 인솔해 캠프에 참여할 때가 잦다. 한편,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공립학교여서 보통 5년에 한 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시도 거주지 근거리 내에 발령이 난다.



되는 길

초등학교교사가 되기 위해선 우선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교 또는 한국교원대,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에 진학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교육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교육행정,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과 각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 교재연구 등에 대해 교육하며,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1급 정교사는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교육대학교의 전학과, 일반 대학교의 초등교육과

■ **관련 자격** 초등학교 1급/2급 정교사(교육부 교원자격 발급권한 위탁기관)

| 적성 및 흥미 | 초등학교교사 역할을 잘하려면 유소년기의 학생들을 대하면서 솔직하고 도덕적인 성격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욕구나 느낌에 민감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는 등 타인에 대한 배려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교사는 기본적으로 흥미유형에서는 사회형으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며,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들을 선호한다. 아울러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탐구형의 흥미유형을 지닌 사람에게 적합하다.

| 경력 개발 | 주로 공립초등학교에서 활동하며, 이밖에 교육대학교 부설 국립초등학교 혹은 사립초등학교로 진출하기도 한다.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려면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초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사립초등학교에 취업할 수 있지만, 2017년 현재 초등학교교사 총 18만 4,358명 중 사립초등학교의 교원은 1,795명으로 전체 초등학교교사의 약 1%에 불과하다. 교원임용시험은 매년 11월~12월에 치러지며, 시험은 1차 전공과 필기, 2차 전공 논술, 3차 수업실기 및 면접시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내에 특별한 승진체계는 없지만 ‘평교사→부사→교감→교장’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 경력이 일정 이상 되면 상위자격(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후에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초등학교교사는 전문직이고,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업안정성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높은 편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이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입직하면 대체적으로 정년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다만 최근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초등학교교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는 2019년 약 159천 명에서 2029년 약 15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0.3%) 정도 미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교 교원 수는 18만 8,582명으로 2010년 대비 약 4.3% 증가하였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 속에 초등학교의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는 2019년 기준 6,087개교로 2007년의 5,756개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2007년 22.9명, 2013년 15.3명, 2019년 14.6명으로 낮아졌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초등학교교사의 일자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초등학교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교교사의 채용규모는 현재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9년 초등학교생 수가 약 347만 명이었으나 2019년 현재 초등학교생 수는 약 275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생 수의 감소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초등학교교사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09년 12만 4,892개의 학급 수가 2019년 현재 12만 3,761개 학급으로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수	초등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
2009	5,829	3,474,395	124,892	175,068	19.8
2010	5,854	3,299,094	123,933	176,754	18.7
2011	5,882	3,132,477	122,866	180,623	17.3
2012	5,895	2,951,995	121,393	181,435	16.3
2013	5,913	2,784,000	119,896	181,585	15.3
2014	5,934	2,728,509	119,671	182,672	14.9
2015	5,978	2,714,610	120,115	182,658	14.9
2016	6,001	2,672,843	119,547	183,452	14.6
2017	6,040	2,674,227	120,152	184,358	14.5
2018	6,064	2,711,385	121,818	186,684	14.5
2019	6,087	2,747,219	123,761	188,582	14.6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 재구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초등학교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원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여 더 이상 교원 수를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초등학교교사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교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는 향후 초등학교교사 수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휴직 교원이나 결원 교원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임용보다는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립학교 역시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교원임용을 자제하고 새로운 교원은 기간제 교사를 우선적으로 뽑으려는 경향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교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교사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교육대학과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의 입학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교원을 모집하는 인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어촌 지역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교사 일자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과밀학급이 많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교사의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워라밸 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증가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	• 초등교육에서 지식보다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본질의 인문학이 강화되고 인성교육이 중요해 짐	• 단순 지식은 AI가 담당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베이비부머 퇴직, 명예퇴직 증가	
법 제도 및 정부정책	• 교원당 학생 수 감소 정책 • 수습교사제 확대	• 장기적으로 초등 6년에서 5년제로 학제 개편 시 수요 감소

종합하면,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문화 확산에 따라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동시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초등교육에서 지식보다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본질의 인문학이 강화되고 인성교육이 중요해지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및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교원당 학생 수 감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초등학교 교사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국어교사, 수학교사, 특수학교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유치원교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12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522
- **관련 정보처** 교육부 (02)6222-6060 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043)530-9114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43)931-0114 www.kice.re.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02)570-5500 www.kfta.or.kr

04

특수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는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말한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이 교과지식과 바른 인성과 품행을 갖도록 지도한다. 특수학교교사는 교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훈련, 건강관리,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 등에도 관여한다.



하는 일

특수학교교사(특수교사)는 장애가 있어 특수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로, 교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훈련, 건강관리,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 등에도 관여하는데,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을 달리한다.

시각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는 촉각과 소리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며, 주로 점자 익히기,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용 물건 사용법 등을 지도한다. 청각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는 수화, 순독(입술 모양을 보고 말 알아듣기) 등을 가르치며,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 기본 생활 훈련과 수 개념 이해, 글자 해독 등이 주된 학습인데, 이해나 기억을 돕기 위해 구체물,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다. 지체장애 학생들에게는 목발사용법, 휠체어 사용법, 서기 자세 등을 훈련시켜 학생이 자신의 움직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특수학교가 이러한 장애 유형별로 학생들을 따로 모집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복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이므로 특수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알맞은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비교적 소수의 인원을 담당한다. 학급당 정원은 유치원의 경우 4명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그리고 고등학교의 정원은 7명이다. 수업은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개별지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학교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을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특수학교는 시각장애특수학교, 청각장애특수학교, 지체장애특수학교, 정신지체특수학교, 정서장애 특수학교 등 장애 영역별로 구분되지만,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다수가 복수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2가지 이상의 장애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는 한 학교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영아학급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도 같이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급으로 다양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과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을 공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장애진단평가 등을 담당한다.

한편,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교사가 직접 학생이 거주하는 곳에 방문하여 지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사를 순회교사라 한다. 이들은 소아암, 심장병,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집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나올 수 없는 학생들에게 순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업무 환경 | 특수학교교사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한다. 주로 학교 내에서 실내 근무를 하며 교실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 근무시간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수업시간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오전에 수업이 끝나는 경우 오후에는 주로 교재개발, 교육계획 수립, 학부모 상담 등 수업준비를 한다.

수업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교과목에 따라 실습실, 음악실,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수학교교사는 방학 중에 연수를 받으며 수업 역량과 학생 지도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한다.

장애가 있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화나 점자 등 학생 지도에 요구되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불편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특히 중증장애 학생의 교육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명감과 책임감,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더디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학생들을 끈기 있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되는 길

특수교사로 일하려면 먼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을 하고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학교에 따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등으로 전공이 세분되어 있다. 4년제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은 각 장애 특성의 이해, 장애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의 이해, 장애 진단평가 방법, 특수학교교육과정,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의 경우 주로 장애 특성 이해와 장애영역별 교수·학습방법이 주요 학습 내용이다. 특수교육대학원은 장애 영역을 세분하여 그 특성과 교수·학습 방법을 배우게 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학교교사로 임용되어 3년 이상 학생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사는 특수교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대학원과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적성 및 흥미 | 특수학교교사 일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욕구나 느낌에 민감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는 등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은 성격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장애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견디는 성향이 필요한 직업이다. 기본적으로 흥미유형에서는 사회형으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며 치료해 주기 위한 활동들을 선호한다. 아울러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탐구형의 흥미유형을 지닌 자에게 적합하다.

- **관련 학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등
- **관련 자격** 특수학교(유치원) 1급/2급 정교사, 특수학교(초등) 1급/2급 정교사, 특수학교(중등) 1급/2급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교원자격 발급권한 위탁기관)

| 경력 개발 | 특수교사는 국공립·사립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 후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면 국공립·사립학교 등에서 특수교사로 일할 수 있다. 한편, 장애아동 조기치료실,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장애인 관련 복지관, 병원부설치료실, 상담실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 특별한 승진체계가 없이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의 단계를 밟는다. 또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절차를 통해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사, 장학관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특수학교교사는 전문직이고,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업안정성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높은 편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이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입직하면 대체적으로 정년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특수학교교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사는 2019년 약 22천 명에서 2029년 약 2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3천명(연평균 1.2%)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학교교사는 2020년 총 9,882명으로 2011년 7,407명 대비 33.48% 증가하였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되듯이, 특수학교교사의 증가율은 2013년의 4.7%를 정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2020년 현재 전년 대비 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학교 및 교사 현황]

(단위 : 천 명, %)

연도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증감률	국공립	사립
2011	3,973	2,024	1,949	24,617	12,304	12,313	7,407	-	3,801	3,606
2012	4,086	2,099	1,987	24,785	12,503	12,282	7,654	3.3	3,997	3,657
2013	4,274	2,272	2,002	25,161	13,165	11,996	8,012	4.7	4,357	3,655
2014	4,374	2,371	2,003	25,317	13,587	11,730	8,297	3.6	4,610	3,687
2015	4,476	2,466	2,010	25,536	13,966	11,570	8,542	3.0	4,823	3,719
2016	4,611	2,597	2,014	25,502	14,311	11,191	8,720	2.1	5,025	3,695
2017	4,660	2,666	1,994	25,670	14,642	11,028	8,943	2.6	5,227	3,716
2018	4,792	2,772	2,020	25,860	14,903	10,957	9,250	3.4	5,464	3,786
2019	4,893	2,876	2,017	26,044	15,317	10,727	9,481	2.5	5,704	3,777
2020	4,999	3,000	1,999	26,269	15,782	10,487	9,882	4.2	6,098	3,784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 재구성(매년 4월 1일 기준)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특수학교 신설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등이 이루어져 왔다. 법적 장애 범주의 확대와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으로 더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통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신설과 더불어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이 증설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교사 증원의 필요성이 커져 그동안 특수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8년 9월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평생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를 늘리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특수교사를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특수학교교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특수교육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교사 증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2020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만 9,353명으로 7년 전인 2010년 7만 9,711명에 비해 약 12.1%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장애학생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에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만을 위한 특수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특수학교 학생 수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특수학교교사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국공립·사립학교 등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기 위한 임용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입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변화	•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과학기술	• 장애 조기 발견 및 진단 가능	
법 제도 및 정부정책	• 특수학교 신설 증가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 정책 장애 종별,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을 원하는 요구 정책 반영	

종합하면,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진단 가능 기술이 발전하며, 특수학교 신설 증가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정책과 장애 종별,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요구에 대한 정책 반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특수학교교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업능력개발훈련교사, 유치원교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12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523
- **관련 정보처**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02)719-1622 www.kase.or.kr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500 www.nise.go.kr

05

유치원교사

유치원교사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말한다. 유치원생들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본 생활습관 등을 지도한다. 또한 유아들의 발달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지식을 가르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일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끌고 기본 생활습관 등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곳으로, 유치원교사는 유아를 신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아의 발달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가르친다. 유아의 발달수준과 유치원의 상황, 부모나 지역사회의 요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단계 및 건강, 심리상태를 관찰해 기록하며, 그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안전에 대해 가르친다. 행사 참여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 및 공동체의식,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발표회 등 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유아가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한 흥미와 폭넓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창의적 표현능력과 흥미감을 길러준다. 또한 자연스럽고 즐거운 언어생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습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유아의 관심, 흥미, 발달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집단활동(토의, 게임, 노래, 음률, 요리, 신체활동, 동화, 동시, 동극, 조형활동 등), 실외활동(신체활동) 등을 통해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재와 교구를

적절히 재구성한다.

유치원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 원아들의 발달적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활동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출결상황 관리, 입학식 및 졸업식 준비 등 행정업무에 관여하고, 원아들의 유치원 생활, 학습능력, 성격 등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하기도 한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돕고, 유아교육 관련 세미나,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업무환경| 유치원교사는 유치원에서 근무한다. 주로 유치원 내에서 실내 근무를 하며, 학급 담임을 맡아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

유치원교사는 보통 교사 1명당 약 15명의 유아를 맡아 교육하며, 근무시간은 유치원의 수업 형태에 따라 반일제(3시간 이상), 연장제(5시간 이상), 종일제(8시간 이상) 등으로 다르다. 수업이 12시 전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수업 평가에 따른 다음 수업계획 및 교재·교구 준비, 기타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후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다음 학기 수업준비 및 교실 환경 개선, 연수를 통한 재교육의 시간 등을 가진다. 수업은 대부분 유치원 내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장학습, 견학, 소풍 등을 위해 아이들을 인솔하여 야외로 나가는 일이 잦은데, 유아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되는 길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및 아동학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동일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학과에서 유아의 발달 및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며, 실제 유아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유아언어·미술·과학·동작교육 등의 다양한 실기과목도 함께 다룬다.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소지 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적성및흥미| 유치원 교사의 일을 잘하려면 어린이의 지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잘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다양한 발달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이 중요하다. 어린이에게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예술적 형태를 창조해내는 신체적, 언어적 활동과 이를 자연스럽게 체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어린이의 돌발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 등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고 비판을 받아들이는 인내심과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다루는 꼼꼼함이 요구된다.

■ **관련 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 **관련 자격** 유치원 1급/2급 정교사(교육부 교원자격 발급권한 위탁기관)

[경력 개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립 혹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 대다수는 국립대학 혹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다. 이곳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은 공개채용, 교수추천 등을 통해 취업한다. 이외에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유아교육 관련 출판사, 콘텐츠·교재·교구업체에 진출할 수도 있다.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원감→원장'의 승진체계를 밟게 된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중에서도 학급이 3학급 이상인 경우에만 원감이 있고,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일도 있어 실질적으로 유치원교사가 원감이나 원장의 위치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외에 국공립 유치원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사설 유치원을 직접 경영하는 원장이 될 수 있고, 유아교육 관련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전문직이고,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업안정성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높은 편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이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입직하면 대체적으로 정년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원감→원장'의 승진체계를 밟게 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승진하며 현직을 유지하는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유치원교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2019년 약 56천 명에서 2029년 약 5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2%) 정도 미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과 유치원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와 유치원 취원율의 증가추세에 따라 유치원교사 수는 2011년 3만 8,662명에서 2019년 5만 3,362명으로 약 38.0% 증가하였지만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 감소세로 전환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유치원 수 및 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 : 천 명, %)

구분	유치원수	유치원 아동수	유치원교사		1인당 아동수
			인원	전년대비 증감율	
2011	8,424	564,834	38,662	6.0	14.6
2012	8,538	613,749	42,235	9.2	14.4
2013	8,678	658,188	46,126	9.2	14.3
2014	8,826	652,546	48,530	5.2	13.4
2015	8,930	682,553	50,998	5.1	13.4
2016	8,987	704,138	52,923	3.8	13.3
2017	9,029	694,631	53,808	1.7	12.9
2018	9,021	675,998	54,892	2.0	12.3
2019	8,837	633,913	53,362	-2.8	11.9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 재구성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로 가정 내에서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유치원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지원 등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의 질을 위해 교사 한 명당 돌보아야 할 아이들의 수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11년 14.6명에서 2019년 11.9명으로 감소되고 있어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유치원 아동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유치원교사의 신규 채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 감소는 특히, 영세 유치원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유치원교사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유치원 교사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여학생의 직업 선호도가 높은 편이어서 일자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일자리의 질이 높지는 않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이직률과 퇴직률이 높아 유치원교사를 그만두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립 유치원에서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무환경이 좋은 국공립 유치원으로 입직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저출산과 아동 수 감소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 가정 내 보육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취원을 증가	
법 제도 및 정부정책	• 복지 수요/무상 돌봄 서비스 증가 • 교원 1인당 유치원 아동수 감소 정책	

종합하면, 유치원 취학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가정 내 보육이 공적영역으로 전환되고, 복지 수요 및 무상 돌봄 서비스가 증가하고 교원 1인당 유치원 아동 수 감소 정책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유치원교사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13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530
- **관련 정보처** 교육부 (02)6222-6060 www.moe.go.kr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02)577-4865 www.kapkt.info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02)546-0019 www.yoochiwon.or.kr

06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는 학교 밖 학원 또는 가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과 학습을 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담당하고, 교과, 어학, 컴퓨터, 예체능, 기술·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하는 일

학원강사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전문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도한다. 학원강사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이들은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 크게 문리·어학계열, 컴퓨터계열, 예체능계열 그리고 기술·기능계열 학원강사 등으로 구분된다.

문리·어학계열 학원강사는 학교 교과목, 외국어, 각종 고시과목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강의하고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과목 등을 지도한다. 이들은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교과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목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외국어 교습을 담당한다. 해당 분야로는 논술, 어학, 수학, 과학, 사회, 고시, 검정 등이 있다.

예체능계열 학원강사는 수강생들에게 무용, 음악, 미술, 체육 등 예능 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능을 가르치며, 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강습한다.

기술·기능계열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교통, 디자인, 이·미용, 사진, 디자인, 요리, 양재, 정보통신, 컴퓨터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수강생들에게 기본이론, 공구 및 기계의 사용,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등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과목을 지도한다.

학습지 및 방문교사는 학습지를 받아보는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분야별 학습내용을 지도한다. 업무지역이 배정되면 회원의 부모와 가정방문 시간을 협의하고, 회원별 학습진도를 계획한다. 보통 주 1회 회원의 가정에 방문하여 학습지를 전달하고, 학습지를 활용하여 한 과목당 약 10여 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하며, 회원의 학습진도를 평가하여 학습진도를

계획한다.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는 수업 외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리하거나 학부모와 상담하는 업무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업무 환경| 학원강사의 근무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학원강사의 근무시간은 학원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강의시간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편이다. 특히 학생들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주로 밤이나 주말에 강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늦고, 주말에 쉬기 어려울 수 있다.

학원강사의 근무형태는 전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되는데 일부 소규모 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풀타임 전임근무가 많은 편이다. 전임인 경우에는 수업 외에 반 학급관리와 학생들의 성적관리 등의 업무도 해야 한다.

학습지교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나, 주 1회 정도는 지점에 방문하여 단체 미팅을 가져야 한다.



되는 길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학력 조건은 없지만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원강사는 교원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이어야 한다. 문리·어학계열의 학원강사는 대학 이상에서 사범계열을 졸업하거나 혹은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하는 것이 취업 시 유리하다. 학습지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유리한 학과가 있지는 않으며, 학력 외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지는 않다. 면접을 통해 선발되고 나면 각 지점에서 약 1주일간의 교수방법 및 회원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적성 및 흥미|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는 수강생과 학원 및 학습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혼자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사회성이 높은 성격이 필요한 직업이다.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의 일을 잘하려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등 성취/노력형 성격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학원이나 학습지사의 조직적인 목표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활동을 선호하는 진취적 흥미유형과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며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에 적합하다.

■ **관련 학과**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의 전 학과

■ **관련 자격** 초·중·등교원자격증(교육부 교원자격 발급권한 위탁기관)

[경력 개발] 학원강사의 채용은 주로 관련 온라인 채용사이트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맥이나 추천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채용 시 서류심사와 시범강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학원강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입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수강생 확보 등 학원강사 간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획득, 교수법 학습 등의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도태되기 쉽다. 특히 입시 학원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를 비롯한 고학력 진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원강사는 정해진 승진체계가 없으며 규모가 큰 학원의 경우 자체 보직체계에 따라 승진하기도 한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다가 실력을 인정받아 전임학원 강사로 취업하기도 하며, 학원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학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학습지도사 또한 지인 소개 및 광고매체 등을 통해 수시로 모집되며, 지점장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학습지를 활용하게 된다. 학습지도사 중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몇 명의 학습지도사를 관리하는 팀장, 관할지점을 관리하는 지점장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학원강사 및 학습지도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리 및 어학, 컴퓨터, 기술 및 기능, 예능 강사의 세부 영역별 인력수급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0년간 문리 및 어학 강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문리 및 어학 강사는 2019년 약 322천 명에서 2029년 약 29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8천 명(연평균 -0.9%)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0년간 컴퓨터 강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컴퓨터 강사는 2019년 약 17천 명에서 2029년 약 1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상유지(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기술 및 기능계 강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기술 및 기능계 강사는 2019년 약 30천 명에서 2029년 약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1%)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10년간 예능 강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예능 강사는 2019년 약 190천 명에서 2029년 약 19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8천 명(연평균 0.4%) 정도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향후 10년간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는 2019년 약 63천 명에서 2029년 약 4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5천 명(연평균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최근 입시학원 수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시학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만 8,762개였던 입시학원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19년에는 4만 7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원 수 변화]

(단위 : 개소)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입시학원 수	28,762	30,818	33,062	34,568	37,207	37,812	38,360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입시학원 수	38,464	38,665	39,076	38,738	39,970	40,375	40,740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학령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의 학원강사 수요는 쉽게 시들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의 경우 학원 간 과다경쟁이 유발되고, 학원들의 대형화, 체인화 추세 속에서 소규모 학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향후 학원강사의 일자리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사설학원 강사 수는 2014년 316천 명을 정점으로 2019년 307천 명으로 감소했다.

[사설학원 강사 수 변화]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원강사 수	182,096	180,913	187,375	204,996	218,239	234,144	236,105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원강사 수	241,853	316,324	279,211	279,857	295,052	301,949	307,225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019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사설학원 중 약 90.4%에 해당하는 7만 3,146개 학원이 학교교과 교습학원이고, 나머지 9.6%에 해당하는 7,791개의 학원이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설학원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30만 7,225명인데, 이중 입시검정 및 보습, 예능 계열의 학원 등 학교교과 과정보습학원에서 활동하는 학원강사가 전체 학원강사의 약 85.7%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사설학원 현황]

구분		사설 학원 수	수강자 수	강사 수
총계		80,937	16,487,888	307,225
사설 교과교습학원	소계	73,146	13,357,400	263,423
	입시검정 및 보습	40,740	7,661,835	153,763
	국제화	6,329	1,713,996	32,156
	예능	19,956	2,209,783	44,429
	특수교육	18	863	93
	종합	3,269	1,188,065	24,331
	기타	2,834	582,858	8,651
평생 직업교육학원	소계	7,791	3,130,488	43,802
	직업기술	4,292	951,451	19,045
	국제화	566	699,027	5,640
	인문사회	602	483,775	6,679
	기예	1,737	187,173	5,596
	종합	594	809,062	6,84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연보.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의 수가 증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육이 내실화되더라도 사교육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학원강사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원강사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아~초등학생 영어학원 수강률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한 과목만 가르치는 단과 학원보다는, 수익성을 위해 관련 교과 영역을 묶거나 타 과목을 병행하는 종합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반이 선호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사교육 시장이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향후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사교육 시장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학생 수 감소, 운영비의 증가 및 손익분기점 미달성으로 인해 폐업하는 학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원 및 개인과의 겸업 강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논술 선발 인원이 감소되면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져 논술학원 강사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인터넷 강의 선호도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공무원 준비 학원강사 감소가 예상된다. 더불어 유아-초등생의 학습지 및 학원 수요는 꾸준하지만, 학원강사의 업무 환경 및 급여가 좋지 않은 편이고 시간제 강사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규직 고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교육의 확대와 학원 수업시간의 제한, 각종 경시대회의 철폐 등과 같은 교육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온라인 혹은 TV 강좌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설학원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입시 및 보습 등을

담당하는 학원, 수강생이 고가의 학원비와 부수적인 비용 등에 부담을 느끼는 예능계열의 학원 등에 적잖이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지 및 방문교사의 경우, 저출산의 여파로 줄어든 초등학생 수로 인해 수요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습지 회사의 증가로 인한 과다경쟁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강의의 확산 역시 학습지 시장을 힘들게 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비 지출의 감소 역시 학습지 및 방문교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나 학습지교사들의 잦은 이·전직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학습지 회사 및 교사 간의 회원 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회원 모집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변화	• 높은 교육열	
과학기술 발전	• 4차 산업혁명과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	•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원격 강의나 동영상 강의가 확산
법 제도 및 정부정책		• 공교육 내실화 정책

종합하면,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전망요인의 영향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변화 요인의 영향에 따라 높은 교육열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과학기술 발전 요인의 영향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인터넷 강의도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법 제도 및 정부정책 요인의 영향에 따라 공교육 내실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할 때, 향후 10년간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보습학원강사, 문리학원강사, 외국어학원강사, 예능학원강사, 운전학원강사, 직업훈련강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141, 2142, 2143, 2144, 2145, 214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541, 2542, 2543, 2544, 2545, 2549
- **관련 정보처** 교육부 (02)6222-6060 www.moe.go.kr
한국학원총연합회 (02)798-8881 www.kaoh.or.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02)3145-1200 www.kcce.or.kr

07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장학관(사)은 학교의 교과과정, 교육방법 등의 개선에 관하여 지도하고, 교육당국에게 권고하는 업무를 한다. 교육 연구관(사)은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기타 교육 실무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관 도입에 관하여 조언 및 기획하는 업무를 한다. 그 밖의 교육 관련 전문가는 교구교재 개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학입학 사정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전문적 업무를 한다.



하는 일

장학관은 장학사의 장학활동을 관리·감독하고, 각급 학교를 시찰 및 지도(조언)한다. 이들은 지방 교육시책을 기획·추진하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과정, 교육방법, 장비 및 기타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 및 교사와 협의하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발행·공급 등을 지도·감독한다.

연구관은 교육연구사의 교육연구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관리한다.

교재 및 교구개발자는 교육교재 및 교구 제조회사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한 교재나 교구를 개발한다.

이러닝 교육 전문가는 이러닝 제작에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 설계를 담당한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대학입학 전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 환경|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청에서 주로 실내 근무를 한다. 이따금 교육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행정을 협의하고 지도한다. 교재 및 교구개발자 및 이러닝 교육전문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주로 실내 근무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빈번히 한다. 입학사정관은 업무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문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실수의 파급효과가 크다.



되는 길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 단계인 장학사·교육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요구된다.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승진하여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으며, 교감에서 승진을 통해 전직하거나 교장에서 전직도 가능하다.

교육 관련 전문가인 교구 및 교재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교육 관련 학과 이외에 주요 교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전공하면 취업 시 도움이 된다. 한편 이러닝 교육전문가로 취업하려면 대학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입학사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육학이나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대학 인재상에 맞는 학생 선발을 위해 교육평거나 통계학, 조사 방법론, 통계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적성 및 흥미 | 장학관·연구관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청소년기 학생들의 욕구나 정서에 민감하고 교육을 통해 자아가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교재교구 및 이러닝 교육 전문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학습전략이나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창의력 등이 요구된다. 한편, 입학사정관은 교육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적성 이외에 업무 처리 결과가 대학의 이미지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중함과 꼼꼼함이 요구된다.

■ **관련 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 교육과, 체육교육과 등 사범계열학과

■ **관련 자격** 중등학교 1급/2급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교원자격 발급권한 위탁기관)

| 경력 개발 |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교원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선발된 후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추면 교육전문직인 장학사·교육연구사(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승진하여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으며, 교감에서 승진을 통해 전직하거나 교장에서 전직도 가능하다. 장학사로 전직하였다가 7년 근속 후 교육직으로 재전직 시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는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교원 임용고시 합격 후 정규 임용 → 일정 기간 교원 재직 → 장학사·교육연구사(교육 전문직) 응시 합격 →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는 2019년 약 15천 명에서 2029년 약 1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상유지(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의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등학교 학생 수는 과거 200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08년도 중등학생 수는 약 394만 5천여 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 약 270만 5천여 명으로 동 기간 약 -12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

연도	중학생 수	고등학생 수	합계
2008	2,038,611	1,906,978	3,945,589
2009	2,006,972	1,965,792	3,972,764
2010	1,974,798	1,962,356	3,937,154
2011	1,910,572	1,943,798	3,854,370
2012	1,849,694	1,920,087	3,769,781
2013	1,804,189	1,893,303	3,697,492
2014	1,717,911	1,839,372	3,557,283
2015	1,585,951	1,788,266	3,374,217
2016	1,457,490	1,752,457	3,209,947
2017	1,381,334	1,669,699	3,051,033
2018	1,334,288	1,538,576	2,872,864
2019	1,294,559	1,411,027	2,705,586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 재구성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현재 중학교 교사는 1인당 11.8명의 학생을, 고등학교 교사는 1인당 10.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전기 중등교육(중학교 과정)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3명, 후기중등학교(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3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은 상태가 되었다. 이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고, 육아 휴직을 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가 교육 직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감소 추세가 교육 직종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인 자동화가 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등학교교사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는 향후 중등학교교사 수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휴직 교원이나 결원 교원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임용보다는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범계열 대학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통해 매년 배출되는 인력들은 증가하는 데 비해 신규 채용 예정 교원 수는 제한되어 있다. 교육부는 매년 교과목별 교원 수요변동, 교원 증원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중등교사의 수를 정하고 있다.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향후 중등교사로 취업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증가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		• 지식 전달 AI가 대체 • 원격교육 증가(교사당 담당 학생 수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베이비부머 퇴직, 명예퇴직 증가	
법 제도 및 정부정책	• 교원당 학생 수 감소 정책	

종합하면,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문화 확산에 따라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동시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 변화 요인의 영향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및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반면, 지식 전달 AI가 대체, 원격교육이 증가하고, 교원당 학생 수 감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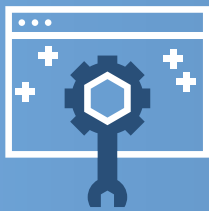
- **관련 직업** 중·고등학교교사, 초등학교교사, 특수교육교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15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591
- **관련 정보처** 교육부 (02)6222-6060 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043)530-9114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43)931-0114 www.kice.re.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02)570-5500 www.kfta.or.kr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4



법률·경찰·소방 관련직

- 01 판사 및 검사
- 02 변호사
- 03 법무사
- 04 변리사
- 05 법률 관련 사무원
- 06 경찰관 및 수사관
- 07 소방관
- 08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
- 09 위관급장교 및 부사관



01

판사 및 검사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하는 일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한편, 판사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신분이 보장된다. 즉,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마약·조직범죄사건 등 사회 공정성과 시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면담하는 일이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한다.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적용할 법 조항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 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한다.

|업무 환경|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 보기도 한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다.



되는 길

2012년까지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즉시 임용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이다.

판사와 유사하게 검사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적성 및 흥미|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판사 및 검사가 포함된 법률전문가는 2019년 약 39천 명에서 2029년 4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8천 명(연평균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소송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해 복잡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제 소송의 증가 또한 판사 및 검사의 수요 증가를 예상케 한다. 소송 난이도와는 별개로 1인당 재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판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전국 법원에는 총 150만 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593건이었는데, 반해 2014년에는 166만 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판사 1인당 609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1인당 416건), 일본(1인당 353건), 독일(1인당 210건)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된다.

판사와 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한다.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 검사 정원의 경우 1,942명의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9년까지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판사와 검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 500명, 검사는 약 45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도 2025년까지는 대체로 연간 약 5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된다.

[판사 및 검사 정원]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판사정원	2,604	2,724	2,844	2,844	2,844	2,844	2,844	2,894	2,954	3,034	3,124	3,214
검사정원	1,752	1,847	1,942	1,942	1,942	1,942	1,942	2,032	2,112	2,182	2,252	2,292

자료 : 법제처, 「각급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및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 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및 검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및 검거율, 검거인원]

(단위 : 건,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 건수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1,849,450	1,662,341	1,580,751
검거율	76.4	76.5	78.3	80.6	83.9	85.0	84.0
검거인원	1,928,795	1,962,718	1,930,325	1,999,065	2,029,873	1,833,495	1,728,602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이에 반해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판사 및 검사의(단순, 소액사건) 일부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다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가능성 • 소송 난이도 상승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을 통한 정원 확대 	

이상을 종합해 보면, 판사 및 검사의 취업자 수는 인공지능에 의한 사무 자동화와 같은 인력 수요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사회 다변화와 법률서비스 증대에 따른 정원 확대에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2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611
- **관련 정보처** 법무부 (02)2110-3000 www.moj.go.kr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사법연수원 (031)920-3114 jrti.scourt.go.kr
대검찰청 1301 www.spo.go.kr
경찰청 182 www.police.go.kr

02

변호사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



하는 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관련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며 조정·이의·화해 등의 절차를 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 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 신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 외에 증서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공증 업무도 한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 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 투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일부 변호사는 법원사무관이나 자치단체 공무원 혹은 일반기업체에 입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업무 환경|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된다. 출장지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다. 또한 변호사는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이다. 특히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되는 길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법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 처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은 서울권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에 설치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로 모집 총 정원은 매년 2,000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혹은 취득 예정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적성 및 흥미|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공방을 통해 판사,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요구된다. 성격 측면에서는 분석적 사고력, 신뢰성,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이 강한 성격이 적합하다.

|경력 개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다.



일자리 전망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변호사는 2019년 약 23천 명에서 2029년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개업 변호사는 2만 3,144명으로 2012년 1만 2,532명에 비해 95% (연평균 13.6%) 증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매년 약 1,700 명가량 변호사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 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의 연도별 증감]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인원	14,534	16,547	18,708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개업	12,532	14,242	15,954	17,424	18,849	20,182	21,573	23,144
비개업	2,002	2,305	2,754	3,107	3,469	3,833	4,265	4,551

자료 : 법무부, 2020년 법무연감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 해소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 상승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과거에는 법률 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 (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범죄, 불법체류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독 개업보다는 법무법인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에서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관리하면서 연간 약 1,5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수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 시스템,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등의 발달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해서 받는 법률 서비스는 감소하고, 이는 변호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법무법인)의 협력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수요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형 로펌에서는 판례 등을 찾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업무대체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법률 관련 사무원의 일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변호사의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다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가능성 • 소송 난이도 상승 	
과학기술 발전		• 자동화로 인한 업무 효율화
국내외 경기	• 글로벌화에 따른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에서의 변호사 직접고용(조직외부로부터의 위험관리) 	•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증가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의 자연감소 대비 배출 인원 증가 • 전문자격사 확대 정책 	

이상을 종합하면,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변호사 간 수임 건수 및 소득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변호사 자격은 기존의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적인 직위 보장의 대표성을 잃고 장기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판사, 검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2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612
- **관련 정보처** 법무부 (02)2110-3000 www.moj.go.kr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www.koreanbar.or.kr
사법연수원 (031)920-3114 www.jrti.scourt.go.kr

03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제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공장,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등기부 열람, 소유주 확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등기에 관련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상업 등기 업무를 수행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公示)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로 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해산 시에 실시한다. 쉽게 설명하면, 집이나 상가, 땅 등을 사고팔 때 국가 기관의 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무사는 의뢰자의 공탁업무도 수행한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절차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의뢰인을 대신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그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민사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벌일 때 사건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및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밖에 비밀누설 금지, 등록증 대여의 금지,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손해배상책임, 지방법무사회 가입 등의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 업무 환경 |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외근이 많은 편이다. 법무사가 경매나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의 업무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되는 길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법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 **관련 자격** 법무사(법원행정처)

| 적성 및 흥미 | 비교적 유형화된 법무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 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고객 등 다른 사람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법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요구된다. 성격으로는 타인을 설득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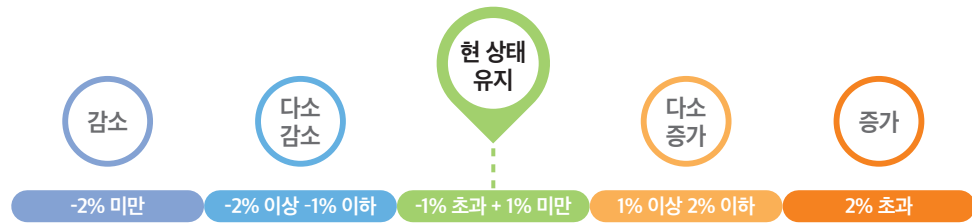
| 경력 개발 |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 등 법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사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은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 법인의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20년 7,090명으로 2010년 6,030명 대비 17.6% 증가하였다. 2010년 전년 대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법무사 수는 이후 하락하다 2014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사 수]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20
법무사 수	5,826	6,030	6,120	6,196	6,256	6,346	6,516	6,631	6,676	7,090

자료 : 대한법무사협회 내부자료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취업난 및 사법시험 폐지 예고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법무사 출원인원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

연도	출원인원	경쟁률	최종합격인원
2012	3,511	29.3 : 1	121
2013	3,226	26.9 : 1	120
2014	3,333	27.8 : 1	122
2015	3,261	27.2 : 1	121
2016	3,513	29.3 : 1	124
2017	3,625	30.2 : 1	122
2018	3,704	30.9 : 1	120
2019	4,100	34.2 : 1	120

자료 : 법원행정처 내부자료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울러 자동등기시스템과 같은 정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법무서비스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법무사회는 업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직본인확인제도 및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 확보 등을 법, 제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쟁송, 사건 수가 줄어들면서 수요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개인주의 성향 확산과 사회 다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 소송 난이도 상승	
과학기술 발전		• 자동화로 인한 전자소송으로 업무 효율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서비스 공급원의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가능성 • 정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 절차 간소화로 인한 법무서비스 수요 축소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법무사의 취업자 수요와 관련하여 개인주의 성향 확산과 사회 다변화에 따른 분쟁 증가와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전자소송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대체효과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판사, 검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부동산중개인(부동산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2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613
- **관련 정보처**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대한법무사협회 (02)511-1906~9 www.kjaa.or.kr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02)732-0231 www.lawland.or.kr

04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한다. 또한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업체, 관공서, 검찰 등 진출 분야가 확장되었으며, 대형 특허사무소의 경우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바이오생명과학 분야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

변리사는 소위 특허 변호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변호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및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데 반해 변리사는 이들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변리사 등록은 한 변호사는 특허 관련 업무 전반과 함께 민, 형사소송의 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 변호사(변리사 등록), 변호사의 직역]

업무	변리사	변호사(변리사 등록)	변호사
특허청 출원대리	○	○	×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	○	×
심결 취소소송 대리	○	○	○
특허(침해)소송 대리	×	○	○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	○	○

| 업무 환경 | 업무는 주로 특허사무소의 사무실 내에서 행하는데,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근무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다양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교대제, 재택근무, 프리랜서, 원격근무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특허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때는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길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논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직급과 경력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거나,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을 갖게 된다.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 **관련 학과**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건축학과, 생명공학과 등 이공계 학과, 약학과 등
- **관련 자격** 변리사(특허청), 변호사(법무부, 변리사로 등록 가능)

| 적성 및 흥미 | 새로운 발명 여부와 그 속성을 자신의 방식으로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탐구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지니고 창조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기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습형 흥미유형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며 변리사 자격 취득 후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정 경험을 쌓은 후 본인이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업체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점차 지식재산권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 및 판례, 학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기술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특허, 출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그룹과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그룹, 특허청 경력자 그룹으로 구성된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2010년 5,960명에서 2020년 12월 말 기준 10만 47명으로 68.6% 증가하였으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리사 등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누계)*
신규등록	시험합격자	169	158	188	148	246	119	120	3,630
	변호사	131	136	116	204	337	394	745	5,782
	특허청경력자	28	34	20	22	22	21	17	635
	계	328	328	324	374	605	534	882	10,047
누계		5,960	6,288	6,612	6,986	7,591	8,125	9,007	10,047

자료 : 대한변리사회 내부자료(2020.12.31. 기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 정보가 융합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심판청구 및 심판처리 건수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건수는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심판청구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2013	204,589	10,968	66,940	147,667	430,164
2014	210,292	9,184	64,345	150,226	434,047
2015	213,694	8,711	67,954	185,443	475,802
2016	208,830	7,767	65,659	181,606	463,862
2017	204,775	6,809	63,453	182,918	457,955
2018	209,992	6,232	63,680	200,341	480,245
2019	218,975	5,447	65,039	221,507	510,968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특허권은 속지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무서비스업의 개방에도 일자리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특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 R&D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AI, IoT, 핀테크 등과 같은 4차 산업 관련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건수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특허권의 속지주의적 특성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 • 친환경, 보건 관련 특허출원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제품 출시 전부터 전 과정에 참여하여 법적 논쟁 부분 전담하는 변리사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지식재산권의 중요도 상승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변리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으로 현 상태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변호사, 법무사, 저작권에이전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21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614
- **관련 정보처** 특허청 1544-8080 www.kipo.go.kr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 www.kpaa.or.kr

05

법률 관련 사무원

법률 관련 사무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와 만나기 전에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한다. 또한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한다. 법률 관련 사무원의 역할은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



하는 일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 중 초급 사무원은 문서접수, 기록의 복사·열람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기록 파일을 만드는 편철 업무, 사건기일 관리,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 등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사무장은 주로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또한 의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한 후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 이 외에도 변호사의 서면 작성 업무 보조, 사건 비용 산정, 자료 관리, 영업 관리 등을 맡으며, 초급 사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기도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기 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등),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공증 업무, 부동산 경매 업무, 기업체 법률자문 업무, 의뢰인 상담 및 비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법인(Law Firm)에 근무하면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어 법률 관련 사무원도 각자 분장된 업무(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 처분 등의 각 송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주로 등기와 등록에 관한 사무,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를 한다. 이 밖에 경매, 공매에 관한 사항, 민·형사 사건 소장 및 신청서 작성 대행을 한다.

변리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의뢰인에 의해 제시된 발명이나 고안을 구체화하는 문서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변리사를 도와 등록된 권리를 방어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허권 전반의 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다.

법원직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들은 주로 판사나 검사의 업무 보조, 서류 접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기업체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기업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최근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기업 간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법무팀을 두어 법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 업무 환경 | 법률 관련 사무원의 업무는 다른 직업에 비해 육체적인 근로가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으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소장(訴狀)을 제출하는 일, 인허가나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기관 등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많은 편이다. 보통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일의 특성상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은 법원과 검찰의 업무시작 및 마치는 시간과 같다. 그러나 연중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 차이가 크며, 시간을 다투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종종 야근도 한다.



되는 길

법률 관련 사무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 제도는 없으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 전공자 중 법률 관련 사무원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매년 한 차례 약 2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관련 사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 법률 관련 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민간교육기관도 있다.

한편, 9급 법원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이 있는데,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법원·검찰직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 적성 및 흥미 | 기본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료작성을 위한 분석적 성격과 꼼꼼함이 요구된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협업을 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협조성과 사회성도 필요하다. 흥미유형에서는 변호사와 유사하게 타인과의 관계 활동에 적합한 사회형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정리 작업에 흥미를 느끼는 관습형 유형이 적합하다.

|경력 개발| 법률 관련 사무원은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일부는 기업의 법무부서나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한다. 채용 시 대개 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다. 법원 및 검찰청에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을 제외하고, 법률 관련 사무원이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일부 지방변호사회는 법률 관련 사무원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관련 사무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법률 관련 사무원은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 후 약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고, 이후 5년 정도는 일반사무원, 5년 이상 근무 시 능력에 따라 사무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 밖에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승진한다.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개별 기업의 승진체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법률 관련 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법률 관련 사무원은 2019년 약 67천 명에서 2029년 약 7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0.6%) 정도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사업체 수는 2014년과 비교하여 약 2,500개소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도 2014년 7만 2,467명에서 2018년의 8만 4,323명으로 4년 사이에 약 26.6% 증가하였다.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종사자 수	66,603	69,112	72,467	77,259	81,753	82,003	84,323
사업체 수	12,297	12,643	13,417	14,062	14,819	15,151	15,99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각종 범죄의 증가, 전세금이나 재산 갈등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 기업 경영상 부딪히게 되는 법률 문제의 증가 때문에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할 인원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기업체에서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 내 법률전문가를 확보하고 법률담당부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이 때문에 기업체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법률 관련 사무원을 고용하는 법률 전문가의 증가는 법률 관련 사무원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입료 하락 및 사건 수입건수 하락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법률 사무소가 생겨나고 있어, 법률 관련 사무원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발전이 법률 관련 사무원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는 등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는 사무직원들의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지식의 대중화로 임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청구소송 등의 소액재판은 본인소송이 쉬워져 법률 관련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사내 변호사를 두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또한 로펌 등 법률 관련 사무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쟁송, 사건 수가 줄어들면서 수요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회 다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가능성	
과학기술 발전		• 법률행정서비스에서 전자소송 도입 및 법률정보의 보편화 • 인공지능 등 디지털화로 인한 수요 축소
국내외 경기	• 글로벌화에 따른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법률서비스업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이상을 종합하면, 소송 건수의 증가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증가 등 잠재적인 법률 관련 사무원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개인이 직접 법률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비중의 증가 및 1인당 수입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률 관련 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판사, 검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사사무원, 무역사무원, 인사 및 노무사무원, 저작권에이전트, 경영지원사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2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301
- **관련 정보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02)594-1623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02)732-0231 www.lawland.or.kr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www.koreanbar.or.kr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 www.linklaw.co.kr

06

경찰관 및 수사관

경찰관 및 수사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며,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담당한다. 또한 범죄를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고, 치안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대테러·대간첩 작전의 수행 및 안전한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활동도 담당한다.



하는 일

경찰청 직제에 따른 세부업무는 크게 9개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112신고 출동으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기초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경찰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 기능은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 사기, 횡령 등 범죄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사 활동을 담당한다. 사이버안전 기능은 해킹, 인터넷사기,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사이버범죄를 수사한다. 교통 기능에서는 교통단속과 사고 예방 및 법규위반자 단속,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한다. 외사 기능은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 및 정보수집, 국제형사경찰(인터폴) 업무를 담당하며 경비 기능은 중요 인사의 경호 및 시설 방호,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 기능은 치안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수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보안 기능은 대간첩 정보수집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 기능은 경찰의 일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파악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의 주요 기능 외에도 경찰은 경무인사기획, 기획조정, 감사, 정보화장비정책 업무는 경찰조직 내 업무활동 지원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의 업무범위가 확장되어 2012년 학교폭력 예방, 수사 및 위기청소년 선도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시행 중이고, 2016년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역사회 연계 등을 담당하는 학대전담경찰관

(APO) 제도가 신설되었다.

한편 101경비단은 청와대 내부의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기관으로 101 경비단 소속 경찰은 대통령 신변경호 업무를 제외한 청와대 내부경비 임무와 순찰, 의전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은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예방 및 방제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 안전본부로 운영되던 해양경찰은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신설되었다.

|업무 환경| 경찰관 및 수사관의 근무는 치안활동 계획 수립, 현장근무자 지원 등을 담당하는 내근과 112신고 대응,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외근으로 나눌 수 있다. 외근경찰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경찰관의 안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현재는 4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전체 경찰관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로 범죄예방순찰, 112신고출동 및 현장 초동조치를 담당한다.

근무형태는 담당 부서에 따라 주 5일 근무를 하거나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치안 상황에 따라서는 내·외근 구분 없이 비상근무,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경찰관은 업무 중 교통사고, 범인으로부터 습격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되는 길

4년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순경 공개채용에 합격하면 일정 교육이수 후 순경으로 일할 수 있다. 반드시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지만, 경찰행정학과 등을 졸업한 후 경찰시험을 준비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경찰간부로 일하기 위해서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간부후보생이 되거나 경찰대학에 입학해야 한다. 경찰대 학생은 4년간 경찰대학에서 법·행정 학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과정 내에 사이버범죄수사, 테러리즘 등 경찰학 심화과정을 이수하며 전문적인 경찰실무능력을 배양한다.

학교전담경찰관 경채의 경우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인 자, 과학수사 경채는 과학수사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인 자, 외국어 전문요원은 해당 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 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분야별로 자격이 상이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맞추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관련 학과** 경찰대학, 경찰학과, 경찰경호과, 경찰행정학과, 사이버경찰학과, 경찰행정법학과, 여성경찰행정학과, 법학과 등

|적성 및 흥미| 법 집행이나 규칙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인내력과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계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회형 흥미유형,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활동을 선호하는 진취형 흥미유형이 필요한 직업이다.

|경력 개발| 경찰관 및 수사관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공개채용(공채)과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개채용은 경찰대학생(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경찰교육원), 순경공채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은 경위로 순경공채는 순경으로 임용된다. 순경공채는 남녀순경 공채, 101경비단 공채로 구성되며, 경력경쟁채용은 특수한 기술·자격·전문지식을 보유한 자에 대해 특정부서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하고 있다. 경채 채용분야는 변호사, 항공, 경찰특공대,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학교전담, 지능범죄, 외사 등으로 임용계급도 순경부터 경감까지 다양하다. 채용 절차는 필기·실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가산점 적용 후 최종 합격 순으로 이루어진다. 응시 분야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이하며,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gosi.police.go.kr)에 방문하면 매년 채용인원과 지원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순경공채(경력경쟁채용 다수 포함) 시험 합격자는 34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입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치안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신입경찰 양성을 목표로 경무, 생활안전, 수사, 형사, 교통, 사격, 운전 등 경찰실무와 현장실습을 한다. 경찰대학생은 4년간 경찰대학에서 법·행정 학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된다. 경찰간부후보 시험 합격자는 52주간 경찰교육원에서 신입교육을 받고, 수료하면 경위로 임용된다.

경찰계급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의 11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승진 방법은 시험, 심사, 특별승진, 근속승진 4가지로 분류된다. 순경부터 경위까지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일하는 실무자이고, 경감·경정은 중간관리자, 총경부터는 지휘관 역할을 담당하며 경무관 이상 치안총감은 중앙 경찰 조식을 이끌어가는 경찰의 수뇌부라 할 수 있다. 일선 경찰서의 보직을 살펴보면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감이나 경정이, 경찰서장은 대부분 총경이지만 규모가 큰 경찰서의 경우 경무관이 담당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경찰관 및 수사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경찰관 및 수사관은 2019년 약 107천 명에서 2029년 약 12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3천 명(연평균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경찰관 취업자 수는 11만 8,651명으로 2013년 10만 5,357명에 비해 연평균 2.2% 증가하였다. 아울러 2015년 기준으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56명으로 선진국(미국 427명, 영국 421명, 프랑스 322명, 독일 305명 등)에 비해 경찰관 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경찰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인력 2만 명(경찰 18만 8,000명, 해경 1,200명)을 증원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경찰관 현황 및 1인당 담당인구]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찰관	101,108	101,239	102,386	105,357	109,364	113,077	114,658	116,584	118,651
1인당 담당인구	492	501	498	485	469	456	451	444	437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가 금융 산업이나 원자력 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이나 안전 관련 핵심 시설까지 미쳐 앞으로 이를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명예훼손, 사이버음란물, 사이버 도박 등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만 4,679건에서 2019년 18만 499건으로 24.85%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IT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이버범죄 수사요원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제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외국인 범죄, 산업정보 유출, 밀수사범 등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테러·재해발생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등 외사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보호,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업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8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세가 둔화되어 치안수요 증가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치안서비스 분야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업무의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사이버범죄, 여성 대상 범죄 등 치안 서비스 영역 확대	
과학기술 발전		• 안전 관련 과학기술 발전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사회안전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 지방 경찰/자치 경찰 신설 • 여성 경찰관 채용 요구 증가	

이상을 요약하면, 경찰관의 고용은 인구 고령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등 감소요인이 있지만,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많고, 사이버범죄, 외사 등 전문 분야 경찰인력에 대한 수요증가 및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경찰관 및 수사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해양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교도관, 소년원학교교사,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경호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40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11
- **관련 정보처** 사이버경찰청 182 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1544-7715 gosi.police.go.kr
경찰대학 (041)968-2114 www.police.ac.kr
경찰인재재개발원 (041) 536-0341 www.phrdi.go.kr
중앙경찰학교 (043)870 -2114 www.cpa.go.kr

07

소방관

소방관은 시설물 소방안전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며,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 일을 한다. 그 외에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하는 일

소방관은 담당 업무에 따라 현장 활동 요원과 사무 요원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 활동 요원은 외근직으로 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운전요원 등으로 구분된다. 화재진압요원은 각종 화재 및 사건·사고 발생 시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한다. 또한 소방기구, 호스 등 화재 진압도구를 사전에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구조요원은 화재, 교통사고, 건물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시 진압요원과 함께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을 한다. 구급요원은 위급한 환자의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의 활동을 하며,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 내 소방대상물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밖에 소방항공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소방항공기를 이용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공중수송, 공중방역 및 방제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수난구조대의 경우 강이나 호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 시 구조 활동을 한다.

사무요원은 내근직으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국민안전처의 내근부서에 근무하면서 소방일반 행정, 재난관리, 화재예방, 구조·구급 행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다. 주요 업무로는 일반 행정, 건축 및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그 외 각종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의 예방 행정 등이 있다.

|업무 환경| 현장 활동 요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하면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동 명령이 떨어진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뒤따를 수 있다.

화재진압 시에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작업해야 하며 대형화재, 재난사고, 산불이 발생할 때는 며칠씩 사고 현장에서 머무르며 활동해야 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은 방화복을 착용하고 일하지만, 화재로 인한 화상, 질식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9안전센터나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활동 요원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정한 3조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방서 행정 직원의 경우 주간 근무를 한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한국소방안전원과 전국소방대연합회는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 방식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되는 길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별채용의 경우 구조, 구급,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다. 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여야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한 뒤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으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대응능력자격을 시험은 평가기관에서 3주(105 시간) 이상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 경과 후 화재진화사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화재진화 및 화재대응능력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소방관리학과, 소방공학과, 소방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 **관련 자격** 소방시설관리사(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육사(국민안전처), 화재조사관(국민안전처), 1급/2급/특급 소방안전관리자(국민안전처),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전기 및 기계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기능장/산업기사, 소방기술사, 1종 보통 운전면허

| 적성 및 흥미 | 화재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성과 융통성, 생명 중시, 타인에 대한 배려, 정직성, 협조성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하려는 책임성과 진취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 흥미 유형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 유형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

| 경력 개발 | 소방관은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 소방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시험 응시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이하이며, 경력채용의 경우 20세 이상~40세 이하, 소방간부는 21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고,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도별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등 응시자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항목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력 등 신체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외 특별 채용의 경우 구조, 구급,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 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 과목을 공개채용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며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한다. 경력채용 소방학과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를 치르며, 경력채용 응급의무는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이 시험과목에 포함된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를 시험한다. 소방관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하는데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의 단계를 거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소방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소방관은 2019년 약 43천 명에서 2029년 약 4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5천 명(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방관 취업자 수는 5만 6,639명으로 2012년 3만 7,826명에 비해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연도별 소방인력 현황]

(단위 : 명)

연도	출원인원	경쟁률	최종 합격인원
2012	37,826	257	37,569
2013	39,519	322	39,197
2014	40,406	483	39,923
2015	42,634	538	42,096
2016	44,121	538	43,583
2017	48,042	585	47,457
2018	51,779	630	51,149
2019	56,639	675	56,639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286명에서 2019년 9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방관 1인당 인구 수	1,385	1,350	1,320	1,305	1,286	1,224	1,186	1,091	1,013	927

자료 : 소방청(소방청통계연보, 각 연도)

최근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대상물(건축 및 시설물)의 고층화 및 심층화,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규모와 과업 부담이 커져 이에 대응할 화재진압요원 등 소방인력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재산피해 등 수요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전보다 강조된 생명 중시 및 안전 중시의 원칙이 소방업무와 인명구조과정에 빠르게 적용될 것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전문화된 소방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연도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백만 원)

연도	화재발생	인명피해			재산피해
		소계	사망	부상	
2012	43,247	2,223	267	1,956	256,548
2013	40,932	2,184	307	1,877	434,300
2014	42,135	2,180	325	1,855	402,459
2015	44,435	2,093	253	1,840	433,100
2016	43,413	2,024	306	1,718	420,600
2017	44,178	2,197	345	1,852	506,900
2018	42,338	2,594	369	2,225	559,700
2019	40,103	2,515	285	2,230	858,400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한편, 국가차원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화재 예방과 화재진압에 머물던 소방관의 업무가 모든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은 물론 응급환자 구급 업무와 피해복구 지원활동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구조요원 및 구급요원 등 전문화된 소방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사무요원(소방 일반행정, 구조·구급행정, 화재예방 담당)과 현장활동요원(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등 소방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고령화, 독거 가구 증가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 요구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저 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구조 요청 증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대 	
환경과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온난화, 자연재해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안전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정책 강화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 체제 전환 예정 	

이상을 종합하면, 화재와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및 재난 서비스 수요는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소방인력 공급도 정부의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 등에 의해 소방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응급구조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40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12
- **관련 정보처** 국민안전처 (02)2100-2114 www.mpss.go.kr
중앙119구조본부 (053)712-1000
중앙소방학교 (041)840-6620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www.kfsi.or.kr

08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는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관리하고 교화한다. 교도관(교정공무원)은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정·교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는 일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는 소년원,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교정하는 일을 한다. 수감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탈출, 도주, 자해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 및 교도소의 중요 시설을 경비하는 일을 하며, 교화교육과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년보호관은 특히 소년원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관리하고 교화하며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관은 정복교도관과 사복교도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복교도관은 교정직교도관과 사회복귀업무교도관, 분류심사 업무교도관으로 구성된다. 사복교도관은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으로 구분되며, 보건위생 교도관과 기술직교도관, 관리운영직교도관, 직업훈련교도관으로 구성된다.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직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교정직교도관은 대다수가 보안과에 근무하며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한다. 수용자의 고충 사항을 처리해 주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 유지, 출입구 및 교도소 등의 주요 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 아울러 수용자 인원을 점검하고,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위생, 침구, 의류, 거실을 점검하는 등 수용자의 수용 생활 전반을 돌보며 두루 관찰하고 기록한다. 보안과 이외에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재소자가 검찰에 소환될 때 호송 및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정과(계/팀), 수용자들의 신상, 재판기록, 형기

등을 기록하는 수용기록과(계/팀), 수용자의 접견 등을 담당하는 민원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사회복지업무교도관은 교정직교도관의 업무에 더하여 수용자의 사회복지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신·집필, 종교·문화,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며, 수형자의 귀휴와 사회견학 및 가족 만남의 집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에는 심리치료·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신입 수형자 및 교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별 교화상담을 실시한다.

분류심사업무교도관은 교정직교도관의 업무에 더하여 수용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며, 교육 및 작업의 적성을 판정,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한다.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 중 보건위생교도관은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 등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 의약품 보관 및 수급·약의 조제를 담당하는 약무직, 환자를 간호하고 의무관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직,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 장비를 관리하는 의료기술직, 식품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는 식품위생직이 있다. 기술직교도관은 건축·전기·기계·화공·섬유·전산·통신 및 농업 분야의 시설공사를 수행하며 차량의 운전 및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보일러·전기·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와 기구를 취급하고 설비·관리한다.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업무 환경| 교정직공무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와 교대 근무로 나뉜다. 주간 근무는 사무직 근무와 같이 주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행정업무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처우와 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 교대 근무는 4개부로 나누어져 ①16시간 야근(17시 출근 다음 날 9시 퇴근)→②비번→③윤번일근(1/2 출근 혹은 비번)→④당무일근(9시 출근 18시 퇴근)순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4부제로 운영된다. 만약 1부가 ①번 근무일 때 동시에 2부는 ②번, 3부는 ③번, 4부는 ④번 근무를 하는 형태로 각각 순환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처우가 개선되었다. 교정기관별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3부제 근무자의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안근무자 외의 교화·분류직 등은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고 근무 여건 및 내용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이 연장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교도관은 근무 시간 대부분을 교정시설에서 보내며 수용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늘 일정한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들을 수감하는 수용 동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교도소 및 구치소가 교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되는 길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나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며, 경찰행정학과나 교정보호학과를 전공하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보호직 및 교정직 9급의 경우 시험 응시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입직하는 경우도 많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과, 심리학과, 교정보호학과, 경찰행정과 등

|적성 및 흥미| 수감자를 교화하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스트레스 감내성과 반복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건강한 체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치료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 각종 규율을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으로 준용하는 일을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과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며 교화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

|경력 개발|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다. 채용대상 직급은 5급 교정관, 7급 교위, 9급 교도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채용 인원과 시기는 교정관의 경우 2~3년 단위로 3명 이내이고, 교위는 내부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승진임용 인원을 감안 매년 30~40명 규모로 채용하고 있다. 9급 교도의 경우는 200~300여 명 규모의 다수 인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교정직, 교회직, 분류직을 별도로 채용하였으나 2012년부터 정복교도관으로 통합하여 채용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근무 중 돌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체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력 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20m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m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측정하는데 이 중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필기시험 과목은 교정직 7급 교위의 경우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7개 과목이고, 교정직 9급 교도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선택 2과목 등 5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특별 채용은 임상심리분야, 상담분야, 간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무도분야 등을 선발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 채용의 경우 시험은 2과목이고, 교정학개론을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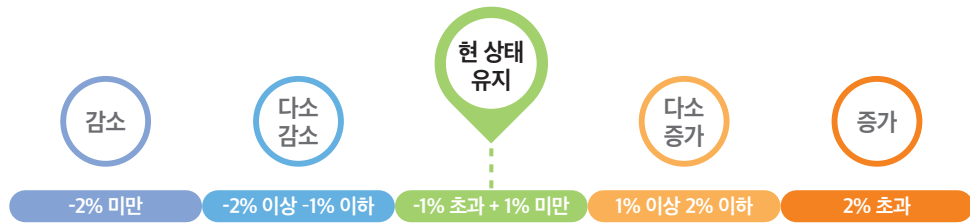
교정직에 신규로 채용되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5~9주 정도 교육훈련을 마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출퇴근하며 실습을 하고, 교정학 및 형사소송법 등 이론교육과 무도교육도 받는다. 교도관은 교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과 승급이 이루어진다. 교정직은 교도→교사→교위→교감→교정관→서기관→부이사관→교위공무원 순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시험·심사·특별·근속 승진으로 이루어진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은 2019년 약 13천 명에서 2029년 약 1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교도관 정원 및 수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 일평균 수용인원이 2012년 4만 5,488명에서 이후 증가하여 2019년 5만 4,624명까지 증가하였다. 소년수형자의 경우 2012년 170명에서 2019년 116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의 경우 교정업무 외에도 교화, 직업훈련, 고충처리 관련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에서 2019년 3.4명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향후 교도관 충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관 정원 및 수용인원]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평균 수용인원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교도관 정원	15,757	15,476	15,934	15,887	15,892	15,871	15,999	16,101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2.9	3.1	3.1	3.4	3.6	3.6	3.4	3.4
소년수형자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16

자료 : 법무부, 2020 법무연감

그러나 IT기술의 발전으로 로봇교도관 등 자동화가 추진되어 교도관의 업무량이 감소하면, 교도관 고용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교도관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교도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취업경쟁은 상대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적용 범위의 다양화 및 엄격화 (성범죄, 디지털범죄 등) • 처벌보다는 교화에 주력하는 사회 분위기로 교화 인력 필요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업무량 감소 (일부 교도업무 대체)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수형자 증가로 인한 교정 서비스 수요 확대 	

종합하면 IT기술 발전 등 고용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교정시설 수용자 수의 증가추세 및 선진국 대비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가 많은 등 교정인력 수요 증가 요인으로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경찰관, 해양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경호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40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13
- **관련 정보처** 법무부 교정본부 1363 www.corrections.go.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363 www.cppb.go.kr

09

위관급 장교 및 부사관

위관급 장교는 육·해·공군의 소위, 중위, 대위 계급의 장교로서 주로 중대급 이하의 부대를 지휘하거나 지휘관을 보좌하여 부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시 시 전투에 참여한다. 부사관은 육·해·공군의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계급으로,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간부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사병의 업무를 감독, 지시, 통제하는 업무를 한다.



하는 일

위관급 장교는 부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휘한다. 작계와 교리를 연구한다. 재해발생 시 민·관·군 통합 구난구조 지원활동을 지휘한다. 환경보호 및 대민 일손지원 활동을 지휘한다. 국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활동을 지휘한다. 전시 시 적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한다. 육군장교는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수색정찰을 지휘한다. 해군장교는 군함에 승함하여 연근해 초계활동을 지휘한다. 공군장교는 정찰기에 탑승하여 수색정찰을 실시한다.

부사관은 분대 또는 소대와 같은 규모의 집단을 지휘하거나 전투 기본교육, 보급·정비, 행정, 부대관리 등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재해발생 시 민·관·군통합 구난구조 지원활동을 일선 실무에서 지휘한다. 환경보호 및 대민 일손지원 활동을 현장에서 감독한다.

|업무 환경| 위관급 군인(부사관)은 국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함께 일하는 전우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가 엄중하므로 군 조직 내 규율이 엄격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또한 순환 보직에 따른 잦은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당직근무로 인한 밤샘 업무와 불규칙한 업무 주기로 일상적인 생활의 규칙이 깨질 수 있다.



되는 길

위관급 장교가 되는 길은 다양하며, 각 군별로 장교 후보자를 모집한다. 육군장교가 되려면 대학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면 된다. 이외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또는 학사사관후보생(학사장교)으로 선발되어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후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면 대학 3, 4학년 과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에 장교로 임관한다. 여군의 경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간호사관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임관하면 된다. 이 외에도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후 여군사관으로 임관되기도 한다. 해군장교가 되려면 대학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해군사관학교를 입학/졸업 후 임관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또는 학사사관후보생(학사장교)으로 선발되어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후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육군3사관학교(확인 필요함)에 입학하면 대학 3, 4학년 과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또한 해군으로 복무 경험이 있는 부사관 출신이 지원하여 해군장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여군의 경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해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간호사관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임관하면 된다. 이 외에도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후 여군사관으로 임관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임관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에서 만 27세 이하일 경우(군미필자)에 지원할 수 있다. 공군장교가 되려면 4년제 대학졸업 또는 동등학위 취득자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공군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1~2학년 재학 시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지원할 수 있다(남·여 가능, 단 조종은 남학생만 가능). 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학사사관후보생(학사장교)으로 선발되어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후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공군 협약 지정대학학과(세종대·영남대)에 입학하면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 공군 협약 지정대학학과(아주대)에 입학하면 정보통신 장학생으로 선발, 국내 4년제 주간대학 1~4학년 재학생 중 전형 합격자는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 국내 4년제 주간대학 1~3학년 재학생 중 전형합격자는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 단, 연령은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예비역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부사관이 되는 경로도 다양한데, 육군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상병, 병장이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되는 경우, 둘째,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가 부사관에 지원하여 선발되는 경우, 셋째, 병역의무를 마친 임관일 기준 30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가 부사관에 지원하여 선발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문대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신규 부사관에 지원하려면 임관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할 경우에는 응시연령의 상한이 1~2세 연장된다. 신체조건은 159cm 이상에서 196cm 이하로 교정시력 양안 모두 0.6이상이어야 하며 병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체등급이 3급 이상이어야 한다.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그리고 신체검사와 체력평가 및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군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임관일 기준 18~27세의 고졸 이상의 민간인 학력소지자가 지원을 하는 경우, 둘째, 해군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부대장의 추천을 받고 부사관에 지원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문/기능 대학교의 1, 2학년 재학생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해군부사관으로 모집되는 병과로는 기술/행정 계열(갑판, 조타, 전탐, 재무, 정보통신 등), 항공계열(항공조작/통제/기관/기체), 기타계열(의무/조리/운전/UDT/SSU 등) 등으로 다양하며 8주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공군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항공기술 관련 교육을 받고 졸업한 뒤 기술직 부사관으로 근무하거나,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공군부사관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공군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부사관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항공대/한서대/교통대학교 등의 특정학과 재학생이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그리고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 **관련 학과** 국방경찰행정학부, 군사학과, 군정보사관학과, 국방기술학부, 국방기술대학, 부사관과, 국방시스템공학과, 국방공무원학과, 해군학전공, 헬리콥터조종학과, 국방과학기술학과, 국방기술학부 등

| **적성 및 흥미** | 전투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신체적 강인성과 유연성, 민첩성이 요구되며, 공간지각력과 조지 체계의 분석 및 평가 능력이 요구된다.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육지, 바다, 하늘의 특성 및 상호 관계에 관한 지리학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과 보안에 대한 지식 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소위로 임관하여, 중위, 대위, 이후 영관급인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적정한 심사를 통해 승진하며 직위가 제한되어 있어 상위직으로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사로 임관하여 중사, 상사, 그리고 원사까지 진급하며 원사 이후 적정한 심사를 통해 준사관(준위)으로 승진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위관급 장교 및 부사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에 따른 사병 감소로 인해 간부인 위관급 장교는 다소 감소하고 부사관의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의 양적 감소로 인해 정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제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병력규모를 축소·조정하되, 단순히 육체적이고도 보편적인 업무 중심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화된 업무 중심으로 군 병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통해 '정예화', '스마트화',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정예화는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를 의미하며, 다음으로 스마트화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끝으로 선진화란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도록 군의 구조나 국방 운영, 병영 문화, 방위 사업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로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전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군 현대화를 통해 항공기,

경향공모함의 2022년 설계 추진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인력은 정부의 군사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병력규모를 정예화, 전문화, 특수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직업 안정성 보장	• 옴로 등 자유분방한 청년세대 문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국방개혁에 따른 기술 군대로 변화	

종합하면, 저출산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초임간부 획득 감소, 기술 군대로의 개혁에 필요한
숙련된 간부 확보, 직업 안정성 보장 등으로 인해 위관급 장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하고
부사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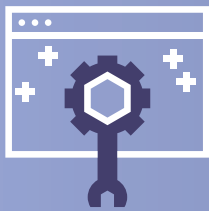
- **관련 직업** 경찰관, 해양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교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502, 250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A012, A020
- **관련 정보처** 국방부 1577-9090 www.mnd.go.kr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5



보건의료 관련직

- | | | |
|---------------|-------------|--------------------|
| 01 내과 의사 | 12 피부과 의사 | 23 임상병리사 |
| 02 외과 의사 | 13 가정의학과 의사 | 24 방사선사 |
| 03 성형외과 의사 | 14 일반 의사 | 25 치과기공사 |
| 04 산부인과 의사 | 15 한의사 | 26 치과위생사 |
| 05 이비인후과 의사 | 16 치과 의사 | 27 물리 및 작업치료사 |
| 06 안과 의사 | 17 수의사 | 28 임상심리사 |
| 07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18 약사 | 29 재활공학기사 및 치료·재활사 |
| 08 소아청소년과 의사 | 19 한약사 | 30 응급구조사 |
| 09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 20 간호사 | 31 안경사 |
| 10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 21 보건교사 | 3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11 비뇨기과 의사 | 22 영양사 | 33 간호조무사 |



01

내과 의사

내과 의사는 소화기관, 호흡, 신장 등 인체의 내부기관에 질병이 있으면 진단한 후 주로 약물치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하는 일

내과 의사는 소화나 호흡, 신장 등 인체 내부기관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선·후천적 이상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진찰하고, 방사선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검진결과에 따라 치료를 위한 처방을 수행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른 식이요법 및 생활방식 등에 관하여 조언한다. 의료검사를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내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등이 있다.

|업무 환경|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실내 진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다. 하지만, COVID 19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게 되면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야 하며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늘어나 근무환경에 긴장감이 증가하고 전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3년을 거쳐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내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내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내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7년 670명, 2018년 580명, 2019년에는 505명으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부터는 내과 전문의 수급 부족 등을 고려하여 내과 전문의 수를 2배가량 늘려 1,046명을 배출하였고 이후 당분간은 유사한 수만큼 배출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내과 의사 수는 2016년에 1만 4,367명에서 2020년에는 1만 6,670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6.0%가량 증가하였다.

[내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내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680	670	580	505	1,046
내과 의사 면허등록자	14,367	14,967	15,455	15,968	16,670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내면 심리치료,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내과 전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내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2

외과 의사

외과 의사는 인체의 외과적 상해, 질환 및 장애를 진료하는 자로 환자를 검진하여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약물반응, 병력을 검토하여 수술방법을 결정하며 각종 외과 수술을 시행한다.



하는 일

외과 의사는 소화기, 두경부, 내분비, 유방 등의 장기에 대한 수술치료의 수행 및 전반적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환자를 검진하여 수술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고, 수술에 필요한 도구, 장비, 설비 등의 살균상태와 방부제 처리방법을 확인 점검한다. 치료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치료를 검토한다. 의료검진을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외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외상외과, 소아외과, 이식외과, 대장항문외과, 내분비외과, 유방외과, 위장관외과 등이 있다.

|업무 환경|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무가 많고 근무시간도 불규칙적이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이나 치료 등으로 인해 중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오랜 근무시간과 근무 시 긴장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며, 눈의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중에 환자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이루어지는 수술로 체력적인 소모가 매우 큰 편이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3년을 거쳐 외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외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외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외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33명, 2019년 126명, 2020년에는 162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40여 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외과 의사 수가 2016년에 5,840명에서 2020년에는 6,277명으로 5년 사이에 약 7.5%가량 증가하였다.

[외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50	145	133	126	162
외과 의사 면허등록자	5,840	5,962	6,020	6,154	6,277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외과 전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외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3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는 선천적 기형 혹은 외상 및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 전반의 변형을 복구하고 기능적 결손을 교정하며, 얼굴과 신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 및 비외과적 시술을 한다



하는 일

성형외과 의사는 신체 전반에 대한 전반적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한다. 환자를 검진하여 수술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고, 수술에 필요한 도구, 장비, 설비 등의 살균상태와 방부제 처리방법을 확인 점검한다. 치료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치료를 검토한다. 의료검진을 위해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크게 선천성 기형, 외상, 사지 종양 제거 등을 수행하는 재건 성형과 코, 안면윤곽, 주름, 유방 등을 성형하는 미용성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 환경|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실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중에 환자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성형외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83명, 2019년 82명, 2020년에는 76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0여 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 수가 2016년에 1,728명에서 2020년에는 2,041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8.1%가량 증가하였다.

[성형외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99	88	83	82	76
성형외과 의사 면허등록자	1,728	1,840	1,910	1,964	2,041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위주에서 예방, 외모 충족욕구,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고령자층에서도 미적인 이유로 외모를 바꾸는 미용 성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성형외과 전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용성형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의료보조기기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의료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성형외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4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는 태아 출생 전후의 임산부를 관리하고 분만을 담당하며, 전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생식기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하는 일

산부인과 의사는 임상병리검사,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의 자료와 태아 감시장치를 사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하고 필요시 제왕절개 수술이나 기타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다. 전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생식기관, 요도기관 등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의료검사를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산과, 난임클리닉, 부인종양클리닉, 폐경기클리닉 등이 있다.

| 업무 환경 |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실내 진료실과 분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나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중에 환자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산부인과 의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31명, 2019년 137명, 2020년에는 134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34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수가 2016년에 5,584명에서 2020년에는 5,893명으로 5년 사이에 약 5.5%가량 증가하였다.

[산부인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96	100	131	137	134
산부인과 의사 면허등록자	5,584	5,644	5,710	5,810	5,893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여성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저출생이 지속된다면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저출생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산부인과 의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5

이비인후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는 귀, 코, 목에 질병이 있으면 진단한 후 필요시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물치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하는 일

이비인후과 의사는 음향측정기, 프리즘, X-ray 등 관련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귀, 코, 목 등 관련 신체기관을 검사하고 질병 유무를 진단한다. 질병의 진행상황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처방하여 치료한다. 의료검사를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이과, 비과, 두경부외과 등이 있다.

|업무환경|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실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나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중에 환자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적성 및 흥미]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이비인후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이비인후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14명, 2019년 111명, 2020년에는 116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4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의사 수가 2016년에 3,621명에서 2020년에는 3,954명으로 5년 사이에 약 9.2%가량 증가하였다.

[이비인후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35	125	114	111	116
이비인후과 의사 면허등록자	3,621	3,724	3,823	3,923	3,954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이비인후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6

안과 의사

안과 의사는 눈의 선천적 이상이나 안질환 및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하는 일

안과 의사는 눈의 이상이나 안질환 등을 검진하여 치료하고, 필요시 외과적 수술을 결정한다. 환자의 질병, 장애에 대한 처방, 치료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의료검사, 시험 및 진단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치료의 종류와 순서를 결정한다. 투약을 비롯한 각종 치료행위를 처방, 지시하고 환자들에게 증상에 따른 식이요법 및 생활방식 등에 관하여 조언한다. 의료검사와 수술 등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안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결막염 등의 눈병을 진료하는 적안외래와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에 대한 질병을 진료하는 백안외래 등이 있다.

|업무 환경|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실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나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중에 환자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안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안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안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안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15명, 2019년 102명, 2020년에는 10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07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안과 의사 수가 2016년에 3,070명에서 2020년에는 3,510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4.3%가량 증가하였다.

[안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안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05	155	115	102	105
안과 의사 면허등록자	3,070	3,210	3,338	3,430	3,510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외모 충족욕구,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안과 의사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안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7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소아, 성인, 노인의 스트레스 질환을 포함하여 사고, 정서, 행동 등의 장애를 예방, 진단,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다.



하는 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정신 장애와 스트레스와 연관된 다양한 신체 질환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한다. 환자와의 정신과적 면담, 정신상태 검사, 다양한 심리검사 및 뇌기능 검사를 한다.

여러 진단 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정신 장애의 내용과 정도를 진단한다.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약물을 포함한 각종 생물학적 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 및 부부치료, 환경치료 등을 수행한다. 직업 재활 등의 다양한 재활 치료를 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정신증,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중독, 성격장애 등이 있다.

| 업무 환경 |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실내 진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다. 하지만, 진료 환자의 특성으로 인해 폭언, 폭행, 심지어 흉기 등에 의한 위협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42명, 2019년 144명, 2020년에는

12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37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가 2016년에 3,231명에서 2020년에는 3,730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5.4%가량 증가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57	148	142	144	12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면허등록자	3,231	3,376	3,483	3,646	3,730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내면 심리치료,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학업, 취업, 직장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관련 질환의 증가, 인터넷상의 게임, 도박, 음란물 등에 대한 중독자 증가, 과거보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져 치료를 받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 개인 및 집단 간 경쟁심화	
과학기술 발전	• 가상현실 및 인터넷 콘텐츠 이용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경쟁 심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8

소아청소년과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소아와 청소년의 보건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담당한다.



하는 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소아와 청소년을 검진하여 성성숙도 검사(Tanner stage), 골연령 검사, 채혈을 통한 항원 검사, 각종 혈액 검사, 골수 검사, 뇌파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질병의 발생유무를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한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예방차원의 건강계획을 수립·실시한다. 의료검사를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소아청소년과의 주요 진료 분야는 소아심장과, 소아신장과, 소아내분비과, 소아호흡기·알레르기과, 소아감염과, 소아소화기·영양과, 소아혈액·종양과, 소아신경과, 신생아과 등이 있다.

| 업무 환경 |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실내 진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다. 하지만, 독감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게 되면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되어 근무환경에 긴장감이 증가하고 전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42명, 2019년 144명, 2020년에는

12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37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2016년에 5,415명에서 2020년에는 5,849명으로 5년 사이에 약 8.0%가량 증가하였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57	148	142	144	125
소아청소년과 의사 면허등록자	5,415	5,585	5,663	5,810	5,849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내면 심리치료,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출생아 수 감소,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출생아 수 감소, 건강/생명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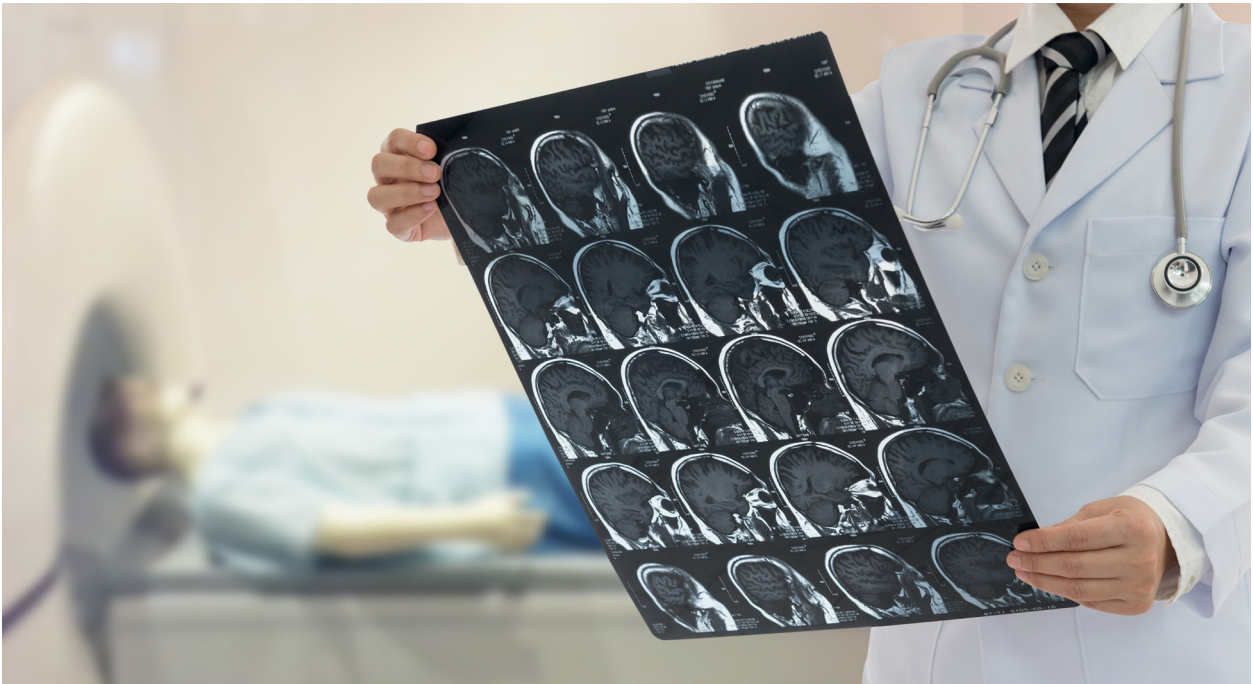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09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종양 및 관련 질환을 치료한다.



하는 일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는 임상 의사들과 협의하여 악성종양 환자를 진단하고, 질병의 경과를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치료계획을 세운다. 환자에게 방사선을 방사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방사량, 방사시간, 방사범위를 설정하고 기계의 선정, 방사기술 등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입자 치료, 관 내 치료, 조직 내 치료, 접촉 치료로 양성 및 악성종양을 치료한다. 방사선조사 후 방사선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종양의 진행과정을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의료검사를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업무 환경|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실내 진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대부분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하여 봉직으로 근무하며,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방사선종양학과 의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자격취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8명, 2019년 15명, 2020년에는 10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4명이 배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가 2016년에 279명에서 2020년에는 318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4%가량 증가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20	9	18	15	10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면허등록자	279	289	293	305	318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암 환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암치료 방법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항암치료법 다양화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항암치료법 다양화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10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 전후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징후(Vital Sign)를 점검하고 마취를 관장한다.



하는 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전신상태를 검사하고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며 해당 수술에 적합한 마취방법을 결정한다. 수술 전날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마취 전 처치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술 이전에 환자와 면담한다. 국부차단 또는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의료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기 및 약물을 투여하고 전신상태를 관찰한다. 마취의 형태와 정도를 기록하고 마취 전후 및 도중에 환자의 진정상태를 기록한다. 수술 후 합병증을 평가하고 처치 및 통증관리를 수행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마취관리, 통증관리로 크게 나뉜다.

|업무 환경|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봉직의로 재직하거나, 소속기관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통증의학과를 주요 진료과목으로 하는 개인병원을 개업한다. 실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거나 환자를 응급으로 마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마취를 시행한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185명, 2019년 240명,

2020년에는 206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10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수가 2016년에 4,148명에서 2020년에는 4,805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5.8%가량 증가하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98	211	185	240	206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면허등록자	4,148	4,326	4,464	4,667	4,805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외모 충족욕구,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마취통증의학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11

비뇨기와 의사

비뇨기와 의사는 콩팥, 부신, 요관, 방광, 요도의 비뇨계통 기관과 남성에 존재하는 전립선, 고환, 부고환, 정관, 정낭, 음경 등의 생식기관의 질병과 장애를 치료한다.



하는 일

비뇨기와 의사는 비뇨기계나 부신에 발생하는 종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남성 전립선비대 및 전립선암 등 전립선에 발생하는 질환, 성기능장애와 여성의 성기능장애, 갱년기 증후군 등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또한 비뇨기계의 선천성 기형, 야뇨증, 배뇨곤란 및 요실금 등 소변을 보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검진결과에 따라 치료를 위한 처방을 수행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른 식이요법 및 생활방식 등에 관하여 조언한다. 의료검사를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비뇨기와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내비뇨 분야, 비뇨기 종양, 남성의학, 여성 비뇨기와, 전립선비대증, 소아 비뇨기관 등이 있다.

| 업무 환경 |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실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나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중에 환자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비뇨기와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적성 및 흥미]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비뇨기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비뇨기와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23명, 2019년 33명, 2020년에는 28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8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비뇨기와 의사 수가 2016년에 2,473명에서 2020년에는 2,596명으로 5년 사이에 약 4.9%가량 증가하였다.

[비뇨기와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뇨기와 전문의 자격취득자	50	39	23	33	28
비뇨기와 의사 면허등록자	2,473	2,510	2,538	2,580	2,596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비뇨기와 전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원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비뇨기와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12

피부과 의사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피부염, 건선, 백반증, 접촉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모발질환, 피부종양, 유전성질환, 색소성질환, 여드름, 피부노화 등 광범위한 피부 질환들을 치료한다.



하는 일

피부과 의사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및 시술을 시행한다. 피부의 질병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검사와 여러 가지 화학적·생물학적 분석검사를 지시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 및 국부치료 등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종양, 감염에 의한 피부질환 및 기타 피부병 등을 치료한다. 그 밖의 외과적 악성피부질환, 사마귀, 낭종 또는 기타 피부에 불필요한 요소 등을 수술한다. 의료검사를 위해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피부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피부 알레르기 및 종양, 감염성 피부질환, 아토피 및 건선, 피부외과, 피부노화 분야 등이 있다.

|업무 환경|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실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거나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필요시 보안경/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의료도구나 장비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중에 환자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피부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피부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피부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23명, 2019년 33명, 2020년에는 28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8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 수가 2016년에 1,968명에서 2020년에는 2,250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4.3%가량 증가하였다.

[피부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피부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50	39	23	33	28
피부과 의사 면허등록자	1,968	2,053	2,146	2,201	2,250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외모 충족욕구,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피부과 의사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부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13

가정의학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관리, 질병의 예방과 건강상태의 유지를 위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일

가정의학과 의사는 청진기, 맥박측정기, 체온계 등 의료기구 및 진단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검진한다. 환자의 병력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여러 가지 병리검사 및 X-ray 촬영 등을 지시한다. 보고서 및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처방하며, 음식조절·위생관리·운동·질병예방·금연·비만 조절·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하여 조언한다. 전염병과 만성질환과 관련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환자에게 관련 전문의를 소개·추천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분야는 건강증진과, 건강검진과, 노인 의학과, 스포츠 의학과, 갱년기 의학과 등이 있다.

|업무 환경|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실내 진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다. 하지만, 독감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게 되면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되어 근무환경에 긴장감이 증가하고 전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과정 3년을 거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연도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수를 보면 2018년 290명, 2019년 332명, 2020년에는

303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08명이 배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의사 수가 2016년에 5,897명에서 2020년에는 6,887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4.3%가량 증가하였다.

[가정의학과 의사 자격취득자 및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278	299	290	332	303
가정의학과 의사 면허등록자	5,897	6,172	6,413	6,693	6,887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20)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내면 심리치료, 외모 충족욕구,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5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대한의학회 (070)7708-7524 exam.kams.or.kr

14

일반 의사

일반 의사는 의료 부분의 일반적인 질환, 장애, 상해 및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한다.



하는 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수련(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전문의라 하는데 총 26과의 전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고 진료하는 의사를 일반 의사라고 한다.

일반 의사는 청진기, 맥박기록기 등 간단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찰한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다양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 및 치료순서를 결정한다. 환자의 진단을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설명하거나 약물을 처방한다.

|업무 환경| 종합병원 등의 대형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실내 진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다. 하지만, 독감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게 되면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되어 근무환경에 긴장감이 증가하고 전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되는 길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2003년 처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전국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5개교(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했고, 이 중 동국대는 2019년, 제주대는 2020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며 이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관련 학과** 의예(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대한의학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병원,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언론업체나 제약회사, 보험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한편, 남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3년간 근무해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일반 의사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의사(전문의+일반의)는 2019년 약 83천 명에서 2029년 약 10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일반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일반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2016년에 2만 7,077명, 2017년엔 2만 6,839명 그리고 2018년은 2만 5,9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의사 면허등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사 등록자 및 병의원 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의사 면허등록자	109,563	112,476	116,045	118,765	121,638	123,173
전문의 자격취득자	82,160	85,262	88,749	91,688	94,799	97,271
일반 의사 수	27,403	27,214	27,296	27,077	26,839	25,902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한편,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복되는 질병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육체적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내면 심리치료, 외모 충족욕구, 재활 등의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의사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보건의료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민보건, 복지혜택의 확대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진단과 질병의 예방 노력이 중요해지며 의사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도 국내는 물론 한류문화와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부터의 의료수요 및 의사수요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의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국내 병원과 의사가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병원 수련의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인력의 적정배치 및 의료수가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인 3.3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 의사에 대한 수요증가, 의료 분야에 활용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예: IBM의 Watson)의 발전은 일반 의사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원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 의료 관광객 증가	• 전문의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전문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일반 의사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전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2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1566-2844 www.kma.org
(사)대한병원협회 (02)705-9200 www.k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15

한의사

한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환자의 질병과 장애를 진찰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한의학 치료법을 이용하여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한의사는 환자의 얼굴색이나 피부 윤기, 혀 등을 눈으로 관찰하고, 환자의 말이나 호흡, 기침 등의 소리를 듣거나 질병발생 과정 및 증상을 묻고 맥을 짚어보거나 신체를 눌러본다. 또는 혈액검사기 등 현대화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진찰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진찰한 후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하는 일

한의사는 크기와 용도, 모양에 따라 쓰임이 다른 침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침을 놓고, 쑥 등의 약물을 피부의 특정 부위에서 태우거나 열자극을 주는 뜸(구)을 뜨며, 공기의 음압을 이용하여 나쁜 피나 고름을 제거하는 부항 등 다양한 한의학 치료법을 활용하여 치료한다.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해주고, 환자의 척추나 경혈부위 등을 손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민간요법 및 식이요법 등의 치료방법을 사용하며 냉온팩을 이용한 찜질 및 다양한 기계를 사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한다.

2000년부터 한의사도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의학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총 8개의 전문 분야 중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 업무 환경 | 한의원 내에서 주로 근무하며 오전부터 오후까지 개원하나 경우에 따라 외진이나 야간진료를 하기도 한다. 진료는 진료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침이나 뜸 등의 치료는 병상이 놓여 있는 치료실에서 이루어진다.



되는 길

한의학예과 2년, 한의학과 4년으로 구성된 한의학과를 졸업하여 한의학사를 취득하거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한의학 석사를 취득한 후 한의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 한방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의학과가 개설된 11개 대학교(경희, 동국, 동의, 대구, 원광, 대전, 가천, 동신, 우석, 상지, 세명)와는 별도로 2008년 처음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부산대학교에 신설되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인 OMEET(Oriental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응시해야 한다. 한자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공인한자능력검증시험 2급 이상인 자로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대학 평점, 학부에서의 선수과목 이수,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 **관련 학과** 한의예(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 **관련 자격** 한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의((사)대한한의학협회)

|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책임과 진취성, 꼼꼼함, 인내력,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한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대부분 한의원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업한다.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립의료원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한의학 관련 연구소나 제약회사연구소, 대학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한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한의사는 2019년 약 18천 명에서 2029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하면 한의사는 2020년 744명, 2019년 721명 그리고 2018년 797명이 합격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54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자 중 상당수가 한의사로 활동할 것이므로 향후 한의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사 면허등록자 및 한의원 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의사 면허등록자 수	21,355	22,074	23,245	23,460	24,120	24,885
한의원 수	12,816	13,135	13,605	13,860	14,155	14,329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인구의 고령화, 생명 및 건강 중시 의식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예방·건강증진·건강보호·재활 등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웰빙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아토피, 비만, 산후부종, 스트레스 감소 등을 위한 자연주의 치료방법이 각광받게 되었고, 이는 한의학 수요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비 경감을 위한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휴대 및 복용을 간소화하기 위한 한약제(정제캡슐) 개발 등 한의학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어 한방 의료의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한의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만 2,816개소에서 2018년 1만 4,329개소로 5년 사이에 약 11.8% 증가하였다.

또한, 한의학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등도 함께 추진되어 한의학의 시장 및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 밖에 한의진료 영역이 확대되면서 한의학을 소재로 한 한의의약품, 식품산업 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관리, 비만관리 등 예방 측면에서 한의학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한의사들이 미국 등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의 전통 한의약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학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한의학 연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 슬로바키아, 터키 등 유럽지역과 중동에서도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에 지출 증가	• 건강보조식품의 다양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한의학 접목 산업 확대 및 의료기술 수출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한의학 접목 산업 확대 및 의료기술 수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일반의사, 치과의사, 내과의사, 외과의사, 성형외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안과의사, 정신과의사, 소아과의사, 방사선과의사, 마취병리과의사, 비뇨기과의사, 피부과의사, 가정의학과과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사, 신경과전문의사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3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한의사협회 1666-7575 www.ekom.org
대한한방병원협회 (02)596-4245 www.komha.or.kr
대한한의원사회의협회 www.kmspecialist.org
한국한의학연구원 (042)861-1994 www.kiom.re.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16

치과 의사

치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치아나 턱, 잇몸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하는 일

치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치아나 턱, 잇몸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충치나 손상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치료를 한 후 금이나 아말감 등의 인공적 장치물로 대체시킨다.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나 사랑니 등을 뽑고 인공치아를 심기도 하며 구취의 원인이 되는 잇몸의 염증 등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스케일링을 하고, 기형이나 치아의 불균형 발달로 인한 치열을 교정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며 치아가 없는 사람을 위해 틀니나 보철을 장착해준다. 치아, 잇몸 등 구강 외에도 위턱, 아래턱 등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나 상해, 기능의 이상 등을 진단하여 치료한다. 손실된 치아나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디지털카메라 혹은 X-ray 검사를 통한 촬영 및 다양한 병리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거나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칫솔질이나 치실, 불소 사용법 등을 지도하여 치과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이다.

|업무 환경| 병원균이나 구강악취 등에 노출되므로 환자치료 시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환자의 좁은 구강 내를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구부려 진료하기 때문에 허리와 어깨 그리고 팔 부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되는 길

치의예과 2년, 치의학과 4년으로 구성된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치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치과 의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다.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 치과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쳐 각 전공 분야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치과 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舊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10개 과로 세분되어 있으며 2008년도부터 치과 의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국내에는 치의학을 배울 수 있는 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11개가 있는데, 기존의 6년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치과대학과 4년(학부)+4년(대학원) 총 8년 과정으로 이뤄진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인 DEET(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하고, 학부에서의 선수과목 취득, 일정 기준 이상의 대학 평점, 외국어 능력, 면접 등의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평가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다. 연세대학교만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대학(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조선대)은 치과대학을 폐지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단국대학교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의 3개 대학은 6년 과정의 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 **관련 학과** 치의예(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 **관련 자격** 치과의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의사전문의(대한치과 의사협회)

| 적성 및 흥미 | 정형화된 치아치료 및 구강치료 등 인간, 사물, 도구, 기계와 관련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과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유형,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 흥미유형이 적합하다. 아울러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 꼼꼼함, 인내력,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병·의원 또는 종합병원 내의 치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치과의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업무를 하거나 치의학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업무를 할 수 있고, 적은 수이지만 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치과 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치과 의사는 2019년 약 20천 명에서 2029년 약 2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5천 명(연평균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2013년 2만 7,409명에서 2018년 3만 918명으로 5년간 12.8% 증가하였다. 매년 11개 대학에서 치의학을 공부하고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치과 의사가 배출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하면 치과 의사 면허취득자 수는 2020년 780명, 2019년 790명, 2018년 74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72명의 치과 의사가 배출되었다. 치과 의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치과의원 수도 2013년 1만 5,779개소에서 2018년 1만 7,901개소로 약 13.4% 증가하였다.

[치과 의사 면허등록자 및 치과의원 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치과 의사 면허등록 수	27,409	28,134	28,953	29,643	30,344	30,918
치과의원 수	15,779	16,135	16,797	17,219	17,614	17,901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치의학 지식과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구강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질 높은 치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방 차원의 치료나 특히 심미적 차원에서 치열을 교정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로 보철 및 임플란트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시술을 확대하여 보급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도 치과 의사의 수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 임플란트 비용 30% 본인부담, 최대 2개까지 보험이 적용되어 그간 높은 임플란트 치료 가격으로 치료받지 못한 노인들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치과병원이나 치과 의사의 해외진출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국내의 과열된 경쟁구도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치과의학 수준의 선진화로 중국, 베트남,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진출에 따르는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과 의사의 생활방식 변화도 이들의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치과 의사 개인 여가 시간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치과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의 치과 의사일수록 환자진료 및 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보다 치과 의사의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치과 의사 간 진료 수요량을 분산시키고 과열경쟁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퇴직이나 사망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직이나 전직이 거의 없는 고학력, 고소득의 직업이라는 특성으로 면허취득자가 곧 치과 의사의 고용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신규면허 취득자가 매년 배출되는 만큼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치과 의사는 치과 병·의원에 고용되기도 하지만 직접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진단과 치료 능력 외에 병·의원을 잘 운영하고 경영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기술 수출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령자 임플란트)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고령자 임플란트)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치과 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한의사,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위생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1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4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00 www.kda.or.kr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17

수의사

수의사는 동물의 질병과 상해를 예방·진단·치료한다.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물론 소나 돼지 등의 가축, 호랑이나 사자 등의 동물원 동물, 그리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꿀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하는 일

수의사들은 아픈 동물을 대상으로 기존의 병력 여부를 체크하고, X-ray 및 초음파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여 그에 따른 처방 및 치료를 한다. 동물의 분만을 돕거나 외과수술을 시행한다.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 등에서 동물에 대한 연구나 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 개발에 참여한다. 농장 동물이나 실험동물을 관리하기도 한다. 동물원의 동물과 수족관의 수생동물 등 각종 동물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이들의 번식, 질병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며, 경마장에서 경마용 말의 약물테스트, 신체검사와 경마용 말의 진료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수의사는 사람의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체가 있는지 동물을 검사하고 축산농장의 위생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한다. 광견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광우병 등의 동물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고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역학조사를 하여 질병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한편, 축산물의 무역교류가 증가하면서 외국에 수출하는 국내의 축산물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을 검역하는 업무가 중시되고 있다. 수의직 공무원이나 수의 관련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수의사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육류, 우유, 계란 등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되는 길

|업무 환경| 예방접종 업무가 많은 봄, 여름에 더 바쁠 수 있으며, 응급진료를 위해 야간에 근무하기도 한다.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축진료와 농민의 지도를 수행하기도 한다.

동물병원에서는 개나 고양이에겐 물리거나 할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시골의 동물병원에서는 소와 말과 같은 큰 동물에 차이거나 받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든 동물들은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여서 자칫 동물의 돌발적 행동으로 다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한 광견병이나 브루셀라처럼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 질병도 있기 때문에 진료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의예과 2년, 수의학과 4년, 총 6년 체제인 수의학을 전공하여 수의사가 될 수 있다. 1~2학년 때 수의예과에서 기본적 교양과 수의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수의본과에서 4년간 본격적으로 수의학을 공부한 후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20년 현재 국내 대학 중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 9곳과 사립대학교인 건국대학교까지 총 10개 대학에 수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 **관련 학과** 수의예(학)과

■ **관련 자격** 수의사 국가면허(농림축산검역본부)

|적성 및 흥미| 동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의사에게는 관찰력이 필요하며, 응급 상황 시 냉정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능력, 자기조절능력이 요구된다. 세밀한 관찰력의 꼼꼼한 사람에게 유리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침착성과 인내심, 끈기가 필요하다. 동물의 보호자와 대면하기 때문에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뢰, 정직, 책임감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수의사의 진료는 타 유사직종 면허자와 달리 동물병원 이외에도 진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적성 및 흥미가 다를 수 있다.

|경력 개발| 동물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수의사를 임상수의사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병원에서 주로 일한다. 동물병원 이외에도 농장, 아쿠아리움, 동물원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정부부처, 지자체 소속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의 수의사도 있다. 이들은 항만이나 공항에서 검역업무를 담당하거나 시군구청에서 가축 간 혹은 가축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도축한 산업 동물 유통과정 및 계란 및 우유 등의 축산물이 식품으로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위생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대학의 유전 및 생명공학 연구소, 사료회사, 축산물유통업체, 유제품가공업체, 농축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제약회사, 마사회, 동물실험관리기관, 농장, 군대(수의장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동물병원은 규모에 따라 승진체계가 다르다. 규모가 큰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 분야에 따라 과를 두어 직급이 있기도 하다.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7급 수의직으로 임용을 하게 되며 회사에 취직하는 수의사의 경우에는 6년제를 졸업한 뒤 대리급이나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수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10개 대학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수의사가 배출된다.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의하면 수의사 면허취득자 수는 2020년 561명, 2019년 540명, 2018년 548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50명의 수의사가 배출되었다.

1인 가구,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서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반려동물 및 소유자를 등록하여 책임의식을 높이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치료, 분만, 건강관리,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의사의 수요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방역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물 질병이 국경을 넘어 전염되고 그 범위도 넓어지면서 인명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방역 작업을 위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향상되고 있다. 대형종합병원과 관련 기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의 실험동물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등 실험동물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실험동물 복지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각종 법규가 개정되어 수의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도가 수의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사 면허가 있으면 시험을 거쳐 동물검역, 가축방역, 공중보건 등의 수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한편, FTA 등으로 축산업이 위축되면 진료대상 가축 수가 감소하여 산업동물 진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 분야의 전문 수의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한 해에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약 600여 명의 수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수의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롭게 배출되는 수의사 중 도심지에서 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 동물들의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분야 수의사(수의 분야 석·박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수의사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다.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수의학의 영역이 새로운 동물진료기술의 개발 및 야생 및 수생 동물의 보전, 생명과학연구에 필수적인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 의약품 및 신물질 개발 등에 대한 생명공학기법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어 수의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 고령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문화의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화에 따른 검역업무 증가 	
환경과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보존 필요성 증가 • 조류독감, 코로나바이러스 등 동물 관련 질병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산업 육성정책 	

종합하면, 반려동물 문화의 확대, 글로벌화에 따른 검역업무 증가, 생태계 보존 필요성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의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동물조련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15
- **관련 정보처**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www.kvma.or.kr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www.qia.go.kr

18

약사

약사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약물 복용에 대해 지도하며, 약의 생산·조제·공급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약사법에 따라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하는 일

약사는 근무처나 하는 일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른데, 본인의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를 개국약사, 약국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약사를 관리약사,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병원약사, 식약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공직약사, 제약회사나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제약약사, 유통약사 등으로 부른다.

개국약사, 관리약사 그리고 병원약사는 주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지어 환자에게 제공한다. 환자가 제시한 처방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약물의 무게와 양을 측정하여 조제해준다. 환자에게 조제된 약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복용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투여 경로, 투여량, 투여 간격 등의 복용방법을 확인시켜준다. 이 외에 환자의 약력을 기록하고 보험청구 업무를 한다. 약품의 반출입을 관리하고, 변질이 될 수 있는 의약품은 냉동 및 기타 방법으로 저장·보관한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질병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약품의 효능을 재평가하거나 부작용에 대해 연구한다.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환자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약물투여 방법을 연구한다. 약품의 생산라인을 관리하거나 제품을 실험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식품첨가물, 화장품, 농약

등의 독성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마약이나 독약, 부정의약품 등의 성분을 분석하여 감식하는 업무, 의약품 및 식품 등의 점검 업무, 바이러스 역학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 업무 환경 | 약사가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는 약국은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 문을 열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 지역 내 당번약국으로 지정되면 공휴일 및 심야에도 근무해야 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도 입원 및 응급환자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근무한다.



되는 길

6년제(2+4년 체제) 학제로, 전공과 관계없이 학부 또는 학과에 입학하여 2년 이상 기초 교육과정을 마친 뒤 4년간 약학전공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년간 일반화학, 생물학, 물리학, 유기화학 등의 약학과 관련된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평점, 외국어 능력 등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춰야만 약학대학입문시험(PEET: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합격해야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약학을 배울 수 있는 35개의 약학대학이 있다. 약학대학 수료 후에도 약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관련 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약학부 등
- **관련 자격** 약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적성 및 흥미 | 환자 등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처방전 등 약학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적합한 직업이다. 혼자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들과 개인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성격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약사 면허 취득 후 개인약국을 개업할 수 있으며, 대형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 병원 및 제약회사로도 다수가 진출하여 약제 성분시험 및 신약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장품제조업체, 건강식품업체 등에서 생산품질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 약학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약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는 2019년 약 41천 명에서 2029년 약 4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천 명(연평균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하면 약사면허 취득자는 2020년에는 1,936명, 2019년에는 1,896명, 2018년에는 1,839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890명 정도의 약사가 배출되었다.

[약사 면허등록자 및 약국 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약사 면허자 수	63,292	63,150	65,510	66,992	68,616	69,347
약국 수	20,886	20,500	21,546	21,640	20,941	22,20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소득의 증가 및 신약품의 개발,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약사의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약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약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약품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는 약사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힐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우리나라 면허등록 약사 수는 6만 3,292명에서 2018년 6만 9,347명으로 5년간 약 9.6% 증가하였다.

의약분업 이후 병원이나 의원 인근을 중심으로 약국이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쉽게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영업수익이 높은 편이라 약국을 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이·전직이 일어나는 경우도 갖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에도 대체 수요에 의한 고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임상지원업무, 특수환자(암환자, 이식환자, 신장질환환자, 당뇨환자, 항응고약물요법환자, 호흡기환자, 파킨슨병 질환환자, 천식환자, 혈액 및 복막투석환자 등) 및 특수약품(warfarin, theophylline, 흡입제, 항암제 등)에 대한 복약지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경제적인 약물요법을 실시하고, 환자 중심의 선진적 약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약사의 활동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제약회사 및 식품회사의 연구 및 품질개발 분야, 약품의 임상시험관리 분야, 그리고 식약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의약품이나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정책입안 등의 분야에서도 약사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자동조제기계(Automatic Tablet Counter)와 같은 조제로봇에 의한 조제과정의 자동화 확대, 인공지능화된 웰페어기기 등을 활용한 자가 진단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적 효과 증대 등은 약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이 접목된 자가진단 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 자동조제기계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제약 시장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은 약사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지만 저출생, 자동조제기계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한의사, 전문의사, 일반의사, 간호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3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20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약사회 (02)581-1201 www.kpanet.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19

한약사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다.



하는 일

한약사는 환자에게 병력이나 체질 등을 물어보고 조제계획을 수립한다. 탕제기를 사용하여 한약제를 탕제로 가공한다. 한약제에 따라서 탕제, 환제, 산제, 고제, 기타 제형을 만든다. 환자 및 고객에게 복용횟수, 복용량, 복용금기 등 전탕과 투약, 복약을 지도한다. 부황기, 뜸기 등 한약재 조제 관련 기구를 판매한다.

|업무 환경|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규칙적인 편이지만 근무시간은 긴 편이다. 근무환경은 쾌적하며 안전하다.



되는 길

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약학과를 졸업하여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면 합격한다.

2020년 기준으로 한약학과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4년제 과정이다.

- 관련 학과 한약학과
- 관련 자격 한약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적성 및 흥미] 환자 등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과 처방전 등 약학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적합한 직업이다. 혼자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들과 개인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성격이 필요하다.

[경력 개발] 한약사 면허 취득 후 개인 한약국을 개업할 수 있으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고용되어 탕전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한방병원 및 제약회사로도 진출하여 약제 성분시험 및 신약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장품제조업체, 건강식품업체 등에서 생산품질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 한약학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한약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는 2019년 약 41천 명에서 2029년 약 4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천 명(연평균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하면 한약사 면허취득자는 2018년에는 149명, 2019년에는 99명, 2020년에는 132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27명 정도의 한약사가 배출되었다.

[한약사 면허 신규 취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약사 면허 신규 취득자 수	121	124	96	149	99	132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전체 한약사 수는 2013년에 1,920명에서 2018년에 2,549명으로 최근 5년간 32.7%가 증가하였다.

[한약사 면허등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약사 수	1,920	2,073	2,193	2,307	2,404	2,549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들의 증가, 한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확대, 건강 및 비만관리 등의 한방진료 영역의 확대 등으로 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등도 함께 추진되어 한약 시장 및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비면허자에 의한 한약조제를 면허자로의 대체 수요, 한약을 소재로 한 한방의약품, 식품산업 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한약사의 활동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제약회사 및 식품회사의 연구 및 품질개발 분야, 약품의 임상시험관리 분야, 그리고 식약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의약품이나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정책입안 등의 분야에서도 한약사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인공지능화된 웰페어기기 등을 활용한 자가 진단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적 효과 증대 등은 한약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이 접목된 자가진단 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제약 시장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은 한약사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지만 저출생, 인공지능 접목된 의료기기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한약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한의사, 일반의사, 약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3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20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한약사회 (02)872-9548 www.hanyaks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0

간호사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며, 의사 부재 시 비상조치를 취한다. 또한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돕는다.



하는 일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간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여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한다. 전문간호사(APN : Advanced Practice Nurse)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이다. 전문간호사는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 의료 인력 등을 교육하며,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한다.

간호사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고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전국의 국군병원에서 간호전문인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간호장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비 청구 및 심사관리,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심사를 수행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작업환경 및 위생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수립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되는 길

|업무 환경| 보건소나 기업, 사업장의 의무실에서 일할 경우 주로 주간에 일하지만, 병원에서는 24시간 환자에 대한 간호가 이루어지므로 3교대로 근무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할 때가 많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간호사가 되려면 정규대학 간호학과(4년제)나 간호전문대학(3년제)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국공립병원, 사립병원, 결핵요양소, 정신병원 등의 전문병원에서 임상간호를 하거나 보건소 등에서 보건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기업체·학교·사업장 등의 의무실에서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간호사로 근무하게 된다.

최근 10년 이내에 특정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대학원 수준)에서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도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진 전문간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여도 간호사 학사학위특별과정(RN-BSN)으로 편입하거나 학점 인정제를 이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간 조산 실습과정을 거친 후 조산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조산사가 될 수 있다.

■ **관련 학과** 간호학과, 간호과 등

■ **관련 자격** 간호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간호사(대한간호협회)

|적성 및 흥미| 환자 치료나 사물, 도구, 기계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유형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과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내하는 성격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소유자가 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다.

|경력 개발| 대다수의 간호사는 각급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환자의 치료와 진료를 돕고 있으나 그 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간호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면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면 간호장교로 국군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사업장의 건강관리실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외에 산후조리원,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나 의료기기업체, 의료 정보회사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 간호사의 해외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국어 실력을 갖추거나 해당 국가의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다면 해외 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간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간호사는 2019년 약 259천 명에서 2029년 약 33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9천 명(연평균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20년 2만 1,582명, 2019년 2만 622명, 2018년 1만 9,927명이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만 710명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간호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은퇴하거나 이·전직할 수 있지만 해마다 공급되는 간호사 인력이 병의원 등에 취업하고 있으므로 향후 간호사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에 따라 간호·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면서 간호사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으로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이다. 또한,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건강관리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간호사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사에 대한 고용전망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의 노인 관련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간호사의 취업 전망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생활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머물렀던 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환자를 돌볼 간호사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는 방문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9년부터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인력비율을 기반으로 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입원 병상당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늘리려고 노력 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 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등급을 더욱 세분하여 병원들의 간호등급 상향동기를 유인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간호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 나은 근무조건을 선호하여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및 병·의원 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허등록 간호사	307,797	323,041	338,629	355,772	374,990	394,627
면허등록 전문간호사	13,397	13,794	14,176	14,549	14,854	15,239
병·의원 수	60,899	63,675	63,419	64,999	66,631	67,84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우리나라 면허등록 간호사 수는 39만 4,627(2018년 기준)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실제 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으며,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가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8명보다 2명이 적었다. 따라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커지면 간호사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의 입지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공급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간호사 수요가 증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확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접목 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간호사의 활동 분야 확대 (치매, 간병, 교육기관 등)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근로시간 단축	

종합하면,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투자, 간호사의 활동 분야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간호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간호조무사, 일반의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4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30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www.koreanurse.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1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건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하는 일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 또는 용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한다. 돌발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보건 및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학교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학생의 건강관찰을 담당하며, 건강에 관한 상담을 한다. 성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응급처치 및 구강관리교육, 비만관리교육 등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실의 시설, 설비,약품 등을 관리한다. 필요시 응급처치, 의약품투여 등 기타 의료행위를 한다.

|업무 환경|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보건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근무일과 시간이 규칙적이다. 여름과 겨울 방학 시기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학교에 출근해서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COVID 19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게 되면 학교 내 방역과 응급처치가 늘어나 근무환경에 긴장감이 증가하고 전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되는 길

보건교사가 되려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그 후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사 자격증은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국공립학교의 보건교사가 되려면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관련 학과** 간호학과, 간호과 등
- **관련 자격** 보건교사 자격증(1급/2급), 간호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적성 및 흥미] 환자 치료나 사물, 도구, 기계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유형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해 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과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내하는 성격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소유자가 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다.

[경력 개발] 대다수의 보건교사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하다가 평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한편, 보건교사는 비교과 교사(사서, 상담, 영양 등) 중 유일하게 교감·교장 승진이나 장학사나 장학관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드물지만 실제 사례들도 있다.



일자리 전망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수는 2015년 1,526개소에서 2019년 1만 1,657개소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보건교사 수도 2015년 7,321명에서 2019년 8,035명으로 최근 4개년 동안 약 700여 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증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영향으로 학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및 보건교사 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교 수	전체	11,526	11,383	11,613	11,636	11,657
	초등학교	5,978	6,001	6,040	6,064	6,087
	중학교	3,204	3,029	3,213	3,214	3,214
	고등학교	2,344	2,353	2,360	2,358	2,356
보건교사 수	전체	7,321	7,403	7,461	7,796	8,035
	초등학교	4,133	4,126	4,176	4,343	4,470
	중학교	1,625	1,663	1,682	1,770	1,859
	고등학교	1,563	1,614	1,603	1,683	1,706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학령인구 추계]

(단위 : 천 명)

학령인구	2021	2023	2025	2027	2029	2030
초등학교 (6-11세)	2,710	2,600	2,334	2,055	1,831	1,797
중학교 (12-14세)	1,373	1,358	1,398	1,325	1,240	1,143
고등학교 (15-17세)	1,337	1,354	1,357	1,375	1,350	1,321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2020)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현재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고 해도 학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보건교사의 일자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건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학교(전체 중 30%)에서 법정교원수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새롭게 개교하는 학교도 꾸준히 증가하여 보건교사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신도시 개발	
법·제도 및 정부정책	•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원수 충족	

종합하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법정교원수 충족,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보건교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간호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4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30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www.koreanurse.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2

영양사

영양사는 균형 잡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급식을 관리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위생을 위해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판정, 영양 교육 및 상담, 영양 지원 등 급식관리 업무와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영양사는 개인이나 단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급식 관리와 식품·영양 서비스를 수행한다. 영양사 배치 의무시설인 집단급식소(산업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교정시설 등)에 가장 많이 배치된다.

급식관리 업무로는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주별 및 월별식단을 작성하고, 급식 인원수에 따라 구매량을 결정하며, 검수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위생, 급식시설·설비·기기의 위생 점검과 위생교육 등 위생관리 업무, 급식시설·설비의 안전관리,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종사자(조리사·조리원) 배치, 조리작업 지도 및 관리, 배식관리 등의 작업 관리를 총괄한다. 급식의 외관, 관능, 위생 등의 평가와 더불어 급식인력 업무 점검, 교육 훈련, 업무수행 평가 등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원활한 급식운영을 이끈다.

산업체에서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교육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학교에서는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식생활 지도와 영양 상담,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영양 및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등의 활동을 한다.

환자 개개인의 식생활 및 영양관리가 중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영양초기평가,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 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 판정, 영양 진단,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 관리, 의무기록, 식사 회진 등 임상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돕는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활능력 증진을 중시하여 식습관 및 식생활을 지도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 식습관이나 식생활 지도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영양 지도의 기획·분석·평가 및 영양상담,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지역주민의 영양지도 및 상담, 집단급식시설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영양 조사 및 효과 측정, 지역주민의 영양평가 실시, 영양 교육자료 개발, 홍보 및 영양교육,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 활용, 기타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식품 관련 연구소 등에서 제품 개발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건강식품 개발연구나 식생활 및 영양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건강증진센터, 헬스센터 등에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환경|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여러 명의 영양사가 근무하지만,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경우 1명의 영양사가 급식의 총괄 관리자로 일하며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 조리작업 시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방지 등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급식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영양사의 업무 특성상 3식을 하는 산업체에서 일할 경우 근무시간이 길다.



되는 길

전문대학(2~3년제) 및 대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식품영양 관련 과목을 이수(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한 뒤 영양사 현장 실습을 마친 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임상영양 대학원 등에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이 주어진다. 4년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전공)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에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전공하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병원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며, 영양교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관련 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과학과, 한방건강식품학과

■ **관련 자격** 영양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임상영양사(보건복지부), 영양교사 1급/2급(교육부)

|적성 및 흥미| 학교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식단부터 조리과정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과 재료 등 물질 자원 관리부터 품질관리, 그리고 조리실에 근무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하므로 리더십이 요구된다.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품의 제조공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리사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조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영양사는 산업체,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건강증진센터 및 헬스센터, 식품 제조·가공 업소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교육,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보건소에의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영양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영양사는 2019년 약 38천 명에서 2029년 약 4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8천 명(연평균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양사 면허등록자는 2018년 기준으로 15만 3,901명으로 2013년의 13만 2,663명과 비교하여 5년간 16.0%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4,334명의 영양사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영양사 면허등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 영양사	132,663	137,407	141,836	145,638	149,944	153,901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영양관리법’(2020년 9월 12일 시행)에서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영양정책 수립 및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취약계층을 비롯한 대국민 영양관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므로 영양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를 의무배치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체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 채용은 확대될 것이다. 2012년부터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설치(2020년 228개소)되어 있어 영양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식사제공 및 영양상담자로 활동할 영양사도 증가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초기 의료진료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며 영양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식단조절에 의한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영양사를 채용하는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나 기업체 등의 급식담당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회사, 헬스센터, 건강관리센터 등에서도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관리 및 연구·개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며 학교급식 영양사는 소수 감소할 수 있으나 병원 및 보건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여 영양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 중시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헬스케어 등 활동 분야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사 의무배치(식품위생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헬스케어 등 활동 분야 확대,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 정책 등은 영양사의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아동 수 감소에 따라 향후 10년간 영양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단체급식조리사, 간호사,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의료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5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40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www.dietitian.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3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지원부서에서 일하며 다양한 의학적 분석법을 통해 인체로부터 유래된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의 검체를 살펴 질병의 원인 규명과 질병 예방을 도모하고, 치료 경과를 알아본다.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에서 의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및 임상 연구와 개발을 담당한다.



하는 일

의사는 환자 진료 시 먼저 문진과 진찰 등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살피는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상병리사에게 질병과 관련된 의화학적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게 한다. 임상병리사는 인체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가검물을 검사하고 분석하여 건강 및 질병의 상태를 밝히기 위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 등이다.

검사방법은 주로 검사물(검체)에 반응하는 시약을 사용해 반응 정도를 측정하거나 이상 세포 및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현미경으로 세포의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과거에는 모든 진단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첨단 검사장비 및 분석 장비 덕분에 업무가 자동화, 첨단화되어 검사가 한층 신속해졌다.

임상병리사는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유전자 증폭기술을 통해 진단을 내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지도를 활용해 유전질환 및 질병의 발현 정도를 예측하는 등 질병 예방 및 관리에도 관여하고 있다. 담당 업무 범위가 각 세포 단위를 넘어 핵산과 유전체 수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관련된 검사를 전담하고 있다.

임상병리사는 분야에 따라 진단혈액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수혈의학검사, 일반화학검사 및 특수화학검사, 분자면역혈청검사, 분자유전검사, 중앙표지자검사, 약물검사, 알레르기검사, 무기질검사, 세포유전검사, 현장검사, 감염관리업무 등을 하며, 심전도검사, 뇌파 및 수면뇌파검사, 심폐기능검사, 기초대사검사, 근전도검사 등의 기타 생리학적 검사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조직검사와 세포병리검사,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검사 등을 실시하며, 이에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시약 및 장비도 관리한다. 진출 분야에 따라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질병의 진단과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실험실에서 약물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기도 하고, 약물의 치료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동물실험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검사법이나 분석법 등을 평가하여 개선하거나 새로운 검사법을 연구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대체로 보건의료기관 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의 부서에서 검사물(검체)을 분석한다. 임상병리사가 다루는 검사물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혐오적일 수 있다. 또한 검사실에서 세균이나 화학약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독가운 및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검사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기가 잘 되는 쾌적한 공간이 갖춰지고 있다. 순환기내과 검사실, 호흡기내과 검사실, 신경과 검사실 등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부서는 검사의 특수성 및 환자의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이 요구된다.

응급환자를 위해 2교대 및 3교대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으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검사물을 직접 채취하기도 하며 생리학적 검사 분야는 환자를 직접 접하여 관련 검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되는 길

임상병리학과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29개가 있고 전문대학(2~3년제)은 39개 있다. 임상병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소정의 교육과정 및 시험을 거쳐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해당 분야(혈액, 수혈, 미생물, 임상화학, 면역·혈청, 조직세포, 핵의학, 공중보건, 생리학, 임상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임상병리(학)과
- **관련 자격** 임상병리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적성 및 흥미|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 탐구정신, 창의정신, 논리적 사고, 분석력이 요구된다. 연구와 분석, 실험을 위해 오랜 시간 집중해야 하므로 끈기와 인내, 소통능력이 요구된다. 의생명과학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창의력, 윤리성, 언어표현능력 등이 요구되며, 통계분석 능력(SAS, SPSS 프로그램 운용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업무의 특성상 결과물의 빠른 평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해야 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력 개발| 보건의료기관뿐 아니라 보건 관련 국공립기관, 제약회사(품질관리과, 합성과, 개발실), 생명(공)과학 관련 연구소, 의료(기기) 관련 업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연구소,

임상검사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립 검역소, 국립보건원, 과학수사연구원, 출입국관리소, 전문 임상검사센터 등으로 취업하기도 한다. 국제 자격을 취득하여 국제임상병리사로서 해외에 취업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 및 민간의료봉사단, 도핑검사관 등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다.

각 보건의료기관 및 분야에 따라 승진제도가 다양하나, 대체로 ‘사원→주임→대리(파트장, UNIT MANAGER, 책임 또는 수석)→팀장(부장)’의 단계를 밟게 되며, 기관별 평가방식에 따라 승진한다. 임상병리사는 한 가지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영역간 순환을 통해 다양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경력을 쌓는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임상병리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임상병리사는 2019년 약 31천 명에서 2029년 약 3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병리학자가 개설된 대학은 3년제와 4년제를 합하면 약 70여 개가 되는데 매년 임상병리 면허취득자가 약 2,2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216명이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병리사 면허등록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 임상병리사	48,055	49,980	52,081	54,230	56,238	58,665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한 해에 배출되는 임상병리사 면허취득자가 많지만, 현재 취업처가 많지 않아 일자리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임상병리사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수행업무가 전문적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근무를 희망하지만, 해당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단순한 검사는 수탁검사기관 등 전문검사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병원 내 채용보다는 검사기관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 및 검사기기 확대, 검사 기법이나 속도의 향상 등은 임상병리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 고조, 의료서비스체계 정비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에 대한 정부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임상병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백혈병이나 소아암 등의 치료를 위한 제대혈 실험 등 전문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검사가 진행되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검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검사기기의 자동화 진전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산업 투자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종합하면, 건강검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임상병리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방사선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료장비기사, 의지보조기기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02)3291-5435 www.kamt.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4

방사선사

방사선사는 전문적인 방사선 지식과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방사선 치료 업무를 한다.



하는 일

방사선사는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여 방사선 촬영검사를 하며, 관련 결과를 정리해 의사에게 제공한다.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혈관조영검사나 중재적 시술 등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기구 등을 준비하고 환자의 위치를 조절하는 등 전문의사와 더불어 방사선 검사 및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방사선 장비와 선량을 관리하고, 방사선 피폭 시 방어대책 등을 수립하며, 각종 관련 서류와 기록물을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사선 검사에는 X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결과를 영상화시키는 X-ray 검사, 초음파를 인체 내에 보내어 반사음파를 영상화시키는 초음파검사, 인체 내부를 일정한 두께의 단면으로 잘라 영상화시키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 Computerized Tomography), 인체의 주요 성분인 수소원자핵을 자기공명시켜 조직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영상화시키는 자기공명영상검사(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도관을 몸속에 삽입하여 그 관에 조영제를 넣고 검사하는 혈관검사 및 막힌 인체 부위를 통하게 하거나 치료를 위해 혈관 등을 막아주는 중재적 시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 장기나 골절 등의 해부학적·생리학적 기능을 진단하는 핵의학검사 등이 있다. 방사선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진단방사선사, 치료방사선사, 핵의학방사선사로 구분할 수 있다.

진단방사선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골격이나 가슴, 복부 및 신체 내부에

X-ray검사, 투시검사, CT검사, MRI검사, 초음파검사, 유방검사, 심장 및 혈관조영검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촬영·검사한 영상을 검증하고 컴퓨터에 저장 또는 전송하여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을 관리한다.

치료방사선사는 악성종양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라 방사선량 계산 및 측정과 치료 부위 외의 차폐부위에 대한 차폐물 제작과 세트업(Set Up) 등을 하고, 의사와 함께 모의치료를 수행한 후 치료계획에 따라 실제 방사선 치료를 수행한다.

핵의학방사선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의약품을 측정하여 환자에게 투여하고 신체 내의 조직과 장기 등에 분포하는 방사선 정도를 촬영하여 핵의학 영상을 만들거나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환경| 방사선사는 의료 분야 직종 중에서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직종이다. 업무 시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폭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되는 길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 대한방사선협회 부설 전문방사선사 시험원에서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성을 더 인정받고 병원 등에 취업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전문방사선사 자격은 방사선의료장비의 정확한 성능관리, 생산된 영상의 화질관리, 환자에 대한 의료피폭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관련 학과** 방사선(학)과

■ **관련 자격** 방사선사 면허(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기사/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방사선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 시험원)

|적성 및 흥미| 방사선 기계를 조작하는 일이 주 업무로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요구되며 주로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의학용어, 전문 의료용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촬영을 하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성이 필요하며,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많아 외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영상의학과의원, 종합 및 대학병원, 치과병·의원, 종합검진센터, 개인의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보건직 및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국내외 방사선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분야, 산업체 의무실, 연구소 및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비파괴검사 관련 산업체나 방사선 관련 의료기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업체 등의 분야에도 취업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방사선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2019년 약 28천 명에서 2029년 약 3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선사 면허등록자는 2018년 기준으로 4만 4,654명으로 2013년의 3만 5,032명과 비교하여 5년간 27.4%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953명의 방사선사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면허등록 방사선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허등록 방사선사	35,032	36,339	38,592	40,748	42,736	44,65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 관련 전문 인력인 방사선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2019년부터 두부 및 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분야 확대도 방사선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의료기기의 첨단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인이 가진 특성이 다르므로 방사선 검사는 개별적인 검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검사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방사선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 검진에 있어 초음파검사 및 유방암검사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부인과나 유방 진단 등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방사선사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 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사용이 확산되면서 영상편집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입직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대학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의료 관련 학과를 증설함에 따라 방사선학과에서 배출하는 공급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각 방사선(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국내의 수요 확대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검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산업 투자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방사선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임상병리사, 의료장비기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지보조기기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2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방사선사협회 (02)576-6524 www.krt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5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는 구강에서 얻은 모형을 바탕으로 치과보철물 및 장치물을 과학적인 방법과 관련된 기술로 제작하여 구강 기능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하는 일

치과기공사는 상실된 치아 또는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과에서 보내온 개개의 인상체¹⁾나 경석고 모형을 이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될 보철물들을 제작한다. 취급하는 보철물은 관교의치(Crown & Bridge), 국소의치(Partial Denture), 총의치(Complete Denture), 매식의치(Implant), 도재의치(Porcelain), 교정장치(Orthodontic Appliance) 등이다. 이러한 보철물이나 장치물을 모형 상에서 제작하며, 제작에 필요한 금속, 도재, 수지 등의 치과재료를 사용하여 조각 또는 주조하거나 교정선을 구부리는 등의 작업을 통해 보철물이나 장치물을 제작한다.

치과보철물을 제작, 수리, 가공할 때 환자의 저작²⁾, 발음, 심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구강 내의 물리적,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숙련된 예술성을 겸비한 기술을 발휘하여 보철물에서 산화나 부식, 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 환경 |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지만 치과기공 직무는 모형제작, 주조과정, 연마 등 제조공정이 많아 업무 시 분진과 소음이 동반된다. 타 의료기사 직종과 비교하면 보건환경이 미흡한

1) 치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뜬 결과물

2)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

편이지만 일반 공장의 분진이나 소음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며, 최근에는 치과기공 장비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화된 첨단 장비의 보급으로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근무환경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일반 치과병·의원의 치과기공실은 근무환경이 좋지만, 영세한 치과기공소는 근무환경 및 처우가 열악할 수 있다.



되는 길

대학교(3~4년제)에서 치기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치과기공사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관련 학과 치기공학과
- 관련 자격 치과기공사 면허(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 적성 및 흥미 | 치과보철물 제작은 개개 환자의 저작, 발음, 심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구강 내의 물리적,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는 일이다. 평소 손기술이 있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미술이나 디자인의 예술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 경력 개발 |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일반 치과병·의원의 치과기공실, 치과기공소 등에서 근무한다. 해외 치과기공소, 치과재료업체 그리고 치과장비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치과기공실이나 대형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자재 업체의 회사에 근무할 경우 호봉 승급에 따라 승진하지만, 대부분의 치과기공소는 치기공사 1~2인이 근무하는 소규모로 별도의 승진체계가 없다. 기사는 업무에 따라 보조기사, 일반기사 또는 주임기사로 구분되며 직무 능력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고, 일정한 경력개발이 이루어지면 독립하여 치과기공소를 개업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치과기공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2019년 약 18천 명에서 2028년 약 2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는 2018년 기준으로 3만 4,953명으로 2013년의 3만 515명과 비교하여 5년간 14.5% 증가하였다. 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35명의 치과기공사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면허등록 치과기공사 및 치과의원 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허등록 치과기공사	30,515	31,555	32,526	33,418	34,199	34,953
치과의원 수	15,579	15,933	16,584	16,996	17,383	17,66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며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치아 치료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검진이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리와 외모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치아 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평생 2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10~20%로 하향 변경되는 등 고령자의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치과기공사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치과의원 수도 증가하였는데 2013년 1만 5,579개소에서 2018년 1만 7,664개소로 치과기공사의 수요와 관련된 치과의원이 13.4%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술개발로 인한 정밀기기 도입, 치과기공장비의 디지털화로 제작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고용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가 치과기공에 이용되면서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치과보철물 및 장치물을 만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치과기공사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3D 프린터로 구강 내 보조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를 잘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경험과 3D 프린터를 다룰 줄 아는 치과기공사는 오히려 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의료기사와 달리 치과기공사는 개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배출되는 치과기공사의 규모를 고려하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 종합 및 대학병원의 치과기공실 등과 같이 근로조건이 좋은 곳의 취업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치과기공사가 근무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능력 있는 치과기공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때문에 이·전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현재 치과기공 분야는 고가의 디지털 장비 보급, 과잉 인력 배출, 낮은 치과기공 수가 등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치과기공소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보험화,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확대 및 치과기공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정책이 시행되면 치과기공사의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기공사 중 IT 기술을 겸비한 인력에 대한 시장 수요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아 건강 수요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치아 미백, 교정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치과용 3D 프린터의 도입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령자 임플란트)	

종합하면, 고령인구의 증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은 치과기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치과용 3D 프린터의 도입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치과기공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기사, 의지보조기기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3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가족부 129 www.mohw.go.kr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 (02)2253-2800 www.kdtech.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6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치과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구강 상태를 관찰하거나 방사선 촬영 지시에 따라 구강을 촬영하는 등 치과 의사의 진료 또는 수술을 도와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조하거나 간단한 치과 처치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하는 일

치과위생사는 손상된 치아 치료 및 구강질환 예방 등 치과진료를 돕고 구강 보건교육 및 예방적 치과 처치업무를 수행한다.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치과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구강 상태를 관찰하거나 방사선 촬영 지시에 따라 구강을 촬영하는 등 치과 의사의 진료 또는 수술을 도와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조하거나 간단한 치과 처치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며,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치과 치료를 돕는 일 외에도 치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처치하는 일도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업무이다. 치과위생사는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 도포를 하거나 치아의 홈을 메우고 스케일링을 한다. 환자에게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하도록 교육하여 잇몸병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병원이나 학교, 기관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구강 보건에 대한 교육과 집단 구강검사를 실시하며, 구강질환이나 구강 상태에 따른 칫솔 선택방법이나 칫솔질 방법, 식이조절 등에 대해 알린다.

치과 진료기구나 장비를 소독하는 등 위생을 담당하며, 의료보험을 청구하거나 치과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하기도 한다. 치과병원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행정관리와 병원의 환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치과코디네이터가 따로 근무하기도 하지만 치과위생사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도 많다.

|업무 환경| 스케일링 및 환자 진료 보조 시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감염예방에 신경써야 하며, 구강에서 튀어나오는 이물질이나 의료기구에서 방출되는 광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및 보안경, 방사선 보호장구 등의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소 근무 시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학교 및 단체로 출장을 나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되는 길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치위생학을 전공한 후 치과위생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치위생학과는 전문대학의 경우 3년제, 대학교의 경우 4년제로 이루어져 있다.

- **관련 학과** 치위생(학)과, 보건행정학과
- **관련 자격** 치과위생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적성 및 흥미|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고 업무를 철저히 완수하는 꼼꼼함과 스트레스 감내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 유형과 사물, 도구, 기계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한 직업이다.

|경력 개발| 대부분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으로 진출하며, 보건소, 구강위생 관련 용품 제조 및 판매회사, 구강 약품 제약회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치위생 분야의 경험을 쌓은 후 병원관리 및 경영을 담당하는 치과코디네이터 혹은 덴탈매니저로 활동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치과위생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2019년 약 51천 명에서 2029년 약 6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0천 명(연평균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통계연보(2019)」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면허등록 치과위생사는 7만 9,230명으로 2013년 5만 6,072명에 비해 41.3% 증가하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2018년 4,710명, 2016년 4,603명, 2015년 4,539명이 합격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4,617명의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는 우리나라 치과 병·의원은 2013년 1만 5,799개소에서 2018년 1만 7,664개소로 13.4% 증가하였다. 이처럼 치과 병·의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치과위생사의 수요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과위생사 면허등록자 및 치과 병·의원 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허등록 치과위생사	56,072	61,139	65,787	70,070	74,589	79,230
치과 병·의원 수	15,799	16,135	16,797	16,996	17,383	17,66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생활 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만 65세 이상 누구나 평생 2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10~20%로 하향 변경)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치과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한 치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치과 병·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고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치과 의사들이 해왔던 치아클리닝과 같은 예방 차원의 치과 서비스를 치과위생사들이 수행하게 되면서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이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의 진료로 전환되면서 예방치치 및 구강보건 교육을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치위생(학)과의 신·증설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배출 인력이 크게 증가하여 공급이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전국 82개 대학(교)에서 매년 약 5,000여 명의 학사 및 보건학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취업할 수 있는 치과 병·의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협회 및 관련 단체에서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교육실 등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원직 확대,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으로의 해외취업 방안 등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아 건강 수요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치아 미백, 교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령자 임플란트)	

종합하면,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치과위생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의료코디네이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기사, 의지보조기기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4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02)2236-0914 www.kdh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kr

27

물리 및 작업치료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및 치료 계획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신체기능에 맞는 직접적이고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



하는 일

물리치료사는 운동요법이나 기타 기구, 장비 등을 이용한 훈련으로 각종 재해 및 사고, 급성 또는 만성적 질환에 의한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재활을 보조한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만성통증 및 신체기능장애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시킨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 소아마비, 뇌성마비 등의 교정치료, 산전 및 산후 여성의 운동치료, 운동선수의 상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등 다양한 물리치료를 담당한다. 이들은 관절운동검사, 근력검사, 보행분석, 반사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하며, 환자에게 적합한 근력강화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보행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의 운동치료나 전기광선치료, 수증치료, 통증관리, 열치료 등의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치료사는 선천적인 장애 및 후천적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는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활동, 학업활동, 놀이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치료한다. 인지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정신이상 및 신체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일상생활 활동을 지도하는 일상생활 치료, 손 기능 훈련 등의 신체기능 증진훈련, 지각기술훈련, 정신·사회적 지각훈련,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여가활동지도 등 각종 적응 훈련을 실시한다. 상지보조기 및 보조도구 제작과 착용과 관련한 훈련을 지도하고, 장애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평가, 구조조정 및 변경에 대한 자문활동도 한다. 환자는 이러한 훈련

및 상담을 통해 사회적 역할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부적응 상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업무 환경|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므로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치료 시 주의가 요구된다.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되는 길

대학교(3~4년제)에 개설되어 있는 물리치료(학)과 및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물리치료(학)과는 4년제 대학에 45개, 3년제 대학에 39개가 있고 작업치료학과는 4년제 대학교에 32개, 3년제 대학교에 31개가 개설되어 있다.

- **관련 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재활공학과 등
- **관련 자격** 물리치료사 국가면허, 작업치료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적성 및 흥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업무로 환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환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어야 하며, 자기통제능력, 배려심,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적응성과 융통성 그리고 신뢰성, 책임감과 진취성이 강한 성격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 유형과 사물, 도구, 기계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 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한 직업이다.

|경력 개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체로 병원 및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에 진출한다. 물리치료사는 80%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70% 이상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에 공무원, 특수학교, 스포츠센터, 발달아동센터, 연구소 등에서 활동한다. 스포츠 선수단의 팀 닥터나 특수학교의 치료교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어 입직의 범위가 넓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며 보건 의료기술직 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기관 내에 소수가 근무하므로 승진 기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관리·감독하에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업은 불가능하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물리 및 작업치료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물리 및 작업치료사는 2019년 약 53천 명에서 2029년 약 6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4천 명(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면허등록자는 2019년 기준으로 8만 3,649명(물리치료사 6만 6,999명, 작업치료사 1만 6,650명)으로 2013년의 5만 6,238명과 비교하여 5년간 48.7% 증가하였다. 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4,050명의 물리치료사와 약 1,790명의 작업치료사가 면허를 취득하였다.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면허취득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물리치료사	47,710	51,435	55,000	58,799	62,586	66,999
작업치료사	8,528	10,048	11,378	13,135	14,727	16,650
합계	56,238	61,483	66,378	71,934	77,313	83,649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물리 및 작업치료사는 발달장애 아동 및 노인의 재활 분야에서 많이 활동한다. 최근에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서 장애 아동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활 수요 증가, 2017년 이후 병원이 부족하여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장 재활의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 증가 등도 물리 및 작업치료사의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 및 만성퇴행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도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물리 및 작업치료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업치료의 경우 병원에서만 국한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대상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재활이 활발해지고 있어 보육원, 공장 등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에서는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여 취업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및 치료기기의 개발 및 확산은 물리 및 작업치료사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주요 서비스 대상자였으나 최근에는 아동이나 일반인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해 허리나 목디스크 증상으로 물리치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며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비만이나 체형교정 등 다양한 형태로의 개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리치료의 개업 논의가 일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이 허가된다면 물리치료사의 입지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 물리 및 작업 치료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졸업자들의 자격시험 응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잠재인력이 취업처가 확장되며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물리 및 작업치료사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환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개인이 얻는 정보 수준이 늘면서 치료,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접목 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시장 확대에 의한 의료서비스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보험시장 확대에 의한 의료서비스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물리 및 작업치료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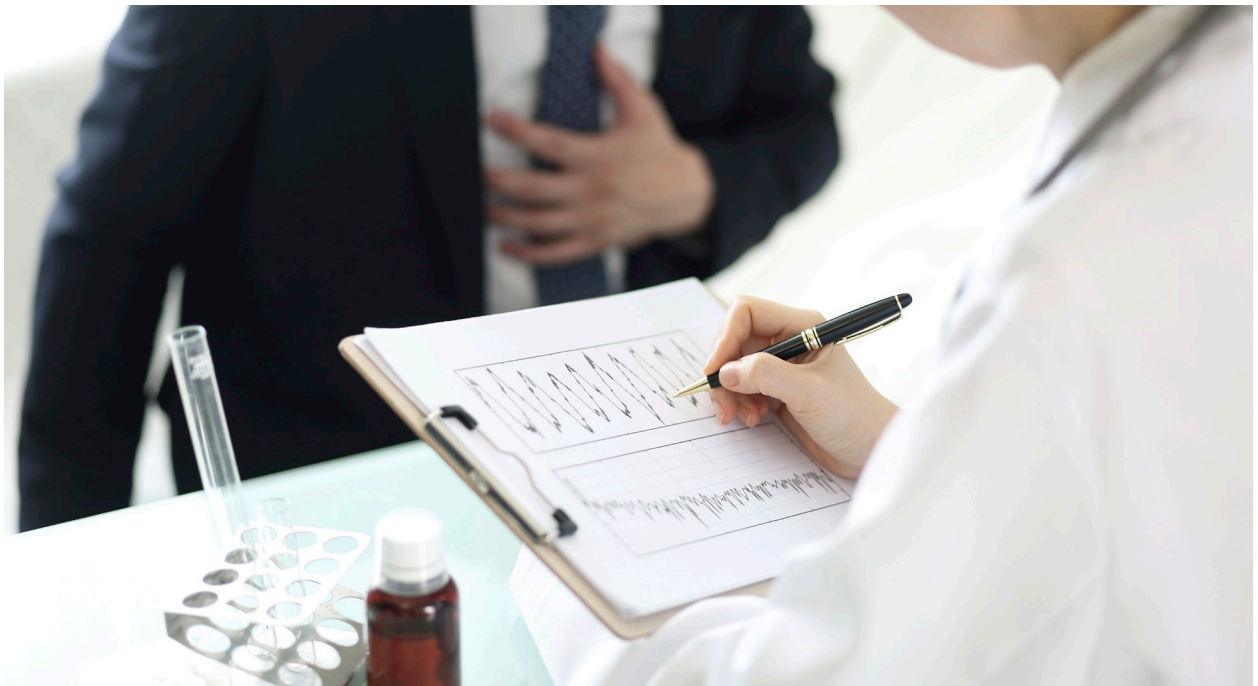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스포츠트레이너, 안마사, 임상심리사, 중독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향기치료사(아로마테라피스트), 웃음치료사, 청능사(청능치료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6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물리치료사협회 (02)598-6587 www.kpta.co.kr
대한작업치료사협회 (02)3672-0616 www.kaot.org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28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는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우울, 불안, 적응문제, 각종 중독문제, 정신분열, 섭식장애, 주의력 결핍, 자폐, 학습장애, 성격장애, 두통 등의 심리·생리적 문제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이해·평가·치료한다.



하는 일

임상심리사는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활동을 돕기도 한다.

환자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 여부뿐 아니라 직업적 흥미나 대인관계 양상, 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임상심리사는 다양한 심리검사와 임상적 지식을 통해 면담이나 각종 촬영도구가 밝혀낼 수 없는 개인의 미묘한 문제를 진단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한다. 개인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의 방법을 수행하며 행동치료, 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치료 등의 다양한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치료를 진행한다.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 관계자나 기타 산업체 및 정부기관 관계자 등에게 스트레스 관리, 범죄자를 다루는 전문적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대부분 정규 근무시간(9~18시)을 따르지만, 내담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근무하며, 근무 장소에 따라 시간제 근무 또는 주 2~3일을 근무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한 팀으로 함께 근무하며 상담소에서 일하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되는 길

대학교에서 심리학 혹은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임상 경험을 토대로 추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밟는 경우가 많아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혹은 임상심리가 2급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마친 자에 한해 취득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등

■ **관련 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2급(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 1급/2급(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성격을 파악해야 하므로 분석적인 사고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내담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공감능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상담업무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업무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진행되므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내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해야 한다.

| 경력 개발 | 과거 임상심리사는 병원의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최근에는 사설 심리치료센터를 개업하여 내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임상심리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법원, 경찰청, 보호관찰소, 교도소, 학교 등)이나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종사하거나 대기업의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근무지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임상경험을 통해 2급 자격에서 1급 자격으로, 임상심리사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다. 병원이나 관련 시설에서 경력을 쌓아 정신요양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임상심리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회의 경쟁적 분위기, 급속한 기술발전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직, 빈부의 격차, 개인주의의 심화, 스마트폰 등의 중독 등의 이유 때문에 개인의 심리 및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 우울증,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 등 스트레스 및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다룰 만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임상심리사는 심리상담소를 개업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소가 증가하고 있다.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임상심리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심리상담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비밀리에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대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핵가족·1인 가구화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외부기관의 의뢰가 많아졌다. 언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센터들도 많이 생겨났으며,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로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자가 증가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취득 시험을 치른 사람은 6,016명(합격자 1,375명)으로 2015년 동 시험을 응시한 4,442명(합격자 826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정도로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상심리사 2급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19	6,016	3,947	65.60	5,858	1,375	23.50
2018	5,621	3,885	69.10	6,189	1,141	18.40
2017	5,294	4,360	82.40	6,196	1,063	17.20
2016	5,424	4,412	81.30	5,810	1,327	22.80
2015	4,442	3,100	69.80	5,330	826	15.5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포털 큐넷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및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임상심리사의 고용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에서 임상심리사 30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임상심리사 일자리가 증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36% 정도가 향후 일자리가 증가(다소 증가 : 33%, 증가 : 3%)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23% 정도가 일자리가 감소(다소 감소 : 20%, 감소 : 3%)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에 따라 신경학적, 인지 장애, 치매환자 증가 결혼연령의 상승과 노산이 증가하며 장애아동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으로 인해 주요 수요층인 아동, 청소년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다양화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청소년문제, 왕따, 성정체성 불안, 아동학대 등 정신적 불안 현상 증가 	

기업 경영전략 변화	• 최근 기업에서 직원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을 회사 성장의 투자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사회복지 확대

종합하면, 고령 및 단독가구 증가, 사회 다양화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문제, 왕따, 성 정체성 불안, 아동학대 등 정신적 불안 현상 증가, 기업에서 직원 정신건강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임상심리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놀이치료사, 물리치료사, 중독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향기치료사(아로마테라피스트), 웃음치료사, 청능사(청능치료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6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7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한국임상심리학회 1877-6308 www.kcp.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29

재활공학기사 및 치료·재활사

재활공학기사는 의사의 의뢰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지보조기와 보장구를 제작하여 장착·수리한다.

언어재활(치료)사는 표준화된 검사와 관찰을 통해 언어장애 환자의 장애원인을 평가·진단하고 치료한다.

청능(치료)사는 청각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심리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청각능력을 평가하거나, 보청기·인공와우 적합 여부 판단, 청능재활 업무를 수행한다.

놀이치료사는 아동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부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 원인을 평가하고 진단 및 치료한다.

예술치료사는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예술활동을 통해서 갈등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치료한다.



하는 일

재활공학기사는 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제시된 의지·보조기의 종류와 사용재료를 확인한다. 환자의 신경계, 정신상태, 근골격계, 자세, 보행을 평가한다. 제작의뢰서의 내용 및 환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작 상담을 한다. 의지 및 보조기 제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의지제작을 위해 환자를 관찰하고 둘레, 폭, 길이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환자에게 적합한 소켓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한다. 소켓을 얻기 위해 절단단의 조건에 맞는 본뜨기 작업을 한다. 환자의 요청과 장애에 따라 의지재료를 고른다. 진공흡입기 등을 사용하여 소켓을 제작하고 샌드페이퍼로 다듬는다. 소켓과 상지·하지 관련 부품을 조립하고 정렬·조정한다. 현가장치를 제작하고 부착한다. 휠체어, 보행보조기구, 자세유지보장구 등을 재봉기, 절단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가공·조립하여 제작한다. 제작한 의지, 보조기 등을 환자에게 장착한 후 최종 점검을 하고 보완·수정한다. 환자

및 가족에게 의지보조기와 보장구의 사용법을 교육한다.

언어재활(치료)사는 환자보호자 또는 환자와 상담하여 가족력, 임신력, 태생력, 언어발달력 등을 조사·기록한다. 환자의 발음, 지능 및 어휘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지각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림어휘력검사, 아동언어발달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한다. 조음장애, 언어지체, 실어증,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구개파열, 뇌성마비 등 언어의 장애원인과 유형 그리고 정도를 판별하고 진단한다. 장애의 정도, 유형, 그리고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정치료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지시·감독한다. 장난감, 그림자료, 스크립트, 녹음기, 퍼즐, 이야기발표 등을 활용하여 장애를 치료한다. 사회관계 형성·유지에 필요한 언어사용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 치료활동을 수행한다. 치료 경과를 기록한다.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자발화를 관찰하여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다. 언어장애 환자, 가족, 담당교사를 상대로 상담 또는 지도활동을 한다. 교육기관, 구강외과 및 기타 의료기관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언어장애의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청능(치료)사는 청각장애 또는 평형장애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Speech discrimination test), 보청기검사를 한다. 청각과 평형기능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판매 및 관리한다. 환자의 청각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다.

놀이치료사는 보호자 또는 아동과 상담하여 아동의 개인발달사항, 가족관계, 학습활동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문제의 유형 및 정도를 판별하고 진단한다. 의료진단서, 검사결과지, 상담기록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아동의 상태를 진단한다. 놀이기구를 설치한 놀이방에서 아동이 선택한 기구로 놀이를 진행한다. 사회관계 형성·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진단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 치료활동을 수행한다. 놀이치료가 끝난 후에는 아동 및 보호자를 상대로 지도활동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아동의 상태변화를 확인하고, 추후 놀이치료의 방향을 계획한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상담센터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놀이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구매한다.

예술치료사는 예술활동과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내담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내담자에게 그림 완성하기, 풍경화 구성하기 등 미술치료를 수행한다. 환자와 함께 피아노, 오르간, 북, 징, 팽과리 등의 악기를 이용해서 즉흥 연주 및 작곡을 하면서 환자의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낸다. 음악연주를 관찰하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평가한다. 예술치료와 관련된 임상실험 결과 및 효능 등을 연구한다.

|업무 환경| 재활공학기사는 최근 디지털 혁신 기술 중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크기나 수치를 측정하거나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며, 진동이나 위험한 장비 및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치료·재활사는 3D 프린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자동화된 로봇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접촉이 빈번하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언하거나 상담하고,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되는 길

재활공학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구학과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활동할 수 있다.

언어재활(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재활 관련 학과(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언어재활사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청능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전공은 없으나 언어치료청각학과를 전공하면 청능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다. 단, 민간자격으로 청각사와 청능사가 있고,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놀이치료사는 대부분 의료기관, 아동상담센터, 복지관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놀이 치료사는 관련 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활동하고 있다. 예술치료사는 심리치료에 예술활동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심리 두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다.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활동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심리치료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재활학과, 언어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의료공학(의료장비)과, 물리치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유아교육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관련 자격**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청능사, 놀이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적성 및 흥미| 재활공학기사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기술설계능력이 요구되며,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현실형과 사회형의 직업 흥미와 심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치료·재활사는 문제를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므로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인간의 발달, 놀이, 병리, 상담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놀이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침착하고 단정한 태도, 대인관계에서의 원만한 성격, 인내심, 포용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계를 통해 마음을 치료해야 하므로 인격적 성숙이 매우 중요하다. 재활(치료)대상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침착한 태도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인내심, 포용력, 개방성, 창의성 등을 갖춰야 한다.

|경력 개발| 재활공학기사는 재활병원, 보조공학센터, 재활 의료 관련 연구소에서 현장 경력과 재활공학 전공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쌓아 승진할 수 있으며, 의지보조기나 재활보조기기 관련 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치료·재활사는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취업하여 경력을 쌓아 승진할 수 있고, 실무 경력과 관련 전공 대학원 수료 후 해당 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재활공학기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치료(재활)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재활공학기사와 치료(재활)사가 포함된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는 2019년 약 207천 명에서 2029년 약 25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6천 명(연평균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재활공학기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환경 등의 문제로 장애가 있으면서 재활을 해야 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활에 필요한 의지보조기의 성능이 개선되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고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의지보조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 관련 의지보조기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언어재활(치료)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언어재활(치료)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말을 늦게 배우는 것에 부모들이 별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와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언어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매년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학과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청능치료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고령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청각능력과 같은 신체적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헤드폰을 항상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청각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청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청능치료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놀이치료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핵가족화 심화 때문에 놀이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행동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 자녀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고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늘면서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는 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로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점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놀이치료는 온라인게임 중독 현상을 치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놀이치료를 활용한 게임중독 치료 영역이 활발할 전망이다. 한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 놀이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과거에는 이를 숨기려 하였으나 요즘은 초기에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놀이치료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예술치료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활동은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심리치료를 드러내기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것처럼 좋은 치료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예술활동을 선호하는 치료대상자에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예술치료사를 찾는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전망도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청력 약화	• 저출산으로 인해 주요 수요층인 아동, 청소년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핵가족화 심화 • 게임 중독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사회복지 확대	

종합하면,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심화, 게임 중독, 사회복지 확대에 따라 향후 10년간 재활공학기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치료(재활)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기사
- **분류 코드** 재활공학기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7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5
기타 치료·재활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6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59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30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교통사고, 화재발생 등 인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을 구한다.



하는 일

위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며,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파악한 후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하거나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중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는 어떠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는지 그 내용과 출동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진료의사에게 보고한다. 응급이송 업무가 끝나면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을 보충하여 또 다른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구급차 내에 비치된 장비가 사용 가능한지 항상 점검하며, 무선장비를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외에 병원의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의사의 수술이나 진료 업무를 돕기도 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업무는 응급구조사 자격별로 정해져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삽관 등을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혀 아래(설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더해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 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MAST)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업무 환경| 응급구조 요청이 오면 장소나 날씨에 관계없이 출동해야 하며, 다수의 병원이나 밤이나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어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해야 한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주간근무는 9시~18시로 9시간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18시~익일 9시로 15시간 근무하나 채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응급처치를 위해 자주 허리를 구부리거나 환자를 들어 올려 이송하는 업무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항상 응급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또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과 안전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



되는 길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응급구조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소방학교 및 국군군의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응급구조 양성과정을 마치면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관련 학과** 응급구조(학)과, 소방안전구급과

■ **관련 자격** 응급구조사 1급/2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적성 및 흥미|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로 외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업무의 특성상 사람의 시체나 혈흔 등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력이 있어야 한다. 목숨을 살리는 일로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도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발력이 요구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력 개발| 소방방재청, 종합 및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 취업한다. 법무부나 해양경찰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 응급전문이송업체, 응급의료정보센터, 일반 산업체의 의무실이나 스포츠 시설업체의 안전요원이나 수상 및 산악구조요원으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업체 부속의무실, 병원 응급실, 응급환자이송단, 응급환자이송업, 레저스포츠센터(수영장, 해수욕장 등) 안전관리요원, 소방학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국군군의학교(해양경찰청 122 구조대, 법무부 교정직, 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무하며, 1급 응급구조사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해양경찰청(122구조대), 법무부(교정직), 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 보건기술직 공무원, 병원 응급실 및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산업체 부속의무실, 항공구조대, 외국인학교 보건실, 응급환자이송단, 응급환자이송업, 의료기업체, 레저스포츠센터(수영장, 해수욕장 등)의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응급구조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2019년 약 13천 명에서 2029년 약 1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구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응시하는 사람과 합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합격자는 2013년 1,034명에서 2018년 1,554명으로 5년간 50.2% 증가하였고 2급 응급구조사 합격자는 2013년 889명에서 2018년 1,224명으로 5년간 37.6% 증가하였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응급구조사 1급	응시자	1,198	1,470	1,570	1,622	1,753	1,759
	합격자	1,034	1,207	1,327	1,371	1,544	1,554
응급구조사 2급	응시자	1,122	2,277	1,920	2,359	2,691	1,473
	합격자	889	1,598	1,271	1,625	2,337	1,2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선박 및 지하철 사고, 각종 생산 및 건설 현상의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의 위험요소가 증가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독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등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가정 내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대처 인력이 부족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 병원이나 소방서로 한정되었던 응급구조사의 범위가 학교, 보건소, 민간기업, 항공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수학여행 시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 인솔을 담당하고 안전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응급구조사 등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늘어나는 여가 및 실외활동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를 레저시설에 수상안전요원, 산악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하는 추세여서 향후 응급구조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인구고령화에 따른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요구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대 • 여가 활동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사회안전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종합하면,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요구 확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대, 사회안전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응급구조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인명구조원,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의료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7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6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1588-1339 www.emt.or.kr
행정자치부 (02)2100-3399 moid.go.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31

안경사

안경사는 국민의 눈 보건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시력검안을 통해 소비자의 얼굴에 적합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제작하고 판매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이다.



하는 일

안경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나안시력검사 및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장용검사 등을 수행하여 교정도수를 결정한다. 고객에게 적합한 안경렌즈(혹은 콘택트렌즈)와 안경테를 선정하고, 이를 조제한다. 보통 자동제조기계를 이용하여 안경테에 맞게 렌즈를 제조하는데 광학중심점, 난시 축의 수평 정도 등을 조절하여 렌즈를 깎은 후 연마기로 마무리하고, 렌즈를 안경테에 끼워서 완성한다. 완성된 안경은 전경각, 코벨립각, 능선각, 조정 가능한 패드 등 브리지와 다리부의 기능을 고려하여 고객의 얼굴에 맞도록 조절한다. 완성된 안경을 고객의 얼굴에 끼워주고 안경테가 고객의 얼굴에 잘 맞는지, 렌즈가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여 재차 조정해준다. 고객에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세척방법 및 착용방법을 알려주고, 시력보호를 위한 눈 관리법이나 시력 보조구에 관하여 조언한다. 얼굴 유형이나 길이 등 미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안경테 및 색상을 추천하고, 각막의 형태나 코의 높이, 눈의 형태와 동공 사이의 거리, 고객의 취향 및 특성, 용도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어울리는 안경렌즈, 안경테 및 콘택트렌즈를 추천한다.

|업무환경| 안경원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 때가 많아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편이다.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일이 잦아 개인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일반사무 및 영업 업무가 없고,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하므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대형 안경원을 중심으로 4대 보험 가입 및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되는 길

- **관련 학과** 안경광학과, 광학공학과
- **관련 자격** 안경사 국가면허(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 적성 및 흥미 |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가 많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외향적인 성격이 요구된다. 고객에게 어울리는 안경테 및 렌즈 등을 추천·상담하는 업무로 패션센스가 있으면 유리하다. 안경원이나 좁은 사무실 안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고 외근이 적어 지속적인 실내근무 선호자에게 적합하다.

| 경력 개발 | 대부분 안경원이나 종합병원 및 안과의원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안경렌즈 제조업체, 안경테 제조업체, 광학기기 관련 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승진제도는 없다.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자격에 따라 직급에 제한이 있어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승진이나 경력개발은 없는 편이다. 안경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안경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안경사는 2019년 약 21천 명에서 2029년 약 2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사 면허등록자는 2018년 기준으로 4만 3,376명으로 2013년의 3만 7,225명과 비교하여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경사 면허등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 안경사	37,225	38,482	39,914	41,060	42,297	43,37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한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7~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357명의 안경사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TV나 다양한 영상매체의 발달 및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시력이 저하되어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안경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안으로 인한 누진렌즈 등 관련된 제품의 판매도 증가하며 안경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안경착용 인구의 증가는 안경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술로 인해 안경 수요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술을 하지 않은 20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의 안경수요 증가와 50세 이상의 노안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뚜렷하여 안경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거에는 시력교정을 위해서만 착용하던 안경이 최근에는 패션의 일부로 자리 잡으며 안경산업이 성장하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다.

안경원이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되면서 대형안경원은 안경사 외에 판매사(서비스 매니저)를 따로 두어 판매를 전담하게 하고 안경사에게는 검사와 제조만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안경광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증가하였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나 면허 취득자 중 안경사로 취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안경사의 배출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또한 장시간 근무하는 안경사의 업무 특성이 부분적 원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안경 산업의 성장과 의료기사로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 및 용모에 대한 관심 증가 • 영상매체 노출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라식 등 시력 교정술의 발달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영상매체 노출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안경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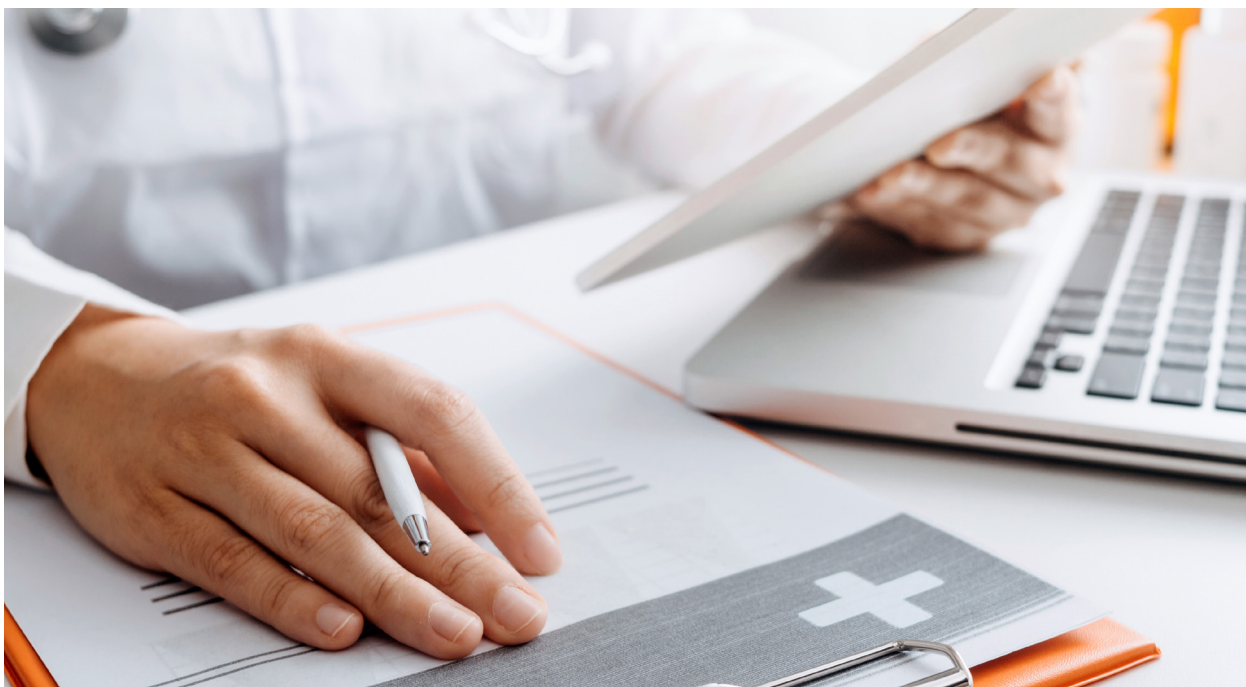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안과의사, 안마사, 위생사,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의료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7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63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대한안경사협회 (02)756-1001 www.optic.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3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질병의 치료 및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유지하며, 정보가 법적요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하는 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이것이 의무기록이다. 근래에는 의무기록 작성이 전산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의료정보라고 불린다. 의료정보는 의사가 작성하는 경과기록, 협의진료기록, 처치수술기록, 검사결과,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기록과 치료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동의서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정보(의무기록)는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치료내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 의사 및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진료비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도 이용된다. 아울러 사망률, 암발생률, 감염병 통계 등 보건의료통계를 위한 기초 자료,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의 질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평가 자료로도 이용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처럼 다양한 의료정보(의무기록)를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관·이용·제공한다.

한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 생성 및 관리를 위한 각종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의료정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집된 진료데이터를 검토·분석하여 목적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질적 수준의 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한 자료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원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 내용을 향후 가치 있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국제표준분류방법에 따라 질병분류를 하고 수술의 경우 수술 처치 및 검사 분류를 하며, 사망환자는 사인분류를 하여 진단, 수술, 사인을 코드화하고 DB를 구축한다. 환자의 의무기록 내용 중 연구, 교육, 통계 등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핵심내용을 분석하여 보건의료통계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보호 및 보안책임도 담당한다. 의료정보보안시스템 구축·유지에 참여하며, 의료정보 접근 및 의료정보 작성 권한 수준에 따라 보안이 유지되고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의 의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업무 환경 |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작성과 유지·관리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무환경과 유사하다. 환자의 진료정보 사본발급업무와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대민창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길

의무기록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무기록 관련 학과에서는 의무기록관리, 질병 및 수술 분류, 의학용어 및 해부학, 임상지식, 전산실기,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의료의 질 관리, 병원 및 보건 통계, 의료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병원 경영과 조직 등에 대해 공부한다.

- **관련 학과** 보건행정학과, 병원경영학과, 병원관리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무행정학과, 의료정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관리학과, 보건의료정보과, 의약정보관리과 등
- **관련 자격**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정보사(대한의무기록협회)

| 적성 및 흥미 |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로 기억력이 좋고 의료, 사무, 영어, 컴퓨터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다. 업무의 특성상 사소한 오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해야 한다.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고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견뎌야 한다.

| 경력 개발 | 주로 종합 및 대학병원, 개인병·의원 의료정보팀 또는 의무기록과에서 근무하며, 원무과나 행정부서에서 환자관리, 보험청구, 구매, 기획 및 의료 질 향상(QI: Quality Improvement)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보건기술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보건 관련 연구소와 교육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이나 상품기획 및 심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업체의 보건담당 업무를 맡기도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졸 사원으로 취업 후 경력에 따라 주임, 계장,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게 되며, 기획·행정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임원진(이사)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개발경험을 이용하여

의료정보시스템 개발회사의 임원 또는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도 진출하며, 병원심사 인증기관의 컨설턴트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HO-FIC(보건의료 분야 표준화 협력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서 국제원사인분류를 할 수 있는 자격¹⁾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등록자는 2018년 기준으로 2만 4,608명으로 2013년의 1만 8,821명과 비교하여 5년간 30.7%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35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등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18,821	20,662	21,679	22,753	23,907	24,60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구매와 의료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로 생성되는 진료정보(의무기록)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보관,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지급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도 증가할 것이다.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의료정보 DB(Database) 구축 및 관리업무와 자료를 분류·분석하여 각종 통계 자료를 생성하고, 임상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 업무 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의료정보를 이용한 진단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기록에 담겨 있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안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수요는

1) 사망진단서를 읽고 질병분류의 준칙에 근거하여 원사인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의료에 대한 법적 분쟁과 사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입증문서로 환자 본인 및 보험기관 등 외부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보건통계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정보 요구 등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다. 강화되는 의료기관 평가와 의료정보 질 평가에 대비하여 정확하고 타당한 의료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고용하지 않던 병·의원 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안정 산업의 성장과 의료기사로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정보에 대한 관리 요구가 높아짐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전자 의무기록(EMR)으로 변경된 후 의료정보에 대한 전산처리 업무 추가 발생	• 의료정보의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의료정보 활용 산업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의료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의료정보 활용 산업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간호사,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7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64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02)424-8514 khim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33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근무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를 보조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를 놔주고, 내원환자를 안내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록하며, 환자의 운동이나 활동을 돕는다.



하는 일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진료보조업무와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지역사회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간호조무사는 또한 환자의 접수와 수납업무, 각종 문서를 관리·보관하는 등 원무 업무를 도와주고, 병원에서 사용하는약품이나 붕대 등의 의약품을 소독하여 보관·관리하며, 의료기구 및 물품을 소독·살균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종합(대학)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는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정신보건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700시간의 방문간호교육을 이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도 있다.

|업무환경| 항상 환자와 접촉하는 까닭에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본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매일 상대하면서 정신적인



되는 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환자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허리 및 어깨 등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고졸 이상자로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1년간 교육을 받거나 간호 관련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520시간의 교육(740시간의 이론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간호조무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매년 8시간의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중 700시간의 방문간호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방문간호교육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만 개설된다.

■ 관련 자격 간호조무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적성 및 흥미] 환자를 상대하는 업무로 서비스 지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결정과 빠른 대처능력 등을 가져야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조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며, 경미한 화상이나 자상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자격증 취득 후 학원의 추천이나 공개채용을 통해 종합(대학)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영유아보육시설, 교육기관, 산후조리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조무사 약 3명 중 2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간호조무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2019년 약 207천 명에서 2029년 약 26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2천 명(연평균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조무사는 1년에 두 번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발급받는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연평균 약 3만 5,477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출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은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종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17	202,339	11,977	49,117	346	1,897	104,888	17,794	16,232	76	12
2018	209,323	13,130	51,787	350	2,219	108,005	17,583	16,168	71	1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며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고, 1인 가구 및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며 돌봄 대상자가 증가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보호자 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간호조무사의 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어르신의 병간호에 있어 가족주의 탈피 •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증가	
과학기술 발전	• 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서비스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간호조무사의 활동 분야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간호 간병에 있어 간호조무사 법적 인력 기준에 인정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와 어르신 병간호에 있어서 가족주의 탈피, 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활동 분야 확대,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법적 인력 기준 인정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간호조무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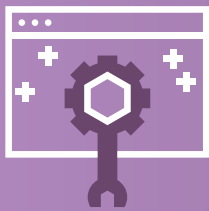
- **관련 직업** 간호사, 간병인,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7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65
- **관련 정보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661-6933 klpn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6



사회복지 관련직

- 01 사회복지사
- 02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 0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 04 시민단체활동가
- 05 보육교사



0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일

사회복지사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보육 자원, 재정적 문제, 지역사회 자원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 생활지원, 교육·훈련, 대인관계기술훈련, 건강관리, 법률지원 등이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용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업재활이나 취업을 위한 사업장을 개발하여 취업 지원을 하기도 한다.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이용자를 선정하고 복지 지원과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돕는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다양한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업무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소속 근무지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다르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는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입소자에 대한 생활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교육지원, 자립 준비, 개별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행정, 회계, 자원봉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일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 등에서 근무한다.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복지수급권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을 담당한다. 지역 주민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및 관리,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교정사회복지사는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으로 소년원과 같은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재활을 돕고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지도를 담당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수감자가 사회와 소통하는 기술을 익혀 출소 후 원활히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중재·교육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지도,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을 수행한다.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일하며,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 이자 치료에 걸림돌이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환자가 퇴원 후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과 지도 등 전문적인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일하며 문제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이들은 학생 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 및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지정하고 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사회복지사는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일한다.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부당한 대우 등을 해결하여 즐거운 근로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가 일터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 계획하고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복지대상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근이 많다. 쌀이나 연탄 배달, 김장봉사, 세탁봉사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자원봉사의 모집과 교육, 행정업무 처리도 해야 한다. 이처럼 대민 서비스가 잦고 업무량이 많아 육체적인 피로도가 크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저녁이나 주말에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초과근무나 주말근무가 잦다. 업무에 따라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4시간 출동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되는 길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정 학점의 수업을 이수(14과목)하고 현장실습(120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자,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문요원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 실무에 종사한 자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가 많아지면서 기관에 따라 채용 시 1급 소지자를 요구하는 등 급수별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관리자급으로 승진 및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관련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사업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노인복지학과, 노인보건복지과, 실버보건학과, 가족복지과, 산업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도시복지학과 등

■ **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1급/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2급(이상 보건복지부)

| 적성 및 흥미 | 투철한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대면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과 이해심, 사회성이 요구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일이 발생하므로 융통성, 유연한 대처 능력 등도 필요하다. 복지서비스대상자와의 친밀한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감과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진실한 자세도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하며, 복지 대상자를 결정할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하므로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높은 창의력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로 진출한다. 대체로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험 및 면접을 거친다.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요양시설,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병원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공개채용으로 입직할 수 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약 3-5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주임(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여 중 관리자급에 오를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7년이면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2019년 약 101천 명에서 2029년 약 1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2천 명(연평균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한 공공사회 복지지출의 상대적인 크기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우리나라가 11.1%에 그치는 반면, 프랑스 31.2%, 핀란드 28.7%, 벨기에 28.9%, 이탈리아 27.9%, 독일 25.1%, 노르웨이 25.0% 등으로 향후 공공사회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주요국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2018)]

(단위 : %)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한국
31.2	28.7	28.9	27.9	25.1	25.0	11.1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에 향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 담당인력에 대한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자살, 퇴사 등) 등도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

(단위 : 명)

연도	정원	현원
2013	14,700	14,184
2014	16,475	16,269
2015	17,717	17,371
2016	20,307	19,263
2017	22,711	20,989
2018	24,495	23,125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2013년 1만 4,184명에서 2018년 2만 3,125명으로 5년간 63.0%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

(단위 : 건)

연도	총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2013	637,617	110,518	514,344	12,755
2014	713,223	116,895	583,402	12,926
2015	789,071	123,677	652,274	13,120
2016	864,269	133,205	717,782	13,282
2017	938,040	138,808	785,787	13,445
2018	1,019,647	146,119	859,964	13,56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복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 복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따른 아동 및 보육복지 등 수요계층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변화되고 있다. 기존에 종합복지관에서 총괄해 온 사회복지서비스가 계층별로 세분되어 운영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발달장애인 관련 법안의 개정에서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확대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복지에 대한 관심은 비단 공공 부문만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면서 기업 내 사회공헌팀이 신설 또는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 또한 확대되었는데 과거 아동보육시설과 공공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 제외에 따른 근무 인원 확충 필요성 증가 등도 향후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핵가족화, 이혼률 증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사회적 책임 강조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복지정책 강화 • 업무시간 단축 및 교대제의 증가 (2교대 → 4교대)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이혼률 증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복지정책 강화, 업무시간 단축 및 교대제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사회복지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시민단체활동가, 청소년지도사, 상담전문가,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3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7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www.welfare.net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02)702-5638 www.kamhsw.or.kr

02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는 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정서적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일

상담전문가는 임상심리사와 달리 정상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병리적 행동을 예방하도록 돕거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학습문제, 교육문제, 진로문제, 가족문제, 성격문제 등 다양한 상담을 요청하는 개인(내담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한다. 표준화된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해석해 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기록상담, 위기상담, 인터넷상담, 자기성장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한다. 상담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것도 상담전문가가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이며, 상담실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한다.

청소년상담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전문가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진로·적성·흥미·인성 등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나 심리상담을 해주는 상담전문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조정한다.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여 전국 각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역교육청이나 소속 학교 학생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상담전문가는 입소 노인을 위한 입소절차 안내, 입소 시 노인에게 대한 초기 면접에서부터 입소 후 생활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노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체의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상담전문가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상담 데이터를 확보·분석하여 기업의 조직문화 등 여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기업체 근로자의 원활한 대인관계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교육을 기획·실시하기도 한다.

종교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상담전문가는 상담을 통해 종교적인 갈등 해소를 돕는다.

| 업무 환경 |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지만 내담자의 일정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담자와 상담해야 하므로 안락하고 소음이 적은 상담실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근무환경은 쾌적한 편이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상담 내용에 대해 신중하고 사려 깊게 접근해야 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되는 길

상담심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및 아동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후 상담심리학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하여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상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상담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 아래 지속적인 훈련으로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지도사로 진출을 원할 경우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 **관련 학과** 심리학과, 상담심리과, 산업심리학과,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과 등
- **관련 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2급/3급, 청소년지도사 1급/2급/3급(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 1급/2급(교육부)

| 적성 및 흥미 | 상담전문가로 일하려면 문제 및 원인 파악을 위해 분석적이고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타인에 대한 포용력과 집중력, 통찰력이 요구된다. 인간의 심리 및 성격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정이입 및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한다. 내담자를 상대할 때 힘들고 난처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성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경력 개발| 상담실의 경우 구인광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일반적이며, 교수나 선후배 등의 인맥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3~5년 근무한 후 전임 또는 선임 상담원으로 승진한다. 이후 상담부장을 거쳐 상담실장의 직위까지 승진할 수 있다.

여러 기관에서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인 기반을 다진 후 사설 상담소를 개업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심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하여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임용고시를 거쳐 중·고등학교 등에서 전문상담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상담전문가는 워크숍, 사례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교수로 입직하거나 상담 연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향후 10년간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상담전문가는 2019년 약 43천 명에서 2029년 약 5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0천 명(연평균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치열한 경쟁, 바쁜 일상, 휴식 부족, 대화 단절 등으로 대다수의 현대인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중독 등의 문제를 겪는 사람이 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담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학생이 늘고, 대학 내 상담심리 전문가를 배출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관련 전문인력의 배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보급이 이뤄지며 관계의 폭이 넓어진 데 비해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줄어들면서 관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사회문화가 개인화되어가면서 소외와 고립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직장이나 학교, 모임 등 조직 내에서 관계적 측면에서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정신질환 등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만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인한 각종 상담 센터 등이 설립되고 있으며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형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상담, 독거노인 등 노인상담, 성인상담 등 계층에 따른 상담서비스로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 상담사를 채용하여 재직자 상담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형태로 상담서비스를 외주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체도 있다.

[청소년 상담지원 현황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

(단위 : 명, 개소)

연도	전체 상담인원	시설 수
2013	4,788,011	103
2014	4,833,722	109
2015	4,752,886	119
2016	5,289,673	206
2017	5,682,274	211
2018	6,121,586	231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9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청소년 상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상담을 지원하는 시설 수는 2013년 103개소에서 2018년 231개소로 124.3% 증가하였고, 청소년 상담시설의 상담 건수 역시 2013년 4,788천 건에서 2017년 6,121천 건으로 27.9% 증가하였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건수]

(단위 : 건)

연도	총계	1급	2급	3급
2014	106	0	62	44
2015	4,062	28	3,276	758
2016	4,096	76	3,346	674
2017	3,781	51	3,032	698
2018	3,872	64	3,024	784
2019	3,929	135	2,966	828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9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2017년 3,781명을 저점으로 2018년 3,872명, 2019년 3,929명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모-자녀 간 함께하는 시간 부족으로 대화가 줄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기에 급급해 전문가의 도움(상담)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 갈수록 심화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 문제 및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청소년 관련 상담소, 지원센터, 보호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에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공공부문 상담시설 외 사적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 향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담산업이 발전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어 산업특성, 수요계층에 따라 상담사들이 세분되며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 및 단독가구 증가	• 저출생 심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 감소 • 후기 청소년의 직장 또는 미래 진로에 대한 상담 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챗봇을 통한 기초 상담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사회복지 확대	

종합하면,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 감소, 후기 청소년의 직장 또는 미래 진로에 대한 상담 수요 증가, 사회복지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과 저출생 심화, 챗봇을 통한 기초 상담 대체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성직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312 23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74 2475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한국상담심리학회 (02)498-8293 www.krcpa.or.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 (051)662-3000 www.kyci.or.kr

0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미취업자에게 적절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경력 설계, 직업 선택, 구직활동 등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 또 직업 전환, 직업 적응, 실업 및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한다. 취업알선원은 구직자에게 알맞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력을 공급해 준다.



하는 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는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보험 등 고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나 여성·청소년·노인 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직업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직업상담사도 있다. 직업상담사의 주된 업무는 직업 관련 상담과 직업 소개, 직업 관련 검사 실시 및 해석,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과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자활대상자 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를 개척한다.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특강 및 취업박람회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알선한다. 반복적인 실직이나 구직 실패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수행하기도 한다.

취업알선원은 직업소개소 및 헤드헌팅업체 등에서 일하며 구직자와 구인자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일을 한다. 경비, 건설노동자, 경리, 운전기사, 식당종사자 등 단순 인력부터 중견간부급 이사,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을 알선하고 관리한다. 이중 고급인력을 주로 관리하면서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선정·평가·알선하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한다. 이들은 보통 컨설턴트와 리서처로 구분된다. 컨설턴트는 구인처 발굴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추천자의 최종 평가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리서처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대상자를 조사하여 컨설턴트에게 추천하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한 명이 구인처를 발굴하고 적합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1997년 헤드헌팅이 합법화된 이후 관련 시장이 계속 커졌지만, 헤드헌터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수수료 관련 기준 마련, 윤리경영 등과 관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할 협회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 서치펌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수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 법조, IT, 코스메틱 등 분야에 따라 알선업체가 전문화되는 추세이다.

■ 업무 환경 | 상담업무가 몰리는 취업 시즌이나 취업박람회 같은 각종 행사 등을 앞두고는 초과 근무,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내근무가 많으며, 직업지도, 취업특강, 취업처 발굴 등을 위하여 출장을 가기도 한다. 상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하면서 컴퓨터 입력을 동시에 해야 할 때가 많아 눈이나 목, 손, 어깨 등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되는 길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급인력 알선업체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근무자도 많으며, 외국어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헤드헌터 중 컨설턴트는 대개 해당 분야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 **관련 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직업학과, 교육학과,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등
- **관련 자격** 직업상담사 1급/2급(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직업을 알선하여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 업무로 상담자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잘 파악하여 맞는 직업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 경력 개발 | 직업상담원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여성·청소년·군인·고령자 유관 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공공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의 공공 직업안정기관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여성·청소년·노인 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에서 직업상담원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사는 9급에서부터 시작하여 근속연수 및 내부 평가 등을 통해 승진이 이뤄진다. 취업알선원은 주로 유료직업소개소, 고급인력 알선업체(헤드헌팅 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서 활동한다. 헤드헌팅 업체에 입사한 경우 리서처로 입사하여 5~8년 정도가 지나면 컨설턴트로 승진할 수 있고 일정 경력을 쌓은 후 헤드헌팅 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직업상담사는 2019년 약 11천 명에서 2029년 약 1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1.9%) 정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채용문화가 열린채용, 직무중심채용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구인자·구직자 모두로부터 채용방식 변경에 따른 직업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이민여성 등 외국인력 유입, 청년 실업자 증가,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직업상담사가 진로상담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업체 수는 2013년 1만 3,775개소에서 2018년 1만 5,060개소로 지난 5년간 9.32% 증가하였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도 2013년 43만 5,796명에서 2018년 52만 2,354명으로 19.80% 증가하였다.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계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13	13,775	435,796	7,347	33,005	6,428	402,791
2014	14,581	447,601	7,680	29,274	6,901	418,327
2015	14,125	484,504	7,296	35,609	6,829	448,895
2016	14,482	511,469	7,830	28,840	6,652	482,269
2017	14,383	514,373	8,302	25,912	6,081	488,461
2018	15,060	522,354	8,900	27,866	6,160	494,48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8

[직업상담사 자격 발급 건수]

(단위 : 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업상담사 1급	50	109	91	51	66	247
직업상담사 2급	4,011	5,039	5,313	5,227	6,955	6,648
계	4,061	5,148	5,404	5,278	7,021	6,895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통계

직업상담사 자격증 발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년 동안 4,061명이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9년에 6,895명이 자격을 취득하여 5년간 69.8% 증가하였다.

기존의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의 업무가 일자리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이미지컨설팅, 경력관리, 이력서 작성 및 면접관리 등 취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조언하고 설계하는 업무로 활동영역이 확장되며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은퇴자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시장에서는 임원 등 고급은퇴인력, 기술전문인력 등 분야 및 인력 특성에 따라 사업을 세분화하여 전문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은퇴인력 외에도 이·전직을 원하는 중간관리자, 기술전문인력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취업알선 시스템이 취업알선원의 업무를 일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 신규 채용은 많지 않으나, 지자체의 취업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센터에서의 인력 충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베이비부머, 외국인민여성 등 다양성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구직자의 요구 다양화, 진로상담 중요성 인식	
국내외 경기	• 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이·전직 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인공지능 기반 취업알선 시스템 개발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채용문화 변경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 재취업지원 서비스 법적 의무화 등의 긍정적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인구구성의 다양성 증가, 구직자의 요구 다양화, 진로상담 중요성 인식 제고,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재취업지원 서비스 법적 의무화 등의 긍정적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커리어코치, 헤드헌터, 취업지원관, 상담전문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314 029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73
- **관련 정보처** 고용노동부 1350 www.moel.go.kr
고용복지+센터 www.work.go.kr/jobcenter
(사)한국직업상담협회 (02)584-4220 www.kvoca.org

04

시민단체활동가

시민단체활동가는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근무하며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비영리 활동을 한다.



하는 일

시민사회단체는 권력 감시, 인권 신장, 환경보호, 부패 방지, 복지 증진, 경제 정의 등의 전통적인 분야에서 교육, 문화, 의료 보건, 지역사회, IT, 사회적 경제, 국제 개발 등 사회 전 분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시민단체활동가는 단체 내에서는 주로 간사(Coordinator)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운동가로 불리기도 한다.

시민단체활동가는 각 단체가 주도하는 사업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시민사회단체마다 설립 목적이나 활동 방향이 매우 다양하므로 시민단체활동가의 업무 역시 전형적이지 않다. 공통적으로는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특정 사업을 기획·집행·확산하여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으로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 분야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사화(보도자료), 성명(논평), 공청회, 간담회, 집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화한다. 해당 이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사업(프로젝트, 캠페인, 교육, 연구, 출판 등)을 전개한다. 또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므로 회원 모집과 기금 모금 등도 주요 업무이다.

|업무 환경|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 개최, 프로그램 진행, 현장 조사 및 상담때문에 외근이나 야근이 잦으며,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시민단체활동가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피드백하는 과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센 편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회단체의 경우는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며, 4대보험 이외에 단체의 자체적인 복지혜택이 빈약한 편이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위한 휴식, 일반 휴가, 특별 휴가 등을 보장하고, 교육 지원 등에 나서는 등 복지 프로그램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단체 내 조직문화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되는 길

채용 시 학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분야가 세분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여서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주로 사회학,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지원하나, 특정 학력이나 전문 학위를 갖추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 활동 경험을 갖는 것이 좋다. 일부 대학 및 대학원의 NGO 관련 과목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스가 개설되어 있다.

■ **관련 학과** 사회학,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도시·지역학과, 정치외교학과, 환경공학과 등

|적성 및 흥미|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안적 삶을 존중하며, 공익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과 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 관련 사업 수행 등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탐구심, 조사 연구 능력, 실행력, 진취성 등이 필요하다. 활동의 대부분이 대면사업이기 때문에 리더십과 친화력, 사람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 분야 종사자로서 윤리성과 청렴성이 중요한 자질이다.

|경력 개발| 청소년기나 대학 재학 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결원이 생기면 비공개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직이 이루어지며, 필기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신입의 경우 인턴이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 경험이 있으면 가점이 부여되며,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상근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입으로 취업 시 간사로 채용되며, 3~5년 경력이 쌓이면 팀장, 처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때로는 대표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다. 시민단체의 특성상 근속연수가 짧은 편이고 이직이 잦아 팀장급에서 잦은 이동이 있다. 주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좀 더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시민단체활동가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사각지대가 늘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약자들의 고충을 찾아 해소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권익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앞으로 시민단체활동가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서 협치(governance)가 강조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조정과 중재가 매우 중요해졌다. 시민단체활동가들이 협치 과정에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이 전문화되면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시민단체활동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제3 영역에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여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에너지 고갈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권력 감시와 반부패를 포함하는 행정 영역, 경제정의 실현, 사회복지, 인권, 규제 완화 등 국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활동가의 활발한 활동이 사회적 다양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및 분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등 사회 내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의식 고조가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능력 있는 시민단체활동가의 증가로 국제 연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여 사회적기업 형태의 단체나 협동조합 등도 크게 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앙행정기관	1,494	1,561	1,599	1,626	1,650	1,686
시도	10,758	11,333	11,865	12,319	12,543	13,002
등록 누계	12,252	12,894	13,464	13,945	14,193	14,688

자료 :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현황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만 2,252개소에서 2019년 1만 4,688개소로 5년간 총 2,436개소(19.9%) 증가하였다.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 등이 설립되어 공간 임대, 재정 지원,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성장은 예상되나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발달로 단체 중심의 시민활동가보다는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1인 시민활동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다양성 증가	
과학기술 발전	• 1인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소비자 권익 보장	
환경과 에너지	• 기후변화 가속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강조 • 여성, 청소년, 복지, 정치 등과 관련하여 민간 NGO, NPO 등 사회단체 증가 및 정부 지원 강화	

종합하면, 인구구조 다양성 증가, 소비자 권익 보장,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강조, 여성, 청소년, 복지, 정치 등과 관련하여 민간 NGO, NPO 등 사회단체 증가 및 정부 지원 강화 등의 긍정적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시민단체활동가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사회복지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31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76
- **관련 정보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02)735-0067~9 www.charitykorea.kr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2)734-3924 www.civilnet.net
서울시NPO지원센터 (02)734-1109 www.snpo.kr

05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만 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다.



하는 일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적 측면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한다. 또한 영양·위생·안전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통해 영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다.

위탁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발달수준,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적절한 보육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을 상세히 관찰한 후 이에 맞는 보육방법을 결정하고, 교재를 선택하여 지도한 후 그 결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한다. 그림책, 놀잇감, 악기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정서와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며,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바른 생활습관을 지도한다.

영유아를 집으로 보낸 뒤에는 교실이나 교구 등을 정리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또한 보육일지에 기록한 관찰 내용과 지도 경과를 살피고 영유아의 보육 상태를 평가하여 부모들과 아동들의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기도 한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여러 명의 영유아를 돌보기 때문에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 보육교사나 자원봉사자를 두기도 한다.

|업무 환경|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나 보육시간은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하기도 하며 휴일 보육시설은 주말에 운영되기도 한다. 시설의 여건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 또한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기도 하며 오후에 출근하여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기도 하지만 근무시간은 근로기준에 따른다.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는 만 1세 이하의 경우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는 20명으로 구성된다. 반별 최대정원제를 채택한 시설일 경우 2명 이상의 교사가 한 반을 담당하기도 한다. 영유아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육시설 내의 실외 놀이터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보육시설 근처로 산책을 가기도 하며 영유아의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해 박물관과 같은 외부 현장에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되는 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17과목, 51학점)을 대학에서 이수하거나 대학원 또는 보육교사 관련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의 과정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육관련 석사학위만으로는 보육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육교사 자격 관리 사무국에서 제시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관리 사무국에서 제시한 교과목과 관련한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석사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거나, 2급으로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가지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대면교육이 강화됐다. 기존 17개 교과목 중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등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출석수업과 실습시간을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80시간 확대했다.

- **관련 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정관리학과 등
- **관련 자격** 보육교사 1급/2급/3급(한국보육진흥원)

|적성 및 흥미| 영아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하므로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사랑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좋아해야 하며,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므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의 부모들과 함께 자녀의 최적 성장·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므로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력 개발| 주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등의 보육시설에 취업하며, 각 시설은 공개채용을 통해 보육교사를 채용한다. 국공립보육 시설의 경우 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를 많이 채용한다. 승급체계는 자격을 기준으로 3급 보육교사에서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로 이루어지며, 경력을 쌓아 보육시설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추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상시 5인 이상·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을 갖추면 일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보육교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2019년 약 259천 명에서 2029년 약 24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8천명(연평균 -0.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2018년 대비 2만 4,1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누리과정, 보육지원 등 보육 관련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보육시설도 다양해져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생겨났으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를 보면 2014년 어린이집은 43천 개소에서 2019년 37천 개소로 다소 감소하였고 보육아동의 수는 2014년 1,496천 명에서 2019년 1,365천 명으로 -8.8%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어린이집	43,742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보육아동 수	1,496,671	1,452,813	1,451,215	1,450,243	1,415,742	1,365,085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보육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는 만 1세 미만은 3명, 만 1세 이상은 5명, 만 2세 이상은 7명, 만 3세 이상은 15명, 만 4~5세는 20명이며 경우에 따라 2~3명 추가로 가능하여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은 편이다. 아동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고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및 맞벌이 가구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기본 보육 외에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시간대별 보육 등 보육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보육정책 및 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아동 수의 감소로 현재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육교사 취업자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 저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가정 내 보육인력의 감소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보육지원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	

종합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 등의 긍정적 영향과 저출생 심화, 보육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숙에 따라 향후 10년간 보육교사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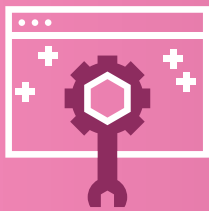
- **관련 직업**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복지시설생활지도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32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72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재)한국보육진흥원 (02)6901-0100 www.kcpi.or.kr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7



문화예술 관련직

- | | |
|-------------|-------------------|
| 01 소설가 | 12 사서 |
| 02 영화시나리오작가 | 13 기록물관리사 |
| 03 방송작가 | 14 화가 |
| 04 번역가 | 15 조각가 |
| 05 통역사 | 16 사진작가 및 사진사 |
| 06 출판물기획자 | 17 만화가 |
| 07 신문기자 | 18 만화영화작가(애니메이터) |
| 08 방송기자 | 19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
| 09 잡지기자 | 20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
| 10 학예사 | 21 가수 및 성악가 |
| 11 문화재보존원 | 22 무용가 및 안무가 |



01

소설가

소설가는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을 구상하고 주제를 결정하여 일정 형식의 소설을 저술한다.



하는 일

문학은 언어를 통해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다. 작곡가가 음악을 통해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듯, 소설가는 언어와 문자라는 형식을 통해 제 생각을 담아낸다.

소설가는 소설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현장을 조사·분석하고, 가상의 세계 등을 검토하여 소설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리한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다. 소설가는 자신이 써 내려갈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등장인물을 만들어내며, 스토리를 엮어낼 주요 사건을 창조해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꾸며낸다. 자신의 소설을 각종 문예지와 잡지, 신문 등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엮어 출판하거나 인터넷에 연재하기도 한다. 소설가는 역사, 추리, 무협, 애정, 전쟁, 과학 등의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기도 하며, 저술물에 대한 인세, 원고료, 저작권료를 계약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업무 환경| 소설가는 언제나 새로운 창작품을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타 직업인들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소설가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작업하는 등 작가의 상황에 따라 작업환경은 차이가 있다.



되는 길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소설가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다양한 작품과 작가를 분석하게 되고 습작 훈련을 통해 문장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교육보다는 작가적 자질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 독서와 사색, 글쓰기 연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이밖에 각종 문화센터, 대학교 내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하는 작가양성과정을 통해 창작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자신의 문학적 소질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

소설가로 진출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일간지의 신춘문예 당선, 전문지·동인지의 추천, 출판사, 문학 잡지 등의 공모전 당선, 혹은 개인 창작집 발표 등을 통해 등단하여 작가가 될 수 있다. 등단 후에는 출판물, 잡지,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에 연재 및 기고함으로써 작가로 활동한다.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연재한 다음 책을 발간하는 작가들도 늘고 있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연극)영화과 등

| 적성 및 흥미 | 글로 이야기를 구성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한글을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국어문법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므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 언어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하고, 글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표현력과 문장력을 갖춰야 한다.

| 경력 개발 | 소설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진체계는 없다. 하지만 작가로서 인지도가 올라가면 높은 원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문학작품이나 작가 양성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소설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소설가가 포함된 작가는 2019년 약 23천 명에서 2029년 약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설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설가는 영향력 있는 문예지가 폐간되거나 기업의 사보,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이 위축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예지나 잡지, 사보 발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줄고, 인쇄 출판물이 디지털 매체로 상당 부분 대체되면서 문예지 및 잡지 등을 통해 등단할 기회도 다소 줄었다. 또한, 출판산업 사업체 수가 줄고 매출이 감소하는 점은 소설가들이 전업 작가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 2017)에 따르면, 소설 발행종수는 2012년 7,431부에서 2019년 7,124부로 최근 8년간 307종(연평균 약 0.59%) 감소하였고, 전체 발행종수 대비 소설 발행종수는 2012년 11.12%에서 2019년 8.72%로 최근 8년간 241%p 감소하였다.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2012년 6,222개에서 2019년 7,930개로 최근 8년간 1,708개(연평균 약 3.92%) 증가하였으나, 총출판사 수 대비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2012년 14.76%에서 2019년 12.59%로 최근 8년간 2.17%p 감소하였다.

[연도별 소설 발행종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설 발행종수(종)	7,431	7,757	7,639	7,682	7,786	7,757	7,573	7,124
전체 대비 소설 발행종수 비율(%)	11.12	12.60	11.39	10.96	10.28	9.68	9.25	8.72
전체 발행종수(종)	66,804	61,548	67,062	70,091	75,727	80,130	81,890	81,715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KPIPA 출판산업 동향(2019 하반기) - 통계 및 심층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7). KPIPA 출판산업 동향(2016 하반기) - 통계 및 심층분석. 재구성

[연도별 출판사 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개)	6,222	5,740	6,131	6,414	7,209	7,775	8,058	7,930
구성비(%)	14.76	13.00	13.05	12.78	13.46	13.60	13.59	12.59
무실적 출판사 수(개)	35,935	38,408	40,851	43,764	46,365	49,378	51,248	55,053
총출판사 수(개)	42,157	44,148	46,982	50,178	53,574	57,153	59,306	62,983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KPIPA 출판산업 동향(2019 하반기) - 통계 및 심층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7). KPIPA 출판산업 동향(2016 하반기) - 통계 및 심층분석. 재구성

하지만 인쇄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기반의 작가 플랫폼을 통해 작품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작품을 공유하는 작가들의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7)의 『웹소설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2016년 국내 웹소설 시장의 전체 규모를 1,800억~2,000억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16년에 플랫폼 업체의 평균 유통작품 수는 8만 2,322개, 등록 작가 수는 5,995명, 1개월에 평균적으로 등록되는 작품 수는 1만 45건이라고 보고하였다. 웹소설 등 인터넷 연재 출판콘텐츠의 증가와 1인 출판 및 자기출판의 활성화 등으로 그동안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출판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생의 후반기에 문학계에 등단하고자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자 하는 경력개발 욕구 등에 따라 작가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온라인 작가 플랫폼 활성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문예지, 잡지 등의 기업투자 감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출판산업 위축 • 사업체 감소 • 도서발간 감소

종합하면, 온라인 작가 플랫폼 활성화로 소설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문예지, 잡지 등의 기업투자 감소, 출판산업 위축, 사업체 감소, 도서발간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향후 10년간 소설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시인, 영화시나리오작가, 카피라이터, 작사가, 방송작가, 평론가, 게임시나리오 작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1
- **관련 정보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063)219-2722~5 www.kpip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1566-1114 www.kocca.kr
한국소설가협회 (02)703-9837 www.k-novel.kr

02

영화시나리오작가

영화시나리오작가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창작글을 쓰거나 문학작품의 내용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대본)를 쓴다.



하는 일

영화시나리오작가는 시나리오(대본)를 쓰기 위해 주제, 등장인물 및 이야기를 구상한다. 인물의 성격 및 스토리에 포함될 사건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시놉시스(시나리오 또는 대본 전체를 요약한 개요 혹은 줄거리)를 그린다. 각 장면의 특징에 따라 인물의 표정, 동작, 음향, 조명 등을 구성하고 설정된 주제 및 줄거리에 맞게 대본을 작성한다. 영화제작자, 연출가 등과 함께 작품의 내용을 협의하고 수정한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문학작품, 희곡 등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대본) 형태로 재작성하기도 하며, 다른 대본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다시 재구성(윤색)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영화시나리오작가는 언제나 새로운 창작품을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타 직업인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영화시나리오작가 등은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작업하는 등 작가의 상황에 따라 작업환경은 차이가 있다.



되는 길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작가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다양한 작품과 작가를 분석하게 되고 습작 훈련을 통해 문장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교육보다는 작가적 자질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 독서와 사색, 글쓰기 연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영화시나리오작가의 경우 연극영화과나 영화과, 연극과 등을 졸업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방송아카데미, 영화아카데미, 관련 협회 등 사설학원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각종 문화센터, 대학교 내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하는 작가양성과정을 통해 창작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자신의 문학적 소질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

영화시나리오작가는 경기변동에 따라 투자액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성공 가능성을 점쳐 지명도가 높고 대중에 잘 알려진 작가들에 작품 기회가 더 주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신입 작가의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안정적인 전업 작가로 활동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연극)영화과 등

[적성 및 흥미] 글로 이야기를 구성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한글을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국어문법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므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 언어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하고, 글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표현력과 문장력을 갖춰야 한다.

[경력 개발] 작가로 진출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시나리오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하거나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영화사에 투고해 영화사로부터 영화제작 제의를 받기도 한다.

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진체계는 없다. 하지만 작가로서 인지도가 올라가면 높은 원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문학작품이나 작가 양성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다. 영화, 연극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연출자로 진출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영화시나리오작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영화시나리오작가가 포함된 작가는 2019년 약 23천 명에서 2029년 약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화시나리오작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산업 통계]

연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10	3,727	30,561	3,577,948	1,169,265	32.7	13,583	53,374
2011	3,416	29,493	3,833,659	1,524,495	39.8	15,829	46,355
2012	2,622	30,775	4,364,639	1,707,458	39.1	20,175	59,409
2013	1,427	30,238	4,664,748	1,794,369	38.5	37,071	50,339
2014	1,285	29,646	4,565,106	1,533,307	33.6	26,380	50,157
2015	1,111	30,100	5,112,219	1,714,319	33.5	29,374	61,542
2016	1,398	28,974	5,256,081	1,779,514	33.9	43,894	44,838
2017	1,409	29,546	5,494,670	1,742,698	31.7	40,726	43,162
2018	1,369	30,878	5,889,832	2,676,595	45.4	41,607	36,27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영화산업은 수입과 수출이 활발하고 매출이 늘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영화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3,727개에서 2018년 1,369개로 최근 8년간 2,358개(연평균 약 7.91%) 감소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2010년 3만 561명에서 2018년 3만 878명으로 최근 8년간 317명(연평균 약 0.13%) 증가하였다. 매출액도 2010년 3조 5,779억 원에서 2018년 5조 8,898억 원으로 최근 8년간 2조 3,118억 원(연평균 약 8.08%) 증가하였다. 또한, 영화 수출액은 2010년 13,583천 달러에서 2018년 41,607천 달러로 최근 8년간 28,024천 달러(연평균 약 25.79%) 증가하였다. 즉, 한국 영화의 극장 티켓 파워와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성장, 수출액의 증가세 등으로 영화산업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한류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 영화의 수출액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영화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 데다가, 여가 선택 차원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수요가 유지되면서 영화제작도 계속될 전망이다. 콘텐츠 소비자 측면에서 장르와 콘텐츠에 특정 마니아층이 생겨나면서 영화시나리오에서도 특정 분야 전문가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은 수출과 수입, 매출 부분은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하고 있지만, 제작 투자 감소로 사업체도 줄고 종사자 수 유입도 활발하지 않다. 더구나 영화시나리오작가는 산업 규모 대비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영화사가 감독으로부터 작가 직무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작가와 영화감독이 겸하는 경우도 흔해 일자리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선호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영화산업 성장 • 영화 수출 증대	• 산업 규모 대비 적은 비율 • 영화제작 투자 감소

종합하면, 영화시나리오작가는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선호와 영화산업 성장, 영화 수출 증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영화시나리오작가는 산업 규모 대비 그 수가 적고, 영화제작 투자가 감소하여 향후 10년간 영화시나리오작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시인, 소설가, 카피라이터, 작사가, 방송작가, 평론가, 게임시나리오작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1
- **관련 정보처** 한국콘텐츠진흥원 1566-1114 www.kocca.kr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02)2275-0566 www.scenario.or.kr

03

방송작가

방송작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대본을 작성한다. 방송작가는 크게 단막드라마, 연속드라마 대본을 작성하는 드라마작가와 다큐멘터리, 교양, 쇼, 오락, 코미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 대본을 작성하는 구성작가로 구분된다.



하는 일

드라마작가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드라마 제작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줄거리를 구성하고 인물별 캐릭터를 만들어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및 소재를 설정하고, 문헌조사나 인터뷰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 주제 및 극의 초점을 구체적으로 다듬는다. 극의 사건과 갈등을 표현할 등장인물을 창조하고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인물, 사건, 환경을 구성하여 스토리(한 작품의 서술요소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들)를 창작한다. 스토리를 플롯(plot, 극작품의 복잡화를 구성하는 극행동들의 집합, 음모, 계획, 책략) 형태로 구성한다. 플롯으로 짜인 스토리를 분해하여 시퀀스(sequence, 같은 생각들이 연속적으로 모여진 몇 개의 장면들의 집합. 한 편의 드라마는 몇 개의 시퀀스가 모여서 완성됨)로 나누고, 다시 씬(scene, 장면)으로 세분화하고 극의 전개 순서대로 배열한다. 각 씬마다 그 특징과 내용을 간략히 표시하여 대본을 완성한다. 시놉시스(드라마의 제목, 주제, 기획 및 집필의도, 등장인물, 줄거리를 요약한 드라마의 설계도)를 작성한다. 대본 작업 전에 소재를 찾기 위해 헌팅(촬영장소 답사)에 참여하거나 헌팅사진을 받아 참고하기도 한다. 배역캐스팅에 관여하기도 한다.

미리 작성된 시놉시스를 드라마프로듀서(PD)에게 제출하거나, 드라마프로듀서로부터 집필의뢰를 받기도 한다. 드라마촬영을 시작하면서 다음 회 대본을 작성하거나 여러 상황에 따라 대본을 수정하기도 한다.

구성작가는 다큐멘터리, 교양, 쇼, 오락, 코미디, 라디오 등의 드라마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대본을 작성한다. 프로그램 기획회의에 참여하여 방송프로듀서(방송연출가)를 비롯한 방송제작진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기획안(타이틀, 방송시간, 형식, 방송채널, 희망방송일시, 기획의도, 제작방향, 구성내용, 예상 아이템)을 작성한다. 기획안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한다.

예능작가는 취재 및 섭외를 통해 출연자를 확정하며,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몸짓, 말투, 대화방식, 장점 등을 연구하고 시청자의 요구,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본을 작성한다.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코미디 프로그램, 시트콤, 토크쇼, 퀴즈쇼, 가요쇼 등의 대본을 전문으로 작성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방송제작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다큐작가는 취재 및 섭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어떤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인지 구상·확인한다. 촬영구성안을 작성하여 프로듀서와 카메라감독에게 제시한다. 촬영구성안을 토대로 촬영이 진행되면, 촬영된 내용을 프리뷰하고 프리뷰노트(촬영된 화면에서 영상과 현장음을 적은 노트)를 작성하며 내용을 검토하고 프로듀서와 카메라감독에게 제작방향을 조언한다. 프리뷰노트를 기초로 편집구성안(편집콘티)을 작성하여 프로듀서에게 제시한다. 편집구성안을 토대로 프로듀서가 가편집본을 제작하면 프로듀서와 함께 Final cutting(작가가 편집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구성의 틀을 협의하는 일)을 진행한다. 시사(Chief producer와 함께 프로그램을 보면서 평가하는 과정)와 종합편집(영상에 필요한 효과나 자막, 컴퓨터 그래픽 등을 넣어 방송 가능한 영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 과정을 거쳐 완성된 영상을 보면서 내레이션 원고(Narration,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내레이터가 더빙하도록 컷, 썸, 시간이 표기된 원고)를 작성한다.

라디오작가는 라디오 편성에 따른 방송 운행표(라디오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각, 광고의 길이와 내용, 캠페인의 내용과 시간, 시각고지 등이 표시된 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를 파악한다. 라디오프로듀서와 함께 기획회의를 진행하여 코너, 큐시트, 패널, 청취자 참여 등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기획안(타이틀, 방송시간, 형식, 방송채널, 희망방송일시, 기획의도, 제작방향, 구성내용, 예상 아이템)을 작성한다. 기획안이 승인되어 프로그램 제작이 확정되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한다. 청취자 참여, 콩트, 음악코너, 경제코너 등 다양한 코너를 기획한다. 오프닝, 음악, 코너, 클로징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한다. 라디오 프로듀서와 함께 프로그램의 시그널, 타이틀, 로고, 큐시트를 만든다. 출연자를 섭외한다. 방송원고를 작성한다. 방송이 시작되면 스튜디오 밖에서 청취자 전화연결 등 방송진행을 보조한다. 라디오 방송의 종류에 따라 음악 토크 프로그램,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 편지쇼 프로그램, 라디오 공개방송, 라디오 다큐멘터리, 라디오 드라마 등의 구성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방송작가의 경우 제작진과의 회의, 방송 스케줄에 따라 방송사 내부의 작가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품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도서관을 비롯해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언제나 새로운 창작품을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타 직업인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시청률, 청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기도 한다.



되는 길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방송작가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다양한 작품과 작가를 분석하게 되고 습작훈련을 통해 문장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교육보다는 작가적 자질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 독서와 사색, 글쓰기 연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이밖에 각종 문화센터, 대학교 내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하는 작가양성과정을 통해 창작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자신의 문학적 소질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연극)영화과 등

| 적성 및 흥미 | 글로 이야기를 구성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한글을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국어문법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므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 언어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하고, 글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표현력과 문장력을 갖춰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력과 영상감각도 필요하다. 평소 방송소재 개발을 위해 역사적인 사건과 사회현상, 유행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고, 다양한 문화와 장르에 흥미를 가지면 작품 구상에 도움이 된다.

| 경력 개발 | 방송사의 작가 공채, 극본공모전, 인맥, 혹은 방송작가 양성 교육기관의 추천 등을 통하거나 자신이 담당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대본을 직접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안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방송사 공채나 작가 양성기관의 교육생 모집 시 전문대졸 이상자에 한해 모집하기도 한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진체계는 없다. 하지만 작가로서 인지도가 올라가면 높은 원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문학작품이나 작가양성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보조작가로 출발해 자료수집, 섭외 등을 맡다가 경력을 쌓아 메인작가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방송작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작가는 2019년 약 23천 명에서 2029년 약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지상파방송, 유선방송을 비롯한 방송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방송작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산업 매체별 사업자 수]

(단위 :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사업자 수	451	446	429	425	451	435	403	423	420	404
지상파방송	73	72	72	72	72	71	71	70	70	70
유선방송	194	191	172	161	157	143	139	136	132	123
위성방송	2	2	2	1	1	1	1	1	1	1
방송채널 사용사업	179	178	180	188	193	191	164	169	172	171
IPTV	3	3	3	3	3	3	3	3	3	3
IPTV 콘텐츠 제공 (CP)	-	-	-	-	25	26	25	44	42	3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조사 년도				방송직									
	전체	임원	경영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	용역 계약	기타
2010.12.	29,878	936	4,772	3,279	4,054	727	3,387	1,205	4,579	372	4,371	-	2,196
2011.12.	32,443	784	5,562	3,660	4,573	782	3,874	1,561	4,482	368	4,383	-	2,414
2012.12.	33,888	817	5,307	3,794	4,514	784	4,217	1,787	4,570	281	4,546	-	3,271
2013.12.	34,714	769	5,420	3,792	4,634	750	4,037	2,332	4,682	486	4,861	-	2,951
2014.12.	34,615	785	5,635	3,798	4,550	755	4,581	2,250	4,284	539	5,340	-	2,098
2015.12.	35,096	771	5,578	3,992	4,724	730	4,766	1,855	4,215	404	5,439	-	2,622
2016.12.	35,992	763	5,926	4,000	4,628	717	4,745	2,105	4,362	432	5,392	-	2,922
2017.12.	36,815	809	6,120	4,225	4,822	708	4,843	2,021	4,243	503	6,048	-	2,473
2018.12.	37,288	744	6,053	4,074	4,921	694	4,884	2,197	4,239	965	6,245	-	2,272
2019.12.	37,553	540	6,010	4,057	4,935	678	4,849	2,051	4,290	469	6,206	-	3,210

주1) '-' 표시는 해당연도의 조사항목에 없는 직종임

주2) 방송직의 '경영직'은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리/행정직'의 명칭 변경)

주3) 방송직의 제작 관련에는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출연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주4) 방송직의 기타에는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사업자 수는 2010년에 451개에서 2019년 404개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방송작가가 포함된 방송직 기타의 종사자 수는 2013년에 2,332명으로 최대였으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경쟁적 구조를 갖추면서 제작 방송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며 방송작가의 수가 증가했던 현상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개인이 콘텐츠가 되는 인터넷 방송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파 및 유선 방송에 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의 감소도 방송작가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인터넷 미디어 다양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개인 인터넷 방송 활성화

종합하면, 인터넷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중파 및 유선 방송, 라디오에 관한 관심이 줄고 있어, 향후 10년간 방송작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시인, 소설가, 영화시나리오작가, 카피라이터, 작사가, 게임시나리오작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1
- **관련 정보처** (사)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www.ktrwa.or.kr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04

번역가

번역가는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특정 언어로 작성된 문서, 보고서 또는 전문서적이나 영상물 등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하는 일

문학작품(문학번역), 영상물(영상번역), 전문서류(전문서류번역) 등 자신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으로 세분된 산업영역에서 전문적인 번역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문학번역에는 외국어로 된 소설, 시, 희곡, 수필 등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작품들의 번역뿐 아니라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문헌 번역도 포함된다. 영상번역은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만화, 뉴스 등 모든 장르의 영상예술에 쓰인 외국어를 해당 언어로 바꾸어 다시 녹음(더빙)하거나 자막용으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서류번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학술서적, 비즈니스 서류, 기획, 수출입 관련 무역서신, 제품설명서 등 각종 계약서 및 서류 등의 번역이다. 번역가는 문화, 정보, 이야기 등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다른 언어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번역 의뢰가 들어오면 번역할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작업을 시작한다. 외국 문학작품이나 영상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등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 전문서적의 경우에는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전이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번역문을 작성한다. 정해진 원고 외에도 편집자를 배려하기 위해 주석을 달기도 한다. 번역이 완료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나 번역의뢰 업체를 통해 전문용어에 대한 감수를 받고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누락되거나 잘못 번역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번역된 내용에 대한 수정과 보완, 교정 작업을 거쳐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 번역문을 완성한다.

번역가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 중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동한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는 상대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하며,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는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 비유법과 구어체 등의 표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업무 환경 | 대부분 프리랜서로 자신의 집, 혹은 번역전문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번역하기 때문에 별도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번역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이곳에서 별도 과업을 계약하고 번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문서의 경우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소요되며, 출판물이나 영상물의 경우 몇 개월 동안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길

번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은 없다. 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통역번역전문대학원이나 번역전문 교육기관에서 번역가로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년 과정의 전문대학원 번역학과에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해당 외국어를 완벽하게 쓰고 번역하기 위한 다양한 연습을 한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이해력과 구사력도 뛰어나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말의 문장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문학작품 번역의 경우 대학교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며 해당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야 하는 번역가의 특성상 오랜 해외체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번역 업무를 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경제·경영 등의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번역할 때는 전문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관련 학과 전공자가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 사설 교육기관의 경우 대개 3~6개월의 양성과정을 개설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번역 업무를 의뢰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미어·영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등 어문계열 학과, 국제지역학과, 번역학과(통역번역전문대학원) 등
- **관련 자격** 외국어 번역능력인정(번역능력인정시험/TCT) 1급/2급/3급((사)한국번역가협회), 외국어 번역행정사(행정자치부)

| 적성 및 흥미 |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분야를 번역할 때는 전문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글을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국어문법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고 언어에 대한 감각과 글로 잘 표현할 줄 아는 표현력, 문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경력 개발 | 번역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영상번역 분야의 경우 방송사에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외화,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을 번역하며, 문학번역의 경우도 출판사에서 적합한 프리랜서 번역가를 섭외하여 번역을 의뢰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각종 업무 관련 문서 및 서류를 전문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채용 과정에서는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하고 공인 외국어 성적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번역 작업을 알선하는 에이전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업무를 맡거나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번역을 의뢰받기도 한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그간의 번역 경력을 바탕으로 출판사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는 편이다. 이때 번역 경험 및 경력이 있는 문학작가가 번역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승진 체계는 없다. 다만, 번역가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으면 더 높은 번역료를 받게 되고 많은 일을 의뢰받을 수 있다. 또한 번역가로서 경력을 쌓은 후에는 독자적으로 번역회사를 창업하기도 하며, 번역가 알선 에이전시나 번역 관련 사설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번역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번역가 및 통역가는 2019년 약 33천 명에서 2029년 약 3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교류의 증가는 번역가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외국어 사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시킴으로써 번역가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문 번역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기업에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접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실무에서 기계 번역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번역 업무를 외부에 의뢰하는 일이 점차 줄어드는 점은 번역가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동번역 서비스가 확대·고도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번역가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계번역의 수준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 기계번역의 초벌 번역한 것을 편집하여 재번역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가의 일자리를 기계번역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영역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교류가 증가하면서 각국의 문학작품이나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들의 번역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계 번역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문 번역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가의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환경의 다매체 및 다채널화로 외국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위한 수입물이 늘고,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 교육 등 영상물이 꾸준히 제작되면서 번역업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학작품 번역의 경우, 일반 번역과는 달리 보다 전문적인 번역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동번역이나 인공지능 기술과는 별개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전문서류번역 역시 전문용어의 사용이나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경력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10년 364개소에서 2018년 674개소로 증가하고, 종사자 수도 2010년 1,505명에서 2018년 3,22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이 기업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인력의 운영 및 관리가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과거에

비해 번역료가 크게 줄고 번역알선회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수료를 제하는 부분은 번역가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업무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력 번역가를 중심으로 일이 주어지면서 신입 번역가의 진입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능력 위주로 평가받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번역능력과 지식을 고루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 문화, 예술, 문학 등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척해 특정 분야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경력개발 태도가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364	432	462	455	487	530	557	605	674
종사자 수	1,505	1,780	2,265	2,330	2,579	2,713	2,792	2,799	3,22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외국어 사용 글로벌 인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자동 번역서비스 발달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글로벌 인재 채용 경향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방송산업 환경 변화 및 콘텐츠 수출입 증가에 따른 번역업무 증가 • 번역가의 전문 영역 강조 경향	

종합하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동번역 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는 단순 번역 업무를 감소시키는 대신 고도의 전문 번역영역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번역가의 고용을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번역시장 위축으로 번역업무와 종사자가 감소한 상황이어서 특정 업무와 경력자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번역가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통역사, 출판물기획자, 출판물편집자, 평론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4
- **관련 정보처** (사)한국번역가협회 (02)725-0506 www.kstinc.or.kr
(사)한국통번역사협회 (02)2173-3977 www.i-kati.or.kr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02)2173-2435 gsit.hufs.ac.kr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02)3277-3662 gsti.ewha.ac.kr

05

통역사

통역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 언어를 상대 언어로 바꾸어 전달한다.



하는 일

통역사는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서로의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한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가 모여 중요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회의, 협상, 세미나 등의 자리에서 외국어로 정확하게 의사소통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통역사는 국제회의통역사(Conference Interpreter), 수행통역사(Escort Interpreter), 통역가이드(Guideline Interpreter) 등으로 활동한다. 국제회의통역사는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행사 등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 통역하므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 수행통역사는 의뢰인이 이동하는 장소를 따라다니며 통역하는데, 주로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입국하면 이들과 일정을 함께 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하는 일을 담당한다. 통역가이드는 외국관광객에게 관광지를 안내하며 통역한다. 이외에 법정에서 외국인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나 검사 등의 심문내용을 외국어로 통역하는 일을 맡아 하는 법정통역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통역도 점차 전문화되어 정보기술(IT), 경제, 정치, 의학 등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료통역사의 경우,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언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통역은 크게 동시통역과 순차통역, 위스퍼링 통역으로 나뉜다. 국제회의나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동시통역은 보통 2명이 한 팀을 이뤄 진행하며, 별도로 마련된 통역부스 안에서 발표자가 하는 말을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즉각적으로 통역한다. 이때 청중은

수신기를 통해 통역내용을 듣는다.

동시통역을 하는 사람은 양쪽 언어가 모국어 수준의 능통한 경지에 이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주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흔히 동시통역사로 불리는 전문 통역사는 국제회의통역사를 말한다.

순차통역은 발표자가 연설을 하면 연설 내용을 재빨리 기록한 후 바로 말을 이어 자신이 발표하듯 청중을 향해 통역하는 것이다. 이때 발표자는 통역을 고려하여 적당한 길이로 말을 끊어서 하게 된다. 동시통역사는 통역 부스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얼굴을 볼 수 없는 반면, 순차통역은 공개석상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옷차림과 용모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위스퍼링(Whispering) 통역은 말 그대로 속삭이듯 귓속말로 통역하는 것을 말한다. 듣는 사람의 수가 소수일 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발표자의 연설을 이해하였더라도 참석자 중 한두 명이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상황을 파악한 통역사가 그 사람에게 따로 귓속말 통역을 해준다.

그 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화상으로 회의할 때 위성중계 화면을 보고 통역을 하는 원격통역, 여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국제회의에서 한 번 통역한 내용을 다시 다른 언어로 옮겨 통역하는 릴레이 통역 등이 있다.

| 업무 환경 | 통역 목적, 회의 규모 등에 따라 근무시간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국제회의의 경우 보통 아침 9시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 강도가 세며, 발표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이다. 수행통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온종일 외부에서 이동하며 통역을 하거나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통역사는 국제회의, 세미나 등이 많이 열리는 봄, 가을에 특히 분주하고,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되는 길

통역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외국어에 대한 남다른 흥미와 구사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회의 통역의 경우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을 수료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통역번역대학원의 통역학과에서는 영어, 중국어, 불어, 일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공부하며 동시통역, 순차통역, 위스퍼링 통역 등 다양한 통역방법의 실무를 비롯해, 정치, 경제,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게 된다. 통역번역대학원은 입학시험도 까다롭고 입학 후 학습강도도 센 편이다. 취업준비생들 가운데서는 이들 대학원을 목표로 전문입시학원에서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한편, 통역사는 모국어, 즉 우리말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외국어 실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읽어 전문지식을 쌓고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미어·영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등 어문계열 학과, 국제지역학과, 통역학과(통역번역대학원) 등

| 적성 및 흥미 |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 한글을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국어문법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도 중요하다.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므로 평소 책 많이 읽어 언어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하고,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할

줄 아는 표현력과 문장력을 갖춰야 한다. 해당 언어 사용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고, 특정 분야를 통역할 때는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평가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통역번역대학원 졸업 후 학교나 선배 추천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통역알선 전문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하기도 한다.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공채를 거쳐 전담 통역담당자로 채용된다.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므로 특별한 승진체계는 없다.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높은 통역료를 받게 된다. 대개 30대 후반 정도까지 통역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이후에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번역가로 활동하거나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한다. 무역회사, 외국계 회사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통역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번역가 및 통역가는 2019년 약 33천 명에서 2029년 약 3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화로 경제교류가 늘어나면서 통역사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 학교 등에서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어 통역이 중요해지면서 영어를 중심으로 통역사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10년 364개소에서 2018년 674개소로 증가하고, 종사자 수도 2010년 1,505명에서 2018년 3,22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이 기업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인력의 운영 및 관리가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364	432	462	455	487	530	557	605	674
종사자 수	1,505	1,780	2,265	2,330	2,579	2,713	2,792	2,799	3,22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전 세계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국어뿐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전문 통역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와 중국어뿐 아니라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국제교류 대상국이 다양화되는 점도 통역가의 활동무대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 연속 2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국제협회연합 'UIA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15년 891건, 2016년 997건, 2017년 1,29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MICE 산업발전 방안이 추진되고 과학기술 발전 등과 관련해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 분야의 포럼,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면서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통역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교류의 증가는 반대급부로 외국어 사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수를 늘리는 역할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내에서는 별도의 통역사를 두지 않고 내부 직원에게 통역 업무를 맡기거나 아예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실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별도의 통역이 필요했던 업무들이 줄어드는 점은 통역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번역서비스의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통역서비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 등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의 발전 속도 및 혁신성 등은 장기적으로는 통역사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역사는 시간 대비 소득이 높은 편이고, 전문직으로 자기개발을 꾀할 수 있는 등 직업적 장점으로 인해 지망생들도 많은 편이다. 매년 통역번역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에 향후 통역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직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통역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련 방송이나 책자를 자주 접하는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속적으로 공부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회의 통역사는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이슈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외국어 사용 글로벌 인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과학기술 발전 공유사례 확대	• 자동 통역 서비스의 발전 • 과학기술 발전 속도 및 혁신성
국내외 경기	• 국제이슈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글로벌 인재 채용 경향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국제회의 개최 건수 증가	
환경과 에너지	• 관련 주제 국제회의·세미나·포럼 개최	
법·제도 및 정부정책	• MICE 산업발전 방안 추진	

종합하면,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른 각종 국제회의 및 포럼, 세미나 등이 활발해지면서 통역사의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통역서비스의 자동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통역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번역가, 의료통역사, 출판물기획자, 출판물편집자, 평론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4
- **관련 정보처** 한국통번역사협회 (02)2173-3977 www.i-kati.or.kr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02)2173-2435 gsit.hufs.ac.kr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02)3277-3662 gsti.ewha.ac.kr

06

출판물기획자

출판물기획자는 독자의 요구에 맞는 주제와 내용의 출판물을 기획, 편집, 제작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하는 일

출판물기획자의 업무는 크게 기획과 편집에 관련된 일과 기획안을 바탕으로 책을 제작하는 일, 홍보 및 마케팅 등으로 나뉜다.

먼저 기획과 편집 업무를 살펴보면, 새로운 출판물을 기획하기 위해 최근의 출판 경향 및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과 시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출판사의 특성, 시장성, 타 출판물과의 차별성, 최근 경향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획안을 작성한다. 출판물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기획이 끝나면 이에 적합한 필자를 선정하거나 외부 필자가 의뢰한 원고를 검토한다. 또 완성된 원고의 수정, 보완에도 관여한다. 이처럼 기획·편집자라고 해도 아이디어 발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다음은 책을 제작하는 일이다. 원고가 완성되면 책의 편집 및 디자인 방향을 정하며, 편집을 비롯해 제본 및 인쇄 과정까지 책임자가 되어 관리한다. 우선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편집과 디자인의 방향을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표지디자인 작업과 본문의 종이, 디자인을 결정하는 등 제작 전 과정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또한 출판일자, 판권, 인쇄 부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자 및 출판업자와 상의한다.

출판된 후에는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세워 본격적인 마케팅 방향을 결정하고, 언론에 배포할 보도 자료와 광고 문안을 작성한다. 인터넷 서점이 보편화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실질적인 책의 제작뿐 아니라 마케팅 영역의 업무가 출판물기획자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업무 환경|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지만, 책의 기획 단계나 책이 출간될 시기에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다. 주로 사무실 내에서 하는 일이 많으나 시장조사와 제작, 책의 홍보활동, 필자와의 만남 등을 위해 외부 출장을 나가기도 한다.

일의 성격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끝내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며, 한 번에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해야 하는 까닭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대학에 출판미디어학과가 생기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문학과 및 어문계열 전공자들이 진출하는 편이다.

책이 출간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입사해 어느 정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기간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공자나 출판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관련 협회의 아카데미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판 기획 및 편집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마케팅 능력과 기획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 마케팅, 광고 등의 관련 지식을 쌓아 두어야 한다. 책의 편집과 디자인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출판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거나 워드프로세서를 비롯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외국의 선례를 찾아야 하는 업무도 많은 편이어서 영어 등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문학 관련 학과, 문예창작과, 사학과, 철학과 등 인문학 관련 학과, 출판미디어과, 경영학과, 광고학과, 홍보학과 등

|적성 및 흥미| 출판환경에 대한 이해와 책에 대한 애정, 무엇보다 출판물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한 책을 보고 직접 책을 기획해 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독창성, 창의력이 필요하며,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 요구된다. 출판물의 표지뿐만 아니라 편집 등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하므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쇄 및 배포 일정에 맞춰 작업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경력 개발| 출판 관련 회사의 경우 필요한 인력이 발생하면, 홈페이지나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를 내며 상시 채용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채용은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로 출판사, 출판기획 전문회사, 잡지사 등에서 활동하며, 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체 홍보실이나 광고대행사, 방송국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출판사에 신입으로 입사한 경우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출판 편집 업무, 홍보 및 마케팅 업무 등을 먼저 경험하며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출판기획의 일을 맡을 수 있다. 출판기획에 대한 경력이 쌓이면 독자적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출판물기획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출판물기획자가 포함된 출판물 전문가는 2019년 약 23천 명에서 2029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0천명(연평균 -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산업은 종이책 중심의 독서인구 감소와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산업의 정체 및 후퇴를 맞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2017)에 따르면,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2012년 6,222개에서 2019년 7,930개로 최근 8년간 1,708개(연평균 약 3.92%) 증가하였으나, 총출판사 수 대비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2012년 14.76%에서 2019년 12.59%로 최근 8년간 2.17%p 감소하였다.

[연도별 출판사 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개)	6,222	5,740	6,131	6,414	7,209	7,775	8,058	7,930
구성비(%)	14.76	13.00	13.05	12.78	13.46	13.60	13.59	12.59
무실적 출판사 수(개)	35,935	38,408	40,851	43,764	46,365	49,378	51,248	55,053
총출판사 수(개)	42,157	44,148	46,982	50,178	53,574	57,153	59,306	62,983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KPIPA 출판산업 동향(2019 하반기) - 통계 및 심층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7). KPIPA 출판산업 동향(2016 하반기) - 통계 및 심층분석. 재구성

하지만 콘텐츠의 구현 방식이 인쇄 형태에서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며 출판산업 내 지형이 재편되고 있고 향후 온라인 전자출판 서비스와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콘텐츠를 기획하고 편집, 관리하는 출판물기획자의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출판업의 사업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기타(유통)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09년 4만 6,104명에서 2018년 5만 2,417명으로 최근 10년간 6,313명(연평균 약 1.52%) 증가하였다.

[출판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13,038	13,695	14,295	14,639	14,587	14,857	15,015	15,272	15,537	15,681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	0	1,325	1,471	1,528	1,645	1,737	1,924	2,080	2,292
신문 발행업	16,937	16,563	16,521	16,731	16,495	16,692	16,621	17,124	17,284	17,521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9,425	9,478	9,492	9,508	9,329	9,456	9,411	9,854	10,079	10,48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526	5,487	5,441	5,242	5,173	5,129	5,084	5,103	5,151	5,247
기타 인쇄물 출판업	1,178	1,022	1,039	1,034	1,035	1,065	1,094	1,143	1,166	1,194
합계	46,104	46,245	48,113	48,625	48,147	48,844	48,962	50,420	51,297	52,4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즉, 기존의 출판콘텐츠가 생산되는 산업 형태는 유지되겠지만, 출판콘텐츠가 유통되고 사용되는 형태는 종이책이 아닌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영역이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앞으로는 종이책 출판만을 기획하는 형태가 아닌 영화, 드라마, 웹툰, 교육용 영상, 유아용 영상 등과 같은 다른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출판콘텐츠의 제작이 중요하게 평가되면서 기존의 종이책 중심 출판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나의 출판콘텐츠로 다양한 매체 활용 및 제작을 할 수 있는 중소규모 이상의 출판사 성장이 출판업계를 이끌고 이를 중심으로 출판물기획자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에서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므로 경력자 위주의 채용이 더 강화되고, 신입 기획자나 편집자의 진입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출판 형태가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해와 미적 감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출판콘텐츠에 대한 기획력과 소비자 트렌드를 읽는 감각,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출판물기획자에 대한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인구 감소 • 스마트폰 사용 증가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구현 방식의 디지털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등 다른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출판 콘텐츠 제작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자출판 서비스와 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실적 출판사 수 증가

종합하면, 종이책 중심의 독서인구 감소 등으로 출판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출판콘텐츠 구현 방식이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역량을 갖춘 출판물기획자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출판물편집자, 만화출판기획자, 편집장, 출판마케터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2
- **관련 정보처** 대한출판문화협회 (02)733-8402 www.kpa21.or.kr
한국출판인회의 (02)3142-2333 www.kopus.org

07

신문기자

신문기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신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편집한다.



하는 일

신문기자는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정치 현장, 범죄·화재·교통 사고현장, 체육경기장 및 각종 전시회 등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을 취재한다. 관찰,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건·사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독자 제보를 받거나 경찰서, 각 정부부처 등에 출입하면서 해당 기관과 관련한 뉴스, 인물 등을 취재하고, 기사화될 만한 것을 직접 찾아내 심층 취재를 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할 때도 있다.

각 신문사는 일반적으로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국제부, 체육부 등으로 취재 분야가 나뉘어 있어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한다. 취재 분야가 전문화되어 스포츠, 연예, 의료, 정보통신, 환경, 과학기술, 기상 등 특정 분야의 전문기자로 활동하기도 한다. 스포츠기자는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를 관전하고 선수 인터뷰나 경기 결과를 기사화하여 전송하며, 연예기자는 연예 관련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화한다. 또 의학 분야의 특성상 취재 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방송사 및 신문사에는 의학전문기자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기자 중에서는 해외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각종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도 있다.

신문기자는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입증된 기사내용을 편집 형태와 기준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 신문사 사무실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도 있지만 신속한 기사 제공을 위하여 대부분 취재 현장에서 마감 시간에 늦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사로 보낸다.

신문기자는 어떠한 현상 혹은 기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개인, 기관 혹은 기업의 입장을 밝히고 해설하기도 한다.

신문사에는 기자들이 취재하여 보내온 기사 내용을 점검하고 신문에 나오기 적합하게 편집하는 편집기자가 별도로 있다. 편집기자는 여러 명의 기자가 취재해 온 내용을 파악하고, 보도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자료를 수집하여 기사 내용을 다듬는다. 각 지면(사회, 문화, 경제 등)에 맞도록 기사를 분류하고,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의 분량을 정하고, 기사, 사진, 관련 자료 등을 지면에 할당하고, 기사제목을 수정하여 정리한다.

이 외에도 언론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띄운 유용한 국내외 기사를 읽고 편집하기도 하며, 통신장비를 통하여 입수된 외국의 보도자료를 번역하여 기사로 작성하기도 하며, 국내의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 언론사나 영자신문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신문에 게재하기 위하여 뉴스, 스포츠, 연예 또는 흥미를 끌 만한 사건·장소·인물·기타 장면을 사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진기로 촬영하여 기사의 현장감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사진기자도 있다.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사고 현장 및 장소를 찾아가거나 편집국 소속 기자의 요청에 의해 촬영 일정을 수립한다. 사건·사고의 전개과정이나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정하고, 기사나 정보의 순서 등에 맞게 사진을 편집한다. 편집한 사진을 편집부에 제공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등 어느 한 분야의 사진 촬영만을 전문으로 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신문기자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가서 취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 정해진 인터뷰가 밤에 있거나 이례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 야간에 진행되거나, 야간에 갑자기 소집된 정당들의 긴급 회의나 의원총회가 있을 수 있으며, 시위를 취재하는 경우에는 시위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시위 종료 때까지 현장기자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재와 기사 작성을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잦다. 스포츠기자는 경기가 대부분 야간과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을 거의 경기장에서 보낸다. 기사 마감시간, 타 언론사와의 취재 경쟁, 특종과 기사 아이디어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사고 등으로 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한다.



되는 길

채용 시 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방송학이나 언론정보학을 전공하면 기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신문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반드시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취재하고 싶은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치부 기자라면 정치학과를, 경제부 기자라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나오는 것이 사전지식이나 취재원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 경제신문이나 전문지의 경우는 더하다.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사 입사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론사 입직의 경우, 여전히 언론고시라 불릴 정도로 준비기간이 길고 입직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신문사의 입사시험은 신문사마다 전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①서류전형, ②필기시험, ③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신문사에 따라 실무평가, 토론, 추가 면접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점 등 응시자의 기본 인적·학력사항을 평가하고, 필기시험은 논술, 작문, 상식 등이 포함되는데, 시험 주제와 형식은 언론사별·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시사문제와 관련한 특정 주제를 주고 발표를 하게 하거나 기사 작성을 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신문사들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턴기자로 근무하게 하고

평가하여 정규직 기자로 채용하기도 한다.

경력직 기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은 신입 기자의 입직을 어렵게 한다. 다만, 요즘은 카드뉴스, 영상뉴스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면서 미디어 플랫폼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기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또한 뉴스 취재 및 소재 수집경로가 현장 취재나 취재원, 보도자료 등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다면 신입의 경우도 경쟁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관련 학과** 모든 전공(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적성 및 흥미] 신문기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견 없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창시절 논술반, 신문반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신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여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사회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기자는 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정의감, 공정성 등도 요구된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능숙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사건·사고가 나면 현장에 바로 취재를 가야 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므로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터넷신문의 편집기자는 인터넷의 구조나 웹 관련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경력 개발] 평기자로 10년 이상을 보낸 후 ‘차장→부장→부국장→편집국장’ 등의 단계를 거쳐 승진한다. 국장 이후 임원급으로 승진하기도 한다. 지방지, 소규모 신문·잡지사 기자의 경우 경력을 쌓아 방송기자나 주요 일간지 신문기자로 옮기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신문기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2019년 약 26천 명에서 2029년 약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2019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2018년 종이신문 기자는 1만 5,050명, 인터넷신문 기자는 1만 1,163명이 종사하였다.

[언론매체별 매체사 및 기자직 수]

(단위 : 개,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체사 수	기자직 수	매체사 수	기자직 수	매체사 수	기자직 수	매체사 수	기자직 수	매체사 수	기자직 수
전국종합일간 I	11	2,400	11	2,298	11	2,294	11	2,615	11	2,594
전국종합일간 II	15	431	16	460	18	492	19	499	17	520
지역종합일간	107	4,135	106	3,983	119	4,296	122	4,566	116	3,839
경제일간	13	1,851	14	1,945	12	1,423	12	1,763	13	1,922
스포츠일간	4	165	4	180	5	221	5	207	5	257
외국어일간	2	82	2	82	2	82	2	79	2	79
기타전문일간	17	425	22	504	22	500	24	467	26	507
무료일간	2	44	2	44	2	44	2	46	2	35
일간 소계	171	9,533	177	9,496	191	9,351	197	10,242	192	9,753
전국종합주간	31	328	33	383	32	357	31	343	30	344
지역종합주간	554	2,152	528	1,963	535	2,037	529	1,827	553	1,861
전문주간	558	3,179	604	3,150	665	3,370	672	2,788	709	3,092
주간 소계	1,143	5,659	1,165	5,496	1,232	5,764	1,232	4,958	1,292	5,297
종이신문 소계	1,314	15,192	1,342	14,992	1,423	15,115	1,429	15,200	1,484	15,050
오프라인 기반 인터넷신문	-	-	642	3,190	633	3,192	595	3,342	547	2,927
온라인 기반 인터넷신문	-	-	2,125	7,769	1,971	7,560	2,201	9,150	2,353	8,236
인터넷신문 소계	2,332	9,363	2,767	10,959	2,604	10,752	2,796	12,492	2,900	11,163
신문합계	3,646	24,555	4,109	25,951	4,027	25,867	4,225	27,692	4,384	26,213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2019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7), 2017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2016 한국언론연감

신문기자는 2009년 1만 8,319명에서 2018년 2만 6,213명으로 10년간 7,894명이 증가했는데, 인터넷신문 기자 수는 6,580명 증가하였고, 종이신문 기자는 1,314명이 증가하여 기자 수의 증가는 인터넷신문 기자의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뉴스매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해당 분야 기자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의 관심 영역이 여러 방면으로 확장되고, 뉴스 소비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소수계층을 타깃으로 한 전문 뉴스 콘텐츠 제공 방식이 증가할 전망이다.

[종이·인터넷신문 기자직 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기자직 수 합계	종이신문 기자직 수	인터넷신문 기자직 수
2018년	26,213	15,050	11,163
2017년	27,692	15,200	12,492
2016년	25,867	15,115	10,752
2015년	25,951	14,992	10,959
2014년	24,555	15,192	9,363
2013년	23,056	15,055	8,001
2012년	22,458	15,041	7,417
2011년	21,482	15,248	6,234
2010년	19,756	14,480	5,276
2009년	18,319	13,736	4,583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2019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7), 2017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2016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2015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4), 2014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3), 2013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2), 2012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1), 2011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2010 한국언론연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계가 재편되면서 언론사들도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과 온라인 체제를 강화하고, 모바일 기기 및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연계해 기사를 제공하는 등 독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매체의 난립 및 경쟁 심화,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의 광고비 삭감, 언론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신문 및 잡지구독률 저하 등으로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T와 미디어의 융합으로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취재기자가 편집과 사진촬영, 영상제작까지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화상 생중계로 취재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직군의 융합 현상은 기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 저널리즘 등이 등장하면서 통계분석 기사를 비롯해 스포츠, 금융, 과학, 기상 등의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기자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은 기자의 고용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온라인 매체가 증가하고, 사회구성원의 관심 분야와 욕구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신문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취재가 가능한 과학기술, 의학, 법률, 환경 등의 전문기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의 관심영역 확대 • 뉴스 소비패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잡지 구독률 저하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활성화에 따른 기사 작성과 배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와 미디어 융합에 따른 취재부담 감소로 인한 인력감축 • 로봇저널리즘 등장 등
국내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위축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분야 심층취재 기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비 삭감 및 구조조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산업 환경 변화 • 방송채널 사용사업 시장 확대 • 인터넷 기반 뉴스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난립 및 경쟁 심화

종합하면, 방송 및 출판 환경이 변화하고 디지털 매체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사 작성과 배포 등이 활발해지면서 기자들의 수행업무와 주요 역할이 변할 것으로 보이며, 기사 유통경로가 확대 다양화되면서 향후 10년간 기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방송기자, 사진기자, 잡지기자, 촬영기자, 취재기자, 편집기자, 신문제작국장, 뉴스 프로듀서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3
- **관련 정보처** 한국언론진흥재단 (02)2001-7114 www.kpf.or.kr
한국신문협회 (02)733-2251 www.presskorea.or.kr
한국기자협회 (02)734-9321 www.journalist.or.kr
한국편집기자협회 (02)732-1267 www.edit.or.kr
한국인터넷기자협회 (070)4411-5452 www.kija.org

08

방송기자

방송기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TV방송 혹은 라디오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편집한다.



하는 일

방송기자는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정치 현장, 범죄·화재·교통 사고현장, 체육경기장 및 각종 전시회 등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을 취재한다. 관찰,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건·사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독자 제보를 받거나 경찰서, 각 정부부처 등에 출입하면서 해당 기관과 관련한 뉴스, 인물 등을 취재하고, 기사화될 만한 것을 직접 찾아내 심층 취재를 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할 때도 있다.

각 방송사는 일반적으로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국제부, 체육부 등으로 취재 분야가 나뉘어 있어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한다. 취재 분야가 전문화되어 스포츠, 연예, 의료, 정보통신, 환경, 과학기술, 기상 등 특정 분야의 전문기자로 활동하기도 한다. 스포츠기자는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를 관전하고 선수 인터뷰나 경기 결과를 기사화하여 전송하며, 연예기자는 연예 관련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화한다. 또 의학 분야의 특성상 취재 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방송사 및 신문사에는 의학전문기자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기자 중에서는 해외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각종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도 있다.

방송기자는 취재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평가받고, 취재 승인을 받으면 일정을 잡아 촬영기자, 뉴스 오디오맨과 한 팀이 되어 사건·사고 현장으로 취재를 간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입증된 기사내용을 편집 형태와 기준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 취재 후

방송시간에 맞춰 방송국으로 촬영테이프를 보내 방송할 수 있게 한다.

취재기자와 한 팀이 되어 기사를 만드는 촬영기자(카메라기자)는 촬영기술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방송카메라를 사용하여 각종 취재 대상을 촬영한다. 촬영감독, 취재기자 등과 협의하여 촬영 또는 취재 목적에 적합하게 화면의 배열을 결정한다. 방송프로듀서(방송연출가) 또는 촬영감독의 지시에 따라 화면의 노출조절, 촬영대상과 카메라의 움직임, 촬영대상과의 거리변경, 기타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촬영대상을 촬영한다. 촬영이 완료되면 필름에 촬영일시 및 장면 등을 기록한다. 촬영장비를 점검하고 파손된 장비를 수리하기도 한다. 촬영이 끝난 필름을 방송연출가 또는 편집기사와 함께 편집하기도 한다. 항공 및 수중촬영용 특수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방송기자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가서 취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 정해진 인터뷰가 밤에 있거나 이례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 야간에 진행되거나, 야간에 갑자기 소집된 정당들의 긴급 회의나 의원총회가 있을 수 있으며, 시위를 취재하는 경우에는 시위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시위 종료 때까지 현장기자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재와 기사작성을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잦다. 스포츠기자는 경기가 대부분 야간과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을 거의 경기장에서 보낸다. 기사 마감시간, 타 언론사와의 취재 경쟁, 특종과 기사 아이디어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사고 등으로 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한다.



되는 길

방송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파(KBS, MBC, SBS), 종합편성채널(TV조선·채널A·MBN·JTBC), 보도채널(YTN, 연합뉴스), 종합유선방송, 지역민영방송 등의 방송국 등에 입사해야 한다.

채용 과정은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고 매년 전형이 바뀌지만, 일반적으로 ① 서류심사 ② 필기시험(논술, 작문 등 서술형과 상식 등 단답형) ③ 실무면접(카메라테스트 등) ④ 심층면접 ⑤ 최종면접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채용 시 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기자의 경우, 학력을 전혀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나 전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TOEIC, TEPS, TOEFL과 같은 공인영어 시험성적을 응시자격으로 두는 곳이 많다. 신문방송학이나 언론정보학을 전공하면 기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송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반드시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취재하고 싶은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치부 기자라면 정치학과를, 경제부 기자라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나오는 것이 사전지식이나 취재원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 최근 방송사에서는 신입 기자 채용 대신 경력직 기자들을 채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 **관련 학과** 모든 전공(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 적성 및 흥미 | 기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견 없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창시절 논술반, 신문반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정의감, 공정성 등이 요구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사건·사고가 나면 현장에 바로 취재를 가야 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므로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촬영기자의 경우 시력과 색각 이상 여부가 채용 요건에 포함되기도 하므로, 건강한 시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력 개발] 신입기자는 언론사에 따라 3~6개월 정도의 '수습기자' 기간을 거치면서 기자의 기본 업무를 배운다. 평기자로 10년 이상을 보내게 되며 '차장→부장→부국장→보도국장' 등의 단계를 거쳐 승진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방송기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2019년 약 26천 명에서 2029년 약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2019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2018년 방송 기자직은 3,455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805명(30.4%)이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는 주로 종편·보도채널의 방송기자 수의 증가에서 기인하였다.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방송 기자직수	공영방송	민영방송	종교/ 특수방송	종편·보도 채널	지상파DMB
2018년	3,455	1,578	575	281	1,021	-
2017년	3,511	1,634	561	279	1,037	-
2016년	3,291	1,492	559	256	984	-
2015년	3,289	1,534	555	244	947	9
2014년	3,140	1,445	516	285	894	-
2013년	3,096	1,442	548	243	863	-
2012년	3,096	1,460	554	242	840	-
2011년	3,071	1,484	581	230	776	-
2010년	2,626	1,410	593	209	414	-
2009년	2,650	1,448	594	201	407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2019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7), 2017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2016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2015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4), 2014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3), 2013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2), 2012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1), 2011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2010 한국언론연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계가 재편되면서 언론사들도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과 온라인 체제를 강화하고, 모바일 기기 및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연계해 기사를 제공하는 등 독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매체의 난립 및 경쟁 심화,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의 광고비 삭감, 언론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신문 및 잡지구독률 저하 등으로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T와 미디어의 융합으로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취재기자가 편집과 사진촬영, 영상제작까지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화상 생중계로 취재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직군의 융합 현상은 기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 저널리즘 등이 등장하면서 통계분석 기사를 비롯해 스포츠, 금융, 과학, 기상 등의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기자의 업무를 대체될 것이란 전망은 기자의 고용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온라인 매체가 증가하고, 사회구성원의 관심 분야와 욕구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신문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취재가 가능한 과학기술, 의학, 법률, 환경 등의 전문기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는 발 빠르게 취재를 다녀야 하는 일의 특성상 30대의 젊은 인력이 많고, 보통 40대 이상이 되면 취재업무보다는 관리직으로 이동하거나 타 분야로 이·전직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취재 활동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맥을 많이 쌓아 기업체 홍보나 광고 및 홍보 대행사, 출판사 등으로 이·전직하는 사례도 있다. 언론사 입직의 경우, 여전히 언론고시라 불릴 정도로 준비기간이 길고 입직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더욱이 갈수록 3~5년 정도의 경력직 기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은 신입 기자의 입직을 어렵게 한다. 다만, 요즘은 카드뉴스, 영상뉴스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면서 미디어 플랫폼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기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또한 뉴스 취재 및 소재 수집경로가 현장취재나 취재원, 보도자료 등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다면 신입의 경우도 경쟁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의 관심영역 확대 뉴스 소비패턴 변화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매체 활성화에 따른 기사 작성과 배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와 미디어 융합에 따른 취재부담 감소로 인한 인력감축 로봇저널리즘 등장 등
국내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위축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분야 심층취재 기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비 삭감 및 구조조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산업 환경 변화 방송채널 사용사업 시장 확대 인터넷 기반 뉴스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매체 난립 및 경쟁 심화

종합하면, 방송 및 출판 환경이 변화하고 디지털 매체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사 작성과 배포 등이 활발해지면서 기자들의 수행업무와 주요 역할이 변할 것으로 보이며, 기사 유통경로가 확대 다양화되면서 향후 10년간 기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사진기자,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기자, 취재기자, 신문제작국장, 뉴스프로듀서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3
- **관련 정보처** 한국언론진흥재단 (02)2001-7114 www.kpf.or.kr
한국신문협회 (02)733-2251 www.presskorea.or.kr
한국기자협회 (02)734-9321 www.journalist.or.kr
한국편집기자협회 (02)732-1267 www.edit.or.kr
한국인터넷기자협회 (070)4411-5452 www.kija.org

09

잡지기자

잡지기자는 잡지에 실을 정보를 수집·기획·취재하며, 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하는 일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 잡지기자는 시사잡지, 여성잡지, 레저 관련 잡지 등 특정 분야를 주로 다루는 잡지사에 소속되어 주간, 월간, 분기별로 발간되는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여 취재하고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독자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과 소제목을 뽑고, 원고를 교정하고 전반적인 편집방향을 결정한다. 규모가 있는 잡지사의 경우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 등이 별도로 있으나 소규모 잡지사에서는 소수의 기자가 이런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기자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고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가서 취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스포츠기자는 경기가 대부분 야간과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을 거의 경기장에서 보낸다. 기사 마감시간, 타 언론사와의 취재 경쟁, 특종과 기사 아이디어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사고 등으로 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한다.



되는 길

채용 시 방송사나 신문사의 경우 대졸 이상, 잡지사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을 만나 취재하고 인터뷰하기 때문에 유창한 언변과 대화능력이 있어야 하며,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작문실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언변, 글쓰기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신문의 편집기자는 인터넷의 구조나 웹 관련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전문기자라 하여 의학, 법학, 문학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기사를 뽑기도 하는데, 전문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관련 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학과 등

| 적성 및 흥미 | 기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견 없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창시절 논술반, 신문반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정의감, 공정성 등이 요구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사건·사고가 나면 현장에 바로 취재를 가야 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므로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경력 개발 | 경력을 쌓아 방송기자나 주요 일간지 신문기자로 옮기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잡지기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2019년 약 26천 명에서 2029년 약 2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8)에 따르면, 2017년 잡지기자 종사자 수는 2,898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12년, 2010년 조사 시점의 모집단에 따라 기자의 종사자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2018년의 잡지기자의 수는 최근 10년 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산업 기자직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기자(기획/취재) 종사자 수	발행종수별 기자(기획/취재) 종사자 수		
		1종	2종	3종 이상
2017년	2,898	1,960	446	492
2014년	6,894	6,231	400	263
2012년	5,411	3,806	1,038	567
2010년	4,223	3,253	472	498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잡지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2015 잡지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13), 2013 잡지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11), 2011 잡지산업 실태조사

반면, 잡지의 발행부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047부에서 2017년 8,113부로 약 34.1% 증가하였다.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단위 : 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월간	3,936	4,209	4,512	4,696	4,905	5,046	4,983	4,977
격월간 이하	2,111	2,275	2,416	2,560	2,711	2,853	2,954	3,136
합계	6,047	6,484	6,928	7,256	7,616	7,899	7,937	8,113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잡지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2015 잡지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2013 잡지산업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계가 재편되면서 언론사들도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과 온라인 체제를 강화하고, 모바일 기기 및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연계해 기사를 제공하는 등 독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매체의 난립 및 경쟁 심화,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의 광고비 삭감, 언론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잡지구독률 저하 등으로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T와 미디어의 융합으로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취재기자가 편집과 사진촬영, 영상제작까지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화상 생중계로 취재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직군의 융합 현상은 기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 저널리즘 등이 등장하면서 통계분석 기사를 비롯해 스포츠, 금융, 과학, 기상 등의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기자의 업무를 대체될 것이란 전망은 기자의 고용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온라인 매체가 증가하고, 사회구성원의 관심분야와 욕구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신문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취재가 가능한 과학기술, 의학, 법률, 환경 등의 전문기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의 관심영역 확대 • 뉴스 소비패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 구독률 저하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활성화에 따른 기사 작성과 배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와 미디어 융합에 따른 취재부담 감소로 인한 인력감축 • 로봇저널리즘 등장 등
국내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위축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 심층취재 기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비 삭감 및 구조조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반 뉴스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난립 및 경쟁 심화

종합하면, 디지털 매체 활성화에 따른 기사 작성과 배포 기회가 확대되고, 전문잡지 분야의 심층취재 기자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잡지구독률이 감소하고 디지털 매체 난립 및 경쟁 심화, 로봇저널리즘 등장 등으로 향후 10년간 잡지기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방송기자, 사진기자, 신문기자, 촬영기자, 편집기자, 취재기자, 편집기자, 신문제작국장, 뉴스프로듀서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13
- **관련 정보처** 한국언론진흥재단 (02)2001-7114 www.kpf.or.kr
한국기자협회 (02)734-9321 www.journalist.or.kr

10

학예사(큐레이터)

학예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준비·관리하고, 소장품에 대한 관리와 연구를 수행한다.



하는 일

학예사(학예연구사, 큐레이터, Curator)의 핵심업무는 전시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학예사가 하는 일은 크게 전시기획, 전시준비, 전시관리, 전시마무리로 나눌 수 있다.

전시기획 업무는 전시목적, 전시유형, 전시규모, 전시장소, 전시일정, 예산 등을 정해서 전시 기획서를 작성하고, 작가와 작품 등을 섭외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관람객이 어떤 작품을 보고 싶어 하는지, 사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 전시회의 주제나 콘셉트를 정하는 것은 물론, 섭외 가능한 작가와 작품의 수, 예상되는 수입과 소요되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시기획서를 작성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 근무 장소나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근무하는 곳의 전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새로운 전시 아이템을 찾아 그에 맞는 작품을 직접 수집하거나 대여하는 일을 기획한다.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대여해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시 작품 선정, 공간 구성, 작품 진열방식에 대해 해외의 담당자와 논의하고, 보험가입, 운송방식, 수익배분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전시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전시 기획에 따라 작품을 전시실로 운영하는데, 작품을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전시기획에 따라 전시회의 명칭을 결정하고 전시공간, 작품수량, 주제, 효과적인 관람을 고려하여 작품을 진열한다. 작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작품의 종류를 제작연도, 종류, 출토지역 등에 따라 검토·분석하여

전시대상 작품을 선별한다. 작품에 손상이 없는지 살피고, 작품의 도록과 전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도슨트를 교육한다. 전시개막식에서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고 기획의도와 내용을 소개하며, 전시회에 도움을 준 작가들과 귀빈,관람객을 초청하여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전시 개막식을 준비한다.

전시개막과 함께 전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작품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장 온도, 습도, 조도를 조절하고,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핀다. 전시가 끝나면 대여한 작품을 안전하게 포장해서 반납하고, 종료된 전시에 대한 정산작업을 수행하는 전시마무리 업무를 수행한다.

학예사는 전시 관련 업무 이외에도 소장품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서 및 출판물을 발간한다. 특히 박물관 학예사는 박물관에 보관 중인 각종 실물, 표본, 사료(史料),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리고 학예사는 관람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소장품의 진품 여부나 가치 등을 감정하기도 한다.

학예사는 근무장소에 따라 미술관 큐레이터, 박물관 큐레이터, 독립 큐레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미술관 큐레이터는 회화·조각·사진 등 예술품을, 박물관 큐레이터는 유물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미술품 등의 전시·연구·관리를 담당한다. 독립 큐레이터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특정 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전시회를 기획한다.

국외에서는 담당 업무에 따라 아키비스트(기록연구사), 컨서베이터(소장품 보존·처리), 레지스트라(작품 대여·구입), 에듀케이터(교육 담당) 등으로 더 세분화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학예사의 업무가 전시기획팀, 교육팀, 작품관리팀, 보존과학팀 등으로 나뉘어 수행되거나, 작은 규모의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는 학예사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할 때도 많다.

큐레이터는 '화랑 및 박물관안내원(도슨트)'나 '갤러리스트'와는 다르다. 화랑 및 박물관 안내원은 화랑이나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작품이나 전시물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며, 갤러리스트는 갤러리(상업화랑)에서 작품을 진열하고 화랑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환경| 큐레이터는 전시를 앞두거나 전시를 위한 설치작업을 할 때는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기도 한다. 유물이나 작품을 직접 옮기거나 진열을 위해 벽에 못을 박거나 진열장 내부를 청소하는 등 신체활동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또 작가나 작품 섭외, 소장품 수집 등을 위해 장기간 지방이나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한다.



되는 길

학예사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학 박물관, 상업화랑 등에서 근무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대규모 공채보다는 필요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사립 미술관이나 갤러리, 상업화랑의 경우는 학교 추천이나 인맥 위주의 채용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 밖에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 뒤 이들 중에서 정식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고고학, 사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인류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좋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채용 시 관련 전공자로 응시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의 경우는 동양화, 서양화, 조각, 도예 등 미술 실기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영문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다. 이밖에 대학에 큐레이터학과가 생기고, 예술대학원이나 미술대학원의 예술기획 전공, 예술경영학과, 박물관학과, 미술관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 학예사는 작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공립 미술관이나 사립 미술관의 학예사 채용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학예사와 관련된 자격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가 있다. 등급은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된다.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인턴십이라든지 학예 분야에서의 자원봉사, 계약직 등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 **관련 학과** 문화·민속·미술사학과, 역사·고고학과, 미술학과 등

■ **관련 자격** 박물관 및 미술관 정학예사 1급/2급/3급, 준학예사(이상 국립중앙박물관)

| 적성 및 흥미 | 역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의 생활양식, 언어, 예술 등 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장품 및 전시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의력, 기획력이 요구되며, 전시를 위한 비즈니스 감각이 필요하다. 학예사의 경우 하나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종의 행사를 치른다는 점에서 돌발적인 문제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겨날 수 있다. 작가를 섭외하는 과정이나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전시장에 설치하는 과정, 또 홍보를 하거나 관객을 모으는 활동 등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해서 경험을 쌓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예사는 작가와 관객을 연결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전시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전시의 의도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감동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달과정은 말과 글을 통해 이뤄지며, 큐레이터는 전시를 글로 가장 먼저 전달하고 또 작가와 관객에게 말로 또 전달해야 하므로 의사소통능력, 글쓰기 능력이 있으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해외미술관이나 박물관과의 교류 전시회가 늘어나고 국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므로 국제전시나 작품수집,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영어, 불어 등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

| 경력 개발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큐레이터의 경우 ‘학예연구사’로 입사하여 3~5년의 경력을 쌓으면 ‘학예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상당 기간 관련 경험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으면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한다. 경력개발을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도 많으며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쌓은 후 대학교수가 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학예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는 2019년 약 35천 명에서 2029년 약 3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3천 명(연평균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요 등도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의 문화시설 이용인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도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강화,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9년 박물관은 881개, 미술관은 258개로 2012년에 비해 박물관은 187개(13.0%), 미술관은 104개(67.5%) 증가하였으며,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총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2019	2,825	3	1,096	881	258	255	231	101
2018	2,749	1	1,042	873	251	251	231	100
2017	2,657	1	1,010	853	229	236	228	100
2016	2,595	1	978	826	219	229	228	114
2015	2,519	1	930	809	202	232	229	116
2014	2,375	1	865	754	190	220	229	116
2013	2,182	-	828	740	171	214	229	-
2012	2,072	-	786	694	154	209	22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이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로, 향후에도 문화, 관광, 체육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이 이어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하며, 2023년까지 박물관을 1013개, 미술관은 297개까지 설립하려는 계획이며, 학예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학예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학예사의 취업인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미술관의 건립비용 중 일부를 국고보조하고 있는 점 등은 학예사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운영주체별 박물관 수 및 학예인력 수]

(단위 : 개소, 명)

운영 주체	박물관 수					학예인력 수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총 계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총 계
2019년	50	366	363	102	881	1,108	1,020	607	274	3,009
2018년	49	349	371	104	873	420	445	613	202	1,680
2017년	47	341	361	104	853	353	407	641	212	1,613
2016년	40	339	351	96	826	346	424	603	202	1,575
2015년	39	332	336	102	809	309	479	615	212	1,615
2014년	37	328	299	90	754	283	421	534	225	1,46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재작성

[연도별 미술관 수 및 학예직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미술관 수	학예직원 수
2019년	258	826
2018년	251	523
2017년	229	425
2016년	219	389
2015년	202	399
2014년	190	390
2013년	171	346
2012년	154	309
2011년	145	29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재작성

실제로, 박물관 및 미술관 수의 증가와 함께 학예사의 취업자 수도 증가하였다. 박물관 학예사의 수는 2014년 1,463명에서 2019년 3,0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공립 박물관 학예사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마찬가지로 미술관 학예사의 수도 2011년 291명에서 2019년 826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이 추가로 설립되면 학예사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박물관 1개관당 평균 3.42명의 학예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미술관 1개관당 3.20명의 학예사가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미술관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립 미술관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면서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 작품의 보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규모 미술관들은 운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대로 연계되지 못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활 향유 • 전시와 체험 중심 여가생활 중시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인력 채용규모 및 인력확충 어려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소규모 미술관 운영난과 폐업 등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 시설 확충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운영 지원 	

종합하면, 인력규모 자체가 적고 신규 고용이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신설되면서 일자리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학예사의 취업자 수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박물관장, 미술관장, 아트컨설턴트, 소장품관리원(레지스트라)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3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21
- **관련 정보처**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www.mcst.go.kr
국립중앙박물관 (02)2077-9000 www.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000 www.moca.go.kr
(사)한국박물관협회 (02)795-0959 www.museum.or.kr

11

문화재보존원

문화재보존원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귀중한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다.



하는 일

문화재보존원은 역사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수리하며, 복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재들은 재질이나 기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상 유형을 보인다. 이런 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 문화재보존원은 유물을 관리하고, 당시 환경을 확인하여 복원을 위한 수리업무를 수행한다.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손상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되살리며 관련된 기술을 연구한다. 따라서 이들을 문화재의 ‘치료사’,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들을 복원가(Restorer)라고도 하지만 복원작업보다는 손상을 예방하고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보존’의 중요성이 크게 반영되어 최근에는 문화재보존원(Conservator)으로 부른다.

유물이 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구입하거나 기증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국가 박물관의 경우 발굴, 발견 및 압수 등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다. 유물이 발굴되었을 경우, 먼저 문화재보존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흙을 함께 떠 오는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여 운반한다. 운반되어 온 유물을 세척하고, 사진과 X-ray촬영 등의 조사로 유물의 손상 정도, 내부구조 등을 확인한다. 재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유물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손상 원인을 제거하고, 안정화 및 강화 처리를 한다. 결손 부분은 보강하고, 복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제작기법과 본래의 형상 등을 조사하여 복원한다.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은 상태에 따라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수장고(유물보관창고)에서 관리한다. 복원에 사용될 재료를 개발하는 것도 문화재보존원의 역할 중 하나이다. 석굴암, 무령왕릉 등 국가 중요문화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조사하여 장기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 보존환경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문화재의 생물학적 손상방지 및 이에 따른 손상원인 규명을 통하여 적절한 방제방안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약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중요한 사찰이나 유적 등 문화재 수리 및 보존공사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도 있다.

| 업무 환경 | 문화재보존원은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복구 시 화공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및 전통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보수 및 수리, 신축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부터 산간지역까지 여러 지역으로 단기 및 장기 출장을 가야 할 때도 많다.



되는 길

문화재보존원은 박물관뿐 아니라 보존과학업체, 각 지방의 문화재연구소 등에서 근무한다.

대규모 공채보다는 필요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사립 미술관이나 갤러리, 상업화랑의 경우는 학교 추천이나 인맥 위주의 채용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 밖에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 뒤 이들 중에서 정식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또 공무원 시험을 통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 혹은 문화재 관련 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금속유물, 수침목재, 목칠공예품, 회화 및 지류, 도자기 등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해당 유물의 관련 학과를 전공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학교의 부설 연구소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수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 **관련 학과** 회화학과,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소학과, 공예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예술학과, 민속학과, 예술경영학과, 박물관학과, 미술관학과, 문화관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건축공학과, 인문학과 등
- **관련 자격** 정학예사 1급/2급/3급, 준학예사(이상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이상 문화재청)

| 적성 및 흥미 | 문화재보존원은 역사에 대해 흥미가 있는 사람으로 유적, 유물의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약물처리 등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또한 석조물, 미술품 등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재주가 있고,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들의 업무는 역사를 보존하는 보람 있는 일들로 성실함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유물 상태를 점검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며, 예술적 감각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문화재보존원은 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 후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한다. 경력개발을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도 많으며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쌓은 후 대학교수가 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문화재보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문화재보존원이 포함되어 있는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2019년 약 35천 명에서 2029년 약 3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3천 명(연평균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요 등도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의 문화시설 이용인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도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강화,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9년 박물관은 881개, 미술관은 258개로 2012년에 비해 박물관은 187개(13.0%), 미술관은 104개(67.5%) 증가하여,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총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2019	2,825	3	1,096	881	258	255	231	101
2018	2,749	1	1,042	873	251	251	231	100
2017	2,657	1	1,010	853	229	236	228	100
2016	2,595	1	978	826	219	229	228	114
2015	2,519	1	930	809	202	232	229	116
2014	2,375	1	865	754	190	220	229	116
2013	2,182	-	828	740	171	214	229	-
2012	2,072	-	786	694	154	209	22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재보존원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문화재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분석과 관리가 가능해져 그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3D 장비의 개발과 보급으로 보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디지털시대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문화재 훼손 요인이 늘 존재하는 점 역시 이를 복원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보존원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국공립 박물관은 인력을 늘리지 않는 실정이고 보존과학업체의 경우도 시장 대비 업체의 난립으로 고용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활 향유 • 전시와 체험 중심 여가생활 증시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DB구축을 위한 3D 장비 개발과 보급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관리 중요성 강조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 시설 확충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운영 지원 	

종합하면, 인력규모 자체가 적고 신규 고용이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신설되면서 일자리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재보존원의 취업자 수는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박물관장, 미술관장, 아트컨설턴트, 소장품관리원(레지스트라)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3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21
- **관련 정보처**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www.mcst.go.kr
국립중앙박물관 (02)2077-9000 www.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000 www.moca.go.kr
(사)한국박물관협회 (02)795-0959 www.museum.or.kr
문화재청 1600-0064 www.cha.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042)860-9114 www.nrich.go.kr
한국문화재재단 (02)566-6300 www.chf.or.kr

12

사서

사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적,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주로 국공립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대학도서관, 기업체 자료실 및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 등의 전문도서관과 장애자를 위한 점자도서관,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도서관, 군인을 위한 병영도서관, 재소자들이 이용하는 교도소도서관에서도 근무한다. 특히 국공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사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사서가 하는 일은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공립도서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 자료수집, 장서관리, 이용자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서가 각기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나 기업체 자료실 등에는 대체로 한 명의 사서가 근무하며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도서관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열람·대출되는 자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도서나 자료 등을 구입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한 자료를 분류체계에 따라 등록하고 비치하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이 심한 자료 등은 폐기한다. 도서가 입수되면 등록한 다음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목록, 장비, 서가 배열 등 정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용자가 서명, 주제, 저자 등의 검색을 통해 자료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을 희망하면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준다. 이용자가 자료를 반납할 때는 자료와 대출자를 확인하고 파손 여부를 점검한 뒤 서가에 재배치한다. 반납기간이 지난 대출자가 생길 경우에는 반납을 독촉하기도 한다.

도서 외에 음반, 비디오,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형태 등의 비도서 자료를 관리하기도 하며, 비도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들을 관리하기도 한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DB)화되면서 도서 전산화시스템 운영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 근무할 경우 녹음자료나 점자자료를 만든다.

한편,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를 주제전문사서라 한다. 이들은 평소 관련 정보의 탐색이나 주제별 서지를 만들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와 이용, 시청각 기구 관리 및 조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교사도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정서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하고 올바른 독서방법을 지도한다.

|업무 환경| 사서의 근무시간은 도서관의 개방시간에 따라 다르다. 국공립도서관은 대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개관하는데, 사서는 이보다 30분~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게 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말에 매주 또는 격주로 1일 휴관을 하므로, 휴관하지 않는 때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다. 도서관 자료 중에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이 많아 이를 관리하고 배열할 때 체력적 소모가 큰 편이다.



되는 길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대학 및 사서교육원 등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서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문대학의 문헌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준사서 자격을,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문헌정보 관련 학과에 재학 중 추가로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서교육원을 통해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사서교육원은 최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입학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정보학과, 기록물관리(학)과, 역사학과 등
- **관련 자격** 정사서 1급/2급, 준사서(이상 한국도서관협회), 사서교사(교육부)

|적성 및 흥미|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이용자를 상대하므로 쾌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며, 남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정신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인 방문객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 고서나 과거 자료를 확인할 때 한문을 알면 도움이 된다. 도서 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필요하다. 엑셀작업이 많은 편이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없어도 능숙하게 다룰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경력 개발| 사서는 주로 국공립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진출한다. 소규모 도서관은 학교 추천이나 인맥 등을 통한 채용이 많은 편이다. 국공립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국공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는 사서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각 시도 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9급, 7급 등의 공무원 시험을 거쳐 채용된다.

사립대학교 도서관, 기업체 자료실 등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사서를 채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류전형(필기시험), 면접을 거친다. 외국어, 한문, 전산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며, 고서 분야를 담당하기 위한 사서로 고고학, 고고미술학 등의 전공자를 채용하기도 하는 등 전문

영역의 자료를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여 채용한다. 문헌정보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연구소, 자료실, 학술정보 관련 기관, 인터넷정보검색업체, 인터넷정보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한편,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서 경력을 살려 도서관 소프트웨어개발 업체, 외국학술지 검색대행업체 등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사서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2019년 약 25천 명에서 2029년 약 2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 사회를 맞아 평생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공도서관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에서도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사서직 전문 인력의 충원과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 공공도서관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사서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도서관이 없던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신도시 및 도시재생개발 사업 등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이 이뤄지면서 공공도서관 신설이 확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9년 국립도서관은 3개, 공공도서관은 1,096개로 국·공립도서관은 2012년에 비해 313개(39.8%) 증가하여,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총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2019	2,825	3	1,096	881	258	255	231	101
2018	2,749	1	1,042	873	251	251	231	100
2017	2,657	1	1,010	853	229	236	228	100
2016	2,595	1	978	826	219	229	228	114
2015	2,519	1	930	809	202	232	229	116
2014	2,375	1	865	754	190	220	229	116
2013	2,182	-	828	740	171	214	229	-
2012	2,072	-	786	694	154	209	229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다만, 공공도서관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서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인력을 추가로 늘리기보다는 1인당 소장자료나 관람인원 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사서 고용의 양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원 총량제, 예산 제약 때문에 도서관 확충에 비례한 인력 증가가 어렵고, 도서관에서의 자료 검색·열람 등이 전산화되면서 최소 인원을 고용하는 점은 사서의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서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면서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출하거나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신분이 안정적인 국공립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 분야는 취업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정보문화센터'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서가 음악, 예술, 전시, 교육 등 문화 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업무 외에 서비스 마인드 및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객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제전문 사서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등 직무 변화에 따른 경력개발이 요구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평생교육 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 도서관 시스템의 전산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채용규모 제약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공동도서관 이용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공공도서관 확충 • 신도시 및 소외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요구 증가 등	• 인원 총량제 및 예산 제약

종합하면,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 확대, 사서의 업무의 중요성 증대 등이 기대되지만, 인원 총량제, 예산 제약 때문에 도서관 확충에 비례한 인력 증가가 어려우므로, 향후 10년간 사서의 취업자 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도서관장, 문화재보존원, 기록보관원, 기록연구원, 기록연구사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3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22
- **관련 정보처** 한국도서관협회 (02)535-4868 www.kla.kr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 (02)760-1212 slis.skku.edu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053)580-5795 slis.kmu.ac.kr
부산여자대학 부설 부산사서교육원 (051)850-3212 slis.bwc.ac.kr

13

기록물관리사

기록물관리사는 영구기록물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평가하고 편집하며, 기록물에 기초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록물과 기록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감독한다.



하는 일

기록물관리사는 기록보관소, 자료실 등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등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중요한 문서, 기록물 및 제작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영구기록물, 역사적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평가하고 편집하며, 기록물에 기초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록물과 기록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감독한다. 지난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을 말한다. 과거에도 기록담당 공무원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기록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근무한다. 정부기록물, 기업체의 회의록, 저명인사의 편지와 같은 사문서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저술날짜, 저자, 원래의 편지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분석한다. 수집한 문서나 자료를 배열하고 관리하며 번호를 달고 목록을 작성한다. 또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수납목록, 색인, 지침서, 참고문헌해제, 축소필름에 복사된 기록사본 등과 같은 기록보관소가 사용할 참고자료와 서류기재 사항들의 준비활동을 감독하며, 선정된 서류를 가나다순과 연대순으로 정리·보관한다. 중요한 문서나 자료의 소장, 상태, 위치, 대여 등에 관해 기록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학자, 언론인 및 기타 조사자들에게 정치·경제·군사·사회적인 측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해 조언하기도 한다.

도서관이나 기타 기록물보관소에서 이용 가능한 영구적인 자료들을 신청하며, 출판 또는 전시할 자료들을 주제에 관한 지식, 문학적인 표현, 신문 및 잡지 특유의 표현에 관한 지식, 발표와 전시방법에 관한 지식 등에 따라 선정·편집한다. 중요도를 평가해 폐기나 보존을 결정하기도 하며, 자료의 복원이나 기록문서에 바탕을 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되는 길

기록물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을 전공해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혹은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관련 학과**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정보학과, 기록물관리(학)과, 역사학과 등
- **관련 자격** 정사서 1급/2급, 준사서(이상 한국도서관협회), 사서교사(교육부)

| 적성 및 흥미 | 기록물관리사는 각종 전자 자료를 포함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성과 객관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록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 중 접한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도덕성과 정직성, 일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다. 개인정보와는 다른 차원으로 공공기록물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라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적 활용이나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

| 경력 개발 | 기록물관리사는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에 진출하며, 기록물관리사, 혹은 행정업무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로 채용된다. 국공립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승진 체계를 따른다. 이들 중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기록관리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2019년 약 25천 명에서 2029년 약 2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물관리사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근거해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은 전체 인원 중 4분의 1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일 때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기록물의 수집, 분석, 평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기록물의 DB 구축 등 기록물 저장 및 관리 분야에도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종 기업에서도 회사의 기록물을 정보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성과 관심은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 고용이 발생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수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도 전문 기록물관리사를 두기보다 유사 업무와 함께 병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대규모 고용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필수 관련 인력규모 유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회사 기록물 정보 전산화 필요성 인식	
법·제도 및 정부정책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종합하면, 필수 관련 인력규모 유지, 회사 기록물 정보 전산화 필요성 인식,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록물관리사의 취업자 수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도서관장, 문화재보존원, 기록보관원, 기록연구원, 기록연구사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3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22
- **관련 정보처** 한국도서관협회 (02)535-4868 www.kla.kr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 (02)760-1212 slis.skku.edu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053)580-5795 slis.kmu.ac.kr
부산여자대학 부설 부산사서교육원 (051)850-3212 slis.bwc.ac.kr

14

화가

화가는 그림물감, 먹물, 붓 등을 사용하여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추상화 등의 예술작품을 창작한다.



하는 일

화가는 다양한 그림 재료와 적합한 회화기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먼저 작품의 구도를 구상하고 유채, 수채, 연필, 파스텔, 잉크 등의 그림 재료를 선택한 후 캔버스, 나무판, 종이 등의 표면에 작품의 윤곽을 미리 그린다. 원하는 그림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선, 공간, 크기, 색채, 원근, 농담 등의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작품을 완성한다. 장르에 따라 크게 한국화가(동양화가)와 서양화가로 나뉘는데, 한국화는 주로 붓과 먹을 써서 표현하며 서양화는 재료에 따라 유화·수채화·펜화·연필화·파스텔화·크레용화 등으로 나뉜다.

| 업무 환경 | 화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작업을 한다. 그러나 전시나 각종 미술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온종일 작품 창작에만 전념하기도 한다. 주로 실내에서 작업하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야외로 스케치를 나가기도 한다.



되는 길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회화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등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선에 의하여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기술인 드로잉부터 색채학, 미술사, 동양화, 서양화, 조소 등 기초적인 이론과 실기를 비롯하여 전공 분야의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는 대개 실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미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과 미술실기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꾸준히 재능을 계발하고 작품전시회, 공모전 출품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하여 공모전에 입상한 뒤 화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또한 문화센터나 사회교육원의 관련 교육을 받고 화가로 입문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미술학과, 예체능교육과 등

| 적성 및 흥미 | 미술적 감각과 예술적 지식, 창의력과 표현력이 필요하다. 각종 미술작품은 물론,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요구된다. 창작활동을 위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으면 좋다. 장기간의 숙련을 견딜 수 있는 성실함과 인내력도 요구되며, 동서양 미술사에 대한 전문서적을 읽기 위해 한자, 영어 등에 관한 실력을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화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므로 취업을 위한 별도의 과정은 없다. 각종 미술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전시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업으로 하는 화가는 소수이며 대학, 학원, 문화센터, 사회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 등을 겸직하거나 학원 또는 화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화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재능을 계발하고 작품전시회, 공모전 출품 등을 통해 활동해야 한다. 학예사(큐레이터), 미술 분야 기자, 디자이너, 무대미술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학 강단에 서거나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화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에 따르면, 국내 시각예술 전시 건수는 2009년 1만 965건에서 2018년 1만 4,917건으로 10년간 3,952건(연평균 4.0%) 증가하였다.

[국내 시각예술 전시 건수]

(단위 : 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시 건수	10,965	11,305	13,884	13,631	13,235	13,248	13,195	13,149	14,218	14,91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문예연감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문예연감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문예연감 201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시장 작품판매는 2009년부터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의 연도별 작품판매 작품 수는 2009년 3만 1,419점에서 2018년 4만 1,808점으로 최근 10년간 1만 389점(연평균 약 3.67%) 증가하였다. 화랑은 2009년 1만 2,091점에서 2018년 1만 2,276점으로 최근 10년간 185점(연 평균 약 0.17%) 증가하였고, 경매회사는 2009년 1만 1,744점에서 2018년 1만 9,839점으로 최근 10년간 8,095점(연평균 약 7.66%) 증가하였으며, 아트페어(Art Fair : 여러 화랑이 한 곳에 모인 미술작품 판매 행사)는 2009년 7,584점에서 2018년 9,693점으로 최근 10년간 1만 389점(연평균 약 3.09%) 증가하였다.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 판매 작품 수]

(단위 : 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1,419	29,577	33,517	27,377	35,164	31,487	36,663	39,740	41,773	41,808
화랑	12,091	13,685	15,167	8,487	9,869	10,045	9,836	12,524	11,311	12,276
경매회사	11,744	9,898	11,231	8,116	9,922	11,414	13,328	15,411	19,238	19,839
아트페어	7,584	5,994	7,119	10,774	15,373	10,028	13,499	11,805	11,224	9,69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의 연도별 작품판매 금액은 2009년 약 3,514억 원에서 2018년 약 4,198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683억 원(연평균 약 2.16%) 증가하였다. 화랑은 2009년 약 2,585억 원에서 2018년 약 1,953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71억 원(연평균 약 2.72%) 감소하였으나, 경매회사는 2009년 약 584억 원에서 2018년 약 1,511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926억 원(연평균 약 17.62%) 증가하였으며, 아트페어는 2009년 약 344억 원에서 2018년 약 732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388억 원(연평균 약 12.54%) 증가하였다.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 판매 금액]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51,481	451,578	420,992	402,431	319,833	345,136	406,515	417,216	457,749	419,824
화랑	258,591	344,596	296,308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244,663	195,387
경매회사	58,456	58,595	78,238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149,282	151,147
아트페어	34,434	48,387	46,446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63,803	73,29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국내 시각예술 전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작품판매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화가의 취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화가는 예술 분야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미술과 예술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술가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생겨날 전망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자생적으로 시장이 커지기보다는 정부에서 예산을 늘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확대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화가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침체된 기초예술을 발전시키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각예술 전시의 경우, 국내외 교류 증가로 미술품을 접할 기회가 꾸준히 마련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전시회가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혁명의 영향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 표현 방식을 넘어서 VR이나 3D프린팅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시도와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술계 내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서 몇몇 유명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제외하고는 운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고, 미술가들도 작품 활동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무명 및 신진작가들은 전시나 작품 판매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활동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인 기업 메세나(Corporation Mecenat)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꾸준한 편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는 편은 아니다. 후원방식도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몇몇 유명한 미술가를 제외하고는 후원의 실익은 크지 않은 편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선용 경향	
과학기술 발전	• 디지털 기술 활용 미술표현 방식 변화	
국내외 경기		• 장기적 경기 침체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낮은 고용안정성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타		• 신진 작가 유입 및 활동 제약

종합하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정부 및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화가의 활동이 유지되겠지만, 유명작가에 비해 신진 작가의 유입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활동이 어려운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10년간 화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술교사, 미술관장, 미술치료사, 설치미술가, 미술품감정사, 미술품경매사, 평론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1
- **관련 정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사)한국미술협회 (02)744-8053 www.kfaa.or.kr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02)732-9820 www.kpaa-all.or.kr

15

조각가

조각가는 목재, 석재, 진흙, 금속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조각작품을 창작한다.



하는 일

조각가는 목재, 석재, 진흙, 금속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조각 작품을 창작한다. 연마기, 끌, 정, 망치 등의 도구로 석재, 콘크리트, 목재 등의 재료에 조각 대상을 새기는데, 요즘은 흙, 돌, 나무, 청동 등 전통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철, 합성수지, 기성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조각품을 이용한다. 또한 빛, 소리, 자연현상과 시간 개념까지 도입하여 그 범주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조각을 대체하는 설치작업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조각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조각가의 작품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 업무 환경 | 조각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작업을 한다. 그러나 전시나 각종 미술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온종일 작품 창작에만 전념하기도 한다. 작품을 창작할 때 실외에서 작업할 때도 많으며,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야외로 스케치를 나가기도 한다.



되는 길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소과 등의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기초적인 이론과 실기를 비롯한 전공 분야의 심도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는 대개 실기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미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과 미술실기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하여 일정한 경지에 올라 미술 공모전에 입상한 다음 조각가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센터나 사회교육원의 관련 교육을 받고 조각가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다.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작품전시회, 공모전 출품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련 학과** 조형학과, 미술학과, 예체능교육과 등

| 적성 및 흥미 | 미술적 감각과 예술적 지식, 창의력과 표현력이 필요하다. 각종 미술작품은 물론,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요구된다. 창작활동을 위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으면 좋다. 장기간의 숙련을 견딜 수 있는 성실함과 인내력도 요구되며, 동서양 미술사에 대한 전문서적을 읽기 위해 한자, 영어 등에 관한 실력을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조각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므로 취업을 위한 별도의 과정은 없다. 각종 미술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전시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업으로 하는 조각가는 소수이며 대학, 학원, 문화센터, 사회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 등을 겸직하거나 학원 또는 화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조각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재능을 계발하고 작품전시회, 공모전 출품 등을 통해 활동해야 한다. 학예사(큐레이터), 미술 분야 기자, 디자이너, 무대미술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학 강단에 서거나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조각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에 따르면, 국내 시각예술 전시 건수는 2009년 1만 965건에서 2018년 1만 4,917건으로 10년간 3,952건(연평균 4.0%) 증가하였다.

[국내 시각예술 전시 건수]

(단위 : 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시 건수	10,965	11,305	13,884	13,631	13,235	13,248	13,195	13,149	14,218	14,917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문예연감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문예연감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문예연감 201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시장 작품판매는 2009년부터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의 연도별 작품판매 작품 수는 2009년 3만 1,419점에서 2018년 4만 1,808점으로 최근 10년간 1만 389점(연평균 약 3.67%) 증가하였다. 화랑은 2009년 1만 2,091점에서 2018년 1만 2,276점으로 최근 10년 간 185점(연평균 약 0.17%) 증가하였고, 경매회사는 2009년 1만 1,744점에서 2018년 1만 9,839점으로 최근 10년간 8,095점(연평균 약 7.66%) 증가하였으며, 아트페어(Art Fair: 여러 화랑이 한 곳에 모인 미술작품 판매 행사)는 2009년 7,584점에서 2018년 9,693점으로 최근 10년간 1만 389건(연평균 약 3.09%) 증가하였다.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 판매 작품 수]

(단위 : 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1,419	29,577	33,517	27,377	35,164	31,487	36,663	39,740	41,773	41,808
화랑	12,091	13,685	15,167	8,487	9,869	10,045	9,836	12,524	11,311	12,276
경매회사	11,744	9,898	11,231	8,116	9,922	11,414	13,328	15,411	19,238	19,839
아트페어	7,584	5,994	7,119	10,774	15,373	10,028	13,499	11,805	11,224	9,69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의 연도별 작품판매 금액은 2009년 약 3,514억 원에서 2018년 약 4,198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683억 원(연평균 약 2.16%) 증가하였다. 화랑은 2009년 약 2,585억 원에서 2018년 약 1,953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71억 원(연평균 약 2.72%) 감소하였으나, 경매회사는 2009년 약 584억 원에서 2018년 약 1,511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926억 원(연평균 약 17.62%) 증가하였으며, 아트페어는 2009년 약 344억 원에서 2018년 약 732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388억 원(연평균 약 12.54%) 증가하였다.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 판매 금액]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51,481	451,578	420,992	402,431	319,833	345,136	406,515	417,216	457,749	419,824
화랑	258,591	344,596	296,308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244,663	195,387
경매회사	58,456	58,595	78,238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149,282	151,147
아트페어	34,434	48,387	46,446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63,803	73,29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국내 시각예술 전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작품판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각가의 취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미술가는 예술 분야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미술과 예술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술가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생겨날 전망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자생적으로 시장이 커지기보다는 정부에서 예산을 늘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확대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미술가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침체된 기초예술을 발전시키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각예술 전시의 경우, 국내외 교류 증가로 미술품을 접할 기회가 꾸준히 마련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전시회가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혁명의 영향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 표현 방식을 넘어서 VR이나 3D프린팅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시도와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조각가의 업무가 대체되기 보다는 3D 프린팅기술을 도구로 활용하여 작품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순수 조각가로 활동하기 보다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세분화된 직업인으로 관련 회사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다만, 미술계 내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몇몇 유명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제외하고는 운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고, 미술가들도 작품 활동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무명 및 신진작가들은 전시나 작품 판매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활동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인 기업 메세나(Corporation Mecenat)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꾸준한 편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는 편은 아니다. 후원방식도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몇몇 유명한 미술가를 제외하고는 후원의 실익은 크지 않은 편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선용 경향	
과학기술 발전	• 디지털 기술 활용 미술표현 방식 변화	
국내외 경기		• 장기적 경기 침체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낮은 고용안정성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타		• 신진 작가 유입 및 활동 제약

종합하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정부 및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미술가의 활동이 유지되겠으나, 유명작가에 비해 신진 작가의 유입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활동이 어려운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10년간 조각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서예가, 화가,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술교사, 미술관장, 미술치료사, 설치미술가, 미술품감정사, 미술품경매사, 평론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1
- **관련 정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사)한국미술협회 (02)744-8053 www.kfaa.or.kr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02)732-9820 www.kpaa-all.or.kr

16

사진작가 및 사진사

사진작가 및 사진사는 사진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며 사진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하는 일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 촬영 대상이나 방법이 다르므로 사진가는 촬영하기 전에 대상물의 특징과 거리, 구도를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카메라의 각도, 조명, 초점, 노출 정도를 결정해 사진을 촬영한다. 사진 찍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인상사진가, 생태사진가, 광고사진가, 순수사진가, 보도사진가(사진기자), 라이브러리 사진작가 등으로 나뉜다. 사진은 그 쓰임새에 따라 실용사진과 창작사진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실용사진으로는 기념사진, 증명사진, 자료사진, 광고사진, 보도사진 등이 있으며, 창작사진으로는 다큐멘터리사진과 순수사진 등이 있다.

인상사진가는 인물의 인상을 위주로 사진을 촬영한다. 주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이나 아기 사진, 개인 프로필사진 등을 전문적으로 한다.

생태사진가는 자연환경 속에 있는 동물, 식물, 곤충 등을 전문으로 촬영한다. 원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거나 원하는 장면의 한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촬영 장비를 착용한 채로 장시간 한 장소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광고사진가는 상품, 기계, 건물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 편람도해 등에 사용되는 사진과 기타 상업용 사진을 촬영한다.

순수사진가는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여 사진 자체와 자기표현만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 이들은 주로 작품 활동과 사진 전시회를 통해 활동하는 사진가이다.

보도사진가는 보통 사진기자로 더 많이 불리며 취재기와 함께 팀을 이뤄 일할 때가 많다. 이들은 신문, 잡지 및 유사 간행물 등에 게재하기 위하여 기사에 적합한 인물과 사건 현장을 촬영하거나 운동경기와 같은 특정 뉴스를 전문으로 촬영한다.

라이브러리 사진작가는 주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대여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작품 활동을 한다. 이들은 가족, 여행, 라이프스토리, 풍경, 스포츠 사진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 이들을 대신해 사진을 대여 또는 판매하는 라이브러리 업체에 제공한다.

사진가 중에는 사진과 관련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순수사진가의 경우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밖에 사진관이나 스튜디오, 현상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사진 현상·인화·편집 등의 일을 함께하기도 한다. 포토샵 등을 이용해 사진 내용을 수정·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며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사진 촬영 및 이를 웹상에 올리기 위한 웹디자인 능력 등이 요구된다.

|업무 환경|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자신이 직접 스튜디오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제약이 없는 편이다. 신문사, 잡지사, 광고사 등에 고용된 경우에도 촬영 스케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다소 유동적인 편이다. 촬영 일정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식, 회갑연, 돌잔치 같은 행사로 외근을 나가기도 한다.

보도사진가나 생태사진가, 광고사진가, 라이브러리 사진작가 등은 장기간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기도 하며 야간촬영도 잦은 편이다. 보도사진가의 경우 사건이 생긴 사고현장을 촬영할 때가 많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생태사진가나 순수사진가의 경우 원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촬영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한 장소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되는 길

사진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은 없지만, 점차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신문사나 잡지사, 광고사, 일반 기업체의 홍보부서 등에서는 전공의 제한은 없어도 대졸자 또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의 사진 관련 학과, 사진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설 사진학원, 사진 강좌를 개설하는 문화센터, 사회교육원 등이 있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사진학개론, 사진기기론, 디지털사진론 등의 이론적 교육과 사진 촬영과 관련된 각종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설학원에서는 광고, 패션, 인상 등 전문 분야의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각종 사진콘테스트에 입상 경험이 있으면 사진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 시에도 매우 유리하다. 또한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 등 사진 편집기술이 있으면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

- **관련 학과** 사진·영상예술학과, 정보미디어학과 등
- **관련 자격** 사진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사진을 직접 찍는 것을 즐기며 사진작품 등을 보는 것을 좋아해야 하며 예술적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 창의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카메라 조작뿐만 아니라 필름현상, 편집, 인화에 이르기까지 기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므로 기계에 대한 흥미도 필요하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으므로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스튜디오, 사진관, 현상소, 신문사, 잡지사, 영화사, 광고업체, 웨딩업체, 이벤트업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보통 신문사, 잡지사, 기업홍보실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특히 사진기자의 경우 보통 일반 교양상식, 논술, 영어 등의 필기시험과 현장실습의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스튜디오에 취업하면 보통 스태프, 인턴사원 등으로 실무를 익히게 된다. 사진기자의 경우도 3~6개월간의 수습기자 생활을 거치게 된다. 보통 일정 이상의 경험을 쌓고 전문 분야를 정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스튜디오를 개업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사진작가 및 사진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사진작가 및 사진사는 2019년 약 22천 명에서 2029년 약 2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사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웨딩, 아기사진, 프로필사진 등과 같은 인물사진 분야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결혼 감소 등으로 베이비 스튜디오나 웨딩 스튜디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셀프 웨딩 촬영을 하거나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는 스튜디오가 늘고 있다.

또한 개인화로 인해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사진을 찍는 경우도 줄고, 사진 인화 역시 인터넷으로 신청해 배송받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기존 사진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디지털카메라 및 전문가용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해 사용하는 편이고, 사양이 우수한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 사진가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광고사진 분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이 광고비와 홍보비를 삭감한 탓에 사진촬영 물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기자의 고용도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사진 같은 시각적 이미지가 갖는 중요성과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계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진기자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온라인 매체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신문의 역할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신문 분야의 사진기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이나 잡지 부문 사진기자의 경우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압박 등으로 사진부를 아웃소싱하거나 인원을 줄이고 있어 향후에도 신규 채용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가는 근무환경이나 보수가 열악한 편이어서 이·전직이 심한 편이다. 관련 대학이나 사설학원 등을 통해 인력이 배출되고는 있지만, 안정적이거나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편이다. 그나마 근로조건이 좋은 신문사나 잡지사 경우도 매년 소수 인원만을 채용하기 때문에 입직이 어려운 편이며,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해 신규 입직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작품활동을 하는 대중작가의 출현은 새로운 작가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저하 • 결혼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화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인화 감소 • 디지털카메라 보급 확대·대중화
국내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경기 침체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비, 홍보비 삭감 • 언론계 경영 악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경영 어려움 및 폐업 증가 • 신문·잡지 폐간

종합하면, 사진관 및 스튜디오 경영의 어려움, 언론사의 경영 악화, 디지털카메라 등 최신 카메라 장비의 대중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사진작가 및 사진사의 취업자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사진기자, 방송사진기자, 잡지사진기자, 상업사진작가, 예술사진작가, 스틸사진사, 스톡사진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2
- **관련 정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한국사진기자협회 (02)733-9576 www.kppa.or.kr
(사)한국사진작가협회 (02)2655-3131 www.pask.net
(사)한국프로사진협회 (02)4545-600 www.kppa.co.kr
(사)한국여성사진가협회 (02)6101-1715 www.kowpa.or.kr

17

만화가

만화가는 만화의 주제 및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에 따른 그림을 그린다.



하는 일

만화가는 풍부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만화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만화책, 만화전문잡지, 신문연재만화, 시사만화 등 관련 매체가 많으며, 순정만화에서부터 정치풍자만화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과거의 출판만화 형식에서 벗어나 웹툰을 보는 독자가 늘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만화가들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기획과 이야기 구성, 글, 그림, 채색 등 혼자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등을 하면서 구체적인 스토리를 정한 뒤, 주요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정하여 내용을 스케치하고 인물과 장면을 배치하는 콘티를 작성한다. 콘티가 완성되면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생작업을 한 뒤 다시 펜 작업을 하게 된다. 선을 수정하고, 먹칠, 채색 등의 작업을 하며 최종적으로 칸마다 들어갈 글씨작업(식자)을 한다.

데생 작업 후의 과정은 디지털화되어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만화가의 주요 업무여서 각종 공모전에 계속해서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고 관련 잡지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해야 한다.



되는 길

|업무 환경| 만화가는 대개 프리랜서로 보통 자신의 집이나 작업실에서 일한다. 유명 만화가의 경우에는 문하생을 두고 일을 보조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만화가는 기획과 이야기 구성, 글, 그림 등을 혼자서 작업한다. 밝은 조명 아래서 섬세한 그림 작업을 하므로 눈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며, 신문이나 인터넷 등 연재만화를 그리는 경우 마감기한을 앞두고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창작 작업으로 특별히 작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로운 편이지만 일의 특성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독학이나 유명 만화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경험을 쌓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나 대학의 만화 관련 학과, 사설학원의 만화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꾸준한 습작과 독서를 통해 그림 실력과 스토리 구성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 만화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작업을 도와주며 관련 지식을 쌓아 만화가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다. 웹툰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 **관련 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만화창작과, 만화예술학과,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캐릭터애니메이션과, 응용소프트웨어학과 등

|적성 및 흥미|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 그리는 실력은 기본이고,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 있는 스토리 구성능력, 언어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만화의 활성화, 제작과정의 디지털화 등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뛰어난 그림실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데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컴퓨터를 통한 표현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출퇴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스스로 시간을 잘 분배해 써야 해서 일정을 잘 짜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활동을 하는 동안 마감 날짜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재를 한다든지, 기간 내에 작품을 제출해야 할 때 시간관리능력이 중요하다.

|경력 개발| 주로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거나 만화공모전의 입상 등을 통해 데뷔하게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데뷔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게재하거나 만화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의 작품을 올려 활동하기도 한다. 이밖에 출판사로 진출하여 학습만화나 어린이용 삽화를 그리는 만화가로 활동할 수 있다. 경력이 쌓이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더 높은 원고료를 받게 된다. 대학의 교수로 진출하거나 사설학원 등에서 관련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만화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는 2019년 약 14천 명에서 2029년 약 1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만화산업 사업체 수는 2009년 1만 109개에서 2018년에는 6,628개로 감소한 반면, 종사자 수는 2009년 1만 748명에서 2018년 1만 76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은 크게 증가해 매출액은 2009년 약 7,391억 원에서 2018년 약 1조 1,786억 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약 4,395억 원(연평균 약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웹툰 시장의 활성화가 만화산업 전반의 변화를 주도한 결과로, 2014년 웹툰의 유료화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만화제작·유통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웹툰 제작에 대한 작가들의 수익이 다소나마 안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다양한 웹툰 신작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신진 웹툰 작가의 등장이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화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단위 : 개, 명, 백만 원)

구분		만화산업 전체	만화출판업	온라인만화 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도 소매업
2009	사업체 수	10,109	226	80	4,238	5,565
	종사자 수	10,748	2,007	468	4,369	3,904
	매출액	739,094	316,642	54,551	72,977	294,924
2010	사업체 수	9,634	214	77	4,034	5,309
	종사자 수	10,779	2,167	470	4,270	3,872
	매출액	741,947	326,842	52,907	69,729	292,469
2011	사업체 수	8,709	212	73	3,638	4,786
	종사자 수	10,358	2,191	498	4,077	3,592
	매출액	751,691	339,146	61,078	72,287	279,180
2012	사업체 수	8,856	213	74	3,397	5,172
	종사자 수	10,161	2,206	517	3,992	3,446
	매출액	758,525	353,685	65,369	72,084	267,387
2013	사업체 수	8,520	199	80	3,293	4,948
	종사자 수	10,077	2,215	536	3,896	3,430
	매출액	797,649	377,947	81,224	68,521	269,957
2014	사업체 수	8,274	200	80	3,167	4,827
	종사자 수	10,066	2,246	578	3,809	3,433
	매출액	854,837	410,301	101,199	68,293	275,044
2015	사업체 수	8,145	202	81	3,078	4,784
	종사자 수	10,003	2,259	600	3,689	3,455
	매출액	919,408	447,412	123,888	67,681	280,427
2016	사업체 수	7,726	202	85	2,952	4,487
	종사자 수	10,127	2,382	653	3,650	3,442
	매출액	976,257	484,880	148,143	67,516	275,718
2017	사업체 수	7,172	203	90	2,609	4,270
	종사자 수	10,397	2,472	748	3,689	3,488
	매출액	1,082,228	520,092	202,943	73,289	285,903
2018	사업체 수	6,628	181	114	2,496	3,837
	종사자 수	10,761	2,604	923	3,766	3,468
	매출액	1,178,613	542,467	265,658	77,879	292,60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콘텐츠산업조사 재구성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만화가에서 웹툰작가로 이동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웹툰 인기 증가	
과학기술 발전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발달 •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웹툰 유료화 서비스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만화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 웹툰시장 활성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저작권법 강화	
기타	• 창의적 작품활동 영역	

종합하면, 웹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시각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대중의 선호로 만화의 제작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10년간 만화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애니메이터, 웹툰작가, 웹툰기획자, 만화에이전트, 만화출판기획자, 만화 컬러작가, 애니메이션감독, 클레이애니메이터, 인형애니메이터, 퍼핏애니메이터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3
- **관련 정보처** (사)한국만화가협회 (02)757-8485 www.cartoon.or.kr
(사)우리만화연대 (02)752-6525 www.urimana.co.kr

18

만화영화작가(애니메이터)

만화영화작가는 각종 게임물, 텔레비전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CD타이틀,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동영상물 등에 활용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획과 콘티의 제작, 촬영, 편집 등을 수행한다.



하는 일

애니메이터는 만화영화, 3D애니메이션, 인형애니메이션,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각종 애니메이션을 창작한다. 과거에는 주로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기획부터 제작, 편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은 기획단계인 ‘사전제작(Pre-Production)’과 본 제작과정인 ‘메인제작(Main-Production)’, 편집 및 출력이 이루어지는 ‘사후제작(Post-Production)’으로 나뉜다.

사전제작단계에서는 기획 작업과 시나리오 작업이 이뤄지는데, 주로 관련 시장조사를 통해 아이템을 구상한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만화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옮기는 스토리보드 및 콘티작업,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 소품, 배경 등을 디자인하는 작업도 이때 이루어진다. 사전제작 과정에는 애니메이션감독, 애니메이션기획자, 시나리오작가, 콘티라이터 등이 참여하게 된다.

메인제작의 세부적인 과정은 인형, 디지털, 셀 등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작화 이후의 단계는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메인제작 과정에는 각종 캐릭터를 만드는 모델링(Modeling), 그 캐릭터에 색감과 질감을 입혀주는 매핑(Mapping), 그리고 캐릭터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 일종의 골격을 만들어주는 셋업(Set-up) 작업이 포함된다. 또한 캐릭터에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Animating), 완성된 각 장면에 조명과 효과를 주고 이를 카메라뷰에 따른 2D 이미지로 만드는 라이팅 이펙트(Lighting Effect)와 렌더링(Rendering) 작업 등을 한다. 사후제작 과정에서는 주로 촬영 및 편집, 녹음, 출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 특수한 진흙을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의 동작에 조금씩 변화를 주어 촬영을 완성하는 클레이애니메이터, 인형애니메이터 등도 만화영화작가에 속한다.

|업무 환경|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 기획 초기 단계나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이들 역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로 자신의 집이나 회사의 작업실에서 근무한다. 동화나 원화(만화영화에서 한 장면 한 장면의 그림) 작업 등은 밑에서 조명광선이 올라오는 라이트박스(Light Box) 위에서 이뤄지며 섬세하게 그려야하기 때문에 눈에 무리가 가는 편이다. 채색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컴퓨터로 작업할 때가 많아 눈의 피로가 쉽게 오며, 채색 시 잉크 냄새가 많이 나고 기계적인 일의 반복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 사설학원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울 수 있다. 과거에는 이름난 감독이나 애니메이터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의 자격으로 작업실에 들어가 일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진출이 늘고 있다. 대학의 관련 학과로는 애니메이션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컴퓨터애니메이션학과 등이 있고, 입학 시 소묘 실기나 주어진 주제에 대한 만화창작 등의 실기 고사를 치르는 곳이 많다.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애니메이션영화사, 애니메이션 연출이론, 만화기법 등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론과 디자인기초, 색채실습, 스토리 작법, 영상편집, 셀 및 컴퓨터애니메이션 제작실습 등의 실기를 공부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만화창작과, 만화예술학과,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캐릭터애니메이션과, 응용소프트웨어학과 등

|적성 및 흥미|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뛰어난 그림실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데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컴퓨터를 통한 표현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출퇴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스스로 시간을 잘 분배해 써야 해서 일정을 잘 짜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활동을 하는 동안 마감 날짜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재를 한다든지, 기간 내에 작품을 제출해야 할 때 시간관리능력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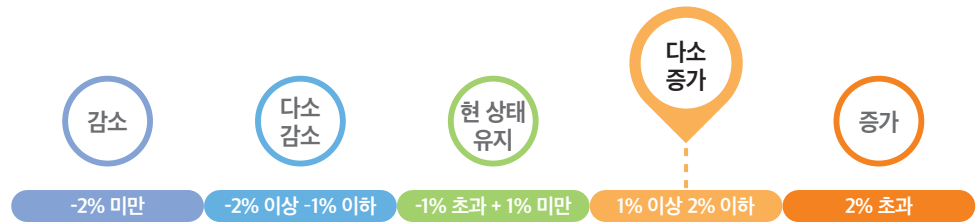
|경력 개발| 애니메이터는 관련 회사에 고용되어 활동하는 사람도 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다. 주로 셀애니메이션, 컴퓨터애니메이션 등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진출하며, 게임개발자로도 활동한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는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공고를 내는데 주로 경력이나 포트폴리오를 보고 채용하며, 관련 교육기관을 통한 추천 채용도 많은 편이다. 이 외에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기타 방송사, 영화사, 광고사, 출판사 등 미디어 관련 업체와 문구사, 팬시사, 캐릭터 개발사, 미니어처 제작사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동화원은 원화와 원화 사이의 움직임을 그려주는 사람인데, 만화영화작가는 보통 이러한 동화원으로 시작해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에 키애니메이터(Key Animator)로 불리는 원화원이 될 수 있다. 제작과정 파트에서 오랜 경험을 갖추고 경력을 쌓아 애니메이션 기획자나 감독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감독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 연출, 레이아웃, 촬영 등 애니메이션 제작의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만화영화 작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는 2019년 약 14천 명에서 2029년 약 1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산업 사업체 수는 2013년 342개에서 2018년에는 509개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167개(연평균 약 9.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도 2013년 4,502명에서 2018년 5,380명으로 최근 5년간 878명(연평균 약 3.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도 2013년 약 4,020억 원에서 2018년 약 5,052억 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약 1,031억 원(연평균 약 5.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단위 : 개, 명, 백만 원)

구분	전체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2013	사업체 수	342	288	-
	종사자 수	4,502	4,246	-
	매출액	402,093	373,223	-
2014	사업체 수	350	296	37
	종사자 수	4,505	4,238	132
	매출액	408,245	377,645	171,623
2015	사업체 수	376	318	-
	종사자 수	4,728	4,447	-
	매출액	460,698	426,562	-
2016	사업체 수	447	377	53
	종사자 수	5,142	4,848	152
	매출액	490,631	452,524	23,445
2017	사업체 수	492	433	45
	종사자 수	5,161	4,864	152
	매출액	493,441	454,603	23,454
2018	사업체 수	509	435	53
	종사자 수	5,380	5,067	156
	매출액	505,207	463,670	25,25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콘텐츠산업조사 재구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로 온라인 애니메이션 제작과 유통 분야가 성장하면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부문 애니메이터의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초보자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제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으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커지고,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창의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애니메이션 인기 증가	
과학기술 발전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발달 •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온라인 애니메이션 제작·유통 활발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저작권법 강화	
기타	• 창의적 작품활동 영역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시각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대중의 선호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10년간 애니메이터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만화가, 웹툰작가, 웹툰기획자, 만화에이전트, 만화출판기획자, 만화컬러작가, 애니메이션감독, 클레이애니메이터, 인형애니메이터, 퍼핏애니메이터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3
- **관련 정보처** (사)한국만화가협회 (02)757-8485 www.cartoon.or.kr
(사)우리만화연대 (02)752-6525 www.urimana.co.kr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02)777-9025 www.koreaanimation.or.kr

19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은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우리나라 전통음악이나 무용, 연극, 각종 놀이와 의식 등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한다.



하는 일

국악인은 거문고, 가야금, 해금과 같은 국악기를 연주하거나 판소리, 민요를 부르면서 국악의 맥을 잇는다. 보통 전문 분야에 따라 국악연주가, 국악성악가, 국악작곡 및 편곡가 등으로 불린다.

국악연주가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장구 등의 국악기로 국악을 연주하거나 창작국악을 연주한다. 연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정기·비정기 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타 단체와 협연하기도 하며, 단독으로 개인연주회 등을 가진다. 이들은 악기 조율, 악곡 연습 등을 반복하며 연주회를 앞두고는 리허설을 한다.

국악성악가는 북, 장구,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 국악기의 장단에 맞춰 가곡, 가사, 시조를 노래하며 판소리, 민요, 창극 등을 부르는 사람으로 연주단체와 함께 공연을 하거나 개인 공연을 연다. 창극은 대부분 판소리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노래와 연기 실력이 모두 필요하다. 예전에는 고전작품을 중심으로 공연하였으나 요즘에는 창작곡을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국악작곡가 및 편곡가는 새로운 창작국악을 만들거나 연주단체의 공연 성격에 맞게 곡을 편곡하며, 작품발표회를 하기도 한다.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국악이론을 알아야 할뿐 아니라 국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밖에 넓은 의미에서 국악 전반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연구하는 국악이론가도 국악인에 포함된다. 국악이론가는 국공립박물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고악보(古樂譜), 고서(古書), 민속악 연구, 해외 민속음악 비교연구 등 국악 관련 연구를 담당하며, 대학교수, 대학강사로도 활동한다.

전통예능인은 처용무, 악무, 궁중무용인 정재와 승무, 살풀이 등의 민속무용을 추거나 전통적인 가면극이나 연극을 벌이는 사람이다. 전통연극인, 전통무용인, 전통무예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 업무 환경 | 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매일 출근하여 일정 시간 함께 공연 연습을 한 후 개별 연습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공연 준비기간에는 저녁 늦게까지 연습할 때가 많다.

공연은 주로 주말이나 저녁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연주회, 공연을 위해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갈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연 다음 날은 쉬는 경우가 많다.



되는 길

국립국악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의 국악 관련 학과, 기타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국악 또는 전통연극, 무용 등을 배우게 된다. 과거에는 유명 예능인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나 점차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악의 경우 대학교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현재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는 국악(학)과, 한국음악(학)과, 전통무용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입학 시 전공에 따라 실기전형을 치른다. 국악 관련 학과에서는 기악, 성악, 작곡, 이론 가운데 전공 분야를 선택하여 공부하는데, 시창, 청음, 국악사 등의 국악이론을 비롯해 연주, 성악, 작곡실습 등의 실기를 공부하며, 재학 중 학과 연주회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는다. 국악의 특성상 한문으로 된 문헌자료를 읽는 경우가 많아 한문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서양음악과 악기에 대한 지식과 실기를 병행함으로써 음악적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

■ **관련 학과** 국악(학)과, 한국음악(학)과, 전통공연예술과 등

| 적성 및 흥미 | 기본적으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음에 대한 청각, 표현력, 창의력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오랜 연습을 통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요구된다. 특히 국악기 연주가는 손놀림이 섬세해야 하고, 국악작곡가는 화성진행이나 악기들의 음색을 파악하며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으로 활동을 할 때는 팀워크도 중요하다.

| 경력 개발 | 국공립 국악연주단체, 사설단체 등으로 진출하거나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국공립 단체의 경우 매년 혹은 결원이 있을 때 공개채용을 통해 단원을 뽑는데, 보통 서류전형, 실기시험 등을 치른다. 연수단원 형식으로 입단한 후 시험을 거쳐 정식단원으로 입단하는 사람도 있다. 사설단체의 경우 인맥, 추천 등을 통해 입단하기도 하며, 판소리는 명창의 문하생으로 출발하여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한 후 단체를 결성해 발표회를 통해 활동하기도 한다.

국악 및 전통예능인은 국공립 연주단체, 창극단, 사설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국공립 단체의 경우 수석이라 하여 악기별로 책임자가 있으며, 지휘자가 단장을 겸하기도 한다. 연주단체 내 승진은 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국공립 연주단체의 경우 ‘평단원 → 부수석 → 수석 → 악장 → 부지휘자 → 지휘자 → 단장’ 등의 승진체계가 있다. 수석은 대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가야금, 대금 등 악기별 수석이 별도로 있다. 단장은 대개 별도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체에 따라 단장이 지휘자를 겸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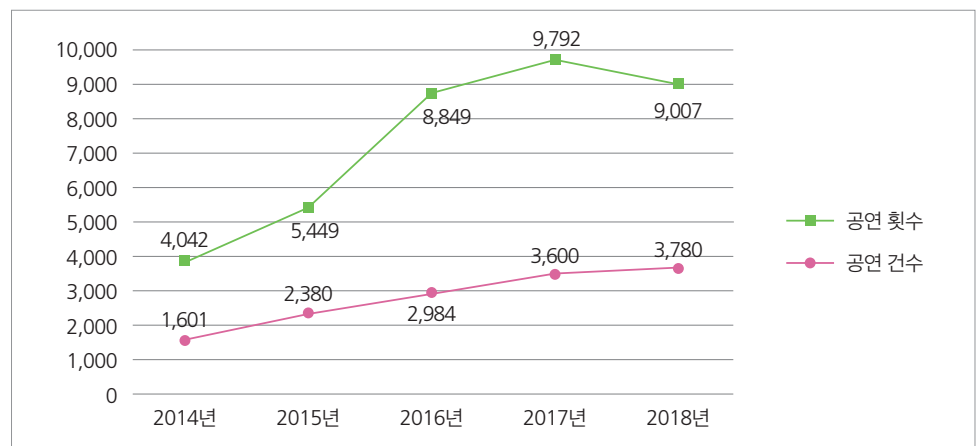
향후 10년간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의 국악 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공연 건수는 2014년 1,601건, 2015년 2,380건, 2016년 2,984건, 2017년 3,600건, 2018년 3,78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연 횟수는 2013년 4,042회에서 2018년 9,007회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악 공연은 주로 기악 중심 공연이 대부분이지만, 양악, 무용, 연극 등이 결합된 혼합 장르가 늘면서 공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악 공연 추이]

(단위 : 건, 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연 건수	1,601	2,380	2,984	3,600	3,780
공연 횟수	4,042	5,449	8,849	9,792	9,007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

국악 공연이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히 개최되면서 관객을 만나고 있지만, 국악을 비롯한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최근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해외 작품을 국악화한다거나 국악을 현대식으로 결합하는 등 현대적인 재창작이 이뤄지는 점은 관객의 관심을 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악을 해외에 알리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전통예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실제 해외 공연이 늘면서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의 진출 경로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은 전반적으로 전통예술 공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음악을 접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연장을 직접 찾기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연을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의 활동무대가 공연 중심에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겨냥한 활동으로 변형되고, 국경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통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늘리고, 전통 연희의 문화상품화를 위한 축제 개최되는 등 전통예술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악방송 활성화를 지원하고, 매년 예산 편성 및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들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등 예술인의 고용안정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점도 이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배출되는 국악전공자에 비해 국공립 단체와 같이 직업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지도가 있는 단체는 입직 경쟁이 계속 치열할 전망이다. 국악 및 전통예능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편이어서 상당수가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개인레슨, 방과 후 교사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문화생활 관심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전통문화의 해외진출 증가 • 디지털 공연 증가	• 국공립 단체 채용확대 한계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전통문화 정책적 지원	

종합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디지털 공연 및 해외 진출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공립 단체 같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10년간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연주가, 성악가, 가수, 무용가, 안무가, 대중무용수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4
- **관련 정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사)한국국악협회 (02)744-8051 www.kukakhyuphoe.or.kr
국립국악원 (02)580-3300 www.gugak.go.kr

20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을 연주하고, 관현악단을 지휘하며, 각종 음악 작품을 작곡한다.



하는 일

지휘자는 합창지휘자와 기악지휘자가 있고, 단원의 선발부터 연주곡의 선정, 공연연습 등 무대에 올리는 공연의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지휘자는 악보를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개성으로 악보를 연주한다. 합창지휘자는 이부, 삼부, 사부 등으로 나뉘어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각각 다른 선율로 노래하는 합창단을 지휘하며, 기악지휘자는 관악기, 현악기 및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지휘한다. 지휘자는 보통 관현악단(오케스트라), 교향악단, 합창단, 오페라단 등에 단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상당수는 중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를 겸직하고 예술계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사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등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작곡가는 선율법, 화성법, 대위법, 관현악법 등의 지식을 토대로 악곡을 작곡하거나 특정 악단, 악기 또는 행사를 위하여 음악을 각색하거나 편곡한다.

연주자는 건반악기(피아노, 오르간, 쳄발로 등),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 등), 관악기(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롬본, 오보에, 플루트 등), 타악기 중 특정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한다. 독주를 하거나 관현악단(오케스트라), 교향악단 등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단원들과 호흡을 맞춘다.



되는 길

| 업무 환경 |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는 생활의 많은 시간을 연습에 할애한다. 기관에 소속된 경우는 정해진 연습시간에 단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이후에도 개인 연습을 하거나 강의를 나가는 등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진다. 음악회는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지방이나 해외 공연을 위해 장기간 출장을 가기도 한다.

대학의 관현악과, 기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음악과, 작곡과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중에는 예술계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설학원이나 개인레슨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또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다. 지휘자는 지휘만 전공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기악을 전공하다가 지휘 분야를 공부해서 전향하는 경우가 많다.

폭넓은 음악 감상을 통해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로서의 소양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며 각종 음악 콩쿠르에 참여하여 입상 경력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서양음악을 많이 다루게 되고 오페라나 예술가곡이 대부분 유럽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실력을 키워놓으면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된다.

■ **관련 학과** 기악과, 관현악과, 피아노과, 성악과, 작곡과 등

| 적성 및 흥미 |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기만의 음악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연주자들도 자신만의 연주곡을 원하는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어 많은 음악을 듣고, 나만의 음악을 만들기 위한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 경력 개발 | 국공립 또는 사립 합창단, 관현악단(오케스트라), 교향악단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단원 채용은 주로 서류전형과 실기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대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성악이나 연주의 실기전형은 보통 응시자 자유곡과 지정곡으로 이루어진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악단에서는 보통 '평단원→부수석단원→수석단원→악장'으로 승진하며 입단 시 경력을 고려하여 직책이 결정된다. 승진은 능력에 의해 평가되는 편이며, 근무하는 곳에 따라 오디션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휘자는 상임지휘자, 명예지휘자, 정지휘자, 부지휘자 등의 등급을 갖기도 하며, 예술감독 또는 음악감독제를 채택하는 등 단체에 따라 승진체계가 다양하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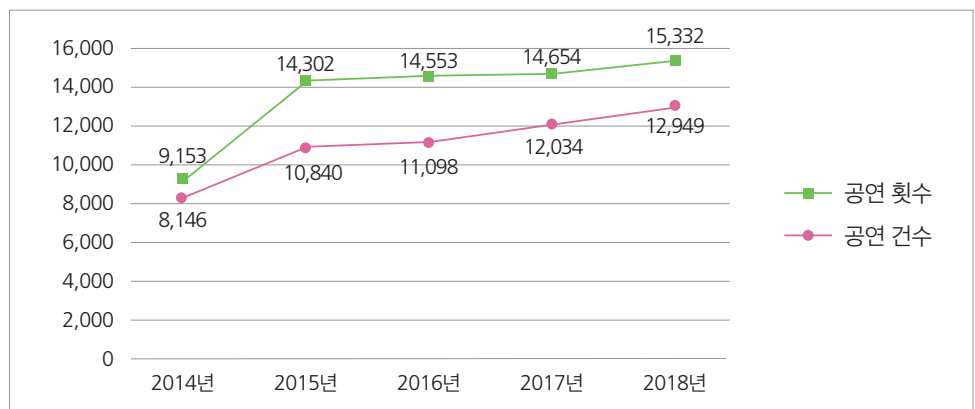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는 2019년 약 22천 명에서 2029년 약 2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 공연 등 문화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음악 플랫폼의 발달,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의 활동무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의 양악 공연 현황에 따르면, 양악 공연 건수는 2018년 1만 2,949건으로 지난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공연 횟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1만 5,332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양악 공연 추이]

(단위 : 건, 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연 건수	8,146	10,840	11,098	12,034	12,949
공연 횟수	9,153	14,302	14,553	14,654	15,332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

음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창의성 영역이며,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음악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다. 과거 음반을 구매하던 음악 소비 패턴에서 온라인 시장을 통한 음원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의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연주회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관객 수도 증가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공연이 시도되는 등 공연의 양과 질이 향상되고 있다.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는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음악과 예술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활동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문화예술 분야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기 때문에 음악산업의 발전이 꾸준한 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어 앞으로도 일자리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휘자는 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휘자는 보통 관현악단(오케스트라), 교향악단, 합창단, 오페라단 등에 단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데, 각 단원에서 활동하는 지휘자는 필수인원이지만 소수이다. 단 한 명의 지휘자가 있거나 예비 지휘자뿐이기 때문에 악단 수가 크게 늘지 않는 한 그 수가 증가하기는 어렵다.

작곡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불법사이트를 통한 음원 다운로드 대신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은 작곡가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장에서 음악콘텐츠를 제공할 때도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등 저작권법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음악콘텐츠를 즐기는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음악활동의 수익이 정당하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작곡가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주가의 일자리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주가의 경우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관현악단(오케스트라), 교향악단 등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악단 수가 크게 늘지 않는 한 일자리가 크게 늘기 어렵다.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으로 신규 악단 구성이 어렵고, 구성된 악단은 활동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일자리 역시 기존 인원을 유지하는 편이다. 다만, 연주가의 활동무대가 온라인 무대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악단의 형태에서 벗어난 연주가의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가들은 음악활동만으로 얻는 수입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편이어서 대학이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국공립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할 경우에는 보수가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지만, 채용인원이 한정적이고 정기적인 채용보다는 결원이 생길 때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입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는 연주나 작곡 등의 순수음악 관련 학과보다 실용음악 및 뮤지컬 전공 등을 더 선호하는 편이며, 성악, 기악, 합창, 오페라 등 양악 공연에 비해 뮤지컬이나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문화 대중화 음원 플랫폼 발달에 따른 음원 콘텐츠 소비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산업 및 음원시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단체 채용확대 한계 (지휘/작곡/연주활동 분야)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법 강화 문화예술 분야 정책적 지원 	

종합하면, 공연문화의 대중화, 음원 플랫폼의 발달,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 따라 향후 10년간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성악가, 가수, 국악인, 전통예능인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5
- **관련 정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사)한국음악협회 (02)2655-3060 www.mak.or.kr
(사)한국지휘자협회 (070)5118-1297 www.koreanconductors.org

21

가수 및 성악가

가수는 공연장이나 콘서트 무대에서 발라드, 댄스, 힙합, 록, R&B, 트로트 등의 대중가요를 부르며 음악활동을 한다. 성악가는 성악 독창을 하거나 합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하는 일

가수는 공연장이나 콘서트 무대에서 발라드, 댄스, 힙합, 록, R&B, 트로트 등의 대중가요를 부르며 혼자서 활동하거나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활동한다. 직접 노래를 만들고 편곡하는 싱어송라이터도 있고, 녹음할 때 본인이 직접 음반 프로듀싱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거나 음반 준비를 위해 녹음실에서 노래를 녹음하며, 음반이 발매되면 수록된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행사에 출연하고 콘서트 등을 한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음원 및 음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음원 제작기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녹음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가요는 반주를 먼저 녹음한 후에 가수가 노래를 녹음하고, 곡의 분위기에 맞게 편집하는 작업을 거친다. 녹음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2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요즘은 노래 한두 곡을 담은 싱글음반을 주로 만들면서 가수들의 공백기가 과거보다 짧아지고 있다. 음반이 제작되면 새로 나온 음반 홍보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낸다. 방송, 라디오, 각종 행사 등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고, 스케줄이 끝나면 다음 날 있을 스케줄이나 공연을 위해 연습실에서 노래와 안무 등을 연습한다. 이제는 대중가수가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방송진행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성악가는 성악 독창을 하거나 합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오페라 공연에서 가곡 등을 공연하기도 한다. 발성 범위에 따라 여자는 소프라노-메조소프라노-알토, 남자는 테너-바리톤-베이스로 활동하며, 독창 위주로 활동하거나 합창단원 또는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대중가수의 경우 공연이나 방송이 주로 오후 늦게 또는 저녁,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후에 일과를 시작해서 이른 새벽에 마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연을 위해 하루에 여러 지방을 다녀야 할 때도 있으며, 해외로 공연을 나가기도 한다. 건강한 목소리를 위해 평소 목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댄스가수는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성악가의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매일 정해진 연습시간에 따라 단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이후에도 개인 연습을 하거나 강의를 나가는 등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진다. 음악회가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지방이나 해외 공연을 위해 장기간 출장을 가기도 한다.



되는 길

교육기관으로는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의 실용음악 관련 학과, 사설 교육기관 등이 있다. 실용음악과에서는 드럼, 피아노, 베이스 등의 악기 연주와 작·편곡, 컴퓨터 음악, 보컬 등에 대한 전문이론 및 실기를 교육하는데, 보통 작곡, 연주, 보컬, 컴퓨터 음악 등으로 전공이 분류되어 있다. 사설 실용음악 학원이나 보컬 아카데미에서는 호흡, 발성, 보컬훈련 등을 교육한다.

■ **관련 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과, 방송·연예과, 연극·영화학과 등

| 적성 및 흥미 | 음악성뿐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 재능을 갖춘 엔터테이너의 자질이 요구되기도 한다. 가수에게 가창력과 음악적 감각은 기본이며,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끼,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필요하다. 케이팝의 인기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이 활발해져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 경력 개발 | 연예기획사 및 음반기획사의 신인가수 공개 오디션을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기획사들은 특정 기간에 오디션 공고를 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음원을 수시 모집하기도 한다. 기관의 교수나 강사의 눈에 띄어 음반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기도 하며, 각종 가요제에 참여해 입상하여 가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언더그라운드로 활동하면서 음반제작자의 눈에 띄어 가수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가수 데뷔 전,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지내며 보컬과 안무 등에 대한 트레이닝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에 실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오디션에 통과했다더라도 정식 데뷔를 못할 수 있다. 가수로 활동한 후 음반기획자, 연예기획자로 진출하여 신인가수를 양성하거나 작사가, 작곡가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가수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해 모델, 탤런트, 영화배우, 뮤지컬배우, 라디오DJ, 방송예능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가수 및 성악가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음악산업은 음악콘텐츠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하면서 매출액과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악산업에서 음악 제작업, 음반 복제 및 제작업, 음반도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케이팝(K-pop) 인기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남미 등에서 매출이 신장되면서 시장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음원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감상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강화로 음악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음악산업 총괄]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14년	36,535	77,637	4,606,882	1,764,650	38.3	335,650	12,896
2015년	36,770	77,490	4,975,196	1,808,677	36.4	381,023	13,397
2016년	37,501	78,393	5,308,240	1,913,102	36.0	442,566	13,668
2017년	36,066	77,005	5,804,307	2,043,488	35.2	512,580	13,831
2018년	35,670	76,954	6,097,913	2,102,219	34.5	564,236	13,878
전년대비 증감률(%)	△1.1	△0.1	5.1	2.9	-	10.1	0.3
연평균 증감률(%)	△0.6	△0.2	7.3	4.5	-	13.9	1.9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음악산업 업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중분류	소분류	2016	2017	2018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음악 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1,062,210	1,173,207	1,347,418	22.1	14.8	12.6
	음악(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54,744	60,618	63,755	1.0	5.2	7.9
	소계	1,116,954	1,233,824	1,411,172	23.1	14.4	12.4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16,422	17,665	19,067	0.3	7.9	7.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825	865	850	0.0	△1.7	1.5
	소계	17,247	18,530	19,917	0.3	7.5	7.5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52,320	81,305	99,294	1.6	22.1	37.8
	음반 배급업	67,435	94,182	98,497	1.6	4.6	20.9
	소계	119,755	175,487	197,791	3.2	12.7	28.5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53,887	74,762	88,177	1.4	17.9	27.9
	음반 소매업	108,445	130,119	132,499	2.2	1.8	10.5
	소계	162,332	204,881	220,676	3.6	7.7	16.6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245,425	1,441,804	1,518,803	24.9	5.3	10.4
	음원대리 중개업	114,477	119,516	128,020	2.1	7.1	5.7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85,488	91,752	98,437	1.6	7.3	7.3
	소계	1,445,390	1,653,072	1,745,261	28.6	5.6	9.9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864,217	944,134	981,066	16.1	3.9	6.5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65,723	71,264	77,015	1.3	8.1	8.3
	소계	929,940	1,015,397	1,058,081	17.4	4.2	6.7
종합계		3,791,618	4,301,192	4,652,898	76.3	8.2	10.8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1,516,622	1,503,115	1,445,015	23.7	△3.9	△2.4
합계		5,308,240	5,804,307	6,097,913	100.0	5.1	7.2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통계

청소년을 비롯해 대중가수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인가수의 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문화예술 분야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며, 특히 대중가요에 대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음악산업의 발전과 신입 가수들의 등장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가수는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통과해 연습생을 거쳐 데뷔하거나, 방송,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데뷔할 수 있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데뷔'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가수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치열한 경쟁 속에 대중가수들의 유입과 이탈이 더욱 빈번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인기를 얻는 가수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음악과 무용, 연극을 접목해 뮤지컬 공연을 하거나 예능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수활동과 함께 예능인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요구될 전망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9 문예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악 공연 건수는 2014년 754건,

2015년 780건, 2016년 91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359건으로 공연 수가 크게 감소한 후, 2018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도 2014년 788회, 2015년 822회, 2016년 1,153회로 증가하다 2017년 449회로 감소하고 이후 2018년 1,227회로 증가하였다. 대부분 성악 공연은 양악과 국악 분야 성악으로 구분되는데 공연 규모가 큰 편이 아니고, 티켓 파워가 있는 일부 유명 성악가에게 공연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연 추이만으로 성악가의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성악 공연 추이]

(단위 : 건, 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연 건수	754	780	918	359	992
공연 횟수	788	822	1,153	449	1,227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

성악 등 고전음악 관련 학과가 뮤지컬이나 영화음악 등의 학과로 대체되는 등 대중음악에 비해 수요가 줄어드는 점은 성악가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하지만 성악가는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고,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원이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어 앞으로도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국공립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성악가들은 보수가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편이지만, 결원 시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입직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음원 플랫폼 발달에 따른 음원 콘텐츠 소비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음악산업 및 음원시장 성장 • 음악콘텐츠 수출 증가 • 한류 및 케이팝(K-pop) 인기	• 성악 공연의 대중성 부족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저작권법 강화 • 문화예술 분야 정책적 지원	

종합하면, 음악산업 발전 및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 케이팝 인기 등에 따른 음악콘텐츠의 수출 증가,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가수 및 성악가의 향후 10년간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무용가, 안무가, 대중무용수, 국악인, 전통예능인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6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6
- **관련 정보처** (사)한국가수협회 (02)2238-2212 www.singerkorea.kr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02)3471-1092 www.k-mca.or.kr

22

무용가 및 안무가

무용가는 음악에 맞추어 혼자 또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 예술적으로 춤을 춘다. 안무가는 고전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거나 창작무용을 고안하는 등 무용을 창작하며 무용가의 안무를 지도한다.



하는 일

무용가는 음악에 맞추어 혼자 또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 예술적으로 춤을 춘다. 주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의 장르에서 고전작품 또는 창작작품을 공연하며, 전공에 따라 한국무용가, 현대무용가, 발레리나(남자는 발레리노) 등으로 불린다.

무용가는 공연을 목적으로 안무가가 개발한 무용을 지도받고 연습한다. 극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몸의 표현으로 전달하며, 예술적 감동을 주기 위해 음악에 맞추어 춤을 통해 연기한다. 공연이 결정되면 연습스케줄을 계획하고 자신이 맡은 배역과 전체적인 공연 콘셉트 및 분위기를 파악한다. 또 회의를 통해 동작과 움직임의 조율을 하고 공연에 맞는 몸을 만든다. 무용창작을 위한 구상 및 안무는 안무가가 담당하며, 무용가는 이들의 안무에 맞춰서 전체적인 춤이나 동작을 연습한다. 이밖에 스태프들과 의상이나 분장을 맞추기도 하고 최종 리허설을 거쳐 실제 무대 공연을 하게 된다.

안무가는 고전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거나 창작무용을 고안하는 등 무용을 창작하며 무용가의 안무지도를 담당한다. 무용가로 오랜 경력을 쌓다가 안무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환경 무용가의 근무시간은 공연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오전에는 단원들끼리 공연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개인 연습이나 무용레슨 등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정기공연의 경우 무대에 오르기까지 3~4개월의 연습기간을 거치는데, 공연을 앞두고는

최종 리허설을 위해 늦게까지 공연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은 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있으며, 지방이나 해외 공연을 위해 장기간 출장을 가기도 한다. 항상 체력 유지에 힘써야 하고, 몸매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무가의 경우 창작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예술계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무용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무용교육을 받으면서 일찍 진로를 결정한 사람이 많다. 대학의 무용과는 학교에 따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으로 세부전공이 나뉜다. 무용과에서는 전공 실기수업과 공연 활동을 통해 표현력과 창작능력을 기르고, 이론수업을 통해 무용의 학문적 탐구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외에 사설 무용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학과 무용학과

[적성 및 흥미] 무용가는 유연한 신체와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며, 음악에 대한 리듬 감각과 풍부한 표정 등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랜 연습시간과 공연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끈기가 필요하며, 하나의 작품을 여러 명이 협업하여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대인관계도 요구된다. 안무가는 몸으로 예술적 감동과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극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창의력 등과 풍부한 감정표현 능력, 신체표현 능력 등이 필요하다.

[경력 개발] 무용가는 국·시립무용단을 포함한 직업무용단과 동일한 학교의 졸업생이나 특정 스승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동문무용단, 공연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전문무용단 등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개인 무용가로 활동한다. 직업무용단에서 정규직으로 활동하는 무용가는 많지 않고 대부분 프리랜서,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활동한다.

무용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원모집 오디션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용단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공연작품에 따라 그에 맞는 단원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기도 하며, 대학에서 운영되는 무용단은 추천을 통해 단원으로 선발되기도 한다. 일부는 연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오디션을 거쳐 정식 단원이 되기도 한다. 보통 오디션은 지원자 자유무용과 무용단 지정무용 등으로 구성된다.

무용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준단원 → 정단원 → 수석단원’ 등의 승진체계가 있다. 또 발레단은 ‘(일반)단원 → 드미솔리스트(Demi-Soloist) → 솔리스트(주연무용수) → 수석무용수’ 등으로 승진한다. 무용가로 일정 경력을 쌓아 안무가로 진출하기도 하며, 무용가, 안무가 등을 거쳐 무용단 단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사설 무용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무용가 및 안무가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문화에서 활동하는 무용가 및 안무가는 케이팝(K-pop) 인기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남미 등에서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공연이 증가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댄스 및 안무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가요에 대한 인기가 많고 앞으로도 음악산업 및 연예기획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 발전에 따라 이 분야 무용가 및 안무가가 일할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유명 무용가 및 안무가에게 일이 편중되는 편이어서 신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을 갖춰 경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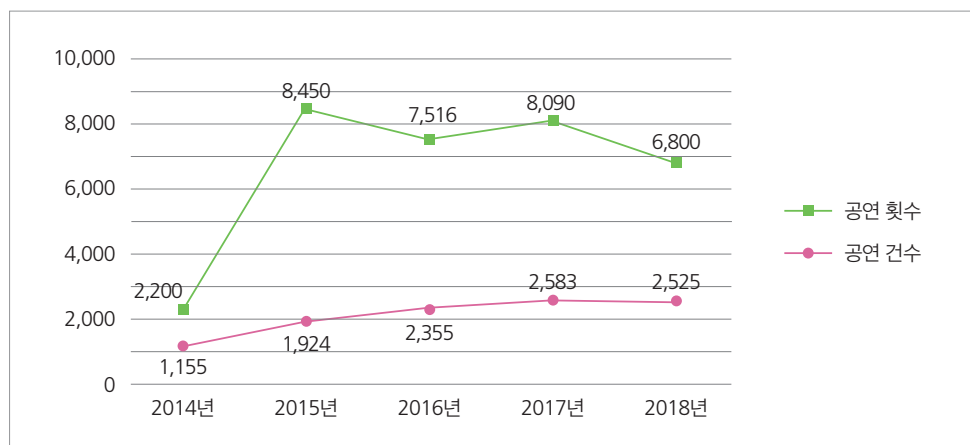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 같은 순수무용 분야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9 문예연감」 무용 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무용 공연 건수는 2014년 1,115건, 2015년 1,924건, 2016년 2,355건, 2017년 2,583건, 2018년 2,5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연 횟수는 2014년 2,200회 이후 2015년 8,450회, 2016년 7,516회, 2017년 8,090회, 2018년 6,800회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장르별로는 한국무용 공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현대무용과 발레를 중심으로 공연이 이뤄지는 편이다. 이처럼 무용 공연의 주를 이루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공연이 꾸준한 편이고, 무용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무용가 및 안무가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무용 공연 추이]

(단위 : 건, 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연 건수	1,155	1,924	2,355	2,583	2,525
공연 횟수	2,200	8,450	7,516	8,090	6,800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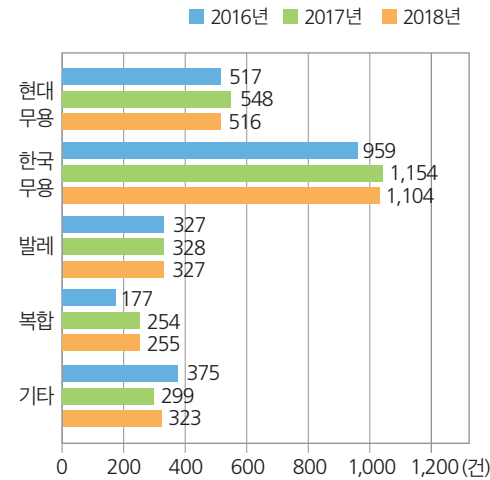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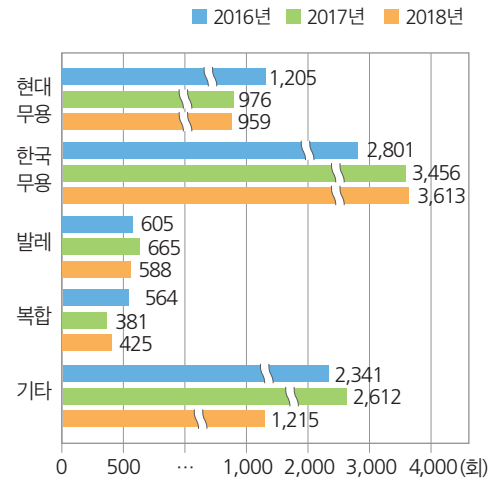
한편,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창작무용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무용단 입단 외에도 새로운 진출경로가 모색되고 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무용 및 안무 스튜디오 수가 늘어나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스튜디오도 많아져 방송이나 공연을 통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공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기 음악에 기반한 무용 및 안무 활동의 무대도 확대될 전망이다.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공연 건수 〉



〈 공연 횟수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연감

다만, 아직까지는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무용단을 선호하는 편인데, 입단인원 수는 제한적이고 이·전직이 적은 편이어서 대체 일자리 발생은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일부 대학의 무용학과가 폐과되거나 타 과와의 통폐합이 추진되는 점은 향후 무용가들의 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대중의 문화예술 관심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복합장르 무용공연 증가 • 한류 및 케이팝(K-pop) 인기 • 온라인 미디어 활동 증가	• 직업무용단 채용확대 한계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문화예술 분야 정책적 지원	

종합하면, 대중문화 부문 무용가 및 안무가는 한류 및 케이팝(K-pop) 인기에 힘입어 다소 증가하는 반면, 순수무용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정책적 지원에 비해 직업무용단의 채용이 많지 않아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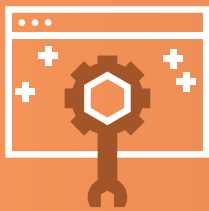
- **관련 직업** 대중무용수, 전통예능인, 국악인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47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47
- **관련 정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www.arko.or.kr
국립발레단 (02)587-6181 www.korean-national-ballet.kr
(사)한국무용협회 (02)744-8066 koreadanceassociation.org
(사)한국발레협회 (02)538-0505 www.koreaballet.or.kr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8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 | | |
|---------------|-----------------------|
| 01 제품디자이너 | 08 배우 및 모델 |
| 02 패션디자이너 | 09 아나운서 및 리포터 |
| 03 실내장식디자이너 | 10 영화·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 |
| 04 시각디자이너 | 11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
| 05 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 | 12 경기감독 및 코치 |
| 06 캐드원(제도사) | 13 직업운동선수 |
| 07 감독 및 기술감독 | 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



01

제품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는 전자제품, 가구, 통신장비, 자동차, 비행기는 물론 문구류나 완구류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디자인한다.



하는 일

제품디자이너는 우리가 ‘제품’이라 불리는 모든 제품들, 예를 들어 전자제품, 가구, 통신장비, 자동차, 비행기를 비롯해 소형 문구와 완구들을 디자인한다. 이들은 특정 제품이 양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획과 리서치, 디자인 전략 수립을 비롯해 실제 디자인과 양산 관리 등에 관여한다.

디자인 과정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먼저 신제품 기획이나 디자인 의뢰에 따라 디자인할 대상물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 니즈(Needs), 유행 흐름 등을 분석하여 디자인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품의 기술 동향, 제조단가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콘셉트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스케치, 아이디어스케치, 2D·3D 렌더링, 도면작업을 진행하여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제품디자인의 결과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디자인에 따라 성능, 부품, 자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기술팀, 혹은 제작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 내의 시장조사팀이나 자체 조사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며, 제품에 따라서는 샘플을 제작하여 수정을 거쳐 실제 제품 제작에 들어가기도 한다.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보통 2~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자동차의 경우는 디자인 후, 모델링, 품평회를 거쳐 최종 단계인 시판에 이르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자동차디자이너는 약 3~4년 후를 예측해 미래에 각광받을 스타일을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및 공업제품은 몇 개월 혹은 몇 년 후에 시판될 제품을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업무 환경 | 창의적인 작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편이다. 보통 기업체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지만, 품평회를 준비하거나 디자인 시한을 맞춰야 할 때는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을 위한 소비자 조사, 자료 수집, 고객과의 미팅 등으로 출장이 잦으며, 해외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국외로 출장을 가기도 한다.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컴퓨터 작업이 많기 때문에 눈에 피로를 쉽게 느끼며 어깨, 손 등에 통증이 있기도 하다. 컴퓨터 작업이 많은 점은 사무실 외 재택근무가 가능한 특성이 된다.



되는 길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제품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제품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편이다. 해외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전공자는 디자인 관련 사설 교육기관에서 디자인 수업을 받고 취업하기도 한다.

제품디자이너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전제품처럼 점점 소형화, 첨단 기능화되는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제작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또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관련 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제품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가구디자인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귀금속디자인학과, 공예학과, 미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예체능교육과, 조형학과 등
- **관련 자격** 제품디자인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기본적으로 미적 감각과 센스가 필요한 일이다. 소비자 유행에 민감하며 색채 및 형태 등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과 표현력, 마케팅 감각 등이 요구된다.

디자인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로 대체된 만큼 디자인 관련 컴퓨터 조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제품의 기술 및 공학적 특성에 대한 파악도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제품디자인에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찾아 새로운 디자인에 적용하려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디자인 기획에 필요한 리서치 능력을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력 및 외국어 능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형이 제작되고 실제 양산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디자인에 따라 성능, 부품, 자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기술팀, 혹은 제작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

제품디자인은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작업할 때가 많으므로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갖춰야 한다. 팀 단위로 일하면서는 리더의 말을 이해해야 하고 동료 간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 개발] 주로 전문디자인업체, 제품디자인업체를 비롯해 가전회사, 자동차회사 등의 디자인실에서 근무한다.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공채로 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 채용 시 필기시험과 디자인 실기시험을 거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하여 디자인 감각을 평가한다. 각종 디자인 공모전에 응모하여 입상하면 채용 시 우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학 중 다양한 제품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후 약 3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 대리로 승진한다. 약 3~5년 정도의 경력이 더 쌓이면 과장 혹은 팀장, 그리고 입사 후 약 10~15년 이상 정도가 되면 디자인 실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독립하여 디자인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어 활동할 수도 있다. 인기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제품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제품디자이너는 2019년 약 36천 명에서 2029년 약 3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제품디자인업체는 2013년에 1,164개소에서 2014년에 1,240개소, 2015년 1,324개소, 2016년 1,302개소, 2017년 1,260개소, 2018년 1,437개소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2013년 5,367명, 2014년 5,307명, 2015년 5,582명, 2016년 5,433명, 2017년 5,099명, 2018년 5,543명으로 증감을 보이며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제품디자인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164	1,240	1,324	1,302	1,260	1,437
종사자 수	5,367	5,307	5,582	5,433	5,099	5,54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디자인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상품의 외적인 차별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많은 기업에서 기술혁신에 비해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 영역을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기업의 전략분석, 기획, 엔지니어링, 마케팅, 유통,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관리 등 경영 요소 전반에 걸쳐 디자인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디자인을 생산의 일부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품디자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주로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 냉장고, TV 등으로, 스마트폰 같은 정보통신 제품은 디자인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겨냥해 기업의 투자가 꾸준한 편이며,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입직을 위한 제품디자이너 간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제품디자인의 영역은 단순히 제품의 외형뿐 아니라 각 제품의 구조와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특정 제품의 제작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제품디자이너의 수요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품의 외형적 디자인 외에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제품디자인에서도 UX/UI 디자인을 서비스에 접목하는 영역의 디자이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제품디자이너의 역량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응용한 제품의 판매 분석, 고객 반응 분석 등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기획하는 데이터분석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부설 디자인연구소를 통해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좀 더 선진화된 기술을 가진 해외에 제품디자인을 맡기고, 외국 브랜드의 직수입이 늘어나는 점은 제품디자이너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제조업체의 감소 추세로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품디자인에 투자하지 못하고 제품디자이너를 보강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점은 제품디자이너의 신규 고용을 어렵게 한다.

인력의 공급 측면에서는 매년 관련 학과의 졸업생과 사설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공급 인력이 많아 제품디자이너의 입직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특히 업무 환경이나 보수가 좋은 일부 대기업 디자인실이나 부설 디자인연구소의 경우 해외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이 진출하는 등 고학력자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입직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품디자인은 소비자 반응에 따라 그 능력이 즉각 검증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한 경쟁력이 요구되고,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외국어능력도 강조되고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디자인의 제품구매력 증대, 소비자 경험 가치 증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제품의 디자인 요소 중시	•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품 디자인 투자 위축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첨단기술 제품의 다양화	• 해외 브랜드 수입 증가

종합하면, 첨단과학기술 및 신기술, 신산업이 융합되는 영역,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서비스디자인 영역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제조업의 위축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가 줄고 신제품 개발이 감소하는 점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가구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 팬시 및 완구디자이너, 휴대폰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생활용품디자이너, 산업기기디자이너, 의료기기디자이너, 문구 디자이너, 안경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5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51
- **관련 정보처**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02)407-2647 www.kaid.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14 www.kidp.or.kr

02

패션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는 양복, 양장, 한복,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캐주얼, 유니폼, 평상복, 정장 등 각종 의류와 의상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을 디자인하고 견본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한다.



하는 일

패션디자인은 크게 의상디자인과 패션소품디자인으로 구분된다. 의상디자인은 양장과 한복으로 분류되며, 성별·나이에 따라 남성복, 여성복, 캐주얼, 아동복으로, 옷의 용도에 따라 유니폼, 운동복, 평상복, 정장 등으로 세분된다. 의상디자이너는 의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활동한다. 패션소품디자이너는 가방이나 신발, 모자 등 패션소품을 디자인하며, 관련 소재와 색상 등을 연구한다.

패션디자이너는 시즌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국내외의 패션 흐름을 분석하고, 시장조사를 거쳐 계절에 맞는 상품을 기획한다. 실제 디자인은 성별, 나이 등 소비자의 특성과 기호, 유행의 흐름, 브랜드 이미지, 시즌별 콘셉트, 상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이뤄진다. 디자인 선정 후에는 의상 제조에 필요한 원단, 부속품 등 소재 선정, 패턴작업, 가봉을 거쳐 샘플작업을 하고, 완성된 샘플로 품평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여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또한 디자인한 대로 옷이 제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산과정을 체크하며, 생산된 의류가 매장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신상품 전시회나 패션쇼에 자신의 의상을 발표하거나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며, 자신이 디자인한 옷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얼마나 판매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 의류매장 등을 직접 돌아보기도 한다.

신발디자이너는 여성화, 남성화 등 각종 신발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트렌드를 예측하여 디자인한다.

가방디자이너는 소비자의 성별과 나이에 맞는 가방을 디자인한다.

액세서리디자이너는 모자, 머리핀 등과 같은 액세서리의 유행 흐름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액세서리를 디자인한다.

|업무 환경| 주로 사무실에서 작업하지만, 시장조사, 재료구입, 제작현장 방문 등을 위한 출장도 많다. 해외의 최신 유행을 파악하기 위해 유명 패션쇼를 참관하는 등 해외출장을 가기도 한다. 신상품이 출시되거나 품평회, 컬렉션 발표 등의 시기에는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며, 의상실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고객의 희망 기일 내에 옷을 완성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이나 휴일이 불규칙하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새로운 디자인,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해야 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편이다.



되는 길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의상디자인학, 패션디자인학, 의류(의상)학 등을 전공하거나 사설 디자인학원, 교육기관을 통해 패션디자인, 의류제작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경우 입학 시 학과에 따라 실기시험을 치르는 곳이 있으며, 교육과정에는 복식사, 의복재료론, 의상심리학, 코디네이션기법 등의 이론과 의상디자인에 대한 실기가 포함되어 있다. 상품으로서의 의상을 팔기 위한 전략을 배우기 위해 마케팅, 머천다이징 관련 교과목도 포함되어 있다.

사설 교육기관의 경우, 의상디자인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세분되는 추세이며, 6개월~3년까지 교육기간도 과정별로 다양하다. 이외에 평소 패션쇼, 패션 관련 잡지 등을 즐겨보면서 패션 감각과 안목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 **관련 학과** 의류학과, 의상학과, 의류직물학과, 의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등

■ **관련 자격** 의류기술사/기사, 한복기능사/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양장기능사, 양복기능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디자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창의성, 색채감각, 섬세함 등이 필요하며, 패션업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옷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드로잉실력 외에 많은 표현방법이 컴퓨터로 작업되기 때문에 일러스트 등 작업 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패션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만든 옷이나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면서 스타일링을 하거나 옷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직접 옷을 몸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입사하면 보통 피팅을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옷을 직접 느끼며 감각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춰야 한다. 타부서와 협력하는 일,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하는 일이 많은 편이고, 매장에 나가 판매 분위기를 살펴보거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등 의견을 주고받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 패션업계 수출입 국가들과 이메일 및 구두로 이야기할 때가 생길 수 있어 어학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경력 개발| 주로 의류회사, 섬유회사, 개인 의상실 등으로 진출하며 자신이 직접 의상실을 경영하기도 한다. 의류업체에서의 경험을 살려 수입의류 브랜드의 머천다이저(MD, 상품기획자)로 진출하거나 패션 감각을 살려 스타일리스트가 되거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내건 의류업체나 의류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의류업체의 경우, 대부분 관련 전공의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편이다. 회사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일정 기간 디자이너가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인턴제를 시행하기도 하며,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수제를 운용하기도 한다. 채용은 공개채용이나, 교육기관 및 교수에 의한 추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포트폴리오,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하는데, 대기업일수록 채용전형이 어렵고 까다로운 편이다.

디자이너의 역량과 디자이너가 속한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으며, 이후 전체 디자인실을 총괄하고 디자인 기획과 브랜드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패션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패션디자이너는 2019년 약 30천 명에서 2029년 약 3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0.3천 명(연평균 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디자이너가 주로 근무하는 의류업계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과거 20여 년간 국내 패션시장은 성장기에 있었으나 이제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의류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외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크게 늘었다. 또한 해외 직구 같은 제품 구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이 해외 브랜드 의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패션업계는 해외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 작업뿐 아니라 상품의 기획과 마케팅 역량 및 외국어능력을 갖춘 디자이너의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의류나 패션소품을 구매하는 형태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패션 대기업들은 브랜드를 축소하거나 통합을 추구하고 있어 신규 고용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패션디자이너의 일자리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별 브랜드를 창업하는 형태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중저가 쇼핑몰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이 활발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유통비중이 높은 신진 패션업체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이너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용적인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니즈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능성 의류 및 웨어러블 섬유 제품에 대한 개발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패션소품디자이너의 경우, 패션소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의상 외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용해 스타일을 연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다소 늘어날 수 있겠으나, 의류산업 전반을 봤을 때 증가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침체와 관련해 패션소품은 의상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싸고 적은 비용으로 스타일을 연출하기 쉬워서 소비가 꾸준한 편이다. 가방, 신발, 모자 등은 디자인이 다양하고 디자이너가 변화를 주기 좋고 의상에 비해 진입이 용이한 편이어서 이 분야로 진입하는 인력이 꾸준할 전망이다.

대기업 등 업무 환경이 좋은 업체들의 경우, 경력직 패션디자이너를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창업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신진 디자이너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대기업 입직에 있어 신규 인력의 진입장벽은 다소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대학 및 대학교, 패션 관련 각종 사설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많은 편이고 인력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패션디자이너로 신규 진입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개인의 개성 표현 중시	• 해외 패션 브랜드 선호
과학기술 발전	• 온라인 결제시스템 대중화, 기능성 의류 및 섬유 개발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온라인 유통비중 확대	• 패션 브랜드 축소 및 통합, 생산 기지 해외 이전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온라인 쇼핑몰 및 개별 브랜드 창업 증가	

종합하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해외 브랜드 선호, 유통구조 변화 등에 따른 패션산업의 변동으로 패션디자이너의 고용이 증감하는 영역이 혼재하면서 향후 10년간 패션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직물디자이너(텍스타일디자이너), 가방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속옷디자이너, 액세서리디자이너, 남성복디자이너, 아동복디자이너, 여성복디자이너, 가죽디자이너, 모피의류디자이너, 무대의상디자이너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5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52
- **관련 정보처** 한국패션산업협회 (02)460-8358 www.koreafashion.org

03

실내장식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는 주택, 호텔, 백화점, 병원, 상점, 레스토랑 등의 실내공간을 기능과 용도에 맞게 설계·디자인하고 장식한다. 실내건축가, 인테리어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하고, 세부직업으로는 디스플레이어,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 등이 있다.



하는 일

실내장식디자이너는 내부시설의 목적과 기능, 고객의 기호, 예산, 건축형태, 시설장비 등 내부 환경이 장식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고객과 협의하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설계계획을 수립한다. 이들은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팀 단위로 일하기도 한다.

실내장식 디자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디자인 콘셉트를 잡고, 건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실내 공간 전체의 디자인 방향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이 완성되면 내부공간의 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고 배치할 것인지를 세부도면으로 작성하여 시공업자에게 전달해 공사를 의뢰하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점검·감독한다. 설계와 시공이 끝난 내부공간에 각 공간의 기능, 필요한 시설장비, 소요예산, 의뢰고객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동선계획, 색채계획, 조명계획 등을 세우고, 커튼과 벽지, 조명기구 등 기초 재료를 선정하며 가구를 배치하는 등 실내를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꾸민다.

대다수 업체가 디자인과 시공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장식디자이너가 디자인에서 시공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시공 도중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도면을 수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내장식디자이너가 미장, 도배, 도색, 철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작업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어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품판매 전략을 반영하여 매장 내외부에 상품을 감각적으로 구성하여 배치한다. 먼저 외부장식(쇼윈도 디스플레이)은 의뢰받은 상품이나 브랜드의 디자인 의도와 목적, 판매전략 등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소품을 선정하고 디스플레이 시안을 구성하며, 확정된 시안대로 필요한 소품 및 물품들을 구매·제작하고 쇼윈도에 시공·설치한다. 내부 장식의 경우, 상품디자인, 판매 전략뿐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와 구조, 고객의 동선을 꼼꼼히 파악하여 연출의 포인트를 설정하고 기획한다.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연출 포인트를 최대한 살려 상품 진열을 기획하고 이를 매장 담당자나 브랜드 담당자 등과 의논하여 확정한다. 결정된 기획에 따라 필요한 소품 및 물품들을 구매·제작하고 매장 내에 설치하며, 내외부 장식이 완료되면 이를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는 연극,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기 위해 연출 목적에 맞게 무대장치를 디자인한다. 무대장치의 종류, 크기, 색상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본을 검토하고, 미술감독과 협의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이들은 무대조립원의 활동을 감독·지시하고, 세트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작가와 협의한다. 또한 소품도구를 수집, 임대, 제작, 배치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실내장식디자이너는 사무실과 시공현장을 오가며 작업하는 일이 많다. 공사 마감이가까워지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할 때도 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전체 디자인 만족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고객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다.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는 무대조립원이 작업을 시행하고 완료하는 동안 연출 효과가 제대로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일이 많다.



되는 길

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실내디자인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학과 등을 졸업하거나 사설 교육기관에서 실내건축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진출한다. 대학에서는 실내디자인사, 실내공간론, 실내조형론 등의 이론뿐 아니라, 모형제작, 실내디자인, 디스플레이디자인, 이벤트디자인 등의 실기과정을 교육한다. 해외에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취업하는 현직 종사자도 많은 편이다. 이론보다는 실무능력이 우선시되므로 무엇보다 인테리어 작업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방송, 영화, 공연 등을 통해 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 **관련 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등
- **관련 자격**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실내디자이너(한국실내건축가협회)

| 적성 및 흥미 | 미적 감각과 창의력, 공간 감각이 요구된다. 다양한 공간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소화해야 하므로 평상시 다양한 공간을 보고 연구하는 등 공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시작할 때는 의뢰한 고객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디자인 콘셉트를 잡고, 건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실내 공간 전체의 디자인 방향을 세워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주로 팀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 작업을 할 때가 많다. 현장의 시공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기간 내에 작업을 진행해야 해서 예산과 시간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의 경우, 극이나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대본을 읽고 캐릭터 및 시청자 등을 분석하는 분석력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인테리어전문회사, 실내건축공사전문업체,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디자인사무소, 건설회사, 방송국 및 공연장 세트제작회사, 가구디자인회사, 조명디자인회사, 건축설계사무소의 인테리어디자인부서 등으로 진출한다.

채용 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맥이나 학교 추천 등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격증 소지 여부보다 실무능력과 경력을 우선으로 여기고,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업체에 취업해서 곧바로 디자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현장을 돕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전문회사의 경우 입사 후 일정 기간 경험을 쌓으며 능력을 인정받으면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또한 실무경험을 익혀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관련 업체를 직접 자영하거나 인테리어 관련 부자재 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무대를 담당하는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는 방송사의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대부분 외주 제작사가 작업을 시행하면서 방송사 채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실내장식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실내장식디자이너는 2019년 약 44천 명에서 2029년 약 4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디자인업체는 2014년 1,083개소, 2015년 1,188개소, 2016년 1,276개소, 2017년 1,357개소, 2018년 1,613개소로 증가해 왔다. 종사자 수는 2014년 4,092명에서 2015년 4,684명, 2016년 5,491명, 2017년 4,551명, 2018년 5,496명으로 2017년에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083	1,188	1,276	1,357	1,613
종사자 수	4,092	4,684	5,491	4,551	5,496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인 가구 증가로 개인 공간을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미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홈 인테리어 시장의 경우,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생활공간의 기능성과 예술성을 강조하고 스마트 스페이스 영역이 부각되는 등 IT 기술과 융합된 실내공간에 대한 디자인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이슈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점은 인테리어디자인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홈카페, 북카페가 있는 거실공간이나 실내정원이 있는 테라스 등 집안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는 수요가 늘면서 실내장식디자이너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아파트나 주택을 개조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주택 개선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이 추진되는 점도 실내장식디자인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인테리어디자인업은 건설경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과거와 같은 건설경기 확대 및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전체적으로는 실내디자이너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의 경우, 방송, 연극, 영화 등의 제작현장에서 활동하며, 주로 경력자 위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인이 크지 않은 편이다. 소수의 인원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석이 발생해야 인력이 채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신규 고용 증가는 어려울 수 있다.

디스플레이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매장 내 환경에 변화를 줘야 해서 그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하지만 매장에 직접 방문해 구매하는 소비방식보다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홈인테리어시장 증가 재택근무제 확대 등으로 주택 거주시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매장 소비 감소 (디스플레이 디자인 수요 감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재건축사업 관련 수요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 침체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 및 정비 관련 사업 추진 	

종합하면, 홈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 및 1인 가구의 증가, 도시 및 주택 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향후 10년간 실내장식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인테리어디자이너, 실내건축디자이너, 실내건축가, 디스플레이어, 비주얼 머천다이어(VMD),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 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5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53
- **관련 정보처**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02)3284-1111 www.kicc.or.kr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02)564-2598 www.kiid.or.kr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02)508-8038 www.kosid.or.kr

04

시각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는 인간의 행위, 사고 등의 정보가 시각적인 형태를 통해 효율적으로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도안하고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하는 일

시각디자이너는 이미지나 심벌 등을 통해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이미지를 디자인하며, 전문 분야에 따라 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서체(타이포)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CI/BI디자인, 캐릭터디자인, 포장(패키지)디자인 등으로 구분된다.

업무과정을 살펴보면, 기획회의를 통해 작업의 기본방향과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고, 디자인 목적에 맞게 강조할 부분이나 특징적인 부분 등을 어떤 크기로 어떻게 배치할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한 뒤 사진, 그림, 텍스트, 삽화 등을 시각적으로 배치하는 세부작업을 하게 된다. 상업용으로 인쇄, 제작될 경우 제작공정을 확인하여 디자인이 시안대로 잘 완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작업을 마무리한다. 전문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광고디자이너는 텔레비전, 잡지, 신문, 라디오, 포스터, 옥외광고 등 영상이나 인쇄매체의 광고 화면을 구성하고 필요한 그림과 이미지를 디자인한다. 광고 제작의 특성상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 기획회의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디자이너는 책, 잡지 등 출판물의 표지와 내지를 디자인한다. 출판물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며, 출판물과 관련된 지면 구성, 판형과 지질의 선택, 잉크색, 제본, 인쇄 등에 이르는 도서 제작 전 과정에 관여한다. 주로 컴퓨터로 작업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이 필수이다. 책을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경우 북디자이너, 표지디자이너로도 불린다. 서체디자이너는 인쇄, 영상매체에 필요한 각종 글꼴을 디자인한다. 서체는 활자를 조판하는 데 필요한 크기와 굵기를 가진 글자 한 벌을 일컫는데, 한글은 영문에 비해 글자 모양이 복잡한 데다 글꼴끼리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영문서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컴퓨터에서 사용할 서체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현재 컴퓨터와 인쇄매체뿐 아니라 비디오, 유선방송 등에 사용되는 서체까지 개발하고 있다. 타이포디자이너, 문자디자이너로도 불린다.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는 그림책이나 잡지, 광고나 홍보물,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각종 그림, 문양을 도안하고 제작한다. 투시도나 세밀화, 입체적인 그림 등을 전문으로 다루기도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진보다 자연스럽고 시각적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활용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만화가, 혹은 삽화가와 하는 일이 다소 중복되나 시각디자이너에 속한다.

CI/BI 디자이너는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의 일환으로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 통합) 및 BI(Brand Identity, 브랜드이미지 통합)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디자인한다. 해당 기업체, 혹은 브랜드의 성격과 소비층 등을 파악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한다.

캐릭터디자이너는 인물, 사물, 동물 등 새롭게 창조되는 캐릭터의 기본적인 모양을 결정한다. 이들은 주로 각종 팬시 사업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인기 연예인들의 특징적인 캐릭터를 만든다.

포장디자이너는 화장품, 음식료품 등의 포장용기, 포장지, 포장상자 등을 디자인한다. 포장디자인은 취급 및 보관이 편리하고 기능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해당 상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여 홍보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장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품시장을 파악해야 하므로 제품제조기술자, 판매담당자, 경영주와 협업하여 일한다. 패키지디자이너로도 불린다.

| 업무 환경 |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지만, 자료조사, 시장조사, 고객과의 만남, 해외정보 수집 등을 위해 국내외로 출장이 필요하고, 디자인 시한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새롭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디자인 의뢰인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많은 편이다.



되는 길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시각디자인 관련 학과와 사설 디자인학원 등에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색채론, 디자인론, 디자인방법론, 디자인사 등의 이론을 배우고, 그래픽디자인, 편집디자인, 출판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포장디자인, 광고디자인 등을 실습한다.

- **관련 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컴퓨터디자인학과, 광고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예체능교육과, 의류·의상학과, 조형학과 등
- **관련 자격**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이상 한국산업 인력공단), ACS(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 적성 및 흥미 | 창의력, 색채감각, 조형감각 등을 갖추고 있으면 이미지를 시각화할 때 도움이 되고,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혁신적인 성격과 섬세한 표현력이 요구된다.

팀원들과 협력하고 의뢰인의 요구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므로, 팀원이나 의뢰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된다.

자신이 디자인한 내용과 의도 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주로 광고디자인, 포장(패키지)디자인, 편집디자인, 표지디자인, 서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전문 디자인업체를 비롯해 일반 기업체의 광고 및 홍보부서, 신문사나 잡지사의 편집부, 광고사, 방송국 등으로 진출한다. 이밖에 소규모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전문 디자인업체에서는 보통 정기적으로, 혹은 결원이 있을 때 공개전형, 학교추천, 현직 디자이너의 추천 등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다. 공개전형은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면접, 디자인 실기시험을 치르며,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업체에 따라 채용 시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람을 우대하기도 한다.

경력을 쌓은 후에는 디자인 업체를 창업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업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각디자이너는 대개 실력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전문 디자인업체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최소 3~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과장 혹은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입사 후 10~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디자인실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시각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시각디자이너는 2019년 약 60천 명에서 2029년 약 6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각디자인 영역은 활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세분화되어 있는 편이다. 광고디자인부터 출판 및 캐릭터디자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디자이너 일자리의 증감도 분야마다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가 정보를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맞게 시각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들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정할 때 비주얼적인 면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광고 및 마케팅 영역에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요소로 시각디자인이 다양하게 접목되면서 영상, 잡지, 포장, 기업 이미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각종 시각디자인물(이모티콘, 캐릭터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시각디자이너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광고 등에 있어서도 스마트기기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융복합하는 종합 역량을 갖춘 디자이너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디자인 용역 감소, 출판시장 침체에 따른 출판물 인쇄 감소와 CI/BI 분야의 수요 감소는 시각디자이너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출판업체의 침체에 따라 편집디자이너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디자인 전문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로 업무 환경과 임금은 다소 열악하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몇몇 전문 디자인업체의 입직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고 근무시간이 긴 편이라 젊은 층의 취업선호도가 높지 않은 경향이 있다. 직업의 특성상 실력 위주로 평가를 받는 편이어서 신규 채용이 둔화되면 실력 있는 경력직 디자이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비주얼 디자인(이모티콘, 캐릭터 등) 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첨단 디지털 기기 및 신기술 관련 광고디자인 수요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광고 및 마케팅 시장 확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전문 시각디자인업체의 영세성, 출판시장 침체, 특정 분야에 치중한 발전

종합하면, 시각디자인 영역마다 일자리 증감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광고디자인처럼 첨단 디지털 기기 및 신기술 영역과 맞닿아 있는 영역에서는 직무의 변화와 함께 고용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제조업 및 출판업과 관련된 편집디자이너나 서체, 포장 디자인 영역은 일자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광고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포장디자이너, 컬러리스트, 캐릭터디자이너, 광고그래픽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표지디자이너, 서체디자이너, 폰트디자이너, 문자디자이너, 타이포디자이너, 패키지디자이너, 캘리그래퍼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5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54
- **관련 정보처**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14 kidp.or.kr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0502)785-4000 vidak.or.kr
KPDA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031)788-7091 www.kpda.or.kr

05

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

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는 컴퓨터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웹페이지, 동영상, 게임, 컴퓨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미디어 콘텐츠에 필요한 아이콘, 자막, 이미지, 영상효과 등의 시각적 구성요소 및 사용자 환경을 디자인한다.



하는 일

웹디자이너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고안하고 제작해 인터넷에 구현한다. 즉, 웹사이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 형태, 사이즈,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서체, 레이아웃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디자인한다. 웹디자인은 크게 디자인과 코딩으로 나뉘며, 디자인 영역은 다시 홈페이지 디자인,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 등으로 세분된다.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의 전체 이미지를 결정한 후 내비게이션을 설계하고 전체 구조와 메뉴, 서브메뉴를 위계적으로 설정하며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2D 스튜디오, 어도비 프리미어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인터넷 프로그램 언어인 HTML과 자바(JAVA), 애니메이션 등을 응용하여 작업한다.

게임그래픽디자이너는 PC 게임, 네트워크 게임 등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작에 참여하여 게임시나리오작가가 구상한 내용을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실감나는 영상으로 표현한다. 주로 게임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와 배경, 아이템, 메뉴와 옵션 등이 뜨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다.

영상그래픽디자이너는 영화 및 드라마 내용의 그림이나 자막, 차트, 화면합성 등을 컴퓨터로 도안하여 입체영상으로 표현한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연출자 및 감독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영상에 적합한 그래픽을 결정하고 반영하게 된다.

사용자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이너(UI/UX디자이너)는 사용자 경험에 입각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수집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설계한다. 도출된 UX/UI의 시안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등의 사용자 환경에 기획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각적 디자인 요소 등을 결합하여 디자인한다.

| 업무 환경 |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이지만 작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편이다. 디자인 시한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편이고, 특히 기획 초기 단계나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컴퓨터 작업이 많기 때문에 눈에 피로를 쉽게 느끼고, 어깨, 손 등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긴장할 때가 많고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큰 편이다.



되는 길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디자인, 멀티미디어, 컴퓨터그래픽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취업에 유리하다.

■ **관련 학과** 웹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게임그래픽디자인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응용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 **관련 자격**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툴(Tool)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고 웹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창의력, 색채감각, 조형감각 등을 갖추고 있으면 이미지를 시각화할 때 도움이 되고,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혁신적인 성격과 섬세한 표현력이 요구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변화 등에 따라 빠른 웹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혹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

팀원들과 협력하고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팀원이나 의뢰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웹사이트 개발업체, 전문 디자인업체, 게임개발업체의 채용공고를 통해 입직하거나 업무가 있을 때 프리랜서의 형태로 개발자들과 팀을 이뤄 일한다. 취업 시에는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보다는 실무경험이 중요하므로 평소 포트폴리오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웹디자이너는 웹사이트 개발업체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동안 경력과 실력을 쌓아 웹광고기획자, 웹마스터, 웹콘텐츠기획자 등으로 전직할 수도 있다. 주로 광고사, 방송국, 게임개발업체, 컴퓨터그래픽전문업체 등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은 후에는 전문디자인업체를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는 2019년 약 56천 명에서 2029년 약 62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가 발전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및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고품질의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기대 수요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매체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 및 디자인 적용이 반영되고, 첨단 영상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관련 학과뿐 아니라 사설학원 등에서 배출인력이 많은 편이고,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이 간편해지면서 일반인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활용한 웹사이트 대체 현상이 생겨나는 점은 웹디자이너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증가, 영상 및 모바일 콘텐츠의 사용 증가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그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고품질의 그래픽, 배경, 캐릭터, 아이템, 메뉴 등을 기대하면서 게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보다 실력 있는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게임 부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 개발이 증가하고, 게임 유저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게임그래픽디자이너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상그래픽디자이너는 영상을 통한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품질의 영상그래픽을 책임지는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가상현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관련 기술이 접목된 제품의 디자인 및 게임물, 영상콘텐츠 분야의 유망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분야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그래픽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첨단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역량을 갖춘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수요가 계속 커질 전망이다.

UX/UI디자이너는 사용자 경험에 입각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수집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설계한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용했지만, 이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 컴퓨터와 인터넷, 웹페이지의 UI디자인에서 시작한 UX디자인은 더욱 영역을 넓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웹디자이너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기기와 매체, 콘텐츠 영역에서 소비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대학의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디자인, 게임디자인 등 관련 학과뿐 아니라 사설학원 등에서도 관련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 해당 디자인 분야 배출인력이 많은 편이다. 특히 관련 업체에서는 실력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 입직자는 치열한 경쟁과 취업난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 개발 기간의 단축으로 보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면서 디자이너는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해야 하고, 전문 분야를 특화하거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모전 수상 등 남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디지털 기기 사용 대중화, 게임 및 영상 콘텐츠 사용 증가	
과학기술 발전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발전 및 시장 확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콘텐츠산업 시장의 확장	

종합하면,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유통, 사용 등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게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디자인 요구 증가 등으로 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의 향후 10년간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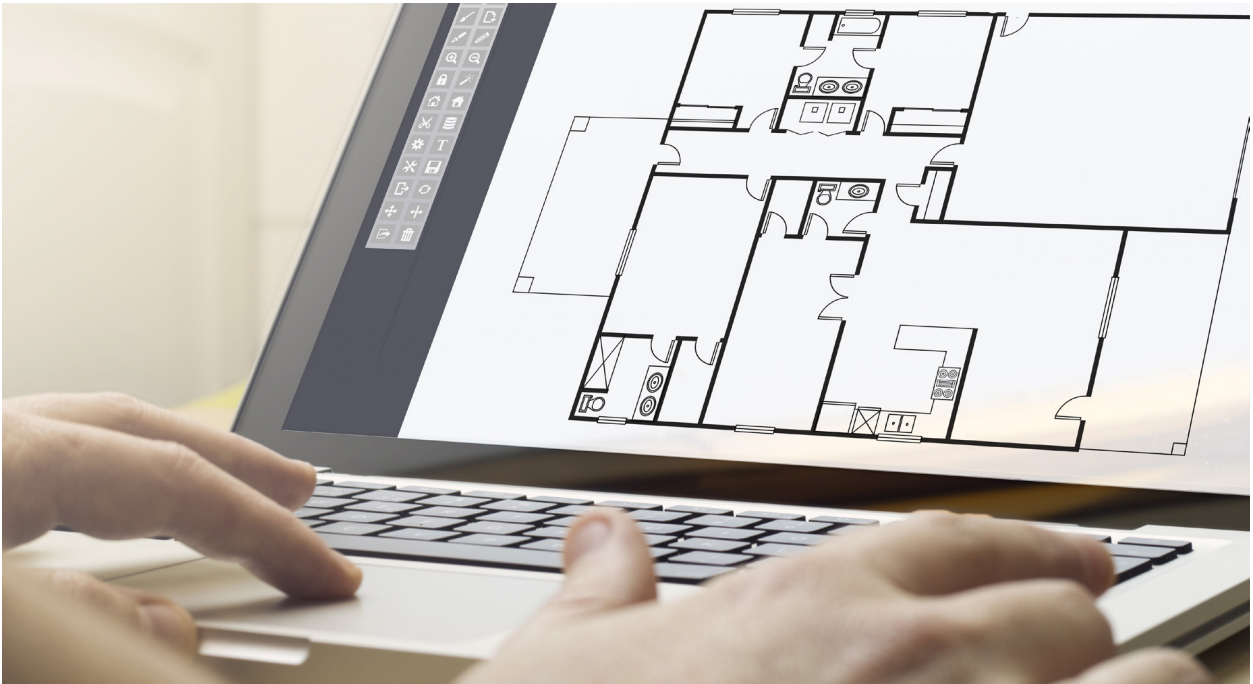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웹디자이너, 영상그래픽디자이너, 게임그래픽디자이너, 2D그래픽디자이너, 3D그래픽디자이너, 3D입체영상디자이너, 모션그래픽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5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55
- **관련 정보처**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14 kidp.or.kr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0502)785-4000 vidak.or.kr
(사)한국웹에이전시협회 (02)830-5767 www.kwaa.or.kr

06

캐드원(제도사)

캐드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학기술자, 설계사(건축, 조경 등), 디자이너가 작성한 스케치와 명세서 등을 세부도면으로 그려 자료화한다.



하는 일

캐드(CAD :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지원설계)란 설계의 기본 개념단계부터 최종 해석단계까지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계나 물체 등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를 2D 도면으로 작업해 선이나 치수, 문자 등으로 표현했지만, 요즘은 사용자나 제작자가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과 흡사한 3D도면 작업이 주로 이뤄진다.

캐드가 활용되는 분야는 크게 공학 분야와 예술 분야로 구분되며, 캐드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 건축, 토목, 전자, 전기, 기계, 플랜트 등의 공학 분야와 순수미술, 그래픽, 디자인, 실내장식, 광고 등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활동 분야에 따라 건축캐드원, 토목캐드원, 기계캐드원, 전기·전자캐드원 등으로 불린다.

건축캐드원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의 도면을 제도한다.

토목캐드원은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설계도면을 제도한다.

기계캐드원은 기계엔지니어링업체 등에서 각종 기계도면을 제도한다.

전기·전자캐드원은 전기 및 전자 기재의 장비에 대한 시공도 등을 작성한다.

분야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계, 전기 등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요즘에는 제도 업무뿐 아니라 설계나 디자인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컴퓨터제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입력장치를 통해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형태를 선으로 그리며, 표준화된 부품이나 장치 등은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CAD프로그램에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치수, 문자, 기호, 정밀도 등으로 상세한 제작정보를 입력시켜 도면을 완성한다. 필요에 따라 조립도를 그려서 물체의 쓰임새를 보여 주기도 한다.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도면을 완성시키며 완성된 도면을 출력하여 설계서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수정한다. 또한 부품도·상세도·조립도 등을 분류하고 입력하며 설계가 완료된 제품의 투시도를 컴퓨터로 그린다.

|업무 환경| 작업의 특성상 중도에 그만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할 때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수의 캐드원이 활동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장시간 컴퓨터를 다루고 세밀한 수치작업과 조작을 하기 때문에 눈과 어깨 등에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실수 없이 작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크다.



되는 길

제도에 대한 지식과 CAD, 3D-Max,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 기술이 필요하므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의상학과 등 설계·디자인이 필요한 학과에는 컴퓨터 제도와 관련한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계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뒤 진출하기도 한다. 이밖에 직업전문학교나 사설 교육기관에서 기계제도, 건축제도, 인테리어제도 등으로 세분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특성화고,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학과, 전산응용기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가구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건축·설비공학과 등
- **관련 자격**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전자캐드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가구설계제도사, 기계설계제도사(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적성 및 흥미| 기본적으로 세세한 수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과 세밀함이 요구된다. 도면설계를 위한 기술설계 능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며, 분야에 따라 건설 및 건축, 디자인 등에 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경력 개발| 캐드전문업체, 건축설계사무소, 조경설계사무소, 인테리어디자인업체, 엔지니어링사무소, 전자제품제조업체, 의류제조업체, 리빙디자인 관련 잡지사, 전시디자인업체, 디스플레이어업체, 무대·조명·가구디자인업체, 그래픽 전문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채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캐드작업을 하는 실기 테스트를 치르게 되며,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구한다. 제조업체에서 설계대행업체로 옮기거나, 경력을 쌓아 실력을 인정받으면 업체의 프로젝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제도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직접 제도전문업체를 창업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캐드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드(CAD :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지원설계)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계나 물체 등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설계 업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캐드원은 단순히 캐드작업을 전담했으나, 이제는 기술자, 설계자, 디자이너들이 본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캐드 업무를 직접 병행하고 있다.

설계도면의 표준화로 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관련 산업 제작 및 생산 분야 종사자가 기본적인 캐드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순 캐드작업만 하는 캐드원의 고용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D프린터의 보급 확대는 캐드 작업을 상당 부분 간소화시키거나 단순 캐드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계 분야는 설계도면의 표준화로 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관련 업체에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고, 캐드 관련 직무가 단순 업무가 됨에 따라 별도로 캐드원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도 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캐드원은 이미 시장에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특히 기술 발달로 캐드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는 점은 캐드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드는 건축, 토목, 전자, 전기, 기계, 플랜트 등의 공학 분야와 순수미술, 그래픽, 디자인, 실내장식, 광고 등의 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며, 생체조직공학, 음향기기, 유비쿼터스, 조선공학, 치기공 등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 중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는 예술과 광고, 디자인, 바이오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숙련된 캐드원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례로, 환경보호 기준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건축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D모델링, 즉 빌딩정보모델링(BIM)은 캐드원의 새로운 직무가 될 수 있다.

캐드원이 활동하는 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신규 인력보다는 실무에 능숙한 경력자를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지는 편이다. 따라서 신규 인력의 진입은 쉽지 않으며, 업무 환경 및 임금수준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전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에 경력직 캐드원이 입직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드업무의 범용화, 새로운 캐드 프로그램 개발 및 캐드작업의 단순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업무 캐드 인력의 포화

종합하면, 과거 캐드작업만 전담하던 단순 캐드원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설계 부문에 있어 캐드의 활용이 확대되겠으나, 이는 캐드원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각기 설계가 필요한 전문 영역에서 캐드프로그램 사용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건축 및 토목캐드원, 기계제도사, 건축제도사, 토목제도사, 전기·전자제도사, 지도제도사, 인테리어캐드원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159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395
- **관련 정보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07

감독 및 기술감독

감독은 연극, 영화, 라디오, TV프로그램 및 광고 등의 제작을 감독, 연출한다. 기술감독은 연출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 업무를 계획, 지도,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



하는 일

방송연출가는 방송프로듀서(PD : Producer, Program Director)라고도 하며 지상파방송사, 종합 유선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독립프로덕션 등에서 근무한다.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의 보도, 교양, 오락(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제작과정과 섭외, 예산에 이르기까지 방송 제작 전반을 총괄한다. 제작할 프로그램이 기획되면 제작진(스태프)과 협의하여 무대배경, 음향, 카메라, 시간배정 등을 결정하고 대본을 조정한다. 출연자 섭외, 장소 선정, 화면 구성 등을 확인하고, 촬영에 참가하는 모든 제작진을 지휘한다.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요일별·시간별로 배치하는 편성 PD도 있다.

영화감독은 연기자는 물론 조명, 세트, 효과, 분장 등 영화를 촬영·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작진을 통솔하여 영화를 만들고, 영화의 질과 완성도를 책임진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작가와 함께 작품 구상, 인물에게 맞는 배우 선정 등에 관여하고 제작비를 투자할 투자자를 찾기도 한다. 촬영 스케줄을 관리하고, 촬영 시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하며, 촬영이 끝난 뒤 편집 등의 마무리 작업을 감수하는 일까지 수행한다.

연극연출가는 작품을 해석하여 연극배우들을 지휘하고, 연극 관련 종사자의 활동을 총괄한다. 자신이 직접 희곡을 쓰거나 다른 이가 쓴 희곡을 작품으로 선정하는 등의 기획을 거쳐 무대에 올린다. 배역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무대, 조명, 의상, 음향 등을 담당할 스태프를 구성하며, 공연연습을 지휘한다. 또한 극의 분위기에 맞게 무대를 구성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동선(움직임)과 소품 등을 챙기며

배우가 인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기지도를 한다.

연극·영화·방송 기술감독은 제작과정에 따라 촬영감독, 편집감독, 무대감독 등으로 구분한다. 촬영감독은 대본을 검토하고 장면의 해석과 촬영효과에 관하여 연출자와 협의한다. 조명 설치를 위하여 조명감독과 협의하고 화면의 노출조절, 촬영대상, 카메라의 움직임, 촬영거리 등을 감안하여 촬영기사에게 지시한다. 작품을 촬영하는 활동 범위에 따라 영화촬영감독, 텔레비전 촬영감독 등으로 불린다. 편집감독은 대본을 확인하고 영화촬영 시에 작성한 촬영기록을 검토한다. 화면을 보면서 연결·삭제 부분을 결정해 편집하고,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감독과 협의하여 편집한 영상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재편집한다. 무대감독은 대본을 검토하여 무대장치의 종류 및 수량을 영화감독 또는 방송연출가와 협의한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는 무대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무대기술자와 협의한다. 무대장치가 주어진 예산과 세부계획에 일치하도록 무대설치를 지휘하고 조정한다.

|업무 환경| 잦은 회의, 촬영, 편집 등으로 밤샘작업이 많은 등 작업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다. 주말이나 휴일에 촬영할 때도 많으며, 장기간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연극연출자의 경우 공연이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후에 있기 때문에 연습과 공연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진다. 영화감독은 한 작품을 끝낸 후 몇 달 혹은 몇 년 간 휴식을 갖기도 한다. 이전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다음 작품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흥행과 작품 평가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다. 방송, 영화, 연극의 특성상 작업 후 시청자나 관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고, 프리랜서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되는 길

대학의 관련 학과나 사설학원 등에서 방송, 영화, 연극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유학 등을 통해 이론뿐 아니라 시나리오 작업에서부터 촬영, 편집 등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진출도 많고, 대학에서부터 동아리활동, 단편영화 제작 등 연출 경험을 미리 쌓는 사람도 많다.

방송프로듀서는 대학에서의 동아리활동, 방송아카데미 등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입직 후 업무를 수행할 때 유리하다. 영화나 연극 분야는 조감독이나 보조연출자로 5~10년간 경험을 쌓아 감독이나 연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화감독은 단편영화제 공모에 당선되어 입문할 수도 있고, 독립영화(단편영화) 제작실습을 통해 입문하기도 한다. 대체로 다른 직업에 비해 현장의 경험이 중시되는 편이다.

■ **관련 학과** 연극영화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사진·영상예술학과, 방송·연예과, 정보미디어학과 등

|적성 및 흥미| 방송이나 영화, 연극 등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감독 및 기술감독은 많은 제작진(스태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추진력 등이 요구된다.

사회, 문화, 예술, 시사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이해와 소질이 있어야 하고, 특히 영상 예술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새로운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도 함께 요구된다.

[경력 개발] 방송연출가는 일반적으로 각 방송사의 공개채용을 통해 입직한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독립프로덕션 등에서도 전문대 졸업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점차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이다. 외국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을 위해 해당 언어 전문 PD를 채용하기도 한다.

방송사에 따라 채용 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서류전형-필기시험(시사교양, 논술)-실무 능력평가-면접' 등의 단계를 거친다. 종합유선방송사, 독립프로덕션 등의 경우에는 인맥이나 학원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방송연출가의 경우 입사 후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거쳐 조연출로 활동하게 된다. 보통 '조연출자→연출자(PD)→책임연출자(CP: Chief Producer)' 등으로 승진한다. 방송사에 입사 후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맡게 되기까지 교양프로그램은 5년 내외, 예능프로그램은 7년 내외, 드라마는 그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어 과거에 비해 방송사의 인력 적체로 2~3년이 더 소요되고 있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관리하는 책임연출자(CP)까지는 입사 후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방송연출가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하며, 직접 독립프로덕션을 차려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한다.

영화의 경우 조감독으로 경험을 쌓은 후 실력을 인정받아 감독으로 데뷔하기도 하며, 단편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제작 실무와 감각을 익혀 데뷔하기도 한다. 시나리오작가가 감독으로 데뷔하기도 한다. 연극연출자는 극단의 연출부로 들어가 조연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화감독과 연극연출자는 조연출자(조감독), 연출자(감독)의 단계를 거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감독 및 기술감독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감독 및 기술감독은 2019년 약 22천 명에서 2029년 약 2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산업은 매출과 투자 부문을 제외하고 100 이상을 기록하여 업황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용 부문에 있어서도 CBI(Contents Business Index) 110.1로 가장 높아 고용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및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의 매출이 다소 감소하는 점은 방송연출가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 IPTV 등 다매체·다채널화로 방송환경이 재편되면서 방송시장은 확대되었다. 또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경쟁적 구조를 갖추면서 제작 방송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한류 인기의 영향으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꾸준히 해외로 수출되는 점은 방송연출가의 고용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산업 부문별 CBI]

전망 대상 시기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종합)
2017년 1분기	75.9	86.3	85.7	89.4	75.2	81.7
2017년 2분기	77.7	95.7	90.2	99.4	80.4	87.4
2017년 3분기	88.2	101.4	98.8	100.0	89.7	95.0
2017년 4분기	93.4	101.6	101.0	100.2	94.5	97.8
2018년 1분기	98.0	102.6	99.7	100.0	95.4	98.9
2018년 2분기	89.1	100.0	97.1	99.5	85.8	93.6
2018년 하반기	96.5	101.0	100.2	100.6	93.6	98.1
2019년 상반기	94.5	99.9	98.4	99.3	93.6	96.8
2019년 하반기	113.2	101.7	101.8	100.6	107.5	106.8
2020년 상반기	95.7	100.4	99.8	110.1	103.8	101.3

자료 : 2019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방송연출가는 2018년 12월 말 기준 4,92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3년에 3,943명에서 1천여 명 증가한 수치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방송국 연출가의 신규 채용은 매우 적은 편이며,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외주제작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은 외주제작사의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편이다. 기술감독에 해당하는 제작 관련 인력의 경우도 2003년 3,347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4,884명으로 증가하였고, 기술직은 2006년 4,814명에서 2018년 12월 4,239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변화해왔다. 이는 급격한 증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방송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증감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방송산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영상물이 유통되는 형태가 방송 송출 중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 유통 채널로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1인 미디어 영역이 크게 확대돼 이 분야 일자리 증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물을 연출하고 제작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자(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전통적인 개념의 방송연출가는 아니지만, 영상 제작의 기획과 연출, 제작 등을 일괄 책임지고 창작한다는 점에서 유사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영상플랫폼 이용 확대에 따라 영상 제작 및 유통 방식의 변화로 관련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임원	경영진	방송직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용역계약	기타
				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전체 종사자	2003. 6	31,934	1,096	6,101	2,416	3,943	604	3,347	895	5,092	2,624	4,698	1,118
	2004. 6	31,645	995	6,180	2,473	4,013	602	3,402	851	4,960	2,602	4,803	764
	2005. 6	30,530	911	6,053	2,538	3,545	651	3,384	1,538	5,012	3,160	-	3,738
	2006.12	29,308	938	5,431	2,866	3,852	718	3,046	1,557	4,814	140	3,429	2,517
	2007.12	28,913	828	4,808	3,045	3,840	667	3,540	1,330	4,950	159	3,384	2,362
	2008.12	29,669	910	4,414	3,161	3,800	699	3,597	1,091	5,216	189	3,881	2,711
	2009.12	29,966	948	4,805	3,172	3,894	750	3,421	1,080	4,954	198	4,123	2,621
	2010.12	29,878	936	4,772	3,279	4,054	727	3,387	1,205	4,579	372	4,371	2,196
	2011.12	32,443	784	5,562	3,660	4,573	782	3,874	1,561	4,482	368	4,383	2,414
	2012.12	33,888	817	5,307	3,794	4,514	784	4,217	1,787	4,570	281	4,546	3,271
	2013.12	34,714	769	5,420	3,792	4,634	750	4,037	2,332	4,682	486	4,861	2,951
	2014.12	34,615	785	5,635	3,798	4,550	755	4,581	2,250	4,284	539	5,340	2,098
	2015.12	35,096	771	5,578	3,992	4,724	730	4,766	1,855	4,215	404	5,439	2,622
	2016.12	35,992	763	5,926	4,000	4,628	717	4,745	2,105	4,362	432	5,392	2,922
	2017.12	36,815	809	6,120	4,225	4,822	708	4,843	2,021	4,243	503	6,048	2,473
	2018.12	37,288	744	6,053	4,074	4,921	694	4,884	2,197	4,239	965	6,245	2,272

자료 :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p.318

영화산업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2020년 상반기 CBI가 전반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고용 부문만이 100을 약간 초과하고 있을 뿐, 매출, 투자, 자금사정 부문은 100 미만을 밑돌아 2020년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출은 88.6으로 전 부문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개봉이 어려워지고 관람객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한 점은 향후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여 관련 종사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은 영화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며, 여가 선용 차원에서 영화를 즐기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극장 외에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 선보이는 영화를 즐기는 방향으로 관람문화가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화감독의 경우 한두 편의 작품을 만들고 사라지는 감독도 많고, 흥행 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영화산업 투자 위축 및 부가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수의 흥행 영화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온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대기업의 상영관 독과점으로 저예산 영화의 설 자리를 막으면서 장르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것이 한국영화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도 여전하다.

[영화산업 부문별 CBI]

전망 대상 시기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종합)
2017년 1분기	87.4	96.9	94.3	95.4	88.2	92.0
2017년 2분기	88.1	94.8	94.7	99.7	89.8	92.8
2017년 3분기	91.0	100.7	98.9	100.0	93.5	96.3
2017년 4분기	93.7	100.6	98.6	100.0	93.7	96.9
2018년 1분기	103.6	101.3	100.3	100.0	96.6	100.4
2018년 2분기	86.4	100.2	97.8	99.8	82.8	92.5
2018년 하반기	105.7	104.4	101.8	101.7	98.7	102.5
2019년 상반기	89.6	99.7	96.3	98.0	88.9	94.0
2019년 하반기	109.1	101.0	99.0	102.1	100.2	102.6
2020년 상반기	88.6	100.1	96.0	100.7	90.8	94.5

자료 : 2019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연극 분야의 경우, 삶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힘입어 공연이 꾸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자체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인기 배우가 등장하는 공연에 관객이 몰리는 공연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전하고, 재정적 곤란을 겪는 극단과 연극연출자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극 분야 종사자는 연극 연출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진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매체의 연출자와 달리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고용이 꾸준한 편이지만,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연극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인터넷 방송 및 1인 미디어 증가, 영상물 콘텐츠 선호 및 보급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마케팅 채널의 다양화 (방송사 광고 축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방송환경의 다매체·다채널화, 한류 영향에 따른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증가	• 방송사 경쟁 심화

종합하면, 기존 방송사 중심의 연출자와 영화감독, 연극연출자, 기술감독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외주제작사 위주로 종사자 수가 이동하고 인터넷 영상 유통 채널에서 활동하는 감독 및 기술감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기존의 경력자에 해당하는 감독 및 기술감독은 큰 변화가 없겠으나,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등 새로운 채널을 겨냥한 콘텐츠 기업의 감독 및 기술감독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영화감독, 방송연출가, 연극연출가, 광고제작감독(CF감독), 드라마PD, 라디오PD, 게임방송PD, 무대감독, 미술감독, 촬영감독, 독립PD, 미디어콘텐츠창작자(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6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31
- **관련 정보처**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www.kcc.go.kr
한국PD연합회 (02)3219-5611 www.kpda.co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02)3219-5645 www.kipa21.com
서울연극협회 (02)765-7500 www.stheater.or.kr
영화진흥위원회 (051)720-4700 www.kofic.or.kr

08

배우 및 모델

배우는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광고 등에 출연하여 연기를 하며, 활동 분야에 따라 영화배우, 연극배우, 탤런트, 뮤지컬배우, 개그맨, 코미디언, 스텐트맨 등으로 불린다. 모델은 패션쇼, 광고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패션쇼의 경우 의상, 무대, 조명 등 전체 콘셉트에 맞춰 워킹이나 표정을 연출한다.



하는 일

배우는 배역이 결정되어 작품 출연이 확정되면 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연출자 및 감독, 작가 등과 논의하여 극중 인물에 맞는 표정, 행동, 대사 톤 등을 설정한다. 인물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의상, 소품, 분장 등을 담당자와 협의하며 대본 연습, 리허설 등을 통해 함께 출연하는 배우와 호흡을 맞추고 자신의 대사를 암기한 후 촬영 혹은 공연에 들어간다. 극중에서 필요한 노래, 무용, 격투 등을 별도로 연습하여 연기 준비를 한다. 특히 연극배우는 무대에서 즉석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리허설을 통해 인물과 극의 흐름을 완벽히 소화해내어야 한다.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은 코미디나 쇼 등에서 익살스러운 대사나 행동으로 연기를 한다. 공연무대의 경우 다양한 즉흥 연기와 돌발 상황 연출이 가능하며, 방송의 경우에는 아이템 회의 때부터 프로듀서, 작가와 함께 대본을 만든다.

성우는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케이블방송과 극장용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더빙하고 다큐멘터리, 광고, 기업체 홍보물 등 각종 영상물의 내레이션을 담당한다. 배역이 정해지면 맡은 배역의 나이, 직업, 성격,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목소리 연습을 한다. 특히 외화더빙의 경우 목소리 연기로 인물을 완벽히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 분석력과 연기력이 요구된다.

스텐트맨은 무술이나 자동차 사고 등 위험한 장면을 촬영할 때 배우를 대신하여 연기를 펼친다. 촬영 전 미리 현장을 답사하고, 카메라의 위치와 거리, 연기 시간 등을 확인하여 연기 준비를 한다.

모델은 패션쇼, 광고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패션쇼의 경우 의상, 무대, 조명 등 전체 콘셉트에 맞춰 워킹이나 표정을 연출할 줄 알아야 하며, 리허설을 거쳐 패션쇼에 참가하게 된다. 광고나 화보촬영 역시 표현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분위기에 맞는 연기와 표현력이 필요하며, 광고감독 혹은 사진작가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업무 환경| 배우의 경우 대본 암기, 극중 인물에의 몰입, 관객이나 시청자의 반응 등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촬영이나 패션쇼를 위해 지방이나 해외를 다니고, 몹시 좋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 촬영해야 할 때도 한다. 때로는 밤샘 촬영도 해야 한다.

연극공연은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있으며, 순회공연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도시를 다니기도 한다.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성우는 녹음 및 더빙 스케줄에 맞춰 녹음실에서 녹음하며, 스케줄에 따라 야간에 녹음을 하기도 한다. 모델의 경우 여름에 겨울용 의상, 혹은 겨울에 여름용 의상을 입고 촬영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요구되는 학력이나 전공 등에 제약은 없다. 배우는 무엇보다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예술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거나 사설 교육기관의 연기자 양성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진출하는 사람이 많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는 연기에 필요한 발성, 동작, 대사훈련, 연기실습 등을 하며, 영화, 연극, TV 드라마 등의 제작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대학에서 연기 동아리 활동 등으로 연기경험을 쌓기도 한다. 모델은 기존에는 사설학원에서 워킹, 재즈댄스, 표정, 이미지메이킹 등 모델에게 필요한 자질을 배웠으나 요즘에는 대학의 모델학과에서도 전문모델을 양성하고 있다.

성우는 관련 학과나 아카데미를 통해 공채에 합격한 후 2년 전속 기관을 거친 후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전속 기간 이후 한국성우협회에 가입하고 활동한다.

■ **관련 학과** 예술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연극영화과, 연기과, 코미디연기학과, 방송연예과, 모델과 등

|적성 및 흥미| 배우는 다양한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과 연기에 대한 열정, 끼, 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과 개성이 필요하다.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의 특성상 평소 문화예술 방면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공부를 통해 표현력을 기르는 과정도 중요하다.

개그맨은 자신만의 개성을 잘 살릴만한 다양한 개그 아이디어를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며, 성우는 정확한 발음과 발성,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력 개발| 영화배우는 영화사에서 실시하는 신인배우 공개오디션을 보거나 기획사나 사설 연기학원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프로필과 사진 등을 영화사, 기획사 등에 보내 오디션을 거쳐 영화에 출연하기도 한다. 연극배우는 오디션에 합격하거나 선후배의 추천으로 극단에 입단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탤런트는 방송사의 공개채용을 통해 활동할 수 있으며, 보통 즉석연기와 개인기심사, 카메라테스트 등의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방송사의 공개채용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기획사나 전문사설학원 등의 추천을 통해 출연하거나 연극, CF, 잡지모델 등의 활동 경험으로 캐스팅되기도 한다. 배우 및 모델 중에는 매니저나 기획사의 관계자들이 길거리에서 섭외하는 로드캐스팅을 통해 데뷔한 사람도 있다.

모델은 모델양성기관의 오디션을 거쳐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하며 모델전문 에이전시에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모델의 경우 일정한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용모, 개성 등을 평가하여 교육한다. 이제는 연기자를 비롯해 모델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져 10대에 진출하는 사람도 많다.

개그맨은 방송사의 정기공채에 합격하거나 인맥에 의한 추천, 그리고 기획사에서 실시하는 공개오디션을 거쳐 활동하며 연기경험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공채시험에서는 자신이 직접 구성한 콘티로 개그를 해야 하므로 시험 준비와 연습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일시적이기는 하나 개그맨 정기공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배우 및 모델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배우 및 모델은 2019년 약 13천 명에서 2029년 약 1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고, 일상생활에서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방송, 영화, 연극,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많은 연예기획사가 설립되고, 재능 있는 배우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예기획사들은 다방면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스타성을 갖춘 배우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 이를 통해 데뷔하고 관리되는 엔터테이너들이 늘고 있다.

방송 및 영상 산업은 배우 및 모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방송산업의 경우 매체의 다양화로 방송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드라마 제작편수가 증가하면서 향후 출연 배우들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증가에 따른 배우들의 출연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가요 및 방송·드라마 프로그램이 해외로 수출되고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대량 홍보, 유통되면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산업의 매출과 기업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수출, 투자,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매출 대비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는 점이 방송산업의 기업경영 체감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국제적

연기역량을 갖춘 배우를 양성하고 공연 및 해외진출에 보다 투자하면서 배우 등 엔터테이너들의 진출을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산업 부문별 CBI]

전망 대상 시기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종합)
2016년 2분기	91.3	96.9	99.7	100.0	91.2	95.4
2016년 3분기	95.8	100.6	102.1	99.9	92.8	98.0
2016년 4분기	87.3	101.0	98.8	100.0	89.4	94.6
2017년 1분기	75.9	86.3	85.7	89.4	75.2	81.7
2017년 2분기	77.7	95.7	90.2	99.4	80.4	87.4
2017년 3분기	88.2	101.4	98.8	100.0	89.7	95.0
2017년 4분기	93.4	101.6	101.0	100.2	94.5	97.8
2018년 1분기	98.0	102.6	99.7	100.0	95.4	98.9
2018년 2분기	89.1	100.0	97.1	99.5	85.8	93.6
2018년 하반기	96.5	101.0	100.2	100.6	93.6	98.1

자료 : 2018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산업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수출, 투자, 고용 부문에서 CBI가 전반적으로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영화에 대한 해외 시장의 관심이 큰 편이고 한국영화의 극장 티켓 파워와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으로 영화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영화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며, 여가 선용 차원에서 영화를 즐기는 관람객 수가 늘면서 투자와 매출 신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시간 소수의 흥행 영화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온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대기업의 상영권 독과점으로 저예산 영화의 설 자리가 부족하면서 장르의 다양화 저해에 따른 한국영화의 양적 질적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제한점은 영화배우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기력뿐 아니라 다방면에 재능을 갖춘 배우를 선호하면서 배우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산업 부문별 CBI]

전망 대상 시기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종합)
2016년 2분기	97.2	99.5	103.0	100.4	89.6	97.7
2016년 3분기	92.0	101.1	102.4	99.8	94.2	97.6
2016년 4분기	99.2	101.1	100.8	101.1	96.7	99.6
2017년 1분기	87.4	96.9	94.3	95.4	88.2	92.0
2017년 2분기	88.1	94.8	94.7	99.7	89.8	92.8
2017년 3분기	91.0	100.7	98.9	100.0	93.5	96.3
2017년 4분기	93.7	100.6	98.6	100.0	93.7	96.9
2018년 1분기	103.6	101.3	100.3	100.0	96.6	100.4
2018년 2분기	86.4	100.2	97.8	99.8	82.8	92.5
2018년 하반기	105.7	104.4	101.8	101.7	98.7	102.5

자료 : 2018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은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각 지상파방송사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등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예능프로그램에 밀려 코미디언 및 개그맨이 설 수 있는 공연무대가 줄고 있다. 더욱이 방송사의 공채가 사라지고, 같은 연예인으로서 배우, 가수, 개그맨 등의 활동영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점도 코미디언 및 개그맨의 직업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대안으로서 개그맨 및 코미디언은 1인 방송이나 예능방송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연극배우 및 뮤지컬배우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고, 일상생활에서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열리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중성이 낮으며 중소규모의 단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극은 전통적인 공연장르 중에서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가 가장 높으나(2019년 공연 예술실태조사, 2018년 기준) 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확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지 못하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극이 감소하거나 유명캐릭터 공연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된다면 연극공연 건수도 줄어드는 등 연극배우의 일자리 기회에 부정적이다.

한편 뮤지컬은 대중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이다. 2019년 공연예술실태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공연시설 기준으로 뮤지컬은 연극 등 타 장르보다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공연건수나 일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여 뮤지컬배우의 일자리 기회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편, 뮤지컬배우를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뮤지컬 분야로 유입되는 등 일자리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와 관람객의 직접적 대면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예술, 그중에서도 공연예술시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커다란 어려움과 변화를 동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어 준비가 필요하다.

성우는 최근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영상물의 제작이 증가하고 ‘듣는 책’인 오디오북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며 일거리 확보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우의 주요 활동무대인 더빙이나 내레이션 등에 연기자나 가수, 작가 등이 진입해 활동하는 등 성우의 활동범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화해주는 TTX(Text To Speech, 음성합성 시스템)가 확대되면서 성우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우의 종사자가 800여 명(한국성우협회에 따르면 성우는 780명 선) 정도여서 고용규모가 크지 않으며 채용도 1~3년에 1회 정도로 열리고 그 규모도 20명 선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성우 중 200~300명 정도만 활동하고 있어 일거리가 늘어나더라도 대규모 고용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모델의 경우, 패션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광고와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활동 영역이 늘었으나, 직업적인 수명이 길지 않고 패션모델이 아닌 광고 분야는 다른 분야 연예인들도 많이 활동하면서 입지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물 시장의 성장으로 방송, 광고, 패션 등 전통적인 시장 외에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델들의 신규 진입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 식품 등 고령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니어모델 등의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커지면 업계에서는 이들을 SNS모델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모델은 산업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코로나 19 여파가 지속된다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델은 일거리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 및 모델은 영화, 연극, 방송, 뮤지컬, 광고 등 출연하는 장르에 따라 영화배우, 연극배우, 텔런트, 뮤지컬배우, 광고모델 등으로 구분되지만, 한 가지 영역을 고수하는 배우가 줄어들면서 직업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참신한 신인배우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신인배우의 유입이 늘고, 기존의 배우들은 여러 장르를 활발하게 넘나드는 경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배우 및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분야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한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증대, 영상콘텐츠 선호 트렌드	
과학기술 발전	•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문화콘텐츠 확산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재능 있는 엔터테이너 발굴 및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 마케팅 채널의 다양화(방송사 광고 축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 연예기획사 설립 및 한류 영향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 독립영화/저예산 영화의 발전 제약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대중문화 활성화 정책 지원	

종합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 문화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증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배우 및 모델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영화배우, 탤런트, 연극배우, 코미디언, 개그맨, 성우, 스탠트맨, 뮤지컬배우, 광고모델, 예술모델, 피팅모델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6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32
- **관련 정보처**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02)783-7830 www.koreatv.or.kr
(사)한국영화배우협회 (02)2274-6553 www.kfaa.kr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02)2655-3077 www.koreamovie.or.kr
(사)한국성우협회 (02)784-0422 kvpa.co.kr
(사)한국모델협회 (02)555-9777 models.or.kr

09

아나운서 및 리포터

아나운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리포터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 코너에서 특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재하고 보도한다.



하는 일

아나운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앵커, 스포츠캐스터, MC, DJ 등 다양한 직업명으로 불린다. 앵커의 경우 뉴스를 진행하고 취재기자를 연결하며, 특정 인물과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방송진행을 위한 대본이 있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의 경우 속보가 전달되기도 하고 긴급히 뉴스 순서가 수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하며, 단순 전달이 아닌 기사내용 및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뉴스 외에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은 방송 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파악하고 대본을 분석하며 정보를 얻기 위한 자료조사를 한다. 인터뷰를 미리 해보면서 다른 출연자와 호흡을 맞추는 등 상당 시간 방송 준비를 해야 하며, 텔레비전의 경우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상, 분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리포터는 주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맡아 진행하는데, 생동감 있는 현장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일이 잦다. 실제 방송되는 분량은 2-5분에 불과하지만, 프로그램 회의에 참여하고 취재대상과 장소를 직접 물색하기도 하며, 원고를 직접 작성하는 등 자신이 맡은 방송의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교통, 기상, 요리, 패션 등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리포터도 많다.

아나운서 및 리포터는 방송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상황과 역할에 맞는 멘트를 하고, 광고문을 읽거나 시청자나 청취자들에게 날씨와 특별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되는 길

|업무 환경| 아나운서의 근무시간은 보통 각자가 맡은 프로그램의 방송 및 녹화시간에 따라 유동적인 편이다. 방송사에서는 라디오 뉴스 진행 등을 위해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며, 명절이나 연휴 때는 특별 프로그램 편성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리포터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일단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 매우 바빠진다. 전파를 타고 빠른 시간 안에 확산되는 방송의 특성상 항상 긴장한 상태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특히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는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소식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큰 편이다. 또한 시간에 쫓기며 일할 때가 많고, 현장 취재 때문에 외근이나 지방출장, 해외출장 등도 잦다.

전공 제한은 없으며,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이 생겨나면서 대졸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던 것들이 일부 폐지되고 있다. 다만,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등을 전공하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기본기를 쌓을 수 있어 방송생활에 도움이 된다.

양성 교육기관으로는 각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방송아카데미와 전문 사설 교육기관 등이 있다.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표준어 구사, 발성, 호흡 등 방송내용 전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뉴스, 쇼 프로그램 진행 등의 다양한 실습도 이루어진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정보미디어학과, 방송·연예과, 연극·영화학과, 국제지역학과,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 어문계열 학과 등

■ **관련 자격** KBS한국어능력시험(한국방송공사)

|적성 및 흥미| 생방송에 투입되거나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가 많은 만큼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재치, 임기응변 등이 뛰어나야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므로, 평소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간결하고 흥미롭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정확한 언어구사능력, 자연스러운 표준어 구사능력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주로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¹⁾, 기업의 사내 방송국 등에서 활동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아나운서가 크게 늘었고, 지상파방송사 등 공채채용은 과거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보통 지상파방송사는 연 1회의 공개채용을 하는데, '서류전형-필기시험(교양, 논술 등)-카메라 및 음성테스트-면접' 등의 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과 토익, 토플, 텡스 등의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처음 입직하면 방송 순서를 알리는 등 가벼운 업무를 주로 하며 현장경험을 익히고, 경력을 쌓아 점차 비중 있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다. 능력과 인지도를 겸비한 아나운서의 경우 프리랜서로 독립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히기도 한다. 리포터의 경우 공채 전형을 거치기도 하지만 방송아카데미나 사설 학원 등의 추천을 통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 기상캐스터, 교통리포터 등 자신만의 고유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활동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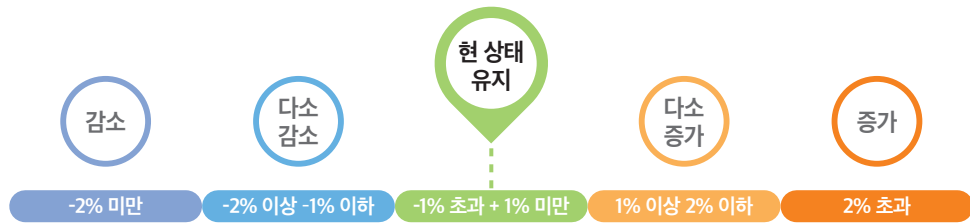
1)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과 특정 채널의 전부나 일부 시간을 쓰기로 계약을 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아나운서 및 리포터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나운서(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외) 수는 694명으로, 2016년 717명, 2017년 708명 등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콘텐츠 산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영상독립제작 분야의 아나운서는 2016년 81명, 2017년 111명, 2018년 81명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구조 악화 및 방송채널사업자 수익 정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아나운서의 고용규모가 크지 않아 방송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큰 일자리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나운서의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에 연기자나 개그맨들이 진출하고 있고, PD나 기자, 그 외 각 분야 전문가 등이 방송을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어 아나운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이 더욱 요구되고, 이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임원	경영진	방송직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전 체 종 사 자	2013.12	34,714	769	5,420	3,792	4,634	750	4,037	2,332	4,682	486	4,861	2,951
	2014.12	34,615	785	5,635	3,798	4,550	755	4,581	2,250	4,284	539	5,340	2,098
	2015.12	35,096	771	5,578	3,992	4,724	730	4,766	1,855	4,215	404	5,439	2,622
	2016.12	35,992	763	5,926	4,000	4,628	717	4,745	2,105	4,362	432	5,392	2,922
	2017.12	36,815	809	6,120	4,225	4,822	708	4,843	2,021	4,243	503	6,048	2,473
	2018.12	37,288	744	6,053	4,074	4,921	694	4,884	2,197	4,239	965	6,245	2,272

자료 :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건강, 휴식, 여행, 문화, 패션, 음식, 연예 등의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리포터가 전달할 정보 영역이 더욱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어 향후 특정 분야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전문 리포터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인 방송 증가, 타 분야에서 진입, 그리고 지상파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익구조 악화에 따라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 증대로 일반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방송에서 단순히 정보전달 역할만 하는 리포터에 대한 고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포터의 경우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직업적 생명력이 짧은 편이고 신입과 경력 리포터의 잦은 이동으로 고용

현황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포터는 대체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개성과 실력을 강조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방송콘텐츠 활용 증가 및 다양화	• 온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트렌드
과학기술 발전	• 모바일 중심 뉴미디어 발전 가속화	• 1인 방송,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확대 등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방송사 수익구조 악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방송환경의 다매체·다채널화	• 방송사 공채방식 축소

종합하면, 방송 부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모바일 중심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었다. 이런 방송환경의 변화로 아나운서 및 리포터의 활동무대가 달라지고 방송 프로그램 진행에 다른 엔터테이너 및 방송인들이 진출하면서 신규 취업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아나운서 및 리포터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캐스터, 쇼핑호스트, 방송프로그램진행자, 게임캐스터, 경기장 아나운서, 증권시황방송원, 웹방송전문가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6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33
- **관련 정보처**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www.kcc.go.kr
KBS 아나운서 (02)781-1000 office.kbs.co.kr/announcer
MBC 아나운서 (02)789-0011 ann.imbc.com
SBS 아나운서 (02)2061-0006 ann.sbs.co.kr

10

영화·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

영화·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는 영화, 연극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관련 장비를 조작하고 운영하는 직업인으로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등이 있다.



하는 일

촬영기사는 스튜디오 혹은 야외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 혹은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한다. 프로그램의 장르 특성에 따라 드라마, 연예오락 및 교양물, 중계영상, 야외촬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항공촬영, 수중촬영 등을 할 때도 있다. 카메라의 위치를 선정하고, 인물 및 배경의 초점을 맞춰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적합하게 촬영한다.

영상장비기술자는 촬영된 영상이 좋은 화질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의 색조나 대비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촬영된 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삽입하고 자막 처리를 하며 영상의 색조를 다듬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청자에게 최적의 화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음향장비기술자는 음성혼합기(Audio Mixer), 마이크, 효과장비, 편집기를 이용하여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각종 신호를 조화롭게 배분하고 가공하여 소리를 창조해 낸다. 예를 들어, 가수의 공연인 경우 MC의 말소리, 관객의 박수소리, 가수의 노랫소리, 악기소리 등 여러 소리를 최적의 상태로 녹음하고 가공한다.

조명장비기술자는 방송, 영화, 공연 등에서 작품에 따른 연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을 수행하며, TV 카메라 특성에 맞는 조명연출을 구사하여 고품위 영상을 창출한다.

편집장비기술자는 프로그램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편집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책임진다. 최근에는 모든 프로그램 제작이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 : 촬영 이후 최종 제작) 개념 하에 스튜디오에서 토막토막(scene by scene) 제작되고, 이렇게 제작된 각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비로소 한 개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편집업무는 드라마, 쇼, 다큐멘터리, 대담 등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각종 음향효과와 자막을 넣고 다양한 영상효과 장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헬리캠(드론)촬영기사는 방송용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무인 헬리콥터를 무선으로 조종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을 주로 촬영한다. 항공촬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헬리캠 촬영기사의 일이다. 전깃줄, 기상상황, 와이파이어 전파 등 항공 촬영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미리 대비한다. 촬영용 드론의 비행시간은 길어야 15분 내외로, 짧은 시간 동안 최상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미리 앵글이나 구도 등 프레임을 그린 후에 촬영에 임해야 한다.

참고로, 촬영기사 등 '기사'란 호칭은 주로 영화현장에서 부르는 것이며, 방송현장에서는 카메라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 '감독'이란 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감독, 오퍼레이터, 보조 등으로 업무가 나누어지기도 한다.

|업무 환경| 촉박한 방송일자를 맞추기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작업할 때도 많으며 휴일에 방송 녹화가 있는 경우 주중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이들의 근무시간은 프로그램의 제작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편이다.

업무 환경은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르다. 편집, 녹음을 담당하는 제작기술 담당자는 주로 스튜디오나 부조종실 등 실내에서 작업하지만, 촬영과 조명을 담당하는 제작진(스태프)들은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촬영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때도 많다. 특히 촬영기사와 조명기사는 ENG 등 이동 카메라와 조명장비를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점에서 체력적 소모가 큰 편이다.



되는 길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전기, 전자, 통신 관련 학과, 또는 영상제작, 방송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사설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영상물 제작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종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개설된 영상 및 방송기술 관련 학과에서는 촬영, 편집, 음향 등 방송 및 영상물 제작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공부하며 실제 프로그램 제작실습을 통해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 조명, 음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 현장실습 후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 **관련 학과** 방송영상학과, 디지털방송과, 사진영상학과, 음향(제작)과, 정보미디어학과,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등
- **관련 자격** 방송통신기사/기능사/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이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기사/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무대예술전문인 1급/2급/3급(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적성 및 흥미| 영화, 방송, 공연 등 해당 분야의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창의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영상이나 음향에 대한 감각이 필수적이다. 첨단 전자장비인 방송장비들을 연결하고, 기계적 오류를 발견하여 고칠 수 있는 전자공학적인 지식도 요구된다. 특히 촬영, 조명, 영상 등의

분야는 미적 감각과 예술적 감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빛과 색에 대한 이해, 구도 및 영상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음향 분야의 경우 소리에 대한 감각과 더불어 다양한 음악과 음질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은 연출자를 비롯해 여러 제작진(스태프)과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하며, 무거운 방송장비를 취급해야 하므로 강인한 체력도 요구된다. 방송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며 새로운 장비의 도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론이나 헬리캠 같은 새로운 기기를 배우려는 별도의 노력도 중요하다.

[경력 개발] 주로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독립프로덕션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종사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영화제작의 경우 과거에는 오랜 기간 조수생활로 경력을 쌓은 다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했거나 해외 유학을 다녀온 후 영화계로 진출하기도 한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보통 공개채용을 한다. 촬영기사의 경우 카메라(제작) 분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방송장비기술자는 방송기술직으로 채용한 후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음향, 조명 등의 전문 분야에 배치된다. 방송사에 따라 전기, 전자 등의 관련 학과 졸업자나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응시제한을 두기도 한다. 일부 방송사를 중심으로 응시 연령과 학력을 폐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방송사의 경우 촬영기사(카메라맨)가 촬영보를 거쳐 촬영감독이 되기까지 3~4년 정도 경력을 쌓아야 한다. 또한 조명, 음향, 영상, 송출 등 각 분야의 감독이 되기까지는 약 7~1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감독자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방송기술감독(TD : Technical Director)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공연계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무대기술인력이 있으며 외주에서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영화, 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 중 경력이 많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방송제작 관련 강의를 하기도 한다. 또한 음향기사, 편집기사 등은 자신이 직접 음악스튜디오나 전문 편집실을 창업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영화, 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촬영기사와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10년간 촬영기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촬영기사는 2019년 약 13천 명에서 2029년 약 1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는 2019년 약 25천 명에서 2029년 약 32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천 명(연평균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의 일자리는 방송, 영화, 공연 등의 산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상파방송 중심이던 방송환경이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 IPTV 등으로 다매체, 다채널화되고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기기 등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HDTV의 보급으로 고화질, 고음질 등 질 높은 방송콘텐츠의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방송기술인력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e스포츠활성화를 위해 성남, 대전, 부산, 광주 등 4곳에 전용경기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따라 전용경기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촬영, 편집,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장비 및 설비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1인당 생산성을 높이면서 향후 인력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이 포함된 방송직의 제작 관련 인력(방송영상독립제작업체 제외)은 소폭증가 추세이나 최근에는 그 변화가 미미하다. 종사자 수 변화를 보면 2013년 4,037명, 2014년 4,581명에서 2018년에는 4,884명이었다. 한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기술분야는 2018년 기준 1,781명이었다. (2016년 1,329명, 2017년 1,843명). 한편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무대기술인력과 기술인력의 규모는 4천여 명 수준(공연시설 무대기술인력 2,440명, 공연단체 기술인력 1,404명)으로 2017년(각각 2,429명, 1,673명)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임원	경영진	방송직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전 체 종 사 자	2013.12	34,714	769	5,420	3,792	4,634	750	4,037	2,332	4,682	486	4,861	2,951
	2014.12	34,615	785	5,635	3,798	4,550	755	4,581	2,250	4,284	539	5,340	2,098
	2015.12	35,096	771	5,578	3,992	4,724	730	4,766	1,855	4,215	404	5,439	2,622
	2016.12	35,992	763	5,926	4,000	4,628	717	4,745	2,105	4,362	432	5,392	2,922
	2017.12	36,815	809	6,120	4,225	4,822	708	4,843	2,021	4,243	503	6,048	2,473
	2018.12	37,288	744	6,053	4,074	4,921	694	4,884	2,197	4,239	965	6,245	2,272

자료 :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매년 채용되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업무 환경이나 보수가 좋아 이·전직이 거의 없어 신규 채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최근 1인 방송이 확대되고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뉴미디어 등장으로 방송계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영세한 규모의 외주 및 독립 프로덕션의 경우는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우수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른 제작기술 인력의 신규 진입은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의 심화, 제작 예산의 한계,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로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세부 직종별로 살펴보면, 촬영기사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확대와 촬영기법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음향 및 녹음기사는 뉴미디어 매체의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고 일정 부분 수작업이 필요해 고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는 전문가의 특화된 기술이 요구되고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편집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당분간 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공연이 활성화되면 이들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이다. 대신 카메라 기종과 편집기기의 발전은 이들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조명기사는 조명장비와 설비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방송기술의 발전, 제작 예산 제약 등으로 큰 폭의 일자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장비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새로운 장비보급의 확대, 조명의 소형화, 다기능화, 자동화 등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면서 일자리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영상기사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1인 다직무 수행으로 인력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영상콘텐츠에 대한 선호 및 수요 대상의 다양화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및 설비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가속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업무 간소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미디어시장 확대(유튜브 등), 비대면산업 확대에 따른 온라인 공연 등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 축소

종합하면,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 방송 매체 및 채널의 다양화, 모바일 기기 확산 등의 요인은 영화, 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사별 신규 채용인원의 한계, 제작 예산의 제약, 방송 관련 장비와 설비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등은 일자리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공연축소 등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화·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의 취업자 수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수중촬영기사, 보도카메라맨, ENG카메라맨, 조명기사, 영화녹음기사, 동시녹음기사, 음향믹싱기사, 영화편집기사, 방송편집기사,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 색보정기사, 헬리캠촬영기사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64 4165 4166 4167 416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34 2835 2836 2837 2839
- **관련 정보처**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www.kcc.go.kr
한국방송촬영인협회 (02)3219-5660 koreandps.or.kr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02)755-6797 www.ksld.or.kr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2)3219-5635 www.kobeta.com

11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연예인매니저는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개그맨 등 연예인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스포츠매니저는 운동선수의 트레이드 협상이나 입단계약을 비롯해 선수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하는 일

연예인매니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문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주요 업무에 따라 로드매니저(Road Manager), 치프매니저(Chief Manager), 제작매니저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 신인가수나 신인연기자 발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캐스팅매니저도 있다.

로드매니저는 현장매니저라고도 불리며, 담당 연예인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 경호, 잔심부름 등의 일을 한다. 일종의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 강도가 세고 보수가 적어서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치프매니저는 기획사에서 흔히 실장 또는 팀장의 역할을 하며,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 홍보, 섭외, 계약 등을 담당한다. 연예인에게 방송프로그램, 행사, 공연, 광고 등의 섭외가 들어오면, 기존 출연료, 연예인의 이미지,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출연료를 협상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또한 연예인을 각 방송사와 매체 등에 홍보하는 일도 한다. 기획사에서는 대개 한 명의 치프매니저가 여러 명의 로드매니저와 한 팀을 이뤄 일하기 때문에 치프매니저는 여러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게 된다.

제작매니저는 기획사의 대표를 맡는 경우가 많으며, 연예인의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연예인의 활동 방향을 세우는 등 매니지먼트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한다. 제작매니저는 연예인을 관리하고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일 외에 새로운 연예인을 발굴하기도 한다.

스포츠매니저는 운동선수의 트레이드(Trade : 구단이 선수와 선수, 또는 선수와 금전을 교환하는

등의 행위) 협상이나 입단계약을 비롯해 선수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일을 한다. 운동선수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소속된 팀에서 팀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기도 한다. 단독으로 경기에 참가해야 하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팀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을 관리한다. 시즌 중에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편이고,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의 트레이드 협상을 준비하거나 선수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다. 특히 프로팀에서 일하는 스포츠매니저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선수들의 드래프트(Draft System : 신인선수 선발제도로 입단할 선수들을 모은 뒤 각 팀이 후보자를 차례대로 뽑는 선발 방법)에 참가하여 코치, 스카우트들과 함께 어떤 선수가 재능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선수들의 유니폼, 운동장비, 원정경기나 전지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계획하는 등 선수의 경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관리한다.

|업무 환경| 출퇴근 시간이나 공휴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담당하는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구단의 운동경기 일정)의 스케줄에 맞춰 일하게 된다. 특히 로드매니저의 경우 연예인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연예인의 스케줄에 따라 식사, 수면시간, 휴일 등이 일정치 않아 생활이 불규칙하고 개인시간을 내기 어렵다. 스포츠매니저는 구단의 경기가 늦게 끝나거나 다음 경기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길

연예인매니저 관련 교육기관은 대학의 연예매니지먼트과와 매니저를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 등이 있다. 대학에서는 연예인을 발굴하고, 양성·관리하는 시스템, 홍보, 기획 등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초와 드라마 제작과정, 음반 제작과정, 영화 제작과정 등 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한다. 그러나 연예인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사에 직접 취업하여 실무를 익히고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매니저는 스포츠 관련 학과나 경영학에서 스포츠산업이나 스포츠경영관리 등을 배우며, 대학 내 운동팀에서 실제 스포츠매니저 업무를 경험해보거나 프로팀에서 현장경험을 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 **관련 학과** 연예인매니저 : 연예매니지먼트과,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 법학과 등
스포츠매니저 :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등
- **관련 자격** 연예인매니저 : 운전면허(도로교통공단)
스포츠매니저 : 운전면허(도로교통공단)

|적성 및 흥미| 주로 개성 강한 사람을 상대로 일하며 다수의 사람과 어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격이 쾌활하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유리하다. 성실함, 인내심, 끈기가 있어야 하며, 강한 체력도 필요하다.

로드매니저의 경우 항상 연예인과 동행하여 일정관리를 해야 하므로 꼼꼼함이 필요하며, 치프매니저나 제작매니저는 좋은 조건에서 연예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협상능력이 중요하다.

|경력 개발| 연예인매니저의 경우 보통 기획사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채용공고를 내며, 채용 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매니저로서 자질을 평가한다. 체력을 비롯해 운전능력,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무엇보다 매니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외에 관련 교육기관의

추천이나 강사진의 인맥 등을 통해 매니저로 진출하기도 한다. 채용이 되면 일정 수습기간을 거쳐 로드매니저로 출발하여 3~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팀장급인 치프매니저가 된다. 그 후 업무경험과 인적관계 등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사나 기획사를 직접 차려 운영하기도 하며, 가수매니저는 직접 음반을 제작하기도 한다.

스포츠매니저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창시절의 경험을 살려 프로팀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운동선수나 코치를 하다가 전직을 하기도 한다. 개별 선수의 매니저나 프로팀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관련 업무의 경험을 살려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마케터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영화, 음반,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고 연예기획 업무가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연예계 종사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가 점차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연예인매니저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연예활동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연예인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해졌고, 출연료 협상과 계약 분야 등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이미지메이킹, 홍보, 계약협상 등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실력을 갖춘 매니저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연예인의 인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팬들을 관리하는 팬관리매니저도 등장하고 있으며 음반제작사업에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음원을 제작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A&R 기획자도 등장하였다.

스타를 통한 부가가치 수익이 늘어나면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매니지먼트사에서 출발해 음반, 드라마, 영화 등의 기획, 제작,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이 성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방송사의 공채를 거쳐 스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의 기획 하에 발굴되어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예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외로 진출하는 연예인의 증가는 해외 연예산업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을 갖춘 매니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연예인매니저의 업무 환경이나 보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세에 비해 열악해서 중도에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¹⁾ 등록업체 현황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2020년 9월 기준 3,355개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획사는 2014년 1,393개에서 2015년 1,728개, 2018년 2,173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1)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등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인식되고, 전체 산업에서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은 운동선수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스포츠매니저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가산업의 발전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도 스포츠매니저의 직업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시장의 규모가 작고 특히 스포츠매니저가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경기업의 경우 사업체가 2018년 80개로 2017년에 비해 2개가 줄어드는 등 프로 또는 실업스포츠 단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한 이들의 일자리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2018 스포츠산업백서」(2018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단체경기 기준)은 61개로 나타났다. 등록선수는 프로골퍼를 포함하여 3,979명이다. 한편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서비스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대리인(에이전트)제도가 축구에 이어 프로야구에 도입이 되었다. 12월 22일 시행된 제1회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시험에서 시험자격을 얻은 총 168명 중 149명이 응시하여 합격자는 총 94명이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의 스포츠시장 규모가 스포츠매니저먼트의 대상이 될 만한 선수가 한정적일 만큼 작아서 큰 폭의 일자리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연예 및 스포츠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확산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 및 투자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 스포츠 산업 성장	• 국내 소규모 스포츠산업 시장의 특성,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투자 여력 한계

종합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스포츠 산업의 꾸준한 발전으로 관련 종사자가 증가하고 여전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의 취업자 수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연예인매니저, 스포츠매니저,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에이전트 등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7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82
- **관련 정보처**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www.mcst.go.kr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02)2124-2011 www.cema.or.kr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02)786-7637 www.kepa.net
대한체육회 (02)2144-8114 www.sports.or.kr
(사)한국프로축구연맹 (02)2002-0663 www.kleague.com
(사)한국야구위원회 (02)3460-4600 www.koreabaseball.com

12

경기감독 및 코치

경기감독 및 코치는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시합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운동선수단의 운영 및 경기력 향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하는 일

경기감독 및 코치는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의 운동선수를 관리·지도하고 훈련하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선수들의 부상예방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첨단계측기 등을 이용해 선수들의 몸 상태를 테스트하고 적절한 운동처방과 치료를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때는 개최지의 위치와 환경, 기후 등 제반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작전을 세우고 훈련 시 참고한다.

경기감독은 운동·훈련을 비롯한 선수단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임자이다.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최고의 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세우고, 코치에게 선수 훈련을 지시한다. 경기 전략과 전술을 세워 선수들을 지도하고, 시합 시 출전 선수를 선발·배치하며, 선수 교체 및 작전을 지시한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위원회나 본부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한다. 합숙훈련을 계획하고, 팀의 운영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팀의 경기를 참관하고 특정선수를 테스트하여 스카우트하기도 한다.

코치는 경기감독의 총지휘 아래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운동하며 직접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해주고, 운동기술을 직접 보여주면서 훈련시키며, 선수들의 개인기록을 점검하여 실력 향상을 돕는다. 경기 중에는 감독과 함께 선수들을 관찰하고 작전을 짜며, 부상선수가 생기면 치료 및 선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대체로 해당 종목의 운동기량이 뛰어난 선수 출신이 코치를 맡고 있으며, 일부는 선수생활을

병행하기도 한다. 종목마다 다르지만 일부 종목(야구)은 코치를 세분화하여 트레이닝코치, 컨디션코치, 재활코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기감독 및 코치는 운동종목에 따라 축구감독 및 코치, 씨름감독 및 코치, 수영감독 및 코치 등으로 불리며, 소속에 따라 초·중·고·대학감독 및 코치, 프로팀·실업팀 감독 및 코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코치 중에는 학교를 순회하며 해당 종목의 선수 훈련이나 선수 발굴 등을 담당하는 순회코치도 있다. 이들은 각 교육청에서 고용하여 상임감독 및 코치를 두기 어려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선수를 관리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운동부 지도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은 체육학과와 실기교수가 감독 및 코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해당 운동 종목의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경기 준비를 위해 선수들과 장기간 합숙하거나 시합 때문에 지방이나 해외출장을 가는 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다. 또한 경기결과나 선수 기록을 통해 지도력이 즉각 평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다.



되는 길

해당 종목의 선수로 활동하다가 감독 및 코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선수로 활동했더라도 감독이나 코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뿐 아니라 이론과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독 및 코치로 일하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도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스포츠지도사 1, 2급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이나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학교 운동부의 순회코치도 해당 종목의 선수로 활동했거나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지도자 역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체육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관련 정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검정 연수원 홈페이지(www.in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과, 생활체육과,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과, 태권도학과, 유도학과, 경호학과

■ **관련 자격**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국민체육진흥공단)

|적성 및 흥미| 경기감독 및 코치는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과 통솔력,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해당 종목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편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분석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체력 증진을 위한 훈련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선수들의 기량과 능력에 따라 운동량을 지시할 수 있는 분석력, 다양한 운동방법과 스포츠와 관련된 의학 지식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공개채용보다는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여 스카우트하는 체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대표팀, 실업팀, 프로팀, 학교 운동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선수나 지도자로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전력이 있으면 취업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특별한 승진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운동선수로 일정 경력을 쌓은 후 코치나 감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코치로 활동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경력을 쌓은 다음 수석코치를 거쳐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감독으로 승진하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경험을 쌓는 동안 경기 성적이나 지도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면 대학팀이나 실업팀,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 등으로 진출한다.

이 밖에 체육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스포츠해설가, 스포츠센터의 강사, 스포츠에이전트, 전문 스카우터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육시설을 경영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경기감독 및 코치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체육인(지도자) 현황]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765	14,818	19,788	19,592	19,965	22,086

자료: 대학체육회 전문체육인 현황(지도자)

스포츠는 전 세계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 체육대회에서의 좋은 결과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포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세계 상위 수준의 경기력 확보를 위해 학교의 운동부와 체육계 학교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등 엘리트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 환경이나 보수가 열악했던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학교 진출을 꺼렸던 스포츠 관련 인력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빅데이터를 통한 경기력분석 등 감독과 코치의 역할도 다양화되고 있어 일부는 긍정적이다. 또한 사설 아마추어팀이 증가하고 운영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적인 코칭을 하는 감독과 코치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기 종목의 스포츠로 제한되어 있고, 비인기 스포츠의 재정적 지원은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비인기 스포츠 프로의 경우에는 신생 구단의 창단이 어렵고, 오히려 팀이 해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경기 감독 및 코치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기존 팀을 해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마추어와 비인기종목에서 두드러진다. 이외에도 저출산의 영향과 운동선수 지망 학생의 감소 등으로 인한 기존 팀의 해체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유소년 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 중시 문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스포츠 종목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생활체육진흥법	• 인기 종목 중심

종합하면,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와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이나 인구감소 및 인기종목 중심 기조로 향후 10년간 경기감독 및 코치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스포츠타레이너, 운동선수, 경기심판, 경기기록원, 스포츠강사, 스포츠에이전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20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61
- **관련 정보처** 대한체육회 (02)2144-8114 www.sports.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14 www.kspo.or.kr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02)970-9500 www.sports.re.kr

13

직업운동선수

운동선수는 다양한 운동 종목에 선수로 등록되어 경기에 참여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한다. 구기 종목, 격투기 종목, 수중 종목, 동계 종목, 육상 종목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다.



하는 일

운동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직업운동선수로 한정할 수 있다. 이들은 크게 프로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로 구분된다. 둘 다 매일 운동에 전념하는 것은 같지만 프로선수는 계약을 통해 경기를 위한 운동만 하며, 실업선수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체육회, 기업 등에 소속되어 직위를 부여받고 사원자격으로 운동하게 된다. 일부 종목의 실업팀은 평소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다가 경기 및 시합 일정이 잡히면 연습을 통해 경기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운동선수는 평소 경기에 필요한 육체적, 기술적 훈련을 하고, 경기대회 기간에는 좋은 기록과 성적을 내기 위해 다른 선수들과 경쟁한다. 이들은 경기감독이나 코치의 지시에 따라 종목에 필요한 자세와 동작 등의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체력테스트를 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개인연습을 통해 체력을 보강한다. 올림픽이나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경기에 참여할 때는 과거 시합에 출전하는 모습이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자신 또는 소속팀, 시합상대자 또는 상대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감독 및 코치와 함께 경기전략을 세운다. 경기 당일에는 감독 및 코치의 전략과 경기규칙, 심판의 지시 등에 따라 시합에 임한다.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체중 관리, 체력 관리가 필수이므로 평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해외 및 지방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대회출전을 위한 적응훈련과 체력훈련을 받기도 한다.

한편, 세계적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야 하는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실력을 인정받아 선발전을 통과해야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 국가대표에 소속된 선수들은 평소 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자신이 속한 실업팀 소속으로 경기에 참가할 때는 소속팀에서 일정 기간 함께 훈련한 후 경기에 참여한다.

|업무 환경| 주로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훈련시간 및 훈련의 양은 종목별 또는 개인별로 다르다. 경기 준비를 위해 장기간 합숙할 때가 많으며, 경기 참여를 위해 해외나 지방 출장이 잦으므로 개인 시간이 많지 않은 편이다. 훈련이나 시합 중에 부상당할 위험이 많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며, 신체 보호를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훈련하기도 한다. 경기결과나 개인의 기록 등을 통해 바로 실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다.



되는 길

운동선수는 대부분 운동에 소질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부지도자에 의해 발굴되어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동선수로 활동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선수생활을 시작하거나, 졸업 후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로 진학하여 학교 운동선수로 활동한 후 프로나 실업팀, 또는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체육고등학교, 체육학과, 사회체육과, 생활체육과, 스포츠레저학과, 태권도과, 골프 산업학과 등

|적성 및 흥미| 힘든 연습과 훈련과정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체력과 끈기, 인내심을 갖추어야 한다. 운동선수는 많은 연습량을 통해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며 기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종목의 경우 대회에 앞서 몸무게를 관리해야 하며, 시합을 통해 즉각 평가되므로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경력 개발| 주로 해당 종목의 실업팀이나 프로팀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팀에 입단하기도 하지만, 특기생으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졸업 후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경기성적이나 개인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프로팀이나 실업팀 등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며, 감독이나 코치, 학교 등의 추천이나 본인의 지원으로 테스트를 거쳐 입단한다. 또 구단 연습생을 선발하는 종목은 연습생에 지원해 프로선수가 되기도 하며, 실업팀에서 활동하다가 프로팀으로 스카우트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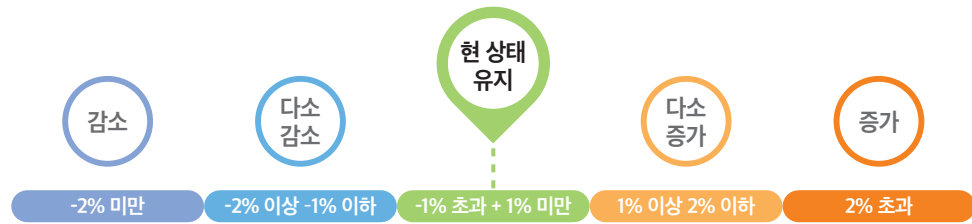
국가대표 선수는 국제 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하여 확정한다. 국내외 대회 성적 및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발전 가능성, 기초체력 및 기술, 대표코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일부 종목은 감독이 직접 국가대표를 선정하기도 한다. 부상 위험이 크고,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직업인 만큼 다른 직업보다 은퇴 시기가 짧은 편이다. 종목마다 다르지만 30~40대 초반에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가 되거나 경기심판, 스포츠강사, 스포츠타레이너, 해설위원 등으로 진출한다. 체육관이나 관련 용품 판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직업운동선수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체육인(운동선수) 현황]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9,041	143,263	138,778	136,045	135,637	147,330

자료: 대학체육회 전문체육인 현황(운동선수)

스포츠는 전 세계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 체육대회에서의 좋은 결과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포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세계 상위 수준의 경기력 확보를 위해 학교의 운동부와 체육계 학교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등 엘리트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기 종목의 스포츠로 제한되어 있고, 비인기 스포츠의 재정적 지원은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비인기 스포츠 프로의 경우에는 신생 구단의 창단이 어렵고, 오히려 팀이 해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운동선수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기존 팀을 해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저출산으로 인한 자원 감소와 더불어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스포츠 진입 기피현상 등 운동 지망 학생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기존 팀의 해체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유소년 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시간 증시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운동경기 종목 다양화	•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 지원 감소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생활체육진흥법	

종합하면, 직업운동선수가 될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프로운동경기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진흥법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직업운동선수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경기감독, 운동선수코치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20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62
- **관련 정보처** 대한체육회 (02)2144-8114 www.sports.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14 www.kspo.or.kr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02)970-9500 www.sports.re.kr

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도록 수영이나 에어로빅, 헬스 등의 스포츠를 가르치거나 캠프, 사교모임 등의 행사에서 오락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하는 일

스포츠강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피트니스(헬스), 수영, 스쿼시, 탁구, 태권도, 에어로빅, 골프, 검도, 스키 등의 스포츠를 가르친다. 담당 종목에 따라 수영강사, 골프강사, 요가강사, 댄스강사, 헬스트레이너, 태권도사범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수영장, 태권도장,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기본규칙, 기본동작, 기법, 자세교정 등을 지도한다. 수강생의 상황에 맞춰 진도를 나가며, 요구되는 기본동작과 응용 동작이 모두 숙달되도록 훈련시킨다. 헬스처럼 여러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은 강사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알려주고, 운동 강도나 빈도, 시간 등의 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도 한다. 수강생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통증이나 근육이 뭉쳤을 경우 응급조치를 하거나 마사지를 통해 풀어주기도 한다. 수강생을 관리하고 새로운 수강생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등을 관리하고 새로운 스포츠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레크리에이션강사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학교에서 워크숍이나 화합모임, 교육,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진행한다. 행사 요청이 들어오면 미리 행사장소, 참여인원, 배정시간 등을 확인하고 행사 담당자에게 행사의 목적과 참가자들의 연령분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행사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면서 노래,

울동, 게임 등을 지도하고, 시범을 보이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 재미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보육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군부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단체교육 등에 참가하여 오락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행사가 없을 때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소재 및 구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유행하는 유머나 다양한 사회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연구한다.

|업무 환경| 스포츠강사의 근무시간은 강습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인 편이다. 직장인 수강생을 위하여 새벽이나 야간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나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종목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기도 하지만 시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도 많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강사도 많지만 스키, 승마, 테니스 등의 스포츠강사는 야외에서 근무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강사도 근무처에 따라 근무시간이 매우 유동적이다. 사설협회나 공공단체 등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면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행사가 있을 때만 일하는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다. 행사 장소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는 사람들을 대면하여 일해야 하는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되는 길

스포츠강사는 해당 종목의 실기와 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해당 종목의 관련 학과나 사회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등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해당 종목의 운동선수로 활동한 사람을 선호하므로 직접 경력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레크리에이션강사도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레크리에이션학과, 이벤트학과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레크리에이션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관련 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레크리에이션학과, 경기지도학과, 무용학과, 태권도학과, 유도학과 등
- **관련 자격**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적성 및 흥미| 해당 종목에 대한 지식과 각종 운동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타인의 운동을 지도하므로 리더십이 요구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스포츠강사는 종합스포츠센터, 지역주민센터 내의 주민 편의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의 전문종목 훈련장에서 활동하며, 레크리에이션강사는 레크리에이션 관련 협회나 공공단체, 레크리에이션 민간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대체로 공개채용을 통해 입직하지만, 일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해진 승진체계는 없지만, 경력이 쌓이면 해당 조직에서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스포츠강사는 담당 분야 이외의 스포츠 분야 자격증까지 취득하기도 하며, 하절기와 동절기 스포츠의 경우 번갈아가며 해당 스포츠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경력을 쌓은 후 직접 스포츠센터나

볼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과 같은 전문 종목 훈련장을 운영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강사는 관련 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인지도가 높아지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관련 업체를 열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9)에 따르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2018년 약 445천 명에서 2028년 약 49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50천 명(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당 체육시설 면적	3.31	3.57	3.81	3.89	4.05	4.28	4.45
테니스장	598	660	696	718	740	772	797
축구장	718	801	852	886	928	984	1,019
체육관	738	819	875	905	955	1,010	1,066
기타	2,248	2,582	2,848	3,042	3,286	3,559	3,849
간이운동장	12,855	14,536	16,046	17,111	18,394	20,602	21,847
계	17,157	19,398	21,317	22,662	24,303	26,927	28,57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생활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민들의 건강, 여가,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은 스포츠강사의 고용에 긍정적이다.

정부에서는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활체육시설 확대, 클럽활동 확대 및 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사업 확대 등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수가 2012년도 1만 7,157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만 8,578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포츠 몬스터, 팀업캠퍼스 등과 같은 스포츠 테마파크가 운영되어 놀이공원을 즐기듯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스포츠 테마파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이곳에서 근무하는 스포츠 강사(안전요원 등)의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운동인구의 증가와 외모가 경쟁력이 되면서 비만 등 미용관리 차원에서도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체적 제약 해소로 그간 참여가 어려웠던 스포츠활동에 다양한 기술의 지원을 받아 참여가 가능해지고 원격강의 등 시간 및 공간적 한계를 넘는 다양한 교육 등도 이루어질 수 있어 스포츠강사의 활동영역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옥외나 실내활동이 많은 스포츠 특성상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크리에이션강사의 일자리에는 증감요인이 공존한다.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려 외부활동이 축소되고 게임을 비롯하여 OTT서비스 확대 등 실내 활동 및 대체활동 확대, 그리고 대학축제, 기업연수, 기념파티, 체육대회, 결혼식 및 돌잔치 등도 개인화 및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행사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레크리에이션강사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생활체육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력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리에이션교실 등의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레크리에이션강사의 수요는 유지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관, 요양원 등을 비롯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하지만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여 코로나19 사태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빈번히 나타나고 지속된다면 고용증가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편, 이들은 시간제 근무가 많고 비정규직, 계약직의 고용 형태가 많아 고용이 다소 불안한 편이다. 이 때문에 업무 환경이나 보수가 열악하지만 이·전직으로 인한 대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편으로, 취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반면, 대규모 종합스포츠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관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환경과 임금조건이 좋은 편이어서 취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시간 증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 영상물 등 공동활동 대체제 증가와 개인화에 따라 각종 공동 여가활동 축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테마파크 	
법·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종합하면, 건강 및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생활체육시설 수의 증가, 새로운 스포츠 테마파크의 등장,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여가 대상 인구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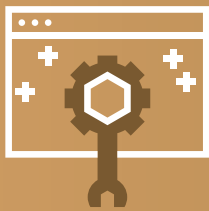
- **관련 직업** 경기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 스포츠타레이너, 경기심판, 경기기록원, 스포츠에이전트, 치어리더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20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69
- **관련 정보처** 대한체육회 (02)2144-8114 www.sports.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14 www.kspo.or.kr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02)970-9500 www.sports.re.kr
대한레크리에이션협회 (02)566-8882 www.대한레크리에이션협회.org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PART 09



개인서비스관련직

- 01 이용사
- 02 미용사
- 03 피부 및 체형관리사
(피부미용사, 체형관리사, 네일아티스트)
- 0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 05 반려동물미용사
- 06 수의사 보조원
- 07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결혼상담원, 웨딩플래너, 혼례종사원)
- 08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 09 여행서비스종사자(여행상품개발자,
여행사무원, 여행안내원, 자연 및 문화해설사)
- 10 항공기객실승무원
- 11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12 숙박시설서비스원
- 13 오락시설서비스원
- 14 주방장 및 조리사(주방장, 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 15 음료조리사 및 바텐더
- 16 식당서비스원(패스트푸드준비원, 홀서빙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음식배달원)
- 17 경호원
- 18 청원경찰
- 19 시설·특수 경비원
- 20 경비원(건물관리원)
- 21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22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 23 청소원
- 24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25 방역원(해충퇴치원 포함)
- 26 세탁원
- 27 가사도우미
- 28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 29 주차관리·안내원
- 30 검표원

01

이용사

이용사는 고객의 얼굴형, 피부색, 모발상태, 체형 등을 고려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커트, 염색, 면도 등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일

고객의 얼굴 형태나 머리 형태에 따라 적합한 머리모양을 권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머리모양을 결정한다. 가위, 빗, 바리칸 등의 이용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듬어 원하는 머리형태를 만든다. 샴푸, 린스 등을 사용하여 고객의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모발 제품을 사용하여 머리 형태를 고정한다. 염색약품을 배합하여 고객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기계파마 도구를 이용해 파마를 한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면도칼과 비누거품을 사용하여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바른다.

|업무 환경| 예전에는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이발소 단위에서 근무하거나, 사우나 및 호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래 들어 젊은 남성들을 겨냥한 바버숍(barber shop)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다르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근무할 때가 많다. 업무 장소는 실내이고, 출장 업무는 거의 없다. 휴무일은 대체로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편이다. 업무 특성상 대부분 서서 일하기 때문에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을 수반하며, 직접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을 수 있다.



되는 길

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기술과 이론을 가르치는 훈련기관이나 숙련된 이발사 밑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이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전국에 약 50여 개의 기술계 학원에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용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법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이용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이용실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용사 응시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그리고 공중위생법규를 다루는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 **관련 학과** 미용과, 피부미용학과, 미용예술과, 뷰티아트과 등

■ **관련 자격** 이용사, 이용장, 이용사 면허(보건복지부)

| 적성 및 흥미 | 이용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용모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미적 감각이 요구된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로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고객의 클레임 제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스트레스 감내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내성적인 성격보다 외향적인 성격이 보다 어울린다. 커트, 염색 등 고객의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고 장시간 서서 근무하므로 인내심과 손 기능이 요구되며, 자신만의 이·미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함, 꼼꼼함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이용사는 바버(barber)라고도 호칭되고, 주로 개인 이용업소에 취업하거나 호텔, 사우나업소, TV방송국, 스포츠센터 등의 이용실에 취업하거나 본인이 창업할 수 있다. 간혹 개인 전속 이용사로도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사는 처음에는 각종 집기정리 및 세척, 매장 청소, 이용용구의 준비나 수건정리, 고객의 모발을 샴푸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업무를 배우게 된다. 이후 염색, 커트, 면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호텔이나 고급 이용실 등의 경우 초기 진입부터 이용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시설로의 취업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미용 관련 학과 입학 전형 시 학교에 따라 이용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하므로 이용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격증 보유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이용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이용사는 2019년 약 17천

명에서 2029년 약 1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업의 종사자 수는 2012년에 18만 9,921명에서 2018년에는 22만 9,44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업의 최근 3년 동안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용 및 미용업의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종사자 수	189,921	195,416	199,194	199,048	213,370	225,635	229,44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이용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5,506	15,080	14,679
종사자 수	18,049	17,009	16,85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요즘은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헤어스타일로 개성을 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그러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도 이용실보다는 미용실을 더 찾게 되면서 미용업소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용업소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사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버숍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떠오르면서 남성들을 다시 이용업소로 불러오고 있다. 바버숍이 유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용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용사 자격증 취득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남자와 여자의 자격증 취득자가 각각 418명, 75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남자가 922명, 여자가 1,011명으로 4년 만에 이용사 자격증 취득자가 약 2배나 증가하였다.

[성별 연도별 이용사 자격증 취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남자	418	672	705	754	922
여자	577	894	849	948	1,011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이용사 전망 요인]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미용욕구 증가 •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전용 미용업소인 바버숍 유행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업소와의 경쟁 심화

종합하면,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새로운 트렌드인 바버숍의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의 상충으로 이용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미용사, 다이어트프로그램머,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특수분장사, 애완 동물미용사, 이미지컨설턴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21
- **관련 정보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한국미용사회중앙회 (02)715-2804 www.kbca.co.kr

02

미용사

미용사는 고객의 얼굴형, 피부색, 모발상태, 체형 등을 고려하여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아 커트, 파마, 염색 등의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하는 일

미용사는 고객이 원하는 모발의 형태에 대해 상담하고, 다양한 커트 및 파마 종류를 설명해준다. 고객의 얼굴모양과 피부색, 모발의 특성 등을 고려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한다. 가위나 빗, 염색제 등 각종 미용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거나 파마하며, 고객이 스스로 왁스나 스프레이, 젤 등을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한다. 고객의 모발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한 모발 관리법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 미용사는 고객의 메이크업이나 두피관리, 눈썹, 손톱, 발톱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한다.

미용사 중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상코디네이터, 메이크업아티스트 등과 함께 스타의 이미지, 출연작품이나 연출스타일 등을 의논한 후 헤어스타일을 결정한다. 패션쇼나 헤어쇼 등에 참가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거나 학교, 문화센터 등에 강의를 나가 학생과 헤어디자이너 지망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도 한다.

|업무환경| 근무하는 곳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르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근무할 때가 많다. 대체로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편이며, 규모가 큰 곳은 미용사 간 스케줄을 조절하여 휴무일을 정한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하여 예약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풀타임 채용보다는 파트타임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약제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보다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줄긴 하였으나, 염색이나 파마와 같이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이 수반될 수 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업무이니만큼 고객응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미용 관련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의 미용 관련 학과에서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사설학원 등을 통해서도 미용 기술의 이론 및 실기를 배울 수 있다. 학원 등에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더라도 미용실에 취업하고 난 후 미용 업무보조나 스태프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정식 미용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법상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교육기관에서 관련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용사(일반)의 경우 응시자격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론시험에서 미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를 다루며, 실기시험에서는 미용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새로운 미용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헤어스타일은 유행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재교육을 받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 **관련 학과** 미용과, 피부미용학과, 미용예술과, 뷰티아트과 등
- **관련 자격** 미용사(일반), 미용장, 미용사 면허(보건복지부)

|적성 및 흥미| 미용사는 사람의 용모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미적 감각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얼굴형, 피부색, 모발상태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시력과 꼼꼼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로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외향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하는데 유리하다. 커트, 파마, 염색 등 고객의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고 서서 근무하므로 강한 체력과 손 기능이 요구되며, 수시로 변하는 유행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경력 개발| 미용사는 헤어디자이너라고도 불리며, 헤어숍이나 미용실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웨딩숍이나 호텔, 음식점, 방송국 등에 취업하여 미용 업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직접 헤어숍을 개설할 수도 있다.

미용사는 처음에는 각종 집기정리 및 세척, 매장 청소, 미용용구의 준비나 수건정리, 고객의 모발을 샴푸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업무를 배우게 된다. 선배 디자이너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기술을 습득한 후에 파마, 드라이, 염색, 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소 규모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직접 커트, 파마 등을 담당하기까지는 몇 개월에서 3년 정도까지 소요된다. 미용실마다 승진체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니저→팀장→실장→점장 등으로 승진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미용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미용사는 2019년 약 186천 명에서 2029년 약 20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9천 명(연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업의 종사자 수는 2012년에 18만 9,921 명에서 2018년에는 22만 9,44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을 합한 미용업의 최근 3년 동안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19만 5,321 개 업소, 12만 4,722명에서 21만 2,954업소, 13만 9,80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용 및 미용업의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종사자 수	189,921	195,416	199,194	199,048	213,370	225,635	229,44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미용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95,321	208,626	212,594
종사자 수	124,722	133,621	139,8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남녀노소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은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헤어스타일로 개성을 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도 미용실을 더 찾게 되면서 미용업소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헤어미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직접 창업하여 업소를 운영하기에 재고부담이 적다는 점,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미용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주여성들이 미용 직업교육을 다수 이수하고 있으며 미용사로의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국내 미용사의 미용기술과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으며, 미용사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따르면 미용사는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은퇴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아 은퇴하는 인력이 적기에 새롭게 입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미용실이 늘어난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초기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창업을

많이 했지만 경쟁심화 및 임대료 증가 등의 원인으로 폐업률도 높은 편이다. 또한 최저임금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풀타임 미용사보다 파트타임 미용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인숍이나 영세사업장은 운영이 힘들어지므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여성의 사회진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미용 욕구 증가	
국내외 경기	• 한류(해외진출)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창업 용이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인건비 상승 • 주 52시간 근무

종합하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용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창업의 용이성 등으로 향후 10년간 미용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미용사, 다이어트프로그램머,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특수분장사, 애완동물미용사, 이미지컨설턴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22
- **관련 정보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02)585-3351 www.kocoa.org

03

피부 및 체형관리사

피부미용사, 체형관리사,
네일아티스트

피부미용사는 마사지, 팩, 관련 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고객의 얼굴, 목 등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관리해준다. 체형관리사(다이어트프로그래머)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고객의 전체적인 체형이나 신체 특정 부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탄력 있게 유지·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네일아티스트는 고객의 손·손톱·발·발톱의 미용관리 및 제모(체모 제거)에 관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일

피부미용사는 고객과의 상담, 피부측정기기 등을 통해 피부 유형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피부관리법을 조언한다. 각질관리, 보습관리 등 고객의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얼굴 이외에 등, 목, 손이나 발의 피부도 함께 관리한다. 피부관리의 경우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세안 및 각질관리부터 얼굴 매뉴얼테크닉 및 다양한 테라피, 팩·마스크, 림프관리, 화장품으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를 거치며, 고객의 피부 상태에 따라 비의료 피부미용기기를 활용해 고객의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준다. 고객에게 적합한 셀프 피부관리법, 세안법, 화장법 등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관리 프로그램과 관리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3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고객들의 피부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절과 연령별 다른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도 피부미용사의 역할이다.

체형관리사는 고객의 체중, 체지방, 식습관, 운동량,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으로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이들은 먼저 고객이 체중감량을 원하는지, 부분 몸매 교정을 원하는지 등 고객의 요구와 몸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균형 상태가 어떤지 기계로 측정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운동처방, 식이요법, 마인드컨트롤 등 다이어트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고객의 체형 특성에 맞게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을 하도록 이끌고 마사지와 래핑(지방분해 효과를 위해 랩이나 붕대 등으로 몸을 감싸는 것) 등을 하기도 한다. 상담을 통해 식이요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형 때문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고객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청소년비만, 산후비만, 요요예방 등 대상별, 특성별 차별화된 체형관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리하고,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로 체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네일아티스트는 고객과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및 미용관리 부위의 정보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결정한다. 각종 장비 및 물품을 준비하고, 고객의 시술부위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한다. 손톱, 발톱 등 시술부위의 매니큐어·광택제 등을 제거한다. 시술절차에 따라 각종 물품 및 도구를 선택하여 고객의 피부 및 각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술한다. 시술이 끝나면 손, 발 등에 크림을 바른 후 손으로 주무르거나 두드려 혈액순환 및 미용을 돕는다. 도구 및 장비를 청소·소독하고, 정리·정돈한다. 고객의 예약관리 및 사후관리를 한다.

| 업무 환경 | 피부관리실, 체형관리실 및 네일숍은 대부분 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고객의 예약상태에 따라 근무시간이 좌우된다. 직장인 고객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으며 주말에도 예약제로 오픈하는 곳이 많다. 손으로 장시간 얼굴 매뉴얼테크닉 및 각종 테라피를 구사할 경우 체력적인 소모가 크며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되는 길

미용 관련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피부미용 관련 학과에서 피부미용의 이론과 실무 등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시설 교육기관에도 교육과정의 개설되어 있으며, 피부관리업체에 취업한 후 피부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부미용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 2008년에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피부관리사로 활동하거나 피부관리실을 창업하려면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체형관리사(다이어트프로그래머)는 체형, 식품영양 등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다이어트, 식품, 체육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체형관리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사설 교육기관이 생겨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네일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특별한 학력이나 나이 혹은 성별 제한이 없었고 손톱과 발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지식과 이를 예쁘게 손질할 수 있는 섬세함과 미적 감각이 중요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미용업(손톱·발톱)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시험은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필기에서는 네일개론, 공중위생관리학, 네일미용기술을, 실기에서는 네일미용실무를 다루게 된다.

- **관련 학과 (피부미용사)** 피부미용학과, 미용과, 미용예술과, 뷰티디자인과, 뷰티아트과, 뷰티케어과,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과 등
- (체형관리사)** 미용과, 미용예술과, 뷰티디자인과, 뷰티아트과, 뷰티케어과, 식품영양학과, 운동처방학과 등

(네일아티스트) 피부미용학과, 미용과, 미용예술과, 뷰티디자인과, 뷰티아트과, 뷰티케어과,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과 등

- **관련 자격** (피부미용사) 미용사(피부)(한국산업인력공단), 미용사 및 미용사 면허(보건복지부)
- (체형관리사) 체형관리사(대한다이어트협회), 다이어트프로그램매(한국다이어트프로그램협회)
- (네일아티스트) 미용사(네일)

| 적성 및 흥미 | 고객의 피부타입, 피부 개선을 위한 방법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과 민첩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인관계와 성실함, 끈기가 필요하며, 손가락 기능 및 힘이 필요한 일로 체력과 섬세함도 요구된다. 특히 체형관리사는 체중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항상 헤아려야 하며, 이에 따라 고객지향적인 마인드와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네일아티스트는 고객의 손, 손톱, 발, 발톱 건강에 대한 지식과 손발톱을 아름답게 손질하고 꾸밀 수 있는 미적 감각이 요구된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의 특성상 원만한 인간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유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패션 감각이 있으면 유리하고 남에 대한 배려, 꼼꼼함, 사회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 경력 개발 | 피부미용사는 주로 일반 피부관리실(에스테틱), 피부과 부설 피부관리실, 스파 등에서 근무하며 화장품업체, 미용기기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피부미용사로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숙련 피부미용사를 보조하며 업무를 익히고, 숙련기간을 거친 후 담당 고객을 배정받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진체계는 업소의 규모, 본인의 경력과 자질에 따라 상이한데 경력을 인정받으면 실장, 매니저급으로 승진한다. 경력을 쌓고, 경영에 대한 준비를 갖춘 후 본인이 직접 피부관리실을 창업하기도 한다.

체형관리사(다이어트프로그램매)는 체형관리실 및 비만클리닉센터, 다이어트센터, 병원부설 다이어트클리닉 및 상담실 등으로 취업하며, 스포츠센터 및 헬스장, 생식 및 다이어트 관련 업체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체형관리사(다이어트프로그램매)는 견습생으로 입사하여 3개월 내외의 경력을 쌓고, 대략 3~4년의 경력을 가지면 실장(매니저)으로 승진하며, 이후 부원장, 원장(센터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경력을 쌓고, 마케팅 능력을 갖춘 후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한다.

네일아티스트는 주로 네일숍, 네일아트숍 등과 같은 손톱 관리 전문점에서 근무하며, 일반 미용실 내 손톱 관리 코너가 있는 경우 미용실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전문 네일아티스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용사(네일) 자격증은 필수이며, 진출 분야로는 네일제품 교육강사인 에듀케이터, 네일아티스트 교육강사, 광고, 패션 모델 등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등 콘셉트에 맞는 손톱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네일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피부 및 체형 관리사는 2019년 약 107천 명에서 2029년 약 12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0천 명(연평균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 5,363개에서 2018년에는 2만 1,96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종사자 수도 2만 5,845명에서 3만 1,917명으로 증가하였다.

[피부미용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5,363	15,511	15,618	15,844	18,340	20,150	21,964
종사자 수	25,845	25,417	25,486	24,939	28,340	29,736	31,91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생활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생활, 건강, 외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기관리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날을 앞둔 경우에만 피부관리실을 찾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거나,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부관리실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가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경기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편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피부와 체형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중장년층은 물론 청소년층과 고령층까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링클전문케어 및 실버전문관리사가 등장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두는 베이비 피부관리가 등장하였으며, 40대 여성을 주 고객으로 한 수분 및 탄력케어 수요 증가 등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 여행패키지에 피부미용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은 피부미용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만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소아청소년의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운동과 식이요법, 마사지, 상담 등을 복합적으로 병행하며 건강하게 체중과 체형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체형관리사(다이어트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 외국관광객이

들어오기도 하는 등 이러한 요인들은 체형관리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일아티스트 역시 외모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일아트를 받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네일아트는 배우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20~40대 여성들이 주 고객층을 이루고 있어,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일아티스트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 전문 업체의 창업률이 높아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이어지고,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폐업률보다 창업률이 더 높은 실정이다. 대학의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 관련 학과, 학원 등에서 관련 기술을 익히고 배출되는 인력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미용욕구 증가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국내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에 따른 국내 방문 여행객 수요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맞춤형서비스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 간 경쟁 심화

종합하면, 피부관리 및 체형관리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으나 미용에 대한 욕구증가와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이용사, 미용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특수분장사, 이미지컨설턴트, 목욕관리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23
- **관련 정보처**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2)586-7343 www.kocea.org
한국다이어트프로그램협회 (02)3443-2511 www.dp.or.kr
한국퍼스널트레이너협회 (02)511-8797 www.pt.or.kr
한국네일협회 (02)720-4103 www.knanail.or.kr

0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메이크업아티스트는 메이크업의 목적, 메이크업이 필요한 상황과 장소, 고객의 얼굴형과 피부톤 및 의상 등을 고려하여 메이크업한다. 분장사는 TV, 연극, 영화 등 출연자들의 얼굴을 극의 내용과 분위기를 고려해 분장한다.



하는 일

메이크업아티스트는 메이크업의 목적에 따라 일반인들이 졸업, 입학 등 행사를 치르거나 면접시험, 오디션 등을 준비할 때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뷰티메이크업,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의 사진촬영 및 결혼식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하는 웨딩메이크업, 카탈로그나 광고촬영, 패션쇼 등에 참여하는 모델을 대상으로 콘셉트에 맞게 메이크업하는 광고·포토·패션메이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개인의 미적 표현을 위한 메이크업에서부터 예술작품 같은 판타지메이크업, 바디페인팅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메이크업아티스트 중에는 메이크업과 더불어 모발 손질까지 함께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먼저 메이크업을 받을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메이크업을 하는 목적과 고객의 취향, 피부타입, 헤어스타일, 의상 등을 고려해 얼굴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한다. 광고나 포토메이크업인 경우 광고주, 사진감독, 촬영감독, 디자이너 등과 촬영 콘셉트에 대해 충분히 상의해야 하며, 직접 현장에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이나 패션쇼 중간에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계속 확인하며 메이크업을 수정해준다.

분장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극중 인물, 작품주제에 적합하게 메이크업을 한다. 이들은 방송프로듀서(방송연출가), 배우 등과 협의하여 극의 분위기와 시대적 배경에 맞는 사진, 문헌 등을 검토하여 분장 방법을 결정한다. 연지, 분, 물감 등의

분자유 재료와 화장품을 사용할 출연자의 얼굴 생김새와 특징, 피부, 체격 등 신체적 특성과 연령, 캐릭터 등에 따라 분장한다. 가발, 수염 등을 사용하여 분장하기도 한다. 미용사나 가발제작원과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영화, 연극, 방송 및 광고 등에서 출연자의 특성을 강조해 주거나 일반 분장으로 보여줄 수 없는 효과를 내기 위해 출연자에게 특수분장을 하는 특수분장사도 있다. 이들은 공포영화 속의 귀신, 부상자, 외계인, 동물 형상 등으로 분장하기 위해 특수효과 소품을 제작하거나,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배우의 얼굴이나 몸에 입체적인 분장을 하며, 가발, 수염, 물감, 분 등을 이용하여 외모 및 형태를 진짜처럼 변형시켜 극의 사실감을 극대화한다.

|업무 환경| 뷰티나 웨딩메이크업 분야의 메이크업아티스트는 고객의 스케줄에 맞춰 이른 아침이나 야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할 때가 많다. 대개 정해진 실내공간에서 일하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로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출장 시에는 항상 메이크업 도구가 든 메이크업박스를 소지해야 한다. 광고, 포토, 패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메이크업아티스트나 방송, 영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장사는 주로 현장 작업이 많다. 작업상황이나 촬영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며, 밤샘작업도 해야 한다.



되는 길

학교나 사설학원에서 지식을 쌓거나 현장에서 전문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의 보조원으로 활동하며 실무경력을 쌓아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피부관리,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등 미용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으며, 사설학원 및 뷰티아카데미, 화장품 관련 업체에서 개설하는 아카데미 등을 통해 메이크업 기술을 배울 수도 있다. 헤어디자이너, 의상코디네이터 등과 함께 업무할 때가 많으므로 헤어나 피부, 의상 등의 분야까지 다양한 지식을 쌓아두면 좋고, 예술적인 분야인 만큼 미술이나 색채 등을 공부하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 특수분장은 분장의 기본지식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통 특수분장에 대한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특수분장사의 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는다.

- **관련 학과** 미용과, 미용예술과, 피부미용학과, 뷰티아트과, 뷰티케어과, 뷰티디자인과 등
- **관련 자격**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보건복지부)

|적성 및 흥미| 색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며, 고객의 피부타입, 신체구조 외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한 상황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과 이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첩성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실함, 끈기가 요구된다. 고객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하므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술적인 감각이나 창의력이 요구되며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고객의 평판이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의 이미지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직업으로 고객 지향 서비스 마인드 및 마케팅 능력도 요구된다. 한편 현장에서는 화장뿐만 아니라 헤어디자인, 코디네이터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미용 분야를 함께 익혀두면 일하는 데 유리하다.

|경력 개발| 주로 메이크업 전문업체, 음식점, 미용실, 화장품회사, 방송국, 영화사 및 공연업체, 이벤트기획사 등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연예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메이크업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후 실력을 인정받아 원하는 분야에 입직하기도 한다. 패션쇼나 연극, 공연 등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메이크업강사로 활동하거나 창업할 수도 있다. 화장품 업체의 경우 경력을 인정받으면 메이크업 시연회, 메이크업 강좌, 쇼 등을 담당하는 브랜드 프로모션 팀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수석메이크업아티스트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고자 하는 소비자층이 늘고 있다. 결혼, 졸업 등 특별행사 시에만 메이크업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예전과 달리, 본인에게 잘 어울리고, 평소 혼자서도 연출이 가능한 화장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의 발달, 매체의 다양화 등은 방송, 연극, 공연 등에서 활동하는 분장사의 고용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D-TV보급, 디지털 방송의 확대는 방송 출연진들의 메이크업과 분장에 보다 정교함을 필요로 하고 있어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유튜브나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메이크업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방대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직접 하면서 메이크업 전문가를 찾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미용 관련 종합 자격증이 있어서 한 가지 자격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등 모든 것들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며 자격증 하나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솜을 열기가 어렵다. 또한 메이크업서비스는 특성상 손님이 직접 솜을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출장에 제한이 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메이크업아티스트의 양성 및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1인숍이나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미용욕구 증가	• 온라인 매체 발달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불법운영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출장업무 제약 • 경직된 자격증 제도

종합하면, 미용에 대한 욕구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매체 발달에 따른 전문가에 대한 수요 감소, 경직된 자격증 제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이용사, 미용사, 피부관리사, 네일아티스트, 이미지컨설턴트, 특수분장사, 패션 어드바이저, 패션코디네이터, 연예인매니저, 소품관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1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24
- **관련 정보처**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02)3446-5995 www.kmaa.or.kr
(사)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02)3442-6177 www.promakeup.or.kr

05

반려동물미용사

반려동물미용사는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목욕시키고, 클리퍼나 가위 등을 사용하여 털을 깎거나 다듬어주며, 귀청소, 발톱정리를 해주는 등 동물의 미용과 청결을 담당한다.



하는 일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렸으나,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불린다. 반려동물미용사는 주로 개나 고양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개의 미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애견미용사로 불리기도 한다.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한 다음 다양한 커트 방법 중 적합한 작업을 선택하여 털을 깎는다. 트리밍이라 일컫는 전신미용 작업은 털 깎는 기계인 클리퍼로 발바닥이나 배 등을 짧게 깎아준 다음, 그 외 동물에게 필요 없는 털을 제거하고 자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브러시를 이용해 털의 엉킴을 풀어 손질하고, 청결을 위해 목욕 및 귀청소, 발톱 정리, 귀 다듬기 등도 해준다. 동물의 털을 염색하거나 묶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미용작업을 그루밍이라 한다. 도그쇼 등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미용도 담당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참가일정 및 털갈이 시기에 맞추어 건종에 따른 출전스타일을 결정하고, 털을 미리 정돈하면서 건종에 따른 장점을 살려서 개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부각시켜 주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털이나 피부상태가 건강하지 않거나 귀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의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며, 청결 유지와 질환 예방을 위해 고객에게 반려동물 관리법을 조언해준다. 이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을 관리하고, 미용작업이 끝난 후 미용기구

세척, 청소, 정리정돈 업무도 해야 한다. 평소에는 반려동물산업이 발달한 외국의 전문서적 등을 통해 새로운 커팅스타일과 유행스타일 등을 공부해 업무에 활용한다.

|업무 환경| 미용작업 중에는 위생을 위해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하는 동안은 서서 일하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성격이 사납고 덩치가 큰 개나 고양이를 다룰 때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갑작스런 입질로 인해 상처를 입을 위험도 있다. 그리고 전염병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대할 때 감염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되는 길

반려동물미용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반려동물 미용에 관한 실무적인 기술을 쌓고 입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 개설된 애완동물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에 개설된 애견미용 관련학을 전공하거나 사설애견미용학원의 양성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 애견미용실이나 동물병원의 견습생으로 들어가 미용보조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애완동물학과, 애완동물관리과

■ **관련 자격** 애견미용사 1급/2급/3급 자격증(한국애견협회), 트리머 1급/2급/3급(한국애견연맹)

|적성 및 흥미| 반려동물미용사는 무엇보다도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며, 동물의 특색에 맞게 미용을 해줄 수 있는 눈썰미와 미적 감각이 요구된다.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고 장시간 서서 근무하거나 덩치 큰 동물을 다뤄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꼼꼼함과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동물병원, 애견센터, 반려동물전문점이나 반려동물전문미용실 등에 취업한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센터 등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애견미용을 담당하는 인원도 1~2명 정도이므로 별다른 승진경로가 없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본인이 직접 반려동물미용실을 운영하거나, 미용 이외에 핸들링이나 브리딩 분야를 배워 동물조련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반려동물미용사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은 2019년 약 17천 명에서 2029년 약 2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수는 2012년에 439만 마리에서 2019년 598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수도 2012년 115만 마리에서 258만 마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려견, 반려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27년 6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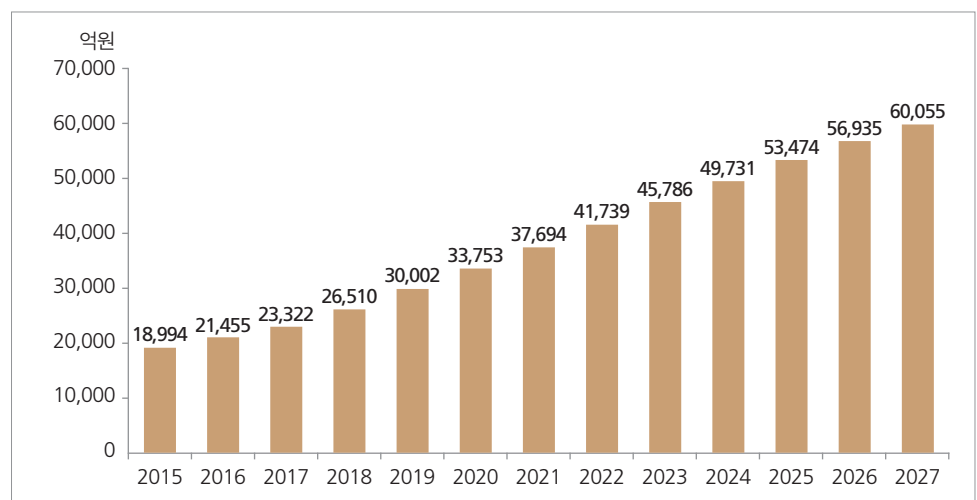
[연도별 반려견, 반려묘 수(추정치)]

(단위: 만 마리)

연도	2012	2015	2017	2018	2019
반려견 수	439	513	662	507	598
반려묘 수	115	190	233	128	2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생활수준의 향상과 독신가구,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같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 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614만 8천 가구에 이른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관심도 높아져 2014년부터는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애견미용은 클리핑 미용(단순히 위생과 청결, 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미용)이 많았지만, 애견의 미적인 면도 중시하는 시저링 미용(가위를 주로 사용하는 미용)에 대한 관심도 커져감에 따라 애견미용 분야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반려동물미용에 관한 직업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국비지원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있어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통해 꾸준히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애견미용을 교육받아 재취업하려는 베이비부머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반려동물미용시설 간 경쟁도 치열한 편이며,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도심의 시장은 포화상태로 보는 의견이 많아 급격한 고용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대형마트 등에 애견미용센터가 일부 애견미용사의 고용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소규모로 개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인의 세심한 손기술로,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반려동물미용사 해외취업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미용업이 등록되어 있지만, 반려동물 미용서비스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동물병원, 애견카페, 애견숍 등에서도 숍인숍(shop-in-shop) 형태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용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면 반려동물미용사의 안정적인 고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1인 가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반려동물 인식 개선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반려동물시장의 성장	• 업체 간 경쟁심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동물보호법 • 반려동물등록제	

종합하면, 1인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반려동물등록제 등과 같은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반려동물미용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동물사육사, 애완동물상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1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91
- **관련 정보처** (사)한국애견협회 (02)2265-3349 www.kkc.or.kr
(사)한국애견연맹 (02)2278-0661 www.thekkf.or.kr

06

수의사 보조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여 진료, 검사,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수의간호사, 수의테크니션이라고도 불린다.



하는 일

동물병원에서 접수, 보호자 안내, 수납, 차트관리 등의 원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온 고객에 대한 응대 업무를 수행한다. 아픈 동물에 대한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진료실의 장비 및 기구를 관리한다.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임상병리검사 업무(샘플 채취 및 관리, 분변검사, 혈액도말, 요검사 등), 영상진단검사 업무(X-ray 기기의 이해, 노출량 계산, 체위와 보정, 촬영 및 현상, 관리), 처치실의 업무(처치준비 및 처치보조, 처치수기), 처치실의 기구와 물품관리 업무(처치실 청소 및 소독), 수술실의 업무(수술 준비 및 수술 후 처치보조), 수술실의 기구와 물품관리 업무(수술실의 무균관리, 수술실 청소 및 소독)를 보조한다.

|업무환경| 동물들의 예방접종 시기인 봄, 여름에 더 바쁠 수 있으며, 응급진료 보조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기도 한다. 수의사를 보조하여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축진료를 돕기도 한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에겐 물리거나 할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시골의 동물병원에서는 소와 말과 같은 큰 동물에 차이거나 받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도시 지역보다 지방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 근무가 많은 편이다.



되는 길

국내에는 아직 수의사 보조원이 되기 위한 자격증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수의테크니션, 동물간호사, 동물복지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에 맞는 자격증은 있지만 수의사 보조원이 되기 위한 직접적인 자격증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와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 취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으로써 2021년부터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취득이 의무화가 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근무가 가능해진다.

- **관련 학과** 애완동물학과, 애완동물관리과, 동물보건복지학과
- **관련 자격** 동물간호복지사, 애견미용사

| 적성 및 흥미 |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분야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신체적, 감정적으로 쉽게 지칠 수 있고, 가끔은 동물 때문에 위험에 처해지기도 한다. 학대 당한 동물을 목격하거나 다친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할 수도 있다. 동물보호소에 근무할 경우 동물을 학대하는 주인이나 관련자들이 종종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으므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경력 개발 | 대체로 동물병원에 취업하고 기타 반려동물 관련 회사, 연구소 및 학원 등에 취업한다. 또한 생물학 검사 기관, 제약회사, 사육장(사육시설), 동물원, 야생동물 관련 기관, 동물보호 관련 기관, 유기동물 보관소 등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수의사 보조원의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수의업 사업체 수는 3,952개에서 2018년 4,137개로 증가하였으며, 수의업 종사자 수도 2016년 1만 3,588명에서 2018년 1만 5,880명으로 약 2천명 이상 증가하였다.

[수의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3,952	4,023	4,137
종사자 수	13,588	14,579	15,88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생활수준의 향상과 독신가구,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같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계획이 없는 딩크족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아이가 없는 대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딩펫족(DINK+pet)이나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적극적이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반려견의 경우 월평균 12만 8천 원, 반려묘 12만 원, 둘 다 양육하는 가구는 23만 8천 원을 양육을 위해 고정적으로 소비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로 월 소비지출액의 1/3 정도였으며 질병·예방치료비는 간식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엑스레이 장비 보유 대수는 2014년 2,141대에서 2018년 3월 31일 기준 2,954대로 증가했고, 일반 진단용 엑스선 장치뿐 아니라 CT 47대, C-arm 48대, 이동형 엑스선 장치 619대, 치과용 엑스선 장치 12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비들 역시 보유 비율이 2014년도에 비해 각각 23.9%, 193.8%, 140%, 104.9%, 100% 증가했다.

[2014-2018년 동물병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유형별 분포]

(단위: 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 X-ray	1,797	1,811 (0.8%↑)	2,009 (11.8%↑)	2,047 (13.9%↑)	2,228 (23.9%↑)
CT	16	21 (31.3%↑)	29 (81.3%↑)	32 (100%↑)	47* (193.8%↑)
C-arm	20	20 (0%)	24 (20.0%↑)	29 (45.0%↑)	48 (140.0%↑)
이동형 X-ray	302	440 (45.7%↑)	564 (86.8%↑)	639 (111.6%↑)	619 (104.9%↑)
치과용 X-ray	6	5 (16.7%↑)	6 (0%)	6 (0%)	12 (100%↑)
합계	2,141	2,297 (7.3%↑)	2,632 (22.9%↑)	2,756 (28.7%↑)	2,954 (37.9%↑)

* PET-CT(1대) 포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2019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

2018년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39조 원이며 이 중 40%가 반려동물용 의약품이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조 1,251억 원으로 이 중 내수 시장이 8,054억 원, 수출이 3,19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용 의약품의 비율은 13%(제조 기준)에 그쳐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다른 분야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사 보조원 전망 요인]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독신가구, 독거노인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덩펏족, 팻팻족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반려동물용 의료기기 도입 증가	

종합하면, 생활수준 향상과 1인 가구, 독신가구, 독거가구 및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덩펏족 등의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 지출 중 질병·예방치료비 지출이 높은 점, 국내 동물병원의 반려동물용 의료기기 도입 증가 및 국내 동물용 의약품 중 반려동물용 의약품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은 국내 수의업 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10년간 수의사 보조원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동물간호사, 수의간호사, 동물복지간호사, 수의테크니션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1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91
- **관련 정보처** 한국동물병원협회 (02)522-4722 www.kaha.or.kr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www.kvma.or.kr
(사)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www.kahpa.or.kr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www.qia.go.kr

07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결혼상담원,
웨딩플래너, 혼례종사원

결혼상담원은 결혼 적령기 고객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조건을 파악하고, 컴퓨터 매칭작업과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한다. 웨딩플래너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혼수 준비에서부터 결혼식, 신혼여행지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결혼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기획하고 대행한다. 혼례종사원은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신랑·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한다.



하는 일

결혼상담원은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가 서로 희망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흔히 커플매니저로 통한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연령, 학력, 성격, 직업, 신체조건 등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적합한 배우자감을 선별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성격, 조건 등 희망사항을 파악한다. 이후 결혼상담원의 상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울리는 상대방을 연결해주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컴퓨터 매칭시스템을 통해 남녀회원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고객과 상의하여 만남 방법,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해주며, 만남 주선 후에는 회원들의 반응을 살펴 다음 매칭에 참고한다. 고객의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만남에 참고가 될 만한 조언을 하여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돕고, 이벤트나 각종 행사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객들이 만남을 할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을 물색하거나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기도 한다. 결혼상담원 중에는 재혼, 국제결혼으로 전문 분야를 특화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다.

웨딩플래너는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혼수 준비에서부터 결혼식, 신혼여행지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결혼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기획하고 대행한다. 웨딩컨설턴트, 웨딩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들은 고객의 직업, 취향 및 예식비용 등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예식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관련 업체를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예물, 예단, 웨딩드레스 및 텍시도,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고객이 원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을 계획한다. 일정에 따라 결혼 준비 진행을 도와주고, 업체에 고객과 동행방문하면서 컨설팅한다. 이때 고객에게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고 결혼날짜에 맞춰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진행과정을 확인해야 하며, 사진촬영 장소, 미용실, 결혼식장 등에 미리 찾아가 드레스와 화장, 폐백 등을 확인하고 결혼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혼례종사원은 예식장 내의 의자, 마이크시설, 카펫 등을 정리·정돈한다. 예식진행에 필요한 성혼선언문, 장갑, 꽃 등을 준비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하객을 장 내로 유도한다. 예식의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신랑·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하기도 한다. 전문주례사는 예식장에 근무하면서 주례를 준비하지 못한 신랑, 신부의 요청 시 일정액의 사례비를 받고 주례 업무를 대행해 준다. 또한 예식 사회자의 실수로 예식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시 사회자를 도와 예식이 원만히 끝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결혼상담원은 결혼적령기의 직장인 고객이 많으므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때가 많다. 웨딩플래너 역시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때가 많으며, 결혼식이 대부분 주말이나 공휴일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쉬지 못한다. 고객과의 상담 및 결혼준비 진행을 돕기 위해서 동행하므로 외근이 잦은 편이다. 혼례종사원은 결혼식이 대부분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 근무를 주로 하며 대체로 예식장, 교회, 성당 등과 같이 실내 근무가 많으나 야외 결혼식의 경우에는 실외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길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는 특별히 학력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사회생활 경험자나 대학졸업 이상자에 한해 채용하기도 한다. 관련 협회나 업체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 프로그램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문대학의 웨딩 관련 학과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혼례종사원 역시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 등은 없으며 학력이나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혼식장 운영업체에 취직한 후 기초적인 연수를 받아 일을 배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친절함과 서비스정신이 요구되며, 특히 예약계는 식장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시중역은 결혼식에서 어느 누구보다 신부를 돌보이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부를 따라 다니며 신부에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 **관련 학과** 심리학과, 웨딩산업과, 웨딩비즈니스학과, 웨딩플래너과 등
- **관련 자격** 결혼상담사(한국심리상담협회), 웨딩플래너(한국웨딩플래너협회)

■ 적성 및 흥미 꼼꼼하고 섬세한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가 여성 종사자이지만, 최근에는 남성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결혼중개업체의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어 결혼상담원에게도 투철한 도덕성, 책임의식 등이 요구되고 있다. 긍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인상과 상담능력, 설득력 등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혼례종사원의 경우 신랑과 신부, 하객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친화력, 의사소통 능력, 서비스 정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요구된다. 또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내성이 있어야 하며, 예식 진행 과정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융통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결혼상담원의 경우 결혼정보회사, 결혼소개소에서 초혼, 재혼, 국제결혼 등을 담당하며 웨딩플래너는 웨딩컨설팅업체에서 주로 종사한다. 회사에 따라 취업 후 일정의 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선배 결혼상담원이나 웨딩플래너를 통해 상담법, 매너, 컴퓨터매칭시스템 조작법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다.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결혼상담업체와 웨딩컨설팅업체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결혼상담원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웨딩플래너로 이직하기도 한다. 혼례종사원의 경우 결혼식장 등에 공채나 개인적 소개를 통해 채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업체에 채용된 후 기초적인 연수를 받으면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12년 1,457개소에서 2018년 975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2015년 3,859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 3,592개로 감소하고 있다.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457	1,231	1,240	1,167	1,025	972	975
종사자 수	3,705	3,719	3,832	3,859	3,521	3,444	3,59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혼인건수 추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159건으로 나타났다. 결혼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큰 고용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도별 혼인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305,507	302,828	281,635	264,455	257,622	239,159
초혼	251,477	249,978	232,446	216,759	210,316	193,894
재혼	53,927	52,747	48,899	47,374	46,747	44,500
미상	103	103	290	322	559	322

자료 : 통계청, 시도/부부의 혼인종류별 혼인

한편,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가 결혼인 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기 위해 결혼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결혼과정이 하나의 시장과 산업으로 자리 잡혀가고, 직장생활을 하는 예비부부들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절약하면서 결혼준비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예식장 선정부터 사진촬영, 예단, 예물, 신혼여행지까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컨설팅해주는 편리함, 본인의 예산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결혼 관련 정보의 과잉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져 올바른 정보를 조달해줄 결혼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의 수요와 공급이 많은 편이지만 점차 지방에서도 플래너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웨딩촬영이나 신혼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고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몰웨딩이나 리마인드웨딩 등 새로운 결혼 문화가 증가하면서 웨딩플래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는 전문 자격이 없어도 활동 가능하다는 점, 결혼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 등을 보아 웨딩플래너의 입직 경쟁률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중개업법 개정을 준비 중이고 웨딩플래너의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게 되면 입직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혼인건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정보과잉으로 전문인력 수요 증가 • 새로운 결혼문화(스몰웨딩, 리마인드웨딩)	
국내외 경기	• 외국인 수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의 변화	• 지방 도시의 웨딩 문화 변화	

종합하면, 새로운 결혼문화나 다양한 웨딩콘텐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혼인건수 감소로 인하여 향후 10년간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커플매니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121, 혼례종사원 512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4231, 혼례종사원 4232
- **관련 정보처**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02)547-6042 www.kwppa.or.kr
(사)한국심리상담협회 (02)766-0121 www.kpcs.or.kr

08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은 유족과 장례절차를 상담하고, 장례용품 준비부터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관리한다.



하는 일

장례지도사는 장례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행하고, 장례 후의 재래의식을 진행하는 등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관리한다. 장례지도사가 근무하는 장례식장의 규모나 장례장소에 따라 혼자서 장례절차를 모두 진행하기도 하고, 상담, 시신수습, 염습 등의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이들은 고객을 상대로 장례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상의한다. 장례일정과 비용, 장례 규모, 종교, 가풍에 따른 특이사항 등에 대해 상담이 끝나면 장례식장이나 상을 당한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장례식을 총괄한다. 상주에게 조문예절과 종교에 따른 장례의례를 지도한다. 또한 장례식에 쓰일 장제 기구와 수의, 관, 상복 등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며, 유족이 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돕는다.

장례지도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시신관리업무이다. 시신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자세를 바로잡고 가지런하게 하는 수시(收屍),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서 수의를 입히는 염습(殮襲), 시신을 관에 눕히고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관 속의 빈 공간에 벽지나 마포 등을 채워 넣는 입관(入官) 등의 작업이 있다. 염습작업 시 로션을 바르거나 가뭇게 색조화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장지(시신을 묻을 땅)로 출발하기 위해 출상 준비를 하고, 종교가 있으면 종교의식에 따라 발인제를 진행한다. 장의차를 이용하여 관(영구)을 화장터나 장지로 운반한 후에는 관을

무덤에 내려놓는 하관(下官)작업을 진행한다.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장사를 지내는 이장을 주선하거나 직접 시행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장의업무가 언제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는 등 장례지도사의 업무시간은 매우 불규칙하다. 대규모 전문장례식장이나 병원 내의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를 한다.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장례식장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시신관리 작업 시 시신의 부패나 악품에 의한 냄새가 심할 수도 있으며, 감염예방 및 청결을 위하여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한다.



되는 길

최근 장례문화의 발달로 각종 장례행정절차나 시신위생처리 등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 따라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장례지도사로 진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외에 평생교육원 등 사설교육기관에 개설된 장례지도과정을 수강하거나 4~5년 정도 장례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장례지도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취업 시 경력 및 현장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입사 후 3~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 **관련 학과** 장례지도(학)과, 장례행정복지과, 장례서비스경영과 등
- **관련 자격** 장례지도사(보건복지부)

| 적성 및 흥미 | 장례지도사는 장례절차, 시신위생처리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와 복지, 불행한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한 배려, 돌봄 등과 같은 서비스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의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일이 고단한 만큼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죽은 사람의 몸을 다루고, 죽은 자를 보다 아름답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의식을 수행하므로 담력과 침착함, 자기통제 능력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시설공단,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장례식장, 전문장의업체, 장의종합서비스업체(상조회사), 장의시설(화장시설, 납골당) 등에 취업하며, 장례용품 판매업체, 화환용품 판매업체, 이장용역업체 등에서도 일한다. 실무경험을 쌓은 후 직접 장의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매년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장례하면 떠올리던 음습한 분위기가 아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업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장례지도사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장례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좋으며 대형병원이나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장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대우도 괜찮고 안정된 직장으로 진출이 가능해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례문화가 변화하고, 자연장 문화도 발전함에 따라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향후 장례지도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사망자 수	266,257	267,692	275,895	280,827	285,534	298,820	295,100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

한편,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매년 장례식장 관련 사업체 수는 2015년까지 꾸준히 성장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대폭 줄어들었다. 종사자 수는 조금씩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업체 수는 2,991개소, 종사자 수는 2만 1,7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2,719	2,872	3,078	3,181	2,976	2,909	2,991
종사자 수	20,986	24,221	22,895	23,499	22,379	20,948	21,77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내 상조시장은 중소기업체를 포함하여 대형 상조업체까지 다양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리 장례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상조회 등에 가입하는 등 장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 그러나 현재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는 상조업체 및 상조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업체가 상조업 영업을 가능했으나 2016년 법률 개정으로 2019년 1월 25일부터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업체만 상조업 영업을 가능해짐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은 폐업을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례지도사의 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장례문화 다양화	• 경쟁심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할부거래법

종합하면,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장례문화의 다양화 등 장례지도사 고용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포화상태인 시장상황과 할부거래법 개정 영향 등으로 향후 10년간 장례지도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그린장례지도사, 묘지관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2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33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한국장례협회 (02)3472-4444 www.fta.or.kr

09

여행서비스종사자

여행상품개발자, 여행사무원,
여행안내원, 자연 및 문화해설사

여행서비스종사자는 새로운 여행지를 상품화하는 여행상품개발자와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외 여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여행상품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지원하는 여행사무원, 여행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행안내원(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및 국외여행인솔자로 구분되고, 숲, 곤충, 사찰, 산성, 갯벌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생태환경에서 자연, 역사문화, 해안생태 등 자연환경을 안내하고 설명하며 교육하는 자연 및 문화해설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일

여행상품개발자는 아직 여행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아내어 새로운 여행지로 상품화한다. 여행상품기획자, 투어플래너(Tour Planer), 여행코디네이터(Tour Coordinator) 등으로도 불린다. 과거에는 해외 배낭여행이나 국내외의 명승지 여행 상품들을 주로 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오지여행, 체험여행, 맛기행, 기차여행 등 다양한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자료와 현지 관광청 자료를 자주 체크하고 그 동향을 파악한다. 또는 현지를 장기간 여행했거나,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항공·육로·해상교통편, 요금, 관광명소의 위치, 숙박시설 등에 관한 제반 자료를 토대로 상품성이 있는 관광지를 찾는다. 여행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함께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업무 외에 마케팅활동까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행상품개발자는 상품개발 업무 외에 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고민과 노력도 해야 한다.

여행사무원은 여행객을 모집하고, 상담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여행객의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등 여행객이 출발해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필요한 절차를 조력한다. 경비에 대한 입금업무를 수행하며, 여행사무원 중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성수기 시즌이나 국외여행인솔자 수배가 안 될 경우, 단체관광 수요가 발생하면 여행객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숙박, 교통, 식당 등 여행과 관련한 사항의 섭외 및 예약을 담당하기도 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외국어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안내하면서 관광객들의 일정 전반에 관한 편의와 도움을 제공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영어, 일어, 중국어, 동남아, 구미주 등 언어권별로 구분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언어로 관광에 필요한 통역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 여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인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단체관광 일정이 종료되면 여행상품에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고 보고서로 제출한다.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으로 대상으로 역사 및 문화 등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지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관광 패턴이 개별관광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수학여행 및 특수목적의 국내여행 시 국내여행 안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행일정 전반에 걸쳐서 관광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처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요구된다. 관광안내 시 문제점 및 개선점을 기록하여 향후 여행기획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도록 여행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국외여행인솔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솔 업무를 담당한다. 투어컨덕터(TC : Tour Conductor, 내국인의 단체 외국여행을 인솔하면서 현지가이드와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 등으로 불린다. 국외 여행을 인솔하는 경우는 여행 출발일에 공항이나 집합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고 여행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출국수속을 도와주고 현지도착 시에는 입국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관광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사와의 연락을 통해 협의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정산을 하고, 관광안내 시 문제점 및 개선점을 기록하여 향후 여행기획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도록 여행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자연 및 문화해설사는 자연환경의 유래와 역사, 중요성 등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기 위해 탐방해설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사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자원 및 자연관찰로를 모니터링하며 안내판을 만들거나 해설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또한 프로그램 내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여행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사 근무자는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하지만 여행업이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과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에는 밤샘 작업이 많으며, 고객과의 상담이나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 단계에는 늦은 시간까지 근무할 때도 많다. 여행안내원의 근무일수도 성수기·비수기 등에 따라 다르며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적이다. 실제로 관광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다 보면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당일 일정이 종료되어 숙소로 도착한 이후에도 관광객의 긴급 요구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한다.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나 여행안내를 위해서 관련 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며, 장기간의 해외출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시차를 극복해야 한다. 자연 및 문화해설사의 경우는 전국의 국립공원이나 지자체의 생태 우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므로 대부분 도시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한다. 관광객을 위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되는 길

여행 관련 분야의 업무경험이 있거나 국내외 여행 경험이 많은 것이 유리하며,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은 없다. 여행상품개발자는 여행 업무를 비롯해 여행지역에 대한 교통이나 지리, 숙박, 문화 등 모든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회사에 취업해도 처음부터 여행상품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업무를 통해 일정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여행사 관련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미리 습득해 놓고 여행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 관련 업무 경험이 없을 경우 지정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이나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에서 여행업 종사자를 위한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좋다. 대학에서 관광학 등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관광학의 기초이론을 비롯해 여행업, 호텔경영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배울 수 있다. 자연 및 문화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생물학과, 환경학과, 조경학과 등 자연환경 관련 전공을 하면 유리하다.

한편, 관광분야의 국가전문자격제도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이며, 2009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하거나,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다. 국외여행인솔자자격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양성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문화관광(학)과, 국제관광(학)과, 호텔경영(학)과 등
- **관련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여행인솔자(문화체육관광부)

| 적성 및 흥미 | 여행서비스관련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며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적합하다.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항상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도 필요하다.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예약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은 필수적이다. 관광객을 인솔해야 하므로 리더십이 요구되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걷기 등 활동이 많아 강인한 체력도 요구된다.

여행상품개발자에게는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획력이 요구된다. 해외출장이 잦고, 해외의 여행 관련 자료를 다루어야 하므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업계의 동향과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판단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통찰력과 세심함이 필요하다. 여행안내원은 관광 자체에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고객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고 성격이 활발하면 유리하다.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요구된다. 자연 및 문화해설사로 근무하려면 무엇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하다. 또한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많기 때문에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 경력 개발 |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주로 여행사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다. 각 여행사는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통해 여행상품기획자와 여행사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여행사 홈페이지나 각종 취업사이트,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게시된다. 주로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하기 때문에 여행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심 있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취업 정보를 체크하거나 미리 이력서를 제출해 두면 좋다.

여행상품개발자의 경우 보통 여행사에 일반 여행사무원으로 취업하여 일정 이상의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여행상품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행사에 처음 입사하면 티켓 발권이나 여권 발급 같은 초보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행안내원은 관광호텔업체, 국외여행업체, 일반여행업체, 무역회사, 항공사, 외국인기업, 면세점, 호텔, 학원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여행사 등에 공채, 특채 등을 통해 입직하게 되며 여행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들은 여행상품을 개발하거나 기획하는 일로 전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력개발을 위하여 관련 학과에서 기획과 마케팅을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경력을 토대로 일정한 자금력과 영업력이 있다면 여행사 등을 직접 창업할 수 있다. 이 밖에 관광통역안내사는 국제회의, 통역, 영어강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자연 및 문화해설사는 주로 지자체에 취업하며 초기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 및 문화재에 대한 해설을 하며 경력이 쌓이면 체험활동을 기획·운영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여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은 2019년 약 26천 명에서 2029년 약 2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0천 명(연평균 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행과 레저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 활동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년층 및 가족단위 단체관광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여행 관련 업체 수는 2013년 1만 8,441개에서 2018년 3만 3,452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수도 2013년에 1,200만 명 규모였으나 2018년도에는 1,534만 명을 기록하였다. 외국인 입국자들의 주요 목적이 MICE, 의료, 한류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분야별로 특화된 안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행서비스관련종사자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행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수]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8,441	20,769	23,874	27,696	33,089	33,452
종사자 수	227,135	230,334	235,604	261,978	280,270	267,561
방문객 수	12,175,550	14,201,516	13,231,651	17,241,823	13,335,758	15,346,879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그러나 최근에는 여행과 관련된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개별여행 또는 가족 단위의 자유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여행안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여행서비스관련종사자의 급격한 고용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추구하는 문화의 등장으로 저렴한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만 높다 보니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전산화 및 IT화 그리고 콜센터 아웃소싱 등으로 인하여 고용수요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 나아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여행업계는 계속 성장해왔으나 이제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향후 5~6년 이내에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여행업계 간 소위 시장 뺏기 싸움으로 인해 고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행업은 산업 특성상 국내외 경기상황, 국제 정세, 지진, 전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 등 외부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을 나타내며 메르스, 테러, 사드, 코로나19 등의 시류에도 민감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 증가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성비 추구 문화
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IT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상품 출시 • 의료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여행 증가
국내외 경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계 성장 포화
환경과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문제

종합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행수요 증가 및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 다양한 여행서비스의 등장으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지만, 여행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및 IT화, 자유여행의 증가 그리고 국내외 경기상황, 국제 정세, 지진, 전염병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해 여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자 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자연환경안내원, 숲해설가
- **분류 코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여행상품개발자 5211
 - 여행사무원 5212
 - 여행안내원, 자연 및 문화해설사 5213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여행상품개발자 2732
 - 여행사무원 3921
 - 여행안내원, 자연 및 문화해설사 4321
- **관련 정보처**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www.mcst.go.kr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2669-9800 www.kcti.re.kr
 - 한국관광공사 (033)738-3000 www.visitkorea.or.kr
 - 한국여행업협회 (02)752-8692 www.kata.or.kr

10

항공기 객실승무원

항공기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일

항공기 객실승무원은 보통 여성은 스튜어디스로, 남성은 스튜어드로 불린다. 비행기 탑승 전부터 비행기가 이륙 후 다시 착륙하기까지 기내의 각 설비 설명, 비행 관련 주의사항 전달, 통과지점 및 비행 상황 설명, 식사 및 음료수 서비스, 응급 시 승객의 안전지도 및 비상탈출 돕기 등을 수행한다. 기내에 탑승하기 전에 보통 객실사무장 주재로 브리핑을 한다. 이때 업무 분담, 용모 및 필수 휴대품 점검, 유의사항 및 신규 업무지식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는다. 또한 기내에 탑승하여 기장의 주관하에 목적지, 비행시간, 항로 및 기상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을 파악한다. 출발 전 승객보다 먼저 탑승하여 비상장비 및 기내시설의 이상 유무, 기내용품의 수량 및 탑재 여부, 의료장비, 기내의 청결상태 등을 포함한 객실 서비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객실사무장이 각 구역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탑승지시를 내리면 승객의 탑승이 시작된다. 승무원은 탑승객이 제시하는 탑승권을 확인하여 좌석을 안내한다. 탑승이 완료되면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이동물품의 고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구명복, 산소마스크, 비상탈출구의 사용법 등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승객에게 식사 및 음료, 헤드폰 등을 제공하며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외에 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보살피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해외 비행의 경우 여행지 입국수속에 필요한 서류나 세관신고서 등의 작성방법을 설명해주시기도 한다.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가까워지면 이동물품을 고정하고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착륙

전 기내점검을 한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승객들이 내리는 것을 돕고, 객실 상태나 승객의 물품 분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 비상사태 발생 시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비상탈출설비 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비상착륙 시 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업무 환경| 보통 한 달 주기로 비행 스케줄이 하달된다. 비행시간은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연간 1천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근무시간은 비행 일정에 따르기 때문에 주말, 휴일, 공휴일이 따로 없이 불규칙하다. 기내에서 근무하며 해외체류가 잦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피로가 발생하기 쉽고 불면증, 위장병, 허리디스크와 같은 직업병이 있을 수 있다.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시간, 잦은 해외 체류 등으로 여성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짧은 편이나 본인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장기근무가 가능하며 지상근무로 업무를 전환할 수도 있다.



되는 길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전공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항공운항과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관련 학과에서는 항공업무론을 비롯해 객실업무개론, 항공운송실무, 객실서비스실무, 기내식음료개론, 항공서비스매너, 항공영어회화, 객실서비스영어, 토익 등 현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채용 시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응시기준 이상의 공인성적을 획득해야 하고 회화 능력도 갖추면 좋다. 특정 회사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체력 테스트의 하나로 수영시험을 보기도 하므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이 밖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관련 상식을 쌓아 놓으면 향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 **관련 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비서학과, 외국어학과 등

|적성 및 흥미| 서비스직의 특성상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단정한 용모와 화술이 요구된다.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물론 항상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팀 단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마찰 없이 일을 해내야 하므로 협동정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이 요구된다. 또한 근무 스케줄이 불규칙하고 장시간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 개발| 국내외 항공사의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게 된다. 항공사는 업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응시자격 조건은 회사마다, 해마다 차이가 있어 관심 있는 회사의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8월부터 항공일자리포털(www.air-works.kr)을 운영하고 있어 항공 관련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교정시력 1.0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의 토익 성적이 550점 또는 토익스피킹 Lv.6 또는 오픽 IM 이상이어야 한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체력 및 수영 시험을 치른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학력제한이 없으며, 교정시력 1.0 이상을 요구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거나 필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기내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체력 및 수영 시험을 치른다.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채용 후 입사교육과 객실업무 수행을 위한

신입 전문훈련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선 또는 국제선 비행이 가능하다.

승무원은 '신입승무원→부사무장→사무장→선임사무장→수석사무장'의 승진단계를 거친다. 또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사내에서 사무직이나 서비스강사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는 매너강사나 승무원 양성학원의 강사를 비롯해 호텔, 일반여행업 등 서비스직에 종사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2019년 약 11천 명에서 2029년 약 1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0천 명(연평균 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행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여행을 다루는 예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방송에 등장한 여행지에 대한 신규 취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가 항공사의 등장으로 해외 여행 빈도도 증가하게 되었다. 해외 여행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행 증가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국내에 취향하는 외국 항공사들이 현지인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항공기 객실승무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신생 저가 항공사의 등장과 다양한 국내지방과 해외 간 노선 추가도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과거에는 여성 승무원들이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었으나, 현재는 계속 일하는 추세여서 갈수록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마다 규정된 승무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공기 증가는 승무원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등록대수는 2015년 724대에서 2019년 853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의 항공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 항공기 객실승무원은 2015년 1만 655명에서 2019년 1만 4,1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항공기 증가대수]

(단위: 대,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수	724	761	793	835	853
증가	69	37	32	42	28
증가율	10.6	5.1	4.2	5.3	2.2

자료: 국토교통부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객실승무원 확보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내국인	10,655	11,918	12,385	12,856	14,178
외국인	701	816	696	548	524
계	11,356	12,734	13,081	13,404	14,702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2019), 항공종사자 현황, 주요정책통계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행수요 급증 • 한류와 미디어의 영향	
국내외 경기	• 경제발전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노선 추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신생항공사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항공안전법	

종합하면, 여행수요 증가와 한류와 미디어의 영향, 저비용 신생항공사의 증가와 신규노선 취항 증가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선박객실승무원, 열차객실승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22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311
- 관련 정보처 국토교통부 1599-0001 www.molit.go.kr
대한항공 1588-2001 koreanair.com

11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선박 객실승무원은 페리, 크루즈, 유람선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차 객실승무원은 열차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일

선박 객실승무원은 승객에게 승선 및 하선, 선실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운행 중에 목적지, 운행시각,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탑승인원을 확인하고 운행, 노선, 일정 및 편의시설 등을 승객에게 알려준다.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보트 탑승요령 등을 설명한다.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며, 티켓을 확인하기도 한다. 선박 객실승무원은 크게 크루즈승무원과 유람선승무원, 여객선승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람선승무원은 한강이나 부산 해운대 근처를 운행하는 유람선에서 활동하며, 크루즈승무원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고객을 탑승시켜 세계적인 관광지를 항해하는 대형크루즈에서 활동한다. 여객선승무원은 부산-일본, 인천-중국 등 나라 간 이동을 하는 여객선 및 국내의 해안도서지방을 운행하며 육지와 섬을 연결시켜주는 여객선에서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차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승하차를 안내하고 도와준다. 운행 중인 열차를 순회하며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선반의 물건을 정리하고 확인한다. 무선이동단말기를 이용하여 승차권 발행, 열차 정보를 제공한다. 승객의 질문에 응대하고, 사고발생, 승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여객전무(열차팀장)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업무환경| 선박 객실승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과 상관없이 근무한다. 또한 국외를 이동하는 여객선의 경우 운항시간에 따라 외국의 정해진 숙소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고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낯선 환경에 금세 적응해야 하지 못하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선박 객실승무원은 해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폭풍이나 풍랑 등 날씨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상상태나 운항상황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속 바다 위에서 일해야 하며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므로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열차 객실승무원은 보통 한달 스케줄이 미리 정해진다. 열차는 매일, 새벽부터 야간까지 쉼 없이 운행되므로 승무원 역시 공휴일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주 5일, 하루 8 시간의 근무시간은 보장된다. 야간승무 시 특히 장거리 근무 시에는 도착한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잠자리가 바뀌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열차 객실 내를 계속 돌아다니며 근무해야 하는 등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되는 길

선박 객실승무원은 선박회사에서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채용한다. 선박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직등록을 통해 취업이 되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승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나, 전문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어 또는 영어가 가능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열차 객실승무원이 되려면 KTX 관광레저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KTX 승무원 공개채용 또는 수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대개 1차 필기시험과 2차 적성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적성검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뽑는다. 적성검사에서는 색각 이상 여부를 중시하며 필기시험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 일어 또는 중국어, 경영학 또는 전자계산학 등을 치루게 된다. 최근 철도청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기적인 공채는 하지 않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일간지에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한다.

■ **관련 학과** 국제크루즈융합전공, 항공서비스과, 국제지역학과, 영미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 적성 및 흥미 | 선박 객실승무원은 움직이는 선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필요하며, 서서 근무하므로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빠르게 고객을 대피시키고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빠른 판단력이 요구된다.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인만큼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 열차 객실승무원은 고객을 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는 외모를 갖추어야 하고 외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고객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선박·열차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요구되지만, 전문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어 또는 영어로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유리하다. 열차 객실승무원은 보통 인턴으로 입사하여 약 1년이 지나면 SS로 승진하며, 이후 경력에 따라 ASL→SL 주임→SM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 선박 객실승무원 중 크루즈승무원은 경력이 쌓이면 호텔총지배인, 스태프캡틴, 식음료매니저, 헤드하우스키퍼, 피트니스매니저, 기항지 관광매니저 등과 같이 분야별 승무원을 관리하는 파트장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선박 객실승무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사람의 규모는 국내외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내의 섬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인접한 국가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오고갈 때 사용하는 선박은 일본 대지진과 경기침체 그리고 저가항공사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뒤지면서 이용자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선박 객실승무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산업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9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향후 크루즈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크루즈 승무원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열차 객실승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KTX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으로 생활문화가 바뀌는 변화를 이루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던 국내 이동승객을 철도이용객으로 많이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KTX 개통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던 고속철도 승객인원은 점차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일반철도나 고속철도에서 승객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거나 객실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열차 객실승무원은 자동화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이다. 현재 열차 객실승무원은 차량의 규모에 따라 약 2~3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다. 일반철도의 노선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고속열차의 노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철도운행 횟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열차 객실승무원의 고용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인건비가 더 싼 외주업체의 직원들이 열차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고용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열차 객실승무원의 향후 10년간 열차 객실승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국내외 경기		• 일본의 대지진과 경기침체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고속철도 노선 증가	• 일반철도 노선 감소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KTX 개통 및 노선 증가로 국내 항공기 이용승객의 철도이용객으로의 전환	• 저가 항공사 증가로 인한 선박여행의 경쟁력 약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종합하면, 일본의 대지진과 경기침체, 저가 항공사 증가로 인한 선박여행의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과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같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선박 객실승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열차 객실승무원은 고속철도 노선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철도 노선의 감소로 인하여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항공기 객실승무원, 호텔 및 콘도접객원, 관광통역안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22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312
- **관련 정보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51)465-2151 www.koswec.or.kr
코레일관광개발 1544-7755 www.korailtravel.com
한국철도공사 1544-7788 www.korail.go.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99-3600 www.seaman.or.kr

12

숙박시설서비스원

호텔이나 콘도에서 고객에게 영접, 객실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관리, 객실정리, 세탁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일

호텔도어맨은 고객의 차량이 현관 쪽으로 들어오면 정차 위치를 안내하고 차가 정지하면 차량의 문을 열어 고객을 맞이한다. 자동차 열쇠를 보관할 경우에는 열쇠를 받아 보관장소에 걸어 관리한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택시를 호출한다. 현관 주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주차를 통제한다. 호텔시설, 주변 관광지, 대중교통 이용 등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 주차장에 대기 중인 고객차량이나 운전기사를 호출하기도 한다.

호텔벨맨은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현관에서 대기한다. 고객이 현관에 도착하면 정중히 인사를 하고 고객의 짐을 받아들이고 프런트(front)로 안내한다. 배정된 고객의 객실 열쇠를 건네받아 고객을 해당 객실로 안내한다. 고객의 짐을 보관하거나 객실로 운반하고, 객실에 도착하면 문을 열고 실내등을 켜다. 고객의 짐을 정해진 위치에 놓고 고객에게 객실 내의 시설물, 호텔시설, 영업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전달할 메모, 우편물 등을 배달하며 고객이 퇴실할 때 짐을 들어다 주거나 배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프런트데스크사무원은 고객을 맞이하여 인사하고 환영한다. 전반적인 호텔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프런트데스크 시스템(Front Desk System)을 사용하여 객실 예약을 확인한다. 예약된 리스트를 확인하고 투숙예정 고객의 객실배정 상황, 객실준비 상황을 확인하여 체크인(check in) 시 혼잡을 방지한다. 프런트데스크 시스템에 숙박등록(고객의 주소, 성명, 직업, 여권번호, 체재기간, 객실종류, 객실요금, 객실번호, 서명 등)을 한다. 이용안내서(welcome letter)

를 준비하고 고객에게 교부한다. 선수금 현황을 파악하고 스킵퍼(skipper: 객실료를 내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고객(Walk in 고객)에게 적절한 요금으로 객실을 판매한다. 객실배정(Room assignment)을 효율적으로 조정·통제하여 객실 판매의 촉진, 고가객실 우선판매에 따른 매출 증진을 기한다. 체크아웃(check out) 업무를 수행한다. 기준을 초과한 고객의 고액 외상잔액 보고서(high balance report)를 작성하고 보고한다. 고객이 지불하는 이용요금을 정확히 처리한다. 고객에게 온 메모, 전달사항 등이 있으면 기록하고 고객에게 전달한다. 고객의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한다. 고객의 항공편, 투어링 버스 등의 예약을 확인하고 필요시 안내한다. 귀중품 보관함을 운용하고, 영업일지를 작성하고 보관 및 보고한다.

|업무 환경| 호텔프런트데스크사무원의 근무시간은 소속된 업체의 근무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근무, 주말이나 휴일근무를 해야 할 때도 많다. 대부분 건물 내의 깨끗하고 밝은 조명과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로비층에서 근무하므로 업무 환경은 비교적 쾌적한 편이다. 호텔도어맨과 벨맨은 주로 하루 24시간 3교대에 따라 밤이나 새벽에도 일해야 하고, 근무시간 대부분 서서 일하는 등 육체노동 강도가 센 편이다. 특히 호텔도어맨의 경우 호텔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되는 길

호텔도어맨이나 호텔벨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제한은 없다. 호텔이나 콘도에서 손님 영접, 객실안내, 짐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관리 업무는 호텔이나 콘도에 입사하면 제일 먼저 수행하는 일이다. 보통 취업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의 직무훈련을 받아 활동한다. 고객이 편안하면서도 청결한 곳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은 보통 결원 시 수시모집을 한다. 호텔프런트데스크사무원의 경우는 보통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일부 특급호텔에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체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능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이 투숙을 하러 오기 때문에 영어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중국어 능력까지 갖춘 인재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 **관련 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경영학과
- **관련 자격**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적성 및 흥미| 호텔프런트데스크사무원의 경우 호텔 방문객들을 직접 대면해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한 외모와 밝은 성격,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 설득력 있는 말솜씨 등이 필요하다.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영어 등과 같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호텔도어맨과 벨맨은 고객이 도착하면서부터 객실에 입실하기까지 고객과 밀착하여 마치 수행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굳은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업무 특성상 고객의 입실 이후에도 우편물을 전달하거나, 세탁물을 배달하는 등 잔심부름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외국인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어학능력과 각 나라별 정중한 인사법 등 국제적 매너를 익혀 두면 유리하다.

[경력 개발] 근무하는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보통 공개·상시 채용으로 입사하게 되면 일반직원→주임→매니저→지배인→총지배인의 승진과정을 거친다. 실무경험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배인까지 되는 데 최소 7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숙박시설서비스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2019년 약 56천 명에서 2029년 약 5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사업체 수는 2012년에 4만 8,684개에서 2018년 5만 7,30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종사자 수도 2012년에 15만 8,383명에서 2015년에 다소 하락하였지만 2018년 18만 7,94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숙박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48,684	50,290	52,375	53,652	54,119	55,826	57,301
종사자 수	158,383	163,683	173,506	171,987	174,351	178,197	187,94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여가, 관광에 대한 욕구 증가는 숙박시설서비스원에 대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호텔 객실 이용률은 2017년 기준 60.71%에 불과하다. 즉 여가시간 증가가 곧 숙박시설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호텔 객실 이용률은 50%대로 떨어진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도 숙박 시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인 여행객의 증가, 풍부한 관광 여행 정보,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객의 증가는 숙박시설서비스원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도별 호텔 객실 이용률]

(단위 :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률	64.65	62.85	63.52	59.75	64.13	60.7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운영현황

그러나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는 숙박시설서비스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수는 2013년에는 1,217만 5,550명에서 2018년에는 1,534만 6,879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수]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방문객 수	12,175,550	14,201,516	13,231,651	17,241,823	13,335,758	15,346,879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국내외 경기	•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시간 증가 관광에 대한 욕구 증가	• 1인 여행객 증가 •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객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KTX 개통 및 노선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주 5일 근무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제	

종합하면, 고속철도 등과 같은 기술 발달, 1인 여행객 증가,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객의 증가는 숙박시설서비스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 시간 증가, 관광에 대한 욕구 증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향후 10년간 숙박시설서비스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호텔컨시어지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23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322
- 관련 정보처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www.hotels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www.mcst.go.kr
한국여행업협회 (02)752-8692 www.kata.or.kr

13

오락시설서비스원

경기장, 유흥장, 유원지, 전망대 등과 운동설비를 갖춘 장소 등에서 편의와 안전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고객의 질서를 위하여 줄을 서도록 유도하고, 고객의 물품을 일시 보관한다. 휴게실, 화장실, 공중전화 등의 위치를 알려주며 고객이 이용하기 위한 유흥시설이나 운동시설 등의 순서를 정하고 순서를 기다리도록 권한다. 승차기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나 빗장을 채워준다. 안내 소책자를 배부하고 설명한다. 오락이나 게임의 방법, 규칙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 오락설비, 운동장비, 비품 등을 관리하고 간단한 수리를 하기도 한다. 고객의 이용접수를 받고 인원을 확인하며 이용장소를 배정한다. 접수기록 시스템을 조작하며 이용요금을 계산하여 수납한다. 동전으로 운영되는 놀이시설을 위해서 동전으로 환전해준다. 안내방송을 접수하여 장내아나운서가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분실물이나 습득물을 접수한다.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접수사항 기록을 유지하며 시정조치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오락장비나 운동용품을 대여하는 오락장비대여원의 일을 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보통 놀이공원에 채용되며 담당 업무에 따라 업무 환경이 다르다. 보통 정기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가 기획, 개발, 관리 등으로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고, 현장 업무는 본인의 지원 분야와 적성, 공석에 따라 배치되며 주로 야외에서 근무한다. 지역에 따라서 놀이시설이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숙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술사에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다. 보통 하루 5~8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만

주말이나 봄·가을의 성수기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 작업의 반복과 수많은 고객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함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되는 길

일반적으로 기획, 개발, 관리 등의 분야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며, 놀이공원의 현장업무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한다. 현장업무의 경우 본인의 지원분야와 적성, 공석 등을 고려하여 놀이공원 내의 안내, 티켓판매, 식음료, 청소 및 어트랙션 운영(놀이기구 조작), 동물사육, 파킹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 놀이기구 조작분야의 경우도 간단한 버튼조작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교육으로 활동한다. 1~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인사법, 손님응대법 등의 서비스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받은 후 현장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20대 중반 이내의 연령자로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상시계약직, 주말직, 시간제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한 아르바이트 경력자의 경우 인턴직이나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정규직원은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며,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상시채용을 한다.

| 적성 및 흥미 | 서비스직의 특성상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물론이고 항상 밝은 미소와 인사성을 갖추어야 한다.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도 필요하다.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놀이기구 및 놀이코스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과 놀이기구의 반복 조작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내성도 필요하다. 장시간 서서 근무하므로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사무직 정규채용의 경우 채용업체의 승진체계에 따라 승진하며, 현장직으로는 대부분 주말직, 시간제 등과 같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데 성실하고 근면하게 장기적으로 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턴직이나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오락시설서비스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오락시설서비스원은 2019년 약 125천 명에서 2029년 약 12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0천 명(연평균 -0.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사업체 수는 2016년 6만 865개에서 2018년 6만 5,596개로 다소 늘었고 종사자 수도 2016년 15만 1,513명에서 16만 5,938명으로 늘었다.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60,865	65,373	65,596
종사자 수	151,513	158,948	165,93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생활수준의 향상, 레저문화의 확산 등으로 놀이시설을 찾고자 하는 욕구 상승은 놀이시설의 증가, 오락시설서비스원의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놀이공원 평균 이용횟수는 지난 10년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평균 2.0회, 2019년 평균 2.1회 이용) 놀이공원 주 이용 고객이 어린이, 청소년들인데 저출산 인구고령화 지속은 장기적으로 놀이시설 이용고객의 감소를 야기하며 결국 오락시설서비스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놀이시설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기업경영 전략으로 놀이시설 종사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기계 등을 도입하고 있어 고용유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놀이시설 종사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이 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레저시설 중 놀이공원 평균 이용 횟수]

(단위 : 회)

연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이용 횟수	2.0	2.1	2.2	2.2	2.2	2.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국내외 경기	• 생활수준 향상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레저문화 확산	• 저출산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자동화 기계 도입 • 저임금

종합하면 생활수준 향상, 레저문화 확산은 오락시설서비스원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동화 기계 도입,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오락시설서비스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카지노 딜러, 골프장캐디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24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323
- **관련 정보처** 에버랜드 (031)320-5000 www.everland.com
롯데월드 1661-2000 adventure.lotteworld.com

14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장, 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조리사는 호텔, 레스토랑, 식당 등에서 다양한 음식을 조리한다. 조리사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조리기구와 조리법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그릇에 담고 장식하는 일을 한다.



하는 일

조리사는 음식 조리 외에 조리 재료의 선정·구입·검수, 요리 재료의 손질 및 보관, 조리시설과 기구의 위생 관리 등을 한다. 주방장은 주방의 책임자로서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에 조리사들의 업무를 지시 및 감독하고 교육하는 일도 한다. 주방장 및 조리사는 전문 분야에 따라 한식주방장 및 조리사, 양식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주방장 및 조리사, 복어조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식주방장 및 조리사는 밥, 국, 찌개, 찜, 조림, 구이, 무침, 전, 김치, 면 요리 등의 다양한 한국전통음식을 한식요리법에 따라 조리한다.

양식주방장 및 조리사는 생선류 요리, 육류 요리, 가금류 요리, 파스타, 샐러드, 피자, 샌드위치, 수프, 애피타이저 등의 각종 양식요리를 양식조리법에 따라 조리한다.

중식주방장 및 조리사는 냉채, 튀김·볶음·구이, 수프 및 탕, 찜 및 조림, 덩섬 및 만두, 면 요리, 밥·죽, 절임류 등의 각종 중식요리를 광둥(廣東), 사천(四川), 상해(上海), 북경(北京) 등의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다.

일식주방장 및 조리사는 전채, 사시미, 찜·조림, 구이, 냄비 요리, 튀김, 초회, 돈부리, 오차즈케, 초밥(스시), 면류, 절임류 등의 각종 일식요리를 일식조리법에 따라 조리한다. 고객 앞에서 초밥(스시)을 즉석에서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 밖에 분식점 등에서 면류, 김밥, 샌드위치, 튀김 등의 분식을 조리한다. 베트남, 인도, 터키,

멕시코 등 특정 국가의 전통 요리를 전문적으로 조리한다. 커피 전문점, 커피숍, 찻집 등에서 각종 차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한다.

출장요리사는 생일잔치, 집들이 등 음식접대가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요리를 한다. 병원조리사는 병원의 환자를 위해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라 환자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조리법에 따라 음식을 만든다.

|업무 환경|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서 근무한다. 음식은 위생과 청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동안 가운과 모자를 착용하고, 조리가 끝나면 조리시설과 기구에 대한 세척과 청소를 한다. 출퇴근 시간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호텔이나 대형음식점은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한다. 통상 식사시간대가 가장 바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식사시간은 매우 불규칙할 수 있다. 조리과정에서 화상을 입거나 칼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되는 길

호텔이나 레스토랑, 전문식당은 채용 시 응시자격을 조리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리과학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의 조리과 및 식품공업과, 대학교의 식품조리학과, 외식조리학과, 조리과학과 등의 조리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체계적으로 조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 학교 이외에 사설요리학원이나 여성인력센터 등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습득하여 조리 관련 지식을 쌓거나 한식이나 일식, 중식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음식점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기술을 익혀 활동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복어 조리·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51조) 따라 관련 조리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호텔을 비롯해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도 자격소지자에 한해 조리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관심 분야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 학과** 조리과, 조리과학과, 식품조리학과, 전통조리과, 외식조리(학)과, 호텔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관광호텔조리과 등
- **관련 자격**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이상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조리산업기사(양식), 조리산업기사(중식), 조리산업기사(일식), 조리산업기사(복어) 복어조리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적절한 조리기구와 조리법을 사용하여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를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게 담아내야 한다. 혁신적이고 예술적이며 리더십을 갖춘 성격의 사람에게 적합하다. 정교한 동작, 물적 자원 관리, 신체적 강인성, 품질관리분석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상품제조 및 공정, 인사, 고객서비스 등의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일반음식점, 호텔외식부, 학교·회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규모가 큰 일반음식점의 주방에 조리사로 처음 입사하게 되면 보조조리사로 근무하게 된다. 보조조리사는 음식재료 씻기, 다듬기, 유통기기, 식기 세척 등을 하게 된다.

보통 '보조조리사→조리사→부주방장→주방장'의 경력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형음식점이나 특급호텔에서는 조리사 보조원으로 2~3년의 경력을 쌓아야 정식조리사가 되며, 다시 3~4년이 지나야 부주방장이 될 수 있다. 부주방장으로 4~6년의 경력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주방의 총책임자인 주방장이 될 수 있다. 이후 근무 경험을 살려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창업하기도 하며 출장조리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주방장 및 조리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한식 조리사는 2019년 약 555천 명에서 2029년 약 57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6천 명(연평균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식 조리사는 2019년 약 40천 명에서 2029년 약 3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식 조리사는 2019년 약 30천 명에서 2029년 약 3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식 조리사는 2019년 약 24천 명에서 2029년 약 2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사업체 수는 2012년 70만 9,014개에서 2018년 62만 4,380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2012년 213만 8,772명에서 2018년 175만 698명으로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음식점업 및 주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709,014	691,751	675,056	656,688	650,221	635,379	624,380
종사자 수	2,138,772	2,036,682	1,988,472	1,943,266	1,893,660	1,822,990	1,750,69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외식 빈도도 증가하여 왔다. 또한 고령화, 1인 가구 및 혼밥족(혼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의 증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외식시장은 급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령자들이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차려서 먹는 경향이 짙었다면 최근 고령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외식을 보다 더 즐기는 편이다. 직접 차리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 잔반 처리 등을 고려하면 외식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나아가 최근 고령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외식 시장은 더 확장되어 요리사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TV예능에 요리사 출연 빈도가 잦아지면서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요리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비록 요리사가 힘든

직업이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지라도 입직희망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요리사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요식업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련 종업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본사에서 식재료를 받아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곳에는 전문 조리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무 특성상 헤드 요리사로 성장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아 중견 요리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편식 요리개발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능수준이 낮은 요리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관련 직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1인 가량 인구 증가로 외식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 사회적 인지도 상승	
과학 기술 발전		• 간편식 요리 개발과 자동화로 • 기술 수준 낮은 조리사 수요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조리사가 없는 프랜차이즈 식당 증가 • 중견 요리사 부족
법·제도 및 정부정책, 정치 환경		•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종합하면 인구구조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외식 수요의 증가라는 긍정적 요인과 과학기술 발전, 산업구조의 변화 및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법·제도의 변화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방장 및 조리사의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기타 조리사, 단체급식조리사, 바텐더(조주사), 바리스타, 패스트푸드원, 주방보조원, 푸드스타일리스트, 소믈리에, 제빵원 및 제과원, 떡제조원, 한과제조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주방장 5311, 한식조리사 5312, 중식조리사 5313, 양식조리사 5314, 일식조리사 5315, 기타조리사 531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주방장 2870, 한식조리사 4411, 중식조리사 4412, 양식조리사 4413, 일식조리사 4414, 기타조리사 4419
- **관련 정보처**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734-1545 www.ikca.or.kr
(사)한국외식업중앙회 (02)6191-2900 www.foodservice.or.kr

15

음료조리사 및 바텐더

바텐더(Bartender)는 각종 주류에 향신료, 과일, 크림 등을 섞어 여러 가지 맛과 향의 칵테일을 만든다. 술을 만든다고 해서 '조주사(造酒士)'라고도 불린다. 음료조리사는 레스토랑, 카페, 음료 전문점 등에서 커피, 차, 주스 등의 음료를 조리한다



하는 일

바텐더는 크게 호텔이나 클래식 바와 같은 전통적인 바에서 근무하는 바텐더와 외식업체나 바 전문점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바텐더로 분류된다. 전자의 바텐더는 칵테일 등 음료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한다. 후자의 바텐더는 칵테일을 만드는 일 외에도 고객 앞에서 셰이커를 흔들고 던지는 등의 칵테일 제조 과정을 연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칵테일 쇼를 하기도 하는데, 칵테일 쇼를 포함한 고객의 즐거움을 위해 바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플레어(Flair)'라고 한다. 바텐더는 바(Bar)의 개장 시간에 맞춰 필요한 컵이나 기물을 점검하는 등 바를 정리하고, 칵테일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와인, 생맥주, 병맥주 및 칵테일용 과일, 증류수, 소다수 등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가 부족하면 이를 청구하거나 직접 주문을 하기도 한다.

칵테일이나 과일펀치 등을 만들기 위하여 증류수, 소다수, 칵테일용 음료 등과 코냑, 위스키, 진, 보드카 등의 술을 칵테일 방법에 따라 적당히 혼합하고, 레몬조각, 버찌, 올리브 등을 꼬치에 꽂아 잔 위에 걸쳐 장식하여 제공한다. 춤, 마술, 셰이커(Shaker, 술을 섞는 기구)를 흔드는 기술 등을 곁들여 칵테일 제조 과정을 쇼로 연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대화상대가 되어주기도 한다. 직접 칵테일을 나르기도 하며 사용한 도구와 유리잔 등을 세척한다.

직접 바를 운영할 경우에는 판매된 음료와 술을 일일판매기록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 매출을 정산하고, 필요한 글라스와 기물 등을 보관·유지하는 것도 바텐더의 일이다. 일부 바텐더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각종 연회에 출장을 가서 참석자의 주문에 따라 칵테일을 서비스하기도 한다.

새로운 칵테일 제조기법을 익히기 위해 관련 서적을 보거나 바텐더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도 한다. 음료조리사 중 차조리사는 커피, 녹차, 전통차 등 각종 차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조리하여 제공하고, 바리스타는 고객이 주문한 에스프레소 등의 커피 종류에 따라 추출 기계(에스프레소 머신 등)를 조작하고 고객의 기호를 반영하여 조리하여 제공한다

|업무 환경| 업소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르다. 영업이 종료된 후에도 바(Bar)나 매장의 정리 및 청소 등을 끝내고 퇴근한다. 일부 종일 영업을 하는 업장에서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 교대로 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한다.

바텐더는 직업적 특성상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근무 중에는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칵테일 쇼를 하는 바텐더는 보통 한 시간 간격으로 쇼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여러 가지 재료와 술을 이용해 칵테일을 만들기 때문에 청결에 주의해야 한다. 간혹 술에 취한 손님이 있으면 감정을 잘 조절해 응대해야 한다. 음료조리사 중 바리스타는 뜨거운 기기와 음료를 다루므로 화상에 주의해야 하고, 주말 및 공휴일 출근 업무빈도가 높다.



되는 길

바텐더는 칵테일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의 식음료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바텐더로 일을 시작하는 편이며, 업소에서 바텐더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 사설학원이나 대학에서 음료관리론, 주류학, 주조이론 및 실습 등에 관한 과목을 배운다. 취업 시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호텔과 같은 규모가 있는 업소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채용하기도 한다.

외식업체나 전문 바에서 일하려면 칵테일 쇼, 마술 등의 개인기를 익혀두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또 고객과의 대화에 응하기 위해 평소 시사, 상식과 같은 교양을 쌓아두는 것도 좋다. 직접 바를 운영할 경우 매출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다.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바텐더로 일하게 되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회화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 능력은 외국의 새로운 칵테일 제조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음료조리사 중 대표적인 바리스타가 되려면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으며 대학의 조리 관련 학과나 바리스타 전공을 통해 커피에 대한 이론과 실제 제조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다. 현재 바리스타와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으며 민간에서 발급하는 여러 자격증이 있다. 커피 제조를 배워 본인이 직접 커피숍을 창업하기도 하며 커피프랜차이즈업체에서는 업체에 따라 바리스타 채용전형이 상이한데 바리스타에 대한 교육경험과 경력이 없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예비바리스타를 채용한 후 6개월 내외의 바리스타 교육을 거쳐 채용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호텔경영학과, 외식산업(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조리(과)학과, 호텔관광&칵테일과, 식품조리학과 등

■ **관련 자격** 조주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손님에게 제공할 음료를 만들고 응대하며, 고객들 앞에서 칵테일 쇼를 하기도 하므로 사교적이고 적응력이 빠르며 융통성 있는 성격이 요구된다. 서비스 지향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적합하다. 창의력, 정교한 동작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고객서비스, 영업과

마케팅 등의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 경력 개발 | 바텐더는 칵테일바, 재즈바, 레스토랑, 호텔, 클럽, 외식전문업체 등에서 종사한다.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대형 외식업체에서는 취업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경력·자격·학력 등의 제한을 두기도 한다.

호텔이나 규모가 큰 칵테일 전문업소의 경우, 입사 후 약 3~5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수석바텐더로 승진할 수 있고, 다시 약 5년의 경력을 쌓으면 지배인으로 승진할 수 있다. 외식업체의 경우, 주로 처음에는 바리버(Bar Rover)로 출발해 서비스 바텐더(음료를 신속·정확하게 만드는 바텐더), 프론트 바텐더(고객과 일대일 대응을 할 수 있는 바텐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인망의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 바의 경우는 일반회사와 유사한 승진체계를 갖는다.

바리스타로 취업하여 경력이 쌓이면 부점장을 거쳐 점장으로 승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케익이나 와플 등 디저트를 포함한 커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베이킹 기술을 익혀두면 향후 창업 시 도움이 될 수 있고 바리스타 대회에 도전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바텐더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반면 향후 10년간 음료조리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음료조리사는 2019년 약 185천 명에서 2029년 약 19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8천 명(연평균 0.4%) 정도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텐더가 취업하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사업체 수는 2016년 190천 개소에서 2018년 202천 개소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종사자 수 역시 448천 명에서 491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190,018	194,836	202,607
종사자 수	448,967	461,056	491,306

출처: 통계청, 사업체 조사(각 연도)

한편, 칵테일 제조에 사용되는 위스키와 리큐르¹⁾의 출고 규모를 보면, 위스키의 출고량은 2010년 2만 6,179㎏에서 2019년 1만 1,781㎏로 비해 -145.0% 급감하였고, 리큐르 출고량은 2010년 4,779㎏에서 2019년 8,965㎏로 9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국세통계).

[위스키 리큐르 연도별 출고량 현황]

(단위 : kg)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위스키	26,179	23,371	20,428	18,488	17,991	17,402	16,674	15,793	13,996	11,781
리큐르	4,779	4,621	6,547	6,806	6,844	36,316	18,786	10,197	9,666	8,96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각 연도)

주점에서의 술 소비는 사회문화와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저녁 술자리 회식 문화가 약화되고 일과 삶의 양립(work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 경기 성장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가계소득 상승률 저하 그리고 조선·해운업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 등으로 주점업계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고급 주점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이는 바텐더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조주기능사 자격 취득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매년 3,000여 명의 조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3,837명이 자격을 취득하여 총 자격취득자 수는 5만 8,138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의 식음료 관련 학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바텐더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서 취업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기능사 검정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누계)	144,877	88,710	61.20	94,479	58,138	61.50
2019	7,095	4,669	65.80	5,606	3,837	68.40
2018	6,375	4,191	65.70	5,372	3,694	68.80
2017	5,784	3,606	62.30	4,946	3,233	65.40
2016	6,513	3,599	55.30	4,915	3,366	68.50
2015	8,310	4,337	52.20	5,170	3,554	68.7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2020.12.30. 열람)

종합하면,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및 술자리 회식 및 접대 문화의 감소, 경기 성장세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바텐더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반면 특색있는 커피전문점을

1) 증류주에 과실 등으로 맛과 향기를 더한 술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로 향후 10년간 음료조리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술 마실 때 정서를 교감하려는 손님 증가 • 특색 있는 커피전문점을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및 술자리 회식 문화 약화
국내외 경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기 불황으로 전체적인 주류 시장 위축
법 제도 및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접대 문화 축소 본격화에 따른 수요 감소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바리스타, 소믈리에, 패스트푸드원, 주방보조원, 음식배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316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421
- **관련 정보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한국바텐더협회 (02)581-2911 www.bartender.or.kr

16

식당서비스원

패스트푸드준비원, 홀서빙원(웨이터), 주방보조원, 음식배달원

패스트푸드준비원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한다. 홀서빙원은 레스토랑, 호텔, 바, 주점 등에서 고객에게 음식 및 음료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한다. 주방보조원은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재료 및 주방기구 세척, 주방 청소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음식배달원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을 포장하여 고객의 집 등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업무를 한다.



하는 일

패스트푸드준비원은 제품별 조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조리·위생 관련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주재료와 부재료(각종 소스나 조미료 등)를 조리용기에 담고 소모량을 보충한다. 고객의 주문서를 확인하고 햄버거, 피자, 닭튀김, 도넛 등 패스트푸드를 간단히 조리한다. 포장지에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아서 제공한다. 튀김솥, 그릴, 집게, 뜸채, 커피머신, 음료머신, 아이스크림머신 등 조리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홀서빙원은 업무시간 전에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고객에게 메뉴판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며 음식과 음료에 대해 조언한다. 음식료의 주문을 주방에 전달한다. 주방으로부터 음식료가 조리되어 나오면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의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 정리 후에 디저트 주문을 받는다. 식사가 끝난 고객이 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작성된 계산서를 제시한다. 업소의 규모나 영업 기준에 따라 와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방보조원은 채소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 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음식배달원은 고객으로부터 음식배달을 주문받는다. 배달해야 할 음식과 수저 등을 준비하고 배달할 장소를 확인한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고객에게 해당 음식을 배달한다. 고객에게 음식물을 전달하고 음식 요금을 계산한다. 빈 그릇 등을 수거하거나 식당을 청소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매장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시간은 다양하다. 늦은 저녁 시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패스트푸드 준비원은 뜨거운 기기를 다루므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홀서빙원(웨이터)은 이따금 불쾌하거나, 무례한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 노동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방보조원은 주방에서 화기나 칼을 다루므로 화상이나 자상의 위험이 높고, 음식배달원은 무더위나 강추위,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되는 길

식당서비스원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은 없지만, 주방보조원은 조리에 관한 기본 지식이나 관련 자격증 보유가 입직에 유리하고, 음식배달원은 배달 시 사용하는 차종에 따라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요구된다.

|적성 및 흥미| 서비스업에서 요구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성, 협조성, 그리고 고객의 불쾌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감내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로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식당서비스원 중 패스트푸드준비원, 웨이터, 주방보조원의 취업자 수는 대체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음식배달원의 경우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단위: 천 명, %)

직업명	'14	'19	'24	'29	14-19	19-24	24-29	19-29	14-19	19-24	24-29	19-29
패스트푸드 준비원	24	31	32	33	7	1	0	2	5.1	0.9	0.2	0.6
웨이터	680	657	638	630	-24	-19	-8	-27	-0.7	-0.6	-0.3	-0.4
주방 보조원	371	399	413	415	28	15	2	16	1.5	0.7	0.1	0.4
음식 배달원	78	67	82	85	-12	16	3	19	-3.1	4.3	0.7	2.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저출산으로 인한 기본적인 수요감소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패스트푸드 음식에 대한 선호 감소, 인건비 절감과 디지털 자동화에 따른 키오스크 도입은 패스트푸드준비원과 홀서빙원

(웨이터)의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외식이나 배달 수요의 증가는 주방보조원과 음식배달원의 일자리 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전반적인 수요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 등의 이유로 패스트푸드 소비층 감소	
과학기술 발전		• 자동화로 인한 소비 감소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요 줄어들	

종합하면, 향후 10년간 식당서비스원 중 패스트푸드준비원, 웨이터, 주방보조원의 취업자 수는 대체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음식배달원의 경우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바텐더(조주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321, 5322, 5323, 532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521, 4422, 9522, 9223
- **관련 정보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02)6191-2900 www.foodservice.or.kr

17

경호원

경호원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주고, 정상적인 개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일

경호원은 경호 대상에 따라 공경호와 사경호로 구분할 수 있다. 공경호는 대통령, 정치인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고, 사경호는 경호 계약을 통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기업체 임원 등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개인경호를 할 때에는 경호 대상자의 신상명세와 고객의 경호 내용을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적절한 경호방법을 선택하여 경호계획을 수립한다.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호대상과 목적, 투입인원, 지역 등을 알린다.

항상 경호대상자와 함께 이동하고,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측근경호 시에는 경호대상자에 대한 저격 및 칼을 이용한 공격을 몸으로 막고 적으로부터 신속히 대피시키며, 외곽경호 시에는 경호대상자가 이동하는 경로 주변에서 질서유지와 함께 위험요인을 사전에 막는다. 개인경호는 비서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함께 하기도 한다.

박람회나 전시회, 콘서트 등의 행사장을 경호할 때는 행사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특정인의 돌출행동을 막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행사 전에 테러나 도난 등의 정보를 입수하여 사전에 주위를 정찰하여 안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 각종 경호장비를 점검하고 경호본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되는 길

| 업무 환경 | 경호대상자의 일정에 맞춰 근무하므로 야간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경호시간에 따라 2교대 및 3교대 체제로 근무하기도 한다.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잠을 못 잘 때도 있다.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방검복을 착용하고 전기충격기, 가스총, 무전기 등의 경호장비를 소지하고 일한다.

경호산업의 발전으로 대학에 경호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되면서 경호업체에서는 채용 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사설학원이나 관련 협회에서도 경호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나 유도, 검도, 합기도 등의 무도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무도단증이 있으면 취업 시 유리하다. 운전면허증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관련 학과** 경호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보안학과, 경찰경호과, 경찰행정학과, 체육학과 등
- **관련 자격** 일반경비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경호원은 기본적인 체력과 운동신경이 있어야 하며, 업무의 특성상 외부 출장이 잦아 건강한 체력이 요구된다. 남을 배려하는 희생정신과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책임감, 민첩성 등이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 경력 개발 | 주로 민간경호업체에서 활동하며, 보안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 대기업의 경호전문요원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특정 신체조건을 갖추고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경호실에도 진출할 수 있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경력을 쌓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하며, 경호업체를 직접 개설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경호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경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는 2019년 약 110천 명에서 2029년 약 11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9년 1,098개에서 2018년 1,410개로 최근 10년간 312개(연평균 약 3.16%)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09년 5만 454

명에서 2018년 7만 6,364명으로 최근 10년간 25,910명(연평균 약 5.71%) 증가하였다. 명에서 2018년 76,364명으로 최근 10년간 25,910명(연평균 약 5.71%) 증가하였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수	1,098	1,127	1,234	1,260	1,303	1,401	1,462	1,427	1,407	1,410
종사자수	50,454	53,634	51,000	46,072	54,032	60,232	70,162	78,945	81,977	76,36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경찰청의 「2019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찰 인력 1인당 담당인구는 2011년 501명, 2019년 422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치안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체 경비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경비업체 수(법인 수)가 2010년 3,473개소에서 2019년 4,502개소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비원도 2010년 14만 2,363명에서 2019년 15만 7,77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신변보호 업체 현황도 2010년 514개소에서 2019년 583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비업 사업체, 신변보호 업종, 경비원 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 수	3,473	3,651	3,836	4,077	4,287	4,449	4,570	4,610	4,542	4,502
경비원 수	142,363	146,286	150,030	151,741	150,543	153,767	147,049	156,066	158,020	157,774
신변보호 업종수	514	540	527	525	538	540	548	567	600	583

자료 : 경찰청, 「2019년 경찰통계연보」

대중에게 경호원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여성 경호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경호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은 경호원의 일자리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화와 세계화 추세로 인해 유명 인사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경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교류 행사가 증가하면서 테러나 신변 위협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 테러 등 신변을 위협하는 요인이 국가나 집단적인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생치안과 안전 부문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공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와 안전을 위한 경호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각종 국제행사의 증가, 안전서비스 수요 증가도 경호원에 대한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호의 범위가 생활경호에서 시설경호, 공공시설경호, 산업정보보호, 보안검색서비스, 해외의 위험지역시설경호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호원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호원은 직업의 특성상 청·장년층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신체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입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면서 고용가능한 대상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또한 CCTV 설치 확대,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으로 경호원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인식 개선 • 여성경호원	
과학기술 발전		• CCTV • 무인경비시스템
국내외 경기	• 해외진출 증가 • 테러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경호범위 확대 • 행사경호 증가	

종합하면, 경호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경호원에 대한 선호 증가, 국제교류 행사의 증가 및 테러위험의 증가, 경호범위의 확대 및 행사경호의 증가가 경호원 취업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령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경호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청원경찰, 무인경비원, 경비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4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21
- **관련 정보처** 대통령경호처 (02)738-0010 www.pss.go.kr
(사)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www.ksan.or.kr

18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은행이나 공공기관, 국가 중요시설 등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화재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일

청원경찰은 기관의 재산과 인명을 화재나 도난, 파손 및 불법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반 경계 업무를 수행하고, 도난이나 폭력, 규칙 위반 또는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이나 산업체의 작업현장 등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건물의 출입구나 창문, 보안장치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기록하고, 기계장비나 방화설비, 소화기구, 화재 위험성 물질 등을 점검하여 화재 예방에 힘쓴다. 화재 발생, 무단출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경보를 울리고 구급환자를 보호하며,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하고 인접 경비기구와 협조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달리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은행의 보안관리, 안전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현금인출기관리 및 은행서비스 이용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환경| 공공기관 등의 청원경찰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 근무시간 또는 2~3교대를 하며, 은행 청원경찰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근무한다. 실내에서 대부분 근무하지만 외부 출장도 잦은 편이다. 보통 규정된 제복을 입고, 가스총이나 무전기, 경봉 등의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한다.



되는 길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마다 시행하는 서류 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체력시험을 시행하기도 한다. 좋은 체격 조건과 더불어 무도 능력이 뛰어나면 채용에 유리할 수 있다. 은행 청원경찰은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는데, 채용 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은행의 특성상 고객을 응대해야 하므로 서비스 마인드를 중시하는 편이다.

■ **관련 학과** 경호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보안학과, 경찰경호과, 경찰경호행정과 등

■ **관련 자격** 일반경비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청원경찰이 되려면 강인한 체력과 무술 능력은 필수적이다. 업무 특성상 외부출장이 잦아 건강한 체력이 요구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나 유도, 검도, 합기도 등의 무도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경력 개발] 은행이나 병원과 같은 사설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직 시 경쟁이 치열하다. 무술유단자 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직에 유리하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청원경찰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2019년 약 16천 명에서 2029년 약 1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치안에 관한 불안요소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 청원경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18년 8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서 청원경찰의 처우가 개선되어 입직 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세종청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특수경비원 및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그 특성상 채용하는 기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찰청의 「2019년 경찰통계연보」에서도 2019년 청원경찰 수는 1만 3,634명으로 2010년 1만 4,786명 대비 감소추세에 있다.

[청원경찰 시설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 수	1,786	1,834	1,746	1,729	1,754	1,710	1,749	1,757	1,801	1,718
종사자 수	14,738	14,117	13,773	13,531	13,320	12,988	12,703	12,592	12,885	13,634

자료 : 경찰청, 「2019년 경찰통계연보」

또한 청원경찰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 공기업, 국가기관 등에서는 청원경찰의 고용을 민간경비업체로 이양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무인경비시스템, 무인로봇, 드론, 위치추적시스템 등의 발달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직접 경비하는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안전에 대한 관심	
과학기술 발전		• 무인경비시스템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민간경비업체 이양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청원경찰법개정안	

종합하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와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 청원경찰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의 증가나 민간경비업체로의 청원경찰 고용 이양에 따라 향후 10년간 청원경찰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무인경비원, 경비원, 경호원, 건물시설관리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4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22
- **관련 정보처** 경찰청 182 www.police.go.kr
(사)한국경비협회 3274-1112 www.ksan.or.kr

19

시설·특수 경비원

시설·특수 경비원은 보안관제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의 원인을 확인·처리하고 상황을 정상화한다.



하는 일

경비원은 담당하는 경비 업무에 따라 일반경비, 특수경비로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경비 분야는 다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경호), 기계경비업무로 구분된다.

시설경비업무는 일반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을 위해 상주하며 경비를 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거시설이나 빌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가나 빌딩, 학교 등의 입구, 아파트 경비실 등에서 외부 방문객을 확인하거나 안내하고, 시설과 건물 주위를 순찰한다. 또한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한다. 부재중인 거주자를 위해 배달물을 대신 접수하여 전달하거나 주차를 통제하는 업무를 포함하기도 한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상품 등 귀중품에 대하여 도난이나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호송차량의 안전상태, 호송금고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미리 예방하여 의뢰받은 물건을 목적지까지 이송해야 한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기계경비업무는 별도의 관제실에 근무하면서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경비기기를 통해 수행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도둑의 침입이나 화재, 가스누출, 기기 고장 등으로 경비시스템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출동하여 보안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시스템이 설치된 고객의 건물을 순찰하며 센서와 컨트롤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보안관제원이 보안기기의 감지에 따라 시설

보안 이상을 확인하면 무인경비원(출동대원)이 보안관제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을 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철도, 정부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지키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담당구역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특수시설을 경비한다. 이 때 관할 책임자인 경찰서장이나 경찰대장과 같은 경비 책임자와 시설 주인의 감독을 받게 된다.

|업무 환경| 경비업무는 24시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3조 2교대 혹은 3조 3교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잦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큰 편이다.



되는 길

일반경비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특수경비는 60세까지 나이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비의 시설경비업종은 나이나 학력 제한이 특별히 없는 편이다. 그러나 기계경비나 호송경비, 특수경비 분야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 따라 신체조건이나 나이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선발 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며, 무인경비시스템 관제사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규 채용되어 배치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찰청이 지정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비원 신입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특수경비원도 별도로 정해진 경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학과** 경호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보안학과, 경찰경호과, 경찰경호행정과 등
- **관련 자격**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신변보호사(국가공인 자격증, 한국경비협회)

|적성 및 흥미| 경비원은 잦은 야간근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함과 정확한 판단력, 위기대처능력 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일반적으로 시설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 호송경비업체, 특수경비업체, 신변보호(경호)업체 등의 전문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한, 직영경비라 하여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 호텔, 학교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시설·특수 경비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시설·특수 경비원은 2019년 약 41천 명에서 2029년 약 4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의 「2019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경비업체 수(법인 수)가 2010년 3,473개소에서 2019년 4,502개소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비원도 2010년 14만 2,363명에서 2019년 15만 7,77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비업 사업체, 신변보호 업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 수	3,473	3,651	3,836	4,077	4,287	4,449	4,570	4,610	4,542	4,502
시설경비	3,351	3,529	3,718	3,971	4,184	4,338	4,456	4,528	4,528	4,420
호송경비	514	540	527	525	538	540	548	567	600	583
기계경비	140	152	148	145	139	146	146	149	149	145
특수경비	94	155	122	139	139	141	145	142	143	139
종사자 수	142,363	146,286	150,030	151,741	150,543	153,767	147,049	156,066	158,020	157,774

자료 : 경찰청, 「2019년 경찰통계연보」

최근 CCTV 설치 확대,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무인경비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업의 확장과 관련 인력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차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찰 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급 빌라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무인시스템경비뿐 아니라 경비원이 직접 시설을 지키는 시설경비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공장의 기계화 및 첨단화로 투자되는 비용이 과거보다 증가됨에 따라 재산보호의 목적으로 시설경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민간 경비산업 영역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직업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더불어 직업의 귀천 개념이 줄어들고, 은퇴 이후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및 주52시간 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지금보다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입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입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교육을 이수한 다음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전 문턱을 없애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베이비부머 은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평생직업 추구	
과학기술 발전	• 시설관리 수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중요시설의 경비, 경호관리 업무의 중요성 증대	

종합하면, 무인경비시스템의 증가와 안전에 대한 수요 및 시설경비 수요 증가, 중요시설의 경비, 경호관리 업무의 중요성 증대, 은퇴자들의 경비원에 대한 직업선택도 증가 등에 따라 향후 10년간 시설·특수 경비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청원경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4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23
- **관련 정보처** 경찰청 182 www.police.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www.ksan.or.kr

20

경비원(건물관리원)

경비원은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한다. 건물관리원은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다.



하는 일

경비원은 경비에 필요한 직무내용을 숙지한다. 건물에 출입하는 방문자를 점검한다. 출입자에게 방문목적, 방문대상자, 연락처 등을 받아 기록한다. 주요 시설물을 순찰하고 보안상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교대근무자와 경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수인계한다.

건물관리원은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건물의 창문 등을 수리한다. 건물의 문, 기계 등을 도장한다. 지붕이나 석재부분 등을 보수한다. 건물, 아파트, 호텔 등에 설치된 구조물의 간단한 하자 보수, 수선을 수행한다. 보일러, 기계, 보일러 미장, 도장, 방수, 목공 등 단순하고 다양한 보수나 조작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건물과 관련된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

|업무 환경| 경비업무는 24시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3조 2교대 혹은 3조 3교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잦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큰 편이다.



되는 길

일반경비는 나이 학력 제한이 특별히 없는 편이다. 이전에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규 채용되어 배치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찰청이 지정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비원 신입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특수경비원도 별도로 정해진

경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학과 없음
- 관련 자격 일반경비지도사

| 적성 및 흥미 | 경비원은 잦은 야간근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함과 정확한 판단력, 위기대처능력 등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일반적으로 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한, 직영경비라 하여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 호텔, 학교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경비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경비원(건물관리원)은 2019년 약 244천 명에서 2029년 약 25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천 명(연평균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의 「2019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경비업체 수(법인 수)가 2010년 3,473개소에서 2019년 4,502개소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비원도 2010년 14만 2,363명에서 2019년 15만 7,77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비업 사업체, 경비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 수	3,473	3,651	3,836	4,077	4,287	4,449	4,570	4,610	4,542	4,502
경비원 수	142,363	146,286	150,030	151,741	150,543	153,767	147,049	156,066	158,020	157,774

자료: 경찰청, 「2019년 경찰통계연보」

최근 CCTV 설치 확대,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출입문 관리 등 단순시설경비의 수요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경비하는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축건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업의 확장과 관련 인력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차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찰 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급 빌라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무인시스템경비뿐 아니라 경비원이 직접 시설을 지키는 시설경비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평생직업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더불어 직업의 귀천 개념이 줄어들고, 은퇴 이후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지금보다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베이비부머 은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평생직업 추구	
과학기술 발전	• 시설관리 수요	

종합하면, 무인경비시스템의 증가에 따라 경비원의 취업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수요 및 시설경비 수요 증가, 은퇴자들의 경비원에 대한 직업선택도 증가 등에 따라 향후 10년간 경비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청원경찰, 건물시설관리원, 주택관리사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4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421
- **관련 정보처** 경찰청 182 www.police.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www.ksan.or.kr

21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간병인은 병원 및 가정 등에서 요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활동을 보살피고 돕는다.



하는 일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요양보호대상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적 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돕기 등).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출 시 동행하거나 일상업무를 대행하는 개인활동 지원서비스를 한다. 말벗을 비롯하여 생활상담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등 정서적 지원서비스를 한다.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은 환자의 청결을 위해 환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병실 청소 및 침대 시트 교체, 습도 조절 등을 통해 병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한다. 식사나 간식을 챙겨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의 대소변 등 배설물을 처리한다. 환자가 검사나 외래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동행해 도와주고, 간호사의 지도에 따라 환자의 체온이나 맥박 등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보고한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환자의 집에서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불편한 노인을 돌보기도 한다.

|업무환경| 병원이나 환자의 집에 출퇴근하면서 반일제로 근무하거나 24시간 내내 숙식을 같이 하며 간병하기도 한다. 병원에 고용된 간병인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교대근무

체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은 한 명의 환자만 돌보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한 명의 환자가 아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러 명의 환자를 함께 간병한다. 간병인은 환자와 항상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항상 본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매일 상대해야 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며,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환자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허리 및 어깨 등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되는 길

간병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학력이나 조건은 없으며 대부분 간병인 관련 단체 및 협회나 여성인력개발원,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에서 간병 관련 교육을 받고 취업한다. 교육기관마다 교육과정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2~4주간의 이론 및 실습으로 개설되어 있다. 각종 민간 및 사단법인 등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기관마다 수업료의 차이가 크고 공신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성 및 흥미] 환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직업으로 배려심과 봉사심,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환자나 고령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쾌활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하므로 상황판단능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며, 의료물품이나 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

[경력 개발] 간병인은 간병인단체나 협회, 직업소개업체 등의 추천을 통해 병원이나 의원, 사회복지단체, 노인복지시설, 요양소에 취업하거나 환자의 가정에서 근무한다. 최근에는 간병인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좋은 요양보호사¹⁾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이 포함된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2019년 약 487천 명에서 2029년 약 69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04천 명(연평균 3.6%)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환자나 보호 대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근무할 수 있는 장소나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며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복지시설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사업체도 2011년 2,409개소에서 2016년 3,692개소로 약 53.2% 증가하였다. 의료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간병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6년~2018년까지 간병인과 관련이 깊은 요양보호사 합격자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약 8만 7,330명이 배출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간병인의 인력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경우에 보호자 없는 병원이 많아지므로 병원에서 보호자 대신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던 간병인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간호 인력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포함된 상태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외에 요양시설, 의원, 복지시설 등 간병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간병인 및 방문 간병인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간병인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사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생명 중시 • 단독가구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건강보험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합하면,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등 전망요인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간호조무사, 간호사,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50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11
-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22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육아도우미는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집 또는 외부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부모에게 아이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듣고 숙지한다.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연락처,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 등을 확인한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식사, 놀이, 수면, 배변 등 아이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다. 부모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업무를 종료한다.

|업무 환경| 육아도우미는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내에서 근무한다.



되는 길

육아도우미가 되기 위해 특별한 학력이나 요구자격은 없다. 다만 영아나 유아의 발달 특징이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영아나 유아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주부를 선호하는 편이다. 실제로 육아도우미는 청소경험이나 가사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편이며, 베이비시터는 의뢰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성실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영아나 유아를 맡기려는 사람이 주변의 추천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아나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유아나 아동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을 많이 알면 유리하다. 고용주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훈련기관에서 청소방법이나 요리법, 가전제품사용법 등의 관련 교육을 받고 알선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

| 적성 및 흥미 | 육아도우미에게 필요 역량은 의사소통능력이다. 부모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보는 아이와도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도우미는 남에 대한 배려,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자신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육아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인력용역 업체에 채용되어 각 가정에 파견되거나 주변의 추천을 통해 육아도우미로 고용될 수 있다.

육아도우미로 각 가정에 파견되기 전에 약 3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초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육아도우미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육아도우미는 2019년 약 107천 명에서 2029년 약 10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가구 수는 2011년 약 524만 가구에서 2019년 약 566만 가구로 9년간 약 42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유배우가구에서 맞벌이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약 44.6%에서 2019년 약 46.0%로 약 1.4%p 증가하였다. 맞벌이가구 수가 증가하고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육아도우미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가구 수 및 비율]

(단위: 천 가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맞벌이가구	5,241	5,201	5,175	5,331	5,358	5,545	5,456	5,675	5,662
비율	44.6	44.0	43.3	44.2	44.1	45.5	44.6	46.3	46.0

주: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를 의미

비율 = (맞벌이가구/유배우가구)×100

가구주는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또한 아이돌봄의 영역이 세분화·확대되면서 등·하원서비스, 종이접기 놀이, 역할놀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육아도우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육아도우미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14년 5만 4,362명에서 2019년 7만 48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서비스에서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의 수도 2014년 1만 7,208명에서 2019년 2만 4,67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육아도우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약 47만 1,30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30만 2,700명으로 9년간 약 16만 9,000명(연평균 약 4.47%)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다. 육아도우미의 양육 대상인 출생아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육아도우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단위 : 천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471.3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합계 출산율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주 :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 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출생아 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생활,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 증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출산장려정책 확대	

종합하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여가생활,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 증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확대 등은 육아도우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나, 출생아 수의 지속적 감소로 향후 10년간 육아도우미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50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512
- **관련 정보처** 여성가족부 (02)2100-6000 www.mogef.go.kr

23

청소원

청소원은 각종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공공장소나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건물청소를 담당하는 건물청소원, 차량이나 비행기, 선박 등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운송장비청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일

건물청소원은 빌딩, 사무실, 아파트, 호텔, 병원 및 기타 공공건물의 내외부를 청소하고 정돈한다.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건물의 내외부를 청소하고, 유리나 외벽, 가구 등을 청소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킨다.

운송장비청소원은 승용차, 버스, 항공기, 선박, 열차 등 운송장비의 외부를 세척하거나 내부의 쓰레기를 청소한다.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외부를 깨끗하게 닦고 광택을 내거나 표면을 연마하기도 한다. 항공기나 선박, 기관차 등은 청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종 운반장치와 특수 청소 용품을 이용하여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한다.

|업무 환경| 건물청소원은 대부분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새벽이나 야간에 일하며, 호텔, 병원 등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한다. 운송장비청소원은 업체에 따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며, 외부에서 일할 때가 많다.



되는 길

청소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및 학력, 나이 등의 조건은 없다. 건물청소원은 청소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편이며, 고용주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훈련기관에서 청소방법 등의 관련 교육을 받고 알선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

| 적성 및 흥미 | 청소원은 남에 대한 배려,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특히 청소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근무 조건과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사람을 대하는 일로서 대인관계가 좋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협조심도 갖추어야 한다.

| 경력 개발 | 건물청소원은 보통 청소인력업체에 소속되어 파견을 나가는 형태로 근무한다. 운송장비청소원은 항공기 및 선박회사 등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청소전문 대행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다. 건물청소원은 경력을 인정받으면 팀을 관리하는 반장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운송장비청소원은 해당 회사의 승진체계에 따르며,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청소용역업체를 개설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청소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청소원은 2019년 약 562천 명에서 2029년 약 60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9천 명(연평균 0.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 관련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 사업체 수가 2010년 3,187개에서 2016년 6,791개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도 2010년에 8만 2,912명에서 2016년에는 13만 2,602명으로 증가하였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2,051	2,363	2,965	3,491	3,897	4,695	4,947	5,020	4,973	5,411
종사자 수	70,854	73,684	75,177	80,246	93,281	102,953	116,090	109,442	108,656	110,00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환경적인 문제로 아토피나 피부문제가 발생하는 등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서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어 환경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소속되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자리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층빌딩과 각종 건물의 증가, 기술의 발달로 더욱 위생적인 방식으로 청소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이나 공공시설 등의 청소에서부터 가정의 카펫클리닝, 알리지 홈케어, 소파 클리닝까지 청소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전문 장비나 기술을 갖추으로써 더욱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해져 건물청소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하여 청소인력에 대한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여성의 사회진출	• 저출산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미화욕구	
과학기술 발전		• 청소장비 기계화(로봇청소기)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청소 아웃소싱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청소업 세분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최저임금 인상

종합하면,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와 청소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여성의 사회진출은 청소원의 취업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청소장비의 기계화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청소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호텔객실청소원, 육아도우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1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411
- **관련 정보처** 환경부 1577-8866 www.me.go.kr
여성인력개발센터 (02)318-6289 www.vocation.or.kr

24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환경미화원은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재활용품 수거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부품교체 및 수리작업을 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하는 일

환경미화원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고 아파트나 주택가, 상가 등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수행한다. 재활용품은 별도 수거차량에 적재하여 재활용센터나 재활공장으로 운반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한다.

재활용품 수거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부품교체 및 수리작업을 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소비자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중고물품을 접수받는다. 접수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물품(사무용기구, 사무용기기, 가전제품, 일반가구, OA기기 등)을 수거 및 매입한다. 제품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여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한다. 물건 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매장에 진열한다. 판매할 제품을 차량을 통해 운반하기도 한다. 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보증하는 업무를 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지자체마다,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활용품수거원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밤에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한다.



되는 길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환경미화원은 결원이나 증원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에서 채용한다. 시험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력시험과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체력시험은 운동장에서 모래로 가득찬 모래주머니 포대(남자 20kg, 여자 15kg)를 들고 전방에 위치한 반환점을 돌아오거나 2~3m 전방에 위치한 1.5톤 트럭에 모래주머니를 상차하기, 모래주머니 멀리 던지기, 윗몸일으키기 등 지자체별로 기준은 다르다. 환경미화원 채용은 주로 1~2년마다 선발하며 10명 이내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성 및 흥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근무 조건과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사람을 대하는 일로서 대인관계가 좋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협동심도 갖추어야 한다.

|경력 개발|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청소용역 업체에서 활동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10급 기능직에서 9급, 8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의 환경미화원은 반장, 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2019년 약 284천 명에서 2029년 약 30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5천 명(연평균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지자체가 40개소, 민간위탁업체가 69개소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국내 환경미화원의 수는 3만 7,318이며, 지자체 직영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만 6,465명(44.1%)이며, 민간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만 853명(55.9%)이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사업체 수는 2009년 517개에서 2018년 1,231개로 최근 10년간 714개(연 평균 약 15.3%)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09년 8,995명에서 2018년 1만 9,044명으로 최근 10년간 1만 49명(연 평균 약 12.4%) 증가하였다.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517	590	747	912	1,002	1,254	1,373	1,352	1,074	1,231
종사자 수	8,995	10,943	12,834	17,167	18,046	18,264	21,998	19,616	15,314	19,044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환경적인 문제로 아토피나 피부문제가 발생하는 등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서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어 환경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정용 로봇청소기가 개발되었던 것처럼, 도시 청소로봇의 개발은 환경미화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일부 시·군에서는 ‘친환경 거리 청소로봇’을 시범 보급하고 있다. 청소로봇은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청소하고, 청소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환경미화원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다. 노면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와 미세먼지, 흙먼지 등을 로봇 앞부분에 위치한 바퀴가 회전하며 빨아들이고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러나 환경미화 업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교하고 꼼꼼한 업무들이 있어, 환경미화원의 직무를 기계가 완전 대체할 수는 없어 환경미화원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물건을 사기 위해 기존에 쓰던 물건을 버리는 사례가 늘고, 폐기물을 수거하여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나이가 많이 든 고령자가 쉽게 할 수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기술 발전		• 도시 청소로봇 개발

종합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취업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청소로봇 개발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청소원, 배관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미화원, 세탁원(다림질원), 가사도우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1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412
- **관련 정보처** 환경부 1577-8866 www.me.go.kr

25

방역원(해충퇴치원 포함)

방역원은 주택가, 사업체 등의 오염, 질병, 전염병 등을 예방·살균·소독하기 위하여 약품을 배합·분무한다. 해충퇴치원은 해충의 종류 및 서식지를 파악하여 방제한다.



하는 일

방역원은 위생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배합할 약품의 종류와 배합비 등을 확인한다. 분무장치 및 살균장치를 점검하고 배합한 약품을 투입한다. 주택가나 사업체의 배수시설, 쓰레기통, 급수시설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심으로 살균 또는 소독약품을 분무하거나 살포한다.

해충퇴치원은 해충제거 대상지를 실사 후 해충종류, 예상개체 수, 이동경로 및 서식지 등을 파악하여 방역지역을 결정한다. 해충의 종류 대상지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준비한다. 제거대상 해충에 알맞은 방제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해충의 알이나 서식지 등에 대한 방제를 한다. 고객에게 해충종류, 서식지, 추가 방제 등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업무환경| 근무시간은 오전 8~9시부터 오후 5~10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방역 작업을 위하여 주로 회사 밖에서 근무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현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해충방제의 요구가 많은 여름에 바쁘고, 겨울에는 일이 바쁘지 않다.



되는 길

방역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은 없으며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채용 시 주로 운전면허 소지를 요구하며 본인 소유 차량을 통한 서비스 가능자를 우대하기도 한다. 채용 이후에 회사에서 약품에 관한 안전과 관리 방법, 작업 시 재해 예방, 작업 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이해 및 작동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적성 및 흥미 | 고객을 상대해야 하므로 친절해야 하며, 성실함이 필요하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관리 감독이 없이도 스스로 일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수행능력이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방역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은 2019년 약 18천 명에서 2029년 약 1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09년 739개에서 2018년 1,865개로 최근 10년간 1,126개(연 평균 약 16.93%)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09년 7,978명에서 2018년 2만 4,071명으로 최근 10년간 1만 6,093명(연 평균 약 22.41%) 증가하였다.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739	824	983	1,117	1,315	1,616	1,733	1,740	1,754	1,865
종사자 수	7,978	9,228	10,852	11,432	15,493	19,379	24,373	24,014	23,974	24,071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방역분야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행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학교, 음식점, 병원,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소독 등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역은 저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매년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매년 신규로 2,000명 이상이 진입하고 있다. 방역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확대에 긍정적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여 가정, 음식점, 기업 등에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 세균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역할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전문인력 배치와 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사전예방 기술 개발 등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이 요구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신규 창업 증가	
환경과 에너지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 세균 등 확대	

종합하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신규 창업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 세균 등 확대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방역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1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7991
- **관련 정보처** 환경부 1577-8866 www.me.go.kr
(사)한국방역협회 02-467-7630 ikpca.co.kr

26

세탁원

세탁원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류나 침구류 등을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 후 건조기를 사용하고 다림질하며,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드라이클리닝한다.



하는 일

세탁원은 세정액,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관리하고, 세탁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며, 고객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들은 아파트, 주택 등을 방문하여 세탁할 의류를 직접 수거하거나 고객이 의뢰한 세탁물을 섬유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고 얼룩 상태나 섬유의 종류에 따라 세탁방법을 결정한다. 세제나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얼룩을 제거하고, 드라이클리닝 또는 물세탁 방법을 선택하여 깨끗하게 세탁한다. 세탁이 끝나면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어 건조시키고 필요한 부분을 수선한 후 다림질하여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요즘에는 세탁소에서 전용세탁기를 활용해 운동화나 어그부츠 등 신발을 세탁하는 곳도 많다. 옷을 줄이거나 늘리고, 헌옷을 새로운 형태로 리폼하는 등 수선업무를 함께 하기도 한다.

세탁원 중에는 의류 외에 일반 세탁소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침대나 소파, 카펫 등을 세탁하기 위해 가정집이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을 출장세탁원이라 하는데, 이들은 특수 세탁방법에 따라 자외선 살균이나 청소, 습식세탁, 항균 및 살균처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 등 세탁물의 소재와 특성에 적합한 세탁방법을 이용하여 세탁한다. 호텔·리조트 내의 세탁시설에서 호텔투숙객의 세탁물, 호텔 객실의 각종 침구류 등을 담당하거나, 병원이나 기업 또는 학교기숙사의 내부 세탁시설에서 일하며 해당 업체의 세탁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고가의 제품으로 세탁이나 수선에 주의를 요하는

명품제품이나 가죽, 구두 등 일정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세탁하고 수선해주는 특수세탁업체에서 근무하는 세탁원도 있다.

보통 소규모 세탁소에서는 1~2명의 세탁원 및 다림질원이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일련의 작업을 주로 혼자서 수행하며, 체인점 형태의 대형 세탁업체에서는 세탁물 수거와 배달만 진행하고, 세탁은 세탁공장에 보내서 처리하기도 한다. 대규모 세탁업체에서는 세탁물의 수거, 분류, 얼룩제거, 기계작동, 다림질, 수선, 향균 및 포장 등의 작업이 분업화되어 있어 자신이 맡은 업무만 담당한다.

| 업무 환경 | 일반적으로 고객이 출퇴근길에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아갈 수 있도록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세탁소가 많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세탁물이 많아져 더 바빠질 수 있으며, 세탁물 배달 시 세탁물의 무게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 있다. 세탁 과정에서 세정액이나 얼룩제거제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므로 피부질환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스팀다리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되는 길

세탁원은 섬유의 종류와 특성, 세탁 방법, 세탁 용어 등의 지식뿐 아니라 관련 법규나 세탁약품 등의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며, 의복관리방법과 물세탁방법, 다림질방법, 세탁기계이용법, 드라이클리닝방법 등 세탁과정 등의 기술적 지식을 습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탁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세탁 기술을 습득하거나 세탁기술학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해 세탁 기술을 배운 후 현장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선업무의 경우 사설학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의류리폼, 수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자격 세탁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다림질, 드라이 등의 업무는 계속 서서 동일 작업을 반복하게 되므로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세탁물의 오염을 빨리 파악하여 적합한 세제 등을 사용해 제거할 수 있는 시력, 민첩함이 요구된다. 고객을 상대하므로 서비스마인드를 갖춰야 하며, 의류의 소재가 고급화되고, 새로운 섬유가 등장하면서 세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단골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고객관리능력, 서비스 정신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개인세탁소, 세탁체인점의 세탁공장에 취업하여 세탁기술을 습득한 후 세탁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설학원 또는 대형 세탁업체의 창업교육을 받은 후 세탁소를 운영한다. 이 외에 병원, 학교, 기숙사, 호텔, 섬유생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며 수선, 봉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양장점이나 수선점을 개업하기도 한다. 세탁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고 1~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가 많으므로 별도의 승진체계는 없다.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갖춘 세탁공장이나 대규모 업체의 경우 다림질, 드라이 등의 업무 경력을 쌓은 후 공장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세탁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세탁원 및 다림질원은 2019년 약 43천 명에서 2029년 약 4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4%)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세탁업 사업체의 수는 2009년 3만 7,533개에서 2018년 3만 3,528개로 최근 10년간 4,005개(연 평균 약 1.19%) 감소하였고, 세탁업 종사자 수는 2009년 6만 6,022명에서 2018년 6만 2,867명으로 최근 10년간 3,155명(연 평균 약 0.53%)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단독사업체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독사업체의 수는 2009년 3만 7,404개에서 2018년 3만 3,150개로 4,254개 감소하였다. 반면, 공장 형태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세탁소는 증가하고 있는데, 본사, 본점 등과 종장, 지사(점), 영업소의 수는 2009년 129개에서 2018년 378개로 249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세탁소에서는 같은 양의 세탁물을 세탁할 때, 단독사업체 세탁소보다 더 적은 세탁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세탁소의 지속적인 증가는 세탁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탁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계	37,533	66,022	37,008	64,778	36,819	64,649	36,232	64,416	35,775	64,626
단독 사업체	37,404	64,951	36,853	63,049	36,649	63,241	36,035	62,973	35,542	62,678
본사, 본점 등	8	422	22	765	21	462	23	456	29	919
공장, 지사(점), 영업소	121	649	133	964	149	946	174	987	204	1,02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계	34,904	63,617	33,434	61,014	33,407	62,765	33,176	60,430	33,528	62,867
단독 사업체	34,643	61,653	33,171	59,179	33,125	60,579	32,845	57,863	33,150	60,063
본사, 본점 등	36	761	31	705	34	853	36	998	44	1,079
공장, 지사(점), 영업소	225	1,203	232	1,130	248	1,333	295	1,569	334	1,725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현재 세탁업 종사자는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들은 향후 10년 내에 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 세탁원 종사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장년층이 이들의 빈자리를 메워 세대 교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청년층에게 세탁원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층은 체력과 최신 기계 및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고령의 세탁원보다 업무 효율이 높기 때문에 1:1로 종사자 수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류의 캐주얼화, 명품화, 워셔블한 소재 개발 등 의류착용 패턴의 변화와 가정용 세탁기기의 발전으로 가정에서 직접 세탁하는 것이 용이해졌기에 세탁 전문업소의 일감은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셀프드라이클리닝전문점, 셀프빨래방 등 새로운 세탁시설의 등장도 세탁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공장 형태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등장하면서, 버튼 하나로 다림질을 하는 등 기계화·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여러 명의 세탁원이 하던 작업을 소수가 처리하고 있어 세탁원의 인력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정,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직접 세탁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업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의류 중심의 기존 세탁소 외에 명품 핸드백, 카펫, 커튼 등의 고급의류와 신발, 봉제인형 등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세탁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화된 전문기술을 익히거나 수선업무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시간 증시	
과학기술 발전		• 세탁기기 발전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프랜차이즈 증가

종합하면, 전문세탁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 종사자의 고령화와 세탁기기의 기계화 및 자동화, 대형 프랜차이즈 세탁소의 등장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탁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살균세탁원, 호텔세탁원, 세탁보조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15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992
- **관련 정보처**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812-1142~3 www.cleaning.or.kr

27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는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의 가사 업무를 대행한다.



하는 일

가사도우미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고용되어 집안일을 돕는다. 가정의 화장실, 거실 등 집안을 청소하고, 가재도구의 먼지를 제거하는 등 집안을 정리·정돈한다. 의복, 이불 등을 세탁·건조하고 다림질한 후 정돈한다. 요청에 따라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등의 가사업무를 수행한다. 우편물을 보관하고,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며, 가정용품의 구입을 대행한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 혹은 노인을 돌봐주기도 한다.

|업무 환경| 가사도우미는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내에서 근무한다. 가사도우미는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고 허리를 굽히는 등 계속해서 신체를 움직여 일해야 하므로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 있다.



되는 길

가사도우미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및 학력, 나이 등의 조건은 없다. 가사도우미는 가사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편이며, 고용주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훈련기관에서 청소방법이나 요리법, 가전제품 사용법 등의 관련 교육을 받고 알선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

■ **적성 및 흥미** | 가사도우미는 남에 대한 배려,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사람을 대하는 일로서 대인관계가 좋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협조심도 갖추어야 한다. 가사도우미는 자신의 집안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사 일을 대할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인력용역업체에 채용되어 각 가정에 파견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가사도우미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2019년 약 53천 명에서 2029년 약 52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취업자 수는 2013년 약 173천 명에서 2020년 98천 명으로 최근 7년간 약 75천 명(연평균 약 6.2%) 감소하였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단위 : 천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업자수	173	116	82	70	64	48	75	9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맞벌이가구 수는 2011년 약 524만 가구에서 2019년 약 566만 가구로 9년간 약 42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유배우가구에서 맞벌이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약 44.6%에서 2019년 약 46.0%로 약 1.4%p 증가하였다.

[연도별 맞벌이가구 수 및 비율]

(단위 : 천 가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맞벌이가구	5,241	5,201	5,175	5,331	5,358	5,545	5,456	5,675	5,662
비율	44.6	44.0	43.3	44.2	44.1	45.5	44.6	46.3	46.0

주 :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를 의미

비율 = (맞벌이가구/유배우가구)×100

가구주는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고령층의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서 따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생활로 인해 집안청소나 가사를 가사도우미에게 맡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면 집안일을 돌보는 가사도우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산모신생아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이나 병에 걸린 노인들을 위한 실버도우미, 치매도우미 등도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 인력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전직으로 인한 고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가사도우미 중개플랫폼이 발달하고 중개업체가 생기면서 이용자들의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청소도구의 기계화, 로봇청소기의 보급 확대 등은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적인 저출산은 가사도우미의 고용 증가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여성의 사회진출	• 고령화, 저출산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맞벌이 가구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중개플랫폼 발달	• 청소도구의 기계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최저임금 인상

종합하면, 여성의 사회진출, 중개플랫폼 발달은 가사도우미의 취업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증가, 청소도구의 기계화나,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가사도우미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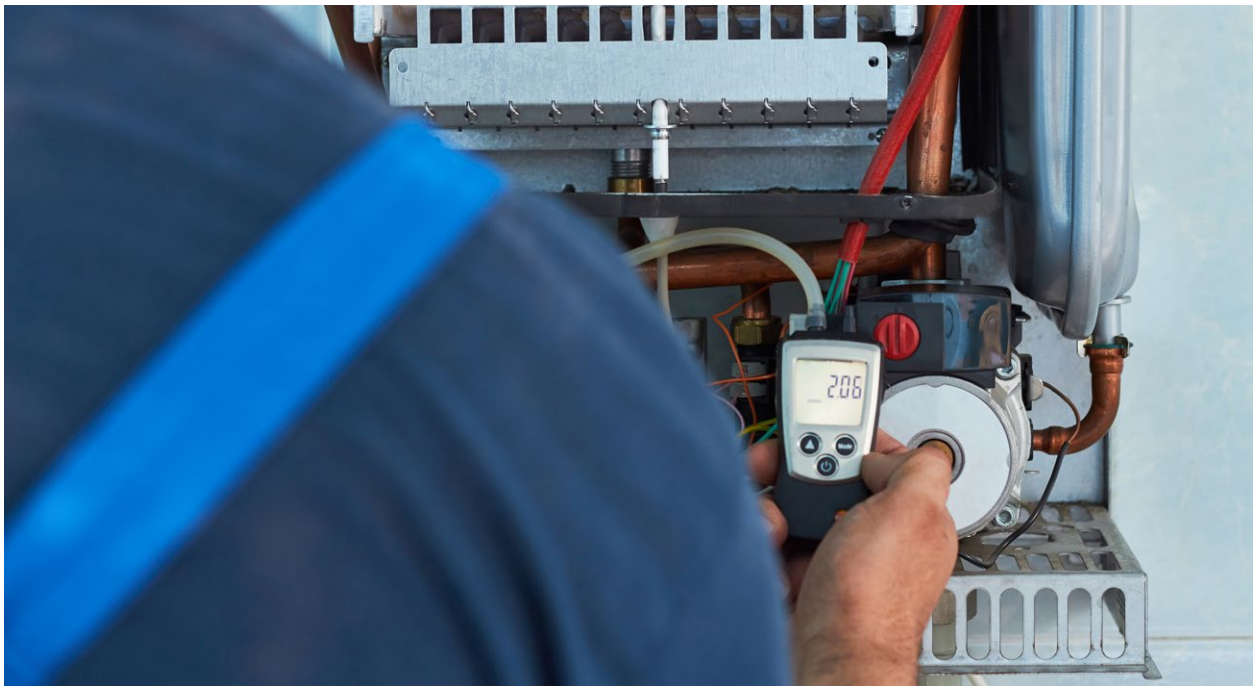
관련 정보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16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511
- **관련 정보처** 환경부 1577-8866 www.me.go.kr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02)318-6294 www.vocation.or.kr

28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은 가스·수도·전력 등을 사용한 곳을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량을 기록한다.



하는 일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은 정기적으로 담당구역의 수용가(소비자)를 방문한다. 검침은 주택 난방용 세대에 대해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취사전용 세대), 안전점검은 취사전용 세대의 경우 1년에 1회, 취사난방 세대는 1년에 2회 하도록 법정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은 계량기의 지침을 읽고, 기록장치에 사용량을 기록한다. 그리고 계량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소비자가 요금징수와 계산방법,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답변하기도 한다. 불량계량기 또는 도용 사항을 점검·확인하기도 한다.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가스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등을 점검하여 안전상태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 환경| 계기검침 및 가스점검을 위하여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주로 6~10시간이다. 업무특성상 걷는 일이 빈번하며,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비좁은 공간에 자주 노출된다. 사람의 키가 닿지 않는 높이에 있는 계량기에서 측정을 해야 하기도 하고, 측정을 위해 담을 넘어야 하는 곳도 있다. 어떤 곳은 계량기가 위치한 벽이 옆 건물에 바짝 붙어있어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으며, 온갖 집기가 아무렇게 나뒹구는 장소도 많아 넘어져 다칠 위험도 있다. 고객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불쾌하거나 무례한 사람을 다수 상대해야 하고, 갈등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한다.



되는 길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은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현장에서 숙련자를 보조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 적성 및 흥미 | 많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검침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성실함과 끈기가 요구된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도덕성과 기본적인 수 계산능력 등이 요구된다.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성, 꼼꼼함, 신뢰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 경력 개발 | 공채나 구인광고를 통해 가스, 수도, 전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체 및 각 지역 영업소에 채용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은 2019년 약 12천 명에서 2029년 약 1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나 전기 혹은 가스 등의 사용량을 점검하는 계기검침을 하기 위해 아직까지 사람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향후에는 원거리에서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검침을 부착한 건축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계량기는 기계식(막식) 계량기와 다기능계량기(아날로그 원격, 디지털 원격,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누출감지용계량기 등)로 구분되는데, 기계식 계량기가 전체 계량기의 96% 정도이며, 다기능계량기는 5~6년 전부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6년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무선검침, 정밀계량, 가스누출 실시간 감지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계량기)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1600만 호의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전량 무선원격검침계량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2019년 11월 산자부는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이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계량기인 가스 AMI(스마트 가스계량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범보급 실증사업'을 실시하며 가스 AMI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의 취업자 수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원격 가스계량기 보급 확대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원격 가스계량기 보급 확대

종합하면, 원격 가스계량기 보급 확대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안내원, 검표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2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921
- **관련 정보처**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www.motie.go.kr

29

주차관리·안내원

주차관리·안내원은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요금정산 시스템, 주차타워 등)을 운용·관리한다



하는 일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입차 시 주차 발권기로부터 주차권(주차일시, 입차시간, 입구번호 등이 기록)을 고객에게 배부한다.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조작한다. 차량번호 및 주차예정시간을 기록한다. 주차장 내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주차를 위하여 주차유도 및 주차위치를 안내한다. 주차공간이 혼잡할 경우 차주를 대신하여 주차하기도 한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직접 순찰하면서 차량사고(도난, 주차 시 사고 등), 열린 창문을 점검한다. CCTV로 종합적인 주차관리 및 차량사고(도난, 주차 시 사고 등)을 감시하기도 한다. 주차권 발매기 고장 시 입차시간, 고장난 곳의 입구번호 및 예비주차권의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고객에게 전달한다.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노상의 유료 주차장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기도 하며 일정요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은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과 같이 주간에만 운영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오전 8~9시부터 오후 5~10시에 이르기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만, 24시간 교대근무제로 근무하기도 한다. 교대제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 환경 특성상 주차관리 업무는 유해한 자동차의 배기가스, 유해 분진, 먼지, 소음 등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지상·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여름철 한낮의 태양열과 겨울철의 추운 외기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비좁은 주차요금 징수 부스 공간에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되는 길

특별한 학력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며, 공채나 구인광고의 수시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주차관리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다. 단 건물에 따라 직접 주차를 해야만 하는 여건이 많아서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해 채용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적성 및 흥미] 육체적으로 큰 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좋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성실함과 도덕성 등이 요구된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스트레스 감내성과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하려는 책임감과 진취적인 성격이 중요하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주차관리·안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주차관리·안내원은 2019년 약 43천 명에서 2029년 약 40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3천 명(연평균 -0.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이 많아지고 도로가 복잡해지면서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차장에서는 주차하는 차들을 유도하고 주차비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주차장에서건 필요하다. 국내 옥외주차장의 수는 2010년 1만 441개에서 2019년 1만 4,196개로 최근 10년간 3,755개(연 평균 약 4.00%) 증가하였고, 자동차정류장의 수는 2010년 603개에서 2019년 646개로 최근 10년간 43개(연 평균 약 0.79%) 증가하였다.

[국내 옥외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 수]

(단위 :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옥외 주차장 수	10,441	10,890	11,455	11,916	12,193	13,114	13,295	13,450	13,940	14,196
자동차정류장 수	603	615	624	630	633	654	656	642	646	646

주 : 자동차정류장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전세버스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됨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그러나 점차 주차장이 대형화되고 주차비 무인 자동정산시스템이 생기면서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차량 및 주차장 수 증가	
과학기술 발전		• 자동정산시스템 입 확대

종합하면, 차량 및 주차장 수 증가와 주차비 무인 자동정산시스템 도입 확대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주차관리·안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검표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2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923
- **관련 정보처**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www.motie.go.kr

30

검표원

검표원은 극장, 유원지, 경기장 등에서 입장객의 표를 검사하고 출입객을 관리한다.



하는 일

검표원은 출입문에서 고객의 입장권을 검사·확인하거나 표를 받는다. 출입객, 외래자를 관리한다. 부정출입자를 체크한다. 매표소 또는 주변 계시판을 관리하고 각종 일지를 작성한다. 부대시설 안내 및 고객의 문의사항에 응대한다.

|업무 환경| 검표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오전 8~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폐장 시까지 근무하기도 하며, 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하기도 한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수행 중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불쾌하거나, 화나거나,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다.



되는 길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은 없다.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계 및 판독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면 입직이 가능하다. 취업 후에 현장에서 업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관련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적성 및 흥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성, 협조성, 스트레스 감내성이 높은 성격을 가지면 좋다. 사회형, 진취형의 흥미유형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아르바이트로 오랜 시간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검표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영화관 수는 2010년 292개에서 2019년 513개로 10년간 221개(연평균 약 8.41%) 증가하였고, 전국의 스크린 수는 2010년 2,003개에서 2019년 3,079개로 10년간 1,076개(연평균 약 5.97%) 증가하였다.

[연도별 전국 영화관(극장) 및 영화 스크린 수]

(단위 :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극장 수	292	295	314	333	356	388	417	452	483	513
스크린 수	2,003	1,984	2,081	2,184	2,281	2,424	2,575	2,766	2,937	3,079

주 : 집계 대상 극장은 전국 상설 영화관으로, 특수 목적의 비상설 상영 시설 및 자동차극장은 제외함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연구통계-산업통계상세-전국 극장 현황(전국 영화관 현황)

그러나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중 극장상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3년 2만 1명에서 2018년 2만 985명으로 5년간 984명(연평균 약 0.9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화관 및 스크린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장상영 분야 종사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연도별 전국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내 극장상영분야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0,001	20,423	19,956	19,347	19,455	20,985
정규직	4,466	5,403	6,051	9,394	17,985	12,743
비정규직	15,535	15,020	13,905	9,953	1,470	8,029
파견직	-	-	-	-	-	21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230&-conn_path=13, 재구성

검표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전국의 유원시설의 수도 2010년 228개에서 2019년 246개로 10년간 18개(연 평균 약 0.88%)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원지에서

종사하는 검표원의 취업자 수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전국 유원시설 수]

(단위 :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원시설 수	228	233	238	244	246	253	248	241	244	246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038A&-conn_path=l3

무인발권기 및 자동검표시스템을 도입하는 영업장이 증가하면서 검표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으로 입장할 수 있는 태그방식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검표원의 고용 감소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 무인발권기 및 자동검표 시스템 도입

종합하면, 무인발권기 및 자동검표시스템 도입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검표원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 관련 직업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관리·안내원
-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62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9422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일러두기

1. 발간 목적
2. 수록직업 선정 및 분류체계
3. 일자리 전망 방법
4. 직업정보 내용



일러두기

1. 발간 목적

『2021 한국직업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을 필두로 금융·보험, 교육 및 연구, 법률·경찰·소방,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디자인 및 방송, 개인 서비스 관련직 9개 분야 220여 개 직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본 책자는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청소년 및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진로와 진학을 상담하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직업교육(훈련)교(강)사, 일자리 정책 입안자,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1 한국직업전망』은 하는 일, 되는 길 일반적인 직업정보 외에 향후 10년 간(2019~2029년)의 일자리 전망과 이러한 전망의 중요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미래의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수록 직업 선정 및 분류체계

■ 수록 직업 선정 기준

『2021 한국직업전망』의 수록 직업 선정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세분류(4-digits) 직업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3만 명)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직업정보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넷 직업·진로(한국 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 단위를 기본 정보단위로 사용하였다. 다만, KECO의 세분류 직업 중 승진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관리직과 직업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낮은 직업(예: 안마사)은 제외하였다. 또한 음료조리사 및 바텐더, 피부 및 체형관리사 등과 같이 직무가 유사하거나 식당 서비스원처럼 직업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낮은 직업들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소분류(3-digits) 수준에서 통합하여 제공하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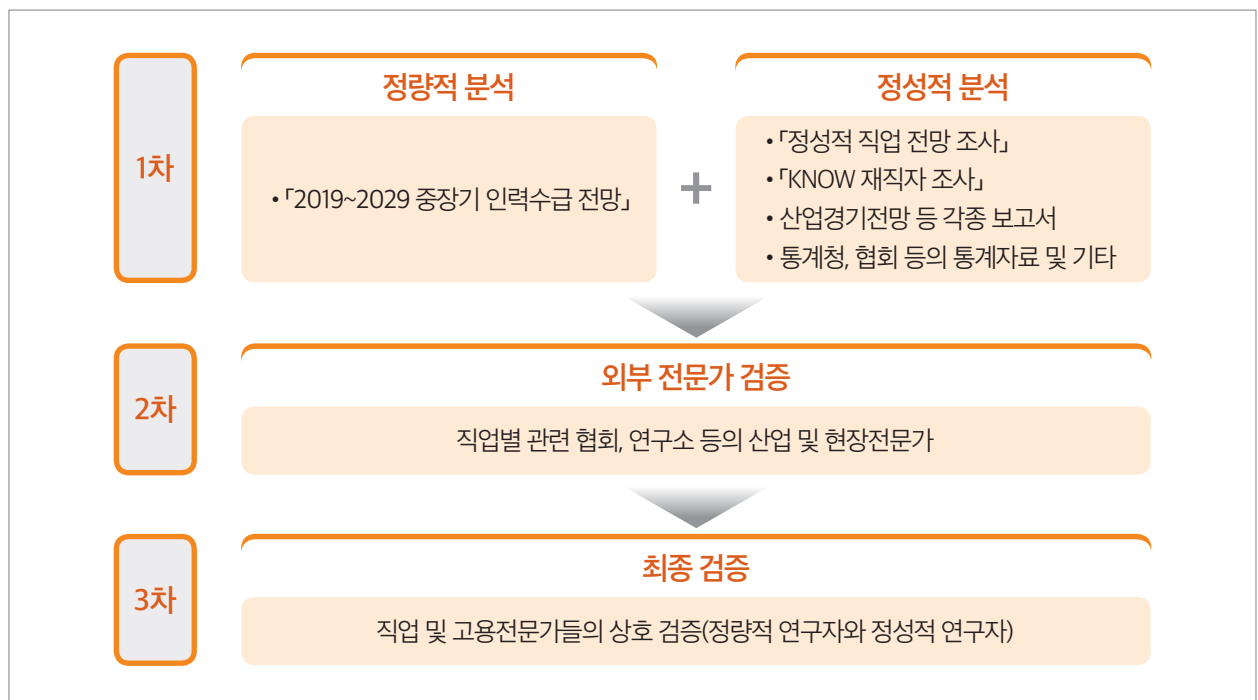
[표 4] 「2019 한국직업전망」과 「2021 한국직업전망」 수록 직종 비교

	2019 한국직업전망	직업 수	2021 한국직업전망	직업 수
1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8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42
2	금융·보험 관련직	7	금융·보험 관련직	14
3	교육 및 연구 관련직	9	교육 및 연구 관련직 ¹⁾	11
4	법률·경찰 및 소방 관련직	8	법률·경찰 및 소방 관련직	11
5	보건·의료 관련직	18	보건·의료 관련직	38
6	사회복지 관련직	5	사회복지 관련직	6
7	문화·예술 관련직	14	문화·예술 관련직	27
8	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	11	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	30
9	운송 및 운송 관련직	9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	-	
11	경비·미용 및 개인 서비스 관련직	16	개인 서비스 관련직	45
12	건설 관련직	15	-	
13	기계·재료 관련직	16	-	
14	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직	17	-	
15	음식서비스 및 식품가공 관련직	6	-	
16	화학·섬유·환경 및 공예 관련직	14	-	
17	농림어업 관련직	5	-	
총계		195		224

* 주 1) 이공계열 연구직 제외

3. 일자리 전망 방법

[그림 2] 일자리 전망 절차



『2021 한국직업전망』은 향후 10년간(2021~2030년) 해당 직업의 일자리 규모에 대한 전망과 변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증감률을 -2% 미만(감소), -2% 이상 -1% 이하(다소 감소), -1% 초과 +1% 미만(현 상태 유지), 1% 이상 2% 이하(다소 증가), 2% 초과(증가) 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를 도출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과정

먼저, 정량적 전망과 정성적 전망을 종합 분석하여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1차 안을 도출하였다. 정량적 전망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참고하였고, 정성적 전망은 「2020년 정성적 직업 전망 전문가 조사」, 「KNOW 재직자 조사」, 산업경기 전망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통계청·협회 등의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직업별 일자리 전망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9-2029」(한국고용정보원, 2020)의 취업자 증감률(2019~2029년)을 바탕으로 하였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제시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에는 전문가 대상 「정성적 직업 전망 조사」, 「KNOW 재직자 조사」 등의 정성적 조사 결과와 관련 협회, 연구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였다.

일러두기

「2020년 정성적 직업 전망 조사」는 한국의 대표 직업 250여 개에 대해 직업별로 경력 5년 이상의 현직자 또는 학계, 협회 등의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주제초점집단면접법(FGI)과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 자기기입식 설문법 등을 통해 고용변동 요인별 전망, 직무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2019년 한국직업정보(KNOW) 재직자 조사」는 KNOW의 630여 개 직업별로 경력 1년 이상인 재직자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지식,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환경, 일자리 전망 등을 조사한 것이다.

② 2차 과정

1차 분석 과정을 통해 정리된 전망 결과와 그 요인에 대해 직업별로 관련 협회나 연구소 등의 산업 또는 현장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1차 안과 배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수정하였다.

③ 3차 과정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증받아 2차로 도출된 전망 결과에 대해 직업 및 고용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연구진이 토론을 통해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쳤다. 특히,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9-2029」 결과와 연구진 분석(정성적 전망 등)에 큰 차이가 있는 직업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여 수정·협의하였다. 이상의 3차에 과정을 통해 최종 전망 결과를 확정하였다.

4. 직업정보 내용

『2021 한국직업전망』은 직업별로 대표 직업명, 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길(교육 및 훈련, 관련 학과, 관련 자격 및 면허, 입직 및 경력개발), 적성 및 흥미, 성별/연령/학력 분포 및 평균 임금, 일자리 전망, 관련 직업, 직업코드, 관련 정보처 등으로 구성된다.

직업명

01 기업고위위원(CEO)

하는 일

일자리 전망

업무 환경

되는 길

적성 및 흥미

경력 개발

관련 정보

■ 일반 직업정보

○ 대표 직업명

직업명은 KECO의 세분류(4-digit)나 워크넷 직업·진로(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세세분류(5-digit) 수준의 명칭을 가능한 준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직업정보나 통계자료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러 세분류 직업들이 합쳐진 경우에는 소분류 수준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 불리는 명칭이 대표 직업명과 다른 경우는 대표 직업명과 병기 하거나 내용 중에 포함하였다.

일러두기

○ 하는 일

해당 직업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러 직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부 직업별로 하는 일을 서술하였다.

○ 업무 환경

해당 직업 종사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근무형태(교대근무, 야간근무 등), 근무장소,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산업안전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력과 전공,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 관련 학과 : 일반적 입직 조건을 고려하여 대학에 개설된 대표 학과명을 수록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직업 전문학교의 학과명을 수록하였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수록하였다. 그 외에 민간공인자격이나 외국자격 중 업무수행이나 취업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도 수록하였다.
 - ▶ 국가기술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기술·기능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기술계 자격은 산업기사→기사→기술사 단계로 구성되며, 기능계 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단계로 구성된다.
 - ▶ 국가전문자격은 정부부처, 즉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주관하는 자격으로, 개별 부처의 필요로 신설 및 운영된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국토교통부의 건축사,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 등이 있다.
 - ▶ 공인민간자격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자격이다.
- 입직 및 경력개발 : 해당 직업에 입직(入職)하는 방법, 채용 전형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활동 분야(취업처)나 이·전직 가능 분야를 수록하였다. 직업에 따라 승진이나 창업 등 경력개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 적성 및 흥미

해당 직업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한 적성, 성격, 흥미, 지식 및 기술 등을 수록하였다.

■ 일자리 전망

○ 일자리 전망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 해당 직업의 일자리 규모에 대한 전망과 변화 요인을 기술하였다. 일자리 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을 -2% 미만(감소), -2% 이상 -1% 이하(다소 감소), -1% 초과 +1% 미만(현 상태 유지), 1% 이상 2% 이하(다소 증가), 2% 초과(증가) 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 일자리 전망 요인

일자리 전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정부정책 및 법·제도 변화 등 8가지로 범주를 바탕으로 하되, 직업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일자리 전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정성적 직업전망 조사」, 「KNOW 재직자 조사」의 일자리 전망 조사, 산업경기 전망 등 각종 보고서, 통계청·협회 등의 통계자료, 산업전문가 자문, 현장전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 유의사항

직업별 일자리 전망 자료는 진로 및 직업 선택 시,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란다. 일자리 전망은 미래의 불확실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가 직업정보

○ 관련 직업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에서 서비스하는 약 700개 직업을 중심으로 자격이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혹은 추가 교육훈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직업을 제시하였다.

○ 직업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세분류(4-digits) 코드를 제공하였다. 해당 직업이 소분류(3-digits) 수준이라면 하위에 포함된 직업코드 여러 개가 제공된다.

○ 관련 정보처

직업정보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협회, 학회 등의 기관 명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하였고, 유용한 웹사이트도 수록하였다.

2021 한국직업전망

2021 Korea Occupational Outlook

집필진 | 박가열(PM), 김종진, 이랑, 최기성, 최영순,
권윤섭, 김진관, 이은수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 나영돈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주 소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el. 1577-7114

제 작 | 전우용사촌(주) Tel. 02-426-4415

ISBN | 978-89-6331-955-1 93330



※ 저작권법에 의거, 허락 없이 이 책의 내용 및 그림을 무단으로
발체·복제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Korea Occupational Outlook

2021